임진록
임진록

임 진 록

과학 출판사
동방 도서 총 편집부
모쓰크바 — 1966

편집 및 서문—황 동민

차 례

소설집 《임진록》에 대하여

이 책에는 《임진록》을 비롯하여 풍부한 인민성을 띤 소설 6편을 수록하였다.

여기에 실린 소설들은 주로 17—18 세기에 출현하였는바 처음부터 일반 조선 사람들이 리해하기 쉬우며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조선 말로 씌여진 작품들이다. 이 소설들은 오랜 세월을 전해 내려 오는 구전 설화들을 기초로 하고 인민적 립장에서 애국적이며 반봉건적인 모찌브를 광범히 도입한 집체적 작품들이다.

전래하는 구전 설화들이 인민들의 집체적이며 직접적인 참가에 의하여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된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기타 중세기 조선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본 소설집에 묶은 《임진록》, 《박씨 부인전》, 《토끼전》, 《장끼전》 등의 작자와 창작 년대를 밝힐 수 없는 것은 이미 다 아는 바이다.

《임진록》은 조선 인민이 일본 봉건적 침략자들의 침공으로부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진행한 1592—1598년 영웅적 인민 항전을 주제로 한 서사적 작품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6 세기 말에 일본의 정

치, 경제 및 군사상 최고 실권을 장악한 풍신 수길 (일본 말로 또요또미 히데요시)은 조선, 명 나라 (중국), 남방 여러 나라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광분하고 있었다. 그는 이 흉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0만의 대군, 수천여 척의 병선, 많은 무기, 군량 기타를 십년 동안이나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싸우면 꼭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점령하며 벌써 천하 (일본 전국——필자) 가 크게 다스려졌다… 사람의 일생이 백년에 차지 않는데 어찌 답답하게 이곳 (일본 군도——필자)에 살 수 있겠는가… 바로 대 명국 (중국——필자)에 뛰여 들어가서 우리 나라의 풍속으로써 4 백여 주 (중국——필자)를 억만년이나 두고 다스리려고 생각한다… 내가 대명에 들어 가는 날 ‹조선 국왕이› 자기 군인들을 데리고 병영에 오면 린국의 동맹을 진실히 맺는 것이다. 나의 소원은 다른 것이 없고 다만 좋은 이름을 3국 (중국, 조선 및 일본——필자)에 날릴 따름이다…» 라고 풍신 수길은 1590년에 조선 왕에게 보낸 서한에 썼다.

조선 정부는 이러한 일본 침략자들의 괴수 수길의 위협적 요구를 절대 거절하면서 «우리 나라와 중국과는 마치 한 집안과도 같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까닭에 우리더러 명 나라 침략의 길 안내인이 되라고 하느냐? 그따위 허튼 수작은 애당초에 그만두어라…» 고 회답하였다.

임진년 4월 (양력 1592년 5월)에 침략 전쟁의 준비를 끝마친 수길은 조선의 불의 침공을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20만의 침략군이 부산에 상륙한지 두달도 못 되는 사이에 서울, 평양 기타 조선의 주요 도시와 함경도까지의 광대한 지대를 강점하고 무고한 조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들의 땅과 재산을 빼앗고 도시와 농촌을 불지르는 등 갖은 야수적 만행을 다하였다. 뿐만 아니라 놈들은 평화적 조선 사람들의 귀를 머리 대신으로 베여

다가 자기 나라 수도에 귀무덤을 만들고 승전의 «기념물» 이라고 자랑까지 하였다.

이렇게 불시에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전 나라가 거이 무너지고 인민들의 생활이 완전히 파괴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의 지배 계급들과 통치배들은 적의 침공을 반대하여 싸우지않고 다만 자기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아직 왜놈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지역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거기에 가서도 그들은 적을 방어할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 토지와 정권 쟁탈을 위하여 봉건—량반 계급 내부에서 이미 전개되여 오던 투쟁, 이른바 «삼색 당쟁» («서인», «남인» 및 «북인» 등 세당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오로지 인민들만은 조국의 자유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직접 손에 무기를 들고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여 결사적인 싸움에 나섰다. 그때 맨 처음으로 인민 항전의 불길을 일으킨 사람은 리 순신 (1545—1598) 장군이였다. 그는 16 세기 조선이 낳은 천재적 전략 전술가이였으며 조선 인민이 력사적으로 자랑하는 «거북선»을 제조한 사람이였다. «나는 일찌기 섬 오랑캐 (일본놈들——필자)의 변란이 있을 것을 념려해서 따로 거북선을 제조하였습니다. 앞에는 룡의 머리를 만들어서 아가리로 화포를 놓으며 등에는 쇠꼬챙이를 박았습니다. 배 안에서는 밖을 능히 내다보나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 보지 못 합니다. 비록 수백 척되는 적선이라도 그 속에 뚫고 들어가서 화포를 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리 순신은 왜적과의 첫 전투에서 승리한 후 조선 정부에 보낸 보고서에 썼다. «거북선»의 선체는 철갑으로 덮였으므로 적의 총포가 어떻게 그것을 손상할 수 없었다. «거북선»과 같은 전선은 그때까지 일본 뿐만 아니라 전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전연 없었다.

---

* 리순신 장군 전집, 평양, 1959, 39 페지

리 순신 장군 지휘 아래의 조선 수군들은 옥포 전투를 비롯하여 바다에서 련속적으로 일본 싸무라이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특히 한산도 대승리는 일본 침략자들의 《수륙 병진》* 계획을 완전히 파탄시켰다. 한산도 전투 후 일본 수군 주력 부대가 분쇄되였으므로 왜적들은 수로로 서쪽으로 진격할 수 없게 되였다. 이로 말미암아 평양과 길주, 종성 기타 주요 지대를 강점하고 있던 일본 륙군은 아주 곤란한 환경에 처하였다. 그리하여 이 한산도 대승리는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는 인민 해방 전쟁에 있어서 전환기를 조성하였다.

한산도 대승리에 고무 격려된 조선 인민들은 무장 투쟁, 이른바 의병 투쟁을 전개하였다. 방방 곡곡에서 의병 부대들이 조직되였는데 그들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압박 받던 농민, 노비, 백정들이였다. 의병 부대의 선두에는 주로 애국적 유생들과 지방 하급 관료들이 섰다.

임진년에 의병 투쟁의 첫 불길을 일으킨 사람은 곽재우였다. 그는 왜적이 부산을 강점하는 것을 보자 자기 고향 사람들을 모아 놓고 《적들은 부모 처자들을 침범하려고 한다. 우리 마을에는 젊고 싸울 만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있다. 만약 이들이 한 마음으로 궐기하여 정 나루를 지킨다면 우리의 향토는 보위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고 말하면서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는 인민 항전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의 호소에 의하여 궐기한 경상도

---

* 《수륙 병진》이란 수군과 륙군이 합세하여 서쪽으로 내려치려고 꾀하였던 일본 싸무라이 괴수 풍신 수길의 침략 전쟁의 기본 계획을 가르침이다. 수길은 조선 침공을 개시하면서 륙군으로 하여금 경기도, 평안도 및 함경도들을 점령케 하고 수군으로 하여금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및 평안도의 해안 지대를 침략하여 《수륙 병진》으로써 전 조선을 점령하고 중국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

의령 고을 애국적 인민들은 의병 부대를 조직하고 곽 재우를 의병장으로 추대하였다. 이렇게 조직된 의병 부대는 곽 재우의 지도 아래에서 수 많은 왜적을 소탕하고 여러 고을을 해방시켰다. 의병장 곽 재우는 인민 항전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침략자를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의병 부대 지휘에 있어서 능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번 전투에서 의병들의 선두에 서서 아주 용감히 싸웠다. 원래 곽 재우가 무인은 아니였으므로 아무 군사 경험도 없었으나 일본 싸무라이들과 싸우는 행정에서 탁월한 전략가로, 군사 지휘관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의병들은 물론이요 전 인민들까지 그를 《홍의 장군》(《붉은 옷을 입은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매우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곽 재우 지휘 하의 의병 부대 뒤를 이어 의병 운동이 경상도 여러 고을에서와 전라, 충청, 경기, 평안 및 함경 제도에서도 격렬하게 일어났다. 함경도 일대 의병 대장 정 문부, 삼남 의병장들인 고 경명, 조 헌, 김 천일, 김 덕령 등은 아주 명성을 떨친 용사들이였다.

이렇게 조선 인민들은 7년 (1592—1598) 동안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여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웠다. 그들은 마침내 조선에 침공한 일본 싸무라이들을 격멸 구축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였다. 이 영웅적 인민 항전을 가르쳐 임진 조국 전쟁이라고 한다.

임진 조국 전쟁의 전 력사적 화폭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보여 주는 대표작이 바로 《임진록》이다. 이 작품은 16 세기 말에 일본 봉건 침략자들이 조선에 대한 온갖 죄행과 당시 조선 통치배들의 무능력을 사실대로 묘사하였다. 독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감동과 흥미를 주는 것은 인민 항전의 조직—고무자들인 리 순신, 곽 재우, 정 문부, 고 경명, 김 덕령 등 실재 인물들이 등장하여 원쑤를 격멸 구축하는 장면들이다. 작자는 임진 조국 전쟁의

진실한 영웅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여러가지 환상적이며 전기적인 설화들을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여기서 력사적 사실과는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례컨대 일본 간첩 요시라와 함께 진실한 애국자 리 순신을 반대하여 온갖 음모를 피한 경 상우도 병사 김 응서를 조선의 우수한 장수인듯이 보여 주는 것, 일본 침략자를 조선에서 구축하는 과정에서 명 나라 구원병들이 마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처럼 묘사한 것, 의병장들이 원쑤를 격멸하는 행정에서 «귀신의 도움»으로 위훈을 세웠다는 것, 왜적을 조선에서 완전히 몰아낸 후 조선 사신이 왜나라 왕에게서 최후 항복서를 받으면서 인피 3백장을 조공 바치게 했다는 것 등은 력사적 사실과는 혹은 어긋나고 혹은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임진록»은 결코 력사적 기록이 아니라 예술적 작품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서 작자가 일본 침략자에 대한 전 조선 인민들의 불타는 적개심과 조국을 일본 싸무라이들의 침공으로부터 수호한 진실한 애국자들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묘사하면서 환상적이며 전기적인 형상과 설화를 많이 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임진록»은 조선 력사—군사 소설 가운데서 가장 뛰여난 작품의 하나이다.

소설 «박씨 부인전»은 17 세기 초에 청 나라 (후금)의 침공을 반대하여 일어난 애국적 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청»이란 압록강 서북, 현대 중국 동북 지방에 있었던 나라의 이름이다. 16 세기 말 17 세기 초에 만주 일대에 분산되여 살고 있던 녀진족들은 통일 단결을 이루고 1616년에 봉건적 국가를 세웠다. 그들은 국호를 처음에는 «후금»(後金)이라고 했다가 얼마후에 «청»(清)으로 바꿨다. 명 나라와 조선을 정복하고 저의들의

세력을 전 대륙에 세우려고 목적한 이 나라 통치배들은 1627년에 조선의 침공을 시작했다. 3만여 명의 침략군은 불의에 압록강을 건너 의주성을 점령하고 계속 남으로 진격하여 안주, 평양 기타 주요 도시들을 강점하였다. 이 때 조선 통치배들은 적과는 싸워 볼 준비도 하지 않았고 또 대항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조선 왕은 서울을 버리고 왕족들과 신하들을 이끌고 강화도로 피란하였다.

강화도에 피란한 조선 봉건—량반 통치배들은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한 것이 아니라 적과 《화약》을 체결하였다. 그들은 《후금》에게 앞으로 《형제지국》으로 화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맹약을 주었다. 이렇게 통치배들은 적에게 굴복하였다. 조선과 《화약》을 체결한 《후금》은 대륙에 있어서의 자기들의 침략 전쟁을 전력적으로 전개하여 료서와 내몽고까지 강점했다. 그리고 1636년에 12만의 침략군은 다시 압록강을 건너 조선의 재 침입을 시작하였다. 이 침공을 가르쳐 《병자 전쟁》이라고 한다. 침략군이 서울에 박두하자 조선 통치배들은 적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이처럼 국왕을 비롯한 통치자들의 무능력과 그들의 매국적 행동은 조선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치욕과 불행을 가져왔다. 바로 이 때로부터 조선은 《청》 나라 예속국이 되였다.

이러한 매국적 통치배들과는 달리, 조선 인민들은 조국을 수호하려고 궐기하였다. 그들은 직접 손에 무기를 들고 의주성, 안주성 및 기타 지역에서 리완, 림경업 등 여러 애국적인 장수들의 지휘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싸웠다. 침략군이 서울에 박두하자 수도 인민들은 결사대를 조직하여 자주 돌격전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45일 동안 적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으나 국왕을 비롯한 통치자들의 투항으로 말미암아 서울은 마침내 침략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 《병자 전쟁》과 관련한 작품들이 17—18 세기에

출현하였는데 그중의 하나가 《박씨 부인전》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박씨 부인은 남달리 높은 지혜와 용맹을 가지고 도술을 품어 세상 만물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는 적의 침공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했고 또 적이 침입하였을 때 인민들을 구원하고 적을 무찔러 용감히 싸운 애국적 녀성으로 그리여졌다. 작자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리면서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여 진행된 인민 항전, 특히 임진 조국 전쟁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조선 녀성들에 대한 실지적 혹은 전기적 사실들을 널리 리용하였다. 임진 왜란 때 조선 녀성 (례를 들면 계월향, 론개 등)들이 인민 항전에 참가하여 위훈을 세웠다는 이야기들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리 순신 장군은 당시 거제 농민 녀자 3 명이 빈 손으로 일본 간첩을 붙든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면서 《거제의 량녀… 3 명은 피란중 굶주리고 있는 녀자로서도 적을 보고 피하지 않고 힘을 합해서 붙들어 놓고 복병을 불러서 결박한 것이 소리만 듣고 쥐구녁을 찾는 사람 (량반 통치배——필자) 과는 상거가 만리입니다》* 라고 썼다. 작자는 이러저러한 력사적 혹은 전기적 사실에다 《도술》과 같은 중세기적 이야기를 넣어 당시의 애국적 조선 녀성의 활동을 형상화하는데 성공하였다.

《박씨 부인전》은 전투 결과를 일반적으로 그린 《임진록》과 달리 인민들의 성격 창조를 통하여 당시 봉건—량반 지배 계급의 무능력과 통치배들의 매국적 행동을 사실대로 폭로하며 녀성들을 한평생 규방에만 얽어매여 썩게 하던 중세기 조선 사회의 비인간적 풍습을 남김 없이 비판하는 우수한 작품이다.

《토끼전》은 동물 우화를 토대로하여 창작된 우화 소설이다. 이 작품의 줄거리로 된 토끼와 자래에 관한 이

---

* 리순신 장군 전집, 평양, 1959, 113 페지.

야기는 이미 삼국 시대에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12세기에 편찬한 《삼국사기》란 력사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옛날 동해 룡왕의 딸이 속병을 앓았는데 의원이 말하기를 〈토끼 간을 구하여 약에 쓰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바다 가운데는 토끼가 없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더니 마침 웬 거북 한 마리가 룡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구할 수 있다〉 하고 드디여 륙지로 나와서 토끼를 보고 하는 말이 〈바다 가운데 섬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샘이 맑고 돌이 깨끗하며 짙은 숲과 맛 좋은 과실이 있으며 추위와 더위가 닥치지 않고 사나운 새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 하니 네가 만일 가게 되면 평안하게 살면서 근심이 없을 것이다〉 하고는 토끼를 등에 업고 2—3리 쯤 헤염쳐 가다가 거북이 토끼를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지금 룡왕의 딸이 병에 걸리여 토끼 간을 약으로 쓰려하기 때문에 수고를 꺼리지 않고 너를 업고 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토끼가 말하기를 〈아뿔사! 나는 신령의 자손이라 오장을 꺼내여 씻어서 넣을 수 있다. 요지음 속이 약간 불편한 듯하여 잠시 간과 염통을 꺼내여 씻어 가지고 바위'돌 바닥에 두었다. 너의 달콤한 말을 듣고 그 길로 오는 바람에 간은 지금 거기 있으니 도라 가서 간을 가지고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너는 구하려는 약을 가지게 될 것이오 나는 간이 없더라도 살 수 있으니 피차에 좋은 일이 아니냐?〉 하였다. 거북이 그 말을 곧이 듣고 돌아 서서 막 언덕에 오르자 토끼가 뛰여나 풀 속으로 들어 가면서 거북에게 이르기를 〈어리석다! 거북아 어찌 간 없이 사는 놈이 있겠느냐?〉 하니 거북은 아무 말도 못 하고 물러 갔다는 말이 있다》*

---

* 삼국사기(하), 평양, 1959, 305—306 페지

이 설화는 전승되여 오는 과정에서 인민들의 집체적 참가에 의하여 문학적 작품으로 완성되였다. 《토끼전》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의인화되여 일정한 계급적 성격을 표시한다. 작자는 자라의 입을 빌어 토끼들의 생활에서 《여덟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봉건—량반 계급의 착취와 략탈로 하여 고통과 불행 속에 신음하던 인민들의 생활 처지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자라와 《수궁의 천승 임금》인 룡은 봉건—량반 지배 계급에 비유되였다. 여기서 작자는 이놈들의 생활 정형을 통하여 량반 관료들의 포악성과 우둔성을 풍자적으로 폭로 비판하고 있다.

그리하여 《토끼전》은 당시 조선 사회의 기본 갈등인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의 대립 관계를 보여 주면서 후자들은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처지에서라도 결코 죽지 않으며 설혹 죽음이 눈 앞에 다가 와도 오히려 이를 물리치고 행복한 생활을 하리라는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했다.

《장끼전》도 《토끼전》과 마찬가지로 우화적인 동물 설화를 토대로 한 의인적 작품이다.

엄동 설한에 하도 굶주린 장끼는 까투리와 함께 아홉 아들과 열 두 딸을 거느리고 평야에 내려와 먹을 것을 얻으려고 다니다가 난데 없는 붉은 콩 한 낱이 덩그렇게 불끈 솟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을 보고 세상 물정을 다 잘 아는 어른인 체 하는 장끼는 《어허, 그 콩 소담하다.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어찌 받지 않겠다 하겠나. 내 복이니 먹어 보자》 하며 콩을 쪼아 먹으려고 썩 나섰다. 이 때 까투리는 얼른 장끼의 앞을 막고 타이른다:

《아직 그 콩 먹지 마소. 눈 우에 사람의 발 자취가 수상도 하구려. 다시 살펴 보니 입으로 홀홀 불고 비'자루로 싹싹 쓴 흔적이 매우 괴이쩍소. 제발 바라건대 그

콩울랑 먹지 마서요.» 장끼는 간곡한 까투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 그 콩을 먹다가 차위에 치우고 말았다.

작품은 제만이 온 세상 일을 안다고 하며 무턱대고 녀성을 업신여기다가 차위에 치여 죽은 장끼의 형상을 통하여 조선 봉건 사회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불합리성과 «남존녀비» (남자를 존중하고 녀자를 천하게 보는 것) 사상을 폭로 풍자하고 있다.

사건은 다음 장면에서 차위에 치여 죽은 장끼가 안해—까투리더러 «… 자네 몸 수절하여 정절 부인이 되라»고 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된 까투리는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 개가하기가 박절하나 외로운 신세를 생각하니 내 어찌할 수 있소. 내 나이도 아직 청춘이니 울고만 있겠소» 하고 다시 시집 가기를 결정하는 데서 대단원을 이룬다.

그리하여 작품은 과부 까투리의 재가를 통하여 남편 죽은 녀자는 한 평생 수절해야 한다는 조선 봉건 사회의 비인간적 도덕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숙향전»은 조선 고전 소설 가운데서 우수한 작품의 하나이다. 중세기 조선 고전 작품 대다수가 그러하듯 이 작품 역시 작자와 창작 년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현존하는 문헌에 의하면 «숙향전»이 벌써 17 세기 말 18 세기 전반기에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지였던 작품 같다.

소설은 12 세기 중국 송 나라를 배경하고 있지만 등장 인물의 형상과 사건 발단 해결을 보아 16 세기 말 임진 조국 전쟁과 17 세기 초 청 나라 침략자들의 침입을 겪은 17 세기 조선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인정된다. 주인공 숙향의 형상을 통하여 파란 많은 생애와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깨끗이 간직하여 온 당시 조선 녀성들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뚜렷이 엿볼 수 있다. 장 승상 (주인공 숙향을 수양딸이라는 허울 좋은 미끼로 갖은 착취를 하다가 나중에는 억울한 루명을 씌워 자기 집에서 내 쫓은 부정적 타이프)의 형상은 당시 봉건 관료배들의 죄악성을 풍유한 것이다. 작품은 우화적 수법에 의하여 숙향으로 하여금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행복을 개척하게 한다. 이것은 바로 그때 인민들의 악에 대한 증오와 인도주의적 정의감의 반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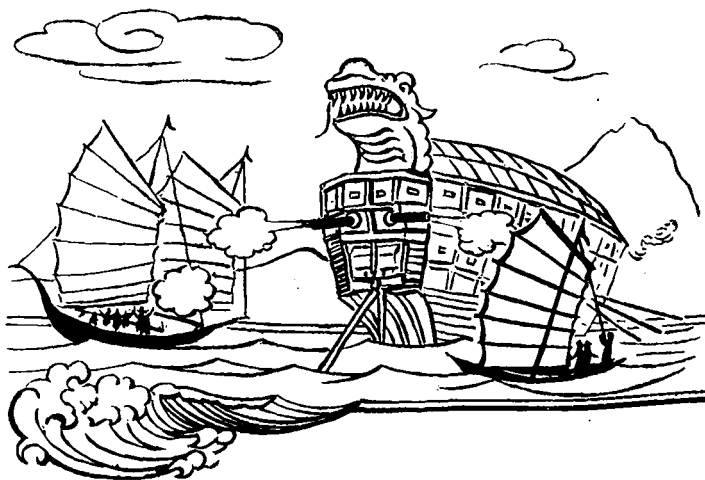
«배비장전»은 봉건 말기인 19 세기 량반들의 호화 방탕한 리면 생활을 해학과 풍자로 폭로하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토끼전» 및 «장끼전»과 같이 판소리 대본으로 («배비장 타령») 널리 보급되였다.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의 출현 시기와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대략 이러하다. 이 작품들 가운데서 오늘까지도 조선 인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애독하는 소설은 아마도 «임진록» 일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을 따서 본 소설집을 «임진록»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이 소설집에 수록한 작품들은 최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 출판한 단행본들에서 그대로 옮겨 실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 드린다.

1966년 1월 25일

황 동민

임진록

각설[1] 아동[2] 조선 강원도 금강산은 천하 명산이라 그러므로 사람마다 봉래산[3]이라 칭하더라.

강원도 일맥은 금강산이 되고 금강산 일맥이 다시 통천 총석[4] 땅이 되고 총석정 석노 은맥[5]이 해중으로 들어가 동남으로 삼천리를 뻗어서 일본이 되였으니 일본은 조선의 여맥[6]일시 분명하다.

진시황[7] 시절에 방사[8] 서불[9] 등이 동남동녀를 배에 싣고 불사약을 구하러 영주 삼신산을 찾아 가다가 이 섬을 얻어 웅거하더니 점점 번성하여 나라가 되매 국호를 왜국이라 하고 처음으로 조선을 침범하니 조선은 왜환을 만나게 되니라.

그 후에 백제 의자왕[10]이 장수 석휘로 왜란에 접하게 하였더니 아조[11]에 이르러 일본이라 칭하고 세종 대왕 시절에 서해를 침범하고 명종 대왕[12] 시절에 자로

전라도를 침범하니 조선이 이로부터 왜란을 만나 백성이 일시라도 편안치 못 하더라.

각설 이 때 왜국에는 성을 평이요 이름을 수길이라 하는 자 있어 제 나라 륙십여 주를 차지하여 해중 제국[13]을 다 쳐 항복 받고 이름이 진동하매 뜻이 교만하여 일본 왕을 폐하여 산성군[14]을 삼고 스사로 황제되여 위를 고쳐 문공이라 하다.

이 때난 아조 선조 대왕 시절이니 조선이 수백 년 태평이라 인물이 극성하여 조정의 벼슬만 탐하고 군정[15]은 닦지 아니 하니 군인이 고진 금퇴[16]를 아지 못 하고 장수가 다 기치 방색[17]을 아지 못 하여 만일 불의의 변을 당하면 나라에 믿을 사람이 없더라.

각설 이 때 우리 나라 선조왕 십일년 춘삼월이라 장간[18]이 여짜오되

«요사이에 천문을 보오니 장성[19]이 동으로부터 서로 가리킨 지 수월이로소이다.»

상이 들으시고 크게 근심하사 무삼 변이 있을가 시름하시더니 기묘년부터 태백성[20]이 하날에 가로지고 백홍이 관일[21]하니 유식 군자난 크게 근심하고 경진년에 경사도 영주 파은강이 마르고 동해의 어산이 서해로 모이고 연평 바다의 청어가 료동으로 가니 백성이 다 황황하여 하더라.

임오년에 백호[22]가 평양 성중으로 들어 와 사람을 살해하고 또 도성[23]에 흑운이 칠일을 두르고 무자년에 한강수가 피'빛이 되고 삼일을 끓으니 어산이 무수히 죽어 뜨고 림해수[24]가 자로 탕일[25]하니 이 때에 례조좌랑[26] 조형[27]이 천문과 상서를 익히 아난지라 천문을 보고 재변이 자로 있으매 크게 근심하여 상소하되

«소신이 천문을 보오니 태백성이 동에서 서북을 가리키고 재변이 많은 가운데 인심과 세도가 극히 되와 형제 서로 몰라 보은지라 의심컨대 병란이 있을 것이오니

복원 전하난 각도 각읍에 행관하여 일변 병기를 수습하오며 군사를 조련하옵소서.»
형조 판서[28] 윤 홍[29]이 아뢰되
«이런 태평 성대에 요망한 말로써 인심을 소요케 하오니 마땅히 국법으로써 원찬[30]하여 백성을 안접[31]케 하옵소서.»
상이 옳이 녀겨 갑산으로 정배하니라.
각설 이 때 평 수길이 해중 제국을 항복 받으니 뜻이 오활[32]하여 스사로 널으되 «내 어찌 해중 조그만 나라를 지켜 정저[33] 같이 있으리요. 한 번 나라를 떨쳐 구주 강산[34]을 슬하에 두고 으뜸 임군이 되리라» 하고 제국 무사를 모아 의논 왈
«내 이제 대병을 들어 조선을 쳐 멸하고 인하야 명나라 연경[35]을 쳐 멸하고 천하를 취코저 하니 제장은 각각 심중 소회를 이르라.»
한대 한 장수 출반 주왈[36]
«조선은 례의지방[37]이요, 현인 군자 많사오니 바라옵건대 경성을 치고 연경을 멸코저 할진댄 지략이 겸전하고 재조 많은 군사를 택출[38]하여 먼저 조선에 보내여 산천 형세와 강약 허실을 자세히 살펴 온 후에 기병[39]함이 옳을가 하나이다.»
이난 종산 태수 청백례라. 수길이 왈
«가타.»
하고 즉시 대연을 배설하고 크게 의논할새 수길이 친히 잔을 잡고 좌우를 돌아 보며 왈
«뉘 능히 나를 위하여 조선에 들어 가 형세를 살펴 오리요.»
말이 맞지 못 하여 팔원 대장[40]이 일시에 내달아 자원하거날 수길이 대희하여 친히 술을 부어 전하여 왈
«장군들은 힘을 대하여 동정을 알아 오라. 만일 조선을 얻으면 조선 봉작[41]을 돌리리라.»
하고 각각 은자 천량씩 주어 보내니라.

2*

팔장이 하직하고 즉시 배를 타고 조선으로 향할새 부산 지경에 이르러 각각 변복하여 혹 중도 되고 혹 거사[42]도 되여 각각 한 도씩 맡아 팔도로 흩어 들어 가되 삼년 기약을 두어 다시 부산으로 모여 돌아 가리라 하더라.

조선은 이런 줄을 모르고 백관은 벼슬만 다로고 백성의 질고와 나라의 안위를 돌아 보지 않으니 어찌 한심치 않으리요.

죽산 태평완[43]에 돌이 절로 일어 서고 통진 골[44]에 누웠던 낡이 절로 일어 서고 장수산[45] 하에 신선이 있어 «란리 났다» 위여 일으되 련삼일씩 하니 이러므로 민간이 소동하여 유식자들은 미리 피난하더라.

각설 왜장 팔인이 조선을 편답하여 출입 형세[46] 용병 요해처[47]를 살핀 후에 일본에 돌아 가 수길에게 보하고 각각 조선 지도를 드린대 수길이 대회하여 각각 중상을 주고 우선 허실을 살피기 위하여 또 사신을 정하여 조선으로 보내니라.

차시난 기축년 오월이라 일본 사신 평의지[48] 수길의 글을 받들어 조선 왕께 드리니 그 글에 하였으되

«조선이 일본으로 더불어 린국이라 우리 사신은 매양 조선을 가되 조선 사신은 한 번도 오지 않으니 이는 우리를 업수히 여김이라. 또한 중국에 사신을 통코저 하나 조선이 길을 허치 아니 하기로 일본 사신이 왕래치 못하니 종시 길을 허치 아니 하면 대환이 먼저 조선에 미칠지니 거역지 말라» 하였더라.

수길의 사서[49] 이 같이 불손하니 조선 왕이 크게 근심하사 백관을 모아 의논한대 백관이 아뢰되

«일본에 사신을 보내여 화친함이 마땅할가 하나이다.»

상이 옳이 여겨 즉시 사신을 보낼새 첨지[50]황 윤길로 상사를 정하고 사성 김 성일로 부사를 정하고 전적허

성으로 서장관을 정하여 보내니라. 차시난 경인 춘삼월이라 사신이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들어 가니 수길이 화친서를 보고 대로 왈

«조선 왕이 친히 들어 와 내게 조회[51]하고 일본 사신이 중국 가는 길을 허하여 준다한즉 무사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대환이 미치리라» 하고 사신을 박대하여 탁주 삼배 뿐일러라. 또한 회정에 답서하되 그 글의 패만[52]함이 비할 데 없더라.

신묘년에 왜장 평의지 다시 부산 동평관[53]에 배를 다이고 웨여 일으되

«조선이 일본 사신을 인도하여 압록강을 건너 연경에까지 들어 가게 하면 다행으로 피차 무사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량국의 화의가 장차 끊어지리라.»
하고 조선 왕의 회보를 기다리더니 십여 일이 되도록 회보 없거늘 평의지 대로하여 돌아 가 평수길에게 고한대 수길이 노하여 제장을 모아 기병을 의논하니라.

형백세[54]현책이 왈

«이제 조선을 치고 깊이 중원으로 향코저 할진댄 먼저 사장[55]을 보내여 북해[56]를 건너 부산 지경에 이르러 량장은 륙로로 보내여 전라 경상 충청 삼도를 쳐 들어 가면 조선 왕이 반다시 평안도로 쫓겨 갈 것이니 량장은 수로로 행선하여 바로 장산 곶이를 지내여 각처에 둔병하게 하고 일진군[57]을 압록강으로 보내여 중원 가는 길을 막으면 조선 청병 사신이 중국에 들어 가지 못하고 우리 대군이 전후에서 껴 치면 가히 조선 왕을 생금하올지며 도성을 얻은 후에 먼저 평안도를 웅거하고 조선 군사를 조발[58]하여 료동을 얻은 후에 일본 군사도 중원을 엄살[59]하면 천하 얻기난 여반장[60]이라.» 한대 수길이 옳이 녀겨 해중 제국에 청병하여 백만 대병을 정제한 후 대장 평행장 청정[61] 두 장수를 불러 왈

«그대 등은 각각 사십만군씩 거느려 먼저 부산을 치

고 륙로로 들어 하삼남[62]을 쳐 앗으면 조선 왕이 반다시 평양으로 갈 것이니 일지군은 도성을 웅거하고 일지군은 조선 왕의 뒤를 엄살하여 수륙 량군이 접응케 하라.»

또 마다시 심안도[63] 두 장수를 불러 왈

«그대 등은 각각 사십만군을 거느리고 조선 서해로 향하여 장산 곶이를 지나 바로 압록강을 막으면 조선 왕이 다시 갈 곳이 없을지니 남으로 향하여 청정 평행장과 한 가지로 치면 조선 왕이 가운데서 잡힐지라 삼가 명을 어기지 말라» 하고 각각 아장 십팔원[64]씩 분급한대 제장이 하직하고 대병을 거느려 일시에 행선하니라.

각설 차시난 임진년 사월 십삼일이러니 부산 첨사 정 발이 군졸을 다리고 절영도에 가 사냥할새 문득 각색 날짐승이 바다에 덮여 날아 오거늘 바라 보니 왜선이 바다를 덮었난대 기치 검극[65]이 하날에 닿았난대 호통 취각[66]이 벽해를 흔드난듯 한지라 정발이 황망 대경하여 부산으로 돌아 오더니 미처 진명[67]에 들지 못 하여 벌써 왜적 선봉이 부산에 들어 와 인마살별[68]하난 소래 천지를 진동하니라. 정 발과 관속이 다 잡히여 죽고 인하여 왜적 후군[69]이 산야를 덮어 들어 오니 부산이 함몰하니라.

인하여 또 왜적 선봉이 서평동[70]을 함몰하고 다대진[71]으로 들어 오니 첨사 윤 홍신[72]이 갑주[73]를 입고 창을 들고 진졸[74]을 호령하여 겨우 백여군을 거느리고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더니 적병을 당할 수 없어 한모를 헤치고 닫았으나 왜장 평조익[75]이 칼을 들어 윤 홍신을 버히니 군사 다 죽으니라. 왜장 평조익이 대군을 재촉하여 동래로 향할새 백성들이 부로 휴유[76] 하여 피란하매 아우성 소래 천지에 가득하고 미처 피치 못 하고서 밟히어 죽난 자 부지기수라. 좌수사[77]박 홍이 바라 보고 실색하여 수영을 바리고 도망하니라.

좌병사[78] 리 각은 겨우 산졸[79] 백여 명을 거느리고 동래로 향하여 가다가 적병이 동래로 향함을 보고 군사

를 물리여 소산역[80]에 진을 치고 동래 부사 송 상현은 미처 군사를 모으지 못 하고 성문에 올라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더니 적병이 사편으로 둘러 싸고 급히 치니 그 형세를 당치 못 할지라 좌우를 돌아 보니 군사 다 죽고 다만 군관 김 상이[81]와 노자[82] 십여 명이 지쳤거늘 상현이 할일 없어 조복[83]을 입고 앙천 통곡[84] 왈

«신 등이 불충하와 이런 란시에 변방을 지켰다가 도적을 막지 못 하고 오늘날 도적의 손에 죽사오니 창천 백일은 하감하옵소서.»

또한 무명지를 깨물어 피를 내여 두었던 선자[85]에

«불효자 상현은 나라를 위하여 변방을 지켰다가 왜적을 만나 부모를 다시 보지 못 하옵고 오늘날 영결하오니 천지 망극[86]하여이다. 바라옵건대 부모님은 만수무량하옵소서. 임진 사월 십오일 불효자 상현은 영결하노이다.»

라고 쓰고서 선자를 봉하여 노자 영남을 주어 왈

«너난 부모님을 모시고 깊은 산 중에 들어 가 피란하라.»

영남이 망극하여 차마 리별치 못 하더니 왜장 평조익이 장창을 두르며 군사를 헤치고 들어 와 상현에게 배례 왈

«부사는 나를 아난다.»

상현이 왈

«네 조선을 속이고 또 나를 마자 해코저 하난다.»

평조익이 왈

«내 비록 왜군이 되였으나 그대로부터 받은 은의[87]를 잊지 못 하니 어찌 해하리요. 구원코저 왔으매 내 옷을 벗어 줄 것이니 바삐 갈아 입고 도망할지라.»

상현이 대질[88] 왈

«내 너의 간사한 꾀에 속으면 도로혀 나라에 불충이 될 것이어늘 내 어찌 너에게 살기를 도모하리요. 빨리 나를 죽이라.»

하고 조금도 동치 아니 하고 노기 등등한대 평조익이 민망하여 재삼 재촉하되 상현이 왈

《내 너에게 청할 것이 있으니 내 본가에 통기하려 하나 길이 막혔으니 내 하인을 너의 진 밖으로 지내게 하여 주면 다행일가 하노라.》 평조익이 허락하고 노자 영남을 다리고 진 밖에 내여 보내니 슬프다 그 사이에 벌써 다른 왜장이 상현을 죽였더라.

상현의 군관 김 상이 상현의 죽음을 보고 대성 통곡하여 장창을 들어 왜군을 무수히 찔러 죽이고 창 끝이 부러지거늘 기와 집에 올라 가 기와를 벗겨 왜병을 무수히 쳐 죽이고 힘을 다하여 싸우더니 문득 왜장의 철환을 맞아 죽으니 동래 성이 함몰하니라.

밀양 부사 박 진이 년소하나 지략이 있으니 부산이 함몰함을 듣고 급히 군사를 거나리고 동래로 향하니 동래 성이 또한 이미 함몰하였는지라 박 진이 좌병사 리 각다려 일러 가로대

《소산을 지키지 못 하면 령남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 될지라, 나 마땅히 그 앞을 막을터이니 공은 뒤를 응거함이 가할지라》 하고 스사로 오백 군졸을 거나리고 앞에 진을 치니 적이 길게 몰아 오매 그 봉망[89]이 심히 날카로운지라 리 각이 황겁하여 달아 나니 박 진이 후원이 없으므로 또한 달아 와 량산으로부터 황산도를 막아 지킬 새 왜장이 은교[90]를 타고 은산[91]을 받고 오거날 박 진이 장창을 들어 왜군 수급[92]을 죽이였으나 왜병이 령을 넘어 돌아 가는 길을 끊으니 박 진이 할일 없어 말을 달리여 밀양으로 돌아 오니라. 리 각은 소산으로부터 병영으로 돌아 와 지킬 뜻이 없고 인마를 모아 먼저 그 애첩과 가장집물을 실어 보내고 새벽에 도망하니 성중 인심이 더욱 흉흉하더라.

이적에 청정 평행장 등이 동래를 함몰하고 각각 장

수를 나눠 경상도 칠십일군[93]을 항복 받으니 백성의 주검이 산야에 가득하고 곡성이 철천하더라.

경상 감사 김 수는 적세를 보고 황겁하여 도적 막기 난새로 관하에 전령하여 백성을 다 피란하라 하니 혹 모아 오던 군사도 전령을 보고 각각 처자를 다리고 유벽산곡[94]으로 도망하더라.

적선이 부산으로부터 김해로 옮겨 핍박하거날 김해 부사 서 례원은 남문을 지키고 초계 군수 리 유검은 서문을 지키더니 이 날 밤에 리 유검이 거짓 야경이 있다 하고 문 지키는 자를 찍어 버리고 도망하여 가니 서 례원이 리 유검을 쫓아 잡는다 하고 또한 성을 나와 달아나매 이러므로 경상 일도가 공허하여 막을 자 없고 왜적이 더욱 승승[95]하여 무인지경 들어 오듯 하더라.

각설 조정에서는 이런 줄을 전혀 모르고 있더니 문득 정탐이 보하되 왜병이 무수히 건너 와 동래 부산을 함몰하고 수령과 백성들이 다 도망하매 도적이 승세하여 벌써 밀양을 지내여 륙로로 올라 오고 일지군은 수로로 전라도 섬들을 엄습하매 각읍 수령이 미처 수미[96]를 돌리우지 못 하여 혹 죽으며 혹 도망한다 하거날 상이 대경하사 만조 백관을 모아 의논 왈

«누가 대장이 되여 도적을 막으리요. 경 등은 바삐 량장[97]을 택하여 급마[98]로 보내여 도적을 막게 하라.» 하신대 백관이 여짜오대

«리 일[99]이 지용이 겸전[100]하오니 대장을 정하여 보내옵소서.»

상이 즉시 리 일로 순변사[101]를 정하시고 바삐 급마로 가라 하시니 리 일이 사은하고 천리마에 보신갑[102]을 입고 령남으로 내려 갈새 먼저 수병사에게 전령하되 각영 군마를 다 대구영으로 모으라 하더라.

이 때 경상 감사 김 수 수병사의 전령을 보고 급히 각영에 전령하여 수령 등은 각각 군사를 거나리고 대구

로 모이라 하였더니 시운이 불리하여 대우가 련일 오매 군사의 의복과 갑옷이 다 젖은 가운데 적병은 점점 가까와 오되 리 일이는 미처 오지 않는지라 이러므로 먼저 모였던 군사들이 야반에 다 흩어져 가니 수령들이 또한 할일 없이 서로 의논 왈

«적병은 쾌히 오고 우리는 한 명 군사도 거느리지 못 하고 있다가는 우선 수병사가 목을 매여 죽으리라»
하고 다 도망하니라.

이적에 리 일이 말을 달려 충청도 지경에 다달으니 백성들이 부로휴유하고 서로 부르짖으며 피란하난 사람들로 골이 메였더라.

경상도 지경에 이르니 려염이 다 비고 인민이 없으니 길을 묻지 못 하고 또한 기갈이 심하되 요기할 곳이 없난지라 즉시 말을 채찍 쳐 문경 고을로 들어 가니 역시 한 사람도 없난지라 거민이 고방에서 쌀을 내여 밥을 지어 하졸을 먹인 후에 말을 몰아 상주로 가니 상주 목사 김 해는 산중으로 도망하여 들어 가고 판관[103] 권 정길이 홀로 머물러 일거날 리 일이 군사가 없으므로 권 정길을 잡아 내여 죽이려 한대 권 정길이 애걸 왈

«군사를 모두리다.»
하거날 리 일 왈

«그리하라.»
하고 도망한 군사를 부르게 하며 또 창고를 열고 기민을 진휼[104]한다고 피여 백성을 모이게 하니 진휼을 받으려 모여 든 백성들이 수백 명이나 병인과 로약이 태반이더라. 리 일이 큰 칼을 들고 호령 왈

«너희도 조선 인민이라 비록 군사는 아니나 이런 란세를 당하여 이 나라 곡식을 먹고 무단히 살기만 도모하리요. 너희들은 마땅히 내 군사되여 한 번 싸워 나라의 은혜를 갚을지라.»

한대 백성들이 울며 왈

«장군 말씀이 진실로 옳사오나 난처한 일이 있나이다. 부모와 처자를 산중에 두고 왔사오니 저희 곧 없사오면 다 굶어 죽사오리니 일로 난감하여이다.»
하거날 리 일이 칼로 서안[105]을 치며 꾸짖어 왈
«인자 정리는 비록 그러하나 너희 등이 내 령을 듣지 아니 하면 다 버히리라.»
한대 모든 사람들이 황겁하여
«령 대로 좇아지이다.»
하거날 인하여 항오[106]를 지어 군사를 만드니라.
왜적이 이미 선산 지경의 장천리에 이르렀을 제 리 일이 종사[107] 윤 섬과 판관 권 정길로 좌우익장을 삼고 비장[108]조 관자를 불러 적병의 기미를 탐지하라 하니 조 관자 말을 달려 나갈새 다리 아래 엎드렸던 적병이 조총을 쏘니 방포 소래와 함께 수풀에 복병하였던 도적이 일시에 고함치고 내닫는지라 조 관사 말을 돌려 오다가 철환에 맞아 죽으니라.
인하여 왜병이 산야를 덮어 들어 오거날 리 일이 군사를 호령하여 일시에 왜병을 쏘라 한대 군사는 다 오합지졸이라 활에 익지 못 하여 살이 중간에 떨어지고 적진에 미치지 못 하니 적병이 더욱 승세하여 조총을 일시에 제발한대 한 철환에 두서이씩 맞아 죽난지라 왜장이 기를 둘러 리 일의 진을 겹겹이 싸고 급히 치니 리 일이 독무[109]가 되여 할일 없어 한모를 얻어 말을 달려 북으로 달아 날새 한 왜장이 창을 비껴 들고 급히 따르난지라 리 일의 말이 절로 거꾸러지거날 할 수 없어 갑주를 벗고 말을 버리고 창을 끌고 달아 나니 그 빠름이 말에서 더하더라.
왜장 소서비 바라 보고 우여[110] 왈
«이난 진실로 우리 장수 궁곤한 적을 쫓지 말라는 경계를 잊었도다» 하고 쫓기를 그만 두게 하니라.
리 일이 그제야 숨을 돌리고 창을 잡아 산중으로 들

어 가니 한 바위 아래 암자가 있거날 나아가 보니 비였난지라 기갈이 비록 자심하나 할일 없어 잠간 절 문'간에 다리를 걸치고 누웠더니 문득 한 범이 와 다리를 물어 당기거날 놀라 보니 대호라 리 일이 노하여 일어 서며 내여 차니 범이 소래를 벽력 같이 지르고 수장이나 올랐다가 떨어져 죽난지라. 리 일이 창을 들고 충청도 신립의 진으로 가니라.

각설 선시[111]하여 조정에서 류 성룡으로 도체찰사[112]를 삼고 김 응남[113]으로 부사를 삼아 제장을 검독케 하고 한성판윤[114] 신립으로 도순변사를 삼고 의주 목사 김여물[115]을 따르게 하니라. 신립이 충주로 나려 갈새 백성이 다 도망하고 없거날 겨우 산졸을 거두어 점고하니 팔천여 명이라 나아가 조령을 지키고저 하더니 정탐이 보하되

«순변사 리 일의 군사 다 함몰하고 또 리 일이 도망하였사오나 그 사정은 자세히 모르나이다.» 하거날 신립이 회군하여 충주 탄금대 앞 뒤 고개 사이에 진을 친대 제장이 간왈

«이 진처[116]는 이른바 등롱[117]에 든 파리오니 만일 도적이 치면 다 죽으리이다.» 한대 신 립이 답왈

«옛적 한 나라 한 신[118]이 조[119]를 칠새 배수지진을 쳤나니 이제 우리 군사 싸움에 익지 못 하여 다 도망할 뜻을 둔지라 죽을 때에 든 후에야 힘써 싸울 것이니 제장은 겁내지 말라.»

제장이 대왈

«한 신은 적병을 헐히 알고 싸와 요행히 이겼거니와 우리는 적은 군사로 이런 곳에 진을 치면 어찌 백만 대병을 막으리이까. 만일 싸와 이기면 좋거니와 그렇지 못하오면 다 죽으리이다.» 하거늘 신 립이 노하여 왈

«다시 간하난 자 있으면 이 칼로 대답하리라.»

하니 제장이 다시 간하지 못 하더라.

이 때 문득 동 쪽으로부터 한 장수 장창을 비껴 들고 진을 향하여 올새 모다 보니 이는 곧 리 일이라 신 립이 반겨 진문을 열고 맞아 들이니라. 그러나 리 일의 패군한 수말[120]을 미처 다 듣지 못 하여서 왜적 선봉이 단월 역으로부터 두 길로·나눠 들어 오되 일지병은 강변으로 들어 오고 일지병은 산야로 들어 오니 티끌이 천지에 자욱한대 기치 검극은 일광을 가리우고 고각 함성은 산천을 흔드난지라 신 립의 군사 싸움이 처음이라 황겁하여 서로 밟히며 엎으러지는 자 부지기수라.

신 립과 리 일이 힘을 다하여 군사를 호령하여 싸우라 한대 군사 하나도 대적하지 못 한지라 신 립과 리 일 일시에 장창을 들고 좌충우돌하여 싸우되 수다 적병을 당치 못 하여 리 일은 한모를 헤치고 달아나고 신립은 김 여물과 더불어 탄금대 아래에 이르러 적 수십 명을 죽이고 한가지로 물에 빠져 죽으니라. 리 일이 동쪽으로 달아나더니 문득 압구령[121]으로부터 복병이 내닫는지라 리 일이 평생 힘을 다하여 싸우니 한 창 끝에 왜병의 머리 두서이씩 떨어지더라. 적병 사십여 명을 죽이고 엄살하니 적병이 달라들지 못 하거날 리 일이 말을 돌리여 닫고저 할 즈음에 문득 일성 방포 일어 나며 리 일의 탔던 말이 거꾸러지거늘 리 일이 황망하여 말을 버리고 닫을새 왜장이 천리마를 타고 장찬을 두르며 급히 따라 오거날 리 일이 돌아 보니 벌써 곽뒤[122]에 멈추었는지라 빨리 돌아 서며 장창으로 왜장의 가슴을 찔러 내려치고 그 말을 앗아 타고 나는듯이 달아나니 적병이 다시 따라 오지 못 하더라. 인하여 제천[123] 고을에 들려 패군한 장문[124]을 올리고 원주로 가니라.

각설 차시에 조정에서 리 일과 신 립을 보내고 기별을 듣지 못 하여 주야로 근심하더니 문득 사월 이십 구일 석양에 한 군사 기'대를 끌고 동문으로 급히 들어 오거날 장안 백성들이 다토아 묻는데 그 군사 답 왈

«나난 충청도 수병사의 마부옵더니 수병사 충주서 싸우다가 패군하여 장졸을 다 죽이고 충주성이 함몰하매 적병이 산야에 덮였기로 목숨을 도망하여 가속[125]이나 피난시킬가 하여 급히 올라 오나이다.»

하거날 도성 인민이 진동하여 각각 살기를 도모하난자 사문이 메여 나가며 곡성이 진동하매 만조 백관이며 주상[126]이 더욱 실색하여 아무리 할 줄을 모르더라.

이 날에 리 일의 패군한 장문이 오르거늘 성중이 소동하여 백성이 울기만 하고 조정에 장문 볼 사람이 없더니 체찰사 류 성룡 공조 참의 리 덕형[127] 도승지 리 항복[128] 등이 전정[129]에 나아가 초'불을 밝히고 장문을 보니 하였으되

«패군장[130] 리 일은 사죄[131]를 무릅쓰고 감히 아뢰나이다. 신의 충성이 및지 못 하고 지략이 없사와 도적을 막지 못 하옵고 패전하였사오니 죄당 참수[132] 이로소이다. 감히 봉달[133]할 말씀 없사거니와 대저 패군한 사연을 의논할진대 신의 비전지죄[134]는 아니와 당초에 신이 수명하직[135]할 때에 먼저 감사에게 전령하와 각영 군마를 대구로 모으라 하옵고 급마로 내려 가 령남에 이른즉 군사는 새러 수령이 하나도 모인 일 없사옵고 도적은 점점 급하였사오니 일신이 막가내하[136]이오나 군사를 겨우 모아 계교[137]하온즉 오합지군이라 용병에 다 익지 못 하와 고진금퇴를 전혀 모르오니 어찌 강적을 대적하리이까. 계무소시[138]하와 군사를 다 죽이옵고 신이 겨우 목숨을 보전하여 충주 신 립의 진으로 찾아 가오니 군사 또한 오합지졸이라 비록 죽기로 싸우나 비컨대 고기로 호구를 막음과 같사온지라 당할 수 없사와 신 립은 도적에게 죽삽고 일군이 함몰하오니 소신도 할 수 없사와 좇아 나옵다가 도적의 복명을 만나와 적장 일원과 군사 사십여 명을 버히옵고 근근 보명[139]하와 제천으로 좇아 왔사오나 패군

장은 법당참[140]이오니 목숨을 부월지하[141]에 바치나이다.»
하였더라.

보기를 다하매 좌우 다 실색하여 아뢰되 혹 선전관[142]을 보내여 패군장 리 일을 참하라 하며 혹 아뢰되 이난 리 일의 죄가 아니라 경상 감사와 수령의 죄라 하고 론난하난 차에 정탐이 보하되 왜적 선봉이 벌써 양근에 들어 왔다 하거날 백관이 다 몸을 떨고 말이 막혀 나무 둥치[143]가 되였더라.

령부사[144] 김 규영과 체찰사 류 성용과 도승지 리 항복 등이 여짜오대

«도적의 형세 급박하오니 청컨대 전하는 평안도로 행차하시와 급함을 피케 하옵소서.»

상이 체읍[145] 왈

«국내에 도적 막을 장수 없으니 장차 어찌하리오.»
하고 령부사 김 규영을 불러 왈

«과인[146]이 박덕하여 대환을 만내였으니 종묘와 사직[147]이 위태한지라 과인이 경을 아나니 세자를 다리고 함경도로 가서 피난하라. 천행으로 피차 죽지 아니 하면 다시 볼가 하노라.»
김 규영이 대왈

«국운이 불행하와 이렇듯 되오니 신이 어찌 죽기를 사양하오리까. 정성을 다하여 모시리이다.»

인하여 하직 숙배[148]하고 세자 대군[149]을 모시고 분망히 떠날새 십만 장안이 곡성 뿐이라 그 참담한 정경을 어찌 다 말하리오.

상이 또한 련[150]을 재촉하여 궁인을 네리고 대궐을 떠나실새 우의정 리 양원으로 수성 대장[151]을 정하고 리 전변 언수로 좌우위장[152]을 정하고 박 충간으로 순검사를 정하사 도성을 지키게 하고 또한 김 명원으로 도원수를 봉하사 한강을 지키고 신각으로 부원수를 정하여 한 가지로 도성을 지킬 것을 당부하니라.

상이 돈의문으로 나가시니 백성들이 길에 메여 련을 붙들고 통곡하되

《전하는 백성을 바리시고 궁궐을 떠나사 인제 어대로 가시나이까.》

상하 만민이 다 목이 메여 통곡하니 곡성이 진동하여 도성이 뒤높난듯 할 즈음에 련을 재촉하여 홍제원에 다달으니 동방이 이미 밝아 오며 비가 련하여 오는지라 벽제 참[153]에 이르러는 비가 더욱 억수로 퍼부으니 백관과 호종군[154]이 찬비를 맞아 군복과 의장이 모두 젖어 근근히 좇는대 또한 호련군[155]이 련하여 진흙에 넘어져 능히 행치 못 하니 거동이 참담하더라.

혜음령을 지날새 비가 물대이듯 내리고 밤이 되여 림진강에 이르니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지라 리 항복이 사람을 시켜 강을 건너 가서 남승청[156]을 불살으니 불'빛이 강북에 비치여 겨우 길을 찾아 림진강을 건너 가매 파주 목사 허 진과 장단 부사 구 효연이 음식을 차리여 대가[157]를 기다리더니 호종군이 련일 굶어 오다가 음식을 보고 다토아 먹으니 전하께 드릴 음식은 없더라. 허 진 등이 무류하여 하난 차에 련을 재촉하니 차시난 오월 초일일이라. 서흥 부사 남의 군사 수백 명과 견마 오륙 십필을 거느려 오고 또 황해 감사 조 인득이 군사 수백을 거느리고 길가에 군막을 치고 대가를 맞아 음식을 드리니 군신이 기갈하던 차에 노나 먹으니라.

저물어서 송도에 이르사 남문루에 정좌하시고 백성을 불러 왈

《과인이 박덕하여 대환을 만나 이런 변을 당하게 되였으니 너희들은 각각 심중 소회를 일으라.》

하시니 한 사람이 여짜오대

《주상께서 민사를 생각지 아니 하시고 오로지 후궁[158]만 부후케 함으로써 일을 삼으시며 김 공량을 권애[159]함으로써 제일책을 삼으시더니 오늘날 이 지경에 이

르렀사오니 어찌 공량으로 하여금 적을 물리치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상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까지 있으나 시위[160]가 단약[161]하여 금하지 못 하더라.

이에 김 공량과 교결[162]한 리 산해를 파하고 류 성룡으로 령의정을 하이시고 최 흥원으로 좌의정을 하이시고 윤 두수로 우의정을 하이시고 초사일에 송도를 떠나 금교역에 수이시고 초오일에 평산에 이르러 보산에 수이시고 초륙일에 안성 검수참을 지나 봉산에 수이시고 초칠일에는 황주에 수이시고 초팔일에 중화를 지나 평양에 들어갈새 감사 송 언신이 성중 군사를 거느리고 대가를 맞아 거마를 호종하여 들어 가니라.

각설 왜적이 충주를 함몰하고 의기 양양하여 사방으로 들어 올새 평수장[163]이 십만군을 거느리고 그 선봉이 벌써 한강을 건너 경성에 다달으니 정탐이 보하되 무수한 왜병이 성외에 미만[164]하옵고 또 평행장의 대군이 룡인에 들었다 하거날 부원수 신 각이 수성 대장 리 양원다려 왈

«적장 평수장의 대병이 성하여 립하옵고 또 평행장의 대군이 룡인에 들었다 하오니 그 형세 태산 같은지라 우리 약소한 군사로 대적치 못 하오리니 성을 바리고 함경도로 가서 북도 군사를 일으켜 막음이 옳을가 하나이다.»

하니 리 양원이 듣지 아니 하거날 신 각이 호올로 생각하되 성을 버리고 가는 죄는 있으려니와 다른 공을 세워 그 죄를 속하리라 하고 가만히 강원도로 들어 가니라.

이적에 평행장의 대군이 룡인을 쳐 멸하고 한강을 건너 올새 도원수 김 명원이 약간 군사를 거느리고 강어구를 지키여 막을가 하였더니 적병이 룡인으로부터 산

야에 미만하여 한강에까지 잇대였는지라 대경실색하여 감히 대적치 못 하고 군기를 평양으로 달리니라. 도적이 벌써 한강을 건너 도성을 둘러 싸고 친대 리 양원 변 언수 등이 바라보고 황겁하여 도성을 버리고 도망하니 적병이 도성에 들어 웅거하고 또 수원성을 함몰하니라.

왜장 청정은 청주를 쳐 멸하고 동작을 건너 평행장과 한 가지로 도성에 웅거하고 사신을 일본에 보내여 청병할새 평수길이 대희하여 대장 안국사와 평성정[165]을 불러 왈

«평행장 청정이 조선을 쳐 도성을 얻고 승전하였다 하되 조선 왕이 평안도로 달아났다 하니 그대 등은 각각 십만군씩 거느리고 바삐 조선에 건너 가 형세를 도우라.»

한대 량장이 즉시 하직하고 배를 발하여 부산에 대이고 주야로 올라 와 평행장 청정의 진에 합한 후에 사면 각지에 영책[166]을 꾸미고 둔병하여 험처[167]를 지키며 각읍 창곡을 수운[168]하여 군량을 잇고 선릉[169]을 굴통하여 해골을 불사르니라.

청정 평행장은 경북궁에 웅거하고 평수장은 종묘에 웅거하였더니 종묘사직 귀신이 주야로 나타나 적병을 꾸짖으니 수위하는 군사들이 발을 구르며 급살하매 평수장이 대로하여 종묘를 불지르고 남별궁[170]으로 옮으니라.

청정이 평행장더러 왈

«이제 조선 왕이 반다시 북으로 갈 것이니 따르지 말고 평행성에 웅거하여 마다시 심안도 량장의 수군선이 서해로 돌아 가 압록강에 결진함을 탐지한 후에 서로 접응하여 마조 치면 반다시 함경도로 갈 것이니 내 또한 대군을 거느리고 함경도로 들어 가서 각처에 둔병하고 형세를 살펴 군사로 통치할 것이니 경동치 말고 나의 기별을 기다려 서로 접응하면 조선 왕을 생금하고 큰 공을 이루리라.»

하고 인하야 평조강 석강정을 불러 왈

«그대들은 함경도로 들어 가 각처에 둔병하고 내 령을 기다려 접응하라» 하고 평수장과 평조신으로 도성을 지키게 한 다음 청정 평행장이 각각 대군을 거느리고 도성을 떠날새 경복궁을 소각하고 서로 길을 갈라 행군하니라.

평의지 강원도로 가는 장수 석 강룡을 불러 왈

«강원도 안협 따에 리 지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도사라 안협을 접촉[171]하다가는 대패하리라.» 하고 금패[172]를 주어 안협으로 들지 말라 하더라. 평의지 전자에 조선을 편답할제 안협에 이르러 리 지함을 만나니 지함이 왜군인 줄 알고 죽이려 하는지라 평의지 빌어 왈

«나를 죽이려 하오나 조선이 장차 무사치 못할 것이니 살려 주오면 후일에 안협을 침노치 아니 하오리다.»

지함이 벌써 천운이 이리 될 줄 알고 죽이지 아니하고 보냈더라.

차설 좌의정 두수와 참판[173] 리 항복 등이 탑전[174]에 여짜오대

«적장 평행장이 대군을 건느려 모화관을 넘어 평안도로 향한다 하오니 미리 장수를 보내여 막음이 가할가 하나이다.»

상이 즉시 남병사 신 길로 통어사[175]를 정하여 김 명원과 한 가지로 림진강을 막아 적병이 건느지 못 하게 하고 또한 지사 한 응인에게 평안도 군사 오천 명을 주어 신 길의 뒤를 적응하라 하시니라. 우의정 유 홍이 여짜오대

«부원수 신 각이 도성을 지키옵다가 연고 없이 먼저 도망하옵기로 도성이 함몰하였사오니 원컨대 금부도사[176]를 보내여 죽이옵고 다른 장수를 정하게 하옵소서.»

상이 즉시 선관을 명하여 신 각을 참하라 하시니라.

이적에 신 각이 함경도에 들어 가 안변 군사를 일구어 양주로 들어 왔더니 왜장 리 우를 만나 크게 싸와 왜군 칠십여 명을 버히고 리 우를 장전[177]으로 쏘아 죽이니 일시에 왜적이 무너져 닫는지라 신 각이 승전 패문[178]을 평양으로 보내고 군사를 모아 강변으로 돌아 올새 길에서 선전관을 만나니 선전관이 어명을 전하고 신 각을 버히는지라 군사 모다 통곡하고 헤여지니라.

신 각의 승전한 패문이 평양에 이르매 상이 대경하사 급히 사자를 보내여 신 각을 죽이지 말라 하였으나 벌써 선전관이 죽이고 돌아 왔거날 상이 애연히 여기사 우의정 유 홍을 대책하니라.

차시에 통어사 신 길이 김 명원으로 더불어 림진강에 나아가 배를 언덕에 매고 강변에 방패를 세우고 일자장사진[179]을 치고 고각을 울리며 지킬새 후군장 한 응인이 좌우진을 치고 서로 상응하려 하더라.

왜적 선봉대장 소서비 삼천 명을 거느리고 림진강에 이르러 바라 보니 배가 하나도 없는거라 건느지 못 하고 군사로 하여곰 무수히 즐욕[180]하더니 별장 류 극량이 방패에 의지하여 평궁[181]을 들고 나서며 편전[182]으로 쏘니 살 가는 바를 몰라 왜병이 모두 눈을 맞아 죽으니라.

인하여 왜군이 군막[183]을 불지르고 물러 가 견벽불출[184]하고 십여 일을 요동치 아니 하더니 왜장 평의지 한 꾀를 생각하고 군중에 약속하여 군막을 불지르고 거짓 도망하는 체 하고 십여 리를 물러 가 복병하고 일으되

«오날 밤에 조선 군사가 반다시 올 것이니 그 때에 합력하여 치면 이기리라.»

하고 고각을 쉬이고 기치를 뉘여 밤이 되기를 고대하더라.

이적에 조선 통어사 신 길이 왈

«적병이 할일 없어 퇴군하였으니 오날 밤 강을 건너 적의 뒤를 엄살하면 반다시 대공을 이루리라.»

한대 별장 류 극량 왈

«적장이 몹시 간사하오니 다른 꾀 있는가 허실을 몰라 저어하나이다. 원컨대 위태한 계교를 내지 마옵소서. 우리 진을 굳게 하여 지키면 적이 달라들지 못 하고 절로 물러 갈 것이니 원수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신 길이 대즐 왈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적탄에 죽은들 무삼 한이 있으리요, 만일 령을 듣지 아니 하면 참하리라.»

한대 류 극량이 할일 없어 군장[185]을 갖추어 큰 칼을 들고 신 길의 뒤를 쫓아 가니라.

신 길이 한 응인으로 본진을 지키게 하고 군사 삼천을 거느리고 재촉하여 강을 건너서 삼십 리를 가매 문득 방포 소래 일어 나며 수천 홰'불이 일시에 일어 나고 뢰고 함성[186]에 무수한 왜병이 짓쳐 오며 화광이 충천하여 밤이 낮 갈더라.

신 길이 대경하여 군사를 물리쳐 림진강으로 도루 오더니 왜장 평의지 림진강 우에 복병하였다가 신 길의 퇴각함을 보고 급히 나아가 신 길의 배를 앗아 타고 강을 건너 신 길의 본진을 앗고 한 응인을 엄습하는지라 신 길이 배를 잃고 강을 건너지 못 하여 민망하던 차에 평의지의 대군이 산야를 덮어 들어 오며 크게 웨여 왈

«그대들이 우리의 묘한 꾀에 빠졌도다.»

하니 신 길의 군사 넋이 없이 왜병의 창검을 피하지 못 하더라.

류 극량이 하날을 우러러 탄식 왈

«내 처음에 이럴 줄을 알고 말렸더니 뉘를 원망하리요.»

하고 말을 버리고 활을 들고 한 언덕에 의지하여 적병을 쏘니 한 살에 두서이씩 맞아 죽는지라 련하여 쏘니 백여 명을 죽이고 전통에 살이 없거늘 죽은 군사의 살을 빼여 쏘다가 활'줄이 끊어지매 할일 없이 앙천 통곡 왈

《내 어찌 도적의 손에 죽으리요》하고 인하여 자결하니라.

신 길이 평생 기력을 다하여 좌충우돌하여 싸우더니 도적의 철환에 맞아 죽고 또 김 명원, 한 응인 등이 본진을 지키다가 의외의 적병이 급히 침을 입어 군사를 다 죽이고 겨우 목숨을 보전하여 평양으로 달아 나니라.

왜장 평행장이 림진강을 건너 안성역에 이른 다음 군을 내몰아 급히 평양으로 행할새 또다시 기치 검극이 일광을 가리우고 고각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더라. 금천 평산 서흥 황주를 무인지경 같이 지나 중화에 드니 평양이 멀지 아니한지라 먼저 군을 보내여 장림에 진을 치고 대동강에 나아가 탐지할 제 체찰사 류 성룡이 장사 임욱경[187]등을 시켜 대동강 배를 다 언덕 우에 메고 대동문을 걸어 닫고 군사로 하여금 성가퀴[188]에 숨을 쏘게 하니 도적이 능히 들어 오지 못 하고 물러 가더라.

전일에 리 일이 패군 장문을 올리고 원주로 가더니 상이 도적에게 쫓기여 평양으로 가심을 듣고 한 가지로 평양을 찾아 와 통곡하여 뵈인대 주상과 조신이 못내 반겨하더라. 좌의정 두수가 리 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대동강 하류를 지키라 하니 리 일이 령을 받아 가다가 길을 잃어 강서로 가는 길로 가더니 평양좌수 김유[189]를 만나 길을 물은대 만경대를 가리키거날 군사를 호령하여 여울목을 찾아 가니 적장 수명이 이 천군을 거느리고 막거날 리 일이 군사를 호령하여 일시에 쏘라 하니 군사들이 겁하여 잘 쏘지 못 하는지라 리 일이 대로하여 칼로 중군장을 버히고 친히 활을 잡고 살을 두서이씩 쏘니 한 번에 두서이씩 맞아 죽난지라 왜장이 견디지 못 하고 물러 가니라.

이적에 평행장이 장림[190]에다 진을 치고 황주 봉산

창곡을 수운하여 군량을 삼고 강을 건느고 성을 넘어 겁탈할 묘책을 꾸미는데 차시 백관이 여짜오대

«이제 적병이 성외에 림하여 주야로 엿보니 미구에 강을 건너 성을 겁탈하올지라 청컨대 전하는 의주로 가시와 우환을 피하시고 바삐 중국에 사신을 보내여 청병하시와 도적을 쳐 물리치게 하옵소서.»

상이 옳이 여겨 즉시 좌의정 윤 두수와 김 명원 리원익 등으로 평양을 지키라 하고 련을 재촉하여 중궁[191]과 궁인들을 데리고 보통문으로 나가실새 백성들이 소동하여 길을 막고 판부사[192]로 직을 꾸짖어 왈

«네 대신으로서 나라를 섬길진대 힘을 다하여 성을 지키며 사직을 안보함이 옳거날 이제 우리 백성을 버리고 군왕을 모시고 어데로 가난다» 하며 막대로 로 직을 치니 로 직이 말에서 떨어져 상하고 하인 등이 다 상하니 상이 의외지변을 만나 능히 나가지 못 하고 주저하는지라 평안 감사 송 언신이 날랜 장교를 명하여 괴수 수인을 잡아 죽이니 백성이 다 헤여지니라.

상이 련을 재촉하여 순안 숙천을 월참[193]하여 안주에 이르러 청천강을 건느려 하더니 급한 풍우가 대작하여 탕수가 나며 청천강 다리가 삼간이나 무너지고 길에 물이 범람하여 호종군이 능히 건느지 못 하고 련이 물에 떨어지게 되였으되 물'결이 세차기로 백관과 군사들이 하나도 물에 들어 구할자 없는지라 상이 앙천 탄왈

«이백년 기업이 왜에게 패하고 이 지경에 이를 줄을 어찌 알았으리요.» 말쌈이 맞지 못 하여 문득 한 사람이 군사를 헤치고 물 우로 들어 와 대가를 구하여 강변에 모시고 의복이 젖었는지라 군복을 벗고 한 염에 사람 두서이씩 끼고 삼간 무너진 다리를 뛰여 건느기를 십여 차나 하여 백관과 수다한 호종을 다 건너 놓으니 상이 그 용맹을 보시고 크게 기특히 여기사 그 사람을 나오라 하신대 군복을 바삐 입고 복지[194]하여 뵈이니 상이 문왈 …

«네 어데 살며 성명은 뉘라 하느뇨.» 대왈
«성명은 호 은록[195]이요 살기난 황해도 재령 사나이다.»
상이 그 용맹이 장함을 칭찬하여 일등 공신을 봉하시고 순천 부사를 제수하시더라.
상이 박천 고을로 들어 가시니 함경 감사 류 영립이 해진 군복을 입고 평립[196]을 쓰고 짚신에 감발하고 들어와 뵈온대 상이 대경하사 그 연고를 물으시니 영립이 고하여 왈
«경성 부리 국 경인의 불칙한 흉계에 속아 림해 순화 세자 대군과 병부사 김 규영과 참판 황 정욱과 북병사 한 극함이 일시에 국 경인의 복병에 잡히여 적장에게 바치오니 다 죽은가 하였삽더니 갑산 좌수 주 시람이 또 남병사 리 혼을 베여다가 적장 청정에게 바치옵고 주 시람이 신을 구하여 보내옵기로 도망하여 왔삽거니와 오다가 듣자오니 적장 청정이 세자 대군과 여러 대신을 모두 저의 나라로 잡아 보낸다 하옵더니 그간 어찌 되온지 알지 못하오나 이런 시절이 또 어데 있사오리까.»
하며 대성 통곡한대 상이 이 말을 들으시고 또한 통곡하시니 백관이 다 같이 통곡하시기를 마지 아니하더라.
백관이 울며 여짜오대
«이 고을은 소읍이라 오래 류하기 어렵사오니 령변은 대읍일 뿐 아니오라 성지[197]가 험하오니 령변으로 가서 류하시옵다가 평양 기별을 들어 가면서 진퇴를 정하사이다.»
한대 상이 옳이 여기사 즉시 령변으로 가시니라 부사 신 집이 대가가 오시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의외에 대가가 북수문으로 들어 오신단 말을 듣고 대경 황망하여 전도[198]이 나아가 맞은대 상이 성중 백성을 불러 왈
«과인이 박덕하여 의외에 왜란을 만나 도성을 비우고 이 곳까지 왔으니 너희도 과인의 백성이 되여 어찌

마음이 편안하리요. 너희 백성 중에 응당 아는 백성이 있을 것이니 각각 의견을 베풀어 왜적을 파하게 하라.» 하시니 백성들이 일시에 여짜오대

«나라이 편안하오야 백성이 편안하겠사온대 전하 지금에 불의지환을 만내와 이 곳에 하림하옵시니 신 등이 어찌 죽기로써 정성을 다하지 아니 하오리까. 전하 이 때를 당하와 시절을 의논코저 하실진대 묘향산 서산 대사라 하는 중을 부르사 군사를 의논하여 보옵소서. 이 중이 가장 건장한 생불이오니 응당 성쇠 홍망을 판단하리이다.»

상이 일찌기 서산 대사 도통했단 말을 들어 계시기로 대희하여 즉시 승전[199]을 명하여 서산 대사를 바삐 다려 오라 하신대 승전이 봉명하고 동문으로 나가 묘향산을 찾아 가니라.

이 때 서산 대사 나라이 왜란을 만나 평변에 와 찾을 줄 알고 가사를 입고 향로봉에 올라 조선 운기[200]를 다 살펴 본 후에 즉시 륙환장[201]을 짚고 평변으로 나오더니 동문에 다달으는 맞은 길에서 승전을 만난지라 승전이 잠간 눈을 들어 보니 괄척 신장에 거룩한 스님이 오거날 범숭이 아닌 줄 알고 절하여 왈

«로사[202]는 어데 계시관대 괴로이 가시나이까.»
서산이 합장 공례[203] 왈

«향산에 있삽더니 고을로 들어 가나이다.»

승전이 또 문 왈

«향산으로부터 오시노라 하니 서산 대사의 유무 편부[204]를 알으시나이까.»
답왈

«서산은 무사히 있삽거니와 무삼 일로 서산 로승을 찾으려 하시나뇨.»
승전이 답왈

«지금 나라이 왜란을 만나 평변성으로 피하오매 군

사로 더불어 의논하실새 서산 대사를 모셔 오라 하옵기로 왕명을 받자와 향산으로 가는 길이로소이다.»

서산이 거짓 놀란 체 하며 대왈

«이 어찌한 말씀이니까. 소승은 이른바 서산이란 중이라 하옵거니와 이는 진실로 놀라운 말씀이로소이다.»

승전이 대희하여 즉시 공례 왈

«과연 그러하오면 이난 천행이라소이다. 바삐 들어 가사이다» 하고 인하여 대사를 다리고 들어 가 아뢰되

«서산 대사를 찾아 향산으로 가옵더니 동문을 나가온즉 문득 그 중이 마조 오기로 다려 왔나이다.»

상이 대희하사 바삐 인견하시니 서산이 들어 가 사배하고 뵈인대 상이 잠간 그 골격을 보시니 낯빛이 비록 소정[205]하나 기골이 웅장하여 신장이 팔척이요 진실로 홍윤한 안색[206]에 창안 백발[207]이라 의표[208] 거동과 름름한 풍채 과연 범승이 아니어늘 상이 대열하사 가까이 나오라 하여 대사의 손을 잡고 왈

«과인이 일찌기 경의 광활한 도량을 들어 알거니와 과인이 박덕하여 왜란을 만나 사직이 망하게 되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황천에 돌아 가 태조 대왕께 뵈오리요. 천지간에 과인 같이 죄 중한 사람이 또 어데 있으리요. 이런 민망한 사연을 의논할 사람이 없기로 특별히 경을 청하였나니 경은 과인을 위하여 한 번 높은 조견을 베풀어 국가 안위를 자세히 알아 보라.»

하신대 대사 복지 대왈

«소승이 본래 아옵난 일이 적삽거니와 전하 이렇듯이 하교하시니 어찌 정성을 다하지 않사오리이까. 소승이 일찌기 산천 정기를 살피옵나니 왜란이 있을 줄 아옵거니와 원컨대 천안[209]을 자세히 보오면 앞일을 알리이다.»

하니 상이 룡안[210]을 들어 자세히 보라 하니 대사 한 번 바라 보고 복지 주왈

«전하는 조금도 근심치 마옵소서. 룡이 대해 중에 잠긴 상이오니 왕위를 잃을 상이 아니옵고 이제 명 나라에 청병하오면 반다시 구하올지라 전하는 의주로 들어 가시와 명나라 황제께 청병하옵소서.»

각설 왜적 평행장이 옮겨 대동강 남쪽에 일자진을 치거늘 좌의정 윤 두수 왈

«적병이 우리를 겁탈코저 하니 각별히 지키라.»

하고 감사 송 언신으로 동대문을 지키게 하고 병사 리 윤덕으로 북문을 지키게 하고 자산 군수 리 유후로 장경문을 지키게 하고 또한 기치를 성상에 세우고 북을 울리며 방포를 놓으니 왜병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니라.

왜적이 또한 진을 고쳐서 둘을 만들고 오색 기치를 세우고 낮이면 포통을 재약하여 동대문을 맞히되 상하지 않는지라 왜병이 높은 두던에 올라 군복을 걷어치고 대동문을 향하여 요동하는 형상을 하거날 송 언신의 군관 권 사혁이 방패를 세우고 대동문 기둥을 의지하여 편전을 쏘니 왜병이 손에 살이 박이듯 하는지라 평행장이 강을 건너 올 묘책을 내지 못하고 이십여 일을 출입치 아니 하더니 제장을 모아 의논 왈

«이제 강을 건너 갈 묘책이 없고 또한 각각 협처를 지켰으니 수이 파하기 어려운지라 회군하여 순안으로 가 진을 치고 양덕 맹산으로 들어 가 의주 압록강으로 지키여 마다시 삼안도의 수군이 서해로 돌아 와 남으로 치거든 마주 향하여 침이 옳다.»

하고 진을 풀어 옮기려 하니라.

각설 김 명원이 제장으로 더불어 서로 의논 왈

«이제 적병이 할일 없어 물러 가 요동치 아니 하니 이는 반다시 구원병을 청함이라 오날 밤에 가만이 왕성탄[211]을 건너 급히 치면 반다시 승전하리라.»

하고 즉시 증산 현령 고 언백[212] 장사 엄 욱경으로 선봉을 삼고 초경 일점[213]에 군사를 점고하고 이 경에 술과

밥을 먹이고 삼경에 행군하여 왕성탄으로 건너 가니 적병이 십여둔[214]을 바둑말 벌이듯 하고 자거늘 고 언백이 장창을 들고 급히 짓쳐 들어 가니 적장이 불의지변을 만나 동서를 분별치 못 하고 황망히 말을 타고 내닫더니 문득 방포를 놓아 홰'불을 벌리여 세우고 군사를 호령하여 겹겹이 둘러싸거늘 장사 엄 욱경이 장창을 들고 좌충우돌하여 적병 삼십여 명을 죽이고 고 언백으로 더불어 평생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대세를 당치 못 하여 무수한 군사를 다 잃어 버리고 대동강 변으로 물러 나올새 산병 십여 기가 적병에게 쫓기여 왕성탄으로 달아나니 도적이 그제야 왕성탄이 옅은 줄 알고 대군이 일시에 기를 숙이고 건너 오는지라 엄 욱경 민 여호 등이 한 도적을'거꾸로 잡고 어지러이 두르니 적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 한대 십여 명을 박살하고 마침내 물에 빠져 죽으니라.

인하여 윤 두수 김 명원 등이 군기[215]를 풍월루 못[216] 가운데 집어 던지고 보통문을 열고 순안으로 달아나고 중군 최 원발이 또한 도망하여 령변으로 달아 나 평양 함몰한 사연을 고하니라.

평양이 실수되였다는 급보가 이르자 상이 대경하사 즉시 련을 재촉하여 가산으로 가시니 적의 성식[217]이 점점 급한지라 의주로 발행할새 정주에 들리사 남문 밖의 오리정에 련을 잠간 머무르려 도성을 향하여 통곡하시더니 이튿날 정주를 떠나사 류월 이십 삼일에 의주에 이르러서 통군정에 올라 경성을 바라 보시고 통곡 왈

«선왕의 이백년 기업과 삼백여 주를 일조에 왜적에게 앗기우니 박덕한 이 몸이 장차 어데 가 의탁하리요»
하고 대성 통곡하시니 좌우 제신이 아니 울 이 없더라.

각설 선시에 왜장 청정이 대군을 거느리고 함경도로 향할새 두 사람이 산곡에 있거날 장수를 보내여 길을 물은대 그 사람들이 답왈

«내 어찌 도적에게 길을 가리켜 주리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한대 청정이 대로하여 내여 버히고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나 길을 물은대 그 사람이 자세히 이르거늘 청정이 즉시 그 사람을 거두어 지로군[218]을 삼더라.

청정이 곡산으로부터 로리치라 하는 고개를 넘어 철령 북쪽으로 나아가서 주야로 백리씩을 풍우 같이 몰아가니 함경 일도가 진동하여 각읍 수령이 미처 수미를 돌리지 못 하는지라 북병사 한 극함이 왜병이 함경도로 들어 온다는 말을 듣고 즉시 경원 경흥 회령 종성 온성 부령 륙진군[219]을 조발하여 왜진을 향하여 가더니 청정의 대군을 해정창[220]에서 만나 서로 대진하여 방패를 세우고 접전할새 한 극함이 군사를 호령하여 도적을 쏘라 하니 북도 군사 본래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 하여 활도 쏘며 말도 달려 창으로 찌르며 평궁으로 짓치니 적병의 죽은 시체 들에 쌓여 헤일 수 없더라.

청정이 대패하여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어 창평으로 물러 가 진을 치거늘 극함이 승세하여 련하여 북을 울리며 기를 둘러 왜진을 즛치니 청정이 대적하지 못 하고 군사를 멀리 물려 한 곳에 모으고 일정 요동치 아니 하더니 왜군 선봉장 경감노 사만군을 거느리고 수로로 들어 명천 길주를 함몰하고 청정의 진을 향하여 오다가 청정의 급함을 보고 군사를 재촉하여 한 극함의 진을 엄살한대 청정이 대희하여 량군이 합세하여 좌우로 껴 치니 극함이 당적하지 못 하여 잔군을 거느리고 동으로 향하여 마천령에 오르니 날이 이미 저물었는지라 군마 종일 토록 구치[221]하여 오매 기갈이 심하거늘 군중에 령을 내려 밥을 지으라 하였더니 미처 짓지 못 하여서 왜병이 가만히 와 사면에 불을 놓고 급히 치니 극함이 황망하여 창을 들고 말을 내몰아 군사를 재촉하니 불을 무릅쓰고 힘을 다하여 전면을 헤치고 황망히 달아나다가 문득 대

택중[222]에 빠졌는지라 왜병이 따라 와 급히 치니 극함이 군사를 다 죽이고 겨우 몸을 빼내여 동으로 달아 나니라.

청정이 군사를 모아 남병영[223]에 진을 치고 군정을 정제하니 남병사 리 혼이 황망하여 갑산으로 도망하여 감사 류 영립이 또한 도망하였는지라 청정이 함경 일도를 초개 거두듯 하고 각읍 수령을 임의로 차출[224]하며 창곡을 수운하여 근본을 삼으니 형세 태산같은지라.

차시에 경성 장교 국 경인이 무상[225]하여 한 계교를 생각하고 동류 수십인을 모아 의논 왈

«이제 조선이 거의 왜국이 되였으니 뻑뻑이[226]나라 운기가 쇠하였는지라 어찌 서산에 락일을 바라고 동령에 돋아 오는 달을 탐하지 않으리요. 왕자 대군과 병사 한 극함을 잡아다가 청정에게 드리면 벼슬도 하려니와 또한 중상을 받을 것이니 한 가지로 합력하여 도모함이 어떠하뇨.»

하고 인하여 건장한 사람 오십 명을 큰 못가에 복병시키고 국 경인이 거짓 겁내는 체 하고 왕자 대군 계신 곳에 들어 가 여짜오대

«시방 적장 청정이 세자 대군을 잡으려고 대병을 거느려 성외에 림하였사오니 바삐 산중에 들어 가 피란하옵소서.» 한대 림해군 순화군 두 형제와 명부사 김 규영과 참판 환 정욱과 회령 부사 리 영과 병사 한 극함 등이 대경하여 성문을 열고 달아 날새 국 경인이 거짓 길을 인도하여 못 있는 데로 앞을 서 가니 날이 이미 저물었는지라 아무런 줄 모르고 가다가 대택 중에 빠지니 복병이 일시에 내달아 결박하여 말에 싣고 돌아 가서 청정에게 바친대 청정이 대희하여 국 경인으로 경원 부사를 정하고 기차[227]는 각각 중상을 주니라.

남병사 리 혼이 갑산에 숨었더니 갑산 좌수 주 시남이 국 경인이 경원 부사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이런 때

에 승란 굳기[228]함이 옳다 하고 가만히 병사의 사처에 들어 가니 하인은 다 잠이 들고 리 혼도 또한 술이 대취하여 몽롱히 잠이 들었거늘 장검으로 목을 베여 가지고 부령으로 들어 가 청정에게 바치니 청정이 또한 즉시 주 시남으로 길주 부사를 삼고 시남다려 왈

《저기 잡혀 온 사람 중에 쓸 사람이 있나뇨.》

시남이 두루 본즉 함경 감사 류 영립을 결박하였거날 영립의 맨 것을 풀고 왈

《이 사람은 내 전일의 사죄를 벗겨 준 사람이니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하고 놓아 주게 하니 류 영립이 겨우 목숨을 보전하여 이 날 평안도로 향하여 가니라.

각설 상이 의주 행재소에 좌정하고 즉시 명 나라 봉성 장군[229]에게 조선 군왕이 왜란을 만나 의주에까지 파천되여 온 사연을 구신하고 명 나라에 청병을 바라는 자문[230]을 보내니 체찰사 류 성룡이 여짜오대

《비록 명 나라에 자문을 보냈으나 바삐 사신을 보내여 청병하게 하옵소서.》

상이 옳이 여기사 정 곤수[231]를 상사로 정하고 심 우승을 부사로 정하여 청병 사신을 발마[232]로 보내니라.

전일에 경성이 실수되매 도승지 리 항복이 여짜오대

《이제 팔도가 왜적에게 짓밟혀 다시 수습하기 어려우니 비록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나라를 위한 계략을 알지 못 할지라 예전에 공명의 지혜로도 형주[233]가 실수함에 미쳐서는 손 권에게 구원을 청하여 마침내 적벽의 대첩[234]을 이루웠으니 이제 조선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니 명 나라에 청병함만 같지 못 하나이다.》

하거늘 백관의 의견이 구구하더니 다시 림진강이 실수되고 적병이 대동강에 이르러 대가가 서으로 옮기니 리 항복이 리 덕형으로 더불어 명 나라에 들어 가서 청병함을 자원한 대 상이 리 항복은 병조 판서가 되였으니 보내지 못 하고 리 덕형만 보낼새 리 덕형이 단기[235]로

료동을 달려 가 도독 학결[236]을 만나고 조 승훈 사유[237]로 더불어 삼천 병마를 거느리고 오니라.

이적에 청병 사신이 황성에 들어 가 례부 상서께 청병 주문을 드린대 상서 황제께 상달하니 황제 놀래여 사신을 인견하고 연고를 물으신대 정 곤수 절절히 아뢰고 주야로 청병하되 황제 천리 동병이 난감하고 주저하시더니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조선으로부터 무수한 계집이 머리에 벼짚을 이고 황제를 밀치고 룡상에 올라 보이거늘 깨달아 해몽하니 《왜[238]》자는 인변에 벼화 아래 계집녀 한 자이라 왜적이 조선을 침노하고 또한 중원을 범할 꿈이라 하여 이튿날 옥하관[239]에 전좌[240]하사 조선 사신을 불러 왈

《짐이 나라가 년홍 기황[241]하니 도울 형세 없으되 사세 그러하기로 원병을 보낼 것이니 바삐 돌아 가 조선 국왕께 고하라.》

하신대 정 곤수 등이 사은하고 돌아 와 황제의 말씀을 상께 아뢰니 상이 대회하사 윤 두수 류 성룡 리 항복 등을 명하여 각처의 군량을 수운하여 예비하라 하시니라.

이적에 왜장 평행장이 평양성을 웅거하고 격서[242]를 보내였으되

《너의 조선이 어찌 우리를 당하리오. 내 이제 대군을 거느려 의주로 가려 하나니 조선 왕은 어데로 가려 하난다. 수이 항복하여 무죄한 백성을 죽이지 말라.》

하였더라.

상이 대경하사 군신을 모아 의논한즉 혹 압록강을 건너 가 피하자 하며 혹 그러한들 어찌 타국으로 가리요. 비록 죽을지라도 이 곳에서 명 나라 원병을 기다려 봄이 가하다 하거늘 상이 마음이 산란하여 대풍 소리를 왜병의 함성인가 하더라.

이 때 명 나라 황제 백관을 모아 의논하시고 바삐 대장을 정하여 조선을 도우라 하신대 병부 상서 석 성이 여짜오대

《료동 부총병 조 승훈이 지략이 겸전하옵고 료동이 조선과 련접한 땅이오니 료동 군사를 일구워 조선을 돕게 하옵소서.》

황제 옳이 여기사 즉시 료동 부총병에게 조서를 나리우사 바삐 조선을 도우라 하시고 곽 몽징 왕 수신 대 조변으로 각각 삼천병씩 거느리고 유격 장군 사 유로 창군[243] 일만 오천 명을 거느려 료동으로 내려 가서 조 승훈과 한 가지로 왜병을 치라 하시고 례부 상서를 시켜 대홍 대단 오백 필과 은자 일만 오천 량[244]을 조선에 보내여 군무에 쓰라 하시더라.

차시에 조 승훈 사 유 등이 조선으로 향할새 기치 검극이 삼십 리에 련하였난대 청병 패문이 먼저 의주에 이르니 상이며 백관이 대희하여 범백을 준비할새 체찰사 류 성룡이 즉시 룡천 곽산 정주 삼 읍의 군마와 군량 마초를 수운하여 강변에 대기하고 김 명원 황 원[245]으로 순안을 지켜 한 가지로 싸우게 하니라.

명장 조 승훈 사 유 등이 대병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오니 상이 백관을 거느리고 맞아 들이여 대접하시고 장졸을 크게 호상[246]하매 조 승훈 사 유 등이 즉시 의주를 떠나 순안에 이르러 초경에 호군[247]하고 이경에 밥을 먹여 오경에 바로 평양에 다달으니 모진 비 무수히 오는지라 성문에 군사 하나도 없거늘 조 승훈이 대희 왈

《이 때를 타서 급히 치면 가히 승전하리라.》

하고 사 유가 친히 선봉이 되고 왕 수신 대 조변으로 좌우익장을 삼아 일시에 대군을 놓아 칠 성문을 파하고 들어 가니 도적이 하나도 막는 자 없더니 이윽고 방포 일성이 일어 나며 길 상하로서 수 없는 왜적이 일어 나와 좌우로 껴 치니 조총 소래 천지를 진동하더라. 환 철환

에 이삼 인씩 맞아 죽으니 명병 죽은 것이 부지기수리라.

조 승훈이 대경하여 징을 쳐 물리더니 사 유 또한 철환을 맞아 죽으니 명진이 크게 어지러워 패주하니라. 시절조차 불행하여 큰 비 삼일을 끊지 아니 하니 명진이 더욱 랑패하여 퇴군하니 왜적이 명진이 패주함을 보고 성상에 백호기[248]를 세우고 북을 울리며 기세를 올리니라. 조 승훈이 군사를 점고하고 능히 대적치 못하여 군을 거느려 료동으로 들어 가니라.

이제는 할일 없어 순찰사 리 원익이 일천군을 거느려 증산을 지키게 하고 병사 리빈이 오천군을 거느려 순안을 지키게 하고 별장 김 억추로 수군 삼천을 거느려 대동강 하류를 지키게 하니 조방장 김 응서 또한 룡강 군사를 거느려 오고 별장 림 중량[249]이 이천병을 거느려 중화에 취둔[250]하니라.

각설 조선국 삼도 통제사[251] 수군 대장 리 순신의 자는 여해니 아시쩍부터 려력[252]이 과인하고 우국 충성이 지극하더니 순신의 마음에 왜란이 있을 줄 알고 전선 사십여 척을 지으되 배 우는 거북의 형상이요 전쇠로 입히고 궁기를 무수히 두어 벌의 집 모양으로 만들고 수군 장졸을 모아 련일 조련하며 상벌을 분명히 하니 장졸의 마음이 락락하여[253] 수전을 익히더라.

차시에 왜장 마다시 심안도의 수군 팔십만 대병이 수로로 들어 서해로 돌아 가 의주 압록강을 짓치고저 하여 처음에 거제도로 향하니 경상 우수사 원 균이 황겁하여 우리 나라 어선을 보고 적의 배라 하여 창황히 로량[254]으로 물러 가더니 왜적이 여러 고을을 함몰하였다 함을 듣고 또 가덕으로 행할새 적이 바다를 덮어 오는지라 드디여 전선 백여 척과 화포 군기를 다 바다 가운데 던지고 홀로 비장으로 더불어 달아 나고저 하거늘 옥포 만호 리 운룡이 소리를 높이여 가로되

«사또는 나라의 중임을 맡았으니 의리인즉 마땅히 봉내[255]에서 죽을 것이요 또 여기는 량호[256]의 인후라 여기를 잃으면 량호가 위태할지니 이제 우리들이 비록 흩어졌다 하더라도 오히려 다시 모일 수가 있고 또 호남의 수군을 청하여 와서 구원을 하게함이 가하리로다.»

한대 원균이 옳이 여겨 로량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라 좌수사 리 순신에게 구원을 청하니라.

리 순신이 군관 송 희립을 불러 전라 우수사 리 억기에게 보내고 원균에게 약속하되

«이 곳은 푸등[257]이 많아 수전하염즉 아니 하매 내 도적을 유인하여 대해로 나가 싸울 것이니 그대 등은 차차 내 뒤를 따르라.»

하고 오월 초칠일 순신이 전선 백여 척에 수군을 싣고 옥포 앞 바다에서 왜적과 마주쳐 도적으로 더불어 싸우다가 거짓 패하여 배를 재촉하여 남해로 달아 나니 원균 리 억기 등이 또한 패한 체하여 배를 돌이켜 가는 지라 왜장이 바라 보고 웃어 왈

«적이 어찌 우리를 당하리요.»

하고 인하여 고각 함성과 함께 급히 따라 올새 리 순신이 문득 배를 돌리우며 군사를 호령하여 도적을 쏘라 하니 리 억기의 전선은 좌편으로 들어 오고 원 균의 전선은 우편으로 들어 오니 왜적과의 사이는 불과 수십 보라 일시에 껴 치니 화전[258]과 철환이 비'발 드리우듯 하고 뢰고 함성이 벽해를 흔드난듯 하더라. 이에 리 순신의 판옥선[259] 사십여 척이 적진 중으로 들어 가며 화포를 놓으니 적선에 불이 곳곳에 일어 나 연염[260]이 충천하여 하늘과 바다를 분별치 못 할네라.

왜병이 연염에 기막혀 죽는 자 부지기수요 또 대한고[261]를 재와 전선을 파하니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수만명이라 왜장 마다시 대패하여 동으로 달아 나거늘 순신이

회주[262]를 재촉하여 따르며 화포를 놓으니 마다시 화포를 맞아 그만 죽으니라.

남은 군사 다 사면으로 도주하거늘 순신이 전선을 거두어 로량으로 들어 와 진을 치고 장졸을 크게 호상한 후에 수일 류하더니 마다시의 아우 마적시[263] 제 형 죽음을 보고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형의 원쑤를 갚고저 전선 백여 척에 수십만군을 거느리고 순신의 진을 겁취코저 하는지라.

순신이 도적이 올 줄을 미리 알고 전선 백여 척에 대한고를 등대하고 군중에 호령 왈

«오날 밤 삼경에 적병이 올 것이니 장졸은 모름지기 바다를 경계하고 대기할지라.»

하더니 과연 마적시의 대병이 일시에 들어 오며 크게 엄살하거늘 순신이 또한 응포[264] 하고 대한고를 일시에 도발하니 도적이 다불에 상하여 죽고 다만 마적시가 탄 배만 남았는지라 마적시 대패하여 제갈량이 살아 온가 크게 의심하여 달아 나거늘 순신이 승전하매 리 억기 원 균으로 더불어 사천에 진을 치고 군사를 호상하더니 문득 동남풍이 일거늘 순신이 제장을 모아 의논 왈

«도적이 또 오날 밤에 순풍을 만나 들어 와 우리를 겁침[265]할 것이니 장졸들은 대기하여 있으라.»

하고 전선 이백척에 초인[266]을 무수히 만들어 세우고 또 방패와 척롱기[267]를 앞에 세우고 리 억기를 불러 왈

«그대는 전선 십여 척을 거느리고 조근도 사이 수풀에 복병하였다가 왜선이 외양포로 들거든 급히 치라.»

또 원 균을 불러 왈

«그대는 수군 삼천을 거느리고 동도섬 사이 수풀에 숨었다가 적선이 지나 감을 탐지하여 일시에 내달아 치라. 나는 남으로 나아가 칠 것이니 제장은 령을 어기지 말라.»

하고 각각 분발하니라.

리 순신이 갑주를 입고 노를 저어 나가 요해처에 매복하였더니 적장 마적시 동남풍이 일어 남을 보고 이 때에 순풍을 좇아 치면 원쑤를 갚으리라 하고 즉시 십여 척에 총포와 염초 화약을 갖춘 후에 일시에 행선하여 순신의 진에 나아가 급히 불을 놓고 껴 치니 순신의 군사 일정 요동치 아니 한지라 고이 여겨 자세히 보니 빈 배에 초인만 서 있거늘 마적시 대경하여 배를 돌려 가고저 하더니 문득 함성이 크게 일어 나며 순신의 복병이 내달아 화포를 놓으며 편전과 화전으로 어즈러이 쏘니 왜병이 무수히 맞아 죽난지라 비록 대적코저 하나 살과 철환이 이미 초인 실은 배에 허비하였는지라 능히 대적치 못하고 군사를 거의 다 죽이고 겨우 백여 명을 거느리고 남해로 달아 나더니 수상에서 무수한 전선이 급히 따르며 크게 우여 왈

«적장은 이제 하날로 오른다 땅으로 드난다.»

하는 소래 벽해를 흔들더라. 바라 보니 큰 기에 썼으되 «조선 수군 대장 리 순신»이라 하였거늘 대경하여 피코저 하나 피할 곳이 없는지라 배를 한데 모으고 민망하여 하더니 리 억기 원 균의 수군이 따라 와 좌우로 들어 오거늘 도적이 능히 동서를 분별치 못하여 황망 전도히 도망할새 순신히 승세하여 몸을 공중에 날려 왜선에 뛰여 들어 왜병을 몰수히 버히니라.

이 때 왜병 하나이 배에 숨었다가 조총으로 순신을 쏘니 순신이 어깨를 맞았는지라 본진으로 돌아 올새 피가 흘러 갑주에 사무쳤더라. 제장이 대경하여 갑주를 벗기고 보니 철환이 두어치나 들어 갔거늘 제장이 한심하여 아무리 할 줄을 모르고 황망하여 한대 순신이 안색을 불변하고 천연히 앉으며 의술로 하여금 칼로 살을 베여 철환을 빼여 내라하니 장졸들이 더욱 실색하더라. 철환을 빼여 낸 후에 약을 발라 싸배고 누워 조리하려다가

다시 생각하고 이 때를 당하여 대장이 누워 일어 나지 아니 하면 군정이 분운[268]할가 념려하여 혼자 가로되

«대장부 요만 상처에 어찌 누워 조리하리요.»

하고 즉시 전선을 거느려 한산도로 돌아 가 물에 진을 치고 장졸을 호상한 후에 상처를 조리하더라.

차설 차시는 임진년 추구월 망일[269] 이라 월색이 명랑하고 추풍이 소슬한지라 장졸이 다 마음을 놓고 잠을 자더니 순신의 꿈에 한 백발 로인이 나타나 이르되

«장군은 바삐 일어 나소서. 시방 도적이 급히 쳐 들어 오나이다.»

하거늘 순신이 놀라 깨여 일어 나서 원근을 살펴 보니 월색이 명롱하여 밝기가 낮 같은지라 제장이 다 잠이 깊이 들었거늘 처량한 회포를 이기지 못 하여 잠간 서안에 의지하여 국사를 생각하고 하늘을 우러러 길이 탄식하더니 제장을 깨워 왈

«몽사 고이하여 아마도 도적이 급박한듯 싶으니 급히 궁시와 기계를 정제하라.»

한대 장졸이 비록 믿어지지 않으나 장령[270]을 거역지 못 하여 기계를 정제하더니 과연 삼경시에 왜적이 가만히 배를 저어 들어 오거늘 순신이 급히 방포를 놓고 천아성[271]을 올리니 도적이 또한 응포하고 시석[272]으로 치는지라 순신이 제장을 호령하여 좌우로 내몰아 치니 왜병이 대패하여 진을 풀어 남으로 달아 나니라.

원 균의 비장 리 영남이 달려 가 왜선 일 척을 파하고 왜병 오십 명을 결박하여 순신에게 드린대 순신이 높이 앉아 호령 왈

«너희 중에 응당 조선 군사 있을 것이니 뉘냐.»

한 군사 대 왈

«소인은 거제때에 사는 김 대룡이옵더니 왜적에게 잡히여 군사 되였삽더니 오늘날 장군을 뵈오니 변시[273] 부모를 만나듯 하외다.»

순신이 왈

《네 조선 땅의 백성이라 하니 도적의 기미를 낱낱이 알외라.》

김 대룡이 대왈

《시방 왜선 사백 척은 당항포[274]에 숨어 있고 오백 척은 왜장 심안도가 거느리고 안골포[275]에 있사와 서해로 돌아 가고저 하되 장군님이 이에 계시기로 지나지 못 하여 아직은 군막을 고성에 짓삽고 대기하여 있사오니 장군은 급히 쳐 대공을 세우옵소서.》

하거늘 순신이 왜적은 다 내여 버히고 즉시 전선 오백 척을 조발하여 당항포로 향하여 갈새 먼저 정병 백여 기를 륙지로 보내여 약속하되

《우리 전선이 당황포에 들거든 불을 놓고 급히 치라.》

하더니 인하여 당항포가 가까와지니 문득 륙지로부터 급한 불이 일어 나며 살별지성[276]이 랑자한지라 왜병이 배를 타고 당항포를 나와 안골포로 향하려 하거늘 순신이 전선을 재촉하여 급히 치난대 왜적이 갈 곳이 없어 혹 물에도 빠지며 혹 불에도 타져 죽난 것이 부지기수라. 적선 백여 척을 불사르고 이백여 명을 버히니 나마지 왜병이 사면으로 흩어져 도망하니라.

순신이 전선을 재촉하여 안골포로 향할새 적장 심안도 당항포의 전선이 다 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대경하여 즉시 군사를 재촉하여 밤을 타서 안골포를 떠나 멀리 남해로 달아 나니라. 순신이 안골포로 들어 가니 왜병이 간 곳이 없거늘 리 억기 원 균으로 더불어 한산도에 들어 가 군사를 호상하고 승전 장문을 의주로 보내니 조정에서 리 순신으로 삼도 통제사를 삼으니라.

각설 함경도 북평사[277] 정 문부와 종성 부사 정 현룡과 경원 부사 오 응태 등이 백두산에 숨어 피란하던 중 왜장 청정이 함경 일도를 차지하여 각읍 수령을 임의로

차출한다 함을 듣고 불승분기[278]하여 도적을 치고자 할새 경성 사람 리 봉수 최 배천 지 달원 등과 의병을 도모하여 한 가지로 의논하더니 한 곳에 다달으니 피란군 백여 명이 모여 주육을 란만히 갖초아 연락[279]하거늘 정문부 문왈

«시방 나라이 란시를 만나 종묘와 사직의 위태함이 조모[280]에 있거늘 그대 등도 나라 백성이라 무삼 홍기로 이렇듯 즐기나뇨. 나는 북평사 정 문부러니 이제 왜적을 치고저 하되 우익[281]이 없어 상기 나가지 못하였더니 그대 등은 생각하여 보라. 우리 조선이 일조에 왜국 천하가 되였으니 그대들인들 어찌 비감치 않으리요.»

그중 강문우[282]자칭 별장하고 백성을 모아 한 가지로 연락하다가 정 문부의 말을 듣고 크게 무류하여 고개를 숙이고 능히 대답하지 못 하거늘 정문부 강 문우의 곁에 나아가 달래여 왈

«옛 춘추 전국 시절에 제민왕이 일조에 칠십여 성을 연 나라에 잃고 위국으로 더불어 돌아 갔더니 전 단[283]이라 하는 사람이 홀로 강개하여 처첩을 항오에 세우고 승전하여 마침내 제 나라를 회복하였나니 시방 우리 나라이 옛날 제민왕 시절 같은지라 우리 등이 어찌 한 전 단만 갈지 못 하리요. 원컨대 그대 등은 날과 한 가지로 도적을 치다가 설혹 죽을지라도 조선국에 옳은 귀신이 될 것이니 다시금 생각하여 보라.»

한대 강 문우 등이 일시에 사례 왈

«장군 말씀이 진실로 감격하온지라 죽어도 한 가지로 도적을 치고저 하나이다.»

정 문부 대희하여 강 문우 등을 다리로 각각 피란군을 모으니 또한 백여 명이라 단을 높이 뭇고 돌을 잡아 하늘께 제사하고 피를 마시여 서로 죽기로 맹세한 후에 리 봉수의 집으로 가서 명주 륙십 필을 얻어 기치를 만들어 그 기에 썼으되 «의병장 정 문부»라 하고 군사의

전립[284]에 충성충'자를 써 붙이고 먼저 회령으로 나아가니라.

이 때 회령 관속들이 반겨 왈

«언제 의병이 이르러 왜적을 칠가 바라기를 대한 칠년에 운우 바래듯 하였더니 이제야 의병이 왔도소이다.»

하고 적장 경감노를 속이여 왈

«의병이 성외에 이르렀다.»

한대 경감노 대경하여 미처 군을 차리지 못하고 필마로 나갈새 관속이 경감노를 쏘아 죽이고 정 문부를 맞아 들이거늘 정 문부 성에 들어 가 류진하고 각관에 전령하되

«북평사 정 문부는 이제 의병을 일구어 왜적을 치고 한 번 장검으로 조선 강산을 건져 내고자 하니 각읍 수령이나 백성들이나 충절 가진 사람이거든 모두 향응하여 한 가지로 도적을 파하고 사직을 회복하게 하라.»

하였더라.

정 문부 또 창곡을 내여 기민을 진휼하니 경원, 경흥, 온성, 종성, 회령, 부평, 명천, 길주, 단천, 리원, 북청 군사와 예기 있는 백성들이 구름 모이듯 하더라.

선시에 정 문부 국 세필을 피여 경성 남성루에 올라가 장사 강 문우로 하여금 버히고 또한 정 말수 등 역도 삼십여 명을 잡아 죽이더니 얼마 안 있어 도훈도 신 세준이 국 경인을 붙들어 와 버히니라.

정 문부 왜장 청정을 칠새 정 현룡으로 중위장[285]을 삼고 오 응태로 복병장을 삼고 한 인제 류 경천으로 좌우 위장을 삼아 길주를 파하고 승세하여 남으로 내려 와 함흥성을 포위하니라. 정 문부 군사 삼만을 거느리고 함흥 덕산역 앞에 류진하고 정 현룡을 불러 왈

«그대는 삼천군을 거느리고 선봉이 되여 함흥 동문을 치라. 나는 후군이 되여 남문을 치면 적장이 반다시

서문으로 달아 날 것이니 한 가지로 모아 치면 응당 패자령[286]으로 달아 날 것이니 뉘 나가 그 곳을 지키리요.»

한대 한 장수 뛰여 내달아 크게 우여 왈

«소장이 가리이다.»

하거늘 모두 보니 장사 강 문우러라. 즉시 정병 삼천을 주어 보내고 그 날 밤 삼경에 군사를 호궤하고 사경에 행군하여 함흥성에 이르러 일시에 거화[287]를 밝히고 크게 함성하며 먼저 동문에 들어 짓치니 왜장 청정이 불의의 습격을 만나 장창을 들고 급히 말을 달려 동문을 막고저 하더니 또 남문에서 급한 불이 일어 나며 한 군사 달려와 보하되

«남문에 의병이 이르러 우리를 무수히 죽이나이다.»

하거늘 청정이 대경하여 또 남문을 구하고저 하더니 함흥 관속이 왜적의 군기고를 불지르고 문 지킨 군사를 죽인 후에 성문을 열어 의병을 맞으니 전 형용이 장창을 들고 들어 가 왜병 백여 명을 죽이고 또 정 문부의 군사 남문을 소화하고 일시에 들어 가 치니 청정이 미처 막지 못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서문으로 도망하여 패자령으로 달아 나더니 문득 령상에서 방포 소래 일어 나며 크게 우여 왈

«의병장 강 문우 도적을 기다리고 이 곳에 와 류진한 지 수일이 되였더니 이제 너희들이 어데로 간다.»

하고 군사를 거느려 일시에 내달아 활로 쏘니 왜병이 태반이나 죽는지라 청정이 겨우 한모를 헤치고 달아나 강원도 안변으로 들어 가 웅거하니라.

각설 왜장 금갑산[288]이 강원도 금강산 유점사에 들어가 중을 호령하여 왈

«너희들에게 있는 기물[289]을 모두 내여 놓으라. 만약 거역하면 죽이리라.»

한대 중이 대경하여 사중 재물을 모두 내여 놓으려 하더니 문득 한 로승이 밖으로부터 들어 와 불당에 배례

하고 왜장을 향하여 읍하거늘 금 갑산이 큰 칼을 짚고 쏘아 보는데 왜병이 좌우에 둘러 쌌으되 조금도 굴한 빛이 없는지라 그제야 범승이 아닌 줄을 알고 몸을 일구어 답례한대 로승이 왈

«소승은 이 절에 있는 중이옵더니 장군이 루사[290]에 왔으되 나아가 맞지 못 하여 죄송하여이다.»

하고 소매에서 은병을 내여 차를 표자에 부어 마시고 다시 부어 왜장에게 권하여 왈

«산중이 무색[291]하와 다만 종자[292] 뿐이오니 장군은 허물치 마옵소서 소승의 행장에 다만 표자 하나 뿐이옵고 절에 있는 기물은 산상 백운과 석간수 뿐이오니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 가시고 산승을 너무 고욕[293]지 마옵소서.»

한대 왜장이 그 천연함을 보고 왈

«내 이 절의 기물을 가져 가려 하였더니 로사를 보아 두고 가나니 로사는 날과 한 가지로 가사이다.»

하거늘 로승이 사양치 아니 하고 왜장을 따라 가니라.

이 중은 다름 아닌 사명당 유정이라 왜장 금 갑산을 따라 안변으로 가니 금 갑산이 청정에게 보이고 유정의 말씀을 아뢴대

«이 중이 비록 차토[294]에 있사오나 무이생불[295]이오니 각별 대접하옵소서.»

청정이 례로써 맞은 후에 고금을 담론하니 그 소견이 유약창해[296]라 청정이 더욱 공경하여 담화하더니 일일은 로사 돌아 가기를 청하거늘 허락한대 로사 왈

«일본이 조선으로 더불어 린국이어늘 어찌 이다지 심하니이까.»

청정 왈

«조선이 스스로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라도 조선이 우리를 위하여 선봉이 되여

서 명 나라를 치고 조선 왕이 인하여 우리 나라에 조공하면 조선이 무사하려니와 그렇지 나니 하면 무사치 못하리이다.»
한대 유정이 변색 왈
«조선은 례의 지국이라 일본에 비하면 천자지국이요 일본 관백은 본래 미친한 사람이라 아비가 둘이요 하물며 조선 여맥이 흘러 일본국이 되였나니 소국이 대국에 조공함이 옳으냐 대국이 소국에 조공함이 옳으냐.»
하니 청정이 대로하여 유정을 내여 버히려 한대 유정이 소 왈
«내 이제 장군의 천심[297]을 가히 알리로다. 하날이 높으로라 아니 하여도 사람이 절로 높은 줄을 아옵나니 이제 일본 관백이 자칭 존위[298]한들 사람이 어찌 모르리요. 옛날 하우씨는 광인[299]하여도 사람이 다 천자로 섬기고 진시황은 자칭 천자로라 하여도 천하가 다 우자라 하였으니 장군은 내 말을 노하지 말고 진정하소서.»
하고 천연히 원문[300]을 열고 나가고저 하거늘 청정이 도로혀 송구하여 나아가 손을 잡고 장중[301]에 들어 와 사례 왈
«로사는 나의 경솔함을 허물치 마소서.»
하고 더욱 환대하더라.
익일에 유정이 청정다려 왈
«내 들으니 석강정이 조선으로 왔다 하니 그가 반드시 심대[302]를 죽였으리로다.»
한대 청정이 왈
«그대 어찌 석강정이 심대 죽인 줄을 알이요.»
유정이 소왈
«대장부 세상에 처하여 어찌 그만한 일을 모르리요. 장군은 사람을 너무 업수이 여기지 마옵소서.»
하더니 이윽고 수문 장졸이 글봉지를 드리거늘 청정이 개택하여 보니 과연 석강정이 심대 죽인 글이라. 청정이 일변 놀래며 유정을 청하여 치하 왈

«그대는 과연 세상 범승이 아니오니 산간으로 들어가 편안히 지내옵소서.»

한대 유정이 그 길로 즉시 절에 돌아 와 제승을 불러 왈

«우리 조선은 자고로 례의지국이러니 일조에 왜국 천하가 되였는지라 내 한 번 나라를 위하여 왜적을 치고저 하나니 그대들은 내 령을 어기지 말라.»

제승이 일시에 응답한대 인하여 큰 기를 만들어 대자로 썼으되 «조선국 승군 대장 유정»이라 하고 인하여 강원도 각읍 사찰에 전령하여 승군을 모으니 일천여 명이라 즉시 고을에 들어 가 군기를 내여 가지고 곡산으로부터 양덕 맹산을 지나 평양으로 향하여 가니라.

각설 경상도 의령 사람 곽 재우는 곽월의 아들이니 젊어서부터 지략이 과인하고 글이 문장이러니 의외에 왜란을 만나매 백면 서생으로서 한 번 조국 강산을 건지고저 하여 의병을 도모할새 때에 여러 고을이 편하여 함몰함을 듣고 동리 사람을 모아 깨우쳐 왈

«이제 적병이 몰아 들어 오매 우리 부모 처자가 장차 도적에게 사로 잡힐지라 우리 동리에 가히 싸울 만한 장정이 수백 명이 있으니 마땅히 일심으로 일어 나 솔나루[303]를 지키면 가히 향리를 안보하리니 어찌 맨손으로써 죽음만 기다리고 있으리요.»

하고 가산을 흩어 군사를 모으니 장사들이 수백 명이나 모았는지라. 재우 처자의 의복을 내여 주어 군사들을 입히고 장사 심 대승 등으로 손을 잡아 죽기로써 맹세하니라.

곽 재우 초계 고을에 들어 가 군기를 내여 가지고 강령 첨사 정 홍남으로 군관을 삼고 진주 세미[304] 일천석을 내여 군량을 하고 또한 의령 초계의 창곡을 내여 기민을 진휼하니 군사의 기세가 점점 왕성하더라.

재우 기계를 정제한 후에 적세를 탐지하니 왜장 안

국사 군사 팔만을 거느리고 야밤에 정진강을 건너 의령 고을을 치고저 할새 정진강이 깊은 줄 알고 낮에 미리 군사를 보내여 여울목을 표하자 하거늘 곽 재우 그윽히 군사를 보내여 그 표목을 옮겨 깊은 곳에 박고 좌우에 복병하였더니 과연 안국사 밤에 건느다가 군사 다 깊은 물에 빠지거늘 곽 재우 홍의 백마로 큰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엄살하니 안 국사 대패하여 물러 가니라.

곽 재우 군중에 호령 왈

«왜적이 비록 패하여 갔으나 명일 반다시 또 오리라.»

하고 용병 이백여 명을 차출하여 좌편 산곡에 매복하고 기다리더니 이튿날 과연 안 국사의 군사 바로 곽 재우의 진으로 향하여 오거늘 곽 재우 진문을 닫고 조금도 요동치 아니 한대 안 국사 군사로 하여금 무수히 질욕하거늘 곽 재우 석양에야 비로소 진문을 열고 홍의 백마를 내물아 싸우다가 거짓 패하여 닫거늘 안 국사 급히 따라 오니 곽 재우 돌아서며 싸우다가 한참만에 또 패하여 닫아나니 안 국사 이어 따를새 이렇듯 하기를 무려 십여 차에 이르니 자연 오십 리를 왔는지라 문득 수풀 사이로서 함성이 일어 나며 복병이 내닫아 급히 치니 안 국사 무수한 군사를 죽이고 대패하여 가니라.

곽 재우 정진강에 홍백기를 세우고 솔이[305]를 무수히 틀어 강'가에 세우고 주 은남으로 선봉을 삼고 정 진으로 군량 차비[306]를 삼고 권 원으로 군기 차비를 삼고 정 비로 독군장을 삼고 윤 택으로 대장[307]을 삼고 또한 신기로 전선을 거느려 정진강 여울에 매고 수군 삼천을 주어 락동강편 사장에 복병하고 련하여 탐지군을 보내여 적병을 탐지하더니 왜병이 곽 재우를 홍의 장군이라 하여 감히 범접하지 못 하는지라 곽 재우의 군세 크게 떨치고 의령 삼가 합천 등 백성들이 농사 짓기를 평일과 같이 하더라.

각설 광주 고을 김 덕령이 어려서부터 용력이 과인하고 지략이 겸전하더니 성장 후 우연히 산중에 들어 가 한 도사를 만나 한 가지로 석간수를 마시매 용맹이 점점 더하여 힘은 능히 구정[308]이 경하고 용맹은 태산이 낮은지라 진실로 당시에는 없는 장수러라.

삼년을 도사로 더불어 노닐며 창검 쓰기를 일삼더니 의외에 왜란을 만나매 한 번 장한 려력을 시험하여 승란굴기코저 하여 도사께 하직한대 도사 왈

《네 재조가 아직 미달하였난대 어찌 풍진[309]에 나아가고저 하난다.》

덕령이 대왈

《내 재조가 적수 없사올지니 어찌 미달하였다 하시나이까.》

도사 소왈

《네 재조 적수 없노라 하니 날과 비교하여 볼라느냐.》

덕령이 왈

《그리하사이다.》

한대 도사 반석을 주어 왈

《이 돌을 저 산상에서 내려 굴리되 한 발로 북을 쳐 련하여 소리 내며 한 손으로 돌을 굴리며 또 한 손으로 큰 칼을 잡아 좌우 초목을 버히며 저 골 밖에까지 갔다가 또 치여 올라 오되 저 루수[310] 끊지지 않아서 올라오라.》

덕령이 응답하고 칼을 들며 반석을 두다리 사이에 끼고 모로 굴리며 한발로 치려 하니 반석이 빼져 먼저 내려 가 혹은 떨어지는지라 미처 손을 들어 돌을 굴리지 못 하고 또 북소리 잘 나지 아니 하나 능히 한 발로 굴리며 한 발로 치며 한 손으로 초목을 버히며 올라 오니 루수가 이미 다 진하고 반이나 더 지났더라. 덕령이 왈

《시키난 대로는 못 하였거니와 또 선생의 재조를 구경하사이다.》

한대 도사 즉시 루수를 드리우라 하고 한 발로 북소리를 내며 반석을 끼고 또 한 발로 련하여 굴리며 한 손으로 돌을 괄매치며 또 한 손으로 초복을 짓쳐 내려 가니 북소리 완연하여 뢰고를 울리난듯 돌을 굴리며 칼로 좌우 초목을 짓치니 부러지는 형상이 비컨대 구시월 광풍에 락엽 같더라.

덕령이 항복 왈

«선생은 진실로 천인이라 어찌 세상 사람에게 비하리요. 소자의 재조 비록 선생만 못 하오나 대장부 이 때를 당하여 한 번 나가 재조를 시험치 못 하면 어찌 다시 어느 때를 바라리이까.»

도사 탄왈

«벌써 네 뜻이 그러하니 내 만류치 못 하거니와 부대 조심하여 매사를 경솔히 말라.»

하니 덕령이 즉시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 오니라.

이 때 김 덕령이 부친 상사를 당하매 애통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왜적이 동설령[311]에 웅거하였단 말을 듣고 불승 분기하여 내당에 들어 가 모부인께 고하여 왈

«도적이 근경에 왔다 하오니 국가를 돕고저 하나이다.»

모부인이 대책하여 왈

«전일부터 말하였거든 종시 듣지 아니 하난다. 부대 보고저 하거든 높은 산상에 올라 가 잠시 구경하고 돌아오라.»

덕령이 대희하여 상복을 갖초아 입고 상선[312]만 쥐고 산상에 올라 가 적세를 살펴 보니 진세는 엄숙하고 청정이 수백 근 장창을 짚고 장대에 섰으니 일신에 비늘이 덮였으며 신장은 구척 오촌이라. 인하여 조선 부녀를 몰아다가 진전에 세우고 주색으로 희롱하는지라 덕령이 분기를 참지 못 하여 적진 중에 들어 가 청정의 앞에 들어서니 장졸들이 그의 종적을 알지 못 하더라.

청정이 이윽히 보다가 황겁하여 수문장을 불러 꾸짖어 왈

«네 어찌 군중에 잡인이 출입하는 것을 금치 못 하였난다.»

다시 덕령이다려 문왈

«너의 복착을 보니 조선 사람이라 네가 무삼 재조를 믿고 천창만검지중[313]에 당돌히 들어 왔난다.»

덕령이 대소하여 왈

«네가 수문장을 책망하거니와 나의 재조는 귀신도 측량치 못 하거늘 하물며 수문장 놈이 제 어찌 알리요. 네가 나의 재조를 보려거든 래일 오시에 다시 올 것이니 자세히 보라.»

하고 문득 간데 없는지라 청정이 대경 의혹하여 왈

«내가 술법을 배와 용병하여도 아는 사람이 없더니 이 사람은 천신이로다.»

하고 각영에 전령하되

«이 사람이 명일 오시에 오자 하였으니 사대문을 굳게 닫히고 자세히 살피라» 하였더라.

차일에 덕령이 산상에 올라 가 일야를 경과하며 자탄하여 왈

«내 몸이 죄인[314]이 되여 출전하지 못 하게 되였으니 후일에 사방이 평정하면 죄를 면치 못 하리라.»

하고 충효를 겸전코자 천사 만념[315]하더니 동방이 밝아 오시를 당하였는지라 청정의 진전에 다달아 둔갑을 하고 가만히 들어 가 청정의 앞에 서거늘 청정이 대경 왈

«그대는 무삼 뜻으로 남의 진중에 출입하난다.»

덕령이 상선을 들고 차면하고 왈

«너의 진중에 정묘한 총이 있다 하니 나의 재조를 보고저 하거든 삼만 장졸을 시켜 나를 향하여 조총을 쏘라.»

한대 청정이 군중에 전령하여

«이제 발사하라.»

삼만 장졸이 일제히 발사하니 방포 소리 천지를 진동하더니 덕령이 간데 없는지라. 이윽고 덕령이 문외로서 완완히 들어 와 청정의 앞에 서니 청정이 대경하여 머리를 숙이거늘 덕령이 대질 왈

«또 나의 재조를 보려 하거든 래일에 올 것이니 너의 십만 장졸의 투구 우에 백기를 만들어 꽂아 두라.»

하고 홀연 간데없거늘 청정이 취회제장[316]하고 상의하여 왈

«이 사람이 진중을 무인지경으로 출입할 뿐만 아니라 삼만의 조총을 피하여 다니니 인력으로 잡지 못할 지라.»

한대 중군장 백녹이 주 왈

«명일 오거든 대진을 둘러싸고 잡으리다.»

청정이 대소 왈

«범을 잡으려 하면서 새그물과 송곳을 가지고 잡으리요.»

하더라. 이튿날 오시를 기다리더니 백녹이를 분부하여 종이 기를 만들어 십만 명의 두상에 꽂고 청정이 장대에 올라 가니 덕령이 청정의 앞에 들어 서며 홀연 광풍이 진작하여 천지 진동하더니 이윽고 일월이 명랑하여지더니 덕련이 크게 우여 왈

«적장 청정은 너의 머리를 보라. 하거늘 그제야 청정이 눈을 들어 살펴 보니 수만 장졸의 머리마다 표하였던 백기가 하나도 없는지라 청정이 대경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덕령이 소매를 떨치더니 종이 기를 흩어 놓으며 왈

«청정아 네 나를 어찌 당할소냐. 너의 십만 명을 쥐무리 같이 아노라. 너의 무리를 쓸어 버리기는 여반장이

라 아직은 나의 재조를 약간 보였거니와 만일 두렵거든 회과 자책[317]하여 물러가라.»

하고 홀연 간데없는지라 이윽하여 대풍이 진작하여 지척을 불변이라 청정이 간담이 서늘하여 제장과 상의하여 왈

«내가 일찍 술법을 배와 세상에 두려운 사람이 없더니 금일의 이 사람의 조화는 천하 무적인가 하노라.»

제장이 간하여 왈

«하늘이 유의하사 이 사람을 조선에 탄생하여 우리 뜻을 이루지 못 하게 되였사오니 무사 환향[318]하여지이다.»

의논이 분분하더니 문득 소졸이 서간을 올리거늘 청정이 받아 보니 본댁에서 매씨[319]의 서간이라 개택하니 기서[320]에 왈

«천문을 보오니 삼태성과 칠성이 조선 지방에 떨어졌사오니 '송'자[321] 든 따이나 송자든 사람이거든 접전하지 마옵소서. 반다시 대패하오리다. 삼가 조심하옵소서.»

청정이 대경하여 팔로에 분발하였던 군사를 이동하여 합병하고 퇴군할 양으로 계책하더라.

차시에 덕령이 본댁에 돌아 와 모친전에 수말을 아뢴대 질책하여 왈

«차후는 상막[322]을 지키고 떠나지 말라.»

덕령이 외당에 나와 자탄하여 왈

«조선 수토를 먹으며 국가가 위태함을 돕지 못 하니 죽기만 못 하다.»

하더라

각설 명 나라 조정에서 전일 조 승훈을 보내여 조선을 돕다가 군사와 장수를 다 죽여 통분히 여기나 다시 여력이 없어 의논이 분분하더니 조선이 명 나라를 대신하여 병화를 받고 있는 것을 아는지라 다시 대병을 일구어 조선을 도울새 임진년 십이월에 황제 조서를 내리여

랑 종 응창으로 경략[323]을 삼고 도독 리 여송으로 도독 군무[324]를 삼고 부총병 양 원으로 좌협 대장[325]을 부총병 장 세작으로 우협 대장을 정하고 부총병 리 여백으로 중협 대장을 정하여 각기 군장과 군사를 거느리고 조선으로 발행시키니라.

리 여송 등이 백만 대병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나올새 기치 검극이 일광을 가리우고 수미 백여 리에 뻗쳤는데 도독 리 여송이 압록강에 이르러 홀연 바라 보니 한 백로가 조선으로부터 날아 오거늘 여송이 마상에서 활을 빼여 쥐고 하늘을 우러러 표백[326]하여 왈

«도독 리 여송은 황명을 받자와 백만 대병을 거느리고 조선을 구하러 가오니 왜적을 파하고 대공을 세우리라 하옵거든 저 백로를 맞혀 내려지옵고 공을 이루지 못할 것이옵거든 맞지 마옵소서.»

하며 공중을 향하여 쏘니 백로의 왼눈이 맞아 떨어지니 명진 장졸과 조선 사람이 다 구경하고 칭찬 아니할 이 없더라.

도독이 대희하여 압록강을 건너 올새 조선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맞으니 장병이 삼일을 건너서 의주성에 진을 치고 군마가 오륙 십리에 덮였는지라 리 도독이 군사를 거느리고 통군정에 좌기하니 접반사[327] 리 항복이 군장을 갖추고 들어 갈새 정 충신이 곁에 섰다가 조선 지도서를 품에 안기거늘 가지고 들어가 문후한대 리 도독이 문 왈

«대인은 조선 대신으로 우리 장병을 접반하니 응당 일을 알듯 하여 묻거니와 조선의 도로와 산천의 험처를 아나이까 우리는 타국에서 처음으로 왔으니 어찌 조선의 지리 험처를 알리요. 그 출입 형세와 용병처를 일러 주면 좋을가 하나이다.»

한대 리 항복이 품에서 지도서를 내여 드리며 왈

«말씀으로서는 다 아뢰지 못 하오니 이 지도를 보고 묻사올 일이 있으면 물으소서.»

도독이 지도를 바라 보고 대열 왈

«조선이 아직은 국운이 불행하여 왜란을 만났거니와 이런 명인이 있으니 반다시 망하지 아니 하오리다.»

리 여송이 류 성룡과 리 항복더러 문 왈

«우리는 원병으로 왔으니 후군이 되여칠지라 응당 귀국 장졸이 선봉이 되려니와 조선 장졸의 선봉하염즉 한 사람을 보이게 하소서.»

이 때 리 항복이 여짜오대

«서산 대사라 하는 중이 모색[328]이 다르기로 상기 보이지 못 하였나이다.»

한대 여송이 우여 왈

«중도 조선 사람이어든 어찌 들어 보이지 아니 하리요.»

인하여 서산 대사 황망히 군복을 얻어 입으니 기상이 웅장하여 맞는 군복이 없어 무릎 우에 오르는 군복을 입고 들어 가더니 여송이 바라 보고 낯빛이 흔연하여 급히 평상에 내려 서산 대사의 손을 잡고 칭찬 왈

«조선이 이런 생불을 두고 어찌 아국에 청병하리요.»

서산이 대왈

«장군이 어찌 로승을 이에 비하나이까. 장군은 힘을 다하여 왜군을 파하고 조선을 도우소서.»

여송이 답왈

«로사의 기상을 보니 흉중에 천지 조화와 결승 천리 지재[329]를 가졌으니 가히 왜국을 억제하려든 어찌 남의 힘을 빌리리요. 우리 황상이 이미 나를 청병 대장으로 보내였으니 힘써 왜적을 치려니와 대사는 선봉이 되여 한가지로 도적을 파하사이다.»

서산이 대왈

«선봉 대장은 용력이 있사오야 당할 소임일 뿐만 아니라 늙은 중이 어찌 선봉을 하오리까. 소승은 불도만 숭상하옵고 공성야전[330]은 알지 못 하오니 원컨대 장군은 용장력사[331]로 선봉을 택하소서.»

여송이 답왈

«그러할진대 로사 선봉할 사람을 거천하소서.»

하며 한가지로 장중에 류하더니 도독이 밖에 나가 천문을 보고 서산을 청하여 한 장성을 가리켜 왈

«저 장성이 조선 장성이라 조선에 선봉할 사람이 있으되 저 별 지킨 사람을 찾아 선봉을 하이면 가히 대사를 정할 만 하되 나는 타국에서 왔기로 조선 지명을 알지 못 하오니 로사는 저 별이 어느 지경에 비쳤으며 성명은 뉘라 일홈한지 일러 보사이다.»

서산이 이윽고 우러러 보고 이르되

«저 별이 룡의 상서를 띄고 서방 숙살지[332]기를 가졌으니 반다시 평안도 룡강 따에 김 응서라 하나이다. 장군은 자세히 보옵소서.»

도독이 대희하여 답왈

«나는 대저 김 경서로 알았더니 이제 김 응서라 하는 말이 옳소이다.»

하고 즉시 조선왕에게 주왈

«국왕은 바삐 명패[333]하여 김 응서를 부르소서.»

한대 상이 즉시 승전을 명하여 발마로 룡강으로 보내니라.

각설 룡강 따에 김 응서라 하는 사람이 있으되 어려서부터 지략이 과인하고 젊어서 백호가 촌중에 들어 와 돝을 물고 가거늘 응서 마침 굽높은 극자[334]를 신고 한 손으로 범의 꼬리를 잡아 둘러치니 범이 즉사한지라 이로부터 응서의 장한 일홈이 원근에 랑자하더라.

일찌기 평양 영문 장교로 다닐새 평양 일등 명기 계월향으로 더불어 친히 사괴더니 이 때 친상을 만나 상중

에 들었기로 집상하고 출입하지 않더라. 이에 왜란을 만나 나라이 의주로 피란하고 왜병이 평양성에 든단 말을 듣고 불승분기하여 주야로 손을 들며 한 번 재조를 발양코저 하나 몸이 상중에 있기로 무가내하라 하여 다만 하날을 우러러 탄식할 따름이더라.

이 때 승전이 발마를 타고 응서의 집에 이르러 명패를 보여 왈

«시방 나라이 의주에 계읍셔 장군을 바삐 부르시니 길을 차려 가사이다.»

응서 복탁 수명[335] 왈

«차시에 나라이 나를 부르심은 당당히 도적 칠 일을 의논하시려 불러 계시거니와 내 시방 상인이 되였으니 어찌 령궤[336]를 떠나 전장으로 향할 수 있으리요. 비록 왕명이 지중하나 받들지 못 하게 되였으니 승전은 돌아가 응서의 상인된 말씀을 아뢰이라.»

한대 승전이 답왈

«장군이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나라이 편안하오야 앉아서 집상할 것이온대 시방 사직의 위태함이 조모에 있거늘 어느 겨를에 례의를 차리오며 국사를 의논코저 부르시난대 상인이라 칭탁하고 가지 아니 하시리이까. 불수다언하옵고 바삐 가사이다.»

응서 할일 없어 노자 충남으로 말안장을 하라 하고 령전에 들어 가 몽백[337] 을 벗어 걸고 고사 하직[338]한 후에 군복을 입고 청룡검을 들고 노자 충남을 다리고 나올새 충남의 용맹은 응서나 다름이 없더라.

편시[339]에 의주에 다달아 전하께 뵈옵고 또한 리 도독을 만나니 도독이 김 응서의 골격을 보고 대희하여 선봉 대장을 정한 후에 의주를 떠나 평양으로 갈새 상이 분부하여 응서에게 매일 한 말 밥과 황육[340] 다섯 근과 화소주[341] 한 말씩을 먹이더라.

응서 안주에 이르러 리 도독에게 여짜오대

«소장이 먼저 평양성에 필마로 들어 가 도적의 허실을 알아 오리다.»

도독이 왈

«위태한 호혈[342]에 어찌 혼자 가리요» 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라 한대 응서 왈

«비밀히 들어 가 적세를 탐지하고 올 것이니 어찌 군사를 거느리고 가리이까.»

이 때 리 여송이 응서의 상을 보니 량안에 살기 등등하였는지라 성공할 줄 알고 왈

«장군이 금번 길에 공을 세울듯 하오니 부대 조심하여 대공을 세우시라. 우리 대군은 아직 이 곳에 류하여 장군 돌아 오기를 기다려 행군하리다.»

한대 응서 하직하고 노자 충남을 다리고 가니라.

각설 이적에 왜장 평행장과 소서비 평양성에 웅거하여 마다시 심안도의 수군이 서해로 돌아 옴을 기다리더니 이 때 선봉 대장 김 응서 평양성에 다달은 것이 마침 밤의 초경이라 성문 밖에 다달아 말을 부리여 충남을 주어 왈

«내 성중에 들어 가 적세를 탐지하고 나올 것이니 너는 이 곳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충남이 대왈

«위태한 적진 중에 어찌 홀로 가시려 하나이까. 만일 위급한 일이 있사올지라도 소인이 한가지로 따라 가고저 하나이다.»

응서 답왈

«도적을 모르게 비밀히 다녀 올 것이니 여러 사람이 번거히 왕래치 못 할지라 너는 념려하지 말고 이 곳에 등대하여 있으라» 하며 하날을 우러러 한 장성을 가리켜 왈

«만일 계삼명[343]토록 나오지 아니 하고 저 별의 색이

변하거든 내가 도적에게 죽은 줄 알고 집으로 돌아 가라.»
하고 군복을 정제한 후에 청룡검을 벗겨 쥐고 성을 넘어 가더니 왜놈이 조선을 업수히 여겨 교병[344]이 되였기로 순라군도 폐하고 장졸이 다 군막에 들어 잠이 깊이 들어거늘 몸을 삼가 종적이 없이 군막을 지나 바로 왜장이 류하는 장막을 찾아 가고저 하나 일정 어느 곳에 류하는 지 알지 못하여 잘못 다니다가는 도리여 도적에게 해를 입을가 의심하여 잠간 칼을 집고 주저하다가 문득 생각하되 계 월향이 일찌 날과 좋은 터이라 비록 란시나 제 만일 죽지 않았다면 응당 반겨할 것이니 계 월향의 집을 찾아 가서 적장의 거처와 동정을 물은 후에 결단하리라 하고 인하여 계 월향의 집으로 찾아 가니라.

이 때 밤이 정히 삼경이라 계 월향의 집을 찾아 가니 대문을 굳이 닫고 인적이 요요[345]하거늘 몸을 솟아 담장을 넘어 방문 밑에 이르러 문을 두다리며

«주인 자느냐.»

두세 번 부르니 창모[346]잠이 깊이 들었다가 놀라 깨며

«뉘시관대 이 깊은 밤에 걸문을 열고 들어 와 주인을 찾나이까.»

한대 인기척은 하되 대답이 없는지라 창모 헤오대 이 때를 당하여 주인 찾을 사람이 없거늘 구태여 구구히 들어 와 주인을 찾기는 천만 의외라 다시 왈

«젊은 주인은 왜장의 수청을 들려 가고 로주인만 있사오니 아무나 부질없이 들어 오지 말고 바로 가사이다.»

한대 그제야 응서 답왈

«나는 룡강 사람이러니 구태여 젊은 주인만 위하여 온 걸이 아니라 로주인을 찾아 보고 가려 왔으니 바삐 문을 열라.»

하니 창모 그제야 김 응서인 줄 알고 대경하며 전도히 나와 문을 열고 등잔에 화촉을 밝히며 조용히 왈

«장군이 어찌 이런 호혈에 홀로 찾아 와 계시나이꼬. 만일 종적이 탄로되면 우리들 죽이기는 고사하고 장군의 중한 몸이 그릇될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타인이 알지 않아서 빠삐 돌아 가옵소서.»

응서 정색하여 대왈

«로주인이 어찌 나의 평생 대의를 알지 못 하난다. 오늘밤 오기는 사생을 결단하러 왔으니 청컨대 로주인은 나를 위하여 수이 아희를 보게 하라.»

한대 창모 더욱 실색하여 왈

«계 월향은 시방 왜장 소서비의 수청을 들러 침식을 한가지로 하옵고 집에 오는 날이 없사오니 이 깊은 밤에 무삼 핑게하옵고 다려 오리이까. 죽기는 쉽사오나 이 말씀은 듣지 못 하겠나이다.»

응서 답왈

«우리 나라 흥망이 도시 오늘밤 계 월향보고 못 보는 데 달렸으니 로주인도 조선 사람이라 어찌 이 때를 당하여 국은을 저바리요. 계 월향을 만나서 내가 와서 찾는다 하면 응당 나올 것이니 아무렇게나 내 기별을 자세히 전하고 나오라.»

한대 창모 마지 못 하여 허락하고 나가고저 하더니 문득 대문을 두다리며 문을 열라하는 소래 급히 들리거늘 그 소리를 자세히 들으니 이는 곧 계 월향이라 창모 대경하여 전도히 나아가 문을 열어 주며 왈

«내 시방 너를 찾아 가고저 하더니 마침 나오난다.»

계 월향이 답왈

«무삼 일로 찾아 오려 하였나이까.»

창모 소리를 낮추어 왈

«시방 룡강 김 초관[347]이 와서 너를 다려오라 하기로 마지 못 하여 자저하던 차이로다.»

계월향이 이 말을 듣고 대경하여 바삐 들어와 응서의 손을 잡으며 왈

«장군이 어찌 이런 위지에 들어 와 계시나이까.»

하며 치를 떨거늘 응서 답왈

«내 너를 보지 못 하고 갈가 하였더니 이제 네 이리 오기난 과연 천우신조로다. 아마도 내 심중에 위하여 온 일이 이제야 득달하리로다.»

계월향이 답왈

«내 여러 날 집에 나오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은 옷이 더럽삽기로 옷을 갈아 입고 돌아 가려 왔삽더니 마침 장군을 만났사오니 정리는 반갑거니와 장군은 무삼 뜻으로 이닷 위지에 들어 와 나를 찾으시나이까.»

응서 정색하며 답왈

«시방 오라지 않아서 금계사배[348]를 배알게 되였으니 지연할 것이 아니라 네 비록 기생이나 너도 조선 사람이니 어찌 국사를 의논치 아니 하며 또한 우리들의 옛 정의를 생각지 아니 하랴.»

계월향이 이 말을 듣고 더욱 치를 떨며 왈

«장군이 소서비의 소문도 자세히 듣지 못 하옵고 이곳에 와 계시나이까. 장군이 려발산하는 재조를 가졌사오나 능히 소서비를 당치 못 하려든 하물며 무삼 재조로 목을 베여 가려 와 계시나이까. 소서비의 용맹은 금세에 비할 바 아니와 이 놈의 전신에 쇠 같은 비늘이 입혔사오니 숨을 내여 쉬면 비늘이 자고 숨을 들여 쉬면 비늘이 거슬려 지는지라 칼로도 능히 대이지 못 할 것이요 창으로도 찌르지 못 할지니 무삼 재조로 버히리까. 이러하온 중에 더욱 관내 사면에 모기장을 두르옵고 귀마다 방울을 달았사오니 조금 다쳐도 소리 진동하여 자는 잠을 깨고 또 방안에 층장[349]을 두루고 층장 안에 대평풍을 두루고 그 안에 소평풍을 치옵고 그 가운데 평상을 놓고 그 우에 금침을 펴옵고 좌우에는 등촉이 휘황하옵고 머리맡

에 대검을 세우고 발치에는 비수검을 세우고 잠을 자되 삼경에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오경에는 눈으로 듣고 귀로 보며 그 후에는 눈을 부릅뜨고 그제야 잠을 깊이 드오니 장군이 어찌 이런 곳으로 능히 출납하오리이까. 만일 실수하면 대패할 것이니 그런 망설을 마시옵고 수이 돌아 가옵소서.

장군은 불과 일일에 한 말 밥과 고기 닷 근을 먹삽거니와 소서비는 매일 삼시로 말밥에 황육 열 근과 화소주 서 말을 능식하오니 일로 보아도 적수 아니오니 장군은 중한 몸을 돌보사 범의 입에 손을 넣지 말으시고 무사히 돌아 가시게 하옵소서.»

응서 답왈

«내 오날 이 곳으로 올 제 생사를 결단하였나니 대장부 이 때를 타서 국사를 힘쓰다가 설혹 힘이 부족하여 도적의 손에 죽은들 무삼 한이 있으리요. 너는 념려 말고 먼저 소서비 잠들기를 기다려 솜으로 방울 입을 막아 방울이 우지 못 하게 하고 바삐 나와 통기하라. 내 청허관[350] 뒤에 들어 가 몸을 숨겨 너 나오기를 고대할 것이니 너는 죽기로써 국사를 도모하라. 만일 일이 잘 되면 너도 살고 나도 살려니와 만일 실수하면 우리 둘이 다 죽으리라.»

한대 계 월향이 말이 없다가 한참만에 탄식 왈

«장군이 이미 대의를 정하여 계시니 죽어도 할일 없사오니 첩이 정성껏 하오려니와 소서비의 발치에 세운 검은 신기하와 다른 사람이 문을 연즉 절로 나와 그 사람을 치려 하오니 그 검이 만일 마조 나오거든 검에 침을 뱉으면 도로 들어 가 제자리에 설 것이니 장군의 검을 버리고 그 비수를 가져 대이오대 비늘이 다 거슬리거든 일어 난 짬을 타서 버이게 하옵소서. 만일 비늘이 잔 때에는 능히 버히지 못 하리이다.»

응서 왈

«이는 나의 수단에 있으니 념려치 말고 내응만 잘 하라.»

한대 계 월향이 즉시 일어 나 먼저 들어 갈새 다시금 당부하여 왈

«부대 조심하라.»

하더라.

응서 계 월향을 먼저 보내고 이슥하여 청룡검을 들고 몸을 일쿠어 청허 관에 나아가니 수문 장졸이 창검을 좌우에 세우고 잠이 깊이 들었거늘 행여 발'소리가 날가 하여 수혜자[351]를 벗고 버선발로 지내 가더니 적군 하나이 몸을 돌리우며 눈을 떠 보거늘 인하여 검을 들어 군사 이인을 일시에 버히고 문을 지나 관중에 들어 가니 물색이 명롱하고 밤이 고요하여 정히 삼경말이나 되였난지라 가만히 객사에 나아가 뢰불인 후벽에 붙어서 계 월향을 기다리더니 이적에 계 월향이 청허관에 들어 가니 소서비 상에 누워 자려 하더니 문왈

«네 어찌 이다지 오래 있었난다.»

계 월향이 답왈

«어머니가 마침 근처에 나가고 없삽기로 찾아다가 의롱에 쇠를 열고 의복을 내여 입고 오노라니 자연 지연 되였나이다.»

소서비 이미 계 월향에게 혹하였는지라 의심치 아니하고 인하여 술을 부으라 하거늘 계 월향이 이전에서 더 많이 부어 준대 소서비 술을 다 마시고 이슥히 희롱하다가 잠을 깊이 들거늘 계 월향이 가만히 일어 나 솜으로 방울입을 다 막은 후에 바삐 나와 후정으로 돌아 가니 응서 바람'벽에 붙어 서 있는지라 계 월향이 '손'짓으로 들어 오라 한대 응서 대희하여 몸을 추창[352]하여 계 월향의 뒤를 좇아 들어 갈새 방문을 여니 과연 비수검이 마조 나오는지라 계 월향이 몸으로써 응서를 가리우고 침을 뱉으니 도로 들어 가 제자리에 서더라.

응서 계월향의 뒤에 의지하여 모기장을 들고 들어 가니 소서비 코를 울리며 잠을 자거늘 인하여 손에 춤을 뱉어 비수를 쥐고 일정 정신을 가다듬아 비늘 거슬린 짬을 타서 비수를 높이 들어 한 번 치니 쇠와 독가라도 어찌 갈라지지 아니 하리요. 검광총영[353]이 빛나며 문득 소서비의 머리 상하에 떨어지며 목 없는 몸이 급히 일어 나거늘 응서 혼불 부신하여 계월향을 옆에 끼고 몸을 솟아 청허관 대들'보에 올라 앉으니 소서비 발치에 비수검을 잡으려 한즉 비수검이 없는지라 돌아 서서 머리맡에 대검을 들어 대들'보를 치니 응서의 군복 자락이 떨어지며 보가 반이나 부러지니라.

응서 정신이 아득하여 소서비를 버히지 못 하였는가 의심하더니 문득 소서비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하다가 도로 들어 와 천연히 상에 앉거늘 응서 자세히 보니 목 없는 놈이 칼을 들고 앉았는지라 반다시 죽은 줄 알되 마음이 경황하여 능히 내려 오지 못 하더니 이윽고 쥐였던 칼이 내려지거늘 그제야 숨이 없어진 줄 알고 뛰여 내려 오며 발로 차니 신체 거꾸러지는지라 응서 인하여 그 목을 들고 월향을 이끌어 나오는데 관사 장원[354]을 넘다가 모기장이 발에 채우관대 방울이 일시에 크게 우는지라 수군이 그 소리에 대경하여 일시에 일어 나며 고각 함성이 진동하며 홰'불이 사면으로 일어 나거늘 응서 황망 전도하여 계 월향을 업고 전대로 그 허리를 동이고 당부하여 왈

«죽어도 손을 놓지 말라.»

하고 좌수에 청룡검을 들어 왜적을 즉치며 성문 밑에 다달으니 왜병이 겹겹이 둘러 막거늘 응서 평생 기력을 다하여 청룡검을 두르며 즉쳐 내니 한 칼끝에 왜적의 머리 두 서이씩 내려지는지라 한 모를 헤치고 성을 뛰여 넘어 노자 충남이 있는 곳을 찾아 가니 충남이 간 곳이 없는지라 뒤에는 적병이 급히 따르고 앞에는 구원병이

하나도 없어 정히 민망하여 좌우를 살펴 보며 충남을 찾으니라.

이 때 충남이 응서를 성중에 들여 보내고 편하여 별만 바라 보며 고대하더니 계삼명이 되도록 소식이 망연하고 또한 장성이 몸을 떨고 빛이 변하여 쓰러지거늘 일이 그릇된 줄 알고 충남이 대성 통곡하며 말을 이끌고 돌아 오다가 강동 다리 밑에 이르러 다시 하날을 우러러 보니 장성이 다시 빛이 회생하여 맑은 빛이 전에서 십배나 더하거늘 충남이 대희하여 왈

«하늘이 나를 속였도다 이제 저장성의 빛이 전에서 더욱 교교하니 반다시 장군이 득시하였도다. 바삐 돌아가 보리라.»

하고 말을 달려 머물던 곳에 다달으니 응서 바야흐로 충남을 보고 대희하여 왈

«네 어데로 갔었더냐.»

하며 급히 말을 탈 즈음에 충남이 살펴 보니 한 손에 적장의 머리를 들고 또 한 손에 장검을 들었으되 등에 한 사람을 붙였거늘 말을 잡고 문왈

«이제 장군이 적장의 목을 버혀 왔는가 싶으오니 큰 공을 세웠삽거니와 등에 업힌 사람은 뉘라 하나이까.»

응서 답왈

«이는 내 평생에 사랑하던 계월향이요 오날 적장을 죽이고 대공을 세우기는 다 이 사람의 덕이라 이러므로 차마 호혈에 버리지 못하고 다려 왔노라.»

한대 충남이 말혁[355]을 잡고 복지 간왈

«장군이 어찌 이런 망녕된 말씀을 하시나이까. 월향의 의리인즉 높으나 왜병의 추격이 급하온지라 월향을 데리고는 여기를 빠질 수 없사오니 장군은 나라의 지중한 몸으로 일시 사정을 생각지 마시옵고 버리고 가사이다.»

하며 말을 잡고 가지 아니 하거늘 응서 민망하여 충남에게 빌어 왈

«네 어찌 인정이 그리 없느냐. 나를 살리고 국가에 대공을 세운 사람을 버리고 가려 하느냐. 차마 버리지 못 하리로다.»

충남이 통곡 왈

«장군이 오날 소인을 전에 만침 생각지 아니 하오니 소인은 이 곳에서 영결 하직하나이다.»

하며 인하여 찼던 칼을 빼여 자결하려 하거늘 월향이 응서의 등에서 내려 눈물을 흘리며 고왈

«장군의 거두심을 입어 오로지 장군을 따를가 하였삽더니 사세 급하온지라 이제 더러운 왜적에 잡혀 죽느니 장군의 칼에 죽음이 소원이로소이다.»

하니 응서 할일 없어 크게 탄식하며 자저할 즈음에 월향이 응서가 차마 칼을 대이지 못 함을 보고 장도로 제 목을 찔러 죽으니라.

응서 앙천 탄왈

«사세 이러하매 너를 구하지 못 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너의 장한 뜻은 하늘이 알리로다.»

이 때에 왜병이 성문으로 밀려 나오며 장군을 쫓는지라 화광이 충천하고 함성이 진동한대 왜병이 큰 칼을 두르며 김 응서에게 달려 들거늘 응서와 충남이 일시에 소래하고 달라들어 수명을 버히니 남어지 군사는 감히 달라들지 못 한지라 충남이 장군의 말경마를 잡고 채질을 하니 말이 또한 룡마라 크게 소리하며 사족을 일시에 모아 뛰여 갈새 말 발과 충남의 발이 한가지로 어울려 공중에 떴으니 변시 소록이 쭉지 돋은듯 하는지라 뉘 능히 따르리요.

충남이 나는 말의 경마를 종래 놓지 아니 하고 순안 숙천을 순식간에 지나 안주 먹고지에 다달으니 정히 동방이 밝아 오는지라 련하여 채를 쳐서 새납강을 지나 올

새 위풍이 등등하여 귀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고 마상에 앉은 거동은 생매 돌 우에 앉아 장천을 바라 보고 날고저 하는 기상이라 룡마 밀성[356]을 바라 보고 또한 사람의 뜻을 맞추어 새로이 기운을 내여 창창히 소리하며 제비 나는듯 들어 오니 그 반가움을 어찌 다 측량하리요. 일성 군만이 응서를 기다리다가 룡마 소리에 놀라 모다 보니 이는 곧 룡강에 있는 사람 아국 선봉 대장 김 응서러라.

각설 상이 응서를 평양성에 보내고 주야로 념려하시더니 일일은 리 여송이 주왈

«간밤에 천문을 보오니 평양성에 웅거한 소서비의 직성이 떨어졌사오니 분명 김 응서 장군이 소서비를 베였나이다.»

상이 여송의 말을 듣고 기꺼하시더라. 이 때에 김 응서가 충남을 달리고 수일만에 의주에 득달하여 소서비의 수급을 상께 드린대 장군의 공을 공로부에 기록하고 대연을 배설하고 위로 왈

«경이 천창만검지중에 들어 가 적의 영웅을 베였으니 이로 좇아 사직을 안보하리로다.»

하신대 삼군[357]이 치하 분부하더라.

이에 친히 어주를 상사하시니 이 때에 여송이 위로 왈

«장군 곧 아니면 뉘 능히 소서비를 버히리요» 하고 크게 치하하며 인하여 대병을 평양으로 행하니라.

이적에 왜장 청정이 김 덕령의 재조를 보고 대경하여 삼남으로 나려 가 영채를 정하고 각도에 분발하였던 병마를 밀통하여 합병하고 둔취하더니 정탐이 보하되 소서비 평양에 웅거하였더니 김 응서라 하는 장수 그 목을 베여 가니 군사 크게 어지러워 평양성을 버리고 물러 나온다 하거늘 청정이 대경 왈

«내 전년에 조선 장수 응서를 알았으되 당초에 소서

비만 믿고 기병하였더니 이제 소서비 죽었으니 뉘로 더불어 대사를 의논하리요.»

하며 대성 통곡하거늘 제장이 위로 왈

«소서비 비록 죽었으나 조선이 반나마 있으니 이 같이 군사의 마암을 경동케 하니이까.»

청정이 눈물을 그치고 인하여 소서비의 령혼을 위로할새 축문을 지어 고하니 그 제문에 하였으되

«대장부 세상에 처함에 유방 백세[358] 못 할진대 유취 만년[359]하리로다. 모사난 재인하고 성사난 재천하니 수원 수구리요마는 십년 사업이 일조에 쓰러졌으니 오호애재[360]라 소서비 령혼은 일배 초혼주[361]를 흠향하라» 하였더라.

각설 김 응서 군사를 거느리고 명병으로 더불어 평양성을 수복하고 한양으로 나가니 청정이 한양에 웅거하였다가 퇴군하여 충청도 공주따으로 갔다 하거늘 명장[362] 한 태익이 왈

«이 곳에서 공주가 얼마나 되나이까.»

응서 답 왈

«삼백 리가 되나이다.»

한 태익이 왈

«그러면 장군은 앞길을 인도하사이다.»

응서 응낙하고 앞서 공주로 나려 갈새 적진을 삼십리 격하여 류진하고 락 상지에게 보한대 태익이 진문 밖에 나가 살펴 보니 수십만 적병이 공주에 덮였는지라 응서와 더불어 의논하고 명일에 접전하자고 격서를 전하니라.

청정이 격서를 보고 대경하여 왈

«병마는 얼마며 장수는 뉘라 하난다.»

탐지군이 보하되

«군사는 불가승수요 장수는 아지 못 하나이다.»

청정이 황겁하여 아마도 동설령에서 만난 김 덕령이

아닌가 하여 신념을 진정하지 못 하더니 다시 탐지군이 보하되

《중국 청병이로소이다.》

하거늘 청정이 왈

《제 어찌 우리 대병을 당하리요.》

하더라.

차시에 한 태익이 제장을 불러 왈

《뉘 능히 청정을 버히리요.》

한대 좌익장 순창이 응성 출마하여 왈

《소장이 적장을 버혀 오리다.》

하고 피갑 상마[363]하여 진전에 나아가 웨여 왈

《적장 청정은 빨리 나와 자웅을 결단하라.》

한대 청정이 대로하여 제장에게 왈

《뉘 나가 대적하리요.》

하니 선봉 태충이 응성 출마하여 접전 십여 합에 순창의 칼이 빛나더니 태충의 머리 말 하에 떨어지거늘 아장 설군이 태충이 죽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달려 오더니 수합이 못 되여 순창의 칼이 빛나며 설군의 머리 또 떨어지는지라 순창이 승세하여 대질 왈

《왜장 청정은 무지한 장졸만 죽이지 말고 모로미 나와 내 칼을 받으라.》

청정이 대로하여 말께 오르고저 하더니 중군장 맹충이 내닫아 웨여 왈

《우리 선봉을 버힌 장수는 내 창을 받으라.》

하고 합전 수십 합에 미결 승부하더니 맹충이 좌수에 장창을 들고 우수에는 철퇴를 들어 순창을 친대 순창이 공중에 솟아 철퇴를 피하고 다시 합전 십여 합에 맹충의 창이 빛나더니 순창의 머리 떨어지는지라 한 태익이 분노하여 피갑 상마하며 제장에게 분부하여 왈

《내가 맹충을 버히면 청정이 나올 것이니 제장은 합력하라.》

하고 진전에 나가 웨여 왈

«순창을 죽인 장수는 닫지 말고 내 칼을 받으라.»

인하여 맹충이와 접전 륙십여 합에 한 태익이 창을 들어 맹충을 찔러 마하에 내리치고 왕래하며 질욕 왈

«명군 대장 한 태익을 아난다. 나는 황명을 받자와 너의 쥐무리를 소멸하려고 왔거니와 나의 적수 있거든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으라.»

한대 청정 대로하여 정창 출마[364]하여 웨여 왈

«필부[365] 한 태익아 네 무삼 재조를 가지고 남을 구원할 묘책이 있느냐, 제 일신을 용납하면 유차족[366]이어든 남을 도울 겨를이 어데 있더냐. 만 리 타국에 전장 고혼이 가련하다.»

하는 호통 소래 진동하는지라 태익이 송군을 돌아보며 왈

«적장의 상을 보니 옛날 항적[367]이 아니면 대적치 못하리로다.»

송군이 답왈

«적장이 비록 웅호지상[368]이오나 미간을 보오니 지략이 없사오니 념려 없나이다.»

하고 송군이 대적하고저 하거늘 한 태익이 말려 왈

«장군은 명일 대적하라.»

한대 청정이 질욕하거늘 태익이 분하여 합전하니 심산 맹호가 밥을 다토는듯 쌍룡이 여의주를 다토아 대해중에서 뛰노는듯 하더라. 합전 팔십여 합에 미결승부하더니 청정이 태익의 창법이 정묘함을 보고 속으로 헤오대

«등한한 장수는 아니로다.»

하고 또 합전 구십여 합에 달하니 일모 황혼이라. 량진에서 명금퇴진하는지라 청정이 말머리를 돌리며 왈

«금일 너의 잔명을 보전하기는 너의 재조를 아낌이라.»

하며 돌아 가니라

한 태익이 본진에 돌아 와 김 응서를 대하여 왈

《명일 선봉은 장군을 정하나니 청정을 버혀 분심을 씻으리로다.》

한대 응서 쾌락하고 익일 평명에 피갑 상마하여 청룡검을 빼여 들고 웨여 왈

《적장 청정아 너는 작일의 미결한 싸움을 결단하라.》

청정이 피갑 상마할새 여 만태 피갑 상마며 청정 다려 왈

《장군은 노여움을 참으소서 소장이 적장을 버혀 오리이다.》

하고 내달아 합전 십여 합에 응서의 청룡검이 빛나더니 여 만태의 머리 떨어지는지라 응서 고성 대호하여 왈

《왜장 청정은 불쌍한 장졸을 죽이지 말고 빨리 내 칼을 받으라.》

한대 청정이 여 만태 죽는 것을 보고 말을 재촉하여 벽력 같이 호통하며 상전 사십여 합에 청정이 철퇴를 들어 응서의 가슴을 치니 응서 공중에 솟으며 철퇴를 피하고 다시 구십여 합에 미결 승부할새 한 태익이 헤오대 김 응서 혹시 실수할가 저어하여 제장을 돌아 보며

《제장은 일제히 나가 합력하라.》

하니 송 군은 좌편을 즛쳐 가고 김 일관은 우편을 즛쳐 들어 가니 검극은 번개 같고 고각 함성은 천지를 움직이는지라 청정이 기운을 돋우어 좌충우돌하며 백여 합에 달하니 청정이 말머리를 돌리여 본진으로 향하거늘 김 응서는 길을 막고 한 태익은 북을 울리며 군중 위엄[369]을 돋우는지라 청정이 분개 막심하여 좌수로 장창을 들어 시석을 막으며 우수로 철퇴를 잡아 응서의 말을 친대 말이 거꾸러지는지라 송 군이 달려 들어 응서를 부축

하니 웅서 본진에 돌아 가 다른 말을 갈아 타고 청룡검을 빼여 들며 달려 들거늘 청정이 웅서 달려 오는 것을 보고 도주하고저 한대 웅서 벽력 같이 호통하며 길을 막는지라 청정이 분발하여 철퇴를 들어 김 일관의 말을 치니 김 일관이 말에서 내려지는지라 한 태익이 김 일관의 실수하는 것을 보고 급히 나아가 구원하고 청정이와 합전 삼십여 합에 청정의 기운이 아직도 씩씩하고 한 태익의 기운이 점점 쇠진함을 뵈일새 좌우 제장이 일시에 합력하여 번개 같이 즉쳐 들어 가니 함성은 천지를 진동하며 티끌은 하날에 닿았더라.

청정이 피신하고저 하나 사면 팔방에 천창 만검이 별 박히듯 하였는지라 청정이 마혁을 잡고 앙천 통곡하여 왈

«이는 하날이 시킨 액운이요 싸움 못 한 죄는 아니로다. 피코저 하나 팔방이 검극이요 죽고저 하나 죽을 따이 없도다. 천시가 미치지 못 하여 수족 같은 소서비가 죽었으니 본국에 돌아 간들 무삼 면목으로 왕상을 대하리요. 명천이 감동하사 청정의 잔명을 보존하옵소서.»

인하여 잠시 정신을 진정하던 차에 한 태익 김 웅서 총 군 김 일관의 사장이 달려 들며 왈

«천시를 몰라 보는 무진한 강적 놈은 죽기를 사양하난다.»

하고 비쌀치듯 들어 가니 청정이 합전 십여 합에 저당치 못 하고 평생 힘을 다하여 남면을 헤치고 달아 나는지라. 청정이 경황 분주하는 즈음에 김 웅서 후면을 즉쳐 나오며 호통하여 왈

«이 때까지 청정을 버히지 못 하였느냐» 하며 청룡검이 번적 들어 가니 비록 영웅이라도 어찌 피할소냐. 청정의 머리 십장 밖에 떨어지며 머리 없는 주검이 무참하게 구르니라. 김 웅서 남은 기운으로 좌충우돌하며 청

정의 장졸을 엄살하여 십만 명을 함몰하니 주검이 뫼와 같고 류혈이 내를 이뤘더라.

인하여 한 태익이 삼군을 수습하여 승전고를 울리며 본진으로 돌아 와 승전 장문을 올리니라.

차설 조선 왕상이 청병 장졸과 김 응서를 보내시고 주야로 념려하시더니 문득 한 태익의 장문이 올라 오거늘 리 여송을 청하여 대좌 후에 상이 왈

«장군의 혜택을 입어 강적을 소멸하였으니 그 은혜 태산 같도다.»

하고 주안을 들어 위로할 즈음에 한 태익이 출병하고 당도하여 주왈

«청정의 대진을 파하기는 김 응서의 공이 크오며 용맹과 지략이 겸전하옵기로 본국 병마를 거느려 강원도에 남은 도적을 물리치기로 약속하옵고 소장들은 리 도독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 갈가 하여 출병하고 왔나이다.»

상이 대열하사 치하하고 즉시 우양[370]을 잡아 태평연을 배설하고 명군 장졸을 호궤하며 기쁨을 한 가지로 나눌새 리 여송이 주왈

«남은 도적은 은서가 속히 파할 지략이 있사오니 근심을 더옵소서.»

인하여 명군 장졸이 행리를 수습하여 본국으로 발행할새 주상과 백관이 전송하니라.

각설 도승지 서 윤옥이 여짜오대

«전라도 광주 땅에 김 덕령이라 하는 사람이 지략이 과인하고 용맹이 출중하오나 란세를 당하여 나라를 돕지 아니 하고 은거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일찌기 청정의 진중을 루차 왕래하였다 하오니 그 뜻이 간사하온지라 문죄하옵소서.»

한대 상이 즉시 금부도사를 명령하여 덕령을 잡아 올리라 하시니라.

차시에 덕령이 몽상 중[371]에 있어 모친이 만류하는

고로 전장에 나가지 못 함을 크게 한탄하여 두문불출하고 지나더니 홀연 금부도사 당도하여 어명을 전하고 결박하거늘 덕령이 내당에 들어 가 모부인께 고하여 왈

«란세에 국가를 돕지 못 하고 왕명으로 잡혀 가오니 무삼 면목으로 왕 상을 대하오리까. 차라리 죽고저 하되 어명을 거역지 못 하여 잡혀 가오니 만세 안녕하옵소서.»

모부인이 또한 락루 통곡하니 모자지정의 애통함을 어찌 다 측량하리요.

인하여 덕령이 하직하고 도사를 따라 철원 땅에 이르러 한 송정[372]이 있거늘 잠시 쉬여 가기를 청한대 도사 왈

«나라의 죄인이 되여 일시인들 지체하랴.»

덕령이 도사를 꾸짖어 왈

«내가 비록 잡혀 가나 너의 위엄으로 잡혀 가는 배 아니요. 내가 거역하면 네 집수[373]하여 나와 대적할소냐. 내가 왕명을 순종하거늘 네 나를 핍박하니 나의 수단을 보라.»

하며 몸을 요동하니 철망[374]이 썩은 새끼 떨어지는듯 하는지라 한 번 뛰여 몸을 소소아 백운간에 올라 갔다가 송정에 나려 서니 도사가 아무 말도 못 하고 구경만 할 뿐일러라.

홀로 서북간으로서 사립[375] 쓴 로인이 청운을 헤치고 나려 와 서로 읍하고 이윽히 수작하다가 로인이 덕령의 손을 잡고 왈

«그대 내 말을 듣지 아니 하고 여차히 되였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빨리 나아가 천명을 순수하라. 그대 죽은 후에 나를 다시 만날 때가 있으리라.»

하고 리별하니 종적이 묘연하더라 덕령이 공중을 향하여 사례하고 나려 와서 도루 철망을 쓰고 앉거늘 금부도사 황송 질색하여 한 말도 못 하더라.

수일만에 장안에 득달하여 대궐 정하에 복지한대 상이 대로 왈

«네 용력이 과인하여도 임군의 위태함을 구원하지 아니 하고 은신하여 적진에 루차 출입하는 일은 무삼 뜻이뇨.»

덕령이 여짜오대

«신자되여 임군의 위태하심을 구원치 못 하였사오니 죄사무석[376]이요 무슨 발명 있사오리까. 다만 전장에 허신하지 못 한 연고는 부친님 몽상을 입삽고 병중 로모를 봉양하옵기 때문이며 련삼일을 적진에 출입하옵기는 신의 풍운 조화를 적장에게 뵈온다면 적장이 황겁하여 자퇴할가 하온 계교요 다른 뜻이 있사오리까. 신의 죄는 만사무석이오니 죽기를 사양하오리까.»

상이 더욱 진노[377]하사 무관을 시켜 엄형하여도 덕령이 아파하는 자색이 없거늘.상이 전교[378]하사 왈

«네 무삼 발명이 있관대 죽지 아니 하난다.»

덕령이 주왈

«충신과 효자는 하날이 죽이옵거늘 한갓 형장으로 죽이려 하옵시니 인력으로 죽사오리까. 신의 소원이 있사오니 미구에 또 왜란이 있사올 것인대 그 때에 참여치 못 하는 것을 한하나이다. 부득불 죽이시려 하옵거든 만고 효자 충신 김 덕령이라 현판에 새겨 정표[379]하여 주옵시면 신이 죽사오리다.»

상이 백관과 상의 한대 백관이 합주[380] 왈

«제 소원 대로 하여지이다.»

상이 즉시 친필로 만고 영웅 김 덕령은 충신 겸 효자라 쓰시고 하령하사 현판에 새겨 붙이게 하고 죽이라 하시니 덕령이 앙천 통곡하며 난데 없는 비도[381]를 내여 다리 아래 비늘 한 쪽을 버혀 내고 .

«이 곳을 치라.»

하니 무사 그 곳을 중장[382]할새 가련하다 영웅이라도 천명이 진하였으니 어찌 하리요.

슬프다 덕령의 모부인이 덕령을 보내고 주야로 슬허하더니 일일은 덕령의 죽은 시체가 왔거늘 내달아 덕령의 시체를 안고 궁글며 슬피 통곡하여 왈

«이것이 너의 죄가 아니라 내가 보내지 아니 한 죄로다. 다만 모자 있어 서로 의탁하고 세월을 보내더니 이렇듯 죽었으니 내 혼자 살아 무엇하리요.»

하며 애원한 울음 소래 원근에 사무쳐 랑자하니 뉘 아니 슬허하리요. 선산 아래에 안장하니라.

각설 이 때 왜왕이 제장을 모아 의논 왈

«청정 소서비를 잃었으니 다시 기병하여 임진년 원쑤를 갚으리라.»

하고 련읍에 행관하여 군사를 조련하며 전선을 수조[383]하니 일본이 소동하더라.

차시는 정유년[384] 정월이라 왜선 수만 척이 남해를 덮어 들어 온다 하거늘 상이 대경하사 백관을 모아 의논 왈

«전일에 김 덕령이 죽을 때 왜적이 또 침범하리라 하더니 지감[385]이 있도다. 이제 뉘가 대장이 되여 도적을 막으리요.»

한대 백관이 모다 실색하여 입을 벌리지 못 하더니 이 때 원 균이 한산에서 패하였다는 패전 장문이 올라 왔는지라 상이 더욱 진노하신대 류 성룡이 출반 주왈

«당금하여 도적을 물리치기에는 리 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삼는 외에 방도가 없는가 하나이다.»

상이 즉시 리 순신으로 삼도 수군 통제사로 하이시고 원 균을 천거한 자를 문죄하니라.

선시에 원 균이 리 순신의 막하에 있음을 부끄러이 생각하고 순신을 시기하더니 마침내 순신을 모함하여 옥에 가두고 스스로 통제사가 되여 도적 막기에는 힘을 내

지 아니 하고 주색과 풍류로 세월을 보낼새 얼마 가지 않아서 순신이 쌓아 놓은 군량과 기계를 다 소진하고 군사들도 분함을 이기지 못 하여 다 흩어져 가더라.

리 순신이 옥에서 풀려 나와 다시 통제사가 되여 보니 흩어진 군사가 구름 모이듯 몰려 오는지라 순신이 부서진 배를 수조하고 정철총[386]을 만들어 군사를 조련하니 군세 크게 떨치더라.

왜장 퇴도수 리 순신이 다시 통제사가 되였다는 소문을 듣고 임진년의 원쑤를 갚고저 병선 수백척을 거느리고 진도로 행하여 올새 순신이 명량에 류진하고 피란선 백여 척을 모아 거짓 성세만 올리고 응전하지 않으니 왜적은 순신의 군사 허약함을 보고 화전을 쏘며 전선을 모아 가까이 쳐 들어 오는지라 순신이 군사를 시켜 배를 굳게 매고 일정 요동치 않더니 왜적의 날아 오는 화전이 배'전에 부딪치매 이를 받아 적선에 던지니 화전이 도로 튀여 가 적선 수십 척에 불이 붙는지라 화광과 연염이 충천하고 불에 타 죽는자 부지기수러라. 순신의 군사 승세하여 북을 울리며 일제히 나아가 치니 왜병이 삼'대 쓰러지듯 하더라. 먼저 왜장 퇴도수의 목을 베여 돛대 우에 높이 거니 순신의 군사 용기 백배하여 나머지 적선을 함몰하니 겨우 적선 두세 척이 빠져 달아 나니라.

이 날 밤에 리 순신이 군사를 크게 호궤하고 호령하여 왈

«각기 칼을 들어 밤이 새도록 배'전을 찍으라.»

한대 수천 군사 강강수월래[387]를 부르며 배'전을 찍더니 이윽고 날이 밝으매 배안에 난데 없는 손'가락이 가득한지라 모다 의아하여 그 연고를 물으대 순신이 왈

«간밤에 헤염쳐 들어 온 왜적의 손'가락인가 하노라.»

하니 제장이 모다 탄복하더라.

이 때는 정유년 동지'달이라 왜적이 리 순신 장군에

게 패함을 통분히 여겨 수백 전선을 조발하여 통영 앞바다에 결진하니 순신이 왜장에게 격서를 보내여 명일로 승부를 결단하고저 할새 열 아흐레'날 첫새벽에 일어나 순신이 무릎을 꿇고 하날을 우러러 맹세하여 가로대

«오날은 결단코 죽음으로써 왜적을 멸코저 하오니 명천은 하감하사 도적을 소멸케 하소서.»

빌기를 다 하더니 이윽고 동방이 밝았는지라 배를 거느리고 로량으로 나아가 적선과 마주칠새 순신은 칼을 짚고 배'머리에 서서 북을 울리며 군사를 호령하더니 문득 적선에 붉은 장막을 치고 황금 투구를 쓴 한 장수 앉아서 싸움을 돋우는지라 순신이 군사를 시켜 쏘아 맞히니 황금 투구와 더불어 왜장이 쓰러지더라. 이 때 왜적이 또한 조총으로 순신을 쏘니 순신이 명중하여 배 우에 쓰러지더니 다시 일어나 입은 옷을 벗어 그 족하 리 완에게 주어 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고 네가 내 옷을 입고 저 북을 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라.»

한대 리 완이 숙부의 시체를 한편으로 가려 놓고 그 옷을 갈아 입고 배'머리에 나서서 북을 울리며 싸우니라.

왜적이 죽었던 순신이 다시 살아 나옴을 보고 모다 경황 실색하여

«이는 분명 신장이로다. 우리 어찌 신장을 당적하리요.»

하며 도망하려 한대 리 완이 북을 울려 고함치며 도망하는 도적을 급히 치니 왜병이 이미 장수를 잃은 오합지졸이 되였는지라 전선 오백여 척을 함몰 당하고 패주하니 남해 바다에 왜적의 그림자도 없어졌더라.

이 연유로 나라에 승전 장문을 올리니 상이 일희일비하사 리 순신에게 대광보국 숭록대부 령의정을

추증하시고 리 순신의 장례를 각별히 후이 지나게 하신대 백성들이 리 순신의 장군의 죽음을 듣고 모여 들어 통곡하며 거리에 길을 메우고 이레 동안 술과 고기를 먹지 아니 하더라.

각설 조선 왕상이 리 순신 장군의 죽음을 칠천 애련[388]하여 제신을 모으고 전교하사 왈

«이제 왜적이 물러 갔으나 또 반다시 반역하리니 지략이 과인한 사람을 택출하여 일본에 들어 가 동정을 살피고저 하나 뉘 이를 행하리요.»

하신대 백관이 주왈

«서산 대사 아직 평안도 령변에 있사오니 그를 불러 사신을 정하여 보내면 가할가 하나이다.»

상이 옳다 하시고 즉일로 명패하시니라.

차시에 서산 대사 제자 사명당을 다리고 담론하더니 홀연 대경하여 근심하거늘 사명당이 여짜오대

«국가 불평하며 만민이 불안한지라 일본이 다시 기병하여 나오겠기로 근심하나이까.»

서산 대사 왈

«국가에서 왜국 형세를 탐지코저 날로 하여금 사신을 정하여 보내려고 하고 명패 오는고로 념려로다.»

사명이 미소하며 답왈

«저도 그러하온 줄은 알았사오나 감히 아뢰지 못 하였삽더니 명패 오면 소승이 대신 가오리다. 괘념치 마옵소서.»

홀연 봉명 사신이 들어 와서 서산 대사에게 교지를 드리거늘 서산 대사 왈

«소승은 년로하와 기거 보행[389]이 불편 하오니 봉명하기 어려우나 소승의 제자 사명당이 지략이 과인하여 능히 대사를 감당하오리니 함께 가소서.»

인하여 사명당이 대사 전에 하직을 아뢴대 대사 당부하여 왈

«일본'길에 무사히 도박[390]하려니와 만일 급한 일이 있거든 평안도 향산을 향하여 나를 생각하고 재배하면 급한 화난을 면하리라.»

하더라. 사명당이 봉명 사신을 따라 십여일 만에 도성에 득달하여 대궐 정하에 복지하니 상이 사명당의 재조를 아는지라 대열하사 전교 왈

«승대장은 본국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말고 일본에 들어 가 동정을 살피고 항복을 받아 후환이 없게 하라.»

하시니 사명당이 주왈

«소승이 비록 산중에 있사오나 조선 수토를 먹사온대 어찌 그만한 수고를 애끼리까.»

상이 대희하사 사명당으로 봉명 사신을 정하시니 사명당이 탑전에 하직 수배하고 전로에 로문[391] 놓고 발행할새 비록 승대장이나 봉명사신으로 나려 오는 행차라 렬읍 수령들이 감히 거역지 못 하고 공경 후대하더라. 구일 만에 동래관에 득달하니 동래 부사 로문을 보고 대소하여 왈

«하고 많은 인물 중에 구태여 중 놈을 보내난고.»

하며 삼일을 지나도 나와 보지 않으니 사명당이 분함을 이기지 못 하여 무관을 명하야 부사를 잡아 들이고 크게 꾸짖어 왈

«동래 부사는 어떠한 사람이관대 국록지 신이 되여 봉명 사신을 대접함이 이렇듯 무례하뇨. 사자 수비나 왕명은 가존[392]이어늘 내 명색이 비록 중이려니와 왕명을 받자와 사생을 생각지 않고 만리 타국에 들어 가거늘 너는 왕명을 생각지 않고 중이라 업수이 여겨 대령하지 않으니 너 같은 대역부도 한 놈은 마땅히 선참 후계[393]하려니 나를 원망치 말라.»

하고 원문 밖에 내여다가 군법으로 처참한 후 연유를 상달하고 선척을 재촉하여 발행할새 순풍에 돛을 달

고 수일만에 일본에 득달하여 왜왕에게 패문을 보내니라.

각설 조선국 사신이 일본에 들어 가는 패문이 왜국에 다달은지라 왜왕이 패문을 개탁하니 기서에 왈

«피차에 적국이 되였으매 조선에서 생불을 사신으로 정하여 보내나니 재조를 교쟁하고저 하노라.»

하였더라. 왜왕이 대경하야 제신을 모아 의논 왈

«조선 같은 편소지국에 생불이 있으리오만 생불이라 일컬음은 일본을 경멸히 알고 속이는도다.»

제신이 주왈

«좋은 묘책이 있으니 시험하여 보오리다. 오십리허의 로변에다 병풍을 세워 두고 대문 안에 오십 척 함정을 만들고 그 우에 포진 병장[394]을 펴고 영접할 때 제 부처가 분명하면 알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라도 알지 못 하오리다.»

이 때 조선 사신이 병풍 지경에 다달은지라 왜졸이 모셔 들일새 일락 서산하여 좌우에 등촉이 휘황한대 말을 급히 달려 들어 오는 즈음에 병풍서를 보는 바 없이 들어 오더니 황명문 어구에 다달에 크게 호령하여 왈

«말을 잡고 왜왕에게 분부하라. 무삼 간계로써 함정을 만들어 죽이려 하니 무슨 연고이냐.»

호통하니 왜졸이 연유를 아뢰고 황겁하여 함정을 메우고 포진 병장을 갖추아 영접하고 별궁에 모시니라.

차야에 사신이 왜왕과 대좌하여 온공한 말로 수작하더니 왜왕이 문왈

«사신이 생불이라 하니 오십 리 안의 병풍서를 보아계시니까.»

사신이 보았다 하니 외우라 하거늘

«어찌 고만한 것을 외우지 못 하리요.»

하고 삼경에 시작하여 이튿날 오시까지 련송[395]하니 삼백 륙십 간 병풍의 일만 일천 구백여 귀를 외우거늘 왜왕이 문 왈

«어찌 한 간의 글'귀는 외우지 아니 하나이까.»

사명당이 왈

«어찌 없는 글도 외우라 하나뇨 마감 한 간이 겹쳐 있삽기로 아니 외웠나이다.»

왜왕이 즉시 사자를 시켜 가 보라 하니 과연 한 폭이 겹쳤는지라 그 대로 고하니 왜왕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지 못 하더라.

왜왕이 물러 나와 제신과 상의하여 왈

«조선 사신이 명견 만리[396]하니 어찌 하리오.»

제신이 주왈

«룡강 대택[397]이 깊어서 수천 길이 되온지라 천근이 되는 철판 우에 앉히고 그 물 가운데 들여 밀면 제 부처가 적실할진대 죽지 아니 할 것이요 범인이오면 죽사오리다.»

하니 왜왕이 조선 사신을 간청하여 왈

«룡강 대택이 경치 찬란 하오니 선유를 하사이다.»

인하여 룡강변에 다달아 사신을 철판에 앉히고 제신을 명하여 수중에 들이 친대 사명당이 철판에 앉으니 순풍이 대발하며 철판이 물'결을 좇아 동서 남북으로 왕래하기를 평지 같이 하거늘 왜왕이 그 도술을 신통히 여겨 사신을 모셔 내여 사처로 보내고 제신과 다시 의논하니 한 신하 주왈

«래일은 잔치를 배설하고 채단 방석과 백목 방석을 내놓아 백목 방석에 오르면 부처려니와 그렇지 아니 하면 요물이오니 죽이사이다.»

하거늘 이튿날 왜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신을 청하여 방석에 앉으라 하니 사명당이 백팔념주를 손에 들고 백목 방석에 앉는지라 왜왕이 왈

«사신이 부처면 어찌 비단을 취하지 않고 백목을 취하나뇨.»

사명당이 왈

«부처는 백목을 취하나니 어찌 비단을 취하리요. 백목은 목화 꽃이요 비단은 버러지 집으로 나온 것이므로 취하지 않나이다.»

하니 왜왕이 다시 말이 없고 이윽하여 주색과 풍악으로 종일 연락하다가 파연곡[398]을 드리거늘 각각 침소로 돌아 가니라. 익일에 왜왕이 백관을 모아 의논하니 제신이 주왈

«조선 사신이 부처라 하오면 응당 주색을 꺼릴 것이어늘 주색과 풍악은 즐기오니 이는 요술을 발하여 속이는가 하나이다. 이제 구리로 한간 집을 짓고 사신을 청하여 구리집에 들어 오거든 문을 잠그고 사면으로 숯을 피우면 제아무리 생불이라도 그 안에서 죽기는 면하지 못 하리다.»

하니 왜왕이 옳이 여겨 즉일로 구리집을 짓고 사신을 청하여 방안에 앉힌 후에 문을 잠그고 사면으로 백탄을 쌓고 대풀무를 놓아 부니 불꽃이 일어 나며 곁으로 구리가 녹아 흐르니 아모리 생불인들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사명당이 구리방 안에서 사면 벽상으로 서리 상'자[399]를 써 붙이고 방석 밑에는 얼음 빙'자[400]를 써 놓고 팔만대장경을 외우고 앉았으니 차기가 얼음'장 같더라.

하루'밤을 경과하고 왜왕이 군졸에게 분부하여 왈

«간밤에 화광이 련'이였으니 무쇠라도 녹았으리라, 빨리 가서 열어 보라.»

하니 군졸이 봉명하고 문을 여니 생불이 앉았으되 눈'섭에는 성에가 끼고 수염에는 고드름이 달렸는지라 군졸이 아연 실색 한대 조선 사신이 대로하야 왈

«네 왕께 내 말을 자세히 전하라. 맹돌 사처를 하여주어 동한을 참지 못 하고 일야를 경과하였거니와 일본이 남방 따이라 사시장춘인가 하였더니 허언이로다. 온돌이 있는 사처로 옮겨 주면 어한이나 할가 하노라.»

7-1588

군졸이 돌아 가 아뢴대 왜왕이 경황하여 함구 무언하고 제신을 모아 의논 왈

《조선 사신은 생불이 분명하거니와 이 때를 당하여 죽이지 못 하면 이는 범의 새끼를 기르는 우환이 되리니 묘한 계책이 없느뇨.》

제신이 주왈

《이제 무쇠로써 말을 만들어 사신을 태운 후에 권뢰[401]를 놓아 무쇠 말을 달구면 비록 철신이라도 죽기를 면하지 못 하리다.》

한대 왜왕이 옳이 여겨 즉일로 무쇠 말을 만들어 제반 준비를 한 연후에 조선 사신을 청래하여 일러 왈

《조선 생불은 이 철마를 타소서. 이 철마를 타신즉 서상 정토 극락 세계로 가시오리다.

하거늘 사명당이 쇠말 앞에 나아가 조선 평안도 향산을 향하여 선생을 생각하고 서향 재배하더니 이윽하여 향산으로서 한 쪼각 흑운이 일어 나 일본으로 들어 오더니 홀연 뢰성 벽력이 치며 천지 무너지는듯 하는지라. 급한 대우 퍼붓는듯 하여 지척을 불변이나 사명당이 섰는 데는 큰 비 일 점도 오지 아니 하며 일본 경내에 대수 창일하여 인민이 무수히 죽을뿐더러 성곽이 퇴락하여 도성 형체 없는지라 왜왕이 그제야 부처의 도술이 분명한 줄 알고 방성 통곡하며 왈

《어찌 하면 잔명을 보존 하리요.》

한대 제신이 주왈

《왕상은 빨리 항서를 올리옵소서.》

왜왕이 망극하여 항서를 써서 사자를 명하여 사명당 앞에 올리거늘 사명당이 대로하여 항서를 퇴송하고 꾸짖어 왈

《간사한 왜왕은 종시 깨닫지 못 하고 여러 가지로 나를 죽이려 하였거니와 내 어찌 간계에 빠지리요. 빨리 왜왕의 머리를 베혀 올리면 뢰성 대우를 정지하려니와

불연즉 일본 지방을 대택을 만들고 왜놈의 종자를 없이 하리라.»

한대 호통은 추상 같고 뢰성은 더욱 진동하더라.

사자 돌아 가 연유를 아뢴대 왜왕이 방성 통곡하거늘 백관이 주왈

«전하는 옥체를 진정하옵소서. 신 등이 부처님께 애걸하여 화를 면하게 하오리다.»

차일에 왜왕이 산상에 올라 가 도성을 살펴 보니 성지는 이미 대해가 되였으며 약간 남은 백성들이 부모 처자를 부르짖으며 산야에 편만하였으니 그 형상을 참아 보지 못 할러라. 왜왕이 발을 구르며 앙천 통곡 하니라.

차시에 관백이 또 항서를 올리거늘 사명당이 대로하여 꾸짖어 왈

«항서를 받을 것이면 선참에 받으려든 쥐무리 같은 너희와 내가 희롱하였으랴. 빨리 왜왕의 머리를 버혀 올리라. 불연즉 동서북 삼해 룡왕을 불러 일본을 함멸하여 대해를 만들고 왜놈의 종자를 없이 하리라.»

하니 뢰성은 점점 진동하며 대우는 붓는듯 하더라.

왜왕이 통곡하여 왈

«왜국이 금일에 망하게 되였으니 과인이 죽기는 사양치 아니 하거니와 지하에 돌아 가 어찌 선대왕을 대면하리요.»

하고 비도를 빼여 자결코저 하거늘 호첩이 간하여 왈

«전하는 옥체를 진정하옵소서. 신 등이 죽기를 결단하여 부처님께 애걸하오리다.»

백관이 사명당 앞에 나아가 복지 통곡하여 왈

«신의 왕의 머리를 드려 부처님의 분심을 풀고저 하여도 신자의 도리에 차마 못 하옵거니와 신 등의 머리를 차례로 버혀 드려 부처님의 분심을 덜가 하나이다.»

사명당이 왈

«너의 충성이 극진하니 잠시 용서하거니와 너의 왕에게 분부할 말이 있으니 현신시키라.»

백관이 사례하고 돌아 가 연유를 주달하니 왜왕이 대열하여 즉각에 나아가 헌신하고 복지한대 사명당이 왜왕을 꾸짖어 왈

«너의 놈의 근본을 설화할 것이니 자세히 들으라. 옛날 진시황 시절에 서불이라 하는 놈이 중국에 있어 진시황을 속이는 말을 하여 동해중에 봉래, 방장, 영주 삼신산이 있으니 그 산에 가서 불사약을 구하여다가 드리오리다하고 동남 동녀 오백 인을 선중에 싣고 동해 섬에 들어 와서 동남 동녀를 배필삼아 자자 손손이 번성하여 자칭왕이라 하고 화외 지민[402]이 되였으니 하날이 주신 쌀을 먹기가 부끄럽지 아니 하냐. 또 너의 놈들이 강포만 믿고 우리 조선 례의지국을 침범하였으니 이는 우리 조선 국운이 불행하여 칠년 병화 지액을 하날이 주시는 고로 내가 이미 십년 전에 너의들이 발병하여 침노할 줄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방지하지 못 함은 천명을 거역할 수 없어 그리하였거니와 이제는 칠년 병화를 필하였으니 왜놈의 종자를 없이 하리라.»

왜왕이 망극중[403]에 다시 복지 주왈

«소왕이 미련하기 특심하여 부처님을 몰라 보읍고 또 임진년에 작죄한 일은 만사 무석이라 아뢸 말씀이 없나이다. 복걸 부처님은 잔명을 구제하여 주옵소서.»

백관이 또한 애걸하거늘 사명당이 노의[404]를 나직이 하여 왈

«너희 진실로 그러할진대 나의 분부를 실행하면 뢰성 벽력을 거두고 일본을 안정하려니와 불연즉 대해를 만들리라.»

왜왕이 고두 사죄 왈

«분부 대로 하오리다.»

사명당이 왈

«그러할진대 조선에 항서를 바치며 조공으로 구리쇠 삼만 륙천 근과 놋쇠 삼만 륙천 근과 후초 삼백 석과 황금 삼십 근을 매년 착오 없이 보내라.»

왜왕이 흉격[405]이 막혀 묵묵 부답하거늘 좌우 제신이 왈

«일본의 멸망이 급박하였사오니 그 말대로 다짐 항서를 올리옵소서.»

왜왕이 그 말과 같이 항서를 만들어 올리거늘 항서를 받은 후에 사명당이 뢰성 대우를 끊지게 하니 일월이 다시 명랑하더라.

이러구러 벌써 삼삭이 되였는지라 사명당이 왈

«우리 왕상이 기다리시니 빨리 돌아 가고저 하노라.»

왜왕이 주왈

«소국에 삼년만 류하시면 일본이 지탱할가 하나이다.

사명당이 왈

«삼삭을 류하여도 폐단이 불소하거든 어찌 오래 류하리요.»

하고 다시 왜왕에게 분부하여 매년 조공은 동래섬에 수운하여 상납하라 하더라.

사명당이 왜왕의 항서를 받은 후에 이튿날 회환할새 왜왕과 만조 백관이 백 리 외에 나와 전송 배별한대 일본 인민이 조선 생불이 환귀 고국한단 말을 듣고 다투어 구경하더라.

사명당이 일본 군사 삼백 명을 거느리고 수일만에 동래관에 득달하여 조선 왕상께 왜왕의 항서를 동봉 상송하고 일본 군사 삼백 명을 동래관에 수자리시킨 후에 렬읍에 로문하고 발행하니 각읍 수령들이 공경히 맞으며 태평악으로 호송하더라.

각설 조선 왕상이 사명당을 사신으로 보내고 주야로 념려하더니 사신의 장문이 올라 왔거늘 개탁하니 기서에 왈

«사명당은 왕명을 받자와 왜왕을 항복 받삽고 매년 공납을 마련하여 오되 구리쇠는 삼만 륙천 근이요 놋쇠

는 삼만 륙천 근이요 황금은 삼십 근이요 후초는 삼백 석을 동래관에 수운하여 상납하옵고 왜놈 삼백 명을 동래관에 수자리하게 규정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상이 대열하사 전교 왈

«사명 대사의 도술로 왜놈을 항복 받았으니 봉작 상사하여도 그 공을 갚지 못 하리라.»

하더라.

사명당이 칠일만에 장안에 득달하여 왕상께 숙배한대 상이 대열하사 태평연을 배설하고 련삼일을 즐기실새 사명당을 칭찬하여 왈

«그대가 만리 타국에 들어 가 빛난 이름을 세우고 무사히 돌아 오니 그 공덕이 팔로에 덮였는지라 무엇으로 보은하리요.»

하고 사명당에게 대광보국 숭록대부 지중추를 봉하시고 또 서산 대사를 봉작하더라.

사명당이 벼슬에 있은지 칠삭만에 복지 주왈

«신의 벼슬을 갈아 주시면 산중에 들어 가 불도를 숭상하여이다.»

하거늘 상이 창연함을 마지 못 하여 가라사대

«경의 소원이 그러할진대 임의로 하라.»

하시고 벼슬을 갈아 주시니 대사 숙배하고 물러 나와 향산으로 들어 갈새 만조 백관이 멀리 나와 전송하고 원근 백성들이 격양가를 부르며 대사를 칭송하더라.

주 해

[1] 각설——옛 소설에서 이야기의 허두를 내는데 쓰는 말, 또는 한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 갈 때도 씀.

[2] 아동——우리 조선이라는 말.

[3] 봉래산——옛 전설에 의하면 동해에 신선이 사는 세 산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를 말함.

[4] 통천 총석——강원도 통천군 총석정 관동 팔경의 하나.

[5] 서노 은맥——산의 숨은 줄기.

[6] 여맥——본 줄기에서 갈라진 줄기,

[7] 진시황——기원전 3 세기에 중국을 통일시킨 황제.

[8] 망사——망명하여 돌아 오지 않은 사람.

[9] 서불——중국 진나라 시대 사람으로서 일설에 진시황의 명령을 받아 불사약을 구해 오기 위하여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는 삼신산을 찾아 동남동녀 삼천 명을 거느리고 떠났다 한다.

[10] 의자왕——백제의 제 30 대 왕.

[11] 아조——리조를 말함.

[12] 명종 대왕——리조 제 11 대 왕.

[13] 해중 제국——일본은 본래 여러 섬으로 되여 있고 각 지방에 군웅이 할거하여 나라를 형성하였다.

[14] 산성군——수길이가 일본의 왕위를 탈취하고 일본 왕을 산성군으로 삼았다 한다.

[15] 군정——군사를 다스리는 것.

[16] 고진 금퇴——옛날 군사 규례에 북을 치면 앞으로 전진하고 징을 치면 뒤로 퇴각하는 것이 신호로 되여 있었다. 여기에서는 초보적인 군사 지식을 말함.

[17] 기치 방색——기치는 기'발, 방색은 진중의 동 서 남 북 방위를 가리키는 색갈인데 동은 청색, 서는 백색, 남은 적색, 북은 흑색, 중앙은 황색으로 표시하였다.

[18] 장 간——실재한 인물인지 불명.

[19] 장성——옛날 장수에게는 별이 하나씩 달렸다 하며 이러한 별들이 많이 비치면 싸움이 일어 난다 하였다.

[20] 태백성——새'별, 금성.

21 백홍이 관일——흰 무지개가 해를 꿰였다는 뜻.

22 백호——흰 호랑이, 다른 기록에는 승냥이가 자주 평양성 중에 들어 왔다 하였다.

23 도성——서울.

24 림해수——륙지와 접한 바다'물.

25 탕일——물이 물'결쳐 넘치는 것.

26 례조좌랑——리조 중앙 행정 기관인 륙조 중의 하나, 주로 외교 교육을 담당한다. 좌랑은 직품.

27 조 형——사람 이름이나 불명.

28 형조 판서——륙조의 하나인 사법 행정을 맡아 보는 부서의 책임자.

29 윤 홍——불명.

30 원찬——멀리 정배를 보내는 것.

31 안접——안착시키는 것.

32 오활——오만하고 교활한 것.

33 정저——우물 안의 개구리.

34 구주 강산——천하라는 뜻.

35 연경——오늘의 북경.

36 출반 주왈——반렬에서 나와 아뢰는 것.

37 례의지방——礼義义邦

38 택출——뽑아 내여.

39 기병——군사를 일으키는 것.

40 팔원 대장——여덟 장수.

41 봉작——관직을 봉하는 것.

42 거사——처사와 같음, 벼슬에 나가지 않는 선비.

43 죽산 태평완——경기도 죽산에 있는 태평 여울.

44 통진 골——경기도 금포 서쪽에 있는 고을.

45 장수산——황해도 재령에 있는 산.

46 출입 형세——여기는 교통 형편.

47 용병 요해처——군사적으로 방어와 공격에 적절하고 부당한 지점.

48 평의지——당시 대마도의 도주.

49 사서——말과 글.

50 첨지——당시의 중추부사를 말한 것.

51 조회——조정에 나와 뵈이는 것.

52 패만——도리에 어그러지고 거만한 것.

53 부산 동평관——부산에 일본인의 거주를 허가한 지역에 있던 집의 이름.

54 형백세——일본인 인명이나 불명.

55 사장——四将

56 북해——지금의 현해탄.

57 일진군——한 부대.

58 조발——징발하는 것.

59 엄살——불의에 엄습하여 죽이는 것.
60 여반장——일이 쉽다는 뜻.
61 평행장 청정——소서행장과 가등 청정.
62 하삼남——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삼남 지방.
63 마다시 심안도——일본인의 이름들이나 불명.
64 아장 십팔원——총지휘관을 보좌하는 열 여덟 장수.
65 기치 검극——旗幟劍戟
66 호통 취각——중군에서 사용하는 신호 나발.
67 진영——지방 수비를 위하여 설치한 병영.
68 인마살벌——사람과 말을 마구 죽이고 치는 것.
69 후군——後軍
70 서평동——부산에서 동래로 가는 지역에 있는 동리.
71 다대진——부산과 동래 사이에 있는 지점으로서 진영을 두고 첨사가 있었다.
72 윤 흥신——다대진 첨사로서 왜적과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
73 갑주——갑옷과 투구.
74 진졸——진영의 병졸.
75 평조익——1589년에 평의지, 현소, 평조신이 조선에 통신사로 왔을 때 평조익은 송상현의 후대를 받은 일이 있다.
76 부로 휴유——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이끄는 것.
77 좌수사——경상도 동래 동남 쪽에 진영을 두고 해군을 통솔하던 수군 절도사.
78 좌병사——당시 경상도 기장 동북 쪽에 좌병영이 있었다. 병사는 마절도사를 말하는 것인데 륙군을 통솔하는 관직이다.
79 산졸——흩어진 병사들.
80 소산역——동래 뒤에 있는 역소.
81 군관 김 상이——실재 인물인지 력사 상 불명.
82 노자——노복.
83 조복——조회 때에 입는 홍색 례복.
84 앙천통곡——仰天痛哭
85 선자——부채.
86 천지 망극——슬픔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여 한이 없는 것.
87 은의——恩義
88 대질——크게 꾸짖는 것.
89 봉망——칼날과 창끝.
90 은교——은으로 장식한 가마.
91 은산——은색의 양산.
92 수급——몇 개의 목.
93 칠십 일군——경상도는 예전에 좌도와 우도로 나눠, 좌도가 39 군 우도가 32 군이였다.
94 유벽 산곡——깊숙하고 궁벽한 산'골.
95 승승——승세를 타서.

96 수미——처음과 끝 여기에서는 미처 손발을 쓰지 못 하고 질서를 찾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97 량장——훌륭한 장수.

98 급마——무슨 변고가 있을 때 말을 주어 급히 파송하는 것.

99 리 일——임진 조국 전쟁이 일어 나자 리 왕조 정부에서 첫번째로 전선 사령관으로 임명된 사람.

100 지용이 겸전——지력과 용맹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것.

101 순변사——변경을 순찰하는 무관 특사로서 전쟁 시기에 있어서는 전선 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림시 벼슬.

102 보신갑——갑옷의 한 종류.

103 관관——감영이나 류수영이 있는 고을의 원을 말함.

104 기민을 진휼——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이나 음식을 주어 구제하는 것.

105 서안——책상.

106 항오——대렬.

107 종사——종사관의 준 말로서 봉명사신의 속원.

108 비장——감사, 사병 또는 수사의 휘하에서 근무하는 속관, 또는 외국 가는 사신들에게 따르는 수원.

109 독무——여기서는 외롭게 된 것을 말함.

110 우여——웃어 가로되.

111 선시——이에 앞서.

112 도체찰사——제장을 겸독하는 림시 벼슬.

113 김 응남——임진 조국 전쟁 시기에 병조 판서로서 부사가 되여 류 성룡을 도운 사람.

114 한성판윤——서울의 행정 책임을 맡은 벼슬.

115 의주 목사 김 여물——김 여물은 임진 조국 전쟁 전에 의주 목사로 있다가 역관의 죄에 련루되여 투옥되였다. 전쟁이 일어 나자 왕이 그 죄를 사하여 석방하자 신 립을 따라 전선에 출진한 사람.

116 진처——진을 친 곳.

117 등롱——초롱.

118 한 신——중국 한고조 류방을 도와 초나라 항 우를 친 명장.

119 조——조 헐의 군사를 말함.

120 수말——경위.

121 압구령——지명인데 불명.

122 꼭뒤——뒤통수.

123 제천——충주 동쪽에 있는 고을.

124 장문——임금에게 올리는 글.

125 가속——家屬

126 주상——임금.

127 공조 참의 리 덕형——공조는 산업, 토목 등을 맡은 행정 기관. 참의는 정삼품의 관직. 리 덕형은 임진 조국 전쟁 시기 국방에 공훈을 세웠다.

128 도승지 리 항복——도승지는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의 우두머리.

129 전정——궁전의 뜰. 여기에서는 임금의 앞을 말한 것.

130 패군장——敗軍將

131 사죄——죽을 죄.

132 죄당 참수——지은 죄로 보아 마땅히 목을 베여야 된다는 뜻.

133 봉달——웃사람에게 아뢰는 것.

134 비전지죄——싸우지 않은 죄.

135 수명하직——명령을 받고 떠나는 것.

136 막가내하——어찌 할 수 없는 것.

137 계교——計較

138 계무소시——어떻게 할래야 할 길이 없는 것.

139 근근 보명——겨우 목숨만을 보존하는 것.

140 법당참——법으로는 응당 베여야 한다는 뜻.

141 부월지하——왕의 위엄을 말함.

142 선전관——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무관.

143 나무 줌치——나무로 만든 주머니. 오무리고 늘굴 수 없이 된 형상을 의미함.

144 령부사——궁중의 경호와 군기를 말아 보던 관직.

145 체읍——涕泣

146 과인——임금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

147 종묘와 사직——종실과 국가를 말함.

148 숙배——肅拜

149 세자 대군——세자는 왕위를 계승할 왕의 아들을 말하고 대군은 왕의 정실에서 난 아들을 말한다.

150 련——임금이 타는 가마.

151 수성 대장——서울을 지키는 총지휘관.

152 좌우위장——위장은 오위도총부의 무관. 여기서는 방어를 책임진 지휘관을 말함.

153 벽제 참——고양군에 있었던 역소.

154 호종군——왕의 가마를 보위하면서 따라 가는 군졸.

155 호련군——임금의 가마를 메고 가는 군졸.

156 남승청——림진강 나루에 있던 정자. 그후 이 곳에 화적정을 지었다.

157 대가——왕의 행차.

158 후궁——後宮

159 편애——사랑을 한편으로 치우치는 것.

160 시위——임금을 모시고 호위하는 군관.

161 단약——사람이 적고 힘이 약한 것.

162 고결——교제하고 결탁하는 것.

163 평수장——부전수가를 말한다.

164 미만——널리 퍼져 있는 모양.

165 평성정——력사상 실재 인물인지 불명.

166 영책——병영을 둘러친 울타리.

167 험처——險处

168 수운——실어 나르는 것.

169 선릉——선왕의 묘.

170 남별궁——공주 별택인데 남별궁이란 이름은 후에 부른 이름이고 당시는 소공주택이라고 했다.

171 접측——폭력으로 접탈하는 것.

172 금패——금지하는 명패.

173 참판——판서 다음 가는 관직으로서 종이품 벼슬.

174 탑전——임금의 앞.

175 통어사——방어하는 임무를 통괄하는 군직.

176 금부도사——금부는 의금부를 말하는데 포도 금란 국수를 맡아 보는 관청이며 도사는 종오품의 관직.

177 장전——활살의 한 종류.

178 승전 패문——승리한 통지서.

179 일자 장사진——한 일자 형으로 친 진.

180 즐욕——꾸짖고 욕하는 것.

181 평궁——활의 한 종류.

182 편전——활살의 일종.

183 군막——군대가 있는 장막.

184 견벽불출——성벽을 굳게 지키고 나오지 않는 것.

185 군장——軍裝

186 뢰고함성——북을 울리며 고함치는 소리.

187 장사 임 욱경——임진 조국 전쟁 시기 평양에 있은 여덟 장수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활동한 사람.

188 성가퀴——성 우에 쌓은 낮으막한 담장인데 총 활을 쏘는 구멍이 있다.

189 평양 좌수 김 유——좌수는 향소의 우두머리. 김 유는 력사상 불명.

190 장림——지금 동평양 선교리.

191 중궁——중전 왕후를 의미한다.

192 판부사——판부사는 판돈녕부사 판중추부사 판의금부사 등을 공통적으로 부르는 이름. 여기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불명.

193 월참——참(역)에서 쉬지 않고 그냥 가는 것.

194 복지——伏地

195 호 은록——력사상 불명. 한 문본에는 최 응숙으로 되여 있다.

196 평립——평량립 또는 평량자라고 한다. 즉 패랭이.

197 성지——성가 못.

198 전도——황급하게 행동하는 모양.

199 승전——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관리. 승전에는 승전색과 승전선전관이 있다. 승전색은 내시부에 속한 벼슬이며 승전선전관은 선전 관청의 무관직이다.

200 조선 운기——朝鮮運気

201 륙환장——중의 지팽이.

202 로사——중의 존칭.

203 합장 공례——손'바닥을 합치고 공손히 절하는 것.

204 유무 편부——있고 없는 것과 편안하고 편안치 않은 것.

205 소정——맑고 깨끗한 것.

206 홍윤한 안색——얼굴'빛이 불그스름한 건강한 낯색을 말함.

207 창안 백발——눈'빛은 푸르고 머리칼은 희다는 말.

208 의표——외모를 말하는 것.

209 천안——임금의 얼굴.

210 룡안——천안과 같음.

211 왕성탄——대동강을 왕성강이라고 불렀는바 왕성탄은 대동강 상류 지금의 사동 곁에 있는 옷바위 여울을 말함.

212 중산 현령 고 언백——고 언백은 병사로서 임진 조국 전쟁 시기에 크게 활약하였으며 대동강을 건너 적을 습격할 때 장사 사백명을 뽑아서 거느리고 간 사람.

213 초경 일점——초저녁.

214 십여둔——둔은 군사들의 집결처.

215 군기——軍器

216 풍월루 못——평양 성안 채관리 근방에 못이 있고 거기에 풍월루라는 다락이 있었다.

217 성식——소문

218 지로군——길잡이 길을 안내하는 군사.

219 륙진군——함경북도 경원, 경흥, 회령, 종성, 온성, 부령 등의 6 개 진에 국경 방위를 위하여 주둔시킨 국경 방위군.

220 해정창——어랑천 근방인듯 함.

221 구치——달리는 것.

222 대택중——큰 못 가운데.

223 남병영——함경도에 두 병영을 두었는데 경성에는 북병영 북청에는 남병영이 있었다.

224 차출——관리를 임명하는 것.

225 무상——언행이 수시로 변하는 것.

226 빽빽이——틀림없이.

227 기차——其次

228 승란 굴기——세상이 어지러운 기회를 타서 출세하여 이름을 나타내는 것.

229 봉성 장군——중국 료동 봉황성에 주둔하여 조선 사신의 출입과 련락 임무를 맡아 보던 중국 관원. 그러나 이 때에 련락을 취한 것은 중국 동북 관전 총병이였다.

230 자문——등급 관청 간의 래왕 편지.

231 정 곤수——왕이 의주에 가서 주청사로 보낸 것은 정 곤수와 심 우승이였다. 정 곤수가 명 나라 병부 상서 석 성에게 청병을 호소하여 석 성을 감동 호응시켜 성공하였다.

232 발마——나라의 중요한 서류를 변방에 가져 가는 사람을 발군이라 하고 발군이 타는 말을 발마라고 한다.

233 형주——중국 지명.

234 적벽의 대첩——촉 나라 제갈량이 오 나라 주 유와 더불어. 적벽강 싸움에서 조조의 군사와 싸워 크게 승리한 것을 말함.

235 단기——單騎

236 도독 학결——당시 료동 순무도어사로 있었다. 다른 한문본에는 도독 의학결로 되여 있다.

237 조 승훈 사위——조 승훈은 당시 료동에 주둔한 군대의 부총병으로서 유격 사유와 더불어 멀리 3 천병을 거느리고 선천에 와 있다가 정식으로 원병으로서 결정되여 7월에 7천군병을 거느리고 평양을 공격하다가 실패하였다.

238 왜자——倭字

239 옥하관——중국 북경에 조선 사신을 위하여 지어 놓은 려사.

240 전좌——임금이 조회 또는 정사를 보기 위하여 나와 앉는 것.

241 년홍 기황——흉년이 들어 기근이 휩쓰는 것.

242 격서——檄書

243 창군——창을 가진 군대.

244 은자 일만 오천 량——다른 기록에는 은자 2만 량으로 되였다.

245 황 원——당시 순안 군수로서 김 명원과 같이 순안을 수비하였고 조 승훈의 군대가 왔을 때 아군 척후장으로 활약했다.

246 호상——군사를 위로하여 주는 상.

247 호군——군사를 위로하여 잘 먹이는 것.

248 백호기——군기의 일종.

249 림 중량——중화 의병장으로서 평양의 소서행장 군대를 포위 공격하는데 크게 공훈을 세운 사람.

250 취둔——군사가 집결하여 주둔하는 것.

251 삼도 통제사——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3도의 수군을 총괄하는 관직.

252 려력——힘.

253 락락하여——마음이 흡족하여.

254 료량——경상남도 남해에 있는 포구로서 리 순신 장군이 전승한 곳.

255 봉내——관리들의 행사하는 권위의 범위.

256 량호——호남과 호서의 출입구.

257 푸등——바다 가운데 풀과 바위가 많은 곳.

258 화전——火箭

259 판옥선——당시 전선으로 사용한 큰 배.

260 연염——연기와 불'길.

261 대한고——대완구포를 말함.

262 회주——배를 돌리는 것.

263 마적시——마다시의 아우로 되여 있으나 불명.

264 응포——맞불'질.

265 겁침——침입.

266 초인——草人

267 청룡기——청색으로 룡을 그린 군기로서 진중 동쪽에 꽂는 기.

268 군정이 분운——군사의 행정이 문란한 것.

269 추구월 망일——9월 보름.

270 장령——대장의 명령.

271 천아성——변고가 있을 때 또는 임금이 거동할 때 불던 나발 소리.

272 시석——화살과 돌.

273 변시——다름 아닌.

274 당항포——고성 남쪽에 있는 포구.

275 안골포——거제도 동쪽에 있는 포구.

276 살벌지성——죽이고 치고 하는 아우성 소리.

277 북평사——함경도 감사를 보좌하는 관직.

278 불승분기——不勝忿氣

279 연락——宴楽

280 조모——朝暮

281 우익——여기서는 협력하는 군사.

282 강 문우——함경도 경성에서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며 기운이 장사로서 큰 공훈을 세운 사람.

283 전 단——중국 제 나라의 애국자이며 전략가.

284 전립——戦笠

285 중위장——중군장과 같음.

286 패자령——령 이름이나 불명.

287 거화——炬火

288 금갑산——가등 청정의 부하오듯 하나 불명.

289 기물——器物

290 루사——자기 절를 낮추어 하는 말.

291 무색——빛이 없다는 뜻.

292 종자——従者

293 고욕——괴롭히고 욕설하는 것.

294 차토——比土

295 무이생불——생불과 다름이 없다는 것.

296 유약창해——큰 바다와 같다는 것. 즉 넓고 깊다는 뜻.

297 천심——얕은 마음.

298 자칭 존위——자기를 스스로 높여 부르는 것.

299 광인——사람을 속이는 것.

300 원문——군영.

301 장중——군막 가운데.

302 심대——일본 중인듯 하나 불명.

303 솔나루——의령을 지나는 락동강 지류에 있다.

304 진주 세미——기장에서 진주로 가는 세미를 실은 배를 거두어 군량으로 한 것을 의미한다.

305 솔이——나무, 무명 같은 것으로 만든 과녁.

306 차비——특수 임무를 주기 위하여 림시로 임명하는 것.

307 대장——의병장이 유고 시에 대리하는 장수.

308 구정——중국의 우 임금 때에 구주의 쇠를 거둬서 구정이란 큰 솥을 주조하였다고 하는데 구정과 같이 무거운 것도 김 덕령에게는 가벼웠다는 뜻.

309 풍진——싸움터.

310 루수——옛날 물시계.

311 동설령——불명.

312 상선——상제가 드는 부채.

313 천창만검 지중——千槍万劒之中

314 죄인——상중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일컫는 말.

315 천사 만념——千思万念

316 취회제장——여러 장수를 모으는 것.

317 회과 자책——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는 것.

318 무사 환향——무사히 고향으로 돌아 가는 것.

319 매씨——가등 청정의 누이를 가리킴.

320 기서——그 편지. 다른 임진록에 의하면 그 편지에 《기어부산하고 종이 부산하라》고 하였다.

321 송'자——宋

322 상막——상재가 부모의 묘결에 려막을 치고 거기에서 거처하는 것.

323 경략——명 나라에서 비상시에 군사를 총괄 통제하는 벼슬.

324 도독 군무——군무를 총지휘하는 군직.

325 좌협 대장——군진의 좌익을 담당하는 장수.

326 표백——자기 심경을 그 대로 내놓고 말하는 것.

327 접반사——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주관하는 관원.

328 모색——용모의 외색.

329 결승 천리지재——決勝千里之才

330 공성야전——성을 치고 들에서 싸우는 것.

331 용장력사——勇将力士

332 서방 숙살지——서쪽의 살벌한 기상.

333 명패——왕이 관원을 부르는 패쪽.

334 극자——나막신.

335 복탁 수명——엎드려 왕의 글월을 떼여 보고 명패를 받는 것

336 령궤——상기 중에 신주를 모시는 곳.

337 몽백——상제가 입는 흰 옷.

338 고사 하직——사당에 고하고 떠나는 것.

339 편시——片時

340 황육——소고기.

341 화소주——소주.
342 호혈——虎穴
343 계삼명——닭이 세해째 우는 것.
344 교병——교만한 병사.
345 요요——고요한 것.
346 창모——娼母
347 김 초관——한 개 초소를 관리하는 위관.
348 금계 사배——닭이 네 쇄째 우는 것.
349 층장——층층으로 된 장막.
350 청허관——소서비가 거처하던 집인데 련광정 부근에 있었다.
351 수혜자——비 올 때 신는 무관들의 장화.
352 추창——빨리 가는 모양.
353 검광촉영——칼'빛이 비치는 것.
354 관사 장원——관사의 담장.
355 말혁——말고삐.
356 빈성——오늘의 안주.
357 삼군——군대의 총칭.
358 유방 백세——명예로운 이름을 후세에 오래 전하는 것.
359 유취 만년——더러운 이름을 오래 전하는 것.
360 오호애재——嗚呼哀哉
361 일배 초혼주——죽은 사람의 혼을 위로하여 술을 한 잔 붓는 것.
362 명장——明將
363 피갑 상마——갑 옷을 입고 말에 오르는 것.
364 청창 출마——무장을 정비하고 말을 타고 나서는 것.
365 필부——匹夫
366 유차족——넉넉하고 만족한 것.
367 항적——중국 초한 시대의 유명한 장수.
368 웅호지상——날랜 호랑이의 상.
369 군중 위엄——軍中威嚴
370 우양——牛羊
371 몽상 중——蒙喪中
372 송정——소나무 정자.
373 집수——손을 마주 잡는 것.
374 철망——옛날에 죄수를 호송하는데 죄수에게 씌우던 철사그물.
375 사립——紗笠
376 죄사무석——지은 죄로 보아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
377 진노——크게 노여워하는 것.
378 전교——임금이 명령을 내리는 것.
379 정표——정문을 세워서 표창하는 것.
380 합주——여러 사람이 함께 아뢰는 것.
381 비도——匕刀

382 중장——혹독한 형벌을 가하는 것.

383 수조——수리하고 건조하는 것.

384 정유년——1597년 즉 선조 30년. 이 해 왜적이 재차 침공하여 진주성을 함락하고 경기도까지 침범하다가 패배하였고 바다에서는 명량과 로량에서 대패하였다.

385 지감——미래를 예측하여 미리 안다는 것.

386 정철총——리 순신 장군의 군사들이 사용하던 총으로서 일본의 조총보다 그 성능이 우월하였다. 발명한 사람은 군관 정 사준과 야장 리 필종이라 함.

387 강강수월래——《강포한 오랑캐가 바다를 건너 온다》는 뜻인데 당시 널리 불려진 민요이다. 특히 리 순신 장군 부대 내에서 서로 련락을 취하거나 적의 야습을 방위할 때 많이 불렀다고 함.

388 철천 애련——徹天哀憐

389 기거 보행——起居步行

390 도박——물을 건너 도착하는 것.

391 로문——길 떠날 때 연변 고을에 미리 통보하여 알리고 대기하게 하는 지시문.

392 사자 수비나 왕명은 가존——사신된 사람은 비록 미천하나 맡은 임무로는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 존중하다는 뜻.

393 선참 후계——중한 죄인을 먼저 죽이고 후에 사유를 왕에게 보고하는 것.

394 표진 병장——바닥에 까는 보전과 둘러치는 병풍과 장막.

395 명송——끊이지 않고 연송 외우는 것.

396 명견 만리——앞일을 멀리 내다 보는 것.

397 룡강 대택——룡강은 지명이나 불명. 대택은 큰 못.

398 파연곡——연회가 끝날 때 울리는 음악.

399 서리 상'자——霜

400 얼음 빙'자——氷

401 권회——둘둘 감아 맡든 회관.

402 화외 지민——교화를 받지 않은 야만인.

403 망극중——끝 없이 슬픈 가운데.

404 노의——怒意

405 흉격——가슴

박씨부인전

화설[1]조선 인조대왕[2] 시절에 한양[3]안국방[4]에 한 명사가 있으니 성은 리요 이름은 득춘이요 자[5] 문채니 대대 명문거족[6]으로 일찌기 룡문에 올라[7] 벼슬이 리조참판[8] 홍문과[9] 부제학[10]에 이르니 공[11]의 위인[12]이 충효공검하고 인후활달[13]하니 명망이 일국에 진동하더라. 그 부인 강씨는 집금오[14] 강장문의 딸이라 소년결발[15]로 부부 화락하여 금슬지락[16]은 지극하나 성친[17]한지 사십년에 일점혈육[18]이 없음을 매양 근심하여 명산대천[19]에 기도하나 종시 사속[20]이 없으니 공이 부인을 대하여 탄식하여 가로되

> «우리 팔짜 기박하야 늦도록 후사[21]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 일후 지하에 돌아가나 무슨 면목으로 선조를 뵈오리오.»

말을 마치매 눈물이 옷깃을 적시니 부인이 사죄하여 가로되

«첩이 존문[22]에 들어와 우으로 구고[23]의 총애하시는 은혜를 입사옴이 태산같고 군자[24]의 후대하심이 극지 하시니 감사무석[25] 이오나 다만 슬하 적막함은 첩의 죄오니 군자는 첩의 불민[26]함을 용서하시고 명문거가[27]에 요조숙녀[28]를 재취[29]하사 요행히 귀자[30]를 얻으시면 첩의 몸이 칠거지악[31]을 면할가 하나이다.»

공이 듣기를 다하고 위로하여 가로되

«이는 다 나의 박복[32]함이라 어찌 부인의 허물이라 하리오.»

부인과 의논한 후 공이 금강산 명월암[33]에 들어가 칠일기도[34]에 정성을 다하고 돌아왔더니 하로는 공이 책상을 의지하여 조을새 한 로인이 죽장망혜[35]로 점잔히 들어와 손을 잡아 례하고 가로되

«그대 전생[36]에 죄 중하므로 세존[37]이 미이여 기사[38] 무자케 하였더니 그대의 기도하는 정성의 지극함을 하늘이 감동하사 귀자를 점지[39]하시니 귀히 길러 문호를 빛내라.»

하고 소매안으로서 한 기이한 구슬을 내여 주거늘 공이 받아들고 치하코자 하더니 문득 로인은 간데 없고 그 구슬이 변하여 청의 동자[40]가 되여 내당[41]으로 들어가는 공이 문득깨니 남가일몽[42]이라 마음에 기이히 여겨 내당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맞아 좌정[43]함에 공이 웃어 가로되

«내 오늘 일몽을 얻으니 여차여차 하기로 신기히 여겨 부인께 전하노라.»

부인이 또한 미소하여 가로되

«첩의 몽사[44]와 일호[45]도 다름이 없사오니 신기하여이다.»

공이 기꺼 가로되

«우리 량인의 몽사 이 같으니 이는 하늘이 우리의 무자함을 불상히 여기사 귀자를 점지 하시도다.»

하고 서로 기꺼하더라.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삭이 차매 일일은 부인이 피곤하여 자리에 누으며 인하여 복통이 급하며 일개 옥동자를 낳으니 이때 공이 부인의 상기가 급함을 보고 황망히[46] 약을 준비하며 마루우에 거닐더니 홀연 서기반공[47]에 령롱하면 선녀[48] 나려와 아기를 씻겨 누이고 부인께 고하여 가로되

«이 아기는 하늘의 태백성[49]으로 인간에 나려와 부인 슬하를 빛내거니와 아기의 배필[50]은 금강산에 있으니 부대 천정[51]을 어기지 마르소서.»

하고 문득 간대 없거늘 공의 부부 기꺼하여 아이를 보니 꿈에 보던 동자와 일호도 다름이 없는지라 이때는 갑진[52] 사월 십칠일 진시[53]라. 공이 크게 기꺼 이름을 시백이라 하고 자를 명선이라 하여 장중보옥[54] 같이 사랑하여 기르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시백의 나이 삼세에 이르매 총명이 뛰여나 온갖 서책을 보고자하니 공이 그 너무 숙성[55]함을 념려하더니 그 이듬해 춘삼월에 부인이 또 태기 있어 십이월 초순에 일개 옥녀[56]를 낳으니 공이 더욱 기꺼하여 녀아를 자세히 보니 요요작작[57]한 용모 세상에 짝이 없을러라. 이에 이름을 시화라 하고 자를 선옥이라 하여 금지옥엽[58]같이 기르더니 점점 자라매 용모 더욱 빼여나고 재조 비상하여 녀공[59]과 시서[60]에 모를 것이 없는지라 나이 십일세에 이르매 옥안화용[61]이 절승하고 숙덕[62]이 겸비하니 공이 거문 거족[63]에 어진낭재[64]를 널리 구하여 슬하의 자미를 보고자 하더라. 세월이 여류하여 시백은 나이 십륙세요 시화 소저[65]는 나이 십삼세라. 이때에 상[66]이 공의 위인이 충후[67]함을 아름다이 여기사 특히 강원 감사[68]를 제수[69] 하시니 공이 천은을 숙사[70]하고 삼일후 발정할새 다만 아들을 다리고 부인과 시화소저를

작별후 수일만에 감영[71]에 도임[72]하여 정사를 밝게 다스리며 아들을 다리고 시서를 강론[73]하더라.

차설[74] 금강산 상상봉에 한 처사[75]가 있으니 성은 박이오 이름은 현옥이오 별호[76]는 유점대사[77]라 도학[78]이 유명한 선비[79]니 그 부인은 최씨로 동주[80]한지 삼십년에 유점사[81] 근처에 비취정[82]을 짓고 세월을 보낼새 세상 사람이 존칭하여 비취선생이라 하며 혹은 유점 처사라 일컫더라. 일찍 두 딸을 두었으니 장녀는 나이 십칠세로되 용모 박색[83]인고로 출가치 못하고 아우는 일찍 출가한지라 박 소저 용모는 비록 추악하나 천성이 현숙[84]하고 도학이 무량하여 세상 만물에 모를 것이 없으니 처사 기특히 여겨 한가한 때면 소저를 불러 앞에 앉히고 고금지사[85]를 의논하니 소저의 대답이 유수 같아 오히려 처사의 모를 일이라도 능히 해석하니 처사 절절히[86] 탄상[87]하여 가로되

«이 아이는 세상의 기이한 재조라 저와 같은 명현군자[88]를 구하여 여아의 배필을 삼으리라.»

하더니 마침 리공이 본도의 감사로 나려옴을 듣고 부인다려 가로되

«생[89]이 감영에 나아가 리공을 보고 청혼하리이다.»

부인이 웃어 가로되

«리감사는 조정[90]에 유명한 재상[91]이라 어찌하여 촌부의 하용 없는 딸[92]과 면혼[93]코자 하오리까.»

처사 웃어 가로되

«부인은 념려 말라 이 두 아이는 천정한 연분이니 부인은 두고 보소서.»

부인이 처사의 신명[94]함을 아는 고로 묵묵히 말이 없더라. 처사 이에 의관을 정제[95]하고 한필 청려[96]를 채질하여 감영에 이르러 통인[97]을 불러 명함을 주며 가로되

«너의 삿도[98]께 드리라.»

통인이 명을 듣고 들어가 명함을 드리고 처사의 말씀을 고하니 공이 의아하여 즉시 청하니 처사 갈건포의[99]로 천천이 들어 오거늘 공이 황망히 당에 내려[100] 맞아 올려 례를 마치고 좌정한 후 처사 무릎을 도사리고 가로되

«비인[101]은 금강산에 거하는 박 현옥이라 산야 무쳐 있는 천한 몸으로 외람[102]히 상공[103]께 뵈옴은 깊은 소회[104] 있어 감이 이르렀나이다.»

공이 눈을 들어 처사를 살펴보니 선풍도골[105]이 갈건아래 더욱 빛나니 가히 범인이 아님을 알지라 공이 공경하여 대답하되

«복은 용렬한 필부[106]로 외람히 성은을 입사[107]와 일도[108] 방백[109]의 중임을 당하여 주야 두리더니[110] 이제 선생이 왕림[111]하사 우매한 위인을 교훈코자 하시니 복이 일도 만인의 시비를 면할까 하나이다.»

처사 공경히 사례하여 가로되

«상공이 너무 포장[112]하시니 비인이 심히 황감[113]하오나 다만 천한 소회는 다른 일이 아니오라 소생[114]의 천견[115]으로 천리를 궁구[116] 하온즉 령랑[117]이 소녀와 천생 배필이 오나 다만 부끄리는 바는[118] 용모 박색이옵고 자질이 천한지라[119] 감히 옥인군자[120]의 배필 됨이 외람하오나 하늘이 정하신 백필을 어길 길이 없는 고로 감히 상공께 이러한 사연을 고하나이다.»

공이 듣기를 마치매 처사의 거동을 보고 말을 들으니 범인은 필경 아니라 저의 말이 맹낭치 아님을 알고 이에 흔연히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의 고명하신 지취[121]와 령녀[122]의 빼여난 자질로 용렬한 필부의 속된 자식의 배필을 삼고자 하시니 이는 복의 얻지 못할 영광이라 어찌 사양하리잇고 바라건대 존명[123]을 받들리이다.»

처사 기꺼 가로되

«상공의 존귀하심으로써 비인의 말씀을 더러이 여기지 아니시고 한 말씀에 쾌히 허락하시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 하리소이다.»

공이 또한 기꺼하여 아들을 부르니 이윽고 한 소년이 청포흑건[124]으로 앞에 나오거늘 공이 명하여 처사께 뵈오라 한대 공자[125] 부친의 명을 따라 처사를 향하여 공경히 재배[126]한대 처사 답례하고 눈을 들어 보니 진짓 만고 영웅[127]이오 일대 호걸이라 일후에 출장입상[128]하여 명망이 일국에 떨칠 기상이 은은하거늘 처사 크게 기꺼 리공을 대하여 기이한 아들 둠을 치하하니 공이 너무 과도히 칭찬함을 사례하더라. 처사 리공을 향하여 가로되

«아조 길일[129]을 정함이 어떠 하니잇고.»

공이 허락한대 처사 크게 기꺼하여 즉시 길일을 택하니 명년 팔월 이십일이 대길[130]한지라 그날로 정하고 주객이 기꺼하여 술을 나아와[131] 즐기다가 날이 저물매 처사 일어 하직[132]하고 공자의 손을 잡고 일후 다시 봄을 이르고 표연[133]히 당하에 나려 돌아가니 그 행보 경첩[134]하여 진짓 신선[135]이라 리공이 아들로 더불어 그 간곳을 바라보며 그 신기함을 탄복하더라.

세월이 여류하여 명년 추절이 되니 상이 공의 애민 선정함을 아름다이 여기사 벼슬을 도도아 리조판서 세자빈객[136]을 제수 하사 역마[137]로 부르시니 공이 천은을 축사하더라. 이러 구러 박처사와 상약한 길일이 다다르니 공이 부인을 대하여 가로되

«복이 원주 감영에 있을 때에 금강산 박처사의 녀아와 정혼[138]함은 부인도 이미 알거니와 이제 길일이 멀지 아닌지라 부득이 아이를 다리고 나려가 성례[139]하고 올라 오리이다.»

부인이 가로되

«혼인은 인륜대사[140]라 상공이 면약[141]하여 정혼하시고 어찌 위약하시리잇고.»

공이 부인의 말이 정중함을 기꺼하여 이튿날 궐하[142]에 나아가 연유를 아뢰였더니 상이 허락하시고

«속히 나려가 혼사를 지내고 올라와 직책을 살피라.»

하시며 금은필백[143]을 나리시니 공이 천은을 사례하고 즉시 아들을 다리고 금강산을 찾아서 유점사 근처에 이르러 비취에 사는 박처사 집을 찾으니 그 동리 사람들이 이르되

«이 곳에서 삼십년을 사랐으되 박 처사란 말을 듣지 못 하나이다.»

하거늘 공이 저기 번민[144]하여 생각하되

«래일은 아들의 길일이 어늘 지금까지 박 처사의 거처를 찾지 못 하니 이는 시백이 선연[145]이 없는 도다» 하고 정히 주저 하더니 문득 공중으로서 학의 소래 나더니 박처사 앞에 이르러 리공의 손을 잡고 웃어 가로되

«존공[146]이 산야의 천한 사람을 찾으려 하고 루지[147]에 왕림하사 여러날 방황하시니 이는 비인의 불민함이라 빈도[148]의 집이 멀지 아니 하니 가사이다.»

하고 시백의 손을 이끌고 리공을 청하여 수리를 들어 갈새 산길이 험준하여 접촉 하기 어려우나[149] 처사의 행보는 평지같이 하여 한 곳에 이르니 송죽이 울울하고 기화요초 란만[150]한데 사오간 초옥을 정결히 지였고 금자로 현판[151]을 달았으되 비취정이라 하였더라. 처사 공의 부자를 인도 하여 서당에 이르니 뜰 앞에 백학은 쌍쌍히 왕래하고 양류[152] 사이에 누른 꾀꼬리는 봄빛을 사랑하니 진짓 별유선경[153]이라. 객실에 들어가니 옥백서안[154]에 만권서책이 쌓여 있고 벽상에 칠현금[155]을 세웠으니 가히 은사[156]의 거처임을 알레라. 처사 공의 부자를 청하여 좌

정함에 이윽고 시녀[157] 석반을 올리거늘 처사 저를 들어 자시기를 권하니 공이 흔연히 상을 나와 보매[158] 찬품[159]이 정결하고 소담[160]하여 인간의 진수성찬[161]에서 나음이 있거늘 공의 부자 식사를 마침에 상을 물리고 처사로 더불어 고금을 의논하여 이윽히 담화하다가 밤이 깊음에 처사는 내당으로 들어가고 공의 부자는 인하여 쉬니 이튿날 처사 공의 부자와 한가지로 조반을 파하매 처사 흔연히 웃어 가로되

«날이 늦었으니 령랑을 길복[162]을 갖초아 전안[163]을 행하게 하소서.»

공이 얼굴에 기쁨이 무르녹아 아들을 명하여 길복을 입히고 내실에 들어가 행례[164] 함을 명하니 처사 공자의 손을 이끌어 내당에 들어가 교배석[165]에 인도하니 공자 천천이 걸어 나아가 옥상에 기러기를 전하고[166] 다시 정상에 올라 신부로 더불어 초례[167]를 마치매 공자 몸을 도리켜 외당[168]으로 나오니 공이 기쁨을 못이겨 아들의 손을 잡고 처사를 향하여 사례하여 가로되

«선생의 고명하심으로 자식의 용렬함을 불고하시고 천금옥녀[169]로 하여금 길례[170]를 이르니 복의 부자는 복이 손할가 두리나이다[171].»

처사 사례하여 가로되

«령랑의 선풍도골로써 녀아의 추한 자질을 대하니 비인의 마음에는 몸 둘바를 아지 못 하오니다만 천정연 분이니 인력으로 면치 못 할바를 아는 고로 오늘 길례를 치름이라 바라건대 존공은 하해같은 은덕을 드리우사 녀아의 추한 용모를 용서하시고 슬하에 양육하심을 바라나이다.»

공이 흔연히 웃어 가로되

«선생의 말씀이 너무 겸양[172]하시는도다 령녀의 용모 선생말씀 같아야 비록 불미한 곳이 있을지라도 녀자의 도는 현숙함이 으뜸이요 용색이 미

려[173]하면 옥안박명[174]이 쉬우니 선생은 조금도 념려치 마르소서.»

처사 공의 말을 감격히 여겨 술을 나아와 주객이 종일토록 마셔 즐기더니 날이 저물매 석반을 마친 후 공이 아들을 명하여 신방[175]에 들어가라 하니 공자 명을 받들어 신방에 이르러 방중의 물건을 살펴보니 녀자의 침선 기물[176]은 전혀 없고 손오병서[177]와 륙도삼략[178]을 서안 우에 쌓았거늘 공자 고이히 여겨 무릎을 도사리고 단정히 앉았더니 이윽고 신부 들어 오거늘 공자 몸을 일어 맞아 좌정하고 눈을 들어 신부를 보니 키는 거의 칠척은 되고 퍼진 허리는 열아름은 되고 높은 코와 내민 이마며 둥근 눈방울이 끔찌기 흉하고 수족이 불인[179]하여 걸음을 절며 안색이 먹칠 같고 두 어깨에 쌍혹이 느러져 가슴을 덮었으니 비컨대 흑살천신[180]이 아니면 분명히 염라부[181]의 우두나찰[182] 같은지라 공자 그 흉악한 용모를 봄에 혼백[183]이 날아나고 또 신부의 몸에서 더러운 냄새 코를 거스리니 공자 비위[184]를 능히 진정치 못 할지라 황망히 뛰여나와 오히려 놀라움을 진정치 못하거늘 공이 놀라 물어 가로되

«네 어이 도로 나오며 놀란 기색이 있음은 어찐 연고노.»

공자 여짜오되

«소자[185] 신방에 들어가오니 신부가 나오지 아니하였더니 이윽고 한낱 흑살천신 같은 녀자 들어오거늘 마음에 놀라온중 더러운 냄새 비위를 진정할 길이 없는 고로 급히 나왔사오니 명일은 급히 상경하시이다.»

공이 듣기를 다하고 크게 놀라 아들의 태도 진중치 못함을 노하여 꾸짖어 가로되

«네 아모리 용렬하나 오늘이 부부의 첫날 밤이어늘 신부 비록 외모불미함이 있은들 무엇이 저

리 놀라우며 녀자의 도리는 현숙함이 근본이오 용모 아름답지 못 함은 상관할바 아니어늘 네 어찌 색[186]을 취하고 덕을 가벼이 하는 악한 행실을 하느뇨.»

공자 황송하여 부복[187]하여 다시 여짜오되

«소자 본대 다른 아우 없삽고 다만 남매뿐이라 요조가인[188]의 배필을 만나 부모를 편히 봉양하옵고 자녀를 가초[189]두어 후사를 이음이 녀자의 행도어늘 이 녀자의 거동은 괴괴망칙[190]하여 참아 마조보기 어려우니 이는 조물[191]이 시기하고 하늘이 믜이 여기사 이런 괴물로써 계집이라 일커르시니 비록 하늘 뜻을 어기고 부모께 불효될지라도 일시를 참아 볼 수 없사오니 바삐 상경 하사이다.»

공이 눈을 부릅 떠 꾸짖어 가로되

«네 아비 말을 홍모[192] 같이 가벼이 여기고 방자[193]한 뜻을 말하여 녀자의 숙덕을 도라보지 아니하고 요요작작 한 미색을 취하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며 통분치 아니리오 이런 방자한 말을 다시 말고 들어가 신부의 어진 덕을 감격하여 종고지락[194]을 이루어 아비의 말을 순종하라 만일 다시 거역하면 부자지의[195]를 아조 끊으리라.»

한대 공자 부친의 명이 너무도 엄정함을 봄에 감히 다시 거역지 못 하여 다시 신방에 들어가나 신부를 다시 보기 싫여 한편 구석에 옷을 벗지 아니하고 누웠다가 닭이 울면 외당에 나와 부친의 침소[196]를 살피고 조반을 마친후 자연 날이 저물면 구실 삼아 신방에 들어 왔다가 밝으면 나와 이리하기를 삼일을 지내고 택일하여 상경[197]할새 공의 부자 처사를 하직하고 신부를 교자[198]에 태워 발정하여 여러 날만에 서울 본댁에 이르러 아들을 거느려 사당[199]에 들어가 례를 마치고 좌정한 후 다시 의관을 정제하고 부인과 한가지로 비로소 신부를 불러 볼새 신부 단

장[200]하고 폐백[201]을 받들거늘 부인이 눈을 들어 신부를 보니 만고에 없는 박색이라 심중에 분하여 공을 향하여 가로되

«저 인물을 어찌 며느리라 하여 슬하에 두고 보리오.»

한대 공이 좋지 아니하여 가로되

«신부 비록 외모는 추루하나 재조 기이하여 무궁한 도법[202]이 심중에 가득하고 겸하여 숙덕이 겸비하니 진실로 우리 가문을 빛낼 인물이라 부인은 어찌 용색이 불미함을 시비하느뇨.»

부인이 공의 엄정한 책망을 듣고 묵묵히 말이 없거늘 공의 아들과 신부를 명하여 사당에 올라 쌍으로 잔을 드려 조종[203]에 고하고 외당에 나와 모든 손을 접대하며 술을 나와 즐기다가 날이 저물매 모든 손이 흩어지고 공이 내당에 들어가 신부를 숙소에 보내여 편히 쉬게 하니라.

그후 수삭을 지나되 공자 한번도 박씨의 숙소에 옴이 없으니 공이 크게 성내여 공자를 불러 꾸짖어 가로되

«옛날 제갈무후[204]의 부인 황씨는 인물이 박색이로되 공명[205] 대접이 후하고 필경 나와 벼슬하며 류황숙[206]을 도와 설계할 때에 황부인이 팔문둔갑법[207]과 호풍환후[208]하는 술법을 무후에게 전수[209]하여 삼국[210]에 이름이 진동하였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오 그런고로 황부인의 이름을 삼국에 떨쳐 별호를 절홍부인[211]이라 일컫으니 이는 천하의 뛰여난 부인이라 네 옛일을 미루어 나의 어진 며누리를 박대[212]치 말라.»

공자 부명[213]을 거역지 못하여 박씨 침소에 들어가되 한편 구석에 옷 입은 채 누웠다가 밝기를 기다려 나갈뿐이오 한말도 접어치 아니하니[214] 어찌 한심치 않으리오 하루는 박씨 아침 문안을 당하여 무슨 말을 하려다가 주저하거늘 공이 물어 가로되

«현부[215] 무슨 소회 있느뇨.»

박씨 부복하여 여짜오되

«소부[216] 용렬하고 루추한 자질로 존문에 들어와 모셔 구고께 불미한 일이 많사오니 존전[217]에 아뢰기 황송하오나 소부의 본성이 정히 유벽[218] 함을 즐기고 번화한 곳이 심히 괴로운 고로 천한 소회를 고하옵나니 후원[219]에 한 초당[220]을 이루어 거처함이 소원이오니 대인[221]은 허하심을 바라나이다.»

공이 듣기를 다하고 그 정지[222]를 가긍[223]히 여겨 흔연히 허락하고 즉시 가인[224]을 명하여 후원에 십여간 초옥을 이루고 기화요초를 많이 심어 박씨의 맑은 지취를 도우니 박씨 공의 은혜를 감격하여 만만사례[225]하더라. 이러구러 후원 역사를 마침에 길일을 택하여 시비[226] 계화를 다리고 초당에 이르러 원중을 살펴보니 기이한 꽃은 봄빛을 자랑하고 청학 백학[227]은 쌍쌍이 왕래하여 주인을 반기는듯하니 진짓 별유선경이라. 박씨 기꺼하여 시비 계화를 명하여 서헌[228]에 나아가 노야[229]께 종이 한 장을 얻어오라 하니 계화 명을 받들어 서헌에 이르러 뜰아래 부복하여 박씨의 말씀을 고하니 공이 의아하여 즉시 서동[230]을 시켜 새 좋은 종이 한 장을 가져오라 하여 친히 손에 들고 후원에 들어가니 박씨 급히 뜰에 나려 맞거늘 공이 흔연히 물어 가로되

«현부 종이는 무엇에 쓰려 하느뇨.»

박씨 옷깃을 여미고 여짜오되

«그런 정결한 집에 당호[231]가 없기로 쓰고져 함이로소이다.»

공이 기꺼 가로되

«내 현부의 필재[232]를 보고져 하노니 나의 앞에서 쓰라.»

박씨 명을 받들고 계화로 필묵[233]을 가져오라 하여 룡

연[234]에 먹을 갈아 일필 휘지[235]하니 필법[236]의 신기함이 청룡[237]이 서린듯하니 그 현판에 피확정[238]이라 하고 그 옆에 신미 맹춘[239]에 취희당[240]은 쓰노라 하였거늘 공이 필법을 한번 보고 격절히 칭찬하여[241] 가로되

«진짓 기재[242]로다 현부가 엄친[243]의 재조를 닮았도다.»

박씨 황감[244]하여 사례하고 그 글짜를 한번 뒤저기니 문득 금자쓴 현판이 되거늘 공이 더욱 신기히 여겨 가로되

«현부는 만고에 기이한 재조로다 시백이 용렬하여 구박이 자심하니 어찌 한홉지 아니리오[245].»

하더라. 하로는 박씨 서당에 나아가 구고께 문안하고 인하여 부복하여 공에게 여짜오되

«명일 아침에 노복[246]을 분부[247]하시되 종로 려각[248]에 가면 게마[249] 수십필이 있사온중 비루[250] 먹은 말을 잡고 값을 물으면 일곱량을 달랄 것이니 그 말을 들은체 말고 돈 삼백량을 주고 사오라 하소서.»

공이 놀라 물어 가로되

«현부의 말이 고이토다[251] 말 값이 일곱량이라 하면서 그다지 후가[252]를 주고 사오라 하느뇨.»

박씨 대답하여 여짜오되

«일후 보시면 자연 아오시리이다.»

공은 그러이 여기되 부인은 랭소하여 공의 믿음을 웃더라. 명일에 공이 외당에 나와 노복중 충복을 불러 돈 삼백량을 주고 분부하되

«종로에 가서 여차여차 하라.»

하니 노복이 명을 받들고 종로 말려각에 가 본즉 과연 그러하거늘 마도위[253]를 불러 그 중에 비루 먹은 말을 가리켜 가로되

«저 말 값이 얼마뇨.»

중도위[254] 이르되.

«좋은 말이 무수하거늘 구태여 파리한 말을 사려 하느뇨 값은 일곱량이로라.»

충복이 가로되

«우리 노야 분부하시되 삼백량을 주고 사오라 하시니 이 돈을 받으라.»

마도위 놀라 가로되

«이상한 말을 다시 말라 일곱량 가는 말을 어찌 삼백량 중가[255]를 받으리오.»

충복이 가로되

«나는 우리 노야의 분부라 어찌 거역 하리오.»

하고 삼백량을 억지로 주려하니 마도위 가로되

« 말 값 일곱량은 내여놓고 그 나마지는 우리 량인이 분식[256]하고 가서 삼백량을 다 주고 산양으로 고하라.»

충복이 그러이 여겨 반씩 나누어 가지고 말을 끌고 돌아오니 공이 나와 말을 이끌고 후원에 들어가 박씨를 불러 보라하니 박씨 이윽히 보다가 공에게 여짜오되

«저 말을 도로 내여다 주라 하소서.»

공이 의아하여 가로되

«네 말대로 사왔거늘 어찌 도로 주라 하느뇨.»

박씨 가로되

«대인은 모르시나 소부는 아옵나니 말 값을 덜주고 사왔사오니 무엇에 쓰리잇가 그런고로 주라 함이니이다.»

공이 놀라 충복다려 꾸짖어 가로되

«네 말 값을 얼마나 주고 사온다[257]» 충복이 여짜오되

«로야의 주신대로 사왔나이다.»

박씨 몸을 도로혀 충복을 꾸짖어 가로되

«네 아모리 우매한 천인인들 상전[258] 속이기를 능사[259]로 하니 어찌 통분치 아니리오 네 말 값을 다 중도위 놈을 주니 그 놈의 말이 말 값 일곱량 만 빼여놓고 나머지는 우리 둘이 분식하자 하니 네 그놈의 말에 솔깃하여 나누어 가지고 두놈의 말이 벼락치는 하늘도 속인다[260] 하였으나 나는 속이지 못 하리니 상전 기망[261]한 죄는 종차[262] 다스리려니와 급히 나아가 너의 분식한 돈을 말장사를 주고 오되 만일 지체하면 너의 목숨을 보전치 못 하리라.»

충복이 황겁하여 땅에 엎디여 만만 사죄하고 급히 말려각에 가 마도위를 보고 꾸짖어 가로되

«이 몹쓸 놈아 너의 말을 곧이 듣고 말을 가지고 갔더니 하마트면 상전께 중죄[263]를 입을번 하였다.»

하고 말 값을 수합[264]하여 말 임자를 찾아 사기를 말하고[265] 삼백량을 억지로 주고 돌아와 박씨께 연유를 고하여 가로되

«인제는 다 주고 왔나이다.»

박씨 가로되

«아직 물러 있으라.»

하고 공께 여짜오되

«그말을 하로 깨 한되와 청정미[266] 오홉씩을 죽을 쑤어 삼년을 먹이고 이 초당 앞 뜰의 찬 이슬을 마쳐 바려 두었다가 쓸 곳이 있나이다.»

공이 흔연히 허락하고 삼년을 바려 두었더니 하로는 박씨 정당[267]에 나아가 구고께 문안하니 부인은 박씨의 용모가 보기 싫여 아미[268]를 찡기고 공은 웃는 낯빛으로 손을 잡아 가로되

«현부 무슨 말을 하고자하여 왔느뇨.»

박씨 여짜오되

«모월 모일[269]에 명 나라[270] 황제 돌아간 패문 칙사[271] 올 것이오니 심복 하옵는 노자[272]를 분부하사 명일 식전에 그 말을 끌고 남대문 옆에 세워두면 패문 가지고 오는 장사보고 저 말 값이 얼마냐 묻거든 말 값이 삼만 팔천량이오 하면 그 장사 그 수효를 다 주고 살터이니 말 값을 받아 오라 하소서.»

공이 박씨의 말을 신기히 여겨 흔연히 허락하고 그 이튿날 심복하는 노자 원삼을 불러 분부하되

«네 이 말을 끌고 남문안에 섰으면 명국칙사[273] 여차여차 물으리니 말 값이 삼만 팔천량이라하면 묻지 않고 다 주리니 주는 대로 받아오라.»

원삼이 령을 듣고 즉시 말을 이끌고 남문안에 섰더니 과연 칙사 들어오다가 그 말을 보고 통사[274]를 시켜 묻거늘 그대로 말하였더니 묻지 아니하고 말 값을 다 주거늘 받아 가지고 돌아와 공께 고한대 공이 기특히 여겨 후원에 들어가 박씨다려 말 값 받아옴을 말하여 가로되

«그 말 값이 어이 그리 많으뇨.»

박씨 여짜오되

«그 말이 천리총[275]이라 조선서는 알아보는 이도 없거니와 명국은 지방이 넓삽고 미구에 쓸데 있는 고로 칙사는 신명한 사람이라 알아보고 삼만 여금 중가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갔사오나 조선은 지방이 좁사와 쓸 곳이 없나이다.»

공이 탄복하여 가로되

«너는 비록 녀자이나 신명함이 이러하니 만일 남자로 태여났든들 국가 동량이 되여[276] 유익함이 많으리로다.»

하더라.

이때 국가 태평하여 만만이 즐기니 상이 성묘[277]에 배알[278] 하시고 경사 과거를 배설[279]하여 인재를 가리실새

리 시백이 과거에 응하고저 제구[280]를 갖초아 과장[281]에 나아가려 하더라. 이날 밤에 박씨 일몽을 얻으니 후원 연못 가운데 화초 만발한중 봉접[282]이 날아들고 백옥연적[283]이 홀연 변하여 청룡이 되여 노닐다가[284] 여의주[285]를 얻어 물고 채운[286]을 타고 옥경[287]으로 향하여 오르거늘 놀라 깨달으니 침상일몽[288]이라 심히 고이히 여겨 밝기를 기다려 연못가에 나아가 보니 과연 연적이 놓였거늘 자세히 보니 몽중에 보던 연적이라 갖다가 간수하고 즉시 계화를 불러 이르되

«소서헌[289]에 나아가 상공께 잠간 들어오심을 고하라.»

계화 즉시 소서헌에 나아가 공자께 박씨의 말씀을 고하니 공자 좋지 않아 가로되

«무슨 일이 있관대 아녀자[290] 장부의 과거길에 지체하게 하는다.»

계화 들어가 그대로 고하니 박씨 한참 잠잠하다가 다시 계화를 보내여 가로되

«녀자의 도리에 가부[291]를 앉아서 청함이 당돌하오나 잠간 들어오시면 장중제구[292]에 드릴 것이 있으니 한번 수고를 아끼지 말으소서.»

하여라. 계화 마지 못 하여 박씨의 말씀을 자세히 고한대 시백이 크게 노하여 큰 소리로 꾸짖어 가로되

«요망[293]한 계집이 장부의 과거길을 이렇듯 방자하니 어찌 통분치 않으리오.»

말을 마침에 분기 더욱 치밀어 노복을 호령하여 계화를 잡아 나리와 수죄[294]하여 가로되

«너의 주인이 향곡[295]에 생장하여 비록 사체를 모르나 녀자되여 장부의 거래를 마음대로 하니 어찌 해괴치 아니리오 오늘에 너를 치죄[296]함은 너의 주인을 대신함이니 이대로 전하라.»

하고 말을 마치자 매 삼십도[297]를 때려 물리치니 계화 울며 들어와 지낸 말을 고한대 락루[298]하여 가로되

«이는 나의 죄를 너에게 련좌[299]함이니 녀자의 몸이 구차[300]함을 오늘이야 알리로다.»

말을 마치며 길이 탄식하여 연적을 주며 다시 전하여 가로되

«이 연적의 물로 먹을 갈아 글을 지어 써 바치면 장원급제[301]하여 립신양명[302]하온후 부모전에 영화뵈고 문호를 빛내오리니 첩 같은 사람은 군자에게 불관[303]하오니 생각지 말으시고 고문거족[304]에 요조숙녀를 택하여 평생을 화락하옵소서 하라.»

계화 다시 나와 연적을 드리고 박씨의 말씀을 고하니 공자 듣기를 다하고 연적을 받아 보니 천하에 기이한 보배라 자기가 너무 과도하게 하였음을 후회하여 이에 계화를 불러 앞에 세우고 얼굴빛이 화평하여 이르되

«너의 주인께 고하라 생이 천성이 급하여 부인의 말씀을 미안히 여겨 계화를 엄중히 다스리되 부인은 심지 온순하여[305] 연적을 보내여 과거 기구를 도우시니 심히 부끄럽사오나 생의 행사를 분히 여겨 타문[306]에 재취하라는 말씀은 너무 과도한가 하나이다 고하라.»

계화 명을 받들고 들어와 공자의 말씀을 일일이 고하니 박씨 잠잠코 대답이 없더라. 공자 그날 과거제구를 갖추아 장중에 들어가 글제[307]를 보고 즉시 통연에 그 연적물로 먹을 갈아 일필휘지하니 문불가점[308]이라 일천에 선정하고 방[309]나기를 기다리더니 이윽고 방을 걸새 장원은 서울 사람 리 시백이니 부는 리조판서 득춘이라 하였거늘 공자 일변 놀라며 기꺼하더니 이윽고 대 우으로서 신래[310]부르는 소래 진동하거늘 공자 만인 총중[311]에 몸을 빼쳐 대아래 다다르니 상이 장원을 보시매 만고 영준호걸[312]이라 룡안에 희색[313]이 가득하사 리공이 기자[314]를

두어 국가의 보필[315]이 됨을 찬양하시고 어화[316]와 청삼[317]을 주시니 장원이 천은을 사례하고 풍악[318]을 거느려 궐문을 날새[319] 금포옥대[320]에 표연한 풍채[321] 만인총중에 뛰여나더라. 장안[322] 대로상으로 나아가 옥면 봉안[323]에 어주[324]를 반취[325]한 거동이 진짓 진세[326]의 선랑[327]이더라.
행하여 안국방 동구[328]에 이르러 사당에 올라 배례하고 부모께 뵈오며 일가친척에 례를 마치매 외당의 치하온 손들이 신래를 부르는 소래 진동하니 공이 아들을 거느려 외당에 나오매 공의 친구 가득하여 신래를 머믈러 기꺼하며 치하 하더라. 또 하회[329]를 들으라.
차설 모든 재상이 공을 향하여 분분[330]히 치하하니 공이 여러 손을 이끌어 술을 나와 즐기더니 날이 저물매 파연곡[331]을 아뢰니 모든 손이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공이 아들을 거느려 내당으로 들어와 석반을 마치고 촉불[332]로 낮을 이어 즐기나 박씨 부인이 외모 불미하므로 손을 보기 부끄러 깊이 들어 있음을 서운히 여겨 심히 즐겨 아니 하니 부인이 의아하여 물어 가로되

«오늘 아들의 과거본 경사는 평생에 두번 보지 못할 경사어늘 상공의 기색이 좋지 아니하심은 필연 추악한 박씨 좌석에 없음을 서운히 여기심이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하리잇고.»

공이 정색하여 가로되

«부인이 아모리 지식이 천단[333]한들 다만 용모만 보고 속에 품은 재조를 생각지 아니하느뇨 자부의 도학은 신명함이 옛날 제갈무후의 부인 황씨를 압두[334]할 것이오 덕행은 유안정정[335]하여 태사[336]를 비하리니 우리 가문에 과분한 며느리어늘 부인 말이 우습지 아니리오.»

말을 마침에 안색이 심히 좋지 아니하더라.
이때 계화 공자의 장원급제함을 듣고 박씨를 향하여 기쁨을 치하하고 또 탄식하여 가로되

«아씨 시댁에 오신 후 상공의 자취 한번도 침실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아씨의 현철한 숙덕으로써 대부인[337]의 박대하심을 당하사 적막한 후원에 홀로 주야 거처하사 가중 대소사[338]를 참예치 못 하시고 중인 연회[339]에도 감히 나가지 못 하시고 수심으로 세월을 보내시니 소비[340] 같은 소견에도 아씨의 신세를 위하여 비창함을 이기지 못하리로소이다.»

박씨 태연히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의 팔자와 흥화길복[341]과 고락은 다 하늘이 정하신 바라 인력으로 못 하나니 자고로[342] 홍안박명[343]이 한둘이 아니니 어찌 홀로 나뿐이리오 분수와 명을 지켜 천명을 기다림이 옳으니 아녀자 되여 어찌 가부의 은정[344]을 생각하리오 너는 고이한 말을 다시 말라 외인이 이런 말을 들으면 나의 행신[345]을 천히 여기리라.»

계화 박씨의 광활한 마음과 현숙한 말씀을 못내 탄복하더라.

이때 박씨 시가에 온지 이미 삼년이라 하로는 정당에 나와 구고께 문안하고 인하여 옷깃을 여미고 여짜오되

«소부 존문에 가취[346]한지 삼년이로되 본가 소식이 묘연[347]하매 부모의 안부를 잠간 알고자 다녀오고자 하오니 대인은 허가하심을 천만 바라나이다.»

하거늘 공이 듣고 크게 놀라 가로되

«이곳서 금강산이 오백여리오 도로 험준하거늘 네 어찌 행코자 하는다 장성한 남자도 출입하기 어려운지라 하물며 녀자의 몸으로 이런 망령[348]된 생각을 행여 먹지 말라.»

박씨 대답하여 가로되

«소부도 그리하온줄 아오나 부득불 다녀오고자 하옵나니 대인은 과도히 념려치 마르소서.»

공이 박씨의 신명이 특이함을 아는지라 이에 허락하여 가로되

«너의 말을 들으매 부득불 한번 다녀오고자 하니 명일 근친[349]할 제구와 인마[350]를 차려 줄 것이니 속속히 다녀오라.»

박씨 다시 여짜오되

«소부 수삼일 동안에 래왕할 도리 있사오니 인마 제구가 다 쓸데 없나이다.»

공이 박씨의 재조 통달[351]함을 짐작하나 그러나 이렇듯 래왕을 신속히 할 도리가 있음은 몰랐는지라 이에 이말을 듣고 더욱 신기히 생각하여 흔연히 허락하거늘 박씨 인하여 구고께 재배 하직하고 후당에 돌아와 계화를 불러 분부하여 가로되

«내 친가에 잠간 다녀오려니 너는 나의 행색[352]을 외인에게 루설[353]치 말라.»

하고 인하여 뜰에 나려 두어 걸음 행하다가 몸을 날려 구름에 올라 잠시간에 금강산 비취동에 다달아 부모께 재배하고 문안을 드리오니 처사 이에 박씨의 손을 잡고 탄식하여 가로되

«너를 시가에 보낸지 삼년에 홍안 박명을 슬허하나 이는 천수[354]에 매인바요 인력으로 못 함이 거니와 이제는 너의 액운[355]이 다하고 복록[356]이 무량할지라 이달 십오일에 내 올라 가리니 너는 잠간 다녀가라.»

박씨 재배하고 명을 받잡고 인하여 부모 슬하에 모셔 몇해의 회포[357]를 펴고 수일 머물더니 처사부부 재촉하여 가로되

«너는 존구[358]께서 기다리시니 빨리 돌아가서 시부모께 현알하라.»

박씨 마지 못하여 부모를 하직하고 날 새기를 기다려 다시 구름을 명에[359]하여 잠간에 후당으로 돌아오니 계화 바삐 박씨를 맞아 신속히 다녀옴을 기뻐하니 박씨 의복을 정제하고 정당에 들어가 구고께 문안하고 다시 꿇어 공에게 여짜오되

«소부 올 때에 가친[360] 말씀이 이 달 십오일에 갈 것이니 너의 시부께 아뢰라 하더이다.»

공이 흔연히 고개를 끄덕이고 가인을 분부하여 주찬[361]을 갖추아 처사의 오기를 기다리더니 과연 십오일에 이르러 월색이 명랑하고 청풍이 소소하더니[362] 홀연 반공으로서 학의 소래 나며 처사 운무를 타고 나려오거늘 공이 황망히 당에 나려 처사를 맞아 방에 들어와 례를 마치고 좌정함에 공자 또한 의관을 정제하고 처사를 향하여 배례를 맞고 여러해 문안을 말하니 풍의 동탕하여 진짓 일대 영결이라 처사 황홀하고 귀중히 여겨 공자의 손을 잡고 공을 향하여 치하하여 가로되

«령랑의 거룩한 재조로 청운에 올라 계화의 첫 가지[363]를 꺽어 옥당[364]에 참례하니 존문에 이런 경사 없음을 아오나 비인의 천성이 졸렬하여 공께 치하를 베풀지 못하였더니 금년의 녀아의 액운이 다하여 지금 저의 흉한 용모와 루추한 바탕을 벗을 한이 되였는 고로 비인이 존문에 나아와 현서[365]의 과거한 경사를 치하하고 겸하여 녀아를 보고자 왔나이다.»

공이 처사의 말씀이 묘맥[366]이 있음을 짐작하고 쾌락함을 이기지 못하여 주객이 술을 나놔 피차 정회를 일러 밤이 깊음을 깨닫지 못하더니 문득 닭의 소래 요란하니 비로소 침상에 올라 편히 쉬고 처사 박씨의 침소에 들어가니 박씨 급히 당에 나려 부친을 맞아 배례하고 근일 문안을 묻자온대 처사 흔연히 박씨의 손을 잡고 당에 올라 남향하여 박씨를 앉히고 흔연히 웃어 가로되

«금년은 너의 죄악이 다하였다.»
하고 진언[367]을 읽으며 소매를 들어 박씨의 얼굴을 가리키니 그 흉악하던 면상[368]의 허물이 일시에 벗어지고 옥모경 안[369]의 기묘한 절색이 되거늘 처사 쾌히 웃어 가로되
«내 이 허물을 가져 가고자 하나 의혹을 없이할 길이 없으니 시부께 말씀하여 궤를 얻어 넣어 너의 시모께와 가장을 보여 의심을 풀게 하라 오늘부터 리별하면 이후 칠십년이 지나 부녀 다시 만나 미진한 정회를 풀리라.»
하고 말을 마침에 외당에 나아가 공을 리별하고 가로되
«이후 혹 어려운 일이 있거든 자부다려 물으소서.»
당에 나려 두어 걸음 행하더니 간바를 모를지라 공이 신기히 여기더라. 이튿날 계화 공께 나와 고하며 가로되
«작일 처사 다녀가신 후로 우리 아씨의 형용을 벗겨 말고 절색의 부인이 되였사오니 이런 신기한 술 법이 없사기로 로야께 고하나이다.»
공이 이 말을 듣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급히 후원에 들어가 보니 과연 한 미부인이 된지라 박씨 대에 나려 공을 맞거늘 공의 눈이 황홀하여 아모 말도 못 하고 섰으니
박씨 공손히 여짜외되
«소부 전생의 죄악이 심중화와 흉한 허물을 쓰고 세상에 나와 수십년 액운을 채우매 하늘이 소부의 신세를 가긍히 여기사 가친을 명하여 본형을 주라 하신 고로 작일에 오사 소부의 얼굴을 회복하여 주시고 즉시 돌아 가심이니 대인은 의심치 말으소서.»
공이 듣기를 다하고 반신반의하여 박씨를 자세히 보니 옥안 주순[370]의 천태만엽[371]이 요요작작하여 진짓 절대 가

인이라 마음이 괴이하여 잠잠히 말을 못 하거늘 박씨 존구의 의심함을 보고 이미 벗은 허물을 드리거늘 공이 보니 과연 적실한지라 그제야 크게 깨달아 박씨를 향하여 가로되

《너의 아름다운 본형이 돌아왔으니 너의 시모와 아자 기꺼하리로다.》

하고 정당으로 나오려 하니 박씨 공께 여짜오되

《궤 하나를 주시면 이 허물을 넣어 두었다가 존고와 랑군[372]의 의혹을 풀고자 하나이다.》

공이 흔연히 허락하고 즉시 외당에 나아가 궤를 얻어 들여 보내니 박씨 자기의 허물을 궤 속에 넣어 두니라. 이때 공이 내당에 들어가 부인과 아들을 대하여 박씨의 형상이 바꾸임을 말하니 부인이 믿지 아니하고 가로되

《세상에 어찌 이런 고이한 일이 있으리오.》

하고 시비를 명하여 박씨를 부르니 박씨 의복을 정돈하고 계화를 명하여 허물 넣은 궤를 들리고 정당에 이르러 부인께 재배하고 슬하에 나아가니 부인이 이윽고 박씨를 보다가 변색하여 가로되

《세상에 요괴로운 일도 보았도다 너의 흉한 허물이 어데가고 저런 일색이 되였느뇨.》

박씨 부복하여 여짜오되

《소부 추한 형상을 생각지 아니코 존문에 들어온지 팔년에 존고[373]께 불효막대[374] 하오며 스사로 팔자를 한탄하옵더니 전생 죄악이 다하기로 부친이 이르사 소부의 본형을 주시고 가시매 벗은 허물을 궤 속에 넣어 두었다가 존고와 랑군께 뵈와 의심을 풀고자 함이니이다.》

말을 맞고 계화를 명하여 궤를 가져오라 하여 허물을 내여 드리니 부인이 허물을 보고 의심을 풀어 비로소 사랑하는 마음이 동하여 박씨의 손을 잡고 사랑함이 친녀에 덜함이 없더라[375]. 이때에 상이 시백의 재덕[376]을 사랑하

사 벼슬을 도도와 병조판서[377]를 하였으니 판서 천은을 사례하고 집에 돌아와 공에게 뵈온대 공이 가로되

«너의 안해가 지금 어떠하더냐.»

시백이 황공하여 대답지 못 하는지라 공이 다시 가로되

«사람의 영욕[378]과 세상 사리를 측량치 못 할바니 너는 왕사[379]를 생각지 못 하는다 이제 무슨 면목으로 처사를 보리오 위인이 저렇듯 용렬하니 국가의 중임을 능히 감당할소냐.»

판서 황공하여 잠잠히 묘셨다가 날이 저물매 다시 박씨 침소에 들어가니 박씨 등촉을 밝히고 안색을 엄정히 하여 앉았으니 시백이 감히 일언을 못 하고 박씨 발언 하기를 기다리다가 밤이 깊은 후 판서 먼저 말을 펴[380]되

«시백이 혼암[381]하여 부인의 외모 불미함을 싫여하여 여러 해를 박대하였더니 하늘이 생의 처복[382]을 도으사 부인의 본형이 도로되와 천고 절색이 되였으니 생의 후회함이 부인을 상대할 면목이 없으나 부인의 도리는 가부를 승순[383]함이 녀자의 제일 경계라 부인은 이를 생각하여 생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박씨 발연변색[384]하여 가로되

«첩이 비록 인물이 흉악하나 시가에 들어온 후로 구고를 효성으로 봉양하고 군자를 승순하여 칠거의 큰 죄를 범함이 없거늘 군자 첩을 행로인[385] 같이 여기사 구박이 태심[386]하고 한갓 미색만 취하시니 다시는 첩 같은 위인을 생각지 말으소서 어진 가문에 아름다운 녀자를 취하여 해로[387]하시고 첩은 조금도 생각지 말으소서.»

판서 듣기를 다하고 스스로 부끄러우나 이 도시[388] 자기의 허물이라 아모쪼록 박씨의 마음을 감화코자하여 밤이 다하도록 천사만단[389]으로 애걸하여 무릎이 닳도록 사죄하니 박씨의 현숙한 덕성으로 판서의 지성을 보고 어찌 감동치 아니리오 공손히 대답하여 가로되

«군자의 체위[390] 존중하여 재상의 체도[391] 뚜렷하거늘 어찌 경박소년[392]의 행사를 하시노 내 본형을 갖초고 추악함을 뵈옴은 군자의 마음을 혹지 아니하여[393] 일향정기[394]를 온전께 함이오 수년을 박색을 끄려 접어치 못하게 함은 군자의 언어를 삼가케 함이어니와 군자의 심지[395]를 괫심히 여겨 평생을 풀지 마잤더니 녀자의 마음이라 군자의 이렇듯 하심을 보오니 첩의 마음이 감동하여 심곡소회[396]를 다 푸옵나니 군자는 체위를 존중하옵소서.»

판서 부인의 설화[397]를 들음에 마음이 그지 없이 기꺼 박씨를 향하여 사례하여 가로되

«생은 인간의 무식한 용렬한 자라 식견이 고루하거니와[398] 부인은 천상 선랑[399]이라 의견이 활달하고 도량이 광원하시니[400] 용렬한 리 시백이 어찌 부인과 화락함을 바라리오마는 부인이 생의 죄를 사하시고 누년 맺힌 마음을 오늘날 풀어바리시니 생의 즐거움이 평생 처음인듯 싶으도다.»

박씨 미미히 [401] 웃고 판서를 향하여 너무 과도함을 일컫고 인하여 밤이 깊도록 담화함에 량인의 화기 가득하더니 계화 들어와 금침을 포설하거늘[402] 판서 박씨로 더불어 침상에 올라 비로소 운우지락[403]을 이루니 두정이 흡연[404]하여 교칠[405] 같더라. 판서의 부부 화동[406]한지 수삭이 못 되여 태기 있으니 공의 부부 손자의 재롱 보게됨을 마음에 기꺼하여 손을 꼽아 기다리더니 십삭이 차매 쌍태에 아들 형제를 낳으니 공의 부부 너무도 기뻐 시비를 거느리고 산실에 들어와 살펴보니 기골[407]이 청순[408]하고 두눈이 새'별같아 영민함이 바로 냅더[409] 말할듯하니 공의 부부 사랑함이 미칠뜻하여 천사 만사를 잊을러라. 이에 손자의 이름을 희기, 회인이라 하여 장중보옥 같이 사랑하더라.

이때 상이 판서의 재덕을 아름다이 여기사 평안감사를 제수하시니 감사 황공하여 궐하에 나아가 천은을 숙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일가 친척과 가중 제인[410]이 판서의 외임[411]함을 모다 기꺼하거늘 판서 이에 행장을 차리며 장색[412]을 불러 쌍교[413]를 꾸미라 하니 박씨 물어 가로되

«쌍교는 꾸며 무엇하려 하느뇨.»

판서 가로되

«부인을 다려가고자 하노라.»

부인이 크게 놀라 가로되

«장부 몸을 나라에 허함에 부모 섬길 날이 적다 하거늘 하물며 처자를 돌아보리잇가 첩이 집에서 구고를 받들리니 상공은 첩을 생각지 말으시고 빨리 도임하여 국사를 잘 다스리소서.»

감사 부인의 말을 들으매 일마다 민첩 한지라 이에 머리를 조아[414] 사례하여 가로되

«부인의 말씀이 당연한지라 생이 용렬하여 로년 부모의 외로우심을 생각지 못 하고 망녕된 말을 발하였으니 옆엣 사람의 웃음을 받을지라 부인은 생의 용렬함을 허물치 말고 두분 존당[415]을 봉양하소서.»

말을 맞고 공의 부부께 재배 하직하고 부인과 은근히 리별하고 바로 궐하에 나아가 하직하고 즉시 길에 올라 여러날 행하여 평양 감영에 도임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여 백성의 질고[416]를 살피여 각읍 수령[417]의 선악을 염탐하여[418] 백성을 사랑하고 정사를 힘쓰는 자는 나라에 고하여 상을 받게 하고 백성의 고혈을 빠라먹는 자는 봉고파직[419]하여 명백함이 거울 같으니 도적이 변하여 량민이 되고 백성이 업을 편안히 하여 격양가[420]로 세월을 보내니 도내의 백성이 감사의 선정[421] 함을 칭송하며 거리거리 선정비[422]를 세워 송덕[423]하는 소래 탑전[424]에 오르니

상이 감사의 선정함을 아름다이 여기사 병조판서를 제수하사 즉일 상경하여 행공[425]하라 하시니 감사 교지[426]를 받자와 북향사배[427]하고 인마를 차려 올라올새 각읍 수령과 수만명 인민이 거리거리 모여 감사께 리별하며 유아 부모를 리별함 같이 여기더라. 감사 여러날 만에 경사[428]에 이르러 궐하에 부복한대 상이 인견[429]하사 칭사[430]하여 가로사대

«경은 그 애민선정[431]함이 모다 백성의 복이오 과인[432]의 신하로다.»

하시며 친히 잔을 들어 술을 권하시니 판서 사은숙배[433]하고 퇴조[434]한 후 본가에 이르러 량당께 문안하매 공이 손을 잡으며 판서를 향하여 가로되

«내 너로 하여금 항상 용렬히 생각함은 전일 박씨를 돌아보지 아님이러니 이제 감사의 직책을 다하여 백성이 칭송하고 상이 네 행사를 기특히 여기사 벼슬을 도도와 내직[435]으로 들어오니 이제야 네가 내 아들이오 임금의 마땅한 신하며 박씨의 마땅한 지아비로다.»

하여 희색이 만면하거늘 판서 황공하여 사례하고 그리든 회포를 말씀하며 공의 부부 화기가 융융하매[436] 판서 밤이 깊음을 놀라 취침하심을 고하고 일어 박씨 침소에 돌아오니 박씨 몸을 일어 맞거늘 판서 손을 들어 앉음을 명하고 량위[437] 존당 시봉[438]함을 인사하여 화기 무르녹으니 부인도 또한 수년간 객지에 괴로움을 말씀하여 이윽히 담화타가 량인이 한가지로 침상에 올라 구정[439]을 이르니 량인의 어수지락[440]이 흡연하더라.

이때 명 나라 남경[441]이 요란하여 가달[442]등이 변경[443]을 침노하매 분분한 손문이 탑전에 이르니 상이 깊이 근심하사 리 시백으로 상사[444]를 제수하시고 가로 사대

«경[445]의 가합[446]한 사람으로 군관을 정하여 택일 발정하라.»

하시니 시백이 림경업[447]으로 정합을 아뢰니 원래 림경업은 충주 사람으로 여력[448]이 무리에 뛰여나고 지략[449]이 과인한지라. 일찌기 무과[450]에 장원을 하매 벼슬이 마침 철마산[451] 중군[452]으로 있더니 상이 림 경업으로 상사군관을 삼아 한가지로 남경에 이르니 이때 명천자[453] 조선 사신[454]이 이름을 듣고 황자명[455]으로 접빈사[456]를 삼아 영접하는 지라. 상사 경업으로 더불어 접빈사를 따라 궐내에 들어가 탑전에 사배하고 표문[457]을 올리니 천사 보시고 좌우를 명하여 조선 사신을 다리고 례부[458]에 나아가 연향[459]하라 하더니 마침 북방 호국[460]사신이 이르러 표문을 올리거늘 상이 보시니 대강 하였으되

«가달이 강성하여 호국지경을 침노함에 군사 강하여 거의 패망지경[461]을 당한 고로 상국[462]에 급함을 고하오니 급히 인마를 조발 하사[463] 일국의 생령[464]을 구하여 주옵소서.»

하였거늘 천자 깊이 근심하여 호국에 보낼 장사[465]를 택코자 하시니 접빈사 황자명이 아뢰여 가로되

«조선 상사군관 림 경업의 상을 보오니 비록 외국인물이오나 용맹과 지략이 겸비하와 가히 가달을 물리 칠만 하오니 이 사람으로 청병대장[466]을 정함이 마땅할가 하나이다.»

천자 들으시고 리 시백을 가까이 인견하고 경업의 위인을 물으시니 시백이 아로되

«경업이 약간 장략[467]이 있사오나 이런 중임을 당치 못할가 하나이다.»

명천자 시백의 겸양함을 일커르사 림 경업으로 수군병마[468] 대원수[469]를 하시고 상방참마 검[470]을 주사 령을 어기는 자어든 선참후계[471]하라 하시며 삼만군을 조발하여 주니 원수 사은하고 물러 군중에 나와 장졸을 연습하고 대군을 거느려 여러 날만에 호국에 이르니 국왕이 경업의 인물이 웅장함을 보고 크게 기꺼하여 바삐 마자 전

상[472]에 올려 상빈례[473]로 대접하고 다갈의 강성함을 이르니 경업이 가로되

«대왕은 근심말라 내 비록 재조 없으나 가달을 한번에 파하리라.»

하고 대군을 거느려 적군과 싸와 삼십 여합[474]에 이르되 승부를 모르더니 림원수 대갈일성[475]에 원비[476]를 느려 가달을 사로잡아 본진[477]에 돌아오니 호왕이 문무 제신을 거느려 림원수를 마자 상좌[478]에 앉히고 대연[479]을 배설하여 즐길 새 림원수 장대[480]에 높이 앉아 군사를 호령하여 가달을 잡아드려 뜰아래 꿇리고 수죄하여 가로되

«네 비록 무지한 오랑캐[481]인들 군사의 강함만 믿고 남의 지경을 범하는다.»

가달이 땅에 엎디여 사죄하여 가로되

«소방[482]이 천위를 모르고 호국을 침범하와 장군께 죽을 죄를 지였사오니 잔명을 사로시면[483] 다시는 이심[484]을 먹지 아니코 호국을 상국으로 복종하오리니 장군은 용서하심을 바라나이다.»

원수 좌우를 명하여 그 맨 것을 풀고 장대에 올려 잔을 주어 위로하여 가로되

«그대의 말을 들으니 전사[485]를 후회한듯한 고로 모든 죄를 사하나니 다시는 망령된 마음을 먹지 말며 천도를 어기지 말고 일국의 부귀를 누리라.»

하거늘 가달이 사례하여 가로되

«죽을 죄를 사하고 이렇듯 관대하시니 은혜는 백골난망[486]이로소이다.»

하고 원수를 향하여 백배사례하고 호왕과 하직함에 잔군을 이끌어 본국으로 돌아가니라. 호왕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칭찬하여 가로되

«조선에 이런 명작이 있음을 과인이 몰랐도다.»

하고 경업의 출중함을 사랑하여 부마[487] 삼을 뜻이 있는 고로 내전에 들어가 왕비[488]와 의논하고 공주[489]를 불러 경업의 영걸[490]한 풍도[491]가 있음을 이르며

«부마로 간택[492]코자 하나니 네 뜻에 어떠하뇨.»

공주 옥안을 숙이고 부끄러움을 먹음고 대답하여 가로되

«부왕의 명교[493] 마땅하시나 녀자의 백년의탁[494]을 범연히 못하오리니 소녀 비록 식견이 없사오나 친히 보아 정하리이다.»

호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고 이튿날 외전에 나가 림원수를 보고 가로되

«과인이 장군을 사랑하여 청할 일이 있으니 장군은 용납[495]할가.»

경업이 가로되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느뇨.»

호왕이 가로되

«과인이 한낱 공주 있기로 장군으로 과인의 부마를 삼고자 하여 공주에게 물은즉 제 대답이 제 눈으로 보아야 정하겠다 하니 의향이 어떠하뇨.»

원수 가로되

«삼가 봉행[496]하오리다.»

하니 호왕이 크게 기꺼 내전으로 들어가 이말을 이르고 높은 루각[497]에 주렴[498]을 드리우고 공주를 그곳에 올려 보내니 원수 벌써 공주의 상법[499]을 짐작하였든지라 목화[500] 속에 세치포를 돋우고[501] 기다렸더니 이윽고 들어오라 하거늘 경업이 들어갔더니 공주 이윽히 보다가 가로되

«키 세치[501] 더하니 앞으로 보면 천일지표[502]요 뒤으로 보면 룡봉의 형상[503]이니 영웅은 영웅이로되 와석종신[504]을 못할 것이오니 가히 아깝도다.»

하거늘 호왕이 부마 삼지 못 함을 애다라 하나 할일 없어 원수다려 밖으로 나가라 하고 호왕이 외당으로 나가 공주의 말을 이르고 놀라나 부득이 원수를 리별할새 금은화를 드려 상사하니 경업이 받아 여러 장수를 나누아 준대 여러 장수 하례[505]하여 가로되

«소장[506]등이 한 사람도 상함이 없사와 원수의 덕택이 하해 갈삽거늘 이제 또 이렇듯 관대하시니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하고 무수히 사례하니 원수 호왕을 작별하고 대군을 거느려 여러 날 만에 남경에 득달하여 천자께 복명한대[507] 천사 치사하여 가로되

«조선에 이런 명장이 있음을 과연 몰랐노라 이제 경업의 이름이 삼국에 진동하리니 가히 아름다운 일이라.»

하시고 금은을 많이 상사하니 리 시백과 림 경업이 산은[508]하고 즉시 떠나 여러 날만에 서울에 득달하여 궐하에 나아가 탑전에 재배하고 경업의 이름을 아뢰였더니 상이 크게 기꺼 가로사되

«경업이 남경에 갔다가 이런 대공[509]을 이루어 이름을 삼국에 진동케 하니 이는 과인의 고굉지신[510]이로다.

하사 벼슬을 도도시니 경업이 머리를 조아 사례하더라.

차설 호왕이 리 시백과 림 경업을 보내고 한탄하여 가로되

«내 조선을 처 항복받아 우리 나라의 위엄을 빛내고자 하더니 불의에 가달로 인연하여 림 경업을 보니 그 위세[511] 장엄한지라 감히 조선을 경홀[512]히 범치 못 하리로다.»

말을 마치며 심히 즐겨 아니하니 공주 곁에 있다가 여짜오되

«부왕은 념려 말으소서 신이 마땅히 조선에 들어 가 리 시백과 림 경업을 없애고 오리다.»
호왕이 기꺼 가로되
«너의 지략이 관인[513]하고 만부부당[514]의 용맹이 있음을 아는 바이니 어찌 한 시백을 근심하리오.»
하고 일습[515] 남복을 입히고 삼척 비수[516]를 주니 공주왕께 하직하고 길을 떠 날새 모후[517] 가로되
«너는 모로미[518] 조선지경을 당하여 의주 평양 여러곳의 말소리를 배우며 조선 사람의 행동거지를 배운 후에 한양성중에 들어가 리 시백의 집을 찾아 동정을 비밀히 하여 부대 남이 모르게 시백을 죽이고 나오는 길에 의주에 이르러 림 경업을 마자 없애고 돌아 오되 부대 행사를 진중히 하여 대공을 이루라.»
공주 명을 받들고 바로 길을 떠나 조선을 향하여 들어올새 평안도 의주에 이르러 여러날 류숙하며 조선 말과 절차를 낱낱이 배운 후에 바로 떠나 여러 날만에 한양에 이르러 리 시백의 집을 찾아오니라.
이때 박씨 하로는 정당에 저녁 문안을 마치고 침실에 들어왔더니 시백이 밤이 깊어 들어오거늘 박씨 판서를 맞아 좌정하니 판서 아들을 무릎에 앉혀 희롱하며 박씨로 더불어 설화하더니 밤이 이슥하여 계화 침금을 포설하고 물러가거늘 박씨 비로소 판서를 향하여 가로되
«명일 황혼후 강원도 원주 창기 설중매라 일컫고 상공 서헌으로 올라오리니 만일 그 계집의 색모[519]를 탐하여 상공의 침실에 가까이 하신즉 야간에 큰 화를 당할 것이니 그 계집다려 여차여차 이르시고 첩의 침소로 들여보내시면 첩이 마땅히 여차여차 하리니 상공은 첩의 말을 허수히 듣지 말으사 대사를 그르치지 마옵소서.»

하거늘 팡서 웃어 가로되

«부인의 말씀이 우습도다 장부 어찌 한 조그만 계집의 손에 몸을 바치리오.»

박씨 아미를 찡기고 가로되

«상공이 첩의 말을 믿지 아니커든 그 계집을 후원으로 들여 보내시고 상공이 그 뒤를 좇아 후원으로 들어오사 그 계집이 말하는 동정을 살펴보면 그 진위[520]를 아르시리이다.»

팡서 응락하고 박씨와 같이 밤을 지내고 명일 정당에 문안하고 조정에 들어가 공사를 처결하고 날이 늦은 후에 돌아오니 손들이 모였거늘 이에 술을 나와 즐기다가 날이 저물매 손이 각각 돌아 가거늘 팡서 석반을 마치고 서헌에 한가히 앉았더니 과연 밤이 깊은 후에 한 녀자 문을 열고 완연히 들어와 재배하거늘 팡서 눈을 들어보니 그 계집이 년기[521] 이십은 되였고 용색이 백옥 같으니 요요작작한 절대가인이라 놀라 물어 가로되

«너는 어떠한 계집인고.»

그 녀자 가로되

«소녀는 원주 사는 설중매옵더니 상공의 위풍이 향곡까지 유명키로 소녀 평생에 상공의 풍신[522]을 사모하와 한번 첩실에 모시고자 하와 험로를 불계[523]하고 올라왔사오니 바라옵건대 상공은 어여삐 여기심을 비옵나이다.»

팡서 가로되

«너의 말이 기특하나 서헌에 외객[524]이 온다하니 후원 부인의 곳에 들어가 있으면 밤이 깊은 후 손이 모다 흩어지거든 너를 부르리라.»

하고 내당 시녀를 불러 후원으로 인도하여 보내니 설중매 부인 처소에 들어가 박씨께 뵈오니 박씨 웃으며 가로되

«너는 바삐 올라 오라.»

하니 설중매 사양치 아니하고 들어 오거늘 박씨 명하여 좌를 주고 계화로 하여금 주효[525]를 가져 오라 하여 산호배[526]에 부은 술을 가득 부어 주니 설중매 가로되

«첩이 본대 술을 먹지 못 하오나
부인이 주심을 어찌 사양하리잇고.»

받아 마시기를 연하여 사오배 하니 취안[527]이 몽롱하여 주력[528]을 이기지 못 하여 침석에 굴어져 자거늘 박씨 그 녀자의 자는 거동을 보니 얼굴에 살기 은은하여 흉녀[529]한 기운이 사람에게 쏘이거늘[530] 가만이 행장을 뒤지니 삼척 비수 들었는지라 박씨 그 칼을 집으려 하니 그 칼이 변화 무궁[531]하여 사람에게 달려 들거늘 놀라 급히 피하고 진언을 외여 칼을 제어[532]하고 잠깨기를 기다리더니 날이 밝은 후 정신을 진정하여 일어 앉거늘 박씨 가로되

«너는 모로미 바삐 너의 나라에 돌아가라.»

설중매 가로되

«첩은 강원도 원주 사는 계집으로서 부모를 모다 여이고 의지할 곳이 없사와 가무를 배왔삽거늘 어찌 본국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부인의 높은 이름을 듣고 왔나이다.»

박씨 소리를 높여 꾸짖어 가로되

«네 종시 나를 없수이 여겨 이렇듯 기망하니 어찌 통분치 아니리요 네 호왕의 공주 기룡대가 아닌가.»

기룡대 혼비백산[533]하여 만만 사죄하여 가로되

«부인이 신명하사 첩의 행색을 알으시니 조금이나 기이오리까 첩은 과연 호왕의 공주로 부왕의 명을 받아 귀댁에 들어 옴이니 부인의 너그러우신 덕택을 입어 잔명을 사하시면 본국에 돌아가 다시는 여공을 힘써 평생을 마칠가 하나이다.»

박씨 가로되

«너 본색을 바로 고하기로 사하나니 이 길로 바로 너의 나라에 가 국왕다려 이르라 조선에 들

어 갔더니 리 판서의 부인 박씨를 만나 행색이 드러나 성사를 못 하고 박씨의 말이 네 잠시라도 지체하면 대화[534]를 만나리니 빨리 흩어져 가고 화를 자취[535]치 말라하라.»

기용대 정신이 산란하여 엎대여 죄를 청하여 가로되

«바라건대 부인은 죄를 용서하사 무사히 고국에 돌아가게 하옵심을 엎대여 바라나이다.»

박씨 가로되

«너의 국왕이 참람[536]한 뜻을 내여 조선을 범하고저 하니 이는 도시 조선 운수 불길함이나 너의 병력이 아모리 강성할지라도 조선을 간대로 침노치 못 하리니 너는 바삐 나가 자세히 이르라.»

하고 다시 술을 권하여 먹이고 나가기를 재촉하니 기용대 머리를 조아 만만 사죄한 후 하직하고 나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여 사면으로 돌아 다니기를 밤이 새도록 하되 나갈 길이 없는지라 기용대 하늘을 울워러 탄식하여 가로되

«호국 공주 기용대가 조선 리 시백의 집에 이르러 죽을 줄 어찌 알았으리오.»

하고 탄식하기를 마지 아니한대 박씨 가로되

«네 어찌 가지 아니하고 낮이 새도록 그저 있느냐.»

기용대 땅에 엎대여 가로되

«첩이 부인 덕택을 입어 돌아 가려 하오나 사면이 층암절벽[537]이라 갈바를 모르오니 바라건대 부인은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씨 가로되

«너를 그저 보내면 필연 림장군을 해하고 갈 듯한 고로 널로 하여금 나의 수단을 알게 함이라.»

하더라 또 하회를 들으라.

각설[538] 박씨 기용대에게 수단을 알게 함이라 이르고 이에 공중을 향하여 진언을 외오니 홀연 뢰성벽력[539]이 진동하며 풍우 크게 일어나더니 기용대의 몸이 절로 날려 순식간에 호국 성중에 이르러 궁중 내전에 놓이니 호왕이 크게 놀라 가로되

«우리 아이 어찌 공중으로써 나려 오느냐.»

기용대 한 식경[540]은 지난 후에 겨우 정신을 차려 머리를 흔들며 가로되

«소녀 하마트면 부왕을 다시 뵈옵지 못할번 하였나이다.»

호왕이 급히 물어 가로되

«녀아의 말이 어찐 말이냐.»

기용대 조선에 들어와 지내던 일의 자초지종을 일일이 고하니 왕이 놀라 탄식하여 가로되

«놀랍고 기이하도다 리 시백의 영웅 지재[541]를 칭찬하였더니 그 부인이 이렇듯 기특한 재조 있으니 조선이 비록 적으나 유명한 사람이 하나 둘 아님을 가히 알리로다.»

하고 칭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이에 만조[542]를 모아 의논하여 가로되

«과인이 조선을 처 항복 받으려 하나니 뉘 능히 선봉이 되여 대공을 이룰고.»

말이 채 맞지 못하여 뜰 아래 두 장수 아뢰여 가로되

«신등이 비록 무재[543]하오나 한 떼의 군사를 주시면 조선을 처 항복 받으리이다.»

왕이 보니 이는 대장군 용골대[544]와 용홀대[545]라 왕이 크게 기꺼하여 이에 만조백관[546]을 모으고 스스로 황제위[547]에 나아간 후 년호[548]를 고쳐 숭치원년[549]이라 하고 용골대 용홀대로 좌우 선봉을 삼고 정병[550] 삼만을 주며 가로되

«이리로 동으로 돌아 병자 십이월 이십팔일에 한양도성에 득달하되 부대 약속을 어기 오지 말라.»

하고는 용골대 형제 명을 듣고 군사를 교련하여 행군하니라.

각설 박 부인은 공을 청하여 가로되

«기용대 돌아간 후 호국 병세 점점 강성하여 군사를 이끌어 조선에 들어와 림 경업을 죽이고 우으로 전하[551]를 항복 받고자 하여 용골대 형제로 좌우 선봉을 삼아 북으로 돌아 납월[552] 이십팔일에 동대문을 깨치고 물미듯 들어오니 부대 그날을 어기오지 마시고 상을 모셔 광주산성[553]으로 급히 피하사 급한 화를 면하옵소서 그 뒷 일은 소첩이 이곳에서 다 방비하리이다.»

공의 부자 본대 박씨의 말을 신명히 아는지라 이에 응락하고 그때를 기다리더니 십이월 이십사일에 이르러 시백이 상께 아뢰여 가로되

«신의 처 박씨의 말이 금월 이십팔일 밤에 호국이 북으로 돌아 동대문을 깨치고 들어 오리니 대전[554]과 왕대비전[555]과 세자대군[556] 삼형제를 모셔 광주성중으로 피화[557]하시게 하라 하오매 신이 저의 신명하옴을 아는 고로 전하께 아뢰옵나이다.»

상이 놀라사 산성으로 피란하여 하시니 영의정[558] 김자점[559]이며 좌의정[560] 박운학[561]이 아뢰여 가로되

«도승지[562] 리 시백이 태평성대[563]에 패악[564]한 말을 하여 성심[565]을 요동케 하오니 바삐 리 시백을 삭직[566]하사 후일을 징계하옵소서.»

상이 유예미결[567]하시더니 홀연 공중으로서 한날 선녀 옆에 비수를 끼고 선연[568]히 나려와 뜰 아례 배알하거늘 상이 놀라 물어 가로사되

«선녀는 무슨 일로 이런 누지에 왕굴[566]하느뇨.»

그 선녀 다시 재배하여 가로되

«신첩은 리 시백의 부인 박씨의 시비 계화옵더니 박부인이 신첩다려 이로되 ‹지금 성상이 간신[570] 김 자점의 참소[571]를 들으시고 유예미결하시리니 네 급히 들어가 나의 말을 아뢰여 산성으로 동가[572]하시게 하라› 하더이다.»

하고 일어나 칼을 집에 꽂고 앞에 망두석[573]을 들어 김 자점, 박 운학을 겨누며 꾸짖어 가로되

«김 자점 박 운학은 들어 보라 너의 벼슬이 일품[574]에 이르러 일인지하에 만인 지상[575]이 되였으되 국은 갚음은 생각치 아니하고 나라에 직간[576]하는 충신을 참소하여 도로혀 모해하려 하니 너 같은 간신을 어찌 용납하리오마는 너의 죽을 기한이 아직 멀었기로 우리 부인 말씀이 ‹죽이지는 말고 저이등의 죄과만 수죄하고 또 조선의 국운이 장원[577]하니 불칙[578]한 뜻을 품지 못 하게 하라› 하시더라.»

하고 무수히 질욕[579]하니 김 자점등이 낯을 싸고 무류히[580] 물러나더라. 계화 다시 땅에 엎더여 아뢰여 가로되

«만일 이 밤을 지체하시면 대화 당두[581]하리니 신첩의 부인의 말을 어기지 마옵소서.»

하고 표연히 몸을 일어 돌아 가거늘 상이 심히 신기히 여기사 이에 리 시백으로 리조판서 광주 유수[582]를 하시사 내전과 세자 대군을 거느려 리 시백으로 호위하라 하시고 산성으로 가려 하시더라. 원래 망두석은 태조대왕[583] 즉위[584]시에 일등 석수를 불러 만들어 세운 것이니 그 무게 천근이라 세상에 드는 사람이 없더니 조그마한 삼척녀자 드는 것을 보고 만조공경[585]이 다 놀라 헤오되[586] 박씨의 시비 저러하니 그 상전의 도량과 용략을 어

이 칙량하리오 하니 김 자점등 간신이 다 퇴조하여 나가고 그 남은 백관은 어가[587]를 호위하여 산성으로 나가더니 과연 백성의 전언[588]을 들으니 호병이 도성에 들어와 백성을 살해하며 궐내에 들어가 수직하는 관원을 버히고 재산과 부녀를 탈취하니 만성[589] 인민이 병화[590]를 피하여 도로에 매였거늘 상이 들으시고 크게 놀라 창황[591]하신중에 박 부인의 지감[592]과 충성을 기특이 여기사 시백을 불러 무수히 찬양하시더라.

이때 용골대 대병을 거느려 도성에 이르러 보니 국왕이 광주로 피란하였거늘 분함을 참지 못하여 용홀대로 도성을 지키고 스스로 철기[593] 오천을 거느려 물미듯 나가 송파[594]를 건너 평원 광야[595]에 진세[596]를 이루고 이에 산성 남문을 에워싸고 크게 외여 가로되

«죽기를 두리거든 빨리 문을 열어라.»

하거늘 수문장[597]이 황망히 들어가 상께 아뢰여 가로되

«호장[598] 용골대 남문에 이르러 문을 열라 하니 전하는 바삐 군졸을 내여 도적을 방비하소서.»

상이 놀라 가로사되

«이는 하늘이 망함이로다 삼백년 왕업[599]을 과인에게 이르러 망할 줄 어찌 뜻하였으리요.»

하시고 룡루[600]를 흘려 소매를 적시거늘 리 시백이 아뢰여 가로되

«전하는 과히 근심 말으소서 이는 다 천수[601]라 인력으로 어이 하오리까 제 아무리 강성하여도 산성[602] 사문이 견고하니 간대로 범치 못 하오리다.»

하고 백관이 호위하여 성심을 위로하더니 문득 방포[603]소래 천지진동하며 무수한 철기 사면으로 철통 같이 에워싸고 사다리를 놓고 일시에 올라 성중으로 향하여 총을 놓으니 철환[604]이 비오듯 하거늘 만성 인민이 자상천답[605]하여 달아나며 호곡[606]하는 소래 성중을 들레는지라[607] 상

이 경황[608]하사 아모리 할 줄 모르시더니 홀연 공중으로서 크게 외여 가로되

«성상은 과히 근심치 말으시고 적군과 화친[609]하소서 용골대 필연 세자 대군 삼형 제분을 볼모[610]잡아 가오리니 비록 만극[611]하오나 사직[612]이 위태함을 면케 하소서 국운이 불길하와 호국의 침해를 받사옴은 다 운수라 면할 수 없나이다. 신첩은 다른 사람 아니오라 광주유수 리 시백의 처로소이다 신첩이 한번 나아가 칼을 들면 용골대의 머리와 호병 삼만을 풀버히듯 할 것이로되 천의를 어기지 못 할이오니 신첩의 죄를 사하옵소서.»

상이 신기히 여기사 뜰에 나려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칭사하시고 적군과 화친을 청하여 용골대 화친을 하고 세자대군과 왕대비전을 다려 광주를 떠나 가니라. 이때 박부인은 모든 친척과 충신렬사[613]의 집에 통기하여 피화정으로 피신케 하니라.

차설 용골대의 아우 용홀대 후원에들어가 풍경을 두루 구경하다가 한편을 바라보니 담밖에 수목이 무성한 곳에 수십간 초당이 정결하고 당우에 한 가인[614]이 홍상채의[615]를 선명히 입고 이마에 시름이 가득하여 수삼세 된 아이를 좌우에 앉히고 희롱하거늘 용홀대 한번 봄에 정신이 황홀하여 생각하되 «장부 세상에 났다가 저런 미인을 사랑치 못하면 어찌 원통치 않으리오» 하고 몸을 일어 수백 철기를 거느려 그곳에 이르러 보니 수목이 일시에 변하여 철기되여 기치창검[616]이 별 일듯 하는지라 점점 나아가 보니 장중에 한날 영채[617]를 세우고 진문[618] 밖에 한 미인이 앞을 향하여 크게 꾸짖어 가로되

«네 호국장사 용골대의 아우 용홀대 아닌다 네 본대 오랑캐로 천의를 모르고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또 감히 사부가[619]의 규문[620]을 당돌히 범하니 너 같은 놈은 죽여 후 일을 징계하리라.»

하고 완완히[621] 걸어 달아들며 이르되

«네 나를 아는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광주유수 리공의 부인 박씨의 시비 계화로소니 네 선봉이 되였다가 날 같은 녀자의 손에 목없는 귀신이 될터이니 어찌 불상코 잔잉[622]치 아니리오.»

하며 내 칼을 받으라 하는 소래 옥반에 진주를 굴리는듯 한지라 용홀대 바라보니 그 미인이 머리에 태화관[623]을 쓰고 몸에 금사화의[624]를 입고 허리에 측금사만대[625]를 두르고 손에 용문자화금[626]을 들고 완연히 섰으니 나는 제비 같은지라 용홀대 정신이 어질하나 분기를 참지 못하여 다시 정신을 차려 꾸짖어 가로되

«조그마한 녀자 엄연히[627] 장부를 꾸짖는다 내 너를 잡지 못하면 어찌 세상에 서리오.»

하고 달아들거늘 계화 용홀대를 보니 머리에 용봉 쌍학투구[628]를 쓰고 몸에 황금사문갑[629]을 입고 허리에 진홍보호대[630]를 두르고 손에 삼백근 금강도[631]를 들었거늘 서로 싸와 사십여합에 승부를 모르더니 계화의 칼이 번득하며 용홀대의 머리 검광[632]을 좇아 마하에 나려지니 계화 그 머리를 칼끝에 꿰여들고 좌우충돌하여 사방으로 달리니 모든 장졸이 혼비백산하여 일시에 항복하니 계화 용홀대의 머리를 박 부인께 드리니 부인이

«그 놈의 머리를 높은 남게 달아 두라 용골대 제 아우의 머리를 보면 락담상혼[633]하리라.»

하니 계화 명을 듣고 후원 전남게 높이 달아 두니라.

그후 여러날 만에 용골대 인마를 거느리고 호기[634] 있게 승전고[635]를 울리며 왕십리[636]를 지나 동대문을 들어 오다가 제 아우 용홀대 박씨의 시비 계화에게 죽음을 듣고 분기 대발[637]하여 즉시 박씨 있는 곳을 찾아가 소래를 벽력 같이 질러 가로되

«박씨는 어떠한 녀자완대 감히 대장을 죽이고 또 그 머리를 전남게 달았으니 어찌 당돌치 아니리오 바삐 나와 내 칼을 받으라.»

하고 달아드니 박씨 분기를 참지 못하여 계화를 불러 가로되

«네 가서 죽이지 말고 이리이리하여 간담이 서늘케 하라.»

계화 응락하고 나올새 일월국화관[638]을 쓰고 몸에 홍금수라[639] 오색채화의[640]를 입고 손에 삼척 비수를 들고 문 밖에 내달아 용골대의 거동을 보니 얼굴은 무른 대초빛 같고 눈은 번개 같아 보기에 흉악한지라 계화 목성을 가다듬으며 꾸짖어 가로되

«용골대야 네 대장으로 조선에 와 날 같은 조그마한 녀자에게 욕을 보고 돌아가려하니 어찌 애닯지 아니리오.»

용골대 눈을 부릅뜨고 소래를 우뢰 같이 질러 가로되

«네 한 낱 천한 계집이 감히 대장부를 수욕[641]하기를 능사로 하는다 너를 죽여 내 아우의 원쑤를 갚으리라.»

하고 달아들거늘 계화 맞아 싸와 십여합에 이르러 용골대 계화의 신력을 당치 못할 줄 알고 다시 꾸짖어 가로되

«네 내 아우의 머리를 내여주면 이 길로 돌아가려니와 그렇지 아니면 저 피화정을 짓밟아 쑥밭을 만들리라.»

계화 크게 웃어 가로되

«네 아모리 용맹하여도 나는 당치 못 하리라 나라의 운수 불길하여 너이 오랑캐에게 욕을 보았거니와 너의 아우 하나는 우리 부인의 신명한 법으로 목을 버혀 나라의 위엄을 빛내였나니 어찌 그 머리를 줄가 보냐 너는 들으라 옛날의 조양자 지백[642]을 죽여 그 머리로 오줌그릇을 만들었으니 우리 부인도 네 아우의 머리로 그릇을 만들어 성상께 진상[643]하여 위엄을 빛내고저 하시나니 너는

망령된 말을 다시 말고 빨리 돌아가 네 아우와 죽지 말미 마땅하리라 네 부득이 하거니와 왕대비전하는 못 모서가리니 빨리 피화정으로 모시게 하되 만일 순종치 아니한즉 목숨을 보존치 못 하리라.»

용골대 분노하여 삼백근 철퇴[644]를 들고 달아 들거늘 계화 거짓 패하여 화계[645]를 헤치고 달아나니 용골대 승승장구[646]하여 따르며 꾸짖어 가로되

«네 달아나면 능히 철퇴아래 죽음을 면할소냐.»

거의 잡히게 되였더니 문득 천지를 분별치 못 하게 어두어지더니 계화 쥐였던 칼을 공중에 치치며 진언을 외옴에 모래와 돌이 날리고 사면으로 어두귀면 지졸[647]이 에워싸 들어오고 눈비 크게 나려 잠시간에 물이 길이 넘는지라 용골대 아모리 용맹한들 박부인의 도술을 어찌 당하리오 수족을 놀리지 못 하고 혼비백산하여 이에 애걸하여 가로되

«소장이 눈이 있어도 망울이 없어 존위를 범하와 죽을 죄를 범하였사오니 칙은히 여기사 잔명을 사로시면 이길로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나이다.»

계화 가로되

«네 그리할진대 왕대비전하를 이곳으로 모시라.»

용골대 황망히 군사를 불러 왕대비전하를 바삐 피화정으로 모셔오라 하니 군사 령을 듣고 급히 나아가 왕대비전께 피화정으로 가심을 고하니 왕대비전하 군사의 말을 들으시고 세자대군 삼 형제를 붙드시고 락루하여 가로사되

«삼위[648]는 부대 몸을 조심하여 무사히 환국함을 바라노라.»

세자대군 삼 형제 부복하여 눈물을 머금고 인하여 하직하거늘 왕대비전하 군졸의 인도함을 따라 피화정에 이르시니 박 부인이 급히 당에 나려 복지 통곡[649]하여 국가의 불행함을 아뢰고 계화를 명하여 용골대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하니 계화 나와 부인의 명을 전하고 가로되

«네 돌아가다가 의주에 이른즉 림장군에게 죽기를 면치 못하리니 이 글을 드리면 할일 없이 너를 놓아 보내리라.»

용골대 머리를 조아 사례하고 인마를 거느려 의주에 득달하니 의주부윤 림경업이 용골대 동으로 들어와 인민을 살육하고 세자대군 다려감을 보고 대노하여 필마단창[650]으로 나는듯이 내달아 소래를 벽력 같이 질러 가로되

«오랑캐는 빨리 목을 늘여 내 칼을 받으라.»

하거늘 용골대 황망히 말께 나려 땅에 엎드려 가로되

«장군은 노염을 그치시고 이글을 보소서.»

하고 두 손으로 글을 받들어 올리거늘 림 경업이 칼 끝으로 받아보니 그 글에 하였으되

«리조판서 광주유수 리 시백의 처 박씨는 림 장군 좌하[651]에 한장 글월을 부치나니 이제 나라의 운수 불길하여 이런 망극한 변을 당하였으나 이는 다 하늘의 정한 수라 용골대 세자대군을 모셔 돌아 가는 것이니 장군은 분심을 진정하고 용골대를 무사히 돌아 가게 하여 삼년 후에 세자대군을 평안히 환국하시게 함이 상책이오니 장군은 부대 박씨의 말을 신청[652]하기 바라옵나이다.»

하였더라. 림 장군이 보기를 다함에 분기를 참고 말께 나려 세자대군을 뵈옵고 피눈물을 뿌리며 머리를 조아 가로되

«바라옵건대 전하는 망극함을 참으시고 삼년 만 계시면 신이 죽기로써 호국에 가 모셔오리니 전하는 신의 말을 헛되이 생각지 마옵소서.»

세자대군이 할일 없이 경업을 리별하고 떠나시니라.

화설 상이 왕대비전과 세자대군을 호국에 보내시고 성심히 망국하사 침식이 불안하시더니 하루는 공중으로서 한 선녀 내리여 일월국화관을 쓰고 몸에 오색운무채화의[653]를 입고 완연히 나려와 땅에 엎데거늘 상이 놀라서 급히 물으시되

«선녀는 뉘시완대 과인의 곳에 이르런느뇨.»

박씨 다시 일어 재배하여 가로되

«신첩은 광주유수 리 시백의 처 박씨로소이다.»

상이 놀라 가로사되

«경의 지략을 매양 탄복하더니 이제 경의 선형[654]을 구경하니 과인의 마음을 위로하리로다.»

하시고 리 시백을 돌아보아 가로사되

«경의 충의 쌍전[655]하기로 저런 부인을 두었으니 어찌 기특치 아니리오.»

유수의 벼슬을 도도와 세자사[656]를 하이 시고[657] 그 부인 박씨로 정경부인[658] 직첩[659]을 나리시고 시백의 부친 득춘으로 보국숭록대[660] 봉조하[661]를 하이시고 그 부인 강씨로 정경부인을 봉하시니[662] 리 시백이 머리를 조아 가로되

«신이 촌공[663]이 없삽거늘 외람한 관작을 주시니 황공무지[664]하여이다.»

상이 다시 가로사되

«경이 위란지시[665]를 당하야 과인을 호위하야 충성을 다하고 경의 부인이 여러번 과인의 급함을 구하고 용골대의 방자함을 꾸짖고 왕대비전을 경의 집에 편히 모셨으니 이는 과인의 뼈에 사모치는 은혜이늘 조그마한 관작으로 어찌 갚기를 바라리오.»

하시고 이에 환궁하실새 거리거리 백성이 어가를 호위하야 영접하더라. 상이 인하야 궐내에 드시니 왕대비전이 또한 환궁하시고 이튿날 백관의 진하[666]를 받으시고 볍

사[667]의 죄수를 모다 놓으시니라. 왕대비전이 조용한 때를 타 박씨의 은덕으로 피화정에 있다가 돌아오심을 세세히 말씀하시니 상이 박씨의 일을 아름다이 여기사 예부에 전지[668]하사 충신문[669]을 세우시고 피화정 옆에 한 당을 세우되 이름을 일가정[670]이라 하시고 상이 매년 일차씩 춘삼월에 행행[671]하사 화류[672]를 완상[673]하시더라. 그 후 리 시백의 공덕을 아름다이 여기사 시백으로 의정부[674] 우의정[675]에 대광보국[676]을 하이시고 부인 박씨로 충렬[677] 정경 부인을 봉하시고 시백과 박씨를 못내 탄복하시더니 이러구러 세자 호국에 간지 삼년이 되였는지라 왕대비전과 상이 소식을 몰라 주야 근심하시더니 한 신하 나아와 아뢰여 가로되

«신이 비록 무재하오나 호국에 가 세자대문 삼 형제를 모시고 올가 하나이다.»

상이 보시니 전임[678] 의주부윤 림 경업이라 상이 기꺼하사 림 경업으로 병조판서 훈련대장[679]을 겸임하시고 상사를 하사 즉일 발행[680]하라 하시니 경업이 재배 사은하야 어전에 하직하고 위의[681]를 거느려 수월만에 호국에 득달하야 황문 시관[682]에게 통하니 황문이 탑하에 들어가 조선국 사신이 왔음을 아뢴대 호왕이 바삐 들어오라 하거늘 경업이 들어가 재배하니 호왕이 기뻐 가로되

«경이 수천리 험한 길에 옴은 어쩜이뇨.»

경업이 가로되

«신이 옴은 다름 아니오라 조선왕이 례물을 갖초아 드리고 세자궁 삼 형제 돌려보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금은보배의 가진 재물과 표문[683]을 올리니 호왕이 표문을 보니 말씨 온공[684]하고 례물이 욕심에 족한지라 이에 기꺼 웃어 가로되

«조선 왕이 가히 례를 아는 임금이로다.»

이에 세자대군 삼 형제를 불러 가로되

«너이 나라 사신이 와 너이들을 다려가려하니 무슨 소원이 있거든 각히 말하라.»

하니 세자 가로되

«신은 아무 것도 싫고 부왕이 기다리시니 인자된 마음에 일각이 삼추[685] 같은지라 바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 대군은 가로되

«신은 여러해만에 본국으로 돌아가매 혼자만 감이 불가하오니 이미 수백명 본국 인민이 와 있사온즉 그를 주시면 다려가려 하나이다.»

세째 대군은 가로되

«신은 일등미녀를 한사람 주시면 다려가 부왕께 뵈오려 하나이다.»

호왕이 각각 소원을 이루어 주니 경업이 즉시 호왕을 하직하고 세자대군 삼형제를 모셔 여러날 만에 한양에 득달하여 사은한데 상이 원로에 무사히 환국함을 기꺼하시고 세자대군 삼 형제를 불러 호국에 가 수년간 고생함을 묻고 또 가로사되

«경들이 올 때에 호제[686] 무슨 말을 묻드뇨.»

세자 먼저 아뢰되

«신은 일각이 삼추 같으니 바삐 본국에 돌아가 부왕을 뵈겠노라 하였나이다.»

둘째 대군은 가로되

«신은 본국인들을 호지[687]에 두기 분한고로 다녀감을 청하였나이다.»

세째 대군은 가로되

«신은 일색 미녀를 주면 다려다 부왕께 뵈옵겠다 하였나이다.»

상이 둘째 대군을 칭찬하여 가로사되

«경은 가히 일국 생명을 거느릴 도량이로다.»

하시고 세째 대군을 꾸짖어 가로되

«너는 미녀를 다려다 나를 주면 무엇이 유족하뇨 가히 무식한 위인이로다.»

하시고 벼루를 들어 치시니 왼편 다리가 먼저 절각[688]이 되니 다리를 절고 다니더라.

화설 전 병의정 김 자점이 리 시백과 림 경업을 시기하야 해코자 할새 먼저 경업을 해하리라 하고 거짓 여명[689]이라 일컫고 경업을 형벌을 중히하야 전옥[690]에 가두고 장차 죽이기를 꾀하니 세자 경업이 자점의 해를 당할 줄 아시고 참연[691]히 여기사 전옥으로 가려하사 전지를 나리오니 전옥 문 앞에 홍살문[692]을 중수하야 세우고 거동하기를 대령하였더니 만조 간[693]하야 가로되

«조정 신하를 보시려 전옥에 친행[694]하심이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전하는 깊이 살피소서.»

세자 그러히 여기사 중지하시니 이때에 경업은 형벌을 별로히 더하야 기묘 삼월 이십륙일에 명이 다하니 나이 삼십이세라. 하로는 상이 침석에 의지하야 계시더니 비몽 사몽 간에 경업이 일신에 피를 흘리며 거러오며 고하야 가로되

«신이 생전에 지성으로 성상을 섬기고저 하였더니 시운이 불길하야 김 자점의 해를 만나 일신이 성한 곳이 없이 중상을 입어 몸을 망하오니 어찌 통분치 아니하리잇고 바라옵건대 성상은 신의 일신을 애휼[695]하사 역적 김 자점을 죽여 원쑤를 갚아 주옵시면 신은 죽은 혼백이라도 충성을 다할가 하나이다.»

하고 울며 가거늘 상이 놀라 다시 묻고자 하시다가 번더쳐[696] 깨치시니 남가 일몽이라 상이 몽사를 의심하사 리 시백을 명초[697]하사 경업의 일을 물으시니 시백이 복지하야 눈물을 흘리며 자점이 음흉하야 경업을 다려 전옥에 가두매 장독[698]이 나 원통히 죽음을 아뢰니 상이 크게

노하사 자점을 금부[699]로 나려 엄중히 문초하시매 전후 죄상이 드러나는지라 상이 더욱 노하사

«자점을 군기시전[700]에 처참[701]하야 머리를 각읍에 돌리고 경업의 가족에게 자점의 일신을 내여주어 임의로 복수케 하며 처자를 교하고[702] 가장즙물[703]을 적몰[704]하라.»

하시니 가히 원통하다 자점이 일국의 령의정으로 부귀가 족하거늘 흉모를 꾀하다가 몸을 온전히 못 하니 혼백인들 어데가 용납하리오. 이때 리 시백이 전교[705]를 받자와 자점의 죄목을 나타내고 일신을 결박하야 군기시전에 세우고 먼저 목을 버히고 몸을 찢으니 경업의 권솔[706]이 달아드러 자점의 살을 씹으며 간을 내여다가 령위[707]에 제사하야 설원[708]하니라. 이때 상이 경업의 죽음을 애연히 여기사 예부에 전지하야 충신문을 세우라 하시고 벼슬을 추증[709]하야 대광 보국 의정부 령의정 세자사를 하시고 시호[710]를 충렬(사실은 충민공임——주해자) 공[711]이라 하고 국구[712]의 예로 장사하라 하시며 그 자식에게 벼슬을 주어 기복출사[713]케 하시고 제문[714]을 친필로 지으사 례관[715]을 보내여 치제[716] 하시며 죽은 후 십년까지 령의정의 록[717]을 누리게 하시니 성덕[718]이 하해 같더라.

이때 어후[719] 미령[720]하사 추구월 초순에 승하[721]하시니 재위[722] 삼십이년이라 만조 상사를 발하고 세자 즉위하시니 시년[723]이 십구세라 세상이 태평하야 길에 빠진 것을 줏지 않고 산에 도적이 없고 밤에 문을 닫지 아니하며 거리거리 격양가를 부르더라. 시백이 이러한 태평 시절에 일국 재상이 되여 음양[724]을 다스려 사시를 순케하며[725] 백성을 인의[726]로 인도하니 공의 이름이 일국에 진동하고 그아들 희인 형제 다 급제하야 하나는 평안 감사를 하고 하나는 송도유수[727]를 하매 량인의 정사 청백[728]하고 자손이 각각 십여인이되 개개 옥수[729] 기린[730] 같아여 로승상[731] 안전[732]에 있어 재롱으로 세상을 보내더니 로승상이

우연히 병을 얻어 일지 못하고 인하야 별세하니 승상부부 호천 망극[733]하여 주야로 애통함을 마지아니하더니 태부인이 이어 별세하니 시년이 팔십 삼세라 공의 부부 일시에 천붕지통[734]을 당하매 더욱 애통하야 혼도[735]하였다가 겨우 음식을 나와 기운을 진하고 장일이 다다르매 례로써 선산[736]에 장사하나니라.

상이 들으시고 비감함을 마지 아니사 례관을 보내여 치제하시고 인하야 공을 편전[737]으로 부르사 용모 쇠로[738]함을 보시고 심히 근심하사 위로하시니 승상이 천은을 황공하야 부복사은하니 상이 공의 너무 비창하야 함을 보시고 가로사되

《경의 피로운 직책을 갈아 봉조하를 하이나니 조회에 참예치 말고 고당에 한가히 있어 자손의 영효[739]를 받으라.》

하시고 희인의 벼슬을 도도와 리조판서를 하이시고 희기로 도승지 형조참판[740]을 하이사

《불일상경하야 과인의 바람을 저바리지 말라.》

하시니 량공이 궐하에 나아가 사은하온대 상이 가로사되

《경등은 충성으로 직책을 다하라.》

하신대 량공이 즉시 퇴조하야 집에 돌아와 공의 부부께 뵈옵고 일가친척을 청하야 여러해 그리든 정회를 펴니라. 이때 리공 부자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자손을 교훈하야 부귀를 누리더니 이러구러 공의 나이 팔십이 지나되 기운이 전강하야 강장[741]한 소년을 당하더니 추구월 망간[742]에 이르러 월색이 명랑하니 공이 부인으로 더불어 완월대에 올라 남녀 자손을 좌우에 앉히고 수작[743]을 여러 즐길새 공이 스스로 잔을 잡아 두 아들을 주어 가로되

《내 소년적 일이 어제 같더니 어느사이 팔십이 지나니 세상사 일장 춘몽[744]이라 어찌 한심치 아니리오 우리 부부 세상연분이 다하매 장차 너이

들을 영결[745]코자 하나니 너이 두 사람은 조금도 서러말고 자손을 거느려 길이 영화부기를 누리라.»
두 아들이 망극한 말을 받자오매 황황 망조[746]하야 슬픈 눈물이 앞을 가리오니 잔을 받아 마시려하나 가슴이 막혀 잔을 놓고 울기를 마지 아니하거늘 공의 부부 정색하고 꾸짖어 가로되

«사람이 세상에 나매 일생일사는 면치 못할 일이오 네 아비 나이 팔십이 지내고 관록[747]이 일품에 이르고 자손이 번성하야 문호를 빛내니 지금 죽은들 무엇이 원통하리오 너이들은 무익한 슬픔을 이르켜 자손의 민망한 정지를 도라보지 아니하느뇨.»

말을 마치매 안색이 심히 좋지 않거늘 두 아들이 황공하야 안색을 고쳐 사죄하고 다시 모시니 공이 모든 손자를 면면히[748] 이갈이하고 인하야 상을 물리라 하고 부부 량인이 침석을 바루고 세상을 바리니 리판서 형제 발상[749]하야 애통함을 마지 아니하고 슬픈 기운이 온집에 진동하더라. 상이 들으시고 또한 비감하사 례관을 보내여 치제하고 부의[750]를 두터이 하시며 시호를 문충공[751]이라 하시고 박씨 부인으로 충렬비를 봉하야 추정하시더라. 계화도 이에 죽으니 리판서 형제 더욱 서러하다 상례[752]를 차려 입관 성복[753]하고 길일을 가려 선산에 안장[754]하고 판서 형제 주야로 량친 여막[755]에 거하야 효성으로 삼년을 지낸 후에 상이 그 충효를 아름다이 여기사 다시 리조판서의 중임을 맡기시니 공의 형제 기특한 충성으로 임금을 섬겨 벼슬이 일품에 오르고 자손이 대대로 충효를 다하더라.

주해

[1] 화설——옛날 소설의 처음 서두를 시작하는데 쓰던 말투 《이야기한다》의 뜻.

[2] 인조대왕——1623—1649년간의 리조 제 15 대 왕. 동왕 1623—1637년에 청태조의 침입을 받다. 소위 병자 호란이 이것이다.

[3] 한양——서울.

[4] 안국방——서울 북촌에 있는 지금의 안국동.

[5] 자——예전에 법에 휘명법이 있어 본 이름 외에 《자》를 지어 일반 제배간에 불렀다.

[6] 대대 명문거족——여러대에 출세한 명사를 낳은 이름난 가문.

[7] 룡문에 올라——룡문이란 중국 황하의 상류의 이름인데 잉어가 이곳에 오르면 룡이 된다고 하여 사람도 벼슬을 하게 되면 룡문에 올랐다고 한다.

[8] 리조참판——리조 봉건 관제의 6 조중 하나인 리조인데 인사 관계를 취급하던 부서로서 그 부서의 장관인 판서의 차관으로 정 3 품의 벼슬.

[9] 홍문관——경적 및 문자에 관한 임금의 자순 기관.

[10] 부제학——홍문관의 수뇌직으로 정 3 품의 벼슬인 대제학과 부제학이 있었다.

[11] 공——본대 공, 후, 자, 남의 작위명이나 봉건 시대에 지배 계급 사이에서 상대방을 존칭하여 쓰는 대명사.

[12] 위인——사람된 품세를 말한 것.

[13] 충효공검 하고 인후활달——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우며 공순하고 겸박하며 인정이 있으며 도량이 너그러운 것.

[14] 집금오——죄인을 체포하여 치죄하는 관원, 의금부도사의 다른 이름.

[15] 소년결발——소년 시기에 결혼하였음을 말한 것.

[16] 금슬지락——부부사이가 화락한 것을 말함.

[17] 성친——결혼의 뜻.

[18] 일점혈육이 없음——자손이 하나도 없다는 말.

[19] 명산 대천——이름난 산과 큰 강.

[20] 사속——계통을 이을 자손.

[21] 후사——대를 이을 자식.

[22] 존문——상대자의 가문을 존칭하는 말.

[23] 구고——시아버지와 시어머니.

[24] 군자——학식과 조행이 높은 사람을 미칭하는 말. 여기서는 안해가 자기 남편을 존칭하는 말.

[25] 감사무서——감사하여 마지못함.

[26] 불민——똑똑하지 못하다. 민감하지 못함.

[27] 명문거가——명문 거족과 같은 말(전출)

[28] 요조숙녀——성질이 안온하고 행동이 얌전한 부녀를 가리켜 말함.

[29] 재취——두번째 드는 장가.

[30] 귀자——귀한 아들.

[31] 칠거지악——봉건 시대에 안해를 버릴 수 있는 일곱가지 조건. 곧 불순구모, 무자, 음행, 질투, 악질, 구설, 도절을 말함.

[32] 박복——복이 없음을 말함.

[33] 명월암——암자(작은 절)의 이름.

[34] 칠일 기도——예전 조선 민속에서 신에 기도하는 종류로서 단일치성(하루), 삼일치성(사흘), 칠일, 49일 및 백일 기도가 있었다.

[35] 죽장망혜——대 지팽이와 초신.

[36] 전생——불교에서 소위 삼생 즉 전생, 차생, 피생을 말하는데 전생은 이 세상에 낳기 전의 것을 말한 것.

[37] 세존——불교의 창시자.

[38] 믜이 여기사——미웁게 여기셔서.

[39] 점지——신, 불이 사람에게 지목하여 자식을 천도하여 낳게 한다는 것.

[40] 청의 동자——푸른 빛'갈의 옷을 입은 신동 즉 생명을 맡은 신의 사환으로서의 아이.

[41] 내당——내실과 같은 것.

[42] 남가일몽——《허무한 꿈》이라는 말. 당나라 리공좌의 지은 남가기에서 유래한 것이니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순우분이란 사람이 술이 취하여 누웠다가 꿈에 대괴안국에 가서 공주에게 장가들고 남가군 태수가 되여 20여년간 자녀까지 낳고 영화를 극진히 보다가 후에 적과 싸우다가 패전을 하고 공주도 죽어 쫓겨나는 비운에 빠져 꿈을 깨니 서양은 아직 재를 넘지 아니하였고 주위에는 마시던 술동이도 그대로 남아 있다. 하도 서운해서 일어나 두루 살펴보니 소위 남가군이란 것은 집 앞에 있는 홰나무 남쪽가지의 아래에 있는 개미 구멍임을 발견하였다. 그는 비로소 인간 만사가 남가의 꿈이오 인생의 영욕이 잠깐임을 깨달았다 한다.

[43] 좌정——자리를 정하고 서로 대해 앉는다는 뜻.

[44] 몽사——꿈에 나타난 일.

[45] 일호 도——아주 조그만큼도.

[46] 황망히——바삐.

[47] 서기반공——《오색 채운이 공중에 서려 차란하다》의 뜻.

48 선녀——소위 신선의 녀성을 말한 것.

49 태백성——별의 이름으로서 금성을 가리켜 하는 말.

50 배필——부부를 가리켜 말함.

51 천정——운명적으로 작정된 것.

52 갑진——예전에 년, 월, 일, 시를 표시하는데 사용하던 천간 10과 지지 12의 배합에 의하여 된 소위 6갑의 하나 즉 갑자로부터 50년만인 해로 된다.

53 진시——하루 열두 시간의 다섯째 시간. 곧 오전 일곱시부터 동 아홉시까지의 시간.

54 장중보옥——자녀를 보배롭게 여기는 비유의 말.

55 숙성——나이가 어리지마는 일찌기 지각이 트이거나 또 키가 큰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

56 옥녀——옥 같이 귀여운 딸.

57 요요작작——꽃 같이 붉고 고움을 형용하는 말.

58 금지옥엽——귀여운 자손을 일컫는 말

59 녀공——녀자의 직분이라고 한 길쌈, 바느질, 음식물 만들기를 가리킴.

60 시서——시전과 서전.

61 옥인화용——녀자의 옥 같이 고운 얼굴과 꽃 같이 아름다운 모양.

62 숙덕——숙녀의 덕행.

63 거문거족——크게 이름난 집안이요 번창한 겨레.

64 어진낭재——훌륭한 신랑감.

65 소저——아까씨. 미혼 처녀에 대한 존칭 대명사.

66 상——상감. 임금의 존칭.

67 충후—충직하고 순후함.

68 감사——봉건 시대에 국왕에 직접 예속된 지방의 최고 장관으로서 행정, 사법, 군권을 집행하고 감독할 권한이 부여되였다. 조선 전국을 8도로 구분하여 각도에 이를 배치하였다.

69 제수——추천하지 않고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것.

70 천은을 숙사하고——임금의 은혜를 엄숙하게 사례하고.

71 감영——감사가 있는 청사 또는 청사의 소재지를 말함.

72 도임——지방관이 임소에 부임함을 이름.

73 강론——토론 또는 론평과 같음.

74 차설——옛날 소설에서 이야기를 계속할 때 쓰는 화두사. «이야기를 계속하면»의 뜻이다.

75 처사——학문을 가지고 벼슬하지 않은 선비.

76 별호——«이름»이나 «자» 외에 쓰는 칭호.

77 유점대사——유점대사라는 절에 있는 중을 존칭하는 말.

78 도학——소위 «도술»에 관한 학문.

79 선비——학문을 닦는 사람.

80 동주——함께 사는 것.

81 유점사——금강산에 있던 절 이름. 지금은 미제의 폭격에 파괴되였다.

82 비취정——정자이름. 비취라는 것은 원래 새의 이름인데 그 빛'갈이 청색으로 몹시 고운 빛'갈이다. 옥의 이같은 빛'갈을 또한 비취옥이라 하였다. 비취정이라는 정자 이름의 뜻은 따로 따져볼 것이 없다.

83 박색——얼굴의 모양이 아주 못 생긴 것.

84 천성이 현숙하고——타고난 품성이 어질고 단정하고.

85 고금지사——력사상 문제나 당면한 문제에 관한 일들.

86 절절히——매우 간절하게.

87 탄상——감탄하여 칭찬함.

88 명현군자——«현인군자»와 같은 뜻의 말. 즉 재주와 덕이 갖추어 있는 훌륭한 사람.

89 생——상대자에게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90 조정——봉건 시대의 황제와 왕이 나라의 정치를 다스리는 곳.

91 재상——임금의 보좌역으로 있는 정승판서 지위의 사람을 가리킴.

92 촌부의 하욤 없는 딸——시골 사람의 보잘 것 없는 딸.

93 련혼——혼인의 관계를 맺는 것.

94 신명——신을 지칭하는 말.

95 의관을 정제하고——옷과 갓을 단정히 갖추고.

96 청려——나귀.

97 통인——젊은이로 지방관 측근 심부름을 하던 직명.

98 사도——지방 장관에 대한 칭호.

99 갈건포의——칡으로 짠 베두건 베옷(벼슬이 없는 선비가 입었다는 옷).

100 당에 나려——당하(대청아래)에 내려가.

101 비인——상대자에게 자신을 낮추어 말한 것.

102 외람——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가리켜 말함.

103 상공——령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총칭이나 상대방을 존대하여 부르는 말로도 된다.

104 소회——품고 있는 생각.

105 선풍도골——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골격이란 말로 인물이 잘 생겼다고 한 말.

106 복은 용렬한 필부로——저는 못 생긴 한개 남자로.

107 성은을 입사와——임금의 은혜를 입사와.

108 일도——도는 리조 행정 구역의 명칭, 조선을 팔도에 구분하였었다. 일도는 한도라는 말.

109 방백——관찰사, 감사의 딴 이름.

110 주야 두리더니——밤 낮으로 두려워 하더니.

111 왕림——남이 나를 찾아옴을 말함.

112 포장——칭찬.

113 황감——황송하고 감격함.

114 소생——예전 시대에 존장에게 자기를 가리켜 이르던 일인칭인 대명사.

115 천견——변변치 못한 의견.

116 천리를 궁구하온즉——하늘 운수를 상고하여 보온즉.

117 령랑——다른 사람의 아들을 대접해서 하는 말.

118 부끄리는 바는——부끄러워하는 바는.

119 자질이 천한지라——타고난 바탕이 변변하지 못 한지라.

120 옥인군자——모양과 마음이 아름답고 덕행이 높은 사람.

121 지취——의지와 취향.

122 령녀——다른 사람의 딸을 대접해서 하는 말.

123 존명——높으신 지위의 말씀.

124 청포흑건——빛이 푸른 포도와 검은 수건.

125 공자——귀한 가문의 아이. 어린 자제를 가리켜 말한다.

126 재배——두번 절하는 것.

127 만고 영웅——세상에 류가 없는 재주가 비범하고 남자다운 인물.

128 출장입상——나아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 와서는 재상이 된다는 말. 곧 문무를 겸비한 사람을 말한 것.

129 길일——길한 날. 좋은 날.

130 대길——크게 길한 것. 매우 좋은 것.

131 술을 나아와——술을 가져다.

132 하직——웃 어른에게 작별을 고한 것

133 표연——모든 것을 떨쳐 버리고 훌쩍 가는 모양.

134 행보 경첩——걸음이 빠르고 홑가분하다.

135 신선——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살며 장생 불사술을 연구 실천 하였다는 신비화한 인간을 말한 것.

136 세자빈객——세자를 모시고 교도 하는 벼슬.

137 역마——«역»은 옛날 통신 교통 시설로 여기에 말과 역졸을 배치하여 두고 일정한 거리(참과 참 사이)를 빨리 달리게 하여 시간 단축을 도모하는 교통 시설.

138 정혼——혼인 약속을 정하는 것.

139 성례——혼례를 거행함을 말함.

140 인륜대사——인간 질서중 큰일 즉 혼사를 말함.

141 면약——직접 상대하여 약속하는 것.

142 궐하——임금 앞에.

143 금은 필백——금, 은, 천과 비단.

144 저기 번민하여——다소 번민하여.

145 선연——신선과의 인연을 말한 것.

146 존공——지위 있는 상대자를 높이는 말.

147 루지——자기의 사는 곳을 낮추어 가리켜 하는 말.

148 빈도——중의 자칭 대명사.

149 접족하기 어려우나——발을 들어 놓기 어려우나.

150 기화요초 란만한데——보기 드문 아름다운. 화초가 울긋 불긋 피여 있는데.

151 현판——당호나 또는 루각의 명칭을 써서 널조각에 새겨 가지고 정문이나 대청 전면 도리 우에 다는 간판과 같은 것.

152 양류——버들.

153 별유선경——세상에서 없는 선경중 경치 좋은 곳의 형용.

154 옥백서안——흰옥으로 만든 책상.

155 칠현금——일곱줄로 된 거문고.

156 은사——학문의 조예와 포부를 가진 사람으로 벼슬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

157 시녀——좌우에서 시종들고 있는 계집 아이.

158 상을 나와 보매——밥상을 가져와 보니.

159 찬품——음식의 품질.

160 소담——음식이 육부치는 없어도 담박하고 정결한 것.

161 진수성찬——맛이 좋은 잘 차린 음식을 가리켜 하는 말.

162 길복——혼례시에 입은 례복.

163 전안——혼인날 신랑이 신부집에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상우에 놓고 재배하는 례절.

164 행례——혼인 의식의 거행.

165 교배석——신랑 신부가 서로 절하는 결혼 식장.

166 옥상에 기러기를 전하고——옥으로 만든 상에 기러기를 전하고 즉 전안이다.

167 초례——혼인 지낼 때에 신랑 신부가 서로 술을 나누는 례식.

168 외당——외실과 같음.

169 천금옥녀——천금과 같은 딸 즉 귀한 딸.

170 길례——혼례.

171 복이 손할가 두리나이다——너무 복이 지나쳐 덜어질가 두려워 한다는 것.

172 겸양——자기를 낮추고 사양한 것.

173 용색이 미려하면——얼굴이 아름답고 고우면.

174 옥안박명——얼굴이 아름다우면 소위 용명이 좋지 못 하다는 말.

175 신방——신랑과 신부가 첫 날 밤에 자는 방.

176 침선기물——바느질 도구.

177 손오병서——중국 전국시에 명장 손무자와 오기가 지은 군사에 관한 서적.

178 륙도삼략——병법을 론한 서적의 이름 《륙도》는 6권인데 주대 강태공의 지음이라 하고 《3략》은 3권으로 되였는데 중국 전국 시대의 황석공의 찬술이라 함.

179 불인——몸에 마비성이 있어서 마음대로 쓰지 못 하는 것.

180 혹살천신——새까만 신장(귀신 장수)이라는 뜻.

181 염라부——지옥에 있다는 염라왕의 부중. 불교에서 온 말.

182 우두나찰——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지옥에 있는 소머리를 가진 귀신 군사.

183 혼백——넋.

184 비위——비장과 위장의 신경을 말함.

185 소자——부모에게 대하는 자칭 대명사

186 색——녀자의 고운 얼굴을 가리켜 말함.

187 부복——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는 뜻

188 요조가인——마음과 얼굴이 다 아리따운 녀자를 이름.

189 가초——가추 가추.

190 괴괴망칙——말할 수 없이 괴상한 것.

191 조물——옛날에 소위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내였다는 신.

192 홍모 같이——아주 가벼운 사물의 비유.

193 방자——꺼리김이 없이 제 멋대로 하는 것.

194 종고지락——금슬지락과 같이 부부간의 좋은 재미.

195 부자지의——아버지와 아들의 정의.

196 침소——사람이 사는 곳.

197 상경——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옴.

198 교자——«가마»라는 뜻이다.

199 사당——신주를 모신다는 집.

200 단장——화장.

201 폐백——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보일 때에 올리는 례물.

202 도법——도가의 방술.

203 조종——조상.

204 제갈무후——중국 3국시대 촉한의 승상 벼슬한 제갈량을 가리킴. 무후는 그의 사후 칭호.

205 공명——제갈량의 자다.

206 류황숙——촉한의 황제 류비를 가리킴.

207 팔문둔갑법——술가가 귀신을 부린다는 법.

208 호풍환우——바람과 비를 불러 일으키는 술법을 말한 것.

209 전수——전하여 받는 것.

210 삼국——공원 220—264 년간에 중국에 분립하던 촉한, 위, 오의 세 나라를 가리킴.

211 절충부인——제갈량의 부인 황씨를 찬양하는 칭호.

212 박대——소홀히 대접하는 것.

213 부명——아버지의 명령.

214 한말도 접어치 아니하니——한마디도 서로 응대치 아니하니.

215 현부——어진 며느리. 여기서는 며느리를 존칭해서 하는 말.

216 소부——시부모에게 대하는 자칭 대명사.

217 존전——어른 앞에.

218 유벽——한적하고 궁벽한 것.

219 후원——뒤 뜨락.

220 초당——안채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집 혹은 띄로 이은 자그마한 집.

221 대인——어른을 일컫는 말.
222 정지——처해 있는 정상.
223 가긍——불상하고 가엾다.
224 가인——집안 사람.
225 만만사례——여러번 고마운 뜻을 표하는 것.
226 시비——옛날 상전 옆에 가까이 모시는 계집 종.
227 청학 백학——푸른 학 흰 학.
228 서헌——외당과 같은 말.
229 노야——늙은 어른의 존칭.
230 서동——외당에 시중하는 아이.
231 당호——당우의 호. 집의 이름.
232 필재——글씨를 쓰는 솜씨.
233 필묵——붓과 먹.
234 룡연——룡을 새긴 벼루.
235 일필 휘지——단번에 글씨를 다 다루는 것.
236 필법——글씨 쓰는 법.
237 청룡——푸른 룡.
238 피화정——꽃을 헤치는 정자라 하였으나 장래 화를 피한다는 의미로 붙인 정자의 이름.
239 신미 맹춘——신미년 초봄.
240 취희당——비취 처사의 딸이라는 위미의 당호.
241 격절히 칭찬하여——말 마디 마디 칭찬하여.
242 기재——세상에 드문 재주.
243 엄친——남에게 대하여 자기의 아버지를 일컫는 말인데 때로는 남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로도 된다.
244 황감——황송하고도 감격하다는 뜻.
245 한홉지 아니리오——한탄스럽지 않으리오.
246 노복——사내 종.
247 분부——아래 사람에게 내리는 명령.
248 려각——지방 산물의 매매를 거간하고 또 물건 임자를 묵게 하는 곳. 여기서는 말 려각을 말한다.
249 계마——마구에 매여 있는 말.
250 비루——개, 말들의 피부에 생기는 기생충.
251 고이로다——«고이하도다»의 준말. 이상 야릇하다.
252 후가——두둑한 값.
253 마도위——말 거간의 두목.
254 중도위——장판에서 과실이나 나무 따위를 거간하는 사람. 때로는 말의 흥정도 붙인다.
255 중가——비싼 값.
256 분식——나누어 가짐, 나누어 먹은 것.
257 사온다——사왔느냐.
258 상전——종이 그 주인을 일컫는 말.
259 능사——능한 일, 일수.

260 벼락치는 하늘도 속인다——무서운 하늘도 속인다는 뜻이니 사람이란 남을 잘 속이여 믿기 어렵다는 말이다.

661 기망——남을 속이는 것.

262 종차——이다음에, 이로부터.

263 중죄——크게 저지른 죄.

264 수합——거두어 모아서.

265 사기를 말하고——사실을 말하고.

266 청정미——푸른 차좁쌀로서 양분이 가장 많은 것.

267 정당——대청이 있는 집채.

268 아미——미인의 눈섭.

269 모월 모일——아무달 아무날.

270 명 나라——중국 원 나라 다음에 일어난 주원장을 시조로 하는 1368—1643년간의 조대.

271 패문칙사——황제의 칙지를 쓴 문서를 가지고 온 특수 사절.

272 노자——종.

273 명국칙사——명 나라 임금의 칙명을 가지고 온 사신.

274 통사——역관. 통역.

275 천리 총——하루 천리를 갈 수 있는 말 즉 천리마.

276 국가 동량이 되여——한 나라 중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여.

277 성묘——공자의 사당 서울에는 성균관, 시골에는 향교가 있다.

278 배알——높은 사람을 뵈옵는 것.

279 경사 과거를 배설——국가가 태평하므로 특별 과거를 보인다는 뜻이다.

280 제구——여러가지의 기구.

281 과장——과거를 보이는 곳.

282 봉접——벌과 나비.

283 백옥연적——백옥 빛'갈의 백자 연적 연적은 벼루에 따르는 물을 넣는 문방구의 일종.

284 노닐다가——한가하게 이리저리 거닐다가.

285 여의주——보배구슬의 이름. 이 구슬이 있으면 일체의 보물과 의복, 음식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 한다. 불경에서 나온 말로서 룡이 지녔다는 구슬.

286 채운——채색 구름.

287 옥경——소위 하느님이 있다는 곳.

288 침상일몽——벼개 우에서의 한토막의 짧은 꿈.

289 소서헌——즉 작은 사랑 방을 말한 것.

290 아녀자——아이와 같은 계집.

291 가부——남에게 대하여 자기의 남편을 일컫는 말.

292 장중제구——시험장에서 쓸 여러가지 도구.

293 요망——언행이 괴이하고 경솔한 것.

294 수죄——범죄 행위를 세여서 드는 것

295 향곡——시골 구석.

296 치죄——허물을 징계하여 벌한 것.

297 매 삼십도——매는 사람을 치는 형벌이요. 30도는 설흔 번이라는 말.

298 락루——눈물을 흘리는 것.

299 련좌——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죄.

300 구차——불편하고 뜻대로 아니되는 것.

301 장원급제——갑과의 과거에 첫째로 급제하는 것. 즉 국가 시험에 최우등으로 합격하는 것.

302 립신양명——출세하여 이름을 날리는 것.

303 불관——관계하지 아니한 것.

304 고문거족——《명문거족》과 같은 말 명망과 세력 있는 량반의 겨레.

305 심지 온순하여——마음이 온화하고 순하여.

306 타문——다른 가문.

307 글제——글의 제목, 즉 시험 제목이라는 뜻.

308 문불가점——글이 썩 잘 되여서 한점의 흠이 없는 것.

309 방——시험에 급제한 사람들의 성명을 써서 내 거는 고시.

310 신래——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가리킴. 신참과 같은 말이다.

311 만인 총중——뭇 사람이 떼를 지은 속.

312 영준호걸——영명하고 준수하게 특별히 뛰여난 인물.

313 룡안에 희색——룡안은 임금의 얼굴. 임금의 얼굴에 기쁜 표정.

314 기자——기특한 아들.

315 보필——임금을 보좌할 사람.

316 어화——임금이 하사한 꽃인데 머리에 꽂는다.

117 청삼——경사 있을 때에 입는 웃옷.

318 풍악——피리, 젓대, 장구, 퉁소로써 합주하는 음악.

319 결문을 날재——대결문을 나올재.

320 금포옥대——비단 도포에 옥띠.

321 표연한 풍채——점잔하고 잘 생긴 얼굴.

322 장안——서울을 일컬음.

323 옥면 봉안——옥 같이 흰 얼굴과 가늘고 끝이 우에로 치켜든 봉의 눈. 인물이 잘 났다는 것.

324 어주——임금이 주는 술.

325 반취——술이 조금 취한 것.

326 진세——띠끌같은 세상이라는 뜻.

327 선랑——신선과 같은 젊은 청년 남자.

328 동구——동네로 들어가는 어구.

329 하회——다음의 차례.

330 분분——어지럽게. 시끄럽게.

331 파연곡——잔치끝에 부르는 노래 곡조.

332 촉불——양초와 밀초로 켜는 불빛.

333 천단——의견이 열고 부족한 것.

334 압두——첫째를 점령하는 것. 여기서는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말한 것.

335 유한정정——녀자의 침착하고 조용하며, 단정하고 조행이 있는 태도.

336 태사——옛날 중국의 고대사에 주 나라 임금 문왕의 비의 이름으로 어진 부인의 표본으로 된 것.

337 대부인——남의 어머니를 존칭해 부르는 말.

338 가중 대소사——집안의 크고 작은 일.

339 중인 연회——여러 사람들의 잔치 자리.

340 소비——계집종이 자신을 낮추어 하는 말.

341 흉화길복——흉악한 재화와 좋은 행복

342 자고로——예로부터.

343 홍안박명——젊은 이의 좋지 않은 운명.

344 은정——은혜와 애정.

345 행신——몸 갖는 행동.

346 가취——시집가고 장가들음. 여기에서는 시집온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임.

347 묘연——오래되여 기억이 아득하다.

348 망령——말과 행동이 주책 없다.

349 근친——출가하였던 녀자가 친정에 가는 것.

350 인마——인부와 말.

351 통달——거칠고 막힘이 없이 환히 통한 것.

352 행색——행동하는 태도. 여기서는 가는 모양.

353 루설——비밀한 일이 알려지는 것.

354 천수——이미 작정된 운수.

355 액운——난관에 봉착하는 운수.

356 복록——행복.

357 회포——마음 속에 품은 생각.

358 존구——남의 시아버지를 존칭해서 일컫는 말.

359 멍에——마 소의 목에 걸어 수레를 끌게 하는 가루나무인데 여기서는 구름을 타고 간다는 뜻이다.

360 가친——남에게 대하여 자기의 아버지를 일컫는 말.

361 주찬——술과 안주.

362 청풍이 소소하더니——맑게 부는 바람 산들산들 하더니.

363 계화의 첫가지——월계화의 첫가지. 과거에 장원급제하였다는 것.

364 옥당——홍문관 부제학 이하의 관원의 총칭.

365 현서——어진 사위.

366 묘맥——일의 내비치는 실마리.

367 진언——주문과 같음. 불교밀종의 주다라니 즉 비밀 진언이니 이것을 외우면 재해와 불상을 제거하며 신통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

368 면상——얼굴.
369 옥모경안——옥 같은 얼굴.
370 옥안주순——흰 얼굴에 붉은 입술.
371 천태만염——여러가지로 고운것.
372 랑군——자기 남편을 일컫는 말.
373 존고——시어머니의 존칭.
374 불효막대——아주 더할 나위 없이 부모를 섬기지 아니한 것.
375 천녀에 멸함이 없더라——천딸에 멸하지 않더라.
376 재덕——재주와 덕행.
377 병조판서——중앙 정부에서 국방과 수비, 경위, 의장들에 관한 일체 사무를 맡은 장관 정2품.
378 영욕——영화와 치욕.
379 왕사——이미 지나간 일.
380 퍼되——말을 고집어 내되.
381 혼암——어리석어서 사리에 어두운 것.
382 처복——안해를 잘 맞는 복.
383 승순——웃 사람의 명령을 잘 좇는 것.
384 발연변색——왈칵 성을 내여 얼굴 빛을 변한 것.
385 행로인——관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386 태심——극심.
387 해로——부부가 일생을 함께 늙는 것.
388 도시——모두.
389 천사만단——여러가지로 사정을 말하는 것.
390 군자의 체위——남편의 체면과 임격.
391 재상의 체도——재상의 체면과 지위.
392 경박소년——경솔한 젊은 사람.
393 혹지 아니하여——유혹되지 아니하여.
394 일향정기——한결 같은 정신과 체력.
395 심지——마음씨.
396 심곡소회——마음 속에 품은 생각.
397 설화——이야기.
398 고루 하거니와——아주 고집스럽고 더럽거니와.
399 선랑——신선 같은 녀자.
400 도량이 광원하시니——마음과 궁량이 한없이 넓으시니.
401 미미히——빙그레, 아주 가늘게.
402 금침을 포설하거늘——이부자리를 펴서 베풀거늘.
403 운우지락——남녀간의 사랑.
404 흡연——아주 흡족하게.
405 교칠——아교나 칠과 같이 잘 떨어지지 아니함의 비유.
406 화동——화목하게 한 것.
407 기골——혈기와 뼈대.
408 청수——얼굴 모양이 깨끗한 것.
409 넙더——바로, 곧, 이내.

410 가중제인——집안의 모든 사람들.
411 외임——지방관의 책임을 맡아 가는 일.
412 장색——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생업을 삼는 사람.
413 쌍교——쌍가마.
414 머리를 조아——땅에 엎드려 머리를 숙이는 것.
415 존당——부모를 존칭해서 하는 말.
416 백성의 질고——인민들의 고통.
417 각읍 수령——각 고을에 있는 장관들.
418 선악을 염탐하여——착하고 악한 것을 비밀히 조사하여.
419 봉고파식——어사 혹은 감사가 악정을 행하는 지방관을 파직시키고 그 관고를 봉쇄하는 것.
420 격양가——세월이 태평한 것을 부르는 노래.
421 선정——좋은 정치.
422 선정비——관원의 착한 정사를 기념하는 비.
423 송덕——공덕을 찬송하는 것.
424 탑전——임금이 앉은 자리 앞.
425 행공——공무의 집행.
426 교지——4품 이상 벼슬의 사령장.
427 북향사배——임금 있는 북쪽을 향해 네번 절하는 것.
428 경사——서울을 가리켜 말한 것.
429 인견——임금이 의식을 갖추어 관리를 불러 보는 것을 말한 것.
430 칭사——칭찬하여 사례하는 말.
431 애민선정——인민을 사랑하고 정치를 잘 다스린다는 말.
432 과인——임금이 겸손하는 자칭 대명사.
433 사은숙배——임금의 은혜를 사례하고 정숙하게 절하는 것.
434 퇴조——조회에서 물러 나오는 것.
435 내직——중앙 정부의 관서의 벼슬, 외직에 대치하는 말.
436 화기가 융융하매——즐거운 기분이 넘치매.
437 량위——두분.
438 시봉——부모를 모신다는 말.
439 구정——옛정.
440 어수지락——고기가 물을 만남과 같은 의가 좋은 즐거움.
441 남경——지금의 중국 남경.
442 가달——중국 북쪽에 있는 부족의 이름.
443 변경——국경 지방.
444 상사——사절의 우두머리.
445 경——임금이 2품 이상의 관원에게 대하는 이인칭 대명사.
446 가합——적합하다.
447 림 경업——인조왕 때 조선의 장수.
448 여력——근육의 힘.
449 지략——일을 잘 꾸미는 지혜.
450 무과——군사 지식에 정통한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

451 철마산——철마산의 오기인듯.
452 중군——지방 장관의 막하에 군무를 맡은 무관.
453 명천자——명 나라의 황제.
454 사신——임금의 명령을 받아 외국으로 심부름을 가는 신하.
455 황 자명——력사상 실재 인물은 아니다.
456 접빈사——외국 손님을 대접하는 벼슬.
457 표문——임금에게 표로 올리던 글. 표라 함은 문체의 하나로 46 문이라고도 한다.

458 례부——외교, 의례, 교육, 국가 시험 등 사업을 맡은 중앙 정부의 1 부서.

459 연향——국빈을 대접하는 잔치.
460 호국——북방 부족의 나라.
461 괘망지경——기울어지여 망해 빠질 지경.
463 상국——작은 나라가 조공하는 대국.
463 조발하사——군대를 보내주소서.
464 생령——인간들.
465 장사——기개와 힘이 굳센 사람.
466 청병대장——원조해 주는 군대의 총대장.
467 장략——장수로서의 지략.
468 수군병마——수군은 수륙의 오기인듯하며 병마는 군인과 말이란 뜻으로서 륙해 군대의 뜻이다.

469 대원수——총사령관과 같은 말.
470 상방참마검——상방은 궁중에서 쓰는 기물을 만드는 부서 이름이요 상방참마검은 상방에서 만든 칼로 말을 한 칼에 버힐 수 있는 잘 드는 칼로서 임금이 직접 군사 책임자에게 주는 칼.

471 선참후계——군률을 어긴 자의 목을 우선 버히고 뒤에 보고하라는 말.

472 전상——궁전 우에.
473 상빈례——제일 높은 손님을 대접하는 례절.
474 삼십여합——삼십 여차의 교전.
475 대갈일성——크게 한마디 꾸짖는 소리.
476 원비——길고 힘이 있는 팔.
477 본진——자기의 진지 군영.
478 상좌——웃 자리.
479 대연——큰 잔치.
480 장대——지휘하는 장수가 올라 서서 명령하는 높게 쌓아 올린 축대.

481 오랑캐——미개한 족속에 대한 경멸하고 모욕하는 명칭.
482 소방——작은 나라 즉 자기 나라를 낮추어 하는 말.
483 사로시면——살리시면.
484 이심——배반하는 마음.
485 전사——지나간 일.
486 백골난망——죽어 백골이 되여도 은덕을 잊지 못 한다는 말.

487 부마——임금의 사위.
488 왕비——임금의 안해.
489 공주——왕후가 낳은 딸.
490 영걸——영웅과 호걸.
491 풍도——풍채와 태도.
492 간택——선발한다. 고른다는 뜻.
493 명교——아버지의 가르치신 명령.
494 백년의탁——녀자가 남편에게 의탁한다는 말.
495 용납——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준다는 말.
496 봉행——명령을 준행한다는 말.
497 루각——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다락 집.
498 주렴——구슬을 꿰여 만든 발.
499 상법——소위 얼굴을 보고 운명을 말하는 방법.
500 목화——관복을 입을 때 신는 장화와 같은 신.
501 세치 포를 돋우고——«세치»는 «삼촌»이요 «포»는 «베», «돋우고»는 «더 포개 깔어»의 뜻.
502 천일지표——하늘에 해가 돋는 격.
503 룡봉의 형상——룡과 봉과 같은 뛰여난 기상.
504 와석종신——제명에 죽는다는 것.
505 하례——축하의 뜻.
506 소장——군관으로서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대명사.
507 복명——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 하는 것.
508 사은——은혜를 사례하는 것.
509 대공——큰 공훈.
510 고굉지신——국가에 팔 다리와 같은 핵심 신하.
511 위세——위엄이 있는 기세.
512 경출——경출하고 호출한 것.
513 과인——남보다 나은 것.
514 만부부당——많은 사람으로도 당할 수 없다는 말.
515 일습——옷 한 벌.
516 비수——날카로운 단도.
517 모후——후는 왕후의 뜻인데 왕후 어머님이란 말.
518 모로미——모름지기. 반드시.
519 색모——예쁘게 생긴 얼굴.
520 진위——참과 거짓 사실.
521 년기——나이.
522 풍신——풍채.
523 불계——시비와 리해를 가리지 않고.
524 외객——손님.
525 주효——술과 안주.
526 산보배——산호로 만든 술잔.
527 취안——술이 취한 얼굴.

528 주력——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힘.
529 흉덕——불량한 뱃장.
530 쏘이거늘——발사하는지라.
531 변화무궁——변화가 한이 없다는 말.
532 제어——제지하고 누르는 것.
533 혼비백산——몹시 놀래는 것을 가리키는 말.
534 대화——큰 재화.
535 자취——제가 제스른 일.
536 참람——분수에 넘치는 일.
537 층암절벽——높고 험한 바위 절벽.
538 각설——옛날 소설에서 서술을 바꿀때 쓰는 어투.
539 뇌성벽력——우뢰와 번개.
540 한식경——조금 긴 시간 즉 밥 한끼 먹을 동안.
541 영웅지재——영웅의 재목 즉 영웅의 감.
542 만조——온 조정.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
543 무재——재주가 없는 것.
544 용골대——청 나라 장수의 이름.
545 용홀대——청 나라 장수의 이름.
546 만조백관——온 조정안의 모든 벼슬 아치.
547 황제위——황제의 자리.
548 년호——봉전 시대의 중국과 일본, 조선에서는 황제가 새로 나면 반드시 년호를 정한다.

549 순치원년——력사상 후금태조 누르하치가 황제를 칭하고 년호를 천명이라고 건원한 것은 1616년, 리조 광해왕 8년 병진의 일이오, 순치원년은 병자호란 후 9년을 경과하여서이다. «순치»라는 년호는 임의로 설정한 것이며 력사상 실재한 것이 아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작자의 막연한 기억으로 순치원년이라고 붙였다고 볼 것이다. 물론 작품은 훨씬 뒤에 된 것이므로 그럴 수 있다.

550 정병——날래고 강한 군사.
551 전하——왕비의 존칭.
552 납월——섣달. 12월.
553 광주산성——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 산성.
554 대전——임금의 존칭.
555 왕대비전——생존한 선왕의 비의 존칭.
556 세자대군——왕위를 이을 왕자.
557 피화——화를 피한다는 뜻.

558 영의정——리조 관제에서 왕의 밑에 있는 제일 높은 벼슬 즉 정부의 수상격.

559 김 자점——인조 왕때 반정공신으로 평안도에 정반산성을 쌓은 사람.

560 좌의정——령의정의 차석 벼슬.
561 박 운학——력사상 실재한 사람은 아니다.

562 도승지——승정원이란 왕의 궁내 직속으로 왕의 정무 문건을 주관하는 기관의 우두머리 벼슬.
563 태평성대——착한 임금이 다스리는 태평한 시기.
564 패악——의리에 어그러지고 흉악함을 가리켜 하는 말.
565 성심——임금의 마음.
566 삭직——철직과 같은 책벌.
567 유예미결——주저하여 끝을 맺지 못 하는 것.
568 선연——신선처럼 펄펄 날라듬.
569 왕굴——왕림과 같이 내집에 온 것을 겸사로 쓰는 말.
570 간신——간사한 신하.
571 참소——간악한 말로 남을 헐 뜯어 웃 사람에게 고해 바침.
572 동가——임금이 대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 것.
573 망두서——무덤 앞에 세우는 한쌍의 돌로 만든 표신물.
574 일품——관등의 제일 품계.
575 일인지하에 만인지상——령의정을 가리키는 말.
576 직간——임금의 앞에서 곧은 말로 충고 한 것.
577 장원——길고 멀다.
578 불칙——자기 본분을 헤아리지 않고 참람한 생각을 하는 흉악한 심지를 형용하는 말.
579 질욕——꾸짖고 욕하는 것.
580 무류히——무료의 와음. 어색한 경우나 심심한 경우를 표현하는 말.
581 당두——가까이 닥치는 것.
582 류수——개성, 강화, 광주, 수원 등의 지방 장관의 특수한 직명으로 제 2 품의 벼슬.
583 태조대왕——리조 조선의 제 1 대 임금.
584 즉위——왕이나 황제가 자기 직위에 취임하는 것.
585 만조공경——온 조정의 3공과 9경의 전체 조정의 고관들.
586 헤오되——말하되. 생각하되.
587 어가——임금의 수레.
588 전언——전하는 말.
589 만성——온 성안.
590 병화——전쟁 때문에 일어난 화난.
591 창황——매우 급한 것.
592 지감——미리 앞 일을 내다 보는 지혜. 즉 선견지명.
593 철기——철갑을 입은 말을 탄 군사.
594 송파——려말인데 뚝섬을 건너 광주로 가는 중도에 있는 지방.
595 평원광야——편편하고 넓은 들.
596 진세——군진의 형세.
597 수문장——문을 지키는 장수.
598 호장——호국 장수.

599 삼백년 왕업——리 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때까지 대략 년수를 말한 것.

600 룡루——임금의 흘리는 눈물.

601 천수——소위 하늘이 정해 주는 운명.

602 산성 사문——남한 산성에 있는 동문, 서문, 남문, 북문.

603 방포——군중의 호령 군호로 총통을 놓는 것.

604 철환——총에 재여 발사하는 탄환.

605 자상천답——자기들끼리 서로 엎드러지고 밟는 것.

606 호곡——소리를 높여 슬피 우는 울음.

607 들데는지라——소란한지라. 들떠지는지라.

608 경황——놀래고 당황함.

609 화친——나라와 나라의 사이에 평화 조약을 체결한 것.

610 볼모——각국이 울국과의 약속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담보로 그 나라의 왕의 가족들을 울국에 맡기여 두는 것.

611 망극——한 없이 슬픈 것.

612 사직——옛날에 제후가 될 때에는 반드시 사직을 제사하여 나라와 존망을 같이 하였다. 그러므로 나라라는 뜻으로도 쓴다.

613 충신렬사——나라를 위하여 충절을 다한 신하와 절조를 굳게 지킨 선비.

614 가인——미인.

615 홍상채의——붉은 치마와 채색 저고리.

616 기치창검——큰 기 작은 기와 창과 칼.

617 영채——군영 즉 진터.

618 진문——진으로 드나드는 문.

619 사부가——량반의 집.

620 규문——부녀가 거처하는 곳.

621 완완히——천천히.

622 잔잉——잔인에서 온 말.

623 태화관——큰 화관인 듯.

624 금사화의——얇은 깁으로 만든 웃 옷.

625 촉금사만대——금실로 무늬없이 짠 띠.

626 용문자화금——금은 검의 오기인 듯. 검은 칼이 분명하나 룡문자화는 미상.

627 엄연히——식식하게. 여기서는 거만하게.

628 용봉 쌍학 투구——룡, 봉, 쌍학을 그린 투구.

629 황금사문갑——황금으로 장식한 배암 무왕 있는 갑 옷.

630 진홍보호대——새빨간 보호띠.

631 금강도——금강저란 것이 있는데 무엇이던지 깨뜨리지 못 하는 것이 없다 한다. 이로부터 칼 이름을 «금강도»라고 한 것이다.

632 검광——칼날 빛.

633 락담상혼——용기를 잃고 정신을 차리지 못 하는 것.

634 호기——장한 의기.

635 승전고——싸움에 이기고 치는 북.

636 왕십리——서울 동대문 밖 지금의 왕십리.
637 대발——몹시 성을 내여.
638 일월 국화관——머리에 쓰는 관의 이름.
639 홍금수라——붉은 비단 수 놓은 라단.
640 오색채화의——다섯가지 빛'갈을 가진 무늬 옷.
641 수욕——수죄하고 욕하는 것.
642 조양자 지백——중국 전국초에 조양자가 지백이란 제후를 멸하고 그 해골로 요강을 만들었다는 고사.
643 진상——임금에게 바치는 것.
644 철퇴——쇠 방망이.
645 호계——뜰 한 쪽에 흙을 한층 높게 쌓아 화초를 가꾸는 곳.
646 승승장구——싸움의 이긴 김에 죽 처나가는 것.
647 어두귀면지졸——괴상하게 생긴 얼굴과 탈을 쓴 보기에 무서운 군사들.
648 삼위——여기서는 세자대군 삼 형제를 가리켜 말한 것.
649 복지롱곡——땅우에 엎들여 소리를 내여 슬피 우는 것.
650 필마단창——단신으로 말을 타고 창을 들고.
651 좌하——편지를 받아 볼 사람을 높여서 쓰는 말.
652 신청——끝이 듣는 것.
653 오색운무채화의——오색 구름의 무늬의 옷.
654 선형——신선의 용모로 박씨를 존칭하는 말이였음.
655 쌍전——두가지 다 완전한 것.
656 세자사——세자의 선생.
657 하이시고——시키고의 옛말.
658 정경부인——정, 종 일품의 종친인데 여기서는 문무관의 안해의 품계를 말한 것.
659 직첩——관원의 임명서 즉 사령장이다.
660 보국숭록대부——정 1 품의 문무관의 품계명.
661 봉조하——종 2 품의 관원이 치사한 뒤에 우대하는 벼슬, 죽을 때까지 록을 받고 의식 때에만 출사하던 것.
662 봉하시니——대군, 군들의 작품을 내리시니.
663 촌공——조그마한 공로.
664 황공무지——매우 황송한 것.
665 위란지시——나라가 위태하고 어려운 때.
666 진하——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백관이 치하하던 것.
667 법사——법을 맡은 마을.
668 전지——상벌에 관한 왕지를 받아 그 마을에 전달하던 것.
669 충신문——충신을 표하기 위하여 세운 기념문.
670 일가정——일년에 한번씩 임금이 거동하는 정자.
671 행행——임금이 거동하는 것.
672 화류——꽃과 버들. 즉 풍경.
673 완상——구경하는 것.
674 의정부——제일 높은 행정 기관.

675 우의정——의정부의 정 1품의 벼슬. 제 2부수상 격.

676 대광보국——제 1품의 최고 품계.

677 충렬——충성스럽고 렬행이 있다는 것.

678 전임——전직.

679 훈련대장——군영의 하나인 훈련도감의 주장.

680 발행——길을 떠나는 것.

681 위의——위풍과 의식이나 여기에는 수종하는 사람과 차림을 가리키는 말.

682 황문시관——내시부의 관원.

683 표문——전출.

684 온공——온화하고 공손한 것.

685 일각이 삼추——기다리는 마음이 죄여서 짜른 시간이 긴 시간 같이 생각할 때 쓰는 말이다.

686 호제——청 나라의 황제를 나쁘게 말한 것.

687 호지——만주 지방.

688 절각——다리가 부러져.

689 여명——명령을 어긴 것.

690 전옥——죄인을 가두던 옥.

691 참연——참혹한 모양.

692 홍살문——릉, 궁전, 관아들의 앞에 세운 지붕이 없는 붉은 살을 우에 죽 박은 문.

693 간——임금이나 웃 어른에게 그의 잘못을 고치도록 의견을 말하는 충고.

694 친행——몸소 감.

695 애휼——불상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는 것.

696 번디쳐——몸을 뒤집다.

697 명초——왕명으로 신하를 부르는 것.

698 장독——곤장을 맞은 상처가 덧나는 것.

699 금부——금부는 정 3품 이상의 관원을 치죄하는 의금부의 준말.

700 군기시전——군기를 맡은 관아의 앞.

701 처참——목을 베여 죽이는 형벌.

702 교하고——교살 즉 목 매여 죽이는 형벌.

703 가장즙물——집안의 온갖 세간.

704 적몰——죄인이 재산을 몰수하는 것.

705 전교——임금의 명령.

706 권솔——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

707 령위——죽은 사람의 혼백을 모셔두는 위패.

708 설원——원통함을 푸는 것.

709 추증——죽은 사람에게 직위를 높여 주는 것.

710 시호——죽은 사람의 공덕을 칭송하는 아름다운 이름.

711 충렬공——충성하고 렬행이 있다는 뜻으로 공을 붙여 존칭한 시호. 이것도 작자가 마음대로 붙인 시호이오 력사상에는 충민공으로 되여 있다.

712 국구——왕후의 아버지.

713 기복출사——부모의 거상중에 출사하는 것. 옛날에 부모의 거상중에는 출사하지 안하였다.

714 제문——죽은 이를 조상하는 글.

715 례관——례식을 맡은 관원.

716 치제——신하에게 내리는 제사.

717 록——벼슬의 봉급.

718 성덕——임금의 어진 덕.

719 어후——임금의 건강 상태.

720 미령——병이 있어서 몸이 편하지 못 하다는 뜻.

721 승하——임금의 사망.

722 재위——임금의 지위에 있는 동안.

723 시년——그 당시 나이.

724 음양——소위 중국 도교 철학에서 말하는 사내와 계집, 해와 달, 숨은 것과 나타난 것으로써 사물의 근본을 설명하는 철학 용어.

725 사시를 순케하다——계절에 따라 정치를 집행하는 것.

726 인의——인은 사람의 사랑하는 정신이오. 의는 사람의 실천적 규범을 말한 것.

727 송도유수——송도는 지금의 개성, 개성 지방 장관.

728 청백——백성의 재물을 략탈 착취하지 않은 지방관에 대하여 쓰던 형용사, 즉 청렴하고 깨끗하다는 뜻.

729 옥수——옥 같은 나무라는 뜻인데 상대자의 자손을 찬양할 때에 옥수, 지란이라 한다.

730 기린——동양의 전설적 동물로서 어질고 행운을 상징하는 짐승인데 사람의 어진 자손을 존칭하는 말.

731 로승상——늙은 정승.

732 안전——눈 앞에.

733 호천망극——어버이의 은혜가 넓고 큼이 하늘과 같이 다함이 없다는 것.

734 천붕지통——제왕이 죽는 것을 말함인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애통해서 말하는 것.

735 혼도——정신이 아뜩하여 넘어진다는 것.

736 선산——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737 편전——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던 궁전.

738 쇠로——쇠약하여 늙어 보이는 것.

739 영효——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효도.

740 형조참판——법률, 소송, 노복들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중앙 정부의 1 부서의 차석 장관.

741 강장——원기가 왕성한 것.

742 망간——보름께.

743 수작——술잔을 서로 바꾼다. 서로 이야기한다의 뜻.

744 일장춘몽——봄 꿈과 같이 허망한 일.

745 영결——죽은 사람을 영원히 리별한다는 말.

746 황황망조——마음이 설레여 어찌할 줄 모른다는 뜻.

747 관록——관원에게 주는 봉급.

748 면면히——제가끔. 앞앞이.

749 발상——상제가 머리를 풀어 초상난 것을 발표하는 것.

750 부의——초상난 집에 물전이나 돈을 보내는 부조.

751 문충공——문장과 학행이 있고 나라에 충성했다는 죽은 뒤의 시호.

752 상례——상중에 행하는 모든 례절.

753 성복——초상이 나서 상복을 입는 것.

754 안장——장사 지냈다는 뜻.

755 여막——상제가 무덤 근처에 거처하려고 지은 초가집.

토끼전

1

천하에 큰 바다가 넷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동해, 서해, 남해, 북해라 불러 왔다.

이 네 바다에는 또한 각각 룡왕들이 있어서 물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동해 룡왕의 이름은 광연왕, 남해 룡왕의 이름은 광리왕, 그리고 서해 룡왕은 광덕왕, 북해 룡왕은 광택왕이였었다.

그런데 이 네 바다 룡 왕중에 다른 세 룡왕들은 별 탈이 없었으나 남해 광리왕만이 우연히 괴상한 병에 걸려 백 가지 좋다는 약은 모두 써 보았건만 하나도 듣지 않고 병세만 날로 악화되여 거의 죽기에까지 이르렀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광리 룡왕이 물 나라 신하들을 불러 모아 놓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가련한 내 운명을 어찌한단 말인고! 덕이 없는 한 몸이 이제 죽고 보면 해골이 북망산에 한 줌 흙을 보탤 뿐이겠으니 세상 영화와 부귀가 야속한 꿈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 허망한 일이로구나.

옛날 여섯 나라를 통합하여 그 권세가 하늘에 닿았던 진 나라 시황제도 죽음을 막아 보려고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으로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신령스런 〈불사약〉을 구해 오라고 총각 처녀 오백 명을 뽑아 정성을 들여서 보냈건만 떠나 간 사람에게서는 소식조차 가뭇없이 끊어지고 말았으며, 위엄이 천하에 떨치던 한 나라 무제라는 임금은 측백나무로 단을 높이 뭇고 이름을 〈백량대〉라 지은 다음 〈승로반〉이란 대접에다 이슬을 받아 마셨다지만 이제 려산(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곳)에 기울어지는 차거운 새벽 달과, 무릉(한무제의 무덤)을 스치는 가을 바람만이 쓸쓸할 뿐이로구나.

그렇거늘 나 같은 조그마한 임금이야 말할 나위 있겠는가. 대대로 전해 내려 오던 왕위를 애석히도 내여 놓고 죽을 일이 아깝구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유명한 의원을 널리 구하여 내 병 진맥을 자세히 하게 한 후 신통한 약을 얻어 써 보고 싶구나.»

이렇게 긴 한숨과 함께 다시 이르기를 «내 병세 이렇듯 위중하니 그대들은 충성을 다하여 한시 바삐 명의를 널리 구하여 나를 살리라. 정녕코 그대들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하라.»

말이 떨어지자 한 신하가 한 무릎 앞으로 나서며

«신이 듣사옵기는 월 나라 범(사람의 성) 재상이시나, 진 나라 장 대사마이시나, 당 나라 륙 처사는 오 나라와 초 나라 어간에 사시는 유명한 분들이라 하오니 이 세 사람을 청하여 모셔다가 물어 보시면 좋은 도리가 있을가 하옵니다» 하고 아뢰는데 모두 그 쪽을 바라 보니 이는 선조 때부터 충성스런 신하로 유명한 수천년 묵은 잉어였다.

광리왕이 이 말을 듣자 마음에 깨닫는 바 있었던지 즉시 선물과 함께 사신을 띄워 그들을 청하였다.

이리하여 며칠이 못 되여서 세 분 선생이 룡궁에 이르렀는데 왕이 〈수정궁〉 옥좌에서 세 사람을 친히 맞아들이는 품이 례의가 극진하고 애틋한 정성으로 가득찼다.

《세 분 선생께서 덕이 없는 나를 위하여 천리를 멀다 아니 하시고 루추한 이 곳까지 왕림하시니 감사함을 마지 않나이다》 하고 주인다운 인사를 하니 세 사람도 역시 공손하게.

《저희들은 먼지 낀 세상의 한낱 선비로서 벼슬과 번화한 것을 피하여 강 우에 비낀 달과 푸르른 산 정기를 사랑하면서 오 나라 초 나라 궁벽한 땅에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무정한 세월을 보내옵더니 천만 뜻밖에도 대왕의 부르심을 받삽고 외람히 룡안(임금의 얼굴에 대한 존칭)을 대하오니 황공하고 감격하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왕은 만족하여 매우 기뻐하면서 곧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펼치기 시작한다.

《과인(왕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 신수가 사나와 우연히 병을 얻은지 이미 여러 해에 병이 뼈 짬에 잠겨 좋다 하는 약이란 두루 썼으되 한 푼 효험이 없어 살 길이 아득하오니 바라건대 선생들은 큰 덕을 베풀어 죽게 된 목숨을 살리시면 하늘 같은 은덕의 만 분의 하나라도 갚을가 하나이다.》

처량한 왕의 목소리는 떨리기까지 한다.

세 사람은 듣고 나서 한참 동안 깊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입을 열어

《들어 보십시오. 대개 술이란 것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광약(미치게 하는 약)이요, 녀자를 너무 가까이 함은 사람의 나이와 목숨을 줄이는 근본이라, 이제 대왕

이 주색을 과히 하시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스스로 저지르신 그 후과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어떤 부질없는 사람은 말하기를 청춘 시절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도 하지만 이렇듯 중한 병에 한 번 들고 보면 옛날 화타나 편작 같은 유명한 의원이 다시 오더라도 병세를 돌릴 길이 바이 없사옵고, 금강초나 불사약 같은 신선 나라에 있다는 신통한 약이 산처럼 쌓였다 치더라도 효력을 얻을 수 또한 없사옵니다. 그러하오니 인삼과 록용을 밤낮으로 계속 복용하여도 아무 유익도 없사옵고, 재물이 여러 수레에 실어 나르도록 많다 한들 병과 바꿀 수 없사옵고, 용맹과 힘이 모든 사람보다 뛰여난다 할지라도 이를 막을 수 없사옵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하여도 하늘에 달린 대왕의 운명이 그 뿐이신지 병환을 돌이킬 수는 과연 어렵습니다» 하고 잘라서 말을 맺는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나자 새삼스레 다시 한 번 놀라며 또한 락망하는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듯이 길게 탄식하면서

«그러하오면 어이할 것인고! 슬프다 과인이 한 번 이 세상과 리별하고 적막한 북망산으로 돌아 가고 보면 어찌 다시 돌아 올 수 있을 것인가! 봄 삼월 활짝 피는 복숭아꽃 배꽃이나, 사오월의 푸른 그늘과 향긋한 풀, 팔구월 노란 국화, 붉은 단풍, 동지 섣달 눈 속에 피여나는 매화며, 삼천 명의 아릿다운 궁녀들을 헌신 같이 다 버리고 죽음의 황천'길 나그네가 될 터이니 이 아니 슬프지 아니한가. 어찌하든 세 분 선생께서는 신통한 재주를 다하여 비록 효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마지막으로 약 이름일망정 일러 주시오면 죽어도 한이 없을가 하나이다» 하며 눈물이 비오듯 한다.

세 분 선생이 룡왕의 애원하는 말을 들으면서 빙긋이 웃더니

«대왕의 병환은 심상치 않은 증세입니다. 대개 온갖 병에 그 형세를 가리여서 약을 써야 하는데 독감에는 시호, 백작약, 지실로 달인 ‹시호탕›이란 해열제를 써야 하고, 떨리며 열이 있고 식은 땀이 나는 데는 인삼과 당귀와 백출을 섞어 달인 ‹보음 익기전›이란 탕약을 써야 하고, 열병에는 ‹승마 갈근탕›을 써야 하며, 원기 부족에는 ‹륙미 지황탕›을 써야 하고, 체증에는 위를 보하는 ‹양위탕›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눈'병에는 ‹청간 명목탕›, 다리'병에는 소 무릎을 끓인 ‹우슬탕›, 풍증(신경통)에는 ‹방풍 통성산›(방풍은 병풍나물)이 특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들이 대왕의 병환에는 하나도 쓸모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한 가지 있기는 있사오나 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옵니다» 하니 룡왕은 이 말에 안타까움이 폭발하여

«천금도 가볍다 할 것이니 부디 나를 살려 주오» 다급하게 애원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토끼의 생간입니다. 그 간을 얻어 더운 김에 잡수시면 효험을 보시리다. 그러나 물 나라 수궁에서 토끼 간을 어찌 구하리까?»

광리왕은 두 눈이 번쩍 뜨이나 의심 절반으로 여전히 애원하듯 묻는다.

«토끼 간이 어찌하여 과인의 병에 그처럼 좋다 하시나이까?»

세 사람은 일제히

«토끼라 하는 것이 천지가 처음 갈라진 후에 음양조화로 된 짐승으로서 산은 양이요, 물은 음이라, 만약 대왕이 토끼의 생간을 얻어 쓰신다면 음과 양이 서로 화합하는 것이 될터이니 그러하므로 신효하다 하는 것이올시다» 하고 말을 마치자.

«우리들은 록수 청산을 즐기는 벗님네와 무릉 도원에서 꽃놀이를 하기로 약속이 되였삽기로 정회를 다 펴

지 못하옵고 떠나 가오니 바라옵건대 대왕은 옥체를 천만 보중하옵소서.» 이렇게 인사'말을 남기고 섬'들에 내려 서더니 ‹백운산›을 향하여 가뭇없이 사라졌다.

2

광리왕은 세 사람을 떠나 보내자 즉시 모든 신하들을 모아 놓고

«과인의 병에는 아무런 명약도 소용 없고 오직 토끼의 생간만이 신효하다 하니 누가 능히 인간 세상에 나아가 토끼를 사로잡아 올고?» 하고 명령한다.

이 때 문득 한 대장이 한 걸음 앞으로 썩 나서며 아뢰기를

«신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한 번 인간 세상에 나아가 토끼를 산 채로 잡아 오리이다.»

모두 바라 보니 머리는 두루주머니 같고 꼬리는 여덟 갈래로 갈라진 수천 년 묵은 문어였다.

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그대의 용맹은 과인이 아는 바라, 그대는 충성을 다하여 급히 인간 세상에 나아가 토끼를 사로잡아 오라. 그러면 공을 크게 갚으리라» 하고 그를 먼저 문성 장군으로 높이려 할 때, 문득 한 장수가 뛰여 내달으며 크게 소리쳐 문어를 꾸짖기를

«문어야, 아무리 몸'집이 우람하고 위풍이 약간 있다 하기로니 말'재주 없고 궁리가 부족한 네가 무슨 공을 이루겠다 하느냐? 또 인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 영락 없이 잡아다가 요리조리 오려 내여 국화송이나 매화송이 모양의 각 가지로 아로새겨서 혼인 잔치며 환갑잔치 큰 상에다 장식물로 요긴하게 쓸 것이요, 량반들의 술'상 우에 놓는 입가심으로나 어린아이의 이'발과 이'몸을 굳게 하기 위해 저고리 고름에 달아 주는 데와 술'군

들의 술안주에 네 고기가 제격으로 될 것이니 무섭고 두렵지 아니하냐?

나로 말하면 세상에 한 번 나아가는 날에는 적을 일곱 번 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 심복케 하던 제갈 량과 같은 무궁무진한 계교로써 토끼를 잡아 오기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할 것이다»라고 장담한다.

그리로 모두들 시선을 돌려 보니 이는 수천년 묵은 자라인데 그의 별호는 별주부였었다.

문어는 자라의 욕설과 호통을 듣고 나니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듯 치솟아 두 눈을 부릅뜨고 그 많은 다리를 가닥가닥 벌리고 검붉은 대가리를 설설 흔들면서 우뢰 같은 소리로 꾸짖는다.

«하찮은 별주부야. 너 내 말을 들거라. 너 같은 기저귀에 싸인 어린아이가 감히 어른을 업수이 여기니 이는 소위 범 모르는 하루 강아지 격이로구나.

네 요망한 죄로 말할 것 같으면 태산이 오히려 가볍고 바다가 열을 지경이다. 네 모양을 볼작시면 기괴망측하여 우습기 짝이 없구나. 사면이 넓죽하니 나무접시라, 계교로 말하더라도 저 같은 작은 속에 들었으면 오죽하랴. 너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우기만 한다면 영락없이 움켜다가 괄괄 끓는 물에 삶아 내여 자라탕을 만들어서 별 맛으로 마실 것이니 네 무슨 수로 살아 돌아 온단 말인가?»

자라가 이 말을 듣자 이번에는 타이르듯이 꾸짖는다.

«너는 실로 우물 안의 개고리처럼 오직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옛날 중국 춘추 때 오 나라의 오자서 같은 남보다 뛰여난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서도 칼에 베여 죽었으며, 초 나라 초패왕의 그 힘과 그 용기로도 해하성 싸움에서 패하였으니 미욱한 네 용맹이 내 지혜를 당하겠느냐?

내 재주를 들어 보아라, 새파란 하늘에 구름 뜨듯, 미친 바람에 락엽 뜨듯, 만경창파 깊은 물에 두둥실 떠서 앞발 뒤'발을 바투 끼고 긴 목을 힘껏 움츠리고 넙죽이 엎드리면 둥글둥글 수박 같고 편편 넓적한 솥뚜껑으로 뵐게 아니냐? 그러며는 나무 베는 초동이나 고기 낚는 어부들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니 든든하기 태산 같고 평안하기 바위 같다. 남 모르는 신통한 계교를 다 말할 것 까지도 없다마는 륙지에 이르러서 토끼를 만나서는 그를 잡을 계교 더욱 신통하단 말이다. 옛날 광무 군(벼슬 이름) 리 좌거가 초패왕을 꾀이던 수단으로 간사한 토끼를 잡아 올 이 내가 아니고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네가 어찌 지혜 있고 계교 많은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문어는 눈을 꿈벅거리며 듣고 보니 그 말이 과연 옳았다. 할일 없이 뒤통수를 툭툭치며 흔들흔들 물러 나니

룡왕이 별주부의 손을 잡고 친히 술을 부어 권하면서 칭찬하여 마지 않는다.

«그대의 지혜 있는 말 솜씨는 진실로 놀랍구나. 그대는 충성을 다하여 부디 공을 이루어 가지고 쉬이 돌아오라. 그러면 부귀 영화를 대대로 누구게 될 것이다.»

자라는 다시 겸손히 아뢰기를

«소신은 물 속 룡궁에서만 살아 왔고 토끼는 산중에서 사는 짐승이므로 그 모양을 알 길이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화공을 불러 토끼의 화상 한 폭만 그리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였다.

룡왕은 그 말을 옳이 여기고 즉시로 궁중에서 그림을 맡아 보는 ‹도화서›에 명령하였더니 여러 화공들이 모여 들었다. 인물을 잘 그리는 모연수(초상화를 잘 그리던 한 나라 때 화가)며, 산과 물을 잘 그리는 오 도자(당 나라 때 화가)며, 룡 그림에 명수인 리 장군 같은 여러 화가들이 둘러 앉아 토끼 화상을 그리려고 문방 사

우(종이, 먹, 붓, 벼루)를 차려 놓는데 벼루로는 금모
래 밭 맑은 물 우에서 앙금 비뚝 기는 거북 모양의 거북
벼루, 람포땅 청석으로 만든 룡을 아로새긴 룡 벼루와
금강산 마하연에서 나는 이름 높은 벼루며, 복숭아 꽃
빛'갈의 특유한 홍도연이란 벼루들을 벌려 놓았고 먹으
로 말할 것 같으면 해주에서 나는 ‹부용당›, ‹수양 매
월› 같은 이름 있는 먹과 룡을 임의 모양으로 만든 먹
들이 느런히 놓였는데 족제비털로 만든 속을 박지 않은
‹황모 무심필›과, 양의 털로 만든 ‹양호필›과 중국 남조
때 이름 높던 강엄이란 사람이 쓰던 화필이며, 동한 사
람 반고의 력사를 짓던 희기한 붓들을 위시하여 유서
깊고 이름 있는 붓들이 가지런하다. 종이의 종류에 있
어서도 역시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 ‹백면지›, 강원도 평
강에서 나는 ‹설화지›, 전라도 전주에서 나는 얇고 질긴
‹죽청지›, 전라도 순창에서 나는 희고 질긴 ‹선자지›
(특히 부채 만드는 데 쓴다), 충청도 청풍에서 나는 두
껍고 품질이 좋은 ‹청간지›(편지 용으로 쓰는 종이),
당 나라에서 만든 ‹당 두루말이지›, 전라도에서 나는
‹분주지›(종이를 뜰 때 쌀'가루를 뿌려서 굳힌 두루말
이 종이), 시를 지을 때 사용하는 ‹화전지›, 서화에 쓰
는 ‹옥판지›가 눈부신데 ‹잇다홍›(명랑한 붉은물'감),
‹당주홍› (중국에서 온 적색과 황색의 간색), ‹당청
화›(중국에서 온 옥색 물'감), ‹이청› (백색과 군청의
간색)이며, ‹땅갈매›(검푸른 심록색), ‹양록›(유록색),
‹취월›(청록색), ‹석자황›(계관석이라고도 함—투명한
등홍색에 반질반질한 윤이 나는 광물 자황에서 홍색과
백색 물'감이 난다), ‹도황›(등황석에서 뽑는 등색),
‹황단›(황단나무 껍질에서 나는 황색), ‹석간주› (검
붉은 색. 단사, 주사, 진사, 은주라고도 함). ‹도화분›
(연분홍), ‹금박›, ‹은박›, ‹류탄› (버드나무 숯)등
각색 물'감이 또한 찬란하였다.

여러 화가들이 토끼 화상을 차례로 그리는데 한 가지씩 맡아서 그리기로 하였다.

천하의 명산과 경치를 바라보던 토끼의 눈을 그리고, 두견새, 앵무새 지저귀는 소리에 솔깃하던 귀 그리고 난초와 지초며, 온갖 향기로운 꽃들을 따서 먹던 입을 그리고, 동지 섣달 눈보라를 막아 주던 털을 그리고, 높은 뫼뿌리와 깊은 산'골짜기 가로 세로 뛰던 발까지 모두 그리고 나니 두 눈은 또렷또렷, 앞다리는 짤막, 뒤'다리는 길쭉, 두 귀는 쫑긋, 이렇듯 완연한 산토끼가 되였다.

광리왕이 토끼 화상을 이윽히 보더니 매우 만족해 하면서 여러 화백들에게 황금과 비단으로 상을 준 다음 그 그림을 자라에게 내여 주면서 룡왕이 천 날을 지냈다는 희귀한 천일주를 친히 옥잔에 가득 부어서 세 번이나 련거퍼 주며 말하기를

《과인이 이제 그대를 먼 길에 떠나 보내게 되매 깊이 서린 정회를 금할 수 없노라. 내 병중의 몸이지만 정신을 가까스로 가다듬어 한 수의 시를 지어 그대를 전송하노니 그대는 과인의 이 뜻을 짐작하라》 하고 한 폭 비단에 친필로 시 한 수를 지어 주는데 그 뜻을 말하면,

—그대의 떠나는 길이 나로 하여 자연 재촉케 되는구나. 그럴진대 흰 구름 흐르는 물 저편 아득한 먼 길에 청산 령약을 부디 얻어 오기 바란다는 것이였다.

자라는 황공하여 두 손으로 받아 들고 수 없이 머리를 조아려 왕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한다면,

—떠나는 외로운 신하의 한갖 마음은 오로지 령약에 있으니 만일에 토끼를 사로잡지 못 하면 죽어 돌아 오지 않겠다는 것이였다.

룡왕은 자라의 충성어린 한 편 시를 받아 들고 만족한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칭찬하며 말하기를

《그대의 붉은 충성이 이 시 가운데 나타났으니 토끼를 얻어 데리고 돌아 올 것은 틀림 없는 일이라 부질 없이 근심할 것 없도다》하고 자라의 글을 여러 신하들에 보이였다.

3

자라는 왕께 하직하고 토끼의 화상을 지니고 막상 길을 떠나려고 하니 등에 지고 가자면 물에 젖을가 걱정되여 이윽히 생각하던 끝에 오므렸던 목을 다시 길게 뽑아 늘인 다음 한 편에 집어 넣고 도루 움츠리니 십상 제법이므로 한 근심이 덜리는지라 집으로 들려 안해와 자식들과 작별을 하는데 자라의 안해는 눈물이 글썽글썽하여 더듬는 말소리로

《인간 세상은 위태한 땅이라 하오니 부디 조심하여 큰 공을 세워 가지고 무사히 돌아 와 기쁘게 서로 만나 뵈옵기 천만 축수하나이다》 하고 신신 부탁하는 것이였다.

자라는 그래도 대장부인지라 마음을 굳게 먹고

《목숨이 길고 짧은 것과 길하고 흉한 것은 하늘에 달렸으니 임의로 못 하는 것이라 다녀 올 동안에 늙으신 부모와 어린 자식들이나 잘 보호하여 안심케 하라.》 이르고서 행장을 꾸려 가지고 만경창파 깊은 물에 몸을 내맡기였다.

자라는 한동안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정처 없이 흐르다가 한 곳에 이르러 륙지를 바라보고 기여 올라 푸른 계곡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들어 갔는데 바로 꽃들은 활짝 피여 있고 산'새 소리 류량한 봄철이였다.

이름 모를 온갖 풀과 나무들에는 새 싹이 돋아 나고 길'짐승, 날'짐승들이 봄'빛을 저마다 즐기였다. 활짝핀 진달래는 향기를 떠였으며 범나비들은 쌍쌍이 봄'기운에 취하여 이리저리 날아 다닌다. 버들'가지는 하늘하늘 시

내'가에 휘늘어지고, 금'빛으로 단장한 꾀꼬리는 고운 소리로 벗을 부르면서 봄을 즐기는데 꽃 사이에 잠들었던 학은 가냘핀 꿈에서 놀라 깨여 나무가지로 날아 앉는가 하면 접동새는 구슬픈 듯한 노래로 화답한다. 이야말로 즐거운 별세상이다.

소상강의 기러기는 가노라고 하직하고 강남서 날아온 제비들은 왔노라고 재잘재잘 인사하며 조팝 나무에서는 피죽새가 울고, 함박 꽃에서는 뒤웅벌이 윙윙거린다. 방울새는 딸랑딸랑, 물레새는 짜깍짜깍, 접동새는 접동, 뻐꾹새는 뻐꾹, 까마귀는 골각, 비둘기는 꾸꾸 모두가 봄'빛 일색이다.

기이한 산'봉우리와 깊은 골짜기들에는 꽃들로 붉은 포장을 두른 듯하고 앞시내와 뒤'시내에는 흰 비단을 펼친 듯 현란한데 푸른 대나무와 소나무들은 절개를 자랑하며 복숭아꽃 살구꽃은 순식간에 봄이로구나.

깍아 지른 듯한 절벽 사이로 이 골물 저 골물이 합쳐 내리 쏟는 폭포의 장쾌함은 또한 경치 중의 절경이였다.

자라가 산천의 무한하고 오묘한 경치에 취하여 맑은 물 소리를 따라 산'길을 더듬어 올라 가면서도 토끼를 행여 만날가 살피는데 한 곳을 바라보니 온갖 짐승이 봄'빛에 겨워 내려 오고 있다.

다람쥐, 노루, 사슴, 이리, 승냥이, 곰, 산'돼지, 너구리, 고슴도치, 범, 주지(사자의 고어), 원숭이, 코끼리, 여우들이 좌우로 잇닿아 오는 중에 토끼만이 보이지 않아서 자라는 움츠렸던 목을 길게 늘여 이리저리 살피느라니 뒤쪽으로 한 짐승이 내려 오는데 토끼 화상과 비슷하여 바삐 화본을 꺼내여 맞춰 보니 영락 없는 너로구나.

자라가 혼자 마음에 기쁨을 못 이겼으나 그래도 참인가 다짐하며 할 즈음에 그 짐승의 거동이 또한 불만하

였다. 풀'잎도 뒤적이는가 하면 금시에 몸을 돌려 싸리순도 뜯어보고, 깎아세운 듯한 바위 사이로 이리저리 묘하게도 뺑뺑 돌기도 하고, 핼긋핼금, 강충강충 뛰기도 한다.

자라는 이윽히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가다듬어 점잖게 말을 건넸다.

«기이한 산세에 그대 모양 더욱 좋다. 저 친구 토(토끼)선생이 아니신가? 나는 본시 수궁의 호걸로서 좋은 벗을 얻고저 두루 구하더니 오늘이야 산중의 호걸을 만났도다. 기쁜 마음 그지 없어 청하노니 선생은 부디 친구됨을 허락하소서.»

토끼는 자기를 대접하여 부르는데 솔깃해서 가장 점잖은 체 하면서 대답을 한다.

«그 누구신데 나를 찾는고? 산 높고 골짜기 깊은 경치 좋은 이 강산에 나를 찾아 온 분 그 누구신고? 수양산의 백이 숙제[1]가 고사리 캐자고 나를 찾는가? 소부 허유[1]가 영천수에 귀를 씻자고 찾는가? 부춘산의 엄자릉[1]이 밭 갈자고 나를 찾는가? 상산의 벗님네[1]가 바둑 두자고 나를 찾는가? 굴원이 물에 빠져 건져 달라고 나를 찾는가? 시의천자 리태백이 글 짓자고 나를 찾는가? 안기생[1]과 적송자[1]가 약을 캐자고 나를 찾는가? 한 나라의 류황숙[1]이 모사가 없어 나를 찾는가? 적벽강의 소동파[1]가 배'놀이 하자고 나를 찾는가? 그 뉘신가요?» 하고 두 귀를 쫑깃하고 네 발을 재게 놀려 가까이 와서 보더니 둥글넓적하고 시꺼먼 것이 엎디여 있는 것 같아 괴상하게 뵈였던지 잠시 주저하는 모양이다.

자라는 더 가까이 오라고 청하자 토끼도 생각을 고쳐 잡고 첫 인사들을 한 후에 산중이라 도토리 담배'대에 싸리순 담배를 꺼내 놓는다.

자라가 먼저 말을 꺼내였다.

«토끼님의 높으신 이름을 일찌기 들은 후로 한 번 보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오늘에야 그대 호걸과 서로 만나게 되니 어찌 이다지도 늦을가? 그것을 한할 뿐입니다.» 인사가 자못 정중하였다.

토끼는 대답하기를

«내가 세상에 나서 넓은 천지를 돌아 다니며 많은 분들을 만나 보았지만 그대 같이 못 생긴 인물을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요. 담'구멍을 뚫다가 학치뼈(정갱이뼈)가 빠졌는지 발은 어찌 그리도 몽뚝한가요? 량반 보고 욕하다가 상투를 불잡혀서 목을 뽑히였는지 또 목은 왜 그다지도 긴가요? 그러다 보니 등은 밟혀서 넓적한지 똑 나무접시 모양 같구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대 성함은 누구라 하시오? 들읍시다. 아까 한 말은 다 롱담이니 노엽게 듣질랑 말으셔요» 하고 조롱인지 비양인지 모를 인사'말을 다시 꺼낸다.

자라는 이런 말을 듣자 마음이 불쾌하였으나 앞뒤'일을 생각하고 억지로 참고서

«내 성은 별이요, 호는 주부입니다. 그대가 지금 말하는 내 등이 넓은 것은 물에 떠 다녀도 가라 앉지 않게 함이고 발이 짜른 것은 땅으로 걸어 다닐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편리하게 마련된 것이지요. 긴 목으로 말하더라도 먼 데를 살펴 보는데 그 아니 좋겠소. 또 몸이 둥근 것은 점잖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나라의 영웅이요, 물'고기 중에서 어른이외다. 세상에 문장과 용맹을 갖추 가진 인물은 아마도 나 뿐인가 합니다» 하고 능지게 말하였다.

토끼는 이번에는 대답이 달라진다.

«내가 세상에 나서 여러 가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죄다 겪어 보았지만 듣고 보니 그대 같은 호걸을 만나는 것은 지금 처음인가 합니다.»

자라는 다시 묻기를

«그대 나이 지금 얼마나 되기에 그다지 경력이 많다 하시오?» 하자 토끼는 곧 대답한다.

«내 나이로 말할진대 환갑을 몇 번이나 지났는지 세기조차 힘드는 터이니 그로써도 짐작할 만 하지 않은가요. 소년 시절에 달 나라에 가서 계수나무 밑에서 약 방아를 찧다가 항아 아가씨가 불로초를 구하러 오셨기에 그 때 내가 구해 주었으니 이것으로 꼽아 본다면 서왕모가 가꾸던 반도[2] 세 개를 훔쳐 먹고 환갑[3]을 3천 번이나 지내도록 살았다는 동방삭이도 내게는 아래'사람이요, 은 나라 때 그의 나이가 칠백 예순 일곱 살이였다고 하여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는 팽조를 손 꼽지만 내게 대면 아직 입 가에서 젖 비린내 나는 나이 폭 밖에 못 되지요. 이런즉 내 그대에 대면 참으로 아버지'벌이 될 것이지요.»

자라는 이 말을 듣자 어이 없어서

«그대의 말이야말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나, 우선 나의 지난 경력이나 한 번 대강 들어 보고서 따집시다. 모르긴 하거니와 아마도 깜짝 놀랄 것이외다. 자, 들어 보시우.

태고 시절에 처음 세상에 나온 반고씨 생일 날에 선물을 드린 것이 바로 나지요. 다음 일만 팔천 살을 살았다는 고대의 천황씨가 왕위에 오를 적에 술 안주로 생선을 바친 것도 나외다. 련이어 지황씨란 임금도, 인황씨란 임금도 모두 일만 팔천 살씩 산 분들인데 그 분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일이 내 기억에 어제 같이 새롭습니다. 처음으로 나무'가지 우에다 사람이 살도록 둥지를 마련해 준 분이 유소씨이고 불을 발견하여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가르친 분이 수인씨인데 그분들은 그 일을 나와 함께 의논했던 것이외다. 그 뒤를 내려 오면서 복희씨란 분이 고기 잡이와 목축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그 때 내가 옆에 있었고 복희씨의 누이로서 처음으로 생황이란 악기

를 만들고 또 혼례하는 법을 정한 녀와씨란 녀왕이 공공씨와 싸울 때 공공씨가 하늘 기둥을 무너뜨려 쪼각난 하늘을 오색 돌로 기울 적에 그 돌을 다듬은 사람이 바로 나였지요. 그뿐인가요 신농씨가 농기를 만들어 농사를 가르칠 때나 온갖 풀을 맛 보아 가면서 약을 만들어 병을 고칠 적에 내가 이 일에 참견하였더랬소. 배와 수레를 만들어 교통을 편리케 한 헌원씨 때는 내가 목수 일을 맡았고, 요 임금과 순 임금 때 천하가 태평하여 노래 소리가 사방에 가득하던 그 즐겁던 일이 아직도 어제인 듯 새롭습니다. 9 년 동안이나 계속한 험악한 홍수의 물'곬을 잘 돌리여 재해로부터 나라를 안정시킨 우 임금의 공로를 찬양하는 글을 지은 것도 나요, 그 반대로 탕 임금 때는 7 년 동안이나 내리 가물었는데 정성을 들여 비를 빌던 일이며, 주 문왕과 주 무왕이며 주공이 례법을 존중케 하여 나라를 흥성하게 하던 일이 바로 눈 앞에 삼삼하외다.

지금도 내 마음에 한 가닥 한이 되는 것은 굴원 선생이 나라는 어지러워 가고 암둔한 임금은 충성스런 말을 듣지 않으므로 자기의 뜻을 글로써 노래하고 멱라수에 빠져 죽을 적에 바로 서해 바다에 구경 갔던 내가 그 때 이를 구해 내지 못 한 것이외다.

내 지난 경력은 대강 이만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이로써도 내가 그대의 몇백 곱절 웃어른이란 것쯤 아실만 하겠지요?» 하더니 곧 말을 눅쳐

«그러나 저러나 지난 일은 다 걷어 치우고 세상 재미 있는 일이나 서로 이야기하여 보세. 이제부터 허물없이 친하게 말을 주고 받기로 하세나» 하고 너스레를 치는 것이였다.

토끼도 이번엔 싹싹하여져서

«내 인간 세상 재미를 말한다면 그대는 너무 재미가 나서 그만 듣다가 오줌을 쌀 것이네. 그러면 저 둥글넓

적한 몸이 오줌에 빠져서 배'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헤여 나오질 못 할 것이니 불쌍하여 어디 보겠는가?》 하고 롱말로 건네였다.

자라는 껄껄 웃으며 대꾸한다.

《허튼 자랑만 말고 어서 이야기나 하게나.》

토끼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산'봉우리가 칼날 같이 하늘에 꽂힌 그림처럼 절묘하고 그악스런 산들이 둘린 곳에 앞으로는 시내가 흘러 사방 곳에 봄'빛이 가득하고 여름철엔 시시각각으로 조화를 부리는 구름 떼가 뒤'산 우에 뭉게뭉게 피여 오르는 무르익은 경치 속에 좋은 터전을 닦아 깨끗한 초당 한 간을 지였는데 반 간은 맑은 바람을 안고 반 간은 밝은 달이 가득히 비껴 드는구나. 가지런한 흙 섬'돌과 푸른 대나무로 엮은 울타리도 정갈스럽거니와 학이 울고 봉황새 나는 뒤'뫼에서 약을 캐고 앞내에서는 물'고기를 낚아 생활을 즐기는 흥취야 말로 무엇에 비길 것인가! 가없이 푸르고 맑은 하늘에 걸려 있는 밝은 달이 조용히 은실 같은 달'빛을 드리우는데 한가히 오락가락하는 구름 떼가 기이한 산'봉우리들과 깊은 골짜기들의 그림자를 바꾸는구나. 이야말로 신선이 산다는 곳과 무엇이 다르랴!

내 몸은 저 구름 같아서 세상의 시끄러움이 미치지 않으니 나를 이렇다 저렇다 할 자도 없지 않은가! 추위가 지나 가고 더위가 돌아 오면 시간이 흘러 철이 바뀌임을 알 뿐일세. 시내'가와 푸르른 산들에 각 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우거진 사이로 암컷인 란새와 수컷인 봉새가 서로 불러 화답을 하고 앵무새, 두견새, 꾀꼬리가 고이 울어 지저귀니 이 봉우리 저 봉우리는 풍악소리요, 이 골짜기 저 골짜기는 노래 소리로 가득하구나.

나는 꽃과 노래에 반쯤 취한 듯 흥이 절로 나서 산 경치 물 경치를 구경하며 세상에서 제일 크다는 곤륜산

에 올라 가서 그 중에서도 제일 높다는 봉우리에 비낀 흰 구름을 쓸어 헤치고서 아래를 굽어 살펴 보니 사방으로 큰 산 넷이 자리를 잡았는데 모두 이름 있는 산들일 뿐 아니라 옛날 시인들이 즐겨 시를 읊던 운치 있는 유명한 강들이 떠처럼 희미하게 보이데그려. 나도 저 적벽강을 노래한 시로 유명한 시인 소동파가 그리워 적병강에 이르러서는 시로써 그 경치를 칭찬하고 아미산에 허리를 걸친 반달을 사랑하여 시인 리 태백의 시구를 멋지게 외이고 나서 신선이 노닌다는 삼신산에 들어 가서 불로초를 마음껏 뜯어 먹고 경치가 좋기로 세상에 이름 난 동정호 큰 못에서 목욕을 깨끗이 한 뒤에 그만 내가 사는 산 속으로 돌아 왔네. 층층이 쌓인 바위로 둘린 산 속에 떨어지는 락화는 마치 비단 요나 다름없네. 피곤도 하려니와 마음도 그만 풀리여 그 우에 한가히 눕고 보니 숲 사이로 비쳐 드는 밝은 달은 내 친구라 할 것이요, 소나무' 가지를 스치는 바람은 마치 거문고 소리나 다를 것이 없데그려. 돌 베개를 돋우 베고 아직 덜 깬 꽃 기운에 그만 스르르 잠이 들었었는데 얼마나 잤는지 어디서인가 들려 오는 학의 처량한 울음 소리에 놀라 깨여 났네. 이윽고 몸을 털고 일어 나서 가파로운 돌'길에 청려로 만든 지팽이에 몸을 의지하여 이리저리 거니느라니 흰 구름은 천리 만리 아득한 저 편에서 흐르고 밝은 달은 내'물에 자기의 그림자를 비치고 있는 것일세.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화스런 내 한 몸이 이렇게 산과 강'가에서 거리낌 없이 즐기고 있으니 높은 벼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동쪽 두덩에 올라 한가히 쉬파람을 불거나 앞시내를 굽어 보며 시를 지어 읊는 흥취가 오직 무르익어 가는 것일세. 오동나무에 걸린 밝은 달빛은 내 가슴에 스며들고 버들 사이로 불어 오는 바람은 내 얼굴을 정답게 어루만지고 있다네. 그러니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내 친근한 벗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아무

련 근심과 질병이 없는 내가 맑고 맑은 세상의 한가한 백성이란 밖에 더 어떻게 달리 표현할 것인가! 나야말로 땅에 사는 신선이라 할 만 하지 않은가.

강산 풍경을 내 맘 내키는 대로 즐긴다고 그 누가 좋다 나쁘다 할 것인가. 자네 들어 보게. 봄철에 배꽃과 복숭아꽃이 활짝 피고 푸르른 버들이 실실이 드리운 시내'가로 모여 든 미인들이 늘어 앉아 옥 같이 하얀 손들을 멋지게 놀려 빨래를 하는 모양을 바라다 보는 것도 풍류가 있는 일이요, 여름철 단오 날에 푸르른 나무'잎새들이 우거진 그 속으로 록색 저고리 다홍 치마를 떨쳐 입은 미인들이 그네 우에서 펄럭이는 모양은 광한루에서 그네 뛰던 춘향이의 맵시를 보는듯 하구나. 흥취 속에서 지내는 이 내 호걸의 재미를 그대가 어찌 알가부냐?»

이렇게 긴 자기 자랑이 끝 났다.

자라는 한참 웃고 나더니

«참 우습네. 이제까지의 그대의 말은 모두 헛되이 지어 낸 말이라 누가 곧이 듣겠나. 내 그대의 정작 딱한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닐세. 이제 그대의 심히 곤난한 형편을 여덟 가지로 자세히 깨우쳐 줄 터이니 두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 보게나.

동지 섣달 엄동 설한에 흰 눈이 흩날리고 층층이 겹쌓인 산의 바위들이 모두 얼음이 되여 막힐 터이니 어디 가서 네가 몸을 가리고 살 것인가? 이것이 첫째 딱한 네 형편이요,

북쪽으로부터 맵고 짠 눈'바람이 들이치면 네가 간신히 들어박혀 있는 돌'구멍에서조차 견디여 내기 어렵겠지만 우선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자기 코'구멍이나 핥고 있을 네 궁상스런 모양이 눈에 보이는 듯하구나. 몸은 사시나무 떨 듯하다 못해 점점 몸뚱이가 곧아져 들어 올 때 네 비참한 신세 타령 소리가 방금 귀에 들려 오는 것 같구나. 이것이 둘째로 딱한 네 형편이지,

그러다가 봄'바람이 불어 가까스로 웅크렸던 몸을 펴고 보니 먹을 것이 당장 급한지라 여간 꽃 송이나 풀'잎새를 뜯어 먹자고 산 속으로 들어 가자 너를 노리던 저 독수리가 두 죽지를 옆에 끼고 살'대와 같이 달려 드는데 혼'줄이 빠져 작은 몸이 어쩔 줄을 모르고 바위 틈으로 기여 드는 모양은 참 가련하구나. 이것이 셋째로 너의 안타까운 사정이 아닌가?

오뉴월 삼복 더위에 산과 들이 온통 불붙는 것 같고 시내'물이 끓어 번지는 것 같을 때에 네 살에서도 기름이 흐르고 털 끝에서는 누린 내가 날 터이니 짧은 혀를 길게 빼 물고 급한 숨을 헐떡이며 샘'가로 달려 가는 그 형상이 오죽 가련한가. 이것이 네째 괴로움일세.

가을이 되자 나무들은 단풍이 들고 들국화가 산과 들에 가득하여지면 과실'개나 얻어 먹자고 조용한 곳을 골라 가만히 찾아 갔더니 매를 팔에 얹은 사냥'군이 높은 곳에 올라 서서 눈'독을 들이고 기운 센 몰이'군들과 냄새 잘 맡는 새냥'개가 네 발 자취를 밟아 바짝 따라 오는 데 어찌 혼이 났던지 그 재빠르던 다리는 힘이 빠지고 진땀이 바짝 나서 하늘인지 땅인지도 모르고 달아 나는 네 모양이 불쌍하구나. 이것이 다섯째다. 천만 요행으로 간신히 도망하여 죽을 고비를 벗어나서 목숨이 붙었는가 긴 한숨을 짚던 중에 이번엔 어디서 나타났는지 총 잘 놓는 포수 사냥'군이 단방으로 겨냥하고 있지 않는가. 이리 뛰려도 안 되고 저리 뛰려도 안 되여 앉지도 서지도 못 하는 네 신세가 차마 볼 수 없구나. 그러나 포수는 실수 없이 너를 잡으려고 산탄까지 재약하여 네 염통을 노리고 방아쇠를 당기려 하니 급한 마음에 꼬리를 움츠려 끼고 간장이 말라 붙는 듯 허겁지겁 도망하는 꼴 여섯 번째 불쌍한 사정 아닌가?

죽을 고생을 겪으면서 산 속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고 보니 어번엔 얼룩덜룩한 커다란 범이 쇠꼬치 같이 뻣

뻣한 수염을 위엄 있게 거슬려 올리고 지나치는 모양은 참말 무섭구나. 소리는 우뢰 같고 대가리는 큰 산'덩어리만 하고 허리는 반달 같고 터력은 불'빛인데 칼 같은 꼬리를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주홍'빛 입을 벌리고 이'발을 딱딱거리며 번개 같이 날랜 몸을 동 서 남 북으로 번득이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 뛰여 다니는데 돌을 날리고 나무를 꺾어 분지르는 그 위풍이 과연 름름하고 풍채가 또한 씩씩하여 당당한 산중의 왕이라 날쌔고 무서운 힘을 버력 쓰며 홰'불 같은 두 눈깔을 번개 같이 휘두르며 톱날 같은 앞 발톱을 쩍 벌리고 큰 숨을 한 번 내여 쉬면 나무들이 갔다 왔다 흔들리고 소리를 웅 하고 지르면 산이 움직움직 하는구나. 세상이 캄캄하여지고 정신이 아득하구나. 이것이 일곱째일세.

죽을 것을 겨우 면하고 겨우 붙은 목숨을 보전하여 갈팡질팡하면서 넓은 들로 뛰여 오니 나무 베는 초동과 소먹이는 아이들이 창과 몽치들을 둘러 메고 두말 없이 달려 드니 코'구멍에서는 단 내가 나고 목구멍은 침이 말랐구나. 숨을 곳도 미처 생각할 사이 없이 도망하니 이것이 여덟째로 딱한 사정일세.

그대가 이렇듯이 곤궁할 적에 무슨 정신으로 경치를 구경하며 어느 한가한 겨를에 신선들이 산다는 삼신산에서 불로초를 먹으며 동정호 못에서 목욕할 수 있단 말인가. 이외에도 수다한 고생이 그지없음을 짐작하지만 그대 듣기 싫은 말을 구태여 다 하지 않는 것일세» 하고 리치를 따져 꼬박꼬박 이르고 나서 은근한 동정을 뵈이는 것이였다.

4

토끼는 다 듣고 나서 더는 할 말이 없었다. 이번에는 자기를 낮추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였다.

«전국 시대 말 잘 하기로 이름 높던 소진이와 장의 같은 정치가의 말 솜씨를 타고 났는지 말씀도 잘도 하고 송 나라 때 소 강절이처럼 운수를 잘도 알아 내그려. 그러나 너무 남의 단점만 꼬집지는 마소. 듣는 사람도 좋을 턱 없고 하 미련치는 않다네. 만고의 대성인 공자님도 진 나라와 채 나라 사이에서 욕을 보신 일이 있고 천하의 장사로 이름을 떨치던 초패왕도 해하라는 곳에서 참패를 보았거니와 복과 화는 하늘에 매여 있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운명에 달렸으니 조금만 힘이나 지혜 따위로는 이를 어쩔 수 없다네. 이제부터 그대의 물 나라 재미가 과연 어떠하신가 한 번 들어 보세나.»

자라가 목청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우리 물 나라 이야기를 들어 보소. 영롱한 오색 구름이 겹으로 둘린 곳에 구슬과 비단'결 바탕의 조개 껍질로 아로새긴 드높은 궁궐이 반공중에 솟았는데 그 찬란한 모양을 살펴 본다면 흰 옥으로 층층다리를 놓고 호박[4]으로 주추'돌을 삼았으며 산호로 기둥을 하고 루각 대청 기둥 밖으로 돌아 가며 놓은 실마루는 대모[5]로 틀었으며 황금으로 이은 기와와 류리로 박은 아름다운 들창이 현란하기 그지없구나. 수정으로 엮은 발을 드리운 가운데 밤'중에 유난히 빛이 나는 야광주 구슬로 만든 등롱이며 방방에 깔아 놓은 금, 은, 류리, 차거[6], 마노, 파려, 진주 같은 일곱 가지 보배들의 찬란한 광채가 해빛조차 빛을 잃게 하는듯 공중에 무지개를 뿜었다네. 매일 같이 음악과 춤이 어우르는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부용[7] 같은 아름다운 미인들이 쌍쌍이 춤을 추며 돌아 간다네. 포도주, 벽농주, 천일주 같은 향기로운 술들을 물'새 모양과 앵무새 모양을 본 떠 만든 기이한 술'잔에 가득히 부어 마시고 나면 뒤'이어 호박 보석으로 만든 소반과 류리 구슬로 만든 상에 늙지도 죽지도 않는 신선들이 먹는다는 금강초, 불사약들을 소복히 담아 담배 대

신 권하는데 정신이 맑아지고 몸과 마음이 황홀하여지는구나.

그리고는 리 태백이 그 경치를 못내 사랑하여 읊었다는 저 아미산에 걸린 반달과 역시 시인 소동파가 노래한 적벽강의 절승한 경치며, 신선이 노니는 방장, 봉래, 영주의 삼신산을 두루 구경하면서 배'놀이를 흥취 있게 즐기며 돌아 오는 길에 채석강, 소상강, 동정호, 팽려택 같은 운치 있고 유명한 강들과 호수들을 골고루 구경하는 멋이야말로 무엇에 견줄 수 있으랴! 바야흐로 흰 이슬은 강 우에 함초롬이 내려 앉고 물'빛은 하늘과 잇닿았네. 지는 노을은 따오기와 함께 날고 가을 물은 가없는 하늘과 한 빛인데 하늘과 땅은 함께 떠 있는 것 같단 말일세. 기러기 떼는 모래'가로 가지런히 내려 앉고 흰 갈매기는 고즈넉한 꿈'결에 잠긴 듯한데 어디선가 구슬픈 퉁소 소리가 은은히 들려 오니 깊은 바다 속에 잠겨 있던 룡이 흥이 나서 춤을 추고 외로운 과부가 애끓는 슬픔을 하소연하는구나. 하늘엔 달'빛이 희밝은데 까막까치는 남쪽으로 날아 간다. 이 때 비파 소리가 울적한 심회를 씻겨 주는가 하면, 강 언덕에 붉게 물든 단풍'잎과 고기'배의 가날핀 등'불이 마주 졸고 있는데 한산사의 종 소리가 배'머리에 부딪치는구나. 마을이 가까와 옴을 알리는 듯 장단 맞추어 들리는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또한 은근하다. 이런 흥취를 물 나라가 아니고서야 어디서 느낄수 있겠는가. 아마도 별세상은 이를 두고서 한 말일 것일세.»

토끼는 황홀이 듣다가 저으기 의심이 나는 듯 말하는 것이였다.

«그대는 참으로 복이 많은 친구이네. 그러나 나는 본디 팔자가 궁하여서 이런 궁벽한 산 속에나 파묻혀 살고 있네마는 다시 생각하니 남의 행운을 부러워 하여서 무엇하겠나. 부질없는 일이지.»

자라는 이 말을 듣자 한결 은근히 말을 건넸다.

«나는 친구를 위하여 좋은 세상에서 같이 즐겁게 살도록 하자는 것이지 다른 마음이 아닐세. 옛 글에도 소란하고 위태스런 곳에는 가지 말고 어지러운 나라에서는 살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대는 어찌하여 이처럼 험난한 곳에서 살고 있었단 말인고. 지금 그대가 나를 만난 것은 우연한 일 같지 않게 생각되네. 그대가 만일 이 시끄럽고 위태한 곳을 떠나 나를 따라 물 나라로 들어만 가고 보면 신선 세상 같은 좋은 곳에서 늙지도 죽지도 않는 하늘 복숭아나 불사약을 마음 대로 먹을 것이요, 천날이나 오래 향기로운 술을 위시해서 감홍로 같은 달큼한 술로 매일 홍겹게 지낼 것일세. 그뿐인가,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 속에서 선녀들과 짝하여 오현금과 옥퉁소에 맞추어 마음껏 노래로 지낼 것이네. 경치 구경으로 말하더라도 이로 헤일 수 없는 아름답고 이름 있는 곳들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네. 잔치놀이가 끝나면 글 짓기도 운치 있는 일이 아닌가. 즐겁고 태평한 세상에서 마음껏 유쾌하게 지내는 사이에 지난 날의 근심 걱정은 꿈 속 일만 같게 생각될 게네.»

토끼는 그대로 곧 수긍이 되지 않는 듯이 고개를 흔든다.

«그대의 말은 비록 좋으나 속담에 이르기를 노루를 피하면 범을 만난다 하였고 또 팔자 도망은 독안에 들어도 못 한다 하였으니 뭍에서 살던 내가 공연히 요행을 바라고 그대를 따라 갔다가 물 나라 고생이 이 곳 고생보다 더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는가, 첫째로 물 속에서 호흡을 통치 못 할 것부터 걱정일세, 세상 만물이 숨 못 쉬고 어이 살며 당장 팔 다리는 멀쩡하여도 헤염을 칠 줄 모르니 그 넓고 깊은 바다를 무슨 재주로 건넌단 말인가. 팔자에 없는 남의 호강을 부질없이 욕심을 내여 가지고서 그대를 따라 물 나라로 들어가다가는 필연코

죽을 지경에 들 것일세. 그러다가 속절없이 고기'배에 이 몸을 장사 지내고 보면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푸른 바다 속에서 혼조차 외롭게 떠 돌 것이 아닌가. 일가 친척이나 자손들은 나를 어데서 찾겠나. 이리저리 생각해도 열에 여덟 아홉은 위태한 일일세. 콩으로 메주를 쑤고, 소금으로 장을 담근다 하여도 도무지 곧이 들리지 않네. 그따위 허튼 말은 다시 권하지 말게.»

자라는 웃으며

«그대 생각이 참 좁고 답답하웨.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알지 못 하는구먼. 옛글에 긴 강을 한날 갈'대로 배를 삼아 건넜다라고 했다네. 사실 그렇지. 조주 땅의 선비 여 선문은 남해 룡궁이 완공되였을 때 초청을 받아 물 나라로 들어 가서 축하문을 지어 주었고, 천하에 이름을 휘날리던 대문장가 리 태백은 고래를 타고 달을 잡으러 들어 갔고, 한 나라 때 장 건이란 사람은 떼'목을 타고 은하수로 올라 가서 직녀의 베틀을 괸 돌을 주어 왔고, 서쪽 먼 나라 아난존자는 거북을 타고 푸른 물'결 우로 마음 대로 다녔으니 목숨이란 하늘이 주장하는 것이매 공연히 죽는단 말인가. 그대도 대장부로서 왜 그리 마음이 약한가.

군자는 사람을 몹쓸 곳에 천거하지 않는 법이라 하였네. 내 어찌 그대를 험한 곳으로 인도하겠는가. 점잖은 체모에 반점이나 터없는 거짓말을 할 수 있겠나. 천금 상을 주고 높은 벼슬을 준대도, 밥 우에 떡을 얹어 준대도 의롭지 아니한 일은 아니 하겠는데 하물며 아무 까닭도 없이 무슨 원쑤진 일이 있다고 친구를 위태한 곳으로 끌고 가겠나. 어데 생각을 다시 해 보게.» 이렇게 리치로써 따지고 나더니 계속하여 말을 잇는다.

«내 그대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 보니 털 색이 누릇누릇하게 금'빛을 띠였으니 금과 물은 서로 한 곬이라 조금도 념려가 없는 것이고, 목이 길게 빼여 났으니 타

향에서 살게 마련이요, 아래턱이 뾰족하니 우로 구하면 무슨 일이든지 잘 되지 않으나 아래로 구하면 어떤 일이든지 크게 성공할 것이요, 두 귀가 희고 길쭉하니 남의 말을 잘 들어 귀하게 될 것이요, 눈'섭 사이가 널직하고 탁 틔여 보기에 씨원하니 과거 급제하여 이름을 길이 빛낼 것이요, 목소리가 고우니 평생에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일세. 그대의 형상이 이처럼 가지가지로 좋은 것만 갖추었으니 다음 날 천만 가지로 행복을 길이 누릴 걸일세. 그대의 행운은 당명왕이 양귀비와 즐기던 향락에, 곽 자의와 같은 수 많은 아들 손주를 둘 복에, 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석숭이란 사람 부럽지 않고 음악의 재질로 따지면 우 임금의 대황곡이나 순 임금의 봉조곡이나 장 자방이가 그처럼 구슬프게 불었다는 옥통소 소리에 비길 만하고, 사망 상여의 거문고 소리에 젊은 과부 탁 문군이 달려 왔다는 그 재주에 손색이 없을 것일세. 그 뿐인가, 그대의 말'수단으로 말한다면 말 잘 하기로 유명하여 여섯 나라를 손아귀에 틀어 잡던 중국 전국 시대의 소 진과 장 의에게도 자리를 양보할 것 전혀 없고, 포부로는 팔진도라는 전술을 펴던 제갈 량이 바로 그대의 적수라고나 할가, 이러한 풍채와 포부를 가진 그대야 말로 옛날로 거슬려 꼽아 보든지 지금 세상을 두루 살펴 보든지 제일의 호걸이란 말일세. 그대의 팔팔 뛰는 그 행동으로써 고향 땅에만 묻혀 있어서는 지금 말한 여러 가지 행운 중에 결단코 한 가지도 누리지 못 하고 도리여 전 날과 같이 곤난한 재앙만 부닥칠 것이요, 반대로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급히 떠나 가야만 분명코 만사가 뜻 대로 될 것이니 내 말을 터럭만치라도 의심치 말고 좋은 이 기회에 나와 함께 물 나라로 들어 가세. 한 말로 결단 하세나.

때는 결코 두 번 오지 않는다네. 하늘이 주는 복을 받지 않는다면 도리여 화를 받게 되는 것일세.»

토끼의 대답은 계속 빈정거린다.

«내 형상이 그대 말 같이 훤칠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대의 사람 보는 법이 참 신통하네. 그러나 목숨이 짧고 긴 것이나 잘 되고 못 된다는 것이 반드시 겉모양으로 판단되는 것만은 아닐세. 돈을 모을 팔자라고 해서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인 백운대에 올라 가서 누워 있어도 돈 많기로 유명한 석숭이의 재물이 저절로 굴러 떨어져서 부자가 될 것인가. 오래도록 산다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옛날 걸주 같은 포악한 임금을 만나 불에 지지여 죽게 되였는데도 오래 살 운명을 타고 났다고 살아 날 수 있단 말인가. 누구든지 이런 말만 믿고 행동하다가는 망신하고 죽을 그물에 빠지기 열에 여덟 아홉 틀림 없을 걸세.»

자라가 다시 근기 있게 말한다.

«그대는 끝끝내 무식한 말만 하는구나. 확실한 증거를 말할 터이니 들어 보게. 우뚝한 코에 왕자의 얼굴을 타고 난 한 나라의 고조되시는 분은 처음엔 미천하였으나 나라를 창건하여 제 일대의 왕이 되였으며, 남에 뛰여난 풍채와 귀한 얼굴로 태여난 당 태종은 한날 서생으로부터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임금이 되였고 네모가 번듯한 얼굴과 남달리 커다란 귀를 가지셨던 송 나라 처음 임금이 되신 송 태조는 일개 보잘 것 없는 형편에서 천자가 되였으며, 전국 때 채 택이란 사람은 재상 범수를 대신하여 정승이 되였으니 이 네 가지 일로만 보더라도 왕이나 정승이 따로 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타고난 형상의 잘 나고 못 난 데 달린 것일세. 이 밖에도 모든 영웅 호걸들이 바로 그러하였네.

옛날에 범의 굴에 들어 가지 않으면 어찌 범의 새끼를 얻으리오 하였으니 대장부가 한 번 세상에 나서 자기의 커다란 사업을 계획하려 할진대 마땅히 두 마디 안팎

에 결단할 것이지 어찌 조그만 의심을 품어 뜻을 정하지 못 하고 풀과 나무처럼 썩기를 즐기는가.

그대는 과연 졸장부일세. 예로부터 주저하고 망서리는 자는 무슨 일이든지 성공을 하지 못 한다고 하였네. 옛날 한 신이란 장수가 한 고조의 위인이 졸렬함을 귀띰해 주는 괴 철미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한 고조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월 나라의 대부종이란 재상이 월왕은 목이 길고 입부리가 촉새 같아서 고생을 함께 겪을 사람이지 영화를 같이 누릴 위인이 되지 못 하니 벼슬을 내놓고 피하세 하던 범 려의 말을 들었던들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몸으로 도리여 월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일세. 어찌 옛'일을 거울로 삼아 뒤'일을 도모하지 않겠는가. 그대도 이제 내 말을 듣지 않다가 뒤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토끼는 이런 말까지 듣고 보니 든든하기 굳은 바위 같이 생각되므로 마음이 솔깃하여 쌍긋이 웃고 감탄하는 것이였다.

«내 그대를 다시 헤아려 보니 가벼운 사람은 아닌 것 같네. 생각이 넓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또한 거룩한데다가 사람됨이 너그럽고 믿음직하니 평생에 남을 속이지 않았을 것이야. 그래 나 같은 하잘 것 없는 자를 그처럼 좋은 곳으로 천거하니 감격하기 이루 다 말할 수 없네. 그러나 그리로 간단들 벼슬이야 바랄 수 있겠나?»

자라가 이 말을 듣자 속으로는 요놈 이제는 내 계교에 빠졌구나 기뻐하면서도 태연히 대답한다.

«그대가 아직도 경력이 적구면. 력산 땅에서 밭을 가시던 순 임금도 요 임금의 천자의 자리를 물려 받으시고, 위수'가에서 고기를 낚던 강 태공도 주문왕의 선생이 되였으며, 신야 땅에서 밭 갈던 이 윤이도 탕임금의 의로 맺은 형이 되였고, 소 먹이던 백리해란 사람은 진 목공의 신임을 받아 정승이 되였으며, 내'가에서 빨래하

는 로파에게 밥을 빌어 먹던 한 신이도 한 고조의 대장이 되였으니 물 나라나 인간 세상이나 귀하게 되는 데는 다를 게 없네.

밝은 임금은 신하를 알아 주고 어진 신하는 임금을 가려서 섬긴다 하였네. 우리 대왕께서는 지금 란리를 평정하시고 학문을 크게 펴시여 어진 신하를 널리 구하시는 터이라 한 가지 기능이나 한 가지 재주만 있는 자라도 모두 높이 쓰신다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재주 없는 인물도 정도에 넘치게 주부 벼슬에 이르렀거든 하물며 그대 같은 높은 자질과 뛰여난 문필로써야 가기만 하면 높은 벼슬을 구하지 아니 할지라도 귀히 될 것은 뻔한 일일세.

지금 룡궁에서 나라의 력사를 기록하지 못하여 태사관으로 맞춤한 인재를 구하고 있으나 합당한 인물이 없어 근심중에 있은지 오래니 그대의 문장과 글씨야말로 꼭 이에 적합하다고 보네. 그대가 만일 그렇게 되고 보면 그대의 높은 이름이 널리 물 나라 세상에 진동할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일이네.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내 그대와 함께 들어 가면 곧 우리 대왕께 제일인자로 천거할 터일세.»

5

토끼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솔깃하지만 아직도 의심이 가시지 않아 주저하며 말한다.

«그대의 말이 그럴듯하나 어제'밤 꾼 꿈이 아무래도 불길하게 생각되여 마음에 꺼림직하네.»

자라가 말을 듣다 다시 능청스럽게 말하는 것이였다.

«내가 젊었을 때 꿈 일을 해석하는 법을 배웠으니 어디 그대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 보세나.»

토끼가 꿈 이야기를 꺼내는데

«칼을 빼여 배에 대였는데 몸에 피칠을 하였으니 아마도 좋지 못 하고 놀라울 일을 당할가 싶어 근심되네» 하였다.

자라는 이번에는 책망하는듯 타이른다.

«좋은 꿈을 가지고 공연한 근심을 하는구나. 배에 칼을 대였으니 칼은 금이라 금띠를 띨 것인즉 이는 높은 벼슬'길에 오름을 의미하는 것이고, 몸에 피칠을 하였으니 붉은 옷을 입을 징조일세. 이 역시 높은 벼슬을 하게 될 것을 미리 꿈으로 알려 주는 것이라네. 이 어찌 귀하게 될 길몽이 아니겠는가.

공자가 례의와 문물이 륭성하였던 주 나라를 흠모하는 나머지 이를 실시한 주공을 꿈에 보았다고 하는 그런 꿈은 성인의 꿈이라고 하지. 또 제 갈 공명 선생이 초당에서 꾸던 꿈은 어지러운 세상을 생각하며 앞'일을 내여다 보던 꿈이라고 할 것일세. 그대 꿈이 아마 이런 훌륭한 꿈일시 분명하웨. 그대가 룡궁에 들어 가는 날이면 만 사람 우에서 호령하게 될 터이니 그 아니 좋은 일인가!»

토끼는 점점 곧이 들어 자라 곁으로 다가 들며 한 나라를 호령하는 장수나 재상의 훈장을 지금 당장 만져 보는듯이 기쁨과 만족이 얼굴에 가득하여진다.

«그대의 꿈 해석하는 법은 참으로 귀신 같네. 좋은 꿈이 분명한 줄 알았으니 내가 귀하게 될 것은 갈데 없거니와 어찌 저 푸른 물'결을 가르고 룡궁에 도착할 수 있겠나?»

자라가 만족한 웃음으로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그대는 조금도 념려 말게. 내 등에만 업히면 어떤 풍랑이라도 무서울 것 없고 잠간 사이에 안전하게 갈 수 있네. 그걸랑 조금도 걱정 말게» 하고 장담한다.

토끼는 속으로는 기쁘지 그지없었지만 체면에 곧 그렇게 해 달랄 수가 없어서 사양하는 것이였다.

«자네가 친구를 위하여 이렇듯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친구를 사귀는 도리에 마땅한 일이나 나로서야 미안해서 어떻게 자네 등에 오를 수 있겠나?»

자라는 그런 일쯤 미안할 게 있느냐는듯이 웃으며 말한다.

«그대 마음이 아직도 좁구면. 위수 강'가에서 낚시질 하던 려 상이는 주문왕과 수레를 한 자리에 탔으며 부춘산에서 밭을 갈던 엄 자릉은 후한의 광무제와 한 베개를 베고 잤다고 하지 않는가. 서로 뜻이 통하는 친구끼리 높고 낮음과 귀하고 천함을 관계하랴.

우리가 이제 함께 물 나라로 들어 가면 백 년 고락을 같이 할 것 아닌가. 무에 미안할 게 있는가.»

토끼는 마음이 흡족하여

«자네의 높은 은혜는 진실로 뼈에 아로새겨지네. 내가 이 뭍에서 사는 동안에 갖은 고생과 위험에 부닥치던 일을 다 말할 수야 있겠나마는 저 몹쓸 사람들이 일'자총을 내 산 멱통에 겨누고 노리던 그 아슬아슬하던 때는 차라리 송편으로 목을 따고, 접시'물에 빠져 죽고 싶은 적이 한 두 번만 아니였지. 내 맏아들 놈은 나무 베는 아이들에게 죄 없이 잡혀 가서 갇혀 있는지 벌써 칠팔 년이전만 놓여 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 뿐인가 둘째 아들 놈은 사냥'개한테 물려 죽은지가 여러 해 전이네. 그 일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간장이 녹아 나는 것 같네.

그래 어떻게 이 원쑤의 세상에서 떠나 볼가 밤낮으로 생각하게 되였었네. 마침 자네 같은 군자를 천만 뜻밖에 만나 밝은 세상을 보게 되였으니 이는 하늘이 지시하고 귀신이 도우심인 줄 생각되네.

성인이라야 능히 성인을 안다고나 같은 영웅을 그대 같은 영웅이 아니였던들 그 누구라서 능히 알아 줄 것이

겠나. 하늘에서 내신 그대 같은 영웅을 만나지 못 하였더라면 나는 헛되이 산 속에서 늙을 번하였지.

그러나 내 아니면 물 나라 백성들이 어찌 어진 관원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도 또한 하늘의 지시라고 할 수 있단 말일세» 하고 자기 자랑도 늘어 놓은 다음 의기양양하여 자라 등에 오르려 할 즈음에 문득 바위 밑으로 한 짐승이 내달아 오며 토끼를 부른다.

«내 너희들이 말을 주고 받는 것을 처음부터 듣고 있었다. 요 미욱한 토끼야, 내 말을 자세히 들어 보아라.

대개 부귀 공명이란 것은 뜬 구름과 같은 것이요, 또 그것도 때가 있는 법이다. 네가 지금 자라의 허망한 말을 듣고 그 꾀에 속아 죽을 고장으로 가려하니 가련하구나.

속담에 말하기를 고향을 떠나면 고생이라 하였다네. 네가 설사 지금 룡궁엘 간다고 한들 무슨 부귀를 하루 아침에 얻을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쓸데 없는 욕심도 내지 말고 망상도 하지 말고 나의 충고를 들어야 한다.»

토끼는 이 말을 듣더니 두 귀를 쫑긋거리며 발'길을 멈추고 주저하는 빛을 얼굴에 나타낸다.

그 짐승은 너구리였다.

자라는 속으로 크게 분하여 내 지금까지 이 놈 토끼를 천 가지 방책과 백 가지 계교로 달래여 거의 나를 따라 가게 하였더니 저 원쑤 놈이 난데 없이 내달아 무슨 일로 이렇듯 방해하노? 그러나 지금 내가 서뿔리 조금이라도 서툰 구석을 드러내고 보면 저 간사한 토끼 놈이 의심을 낼 것이니 내 먼저 저 방해꾸러기 놈을 반박하여 토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리라 마음을 눅쳐 잡고 곧 웃으며 너구리를 향하여

«그대는 누구인지 모르거니와 어이 그리 무식한고? 조주 땅에 사는 여 선문이란 선비는 한날 미천한 선비로되 우리 룡궁에 들어 와서 영덕전 궁전이 완공된 것을

축하하는 글을 지어 바치고 우리 대왕께 천하의 보배인 야광주란 구슬 열 개와 왕이 아니면 쓰지 못하는 통천관과 물'소 뿔로 만든 떠를 그 보수로 받았거니와 이 소문이 한 번 세상에 퍼지자 모르는 사람이 없이 굉장히 들날리였거늘 그대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는가. 더구나 나라의 력사를 기록하는 태사관은 높고 중한 벼슬이라 내 지금 토(토끼) 선생의 문장과 글씨를 존경하여 함께 가자 함인데 그대 함부로 남을 의심하여 마치 친구를 죽을 땅으로 인도한 것 같이 여기니 그대는 남을 위함인가. 시기함인가. 무슨 경우가 그러한가. 내 남의 의심을 입어 가며 구태여 토 선생과 동행을 원하는 바 아니네» 하고 나서 토끼를 돌아 보며 다시 말을 건네는 것이였다.

«내 그대와 더불어 전일에 아무 원쑤진 일이 없는 터이라 어찌 그대에게 터럭 끝만큼이라도 해될 일을 권하겠는가. 그러나 그대는 나와 불과 하루 아침 사귄 친구에 불과하니 어찌 그대의 저 옛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응당한 일일 것일세. 나는 우리 대왕의 명령을 받고 동해에 사신 갔다 오는 길이였은즉 오래 동안 지체할 수 없는 몸이므로 그만 작별할 수 밖에 없네. 그대는 길이 신체 건강하시게» 하고 말을 마치더니 짐짓 소매를 뿌리치고 바다'가로 내려 가는 것이였다.

너구리는 한편 미안도 하고 남의 잘 되려는 일에 시기한 듯하여 얼굴이 붉어져서 말 한 마디 못 하고 섰는데 토끼가 생각하니 자라가 너구리를 꾸짖고 쌀쌀하게 돌아 가는 것이 아무래도 자라의 말이 진실하고 너구리가 시샘하는 것만 같아서 우선 너구리에게

«너는 무슨 심술로 남의 잘 되려는 앞'일을 방해하느냐?» 하고 나무라고서 일변 급히 자라를 좇아 가며 크게 소리쳐 부르는 것이였다.

«별주부, 그대는 거기 잠간 멱물러 내 말을 듣고나 가게.»

자라는 일부러 두어 걸음 더 가다가 비로소 돌아 보며

«그대는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는가?»

«자네는 어찌 그다지도 너그러운 도량이 없는가? 내 아무리 마음이 좁고 미련하나 어찌 무식한 자의 부질 없는 말을 곧이 들으며 또 자네가 나를 사랑하는 정을 왜 깊이 모르겠나. 자네는 내가 잠간 주저한 것을 오해 치 말고 함께 가세나.»

토끼의 말을 듣자 자라는 마음 속으로 기쁨을 이기 지 못 하면서 흔연히 토끼를 데리고 함께 바다'가로 나 아가 토끼를 등에 업고서 푸른 물'결에 뛰여 들어 남해 를 향하여 돌아 온다.

6

토끼가 자라 등에 높이 앉아 물 나라로 들어 오는 길에 사방을 둘러 보니 소상강의 깊은 물은 눈 앞에 고 요하고, 동정호는 가없이 넓은데 절묘한 경치가 마음을 저으기 황홀케 하는 것이였다.

«하늘이 나를 도와 자라를 만나게 하고 이제 세상 풍파와 산 속의 고생을 모두 씨원히 벗어 버리고 룡궁으 로 들어 가 높고 귀한 자리에서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지내게 될 터이니 어찌 기쁘지 않을소냐!» 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의기 양양해 하다가 흥에 겨워 노래 한 곡조 를 부른다.

티끌 세상을 리별하고 길이 떠남이여,
물 나라가 청산보다 크도다.
자라 등에 올라 가고 또 감이여,
흰 구름이 오고 감을 웃는도다.

내 장차 려사의 붓대를 잡음이여,
물 나라 삼천 족속들이 모두 무릎을 꿇리로다.
부귀가 맑고 한가함을 갖추었음이여,
백년의 편안함을 약속함이로다.

토끼는 노래를 마치고 한 번 크게 웃고 못내 만족해 한다.

자라가 토끼의 이런 거동을 보자 속으로 웃으며

«이 놈이 참 교만하고 맹랑한 놈이로구나. 내 에둘러 한 번 뜨끔하게 하리라» 하고 노래로써 화답하는 것이였다.

한 쪼각 붉은 마음을 품음이여,
얼마나 분주히 청산에 다녔던고.
이 몸이 수고를 아끼지 아님이여,
사나운 물'결을 박차고 돌아 오도다.
간사한 토끼를 얻어 공을 이룸이여,
한갖 룡왕 얼굴의 기쁜 빛을 뵈오리로다.
우리 대왕의 병환이 쾌차하심이여,
나라가 평안함을 축하하리로다.

토끼는 자라의 노래를 듣더니 문득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 자라에게 묻는다.

«자네 노래가 무슨 깊은 뜻이 있는 듯하니 일러 주게.»

«내 그저 우연히 부른 노래에 무슨 뜻이 있겠나.» 자라는 시침을 떼는 것이였다.

그러나 토끼는 의혹이 풀리지 않아 꼬지꼬지 묻기 시작한다.

«간사한 토끼를 얻어 공을 이루었다 함과 우리 대왕의 병환이 쾌차하다 함은 무슨 말인가?»

자라가 속궁리로 네가 이제 물'속에서 비록 나를 의심한댔자 소용 없지 하고 더 대답하지도 않고 그냥 바삐 남해로 내달리더니 룡궁에 이르러서야 토끼를 내려 놓으며 배'심 좋게 말하는 것이였다.

«그대는 부질없이 나를 의심치 말고 어서 객관[8]으로 드세.»

토끼가 멀뚜름해서 눈을 들어 살펴 보니 하늘과 땅이 탁 트이고 날'빛이 명랑한데 진주와 색갈 무늬의 조개로 지은 호화로운 궁전이 하늘 중턱에 높다랗게 솟아 있고 신비스런 광채가 서리여 있는 것이 듣던 바와 같으므로 한편 마음이 놓이고 기꺼운 생각이 다시 떠 올라 저으기 안심하고 자라를 따라 객관에 이르렀다.

자라는 토끼에게

«그대는 여기서 잠간 쉬게. 내 궁궐로 곧 들어 가 우리 대왕께 그대와 함께 온 것을 아뢰고 오겠네» 하고 총총히 나가는 데 토끼가 가만히 생각하니 다시 의심이 떠 오르는 것이였다.

«제 나를 대접함이 이럴 수 있을가? 우선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멀리서 온 손님이니 술'상을 차려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황망히 궁중으로 들어 가다니 그 무슨 해괴한 일인고.» 이렇게도 나무라고,

«아마 나의 높은 이름인즉 물 나라 룡왕을 위시해서 모든 신하들이 이미 다 들어 아실 것, 그러고 보매 제가 먼저 들어 가 저의 임금에게 말씀하여 곧 홍문관 대제학 벼슬을 임명한 다음 몇 날을 지나서 여러 해 손을 대지 못했던 물 나라 력사를 기록케 하려고 그 생각에만 다급해서 소소한 접대는 미처 생각지 못 한 것이겠지.» 이렇게도 자만하며 안절부절한다.

이 때 자라가 급히 궁중으로 들어 가니 룡왕을 모시고 있던 여러 신하들이 자라를 보고 일변 반기며 일변으로 룡왕께 아뢴다.

광리왕은 자라를 바삐 가까이 들어 오게 하여 룡상 아래 앉히고 무사히 다녀 온 것을 반기면서 토끼를 데려 왔는가부터 묻는다.

자라는 고개를 숙여 절하며 아뢰는데

«신이 대왕의 명령을 받잡고 다섯 큰 호수와 세 큰 강을 무사히 건너 동해'가에 도착하와 깊은 산으로 들어 가서 늙은 토끼 한 마리를 만나 백 가지로 꾀이고 천 가지로 달래여 간신히 업고 지금에야 돌아 왔나이다. 지금 토끼는 객관에 머무르게 하고 신이 먼저 급히 들어 왔사오니 그 사이 옥체 불편하심이 어떠하신지 신하된 자로서 죄스럽습니다» 하고 이어서 토끼를 달래던 사연을 일일이 아뢰니 룡왕은 끝까지 듣고 나서 만족하여

«그대의 충성과 말'재주는 가히 남해 나라의 으뜸이로다. 하늘이 나를 도우사 그대 같은 신하를 내신 것이리라» 하고 곧 뭇신하들에게 공포하는데

«내가 하느님의 지시로 물 나라 삼천 족속의 어른이 되여 남해를 다스리는 동안에 정사를 잘 하지 못 할가 항상 두려운 생각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더니 우연히 병을 얻어 치료할 방법이 아득하던 중 세 분 선생의 가르치심을 힘입고 별주부의 지극한 충성으로 인간 세상에서 토끼를 얻어 왔으니 이제 그 간을 써 보면 내 병은 반드시 나을 것이라. 이는 우리 물 나라의 둘도 없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내 신하들인 그대들에게 공포하노니 그대들은 영덕전(궁전 이름)으로 모두 모이라. 내 지금 별주부를 특히 벼슬을 높여 정 2 품의 자헌대부[9] 약방제조[10] 겸 충훈부[11]당 상관으로 임명하노라.

남해국 수덕[12]만세 륙십 사 년 류월 초 1일»이라 하였었다.

곧 여러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며 서로 축하하며 일

제히 영덕전 궁중으로 들어 가는데 그들의 좌석 차례는 다음과 같았다.

령의정 겸 약방도제조, 종묘서 도제조[13]—거북, 좌의정 겸 훈련도감 도제도[14]—고래, 우의정—악어, 리조판서[15]—잉어, 호조판서[16]—민어, 례조판서[17]—가재미, 병조판서[18]—농어, 형조판서[19]—준치, 공조판서[20]—방어, 한성판윤[21]—위어, 규장각 대제학 겸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22]—붕어, 부제학—문어, 직제학—넘치, 승정원 도승지[23]—조기, 성균관 대사성[24]—가물치, 규장각 직각—도미, 규장각 대교—청어, 호문관 교리—은어, 예문관 검열[25]—숭어, 주서[26]—오징어, 사헌부 대사헌[27]—병어, 사간원 대사간[28]—자가사리, 사간원 정언—모래무치, 상의원 도제조[29]—상어, 훈련대장—대구, 금위대장—홍어, 어영대장—미어기, 총유사[30]—장어, 금군별장[31]—고등어, 포도대장[32]—갈치, 별군직[33]—삼치, 사복내승[34]—납셍이, 금부도사[35]—명태, 원접사[36]—인어.

그 밖에 금군—조개, 5 영문—새우, 송사리…

이렇게 차례 대로 모두 모여 여러 신하들이 일제히 만세를 불러 축하를 마친 뒤에 왕이 친히 명령하여 토끼를 바삐 잡아 들이라 하니 금부도사 명태가 라졸[37]을 거느리고 객관으로 달려 간다.

이 때 토끼는 홀로 앉아 자라가 속히 돌아 오기만 기다리는데 난데 없이 금부도사가 달려 들어 왕의 명령을 전달하더니 급기야 라졸들이 좌우로 뛰여들어 토끼를 결박하여 가지고 바람 같이 몰아 세워 영덕전 섬'돌 아래에 꿇리는 것이였다.

토끼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궁전 우를 우러러 보니 룡왕이 머리에 통천관[38]을 쓰고 몸에 강사포[39]를 입고 손에 백옥홀[40]을 쥐였는데 수많은 신하들이 좌우로 호위하고 섰는 그 장엄한 모양이 엄숙하고 무서워 온 몸이 떨릴 뿐이였다.

7

룡왕은 선전관[41] 전어를 사이에 두고 토끼에게 위엄 있게 이른다.

«나는 물 나라의 높은 임금이요 너는 산 속의 한 개 조고마한 짐승이 아니냐. 내 우연히 병을 얻어 신음하는지 오래였노라.

그러던 중에 네 간이 내병에 약이 된다 하여 특별히 별주부를 보내여 너를 데려 왔노니 너는 죽음을 원망치 말라.

너 죽은 뒤로 말할진대 네 몸을 비단으로 싸고 백옥과 호박 보석으로 관을 만들어 좋은 땅에 장사할 것이요, 만일 내 병이 너로 하여 나은즉 마땅히 너를 제사 지내는 집을 세우고 그 공을 길이 기념하리니, 네 산 속에 있다가 호랑이와 승냥이의 밥이 되거나, 사냥'군에 잡히여 죽노니보다 어찌 영화롭지 아니리오. 내 결단코 거짓을 아니 하리니 너는 죽은 혼이라도 조금도 나를 원망치 말지어다» 하고 말을 끝내자 좌우의 군사에게 토끼의 배를 가르고 간을 가져 오라 호령하니 뜰 아래 섰던 군사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서리'발 같은 칼을 번득이며 토끼의 배를 찌르려 한다.

토끼가 쓸데 없이 헛된 욕심을 내여 자라를 따라 왔다가 물 나라에서 원통한 죽음을 당하게 되였었다. 이것은 모두 자기가 스스로 취한 재앙이니만큼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나무랄 것인가.

토끼는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번쩍하며 머리를 부시는 듯 정신이 아뜩하여 멍하니 섰다가 겨우 놀란 마음을 진정하여 가만히 생각하되

—내 부질없이 부귀 영화를 탐내여 고향을 저버리고 떠나 오매 어찌 뜻밖의 재변이 없을소냐! 이제는 나래가 있어도 능히 공중으로 날지 못 할 것이요, 또 땅을 주름잡는 술법 같은 신통한 재주가 있을지라도 능히 이

곳을 벗어나지 못 하리니 어찌할고—하고 앞이 캄캄하여지는데 또 다른 생각이 퍼뜩 떠 오른다.

—옛말에 죽을 땅에 빠진 뒤에야 산다 하였으니 어찌 죽기만 생각하고 살아날 방책을 궁리치 아니리오—하고 뒤설레는 마음을 걷잡지 못 하다가 문득 한 꾀를 생각하자 얼굴 빛을 조금도 변치 아니하고 태연히 머리를 들어 룡상을 우러러 보며 말을 꺼낸다.

«소토(작은 토끼, 자기를 낮추는 것) 비록 죽을지라도 한 말씀 아뢰리이다.

대왕은 높고 귀하신 만 사람 우의 임금이시요, 소토는 한낱 산 속의 조그마한 짐승이라, 만일 소토로 환후(병) 십분 나으실진대 소토 어찌 감히 사양하오며 또 소토 죽은 뒤에 간곡하게 장사하여 주시오며 심지어 기념하는 집까지 세워 주리라 하옵시니 이 은혜는 하늘과 같이 크신지라 소토 죽어도 한이 없사오나 다만 안타까운 바는 소토는 비록 짐승이오나 보통 여느 짐승과 다르다 하는 것은 본디 하늘 나라 별의 정기를 타고 세상에 내려 와 날마다 아침이면 옥 같은 이슬을 받아 마시며 밤낮으로 아름다운 꽃과 풀을 뜯어 먹으매 소토의 간인즉 참으로 령약이 되는 것이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를 알자부터 어느 때나 소토를 만나면 간을 달라 하와 보챔이 심하옵기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 하와 염통과 함께 꺼내여 푸른 산이 그림자를 드리워 한결 더 새파란 맑은 물에 여러 번 씻어 높은 뫼뿌리와 험준한 산마루 깊은 곳에 감추어 두옵고 다니옵다가 우연히 자라를 만나 왔사오니 만일 대왕의 환후 이러하온 줄 알았던들 어찌 가져 오지 아니하였으리이꼬.» 하더니 자라를 돌아보며

«네 임금을 위하는 정성이 있을진대 어찌 이런 사정을 한 마디도 나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꾸짖는 것이였다.

룡왕은 토끼의 말을 듣자 몹시 노하여

《네 진실로 간사한 놈이로다. 우로 하늘에 나는 짐승이나 아래로 땅에 기는 짐승이나를 막론하고 어떤 짐승이든 간을 빼였다 넣었다할 수 없겠거든 네 얕은 꾀로 나를 속이려 하나 어찌 리치에 맞지 않는 말에 속으리오.

네 나를 감히 속이려 한 죄 더욱 큰지라 빨리 너의 간을 내여 일변 내 병을 고치고 일변 속이려는 죄를 벌하리라.》 호령한다.

토끼는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다시 아뜩하여지며 간장이 녹는 듯 땀이 흐르며 다리에 맥이 없고 가슴이 막히여 속절없이 죽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토끼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더욱 공손히 아뢴다.

《대왕은 소토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들으시고 굽어살피옵소서. 이제 만일 소토의 배를 갈라 보아 간이 없사오면 대왕의 환후도 고치지 못 하옵고 소토만 부질없이 죽을 따름이니 다시 누구에게서 간을 구하오려 하시나이까? 그제는 후회하셔도 돌이키실 수 없을 터이오니 바라건대 대왕은 세 번 생각하옵소서.》

룡왕이 토끼의 말을 듣고 또 그 태도가 태연함을 보니 혹시 토끼의 말이 진정 그런가 하는 한 다닥 의심이 마음 속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였다.

《네 말과 같을진대 간을 꺼냈다 넣었다 한다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

토끼는 이 말을 듣자 이제는 살아 날 길이 열리는구나 하고 기쁨에 앞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여 나오는 것이였다. 토끼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아뢴다.

《세상에 길'짐승 가운데 소토는 홀로 아래'도리에 구멍이 셋이 있사오니 하나는 대변을 통하옵고 하나는

소변을 통하옵고 하나는 특별히 간을 빼내는 곳이옵니다.»

왕이 이 말을 듣자 다시 크게 노하여 꾸짖는다.

«네 말이 더욱 간사하다. 날'짐승 길'승을 물론하고 어찌 구멍이 셋 있는 것이 있겠느냐?»

토끼는 다시 리치를 따져 여쭙는다.

«소토에게 구멍 셋이 있는 래력을 말씀하오리니 들어 보십시오. 대개 하늘이 자시에 열려 하늘이 되옵고 땅이 축시에 열려 땅이 되옵고 사람이 인시에 생겨 사람이 나옵고 만가지 생물이 묘시[42]에 나와 짐승이 되였사오니 묘라 하는 글'자는 곧 소토의 별명이외다.

길'짐승의 근본을 따지고 보면 소토는 곧 길'짐승 중에 으뜸인 것이외다. 생생한 풀은 차마 밟지 아니하는 도덕이 높은 저 기린도 소토의 아래옵고 배가 고파도 좁쌀을 먹지 아니하는 지조 있는 저 봉황도 소토만 못 하옵니다. 그렇기로 특별히 하느님이 소토에게 해와 달과 별의 빛을 받게하여 세 구멍이 있게 된 것이외다.

대왕이 만일 제 말씀을 믿으시지 아니하실진대는 할 수 없으려니와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소토의 아래'도리를 조사하여 보옵소서.»

룡왕은 토끼의 말을 듣자 이상히 여겨 라졸에게 자세히 조사를 시켜 보니 과연 구멍이 분명히 셋이나 있었다. 그러나 의심이 다는 풀리지 않아 다우쳐 묻는다.

«네 말이 간을 구멍으로 능히 꺼낸다 하니 도루 넣을 때도 그리로 넣느냐?»

토끼는 속으로 이제는 내 계교가 거의 맞아 간다 생각하면서 말을 꺼낸다.

«소토는 다른 짐승과 같지 아니하온 일이 많사온데 보름'달의 빛을 받아 새끼를 배'속에 가지오며 새끼를 낳을 때는 입으로 낳으옵나니 옛글을 보아도 가히 알 것이외다. 이러하므로 간을 넣을 때에는 입으로 넣나이다.»

룡왕은 의심이 풀렸다 다시 생겼다 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 한다.

«네 말이 간을 빼 냈다 넣었다 한다고 하였는데 혹시 간이 네 배'속에 있는 것을 잊어 버리지나 않았느냐. 그런 것만 같다. 어서 간을 꺼내여 내 병을 고치고 보자.»

토끼가 다시 여쭙는데

«소토 비록 간을 꺼냈다 넣었다 하기는 하오나 그것도 일정한 때가 있는 것이외다. 달마다 초 1일부터 15일까지는 배'속에 넣어 해와 달의 밝은 기운을 호흡하여 보존하옵고 16일부터 30일까지는 꺼내여 산 속에서 흘러내리는 옥 같이 맑은 물에 씻어 푸른 솔과 대나무가 우거진 정갈한 바위 틈에 아무도 아지 못 하게 감추어 두는 것이외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신통한 령약이라 하는 것이올시다.

금일은 류월 초순이오나 자라를 만날 때는 오월 하순이였지요. 만일 자라가 대왕의 병세 이러하심을 말하였던들 몇 날 더 머물러서 가져 왔을 것을, 모두가 자라의 불찰이지요» 하고 말을 맺는다.

룡왕은 토끼의 말을 듣고 한동안 묵묵히 말이 없더니 속으로 생각한다.

—만일 제 말 같을진대 공연한 배만 갈라 간이 없으면 토끼가 죽은 다음 누구에게 물어 볼 것인가. 차라리 저를 잘 달래여 간을 가져 오게 함이 옳도다—하고 이에 다시 명령하여 결박한 토끼를 끄르고 친히 맞아 가까이 오르라 하는 것이였다.

토끼는 여러 번 사양 끝에 룡상 가까이로 올라가 황공해 하니 룡왕은 태도를 고쳐

«토처사[43]는 아까 나의 함부로 한 것을 허물치 말라» 하고 흰 옥잔에 천일주를 가득 부어서 권하며 놀랬던 것을 진정하라고 거듭 위로한다.

토끼는 공손히 잔을 받아 마신 뒤에 황송함을 말씀하는데 갑자기 한 신하가 나서더니

《신이 듣사오니 토끼는 본래 간사한 종류라 하였사오니 대왕은 그 말을 곧이 듣지 마시고 바삐 그 간을 내여 옥체를 보중하옵소서》 하고 말하는데 모두가 바라보니 이는 대사간 자가사리였다.

그러나 룡왕은 그 말에 도리여 불쾌한 빛을 보이며 《토처사는 산 가운데 숨은 어진 선비라 어찌 거짓말로 나를 속이리오. 그대는 물러가라》 하고 나무라니 자가사리는 분함을 이길 수 없어 그저 물러나고 룡왕은 큰 잔치를 배풀어 토끼를 대접하는 것이였다.

호화스런 잔치에는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금강초 불로초가 흰 옥쟁반에 그득히 벌려 있고 한 번 마시면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옥액 경장의 향기로운 술들이 잔마다 가득한데 신선 세계의 음악을 연주하며 미인 수십 명이 쌍쌍이 춤을 추며 〈릉파사〉란 노래를 부른다.

토끼는 술이 반쯤 취하여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간을 줄지라도 죽지만 아니한다면 이 곳에서 살고 싶구나— 하는 것이였다.

얼마 동안 흥에 겹게 즐기는데 룡왕이 토끼에게 은근히 말을 건넨다.

《나는 물 나라에서 살고 그대는 산에서 살아 물과 뭍이 멀리 가로 막혔더니 오늘 서로 이렇게 만남은 이 또한 하늘이 주신 기이한 인연이랄밖에 없으니 그대가 나를 위하여 간을 가져 오면 어찌 그대의 두터운 은혜를 잊어 버리리오, 단지 후에 갚을 뿐 아니라 마땅히 부귀를 같이 누릴지니 그대는 깊이 생각할지어다.》

토끼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으나 조금도 그런 표정을 나타내지 않고 흔연히

《대왕은 너무 념려치 마옵소서. 소토 외람히 대왕의 너그러운 덕을 입사와 죽게 된 목숨을 살게 하시니 그

은혜의 만분의 하나인들 어찌 갚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오며 하물며 소토는 간이 없을지라도 살고 죽는 데에는 관계 없사오니 어찌 이것을 아끼리이까» 하고 대답하자 룡왕은 매우 만족한 웃음을 띄우는 것이였다.

잔치가 끝나자 룡왕은 가까이 모시고 섰던 신하에게 명령하여 토끼를 인도하여 특별히 꾸민 객실에서 쉬게 하였다. 토끼는 안내자를 따라 한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붉고 푸른 아름다운 채색으로 찬란히 꾸민 집에 진주로 엮은 발이 사면에 드리워 있어 광채가 눈이 부실 지경이였었다.

운모로 수놓은 병풍을 둘러 친 그윽한 방에 이윽고 자리를 잡자 훌륭한 저녁 상이 들어 오는데 토끼가 살펴 보니 음식이 모두 인간 세상에서는 보지 못 하던 신기한 것이였다.

그러나 토끼는 마치 바늘 방석에 앉은 듯하여 생각이 자연 많아진다.

—내 비록 한 때 속임 수로 룡왕을 피였으나 이 곳이 오래 머물 데가 아니지… — 하고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 하고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나 룡왕을 뵈옵고 여쭙는다.

«대왕의 병세 점점 더하여 가시는지 이미 오래오매 소토 빨리 산으로 돌아 가 간을 가져 오고저 하오니 바라옵건대 소토의 작은 정성을 살피소서.»

룡왕이 흡족한 웃음을 얼굴에 띄우고 즉시 자라를 불러

«그대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다시 토처사와 함께 인간 세상에 나가라» 하고 명령한 다음 다시 토끼를 향하여

«그대는 속히 돌아 오라»고 거듭 부탁하며 진주 2백개를 주면서

«이것이 비록 적으나 우선 나의 정을 표하노라» 하는 것이였다.

토끼가 공손히 받고 룡왕께 인사를 한 다음 궁궐 문 밖으로 나오자 물 나라 모든 신하들이 다 나와 작별하며 속히 간을 가지고 돌아 올 것을 부탁하는데 홀로 대사간 자가사리만 오지 않았었다.

8

토끼는 자라 등에 다시 올라 푸른 물'결을 가르며 바다'가에 이르자 그의 기쁨은 어디다 견줄 데가 없을만 하였다.

—이는 참으로 그물을 벗어난 새요, 함정에서 뛰어난 범이로다. 만일 내 지혜 아니더면 어찌 고향 산천을 다시 볼 수 있으랴—하면서 토끼는 이리저리 뛰노는 것이였다.

이 때 토끼의 모양을 바라보던 자라가 어이없었던지

«우리의 돌아 갈 길이 급하니 그대는 바삐 손을 쓰라.» 한마디 건네자 토끼는 깔깔 웃으면서 대꾸하는데

«이 미련한 자라야, 오장 륙부에 붙은 간을 어찌 꺼낼 수 있단 말이냐. 지금껏 말한 것은 잠시 내 기특한 꾀로 너의 물 나라 왕과 신하들을 속인 것이로세.

또 너의 룡왕의 병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랴. 참으로 나무에서 물'고기 찾는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인가부다.

또 네가 무단히 산 속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나를 유인하여 너의 공을 나타내려 하였으니 괘씸하기 그지없다. 내가 물 나라에 들어 가 놀래던 일을 생각하면 온몸의 털이 모두 쭈볏 일어서고 뼈까지 떨린다. 너를 곧 죽여 분을 풀 것이로되 네가 나를 업고 만리'길 사나운 물'결을 헤염쳐 왕래하던 수고를 생각지 아니할 수 없어 네

목숨만은 살려 보내노니 빨리 돌아 가 저 늙은 룡왕에게 말하되 죽고 사는 것이 다 제 운명이니 다시는 부질없이 망령된 생각을 내지 말라 하여라» 하고 일장 훈계를 하더니 다시 한 번 크게 웃고 나서

«너의 일국 군신들이 모두 나의 묘한 꾀에 속으니 참으로 나라가 보잘 것 없다 하리로다» 하고 말을 마치자 빽빽이 들어 찬 소나무 사이로 들어 가 자취가 가뭇없이 사라지는 것이였다.

자라가 토끼의 가는 모양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내 충성이 부족하여 토끼에게 속은 바 되였으니 이를 장차 어찌한단 말인고» 하고 깊이 탄식하더니 다시 긴 한숨과 함께

«우리 물 나라 신하와 백성들이 복이 없어 룡왕이 장차 죽으리니, 내 토끼의 간을 얻지 못 하고 무슨 낯으로 돌아 가 임금과 모든 신하들을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이 땅에서 죽는 것만 같지 못 하구나» 하고 중얼거리더니 머리를 바위에 부딪쳐 죽으려 하는 순간에 누가 큰 목소리로 부른다.

«별 주부는 늙은 나의 말을 들으라.»

자라가 놀라 머리를 돌이켜 바라보니 한 로인의 머리에 절각건[44]을 쓰고 몸에 자지'빛 엷은 옷을 입었는데 자라 앞에 와서 빙그레 웃으며

«네 정성이 지극하기로 내 하늘의 뜻을 받아 한 개의 신선 세계의 약을 주노니 너는 빨리 돌아 가 룡왕의 병을 고치게 하라» 하면서 소매 속에서 약을 내여 주는 것이였다.

자라가 기쁘기 그지없어 두 번 절하고 받아 보니 크기가 아가위만한데 광채가 휘황하고 향취가 진동한다. 자라는 다시 절하면서

«선생의 큰 은혜는 우리 일국 군신이 감격하려니와 감히 묻잡나니 선생의 높으신 이름을 알고저 하나이다» 하고 치하의 인사'말을 하였다.

로인은

«나는 화타[45]로세.» 한 마디를 하였을 뿐 바람 같이 떠나 가는 것이였다.

주 해

[1] 숙제, 허유, 엄자릉, 벗님네, 안기생, 적송자, 류황숙, 소동파——모두 옛날 력사에 오른 사람들.

[2] 반도——반도는 소위 3천 년만에 열린다는 복숭아인데 일종의 불사약.

[3] 환갑——3천 번은 18만 년을 말하는 것.

[4] 호박——송진 같은 누른 빛이 나는 보석.

[5] 대모——거북 껍질.

[6] 차거——옥돌의 일종.

[7] 부용——련꽃.

[8] 객관——손님을 맞아 쉬게 하는 곳.

[9] 자헌대부——《자헌》은 《간선》 (종 2품) 바로 웃직품이요. 《간선》은 《통정》(정 3품) 바로 웃직품인바, 《통정》에서 《간선》까지에는 《령감 의》 존칭으로 부르고, 《자헌》 이상부터는 《대감》이라 부른다. 또 《통정》 이상을 《당상관》이라 하고 같은 정 3품이나 한 계층 낮은 《통훈》 이하를 《당하관》이라 한다.

[10] 약방제조——의약을 관리하는 벼슬. 제조는 실무는 보지 않고 감독만 하는 직책.

[11] 충훈부——공신들의 기록을 맡아보던 마을.

[12] 수덕——물 나라의 덕을 의미하는 그 년호.

[13] 령의정 겸 약방도제조, 종묘서 도제조——거북: (령의정——제 1 품. 의정부의 첫째 벼슬. 의정부는 모든 신하를 통솔하고 정치를 통할하는 최고 기관. 좌의정은 둘째, 우의정은 세째. 이를 3 정승이라고 함.

약방도제조——의약을 관리하는 신하들 중의 우두머리. 《도》는 우두머리라는 뜻.

종묘서. 력대의 죽은 왕들을 제사 지내는 곳. 종묘서 도제조는 그것을 관리하는 직책의 우두머리임.

[14] 좌의정 겸 훈련도감 도제도——고래: 훈련도감——군사 관계를 맡은 기관.

[15] 우의정——악어. 리조판서——잉어: 리조판서. 리조는 간부 행정과 지방 행정을 총괄함. 판서는 그 책임자.

[16] 호조판서——민어: 호조——인구, 토지, 세금, 재정 등에 관한 것을 말음.
[17] 례조판서——가재미: 례조——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것, 잔치하는 것, 중국 및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 례식 및 문화에 관한 일체를 말음.
[18] 병조판서——농어: 병조——무관 선발, 군사, 체신 등에 관한 것을 말음.
[19] 형조판서——준치: 형조——법률, 소송, 노비(남종과 녀종)에 관한 것을 말음.
[20] 공조판서——방어: 공조——산야, 공업, 토목, 보수 사업에 관한 것을 말음.
[21] 한성판윤——위어: 한성판윤——한성(서울)부의 행정 책임을 맡은 우두머리.
[22] 규장각 대제학 겸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붕어: 규장각——리조 력대왕의 저작, 글씨 등을 보관하며, 이름 있는 서적들을 관리하는 기관. 대제학——리조 시대 문학 행정의 최고 책임자. 문학 관계의 일체 사무와 관리 등용 시험인 과거 제목을 내고 성적을 평정하는 사업을 말음. 홍문관——일명은 옥당. 문학 관계의 부서. 예문관——문학 관계의 부서. 부제학——문어. 직제학——넙치.
[23] 승정원 도승지——조기: 승정원 도승지——승정원은 은대라고도 하는데 일체 관리의 중간에 있어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각 관리에게서 들어 오는 보고, 신소 등을 접수하여 왕에게 제출하는 기관. 승지는 승정원의 관원. «도»는 역시 우두머리의 뜻.
[24] 성균관 대사성——가물치: 성균관——리조 시대의 최고 교육기관. 대사성——실지로 성균관을 맡아 보는 책임자.
[25] 규장각 직각——도미. 규장각 대교——청어. 홍문관 교리——은어 예문관검열——숭어: 검열——팀이라고도 하는데, 력사의 편찬, 검열을 맡아 보는 사관임.
[26] 주서——오징어: 주서——한림의 딴 명칭. 사관 벼슬의 하나.
[27] 사헌부 대사헌——병어: 사헌부——상대라고도 함. 관리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다스리는 기관. 대사헌——사헌부의 우두머리 벼슬.
[28] 사간원 대사간——자가사리: 사간원——임금의 잘못을 간(잘못을 일러 고치도록 하는 것)하는 직책을 맡은 기관. 대사간——사간원의 우두머리 벼슬. 사간원 정언——모래무치.
[28] 상의원 도제조——상어: 상의원——임금이 입는 의복, 무기 등을 공급하는 관청.
[30] 훈련대장——대구. 금위대장——홍어. 어영대장——미어기. 총융사——장어: 총융사——5 영문의 하나인 총융청의 우두머리.
[31] 금군별장——고등어: 금군별장——대궐의 수직과 왕의 수레를 호위하던 룡호영의 우두머리.
[32] 포도대장——갈치: 포도대장——도적과 범죄자를 수색하기 위하여 야간에 순찰하는 포도청의 우두머리.

33 별군직——삼치：별군직——왕을 호위하며 범죄인을 조사하는 무관 벼슬.

34 사복내승——남성이：사복내승——궁중의 가마, 말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내사복시의 한 벼슬.

35 금부도사——명태：금부도사——중대한 범죄를 심의 재판하는 의금부의 벼슬.

36 원접사——인어：원접사——중국 사신을 멀리 나가 맞아들이는 벼슬.

37 라졸——도적, 화재 등을 경계 하기 위하여 인정(인경)을 울린 뒤 통행을 금지하고 순찰하는 군졸.

38 통천관——오사로 바탕을 하고 앞과 뒤에 열 두 주름을 잡고, 채옥 열 두 개를 달고 옥잠(옥 비녀)과 붉은 끈을 달았음.

39 강사포——왕이 입는 붉은 례복.

40 백옥홀——옥으로 만든 왼 손에 쥐는 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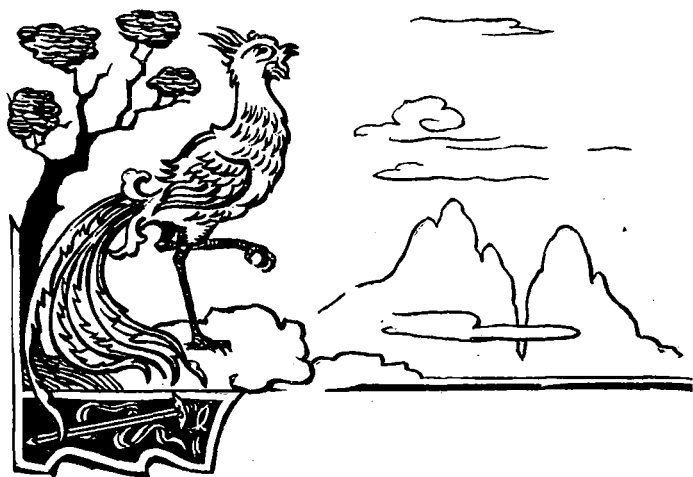
41 선전관——왕을 가깝게 모시며 전령 및 공'적 심부름을 맡아 보는 벼슬.

42 자시, 축시, 인시, 묘시——옛날 시간을 동물의 이름으로 표시하던 것인데 자시에서부터 시작하여 축시 인시 묘시… 이렇게 열 둘로 되였다. 즉 자는 쥐를 의미하며 밤 열 두 시경, 축은 소, 인은 범, 묘(토끼 묘'자)는 토끼… 등등, 토끼가 하늘은 자시에… 땅은 축시에… 하고 말한 것은 중국 고서에 있는 말을 옮긴 것임.

43 로처사——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글만 읽는 선비. 여기서는 토끼를 존칭해 부른 것임.

44 절각건——후한 때 곽태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비를 맞아 썼던 두건의 한 모서리가 축 늘어졌는데 사람들이 그의 높은 인품을 사모하여 일부러 그것처럼 한 쪽을 접어서 썼다는 데서 온 것임.

45 화타——중국 동한 때 사람으로서 의술에 능통하였음. 한방의에서는 그를 의약이 성인이라 존칭한다.

장끼전

1

하늘과 땅이 갈라져 정돈되자 만물이 번성하여 사람과 짐승도 생겨났는데 날'짐승도 삼백이요, 길'짐승도 삼백이였었다.

꿩의 모양은 다섯 빛갈로 령롱한데 갓과 의복이 그림처럼 아름다왔다. 그렇기 때문에 별호를 화충[1]이라고들 하였다.

꿩도 산과 들에 사는 짐승들의 천성대로 사람을 멀리하여 나무 숲 아니면 산속에서 흘러 내리는 맑은 물'줄기'가에 정자를 이룬 소나무 사이를 거닐면서 즐기였고 산 둔덕에 층층이 갈아 놓은 밭 아니면 들에 떨어진 곡식을 쪼아 먹으면서 임자 없이 태여난 몸이 한껏 자유스러우련만 관가의 포수나 사냥'개에게 결핏하면 잡혀 가 삼정승 륙판서와 감사나 군

수며, 부자'집 늙은이들에게 싫도록 먹히우고, 좋은 것은 골라내여 대장들이 군사들을 호령할 때 쓰는 기'대에 꽂히우고, 가게'방의 먼지털이로까지 씌우는 꿩의 공덕인들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랴마는 꿩의 운명이야말로 참으로 살얼음'장 같았었다.

평생을 숨어서 다니는 몸이 어떻게 좋은 경치라도 엿보려고 흰 구름 낀 제일 높은 산'봉우리를 향하여 조심조심 올라 가노라면 몸 가벼운 날쌘 매가 어디서 보았는지 여기서 저기서 꽁지에 단 방울 소리도 요란하게 달려들고 몽치 든 몰이'군들이 고함'소리를 목청껏 지르며 쫓아 오는 모양이란 천지가 아뜩하였다. 그 뿐인가, 냄새 잘 맡는 사냥'개는 행여나 조바심치며 숨어 있는 덤불까지 이리 쿵쿵 저리 쿵쿵 뒤적이며 다가 오지 않는가. 이러고야 살'길을 바랄 수 있단 말인가.

2

어느 겨울 날 장끼의 가족들이 떨어진 콩이나마 얻어 보려고 들녘으로 내려 가고 있었다.

장끼의 치장을 바라보면 진한 록색 비단으로 깃을 달고 흰 비단으로 동정을 한 진한 붉은 비단 웃옷을 떨쳐 입었는데 주먹 만한 볏은 옥관자[2]에 못지 않고 열 두 색갈의 꽁지 깃 무늬는 아름답기 비할 데 없었다. 온 몸을 둘러 싼 화려한 옷차림과 장식이 그의 풍채를 한결 더 잘나게 뵈이는 것이였다.

한편 장끼의 안해 까투리[3]의 치장도 그만 못 하지 않았다.

촘촘히 잘게 누빈 우 아래 의복을 단정히 갖추어 입고서 아홉 아들과 열 두 딸을 자랑스럽게 앞세운 다음 걸음을 재게 놀리라고 얼리는 것이였다.

«넓은 들에 우리 가족이 줄줄이 퍼져서 걸어 가며 너희들은 저 곬의 것을 줏고 우리는 이 곬의 것을 줏자꾸나. 알알이 콩을 모아 담뿍이 쌓인다면 사람 부러울게 무엇이겠니.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모두 자기에게 차례지는 량식이 왔다구. 한 번 량껏 배부르게 먹는 것도 우리의 복이란다.»

이렇게 암꿩이 자식들에게 이르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데 난데 없는 붉은 콩 한 낱이 뎅그렇게 불끈 솟아 있는 것이 눈에 띄였다.

장끼가 세상 물정을 다 잘 아는 어른인 체 하는 말이

«어허, 그콩 소담하다.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어찌 받지 않겠다 하겠나. 내 복이니 먹어 보자» 하며 썩 나선다.

까투리가 마음에 짚이는 데가 있었던지 손을 저으며 앞을 막고 타이른다.

«아직 그 콩 먹지 마소. 눈 우에 사람의 발 자취가 수상도 하구려. 다시 살펴 보니 입으로 훌훌 불고 비'자루로 싹싹 쓴 흔적이 매우 괴이쩍소. 제발 바라건대 그 콩을랑 먹지 마서요.»

장끼가 다시 웃어른답게 큰 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네 말이 미련하다. 이 때가 바로 동지 섣달이니 첩첩이 쌓인 눈이 곳곳에 덮여 있어 산에는 산'새들이 날기를 그치고 길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막혔거늘 어찌 사람의 흔적이 있겠느냐» 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였다.

까투리는 애가 타서

«당신 말씀이 그럴 듯하나 지난 밤에 꿈을 꾸니 크게 흉칙하더이다. 잘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하며 애원하는 눈'길을 보낸다. 그래도 장끼는 고집을 버력 쓰며

«나도 지난 밤에 한 꿈을 얻었는데 누런 학을 비껴 타고 하늘에 올라 가 하느님께 인사를 하였더니 나를 산속의 뜻이 높은 선비라고 칭찬을 하시고 콩 한 섬을 상금으로 주셨다네. 오늘 이 콩이 그 꿈이 맞는 증거라네. 옛 글에도 배고픈 자는 달게 먹고 목 마른 자는 급히 마신다고 하였으니 우선 주린 배를 채워 보자»고 달려 들려 하는 것이였다.

까투리는 안타까이 말린다.

«당신의 꿈은 좋은 꿈이 아니예요. 어제'밤 열 시쯤 해서 첫 잠이 들었는데 북망산 음산한 곳에 궂은 비가 흩날리며 하늘에서는 두 가닥 무지개가 난데 없이 칼로 변하면서 당신의 머리를 뎅겅 베여서 내려뜨리였어요. 당신이 죽을 꿈이예요. 제발 그 콩을 먹지 마서요.»

«그 꿈일랑 념려 말아. 임금님이 계시는 창경궁 안에 춘당대가 있느니라. 거기서 과거를 뵈지. 아마 이번 림시로 과거를 뵈려는가보다. 그래 내가 문과에 제일 첫째로 뽑히여 임금이 친히 주신 꽃가지를 머리에 헌뜻 꽂고서 서울 장안 큰 통로를 자랑스레 지나 갈 바로 그 꿈이 틀림없단 말일세.»

«아니예요. 밤중 열 두 시쯤 해서 또 꿈을 꾸었는데 당신이 천 근짜리 무쇠 가마를 푹 쓰고서 깊은 바다로 풍덩 빠져요. 그래서 나 혼자 그 물'가에 주저 앉아서 목을 놓아 울었더랬어요. 아직도 끔찍하던 그 정경이 눈에 뵈는 것 같아요. 부디 그 콩을랑 먹지 말아요.»

«그 꿈은 더욱 좋다. 명 나라가 기울어졌던 자기 나라를 다시 일쿠어 세우려고 구원병을 청하려는가보다. 그러면 내가 대장이 되여 머리 우에 쇠로 만든 투구를 위엄 있게 쓰고 압록강을 건너 가서 그 일을 도와 준 다음 개선 장군이 되는 바로 그 꿈이지.»

«당신 말씀도 그럴듯하외다마는 또 다시 꿈을 꾸니 늙은 사람은 벼슬이 높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장가를 드

느라고 잔치를 크게 차렸는데 스물 두 폭 구름 같은 천막을 받쳤던 굵다란 장'대가 우지끈 뚝딱 하고 부러지며 우리들의 머리에 흠뻑 덮여 씌우니 답답한 일을 볼 꿈만 같아요. 새벽녘에 또 꿈을 꾸었는데 늙고 아름찬 소나무들이 가득 들어찼고 삼태성, 태을성 같은 별들이 은하수를 둘렀더니 그 중의 어떤 커다란 별 하나가 뚝 떨어져 당신 앞에 내려지니 당신을 맡았던 별이 떨어진가 봐요. 중국의 삼국 시절에 제갈 공명이 오장원이란 들에서 목숨을 거둘 때 별이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디까.»

«그 꿈도 념려 말아. 천막이 내리 덮여 보인 것은, 지는 해가 서산으로 넘어 가고 밤 하늘에 유난히도 별들이 반짝일 때 아름다운 꽃과 풀은 병풍으로 둘리였고 포근한 잔디는 장판처럼 깔렸는데 나무 등걸을 베개로 하고 칡'잎으로는 요를 깔고 갈'잎으로 이불을 삼아 우리들이 투겨 덮고 아름 다운 꿈 나라에서 놀 꿈이요. 별이 떨어져 보인 것은 옛날 헌원씨 임금님의 어머니가 북두칠성의 빛을 받아 첫 아들로 그를 낳고, 견우 별과 직녀 별이 칠월 칠석날 서로 만나는 그런 꿈이라네. 그대도 곧 귀한 아들을 낳게 될터이니 그런 꿈만 많이 꾸어라.»

«새벽녘에 또 한 꿈을 꾸니 내가 색저고리 색치마로 단장을 곱게 하고 아름다운 산과 맑은 시내'가에서 놀고 있는데 난데 없는 청삽사리가 왈칵 뛰여 달려들며 그 모진 이'발로 물고 발톱으로 갈퀴여 깜짝 놀라 정신 없이 앞에 보이는 삼밭으로 달아 나는데 긴삼'대는 쓰러지며 굵은 삼'대는 춤을 추며 내 가는 허리에 휘휘 친친 감기여 뵈니 과부가 되여 상복을 입을 꿈인 것 같아요.»

장끼가 이 말을 듣자 성을 왈칵 내며 두 발로 까투리를 이리 차고 저리 차면서 욕을 하는데

«저 년이 얼굴 고운 자세를 하느라고 남편을 속이고 딴 남자와 좋아하다가 욕을 볼 꿈이로다. 그런 꿈 이야

기를 다시 또 내앞에서 하였단 앞 정강이를 꺾어 놓을 테다»고 게거품을 물고 덤비였다.

까투리는 장끼의 터무니 없는 말이 분하였으나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 급하여 다시 좋은 말로 타이른다.

«기러기가 북쪽으로 떠나면서 끼룩끼룩 구슬픈 울음을 울면서도 바람세를 따라 자기의 기운을 아끼면서 날아 가고 봉황새가 천 길 높이로 떠다니는 새지만 좁쌀을 먹지 않는 것은 군자의 지조가 아니겠어요. 그대가 비록 한 날 짐승이라 하더라도 뜻 있는 사람의 본을 받으셔야 해요. 백이와 숙제란 분은 도덕이 없는 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는다고 했으며 장 자방이란 사람은 의롭지 아니한 벼슬은 하지 않으려고 병을 핑계하고 물러 나지 않았나요. 이런 뜻이 높고 슬기로운 것을 본받아 그래도 이런 콩은 부디 먹지 마세요.»

장끼가 성난 것을 가라앉히고 다시 까투리와 말을 주고 받는다.

«네 말이 참 무식하다. 공자님의 첫째 가는 제자 안자의 학문과 도덕으로도 삼십밖에 더 못 살았고 백이와 숙제의 지조로써도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네. 다 부질없은 일이야, 먹는 것이 으뜸이지, 광무제란 임금도 전쟁 마당에서 굶주리게 되매 보리밥도 달게 먹고 마침내 나라를 흥하게 한 훌륭한 임금이 되였으며, 빨래하는 로파에게 밥을 빌어 먹던 한 신이란 사람이 한 나라의 대장이 된 것을 그대는 모르는가. 나도 이 콩을 먹고 크게 될지 모르지.»

«그 콩을 먹고 잘 된다면 무덤의 잔디를 보살피는 벼슬로나 첫째로 뽑히든지, 저 세상 원님으로 추천되여 이 세상과는 영원히 리별하게나 되기 쉽지. 내 원망은 부디 말으세요.

옛 글을 읽어 보면 고집을 부리면서 옳은 말을 듣지 않다가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망하게 한 일이 하나 둘인가요. 진시황이란 임금이 포악한 정치로써 백성들을 못살게 하고 학자들을 죽이고 책들을 모두 불태우고 갖은 몹쓸 일만 하면서 자기는 커다란 궁궐을 짓고 호사스레 지내다가 백성들이 들구 일어나서 멸망하고 말았지요. 그 때 진시황이 아들의 말까지 듣지 않았더라우. 또 초패왕 항우가 범증이란 분의 말을 듣지 않다가 팔천 명 군사들을 전쟁에서 다 죽이고 자기도 분'김에 자살하고 말았지요. 또 들어 보시려우. 어진 재상 굴원의 말을 듣지 않던 초 나라 회왕은 마침내 진 나라에 사로잡혀 죽었고 굴원이도 나라를 걱정하던 끝에 멱라수란 강에 빠져 죽고 보매 그 아니 원통한가요, 그대도 고집을 너무 부리다가 자기 목숨에 죽지 못 하리다.»

«콩 먹고 누구든지 다 죽을가. 옛 글을 보면 콩태'자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오래 살고 귀히 되더구먼.

옛날 나라를 잘 다스리였다는 태호 복희씨란 임금은 오래 살기까지 하였는데 콩태'자가 이름'자에 들어 있었고 한태조 당태종 같은 왕들도 나라를 세운 분들로서 콩태'자가 이름에 끼여 있지 않나. 오곡이나 잡곡을 가릴 것 없이 콩이 제일이라네. 또 들어 보려나. 위수 강'가에서 낚시질하던 강태공은 일백 예순 살까지 살면서 귀하게 지내였고 시의 왕이라고까지 존경하는 리 태백의 이름에도 콩태'자가 들어 있단 말일세. 북쪽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태을성이란 별은 하느님을 지키는 별로서 별가운데서 으뜸 가는 별이라지 않아.

나도 이 콩을 달게 먹고 강 태공 같이 오래 살고 리태백이 같이 존경을 받다가 하느님을 모시는 태을 신선이 되려네.»

까투리가 더는 말릴 수가 없어서 애연히 뒤로 물러서자 장끼는 콩을 쪼아먹으려고 우쭐거리며 앞으로 다가

드는데 나래를 펼쳐 들고 열 두 색갈의 광지를 추겨 들면서 고개를 우 아래로 놀리며 급기야 반달 같은 입부리로 힘을 주어 꽉 찍었더니 난데 없는 차위가 우 아래로 퉁겨지며 머리 우에서 와지끈 뚝딱 벼락치는 소리가 난다. 장끼는 푸드득 하더니 그만 센 차위에 치우고 말았다.

까투리가 결국 이 광경을 보자 앞이 아뜩하여졌다.

«여보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소. 남자로서 녀자의 말을 너무 잘 들어도 안 된다지만 안 들어도 좋을턱 없다오» 하며 자갈 밭 머리에 짧은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데굴데굴 굴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였다. 까투리의 애통해 하는 모양은 참으로 가련하였다.

가슴을 치며 잔디를 쥐여 뜯으면서 두 발로 땅을 땅땅 구르는 그의 슬픔은 하늘에 사무치는 듯하였다. 더우기 아홉 아들과 열 두 딸들이 목을 놓아 우는 정경은 눈물겨워 차마 볼 수 없었다.

잎 떨어져 쓸쓸한 산중에는 조상 온 친구 친척들의 울음 소리가 가득 찼다.

까투리가 가슴이 터지는듯 슬픈 가운데 한탄이 저절로 나온다.

«쓸쓸하고 적막한 산 속에 차거운 달'빛이 비껴드는 외로운 이 밤 접동새의 구슬픈 울음이 내 설음을 한결 더 자아내는구나. 자치 통감이란 책에 좋은'약이 입에는 쓰나 병에는 리롭고, 충고가 귀에는 거슬리는 내 몸가짐에는 리롭다는 공자님의 말씀이 적혀 있듯이 그대도 내 말만 들었더라면 이런 변을 당하지 않았을 걸.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불쌍하구나. 우리 부부가 누구보다도 못 하지 않게 의가 좋았던 것을 이제 와서 말한댔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눈물은 못이 되고 한숨은 바람과 비가 되겠구나. 아이고 가슴에 불이 붙어요. 장차 누구를 의지하고 산단 말이요.»

장끼가 차위에 치여 금방 죽게 된 목숨으로 허위적 시면서도 남편 체면을 차리려고

«에라 이년 요란스럽다. 범을 만날 줄 미리 알았더면 산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니. 미련이 앞을 서고 뒤에 지혜가 따른다고 하지 않았니, 사람들도 죽고 사는 것을 맥을 짚어 보아 안다고 하니 내 맥이나 한 번 짚어 보구려.»

까투리가 어른 장끼의 맥을 짚어 보더니

«비장과 위장에 통한 맥은 끊어지고 간에 통한 맥도 싸늘해요. 아이고 이게 웬 일이요. 원쑤로다 고집불통 원쑤로다» 하며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였다.

장끼는 그래도 살아 날 길이 있는가 하여

«맥은 그러하나 눈청을 한 번 살펴 보오. 눈'동자나 온전한가 좀 자세히 보소.»

까투리가 한숨을 지으며 눈을 또 비루집어 보더니

«인제는 할 수 없다. 저편 눈의 눈'동자는 지금 금방 떠나려고 파랑'보에 보'짐을 싸고 곰방'대에 담배를 붙여 물고 길 떠날 때 신는 질목보선에 감발을 하는구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가 이다지도 기박한가.

첫째 남편 얻었다가 보라매에게 채여가고 둘째 남편 얻었다가 사냥'개에게 물려 가고 세째 남편 얻었다가 살림도 채 못 하고 포수의 총에 맞아 죽고 이번 남편 얻어서는 부부가 다정하게 지나면서 아홉 아들에 열 두 딸을 낳아 놓고 자식들을 아직 시집 장가도 보내지 못 하였는데 배고픈 것이 원쑤로 콩 한 개를 먹으려다 남편이 저 차위에 덜컥 치였으니 속절없이 영리별되겠구나.

내가 방정 맞아 그러한가, 불쌍하다 우리 남편, 나이가 많아서 죽었는가, 병이 들어 죽었는가, 그도 저도 모두 아니고 가난 때문에 죽었고나. 어찌하면 살려 낸단 말이요.

앞 뒤에 섰는 자녀들을 이제 누가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들이며 지금 배'속에 든 것은 또 어쩌란 말이요.

경치 좋은 곳에 깨끗한 집을 짓고서 넓은 뜰에는 각 가지의 꽃을 심고 당신과 함께 백 년을 즐기자고 했더니 단 삼 년을 못 살고 영영 리별이 웬 일이요.

저렇듯 좋은 풍채를 언제 다시 만나 본단 말이요. 명사 십리의 해당화야 너는 꽃이 떨어진다고 한탄을 말어라. 명년 봄이 되면 다시 너는 피겠지만 우리 남편 한 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렵구나. 차마 잊지 못 하겠소. 나는 어찌하면 좋겠어요» 하며 통곡하는 것이였다.

장끼가 반눈만 뜨고 위로 겸 부탁을 한다.

«그대는 너무 서러워 마소. 남편이 잘 죽는 그대네 집에 내가 장가 가기가 실수였지, 이 말 저 말 할 것 없소. 죽은 놈은 다시 살 수 없다고 하지 않았소. 이제는 서로 다시 보기는 틀렸소마는 그대가 굳이 나를 한 번 더 보려거든 래일 조반을 일찌기 먹고서 이리로 나왔다가 차위 임자를 따라 가서 김제장이나 전주장이나 혹은 청주장으로 가는가, 그것도 아니면 감사가 계신 감영이나 절도사가 계신 병영이나 원님이 계신 관청으로 가는가, 서울 대감으로 가는 선사 물품에 끼여 가는가, 그것도 아니고 사'도 밥상에 오르는지, 그렇지도 않고 혼인 집에서 신부가 시부모께 처음 인사로 올리는 물품으로 되는지 그게나마 알아 두소. 불쌍하구나. 내 신세가 참 불쌍하구나. 울지 말아, 내 까투리야 울지 말아, 사내 대장부의 무쇠 같은 간장이 다 녹는다» 하더니 장끼가 마지막 기를 쓰는 데 차위의 아래 고패를 벋디디고 뒤'고를 당기면서 버럭버럭 죽을 힘을 다 내여 기를 써 보았지만 살 길이란 전혀 없고 털만 쑥쑥 빠졌다.

3

이 때 차위 임자 탁 첨지가 망을 보다가 장끼가 치여 넘어져 있는 것을 보자 털모자를 깊숙히 눌러 쓰고

지팡막대를 휘두르며 달려 들어 장끼를 빼여 들더니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지화자 좋을씨고, 안남산의 맑게 흐르는 물을 네가 마시러 왔댔느냐, 밖남산에 붉게 핀 복숭아꽃 놀이에 네가 놀려 왔댔느냐, 음식을 탐내다가 네 몸을 망쳤구나, 콩 한 개 먹으려다가 산 속에서 자유스레 놀던 네가 내 손에 잡혔구나, 산신에 제사하여 네 가족과 네 친척을 깡그리 잡구야 말 터이다.» 하더니 장끼가 비뚜루 빼여 문 혀를 뜯어 내여 바위 우에 얹어 놓고 두 손을 마주 대고 비는데

«장끼가 걸린 저 차위에 까투리마저 치우소서, 나무아미타불[4] 관세음보살» 하고 외우면서 꾸벅꾸벅 절을 하더니 탁 첨지는 그만 집으로 내려 가는 것이였다.

까투리가 가슴을 조이며 숨어 있다가 뒤'이어 바위 있는 곳으로 달려 가서 장끼의 혀'바닥과 푸시시 널려진 털들을 찾아 주어 모아 가지고 칡'잎으로 싸고 또 댕댕이풀로 두 번 싼 다음 원추리풀에 장끼의 이름을 써서 어린 소나무'가지에 걸어 놓고 장사를 지내는데 산소 자리는 발머리에 정하고서 고이 시체를 묻은 뒤에 먼저 산신과 부처님께 다 지내고서 제사'상을 차리는데 가랑'잎에 이슬을 받아서 도토리를 잔으로 삼아 부어 놓고 속새'대로 수저까지 만들어 놓았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따라 정성을 극진하게 들이는 까투리의 마음씨는 눈물겨웠었다.

이 때 친구들과 친척들이 두루 장사'일, 제사'일 제각기 맡아 보아 주는데 의복 차림과 풍채가 좋은 두루미는 제사'일을 주관하고, 몸이 가볍고 행동이 민첩한 제비는 손님을 접대하는 직책을 맡았으며, 말을 잘 하는 앵무새는 제사'상에 음식을 차리고, 따오기가 꿇어 앉아 장끼의 죽은 넋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가족의 뜻을 받아 축문을 읽는다.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 과부 까투리는 감히 장끼 남편님께 아룁니다. 장끼 남편님의 시체는 무덤 속으로 돌아 가시고 넋은 집으로 돌아 오소서, 바라옵건대 그대는 옛것을 버리시고 새 것에 의지하소서.»

모두가 수연한 마음을 금치 못 하는 것이였다.

이윽고 제사가 끝나자 상을 거두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소리개 한 마리가 떠오다가 배가 고프던 참이라 굽어 보며

«어느 놈이 만상제냐, 내가 데려 가련다» 하고 우루룩 달려들어 그 무서운 두 발로 꿩새끼 하나를 툭 차 가지고 공중으로 높이 뜨더니 가파로운 절벽 우로 너울너울 돌다가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꼭대기에 덤썩 앉아 꿩새끼를 이리저리 뒤적이면서 흥에 겨워 중얼거리는 것이였다.

«감기로 몸이 불편하여 입맛이 떨어져서 십여 일이나 먹지를 않았더니 오늘이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맛 있는 것을 얻었구나. 문어 전복 해삼탕은 정승들이 좋아하는 료리요, 향기로운 버섯 자반에 송엽주는 임금의 진지'상에서 으뜸되는 자리를 차지할 것이요, 십 년에 한번 열린다는 신선 세계의 복숭아는 서왕모가 제일로 치는 과실이요, 일 년 열 두 달 향기 속에 취한다는 약산주는 상산에서 바둑 두는 네 분 선생이 가장 즐기는 바요, 저절로 죽은 강아지와 곰지 안 난 병아리는 소리개 장군의 일등 료리라네. 그러나 굵으나 작으나 꿩의 새끼를 지금 하나 얻었으니 주린 김에 먹어 보자» 하며 또다시 너울너울 춤을 추다가 아차하고 돌아다 보니 꿩의 새끼가 바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였다. 어디로 날쌔게 숨었는지 꿩의 새끼는 간 곳이 없었다. 소리개가 속절없이 물러 앉아 탄식하며 하는 말이

«옛날 중국의 삼국 때 명장으로 이름 높던 관운장이 화용도란 그 좁은 길목에서 잡았던 조소를 놓아 준 것은

의리를 생각하였던 때문이요, 예리하고 민첩한 소리개 장군 나로서 꿩의 새끼를 놓아 준 것도 또한 선심을 쓴 것이랄밖에, 그 덕에 자손이나 번성하겠지» 하고 그만 단념하고 날아 가는 것이였다.

이 때 또 태백산의 갈가마귀가 북악산을 구경하고 돌아 오는 길에 허기 증이 나서 무엇을 얻어 먹어 볼가 하는 음흉한 생각으로 까투리에게 남편 죽은 위로를 하더니 과실을 얻어 먹은 뒤에 탄식하며 하는 말이

«그 친구 풍채가 좋아서 오래 살줄 알았더니 붉은 콩 한 알을 탐내다가 억울한 죽음을 하였구나. 우리야 그따위 콩을 보아도 안 먹지.

여보 까투리 마누라님 내 말을 들어 보시우. 오늘 이 자리에서 체면은 안 되였소마는 옛말에 이르기를 장수가 나면 룡마가 생기고 문장가가 나면 명필이 또한 난다 하였으니, 그대 남편 잃자 내가 오늘 이 곳에 도착한 것은 참으로 연분이라 할 수 밖에 없소. 꽃을 본 나비가 불을 무서워하며 물을 본 기러기가 낚시질하는 늙은이를 두려워할가. 내 집안 살림 형편과 내 집 가문을 그대가 잘 아는 바라, 우리 둘이 손을 잡고 힘써 벌면 무슨 걱정이 있겠소. 백 년을 하루 같이 즐겁게 살아 봅시다. 그대 생각은 어떠시오?» 하고 능청을 부린다.

까투리가 한숨을 지으면서 눈물 절반 말 절반으로 거절한다.

«아무리 하잘 것 없는 조그만 짐승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더욱 몸을 조심하면서 삼 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 법인데 그것도 못 마치고 다시 시집을 가는 것을 누구네 집에서 보았나요. 옛말에 이르기를 구름은 룡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 하였으며 또 한 남편을 섬기라 하였는데 그럴 법이 어디 있겠어요.»

까마귀가 실쭉해서

«네 말이 참 우습구나. 시전이란 책의 개풍장이란

제목에는 아들이 일곱이나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한다고 씌여 있는 것을 네 모르는가. 사람도 그렇거늘 하물며 너 같은 작은 짐승으로 몸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까투리가 렬녀되였다고 기념비 세워 준 것을 지금껏 본 일이 없네» 하고 빈정거리는데 부엉이가 이 때 어데서 날아왔는지 뛰여 들며 남편 죽은 위로를 하더니 까마귀를 향하여 꾸짖는다.

«몸뚱이도 검거니와 입부리도 괴상하게 생겼구나. 어른이 오시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거만스레 앉았느냐.»

까마귀도 성을 내며 대꾸한다.

«버릇 없는 너 부엉아. 눈은 우묵하고 귀가 쫑긋하면 어른인 듯 싶으냐. 내 몸이 검다고 네가 웃는다마는 속은 누구보다도 흰 나일세. 내 몸이 검은 연유를 네 들어 보아라. 그것은 내가 우연히 산음 땅을 날아 지나다가 천하 명필 왕 희지가 벼루 씻는 못에 나래를 잘못적신 때문이네. 나의 입부리가 이런 것도 웃지말아, 옛날 월 나라 구천이란 임금도 내 입과 같았으나 십 년을 칼을 갈아 성공을 하였다네. 네가 옛 글도 모르면서 어른은 무슨 어른이냐. 저 놈을 그저는 두지 못 하겠다. 래일 회람을 돌려 회의를 열고서 벌을 준 다음 선량한 사람의 명부에서 제명하고야 말 테다» 하며 호통치자 부엉이가 다시 대들어 서로 다투는 판에 높은 하늘'가에 떠가던 외기러기가 우연히 이 광경을 보고 내려 앉더니 목을 길게 뽑아 까마귀와 부엉이를 꾸짖는 것이였다.

«너희가 무슨 어른 다툼이냐. 한 나라 소 무 같은 충신이 적국에 사로 잡혀 십 구 년이란 긴 세월을 고생으로 지낼 적에 그의 한 장 글'발을 한 나라 임금께 내 손으로 바쳤으니 어른을 보려거든 나를 보아라. 너희가 무슨 어른이냐.»

이 때 앞 련못의 물오리가 일곱 번 상처를 하고 아들도 딸도 없이 외롭게 지내는 중에 후처를 다시 구하던

터이라 까투리가 남편을 잃었단 말을 듣자 혼사를 하자고 미리 청하지도 않고 벌써 혼인 준비를 하는데 울음소리도 화락한 기러기로 앞장을 세우고, 부부가 의좋기로 유명한 비오리로 비단 옷과 례물을 넣은 함을 지게 하고, 원기 좋은 황새로 후행을 삼고, 소리 큰 왜가리로 길잡이를 정하고서 맵시 있는 호반새로 련락하는 직책을 맡겼었다.

이 날 호반새가 들어 오며 전하는 말이

«까투리 신부 계신가, 오리 신랑 들어 가네.»

까투리가 난처한 환경에서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다 못해 안타까운 마음과 외로운 신세를 한탄하여 눈물을 금치 못 하다가 느닷없이 신랑이 들어 온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과부가 만만한들 미리 혼인 말도 하지 않고 내 생각도 묻지 않고서 억지 혼사를 하겠단 말이요?»

오리의 수작이 또한 능청스러웠다.

«과부 홀아비 만나는데 무슨 절차가 많겠소. 신부 신랑 둘이 만나면 결혼이 되는 게지 어디 그대가 말하는 좋은 날이 따로 있는가. 하늘의 덕과 사람의 덕이 합한 오늘이 으뜸 날일세. 남녀가 합하는 것은 백 가지 복의 기초라네, 잔말 말고 결혼하세나.»

«자네는 남자라고 내숭스런 말을 제법 잘 하는구려» 하고 까투리가 어이없어 하는데 오리가 성큼 맞받아 대꾸한다.

«호강스런 내 생활을 한 번 들어 보겠소, 영주, 봉래, 방장의 삼신산에서 흘러 내리는 청강수 맑은 물'가에 모인 신선들이 배를 타고 달'빛을 사랑하여 향기로운 술'잔을 기울이면서 노니는 그들의 모양을 구경할 수 있는 것도 물 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일이요, 소상강이나 동정호 같은 이름 있는 강과 호수로 자유로이 오락가락하면서 은'빛 같은 비늘이 번쩍이는 탐스러운 물'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물에서 아니면 어디서 맛보겠는가.»

그러나 까투리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이였다.

«물 우의 생활이 좋다한들 륙지와 같을 수 있겠소. 그대는 륙지 생활을 한 번 들어 보시려우. 끝이 없는 넓은 들로 오락가락 자유로이 거니는 재미도 상쾌하거니와 층층이 겹쌓인 가파로운 절벽이 칼날 같이 솟은 높은 봉우리 우로 허위허위 올라 가서 동서 사방을 이리저리 바라볼 때는 좁은 가슴도 넓게 탁 트이는 것 같다오. 꽃피는 이른 봄이나 버들'잎이 푸르른 늦은 봄에 아침 비가 먼지를 적시고나면 버들'잎은 한결 새파란데 황금색 꾀꼬리는 버들'가지 사이로 날아 들고 하루'밤 봄'바람에 활짝핀 붉은 복숭아꽃과 흰 배꽃이 접동새의 구슬픈 울음을 자아내게 하는 정경이야말로 한 포기 풀이나 조그만 벌레에게도 뜻 있는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오. 그뿐인가 팔구월 가을 국화가 산들과 들에 가득히 피면 과실이 탐스럽게 익지요. 이 실과 저 실과를 주어 모아 앞뒤로 쌓아놓고 행복을 노래하는 꿩 장군의 울음 소리가 또한 흥겨울 밖에요, 물 우의 재미가 좋다한들 륙지 생활에 비길수 있겠소.»

오리가 대답할 말에 궁하여 얼굴이 붉어지며 뎜뎜히 앉았는데 그 곁에서 위문 왔던 장끼가 썩 나서면서 낯빛을 바로하고 말을 꺼내는 것이였다.

«내가 홀아비로 있은지 삼 년에 마땅한 신부'감이 없어 근심이더니 오늘 그대가 과부가 되자 내가 이리로 찾아 오게 된 것은 하늘이 정해 주신 부부의 연분이 분명하오. 우리 둘이 짝이 되여 아들 낳고 딸을 낳아 아들은 장가를 보내고 딸은 시집을 보낸 다음 그대와 백 년을 하루 같이 즐겁게 살아 보세.»

까투리가 고개를 숙여 다소곳이 듣더니 마음이 움직이고 가슴이 설레는 것을 가까스로 진정하면서 나직이 입속 말로 대답한다.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 개가하기가 박절하나 외로운 신세를 생각하니 내 어찌할 수 있소, 내나이도 아직 청춘이니 울고만 있겠어요, 오늘 그대의 믿음직한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을 걷잡을 수 없어요. 이 마당에서 허다한 홀아비가 혼인을 하자고 하는 것을 옛날 주목왕 때 신하로서 초 나라의 무리한 강압적 요구를 당당히 거절하던 왕손만의 본대 대로 다 물리쳤건마는 옛 글에도 있듯이 같은 족속끼리 모인다고 까투리가 장끼 신랑을 따라 가는 것이 떳떳한 일인가 해요. 그대의 말씀을 좇겠어요. 이 내 몸을 받아 주세요.»

장끼 신랑이 꺽꺽 푸드득하며 좋아라고 까투리 신부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였다.

까투리를 꾀이고 달래던 까마귀, 부엉이, 물오리들이 얼굴이 벌개지면서 모두 훨훨 날아 흩어지자 조상 왔던 친구들과 친척들도 다 집으로 돌아 가는데 갈정새는 호루룩, 방울새는 딸랑, 앵무새, 공작, 기러기, 왜가리, 황새, 뱁새들이 제각기 자기 모양 대로 날아 가는 것이였다.

까투리는 새 랑군을 앞세우고 아홉 아들과 열 두 딸을 뒤 세우고 눈'바람을 헤치면서 수림이 울창하고 물'소리 맑은 보금자리로 돌아 갔다.

다음 해 봄, 장기 까투리 부부는 아들 딸들을 모두 좋은 곳에 시집 장가를 보내고서 암컷 수컷이 어깨를 가지런히 하여 이름 있는 산과 강을 두루 구경하며 행복하게 지내다가 시월 십오일 물이 처음으로 얼고 땅도 처음으로 얼 때 부부가 의좋게 큰 물로 들어 가 조개[5]로 변하였다고 한다.

주 해

[1] 화충——꿩의 깃빛이 화려한 데서 온 별명.

[2] 옥관자——옛날 망건을 쓰고 그 우에 갓을 썼는데 망건에 달린 줄을 꿰는 고리를 관자라고 하였다. 직위에 따라 옥, 금, 뿔, 뼈 등을 사용하였음.

[3] 까투리——수꿩을 장끼, 암꿩을 까투리로 구별하여 부르는 것. 원앙새도 원은 수컷 앙은 암컷을 말하는 것이고 봉황새도 봉은 수컷 황은 암컷임.

[4] 나무아미타불——불교에서 소위 무엇을 념원할 때 외의는 말.

[5] 조개——례기 월령 편에 적혀 있는 꿩이 큰 물로 들어 가 조개가 되였다는 말에서 온 것.

숙향전

화설[1]중국 대송시에 일위 명공[2]이 있으니 성은 김이요 명은 전이니 대대로 명문 거족이라 그 부친 운수 선생이 도덕이 높은 선비라. 공명[3]에 뜻이 없어 산중에 은거[4]하여 세월을 보내더니 천자[5] 들으시고 그 도덕을 아름다이 여기사 사관[6]을 보내여 리부상서[7]로 부르시되 종시 나지 아니하고 산중에서 죽으니라.

김 전의 문장이 빼여나매 리 적선 두목지[8]를 압두하고 필법은 왕 희지[9]와 조맹부[10]를 묘시[11]하니 수학하난 선비 구름 모이듯 하더라

일일은 동학[12]에 사난 봉우[13] 호주부에 벼슬하여 부임하러 갈새 십리 장정에 전송하려 하고 주효를 가지고 반하 물가에 이르렀더니 모든 어부 한 거북을 잡아 가지고 구워먹으려 하거날 김 전이 보고 또 자서히 보니 그 짐승의 이마 우에 «하

늘 천» 자 있고 복상[15]에 또 «하늘 천» 자 있으니 비상한 줄 알고 «도로 놓으라» 하니 어부등 왈.

«우리 종일 낚시질하여 겨우 이 짐승을 잡았거날 어찌 놓으리오» 하니 그 짐승이 김 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죽기를 싫어하난 형상이라. 김 전이 가져 왔던 주찬을 주고 바꾸어 물에 넣으니 그 거북이 물 속으로 들어가며 김 전을 돌아 보더라.

김 전이 벗을 전송하고 돌아 오난 길에 반하를 건너더니 문득 풍랑이 대작하여 다리 무너지며 사람이 빠져 죽었고 또한 김 전도 죽게 되였더니 홀연 앞에 검은 매판[16] 같은 것이 물 우에 떴거날 김 전이 그 우에 올라 앉으니 비록 은신하였으나 이마를 맞대고 그 짐승으로 하여금 네굽을 허위며 빠르기 살 같이 뛰여 건너 륙지에 내리거날 생각하매 필위[17] 반하 물자에 넣었던 거북이 은혜를 갚고저 함이라. 전이 무수 사례하매 그것이 입으로 안개 같은 것을 토하니 광채 무지개 서듯하여 황홀하더니 이윽고 그 기운이 진하며 또한 간데 없고 새알만한 구슬 두 개가 놓였거날 김 전이 더욱 기이히 여겨 두 손으로 들어 자서히 보니 구슬 가운데 오색 빛이 찬란한데 하나난 «목숨 수» 자요 하나난 «복 복» 자여날 전이 마음에 헤오대[18] «일정[19] 거북을 반하수에 넣은 연고[20]라» 하고 거두어 가지고 집에 돌아 왔더라.

김 전이 나이 이십여로되 집이 빈한하여 취실[21]치 못 하였더니 형초[22] 땅에서 사난 장 희라 하난 사람이 공명에 뜻이 없어 벼슬을 구치 아니하고 있으나 본대 공후[23] 자손이라. 집이 유여[24]하며 슬하에 무남 독녀를 두었으니 위인이 빼여나고 재용[25]이 현철[26]하니 장 희 부부 장중[27] 보옥 같이 알아 택서[28] 하기를 범연[29]치 아니더니 김 전의 어짐을 듣고 구혼하니 김 전이 반하에서 얻은 진주로써 빙폐[30]하매 장 희 부인 왈

«공경[31] 대부 구혼하난 자 구름 모이듯 하되 허치 아니하고 구태여 가난한 김 전에게 허혼[32]하여 이제 김 전의 빙물[33]을 보니 그 빈한을 가히 알지라. 다만 일녀[34]의 평생을 그르게 하시나뇨.»

장 희 왈

«혼인은 인륜[35] 대사라. 부인의 알배 아니요 더욱 혼취[36]에 재물을 취함은 이적[37]의 류라. 또한 빙폐하난 진주를 보니 이는 천금으로 바꾸지 못 할 배라.»

장인으로 꾸며 지환[38]을 만드니 광채 황홀하여 바로 보지 못 할러라. 이에 녀아를 주고 택일[39]하여 김 전을 맞으니 량인의 풍광[40]이 서로 참치[41]하더라. 장 희 김 전을 보매 희색이 과만[42]하여 사랑함이 친자 같더라.

김 전이 장씨를 취하매 원앙[43]이 록수에 놀고 비취[44] 련리[45]지에 깃들임 같더라.

삼년만에 장 희 부부 쌍망[46]하니 장씨 망극[47]하여 슬허함을 마지 아니하고 김 전이 장사를 례로[48] 한 후 조석 제사를 극진히 받들고 세월을 보내더라.

이러구러 여러 춘추 지내되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슬허하더니 이해 추칠월 망간[49]에 김 전과 장씨 루[50]에 올라 월색을 구경하더니 홀연[51] 공중으로서 꽃 한 송이 떨어져 장씨 앞에 내려지거날 고이히[52] 여겨 자서히 보니 리화도 아니요 매화도 아니로되 향취 진동하거날 김 전이 보더니 문득 광풍이 대작하여 꽃이 산산이 흩어져간 바를 아지 못 할러라. 장씨 마음에 연연[53]하여 돌아 왔더니 차야에 일몽을 얻으니 달이 떨어져 금돌이 되여 품에 들어 뵈거날 놀라 깨니 남가 일몽[54]이라. 크게 의혹하여 김 전을 깨와 몽사[55]를 이를새 김 전 왈

«작일 계화 일지 앞에 떨어져 뵈더니 금야 몽사 또한 여차[56]하니 하날이 우리 무자함을 불쌍히 여겨 귀자[57]를 점지[58]하시도다.»

하더니 과연 그 달부터 태기 있으니 김 전 부부 크

게 기꺼 아들 낳기를 바라더니 십삭이 차매 장씨 곤비[59] 하여 이지[60] 못하거날 김 전이 의약으로 치료하더니 사월 초파일에 기이한 향내 나며 상운[61]이 집을 둘러 싸며 밤이 깊은 후 선녀 한 쌍이 나려 와 이르대

«집을 쇄소[62]하고 있으면 선녀 하강[63]하리라.»

하고 산실로 들어 가거날 김 전이 바삐 나와 노복[64]을 시켜 집을 새소하더니 이윽고 오색 채운이 집을 두르며 향취 진동하거날 김 전이 행여 장씨 죽을가 하여 침소에 가 열어 보니 그 부인이 순산하고 두 선녀 벌써 문밖에 나왔으니 가난 것을 보랴한즉 보지 못 할러라.

김 전이 놀라 즉시 방중에 들어 오니 장씨 혼절[65]하였거날 수족을 주물러 깨우니 반향[66]후 인사를 차려 보거날 김 전이 대희하여 아해를 보니 옥골[67] 선풍이 비범[68] 탈속하여 기이한데 한날 녀아라. 남자 아님은 서운하나 이름을 숙향이라 하고 자를 월궁선이라 하여 사랑하고 귀중함이 비길데 없더라.

년광[69]이 오 세에 이르매 더욱 아름다와 월궁[70] 선아 하강함이 아니면 망월[71]이 운무[72]를 헤치고 벽공에 걸렸난 듯 사람의 눈이 현황하고 성음이 청아[73]하여 백옥을 산호채[74]로 두드리난 듯 하더라. 백사[75]에 진선 진미하니 김 전이 행여 단수[76]할가 저어[77]하여 상보난[78] 사람 왕 규를 청하여 숙향의 사수를 물으니 규 왈

«이 아해난 인간 사람이 아니라 월궁 항아의 정맥[79]이라. 일정 귀이 되리로소이다. 다만 옥제[80]께 득죄[81]하고 인간에 나왔사오매 초분[82]은 험하고 그 후난 길하리이다.»

하니 김 전 왈

«우리 의식이 족하니 초분이 어찌 괴로우리오.»

규 왈

«미리 정치 못 할 것은 사람의 팔자오니 오 세에 부모를 리별하고 사방으로 표박하다가 이십이 되면 부모를

다시 만나 부귀 영화하고 이자 일녀를 두어 부귀를 누리리니 또 칠십 세에 도로 천상으로 올라가리이다.»

김 전이 믿지 아니하나 행여 잃을가 저어하여 생월 생시를 써서 금낭[83]을 만들어 숙향을 채왔더니 이때에 국운[84]이 불행하여 금국[85]이 반하여 황성[86]을 침노하니 먼저 형초 땅을 범하난지라. 김 전이 피난하더니 중로에서 도적을 만나 행장을 다 잃고 숙향을 업고 장씨를 데리고 달아나더니 도적이 점점 가까이 오매 전이 진력[87]하여 장씨다려 왈

«도적이 따름이 급하고 힘이 쇠진하여 급히 가지 못하니 우리 살아나면 자식은 다시 보려니와 우리 죽으면 시신[88]을 뉘 거두며 조선 향화[89]를 뉘 받드리오. 인정이 절박하나 숙향을 여기 두고 급한 화를 피하였다가 다시 와 데려가사이다.»

장씨 이 말을 듣고 망극하여 울고 왈

«나난 숙향과 한가지로 죽을 것이니 군자난 급히 피하여 천금 귀체를 보전하여 우리 모녀 시신이나 거두어 주시소.»

생이 탄 왈

«그대를 버리고 차마 어찌 혼자 피하리오. 차라리 한가지로 죽으리라.»

장씨 왈

«그대 말씀이 그르도다. 대장부 처자를 따라 죽으리오. 빨리 피화하여 천금 귀체를 보전하소서.»

생이 장씨 손을 잡고 왈

«그대를 어찌 버리리오.»

장씨 망극하여 통곡 왈

«군자 이렇듯 하시니 첩이 비록 절박하나 숙향을 여기 두고 가사이다.»

생이 이 말 듣고 장씨를 급히 이끄니 장씨 숙향을 표주 박에 밥을 담아 주고 왈

«어여쁠사 아녀야! 배 고프거든 이 밥 먹고 목 마르거든 냇가의 물을 떠 먹고 좋[90]이 있으라. 우리 명일 와 데려 가리라.»

숙향이 발을 구르며 울고

«어마님 아바님 날과 한가지로 가사이다.»

장씨 가삼이 뮈여지난 듯하여 정신이 아득하니 말을 못 하며 울며 숙향을 달래여 왈

«잠간 네 있으면 우리 도로 이리 와 데려가리라. 소래 말고 있거라. 소래 하면 도적이 죽이나니라.»

숙향이 더욱 울고 왈

«모친은 어찌 홀로 나를 여기 두고 도적에게 죽으라 하시나뇨. 한가지로 가사이다.»

하고 놓지 아니하고 장씨 차마 떠나지 못 하여 안고 우니

생이 통곡 왈

«적세 급하니 어찌 저를 위하여 우리 죽으리오. 그대가 가지 아니하면 나도 한가지로 죽으리라.»

장씨 천지 망극하여 옥지환[91]한 짝을 숙향을 주어 옷 고름에 채우고 달래여 왈

«우지 말고 예 있으면 내 즉시 오마.»

하고 돌아 보니 도적은 벌써 가깝거날 생이 황망[92]히 장씨를 이끌고 가니 숙향이 통곡 왈

«어마님 날 버리고 어더로 가시난고 나도 한가지로 가사이다.»

부르고 우난 소래 멀리 가도록 들리니 김 생의 부처 간장이 녹난듯 뛰노난듯 하여 앞이 어두어 달아나니 그 형상이 참혹하더라.

도적이 다닫아 숙향을 보고 왈

«네 아비 어미 어더로 갔나뇨. 간 곳을 이르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숙향이 부모 찾난 것을 놀라 울며 속여 왈

«이제 나를 버리고 갔거날 내 어찌 알리오.»

하며 무수히 애곡[93]하니 도적이 노하여 죽이려 하거날 그 중 한 도적이 가로대

«제 아비 어미 무상[94]하여 버리고 가니 어린 것이 배고파 우난데 무삼 죄로 죽이리오. 여기 두면 짐승에게 상하리라.»

하고 업어다가 마을 앞에 두고 가며 왈

«나도 자식이 이만한 것이 있난지라. 가련하다. 네 부모 너를 버리고 가며 오작 심사 상하랴.»

하며 함루[95]하더라.

숙향이 아무데로 갈 줄 몰라 부모만 부르고 길로 방황하더니 보난 자 잔잉[96]히 여겨 하더라.

날이 저물고 인적이 끊쳤으니 배고프고 길을 몰라 덤불 밑에 엎디여 우더니 문득 황새 여럿이 날아 와 날개로 덮으니 춥지 아니하나 배고픈지라, 견디기 어렵더니 이윽고 잔나비들이 삶은 고기를 갖다 주거날 반색하여 먹으니 배부른지라.

명조에 까치 날아 와 숙향이 앞에 앉아 지저귀며 오락가락하여 인도하난 것 같거날 숙향이 울며 까치를 따라 여러 고개를 넘어 가니 마을이 있난지라 숙향이 들어가니 마을 사람들이 묻으되

«어떤 아해완대 길로 배회[97]하난다.»

숙향이 울며 왈

«우리 부모 래일 와 데려 가마 하시더니 오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울기만 하니 보난 사람이 다 불쌍히 여기더라.

숙향의 얼굴이 고우니 데려다가 기르고저 할 이 하나 둘이 아니로되 병란[98]이 급하여 피난 때가 되매 할 길 없난지라. 밥을 주며 왈

«피난 가기로 데려 가지 못하니 너도 이 밥을 잘 먹고 어데로 가거라.»

하더라. 이적에 김생이 장씨를 깊은 산중에 감초고 가만히 내려와 숙향을 찾으니 종적이 없거날 «일정 죽었도다» 하고 크게 울며 장씨다려 왈

«필경 죽었다.»

하니 장씨 통곡하고 기절하거날 생이 개유[99] 왈

«어이 너무 슬허하나뇨. 과도히 말라. 어린 아해 멀리 가지 못하였을 것이니 죽어도 시신이 근처에 있을 것이로되 종적이 없으니 필연 아무나 데려 간가 싶으니 왕규의 말이 맞힌지라, 너무 애상[100]치 말라.»

하니 장씨 통곡 왈

«어여쁠사 숙향이여! 일정 죽었도다. 살았을지라도 뉘를 의지하리오.»

하고 자로 혼절하니 김생이 울며 위로 왈

«숙향이 만일 살았을진대 이 앞에 만나 보리니 왕규의 말을 믿으소서.»

하고 위로하더라.

이적에 숙향이 피난하난 사람이 다 흩어지매 만뢰[101] 구적하고 월색이 조요[102]한데 배고프고 슬픈지라 앉아서 슬피 울더니 홀연 푸른 새 앞을 인도하거날 숙향이 청조[103]를 따라 한 곳에 이르러 본즉 전각[104]이 의의[105]하고 풍경[106] 소래 요란한지라. 홀연 청의[107] 녀동이 가만히 나와 숙향을 안고 들어 와 전우에 놓거날 보니 한 부인이 화관을 쓰고 칠보[108] 단장으로 황금[109] 교의에 앉았다가 숙향을 보고 황망히 내려 동편 백옥 교의에 좌를 정하거날 숙향이 아무런 줄 모르고 우니 부인 왈

«선녀 인간에 내려가 더러운 물을 많이 먹어 정신이 상하였으니 경액[110]을 내오라.»

시녀 승명[111]하여 마노종[112]에 가득 부어 드리니 숙향이 받아 마시매 정신이 식식하여 전생[113] 월궁[114] 소아로 천상에서 놀던 일과 인간에 내려와 부모를 잃고 고초[115]

하난 일이 려려[116]하니 몸은 비록 아해나 음은 어른이라. 머리를 들어 부인께 사례 왈

«첩이 천상에서 득죄하여 인간에 내려 와 고초히 다니압더니 부인이 데려다가 이렇듯 관대하시니 감사하여이다.»

부인 왈

«선녀 나를 알소냐.»

숙향 왈

«첩이 멀리 나와 정신이 혼미하여 깨닫지 못 하나이다.»

부인 왈

«이 땅은 명사계[117]요 나난 후토[118] 부인이로소이다. 선녀 인간에 내려 와 고초히 다니시매 잔나비와 황새, 청조를 보내였더니 보시니까.»

숙향 왈

«보았삽거니와 부인의 은혜 백골[119] 난망이라. 천상 죄를 속하압고[120] 부인 좌하[121]에 시녀 되여 은혜를 갑사고저 하나이다.»

부인 왈

«선녀는 월궁 소아라. 불행하여 지금 인간에 잠간 적거[122] 하였으나 칠십년 고락을 지내시면 다시 천궁의 쾌락을 받으실 것이니 슬허하지 말으소서. 오날 날이 저물었고 가실 곳이 머온지라 오날은 나와 한가지로 머무시고 명일 돌아 가소서.»

하고 잔채를 배설하여 음식과 풍류[123]를 갖초고 대접하니 인간에서 보지 못 할 풍류더라.

부인이 경액을 권하니 숙향이 정신이 쇄락[124]하여 천상 일만 기억하고 인간 일은 전혀 잊었더라. 숙향이 문 왈

«전에 듣사오니 명사계난 십왕[125]이 계시다 하더니 옳으니이까.»

부인 왈
«연하여이다.»
숙향 왈
«인간 부모 십왕 전에 있으면 만나 보리이까.»
부인 왈
«선녀의 부모난 인간에 그저 계시거니와 상례 사람이 아니라 봉래산[126] 선관 선녀로 인간에 적강[127]하였사오니 한이 차면 다시 봉래로 가시리니 어이 이곳에 계시이리까.»
숙향 왈
«인간에 나아가면 다시 부모를 찾아보리이까.»
부인 왈
«월궁에 선녀 계실 때난 항아에게 득죄하여 구끼시게[128] 되였더니 규성[129]이란 선녀 옥황께 득죄하여 내려와 장승상 부인이 되였사오니 선녀 그 댁으로 가서 전생 은혜를 갚고 바야흐로 때를 만나 귀히되고 부모를 만날 것이니 십 오 년이 되오리이다.»
숙향 왈
«인간 고행[130]을 생각하면 일각이 삼추 같사온대 십오 년을 어찌 지내리오. 차라리 죽어 면하고저 하나이다.»
부인 왈
«이난 천명이라. 천상에 득죄하여 받난 바어니와 다섯 번 죽을 액[131]을 지내고 전생 죄를 속한 후 인간 영화를 보시리이다.»
부상[132]에 금계[133] 울고 날이 밝아 오니 부인 왈
«선녀를 뫼셔 말씀을 무궁히 하고저 하오나 가실 곳이 머옵고 때 늦어 가니 어서 가소서.»
숙향 왈
«때 늦어 가나 인간길을 모르오니 뉘 집으로 의탁하오리까.»

부인 왈

«념려 말으소서. 가실 길은 내 지시하오리다. 장 승상 집으로 먼저 가소서.»

숙향 왈

«장 승상 집이 예서 얼마나 하나이까.»

부인 왈

«삼천 삼백 리옵거니와 그난 념려 말으소서.»

하고 분에 심은 나무 한 가지를 꺽어 흰 사슴 뿔에 매고 왈

«이 사슴을 타면 순식간에 만나리라도 가시리니 시장하시거든 이 열매를 가지고 가소서.»

숙향이 사례하고 사슴의 등에 오르니 그 사슴이 한 번 굽을 치매 만 리 강산이 눈 앞에 있는지라. 가는새 없이 한 곳에 다달아 가지 않고 서거날 숙향이 내리니 배고픈지라 그 열매를 먹으니 배부르고 천상 일은 다 잊히고 마음도 도로 아해되여 사슴이 물가 두려하더라.

이곳은 초목이 무성하니 갈 바를 아지 못 하여 모란 나무 포기를 의지하여 조으더니 이 땅은 남군 땅 장 승상집 동산이러라.

장 승상은 한 나라 장 량[134]의 후예[135]라. 일찍 벼슬하여 명망[136]이 조정에 으뜸이라. 사십 전 승상이 되여 부귀공명이 일국에 제일 되더니 휘종조[137] 때에 간신[138]의 참소를 만나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 와 세월을 보내더니 슬하에 일점 골육이 없어 매양 슬허하다가 승상이 일일은 일몽을 얻으니 선녀 구름을 타고 내려 와 계화 일지를 주며 왈

«전생에 죄악이 중하여 무자하게 하였더니 이 꽃을 주나니 잘 간수하라. 차후로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거날 깨매 꿈이라 부인다려 몽사를 일러 왈

«우리 무자하여 슬허하더니 하날이 자식을 점지하시도다. 연이나 우리 나이 오십에 어찌 생산을 바라리오.»

하고 한탄하더니 예 없던 상운이 공중에 어리였고 기이한 향내 원중[139]에 가득하니 승상이 괴히[140] 여겨 왈

《때 겨울이라. 오색 안개 어리고 꽃이 피여 향내날 때 아니여날 이타[141].》

하고 청려장[142]을 짚고 등산하여 보니 모란 포기에 새 잎나고저 하난대 일개 녀아 잠을 자거날 승상이 놀라 부인을 청하며 시녀를 부르난 소래에 그 아해 깨여 울거날 승상이 나아가 문 왈

《네 어떤 아해완대 깊은 동산에서 자난다.》

숙향이 울며 왈

《나난 부모를 잃고 거리로 다니더니 어떤 짐승이 업어다가 여기 두고 가더니다.》

승상 왈

《네 나이는 몇이며 이름은 무엇이뇨.》

숙향 왈

《나이는 다섯 살이요 이름은 숙향이로소이다. 우리 부모 나를 바위틈에 앉히고 가며 래일 와 데려가마 하시더니 오시지 아니하기로 우나이다.》

승상이 추연[143] 탄 왈

《부모 잃은 아이로다.》

하고 부인을 청하여 뵈니 꿈에 뵈던 선녀 같으매 부인이 크게 기꺼 왈

《이난 하날이 우리 자식 없음을 어여삐 여기사 주신 것이니 거두어 기르시이다.》

하고 들어가 음식을 먹이고 옷을 갖추아 입히고 품에 기르매 세월이 여류하여 칠 세 되니 얼굴은 일월 같고 배우지 아니한 글을 능통하고 수 놓기를 잘하니 승상 부부 사랑함이 기출[144]에 지나더라.

이러구러[145]십 세 되니 점점 기이하여 어른이 및지 못 할 일이 많으니 부인이 크게 사랑하여 가중 대소사를 맡기매 숙향이 동동촉촉[146]하며 숙흥야매[147]하여 승상 부

부를 지성으로 섬기고 모든 비복을 인덕으로 부리니 승상 부부의 의향이 어진 가문의 저와 같은 배필을 구하여 후사를 맡기고저 듣보더니 비복 중 사향이라 한 계집이 승상집 대소사에 다 검찰[148]하여 제 집이 가계[149] 요부하더니 숙향이 가사를 맡은 후난 떨어진 뒤웅[150]이 되여 손을 놀릴 곳이 없거날 매양 해할 뜻이 있으나 틈을 얻지 못하여 그윽히 계교를 생각하더니 일일은 숙향이 승상 량위를 뫼셔 영춘당에 잔채를 배설하고 춘경을 구경하더니 홀연 저녁까지 숙향을 향하여 세번 울고 날아가거날 숙향이 놀라 생각하되 «까치난 계집의 넋이라 허다한 사람 가온대 구태여 내 앞에 와 울고 가니 길조[151]가 아니라» 하며 승상도 또한 괴히 여겨 한 괘[152]를 얻고 심중에 불락[153]하여 이에 잔채를 파하고 근심을 마지 아니하고 부인이 또한 념려 적지 아니하더라.

이 날 사향이 승상 량위 숙향을 데리고 영춘당에서 설연[154]함을 듣고 크게 기꺼 부인 침소[155]에 들어 가 협실[156]에 감촌바 승상의 장도와 부인의 금봉차[157]를 내여다가 숙향의 방에 감초았더니 십여 일 후 부인이 동리 경연[158]에 가려 하고 금봉차를 찾으니 없거날 여러 곳 두루 보나 없고 승상의 장도도 또한 없거날 시녀를 다사려 사핵[159]하더니 시녀 중 사향 밖으로 들어 오며 거짓 모르난 체 하고 문 왈

«댁에 무삼 일로 어찌 이렇듯 소요[160]하시뇨.»

부인 왈

«조정에서 승상께 사송[161]하신 장도와 빙폐하신 봉차 없으니 이 두 가지난 가중의 큰 보배라.»

사향 왈

«저적에 숙향 랑자가 부인 침소로 가거날 고이히 여겼삽더니 행여 가져간가 찾아 보압소서.»

부인 왈

«너아의 마음이 빙옥[162] 같거날 나를 속이고 가져다 무엇에 쓰리오.»

사향 왈

«전에는 숙향 랑자가 그렇지 아니터니 요사이 구혼하난 기미[163]도 있삽고 나이 점점 차 가매 자기 세사[164]를 보태려 그러한지 시비 등도 보난 바에 미안한 일이 많사오나 부인이 애중[165] 하시매 감히 루설치 못 하였삽더니 아모커나 찾아 보압소서.»

부인이 숙향 침소에 가 이르되

«봉차와 승상의 장도를 잃었으니 혹 너의 그릇에 있난가 보아라.»

숙향 왈

«소녀 가져 오지 아니하였거날 어찌 여기 있사오리까.»

하고 세간을 내여 부인 앞에 놓고 상고[166]하니 과연 성적[167]함 가온대 봉차와 장도 들었난지라 숙향이 대경[168] 상혼하여 일언도 못 하거날 부인 왈

«네 아니 가져 왔으면 어찌 예 있난고.»

봉차와 장도를 가지고 들어 와 승상께 고 왈

«우리난 숙향을 친자식 같이 사랑하여 가중사를 다 맡기고 혼인하여 후사를 맡겨 저에게 의탁코저 하였더니 저난 남의 자식이라 나를 속임이 여차하니 어찌 애달지 아니하리까.»

숙향 왈

«이것이 제게 불관[169]하니 어찌 가져 갔던고.»

사향이 곁에 섰다가 고 왈

«숙향 랑자 근일은 전과 달라 혹 글도 지어 외인 남자도 주며 부정지사도 많으니 그 뜻을 모르나이다.»

승상이 청파[170]에 대로 왈

«연즉 나이 찼으매 외인[171]을 통간[172]함이 있도다. 집에 두면 불측[173]한 환이 있을 것이니 수이 내여 보냄이 마땅하다.»

하니 이 때 숙향이 제 방에서 통곡하며 머리를 싸고 누웠거날 부인이 책[174] 왈

«우리 팔자 기박[175]하여 자식이 없어 너를 얻으매 매사에 기이하니 사부[176]가 자식인가 여겨 길러 상적[177]한 가문에 혼인하여 우리 후사를 맡길가 하였더니 네 상한[178]의 자식인가 행실이 불측한지라. 황금이 수십만량이나 되니 어찌 생계를 근심하리오. 장도와 봉차를 가지고저 하면 날다려 달라하면 줄 것이요. 봉차난 녀자지물이나 아즉 불관하고 장도난 더욱 가치 아니하니 무삼 일로 그리한다. 나난 너와 정이 중하여 용서하나 승상이 진노[179]하시니 뉘 능히 말리리오. 아주 노기 꺼질 동안에 너 입던 옷이나 가지고 근처 마을 집에 가 있으라. 내가 종용히 승상께 고하고 도로 데려 오게 하리라.»

하고 슬픈 마음을 정치 못 하며 또한 루수[180] 여우한지라.

숙향이 피석[181] 재배 고 왈

«숙향이 전생에 죄 중하와 오 세에 란을 만나 부모를 잃고 동서로 개걸[182]하여 밤이면 수풀 밑에서 자고 배고프고 추움이 한 두 번이 되리이까. 혈혈[183] 인생이 부모를 찾지 못 하고 우더니 하날이 살리사 사슴이 소녀를 데려다가 이에 두고 가오니 승상과 부인이 사랑하사 금의[184] 옥식으로 기르시니 숙향의 몸이 간뇌[185] 도지하와도 은혜를 갈려[186] 봉행하려 하압더니 만만[187] 의외에 악명을 실었사오니 도시[188] 숙향의 팔자라, 누를 원하리이까. 봉차와 장도난 소녀 가져 온 배 없사오니 귀신의 조화 아니면 사람의 반간[189]이오니 발명[190]하여 무엇하리이꼬. 부인 안전에 죽사와 소녀의 빙옥 같은 마음을 표코저 하나이다.»

언파[191]에 천지를 부르고 통곡하다가 칼을 들어 자문[192]코저 하거날 부인이 저의 기색이 조곰도 변치 아니코 언어 강개[193]함을 깨닫아 가만히 헤오대 «일정 간인[194]

의 시기로 숙향의 총애를 시기하여 모험함인가» 하고 숙향을 개유하여 왈

«네 말이 당연하니 내 승상께 고하고 좋도록 할 것이니 조급히 죽으려 하지 말라» 하더라.

사향이 승상 명으로 부인께 전하되

«숙향의 행실이 불측하기로 내치라 하였더니 뉘라서 내 명을 거역하며 머물러 두었나뇨. 바삐 내치라 하시더이다.»

부인이 측연[195]하여 눈물을 흘리고 왈

«승상의 노기 풀리실 동안 잠간 문 밖에 노복의 집에 가 있으라. 내 종용히 고하여 너를 데려 오리라.»

숙향이 배사[196] 왈

«부인의 은혜난 백골 난망이오니 죽은 후라도 다 갚삽지 못 하리로소이다.»

하고 칼을 들어 죽고저 하거날 부인이 숙향의 손을 잡고 울며 왈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함은 나의 경히[197]말한 죄라.»

무수히 개유하니 사향이 고 왈

«승상 부부에 사족[198]의 자식 같으면 그런 행실을 하리이까. 기생의 자식인가 싶으니 바삐 내치라 하시며 집에 두면 필경 대화[199]를 볼 것이니 일시도 더디지 말라 하시더이다.»

부인이 더욱 망조[200]하여 비자 금향을 명하여 «숙향의 의복을 내여 주라.» 하고 루수 종횡[201]하시니 숙향이 울며 왈

«저적 영춘당에서 저녁까지 우더니 이런 애매하온 일을 당하오니 이난 하날이 소녀를 죽이심이라. 어찌 천의[202]를 거역하리오» 하며 «다만 부모 리별하올 적에 옥지환 한 짝을 주고 가시오니 그거나 내 부모 본듯이 가져 가겠나이다. 의복은 무엇하오리까.»

부인이 그 잔잉함을 차마 보지 못하여 승상께 나아가 고 왈

«첩이 인제야 생각하오니 봉차와 장도를 첩이 가지고 숙향의 방에 갖다가 두었삽더니 이제야 애매하온 숙향을 내치려 하시매 제 발명할 길이 없어 죽으려 하오니 그런 잔잉한 일이 없난지라 승상은 다시 생각하소서.»

승상 왈

«당초에 그런 줄은 모르고 내치려 하였더니 일이 그러하면 내 마음은 더욱 내칠 마음이 없다.»

하고 도로혀 부인을 위로 왈

«내 거야에 꿈을 꾸니 앵두 도화에 깃들이다가 한 중이 들어 와 도채[203]로 가지를 버히니 앵두 놀라 달아나 보이매 그 어찐 연고인지 몰라 오날 종일 마음이 중보[204]를 잃은듯 하여 심히 울적하니 부인은 주효를 가져 와 위로하소서.»

부인이 시녀로 주찬[205]을 나와 승상의 울적함을 위로 하더라.

이 때 사향이 승상과 부인이 숙향을 도로 두고저 함을 보고 곧 숙향 방에 가서 왈

«승상이 그대를 그저 둔다 하고 대로하여 부인을 대책하시고 날로 하여금 바삐 내치라 하시니 어서 가라.»

하고 성화 독촉하거날 숙향이 울며 왈

«부인께 하직이나 하고 가리라.»

하니 사향이 소래 질러 왈

«좋은 의식에 싸이여 그런 몹쓸 노릇하고 하면목[206]으로 부인을 뵈와 하직하려 하난다. 부인이 또한 노하여 계시니 나오실 리 없으니 어서어서 나가라.»

손목을 잡아 이끌어 내거날 숙향이 부인께 하직도 못 하고 감을 더욱 망극하여 저 있던 방에 들어가 손가락을 깨물어 하직하난 글을 지어 벽상에 혈서로 쓰고 눈물을 흘리며 나오니 사향이 독촉하여 발이 땅에 붙지 아

니케 끌어 내치니 천지 망망[207]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하며 아무대로 갈 줄 모르니 사향이 또 이르되

«승상이 노하사 근처에도 있지 말라 하시니 멀리 가라.»

하고 문을 닫거날 숙향이 망극하여 부모를 부르며 정처 없이 나갈새 승상 집을 자조 돌아 보며 가더니 앞에 큰 물이 막혔거날 숙향이 그 물에 빠져 죽으랴 하고 물가에 가 하날께 재배 왈

«박명[208]한 숙향이 전생의 죄 중하와 오 세에 부모를 여의압고 낮이면 거리로 바장[209]이다가 밤이면 수풀을 의지하오니 혈혈 단신이 의탁할 곳이 없어 눈물로 지나다가 천행으로 장 승상 댁에 의탁하와 태산 같은 은혜를 받잡고 일신이 안한[210]하압더니 참혹한 악명을 짓고 축화[211]를 만나오매 차마 사지 못 할지라. 부모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 하고 슬픔을 머금고 물에 빠지오니 천지 신명은 숙향의 악명을 벗겨 주소서.»

하고 슬피 우니 왕래 행인이 보고 눈물 아니 흘릴이 없더라.

숙향이 한 손으로 치마를 뷔여 잡고 한 손으로 옥지환을 쥐고 물에 뛰여 드니 수세 급하고 풍랑이 일매 행인이 구코저 하다가 미처 구치 못 하고 다만 차석[212]할 뿐이러라.

숙향이 물 속에 들매 문득 물 가온데로서 매판 만한 것이 받거날 숙향이 그 우에 올라 서니 편하기 륙지 같은지라. 이윽고 오색 채운이 일어나는 곳에 녀동 둘이 옥저를 불며 련엽[213]주를 급히 저어 이르러 가로대

«룡녀난 부인을 뫼셔 이 배에 오르소서.»

하니 매판이 변하여 고운 녀자 되여 숙향을 안고 배에 오르니 녀동들이 숙향에게 절하며 왈

«부인은 어찌 천금지신[214]을 가배야이 바리려 하시나뇨. 우리 항아의 명을 받자와 부인을 구하라 하옵기 오옵다가 옥화수에 려 동빈[215]이 술 내라 하고 좋지 아니

하기로 진작 오지 못 하였더니 일정 룡녀 아니런들 하마 구치 못 하여 항아의 명을 그릇할번 하였도다.»

하고 또 룡녀에게 사례 왈

«그대는 어대로서 와 부인을 구호하였나뇨.»

룡녀 답 왈

«석년[216]에 사해 룡왕이 우리 수궁에 와 잔채할 제 내 사랑하난 시녀 옥종[217] 깨쳤거날 행여 죄를 입을가 저어하여 고치 못 하였더니 발각되매 부왕이 진노하사 첩을 반하 물에 내치시거날 마참 물가이라 어망에 싸이였더니 천행으로 김 상서를 만나 구함을 힘입어 살아나매 은혜를 갚고저 하나 수부와 인간의 다른 고로 은혜를 갚지 못 하더니 이제 부왕이 옥제께 초회[218]하시고 옥제 말삼을 듣사오니 월궁 소아 천상에 득죄하고 인간 김 상서의 딸이 되여 반야산 도적에게 죽을 액을 지내고 또 표진물에 죽을 액을 지내고 또 화재를 만나고 이후 락양[219] 옥중에 사액[220]을 지낸 후 태을[221]을 만나 귀히 되리라 하시니 물 지킨 신명을 분부하여 죽지 않게 하라 하시더라 하옵거날 내 김 상서의 은혜를 갚고저 하여 자원하여 나왔더니 선녀 와 계시니 나난 가나이다.»

숙향에게 하직하고 가거날 숙향이 아모란 줄 모르고 그 녀동다려 문 왈

«저 사람은 물을 어찌 평지 같이 다니나뇨.»

녀동이 답 왈

«저는 동해 룡왕의 제 삼녀요 표진 룡왕의 부인이라. 전일 부인의 부친이 저를 구하신 은혜로 부인을 구하고 가나이다.»

«첩이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혈혈한 몸이 의탁할 곳이 없어 남의 고공[222]이 되였다가 애매한 악명을 싣고 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하거날 이렇듯 구제하시니 감사하여이다. 첩은 어려서 부모를 란중에 여의고 류리 표박[223]하여 이리 되였노라.»

녀동이 소 왈

«부인이 인간 화식[224]을 먹어 우리를 모르시난도다.» 찼던 호로병[225]을 기울여 차를 따라 주며 왈 «이를 자시면 알리이다.»

숙향이 받아 마시매 정신이 식식하여 천상이 력력하며 자기 분명 월궁 소아로서 옥제 앞에서 태을진군[226]으로 글 지어 창화[227]하고 월명단[228]을 도적하여 태을을 준 죄로 인간에 귀양 온 줄 력력히 알매 두 녀동은 자기의 부리던 시녀인 줄 깨달아 대경하여 붙들고 대성 통곡함을 마지 아니하니 녀동이 위로하더라.

숙향 왈

«부모를 잃고 루명을 실었으니 맺힌 한이 죽어도 잊히지 아니 하리로다.»

녀동 왈

«부모난 봉래산 선관 선녀로 상제께 득죄하고 인간에 내려와 녀아를 잃고 간장을 살와 죄를 속하게 함이니 어찌 한하며 장 승상 집에는 십년 연분이 있으니 또한 더 있지 못 하리이다. 사향이란 종이 부인을 모해하여 루명을 애미히 실은 죄로 항아께서 노하사 상제께 고하사 벼락치게 하였으니 부인의 애매한 줄은 승상 부부 이미 알으시고 물가에 와 찾다 못 하여 그저 갔나이다. 상제 귀향 보내실제 다섯 번 죽을 액을 지내여야 부모를 만나게 하였으니 이제 세 번 액을 지내였으나 이 앞 두 번 액이 있나이다. 조심하소서.»

숙향이 대경 왈

«또 무삼 액이 있나뇨.»

녀동 왈

«로전[229]에 가 화재를 보시고 락양 옥중에 부친께 죽을 액을 지내시고 태을을 만나 영화 부귀를 누리리이다.»

숙향이 탄 왈

«이전 지낸 액도 천지 망극하거든 또 두 번 액이 있다 하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장 승상 부인이 지극히 사랑하사 나의 애매한 줄 알으시면 나를 생각하시리니 도로 그리로 가 액을 면코저 하노라.»

녀동 왈

«이미 하날이 정하신 배니 도로 가시나 면치 못 하시리다. 태을을 만나지 못 하면 부인 힘으로난 부모를 만나기 아득하고 태을 계신 곳이 삼천여 리니 길이 심원[230]하나이다.»

숙향 왈

«태을은 뉘며 이생의 성명은 무엇이뇨.»

녀동 왈

«항아의 말삼을 듣사오니 태을이 락양 북촌 리 위공의 자제되여 일생 부귀를 누리게 하더이다.»

숙향이 탄 왈

«한가지로 죄를 짓고 저난 어찌 부귀 극진하며 나난 이때도록 고생을 겪게 하는고. 또한 태을 있는 곳이 삼천리라 하니 만나지 못 하면 누를 의지하며 부모를 언제 볼고.»

하며 루수 여우하거날 녀동 왈

«부인은 근심 말으소서. 륙로로 가면 일년이라도 득달[231]치 못 하려니와 련엽주를 타시면 순식간에 득달하리니 념려 말으소서. 또 천태산[233] 마고[234] 선녀 부인을 위하여 인간에 나려와 기다린 지 오래매 의탁할 곳이 자연 있으리니 념려 말으소서.»

말을 마치며 배를 놓으니 빠르기 살 같은지라. 이윽고 한 곳에 다달아 선녀 배를 머무르고 왈

«이미 다 왔으니 부인은 내려 저길로 가소서. 자연 구할 사람이 있으리이다.»

하고 소매로서 동정[234] 귤 같은 실과를 주며 왈

«시장하시거든 자시면 요기되리이다.»

하고 서로 리별하기를 슬허하더라.

숙향이 배에 내려 바라보니 배 벌써 간 데 없더라. 마음에 신기히 여겨 공중을 향하여 사례하고 점점 나아가더니 배고프거날 과실을 먹으니 배난 부르되 천상 일은 아득하고 인간 고생한 일만 생각나난지라 스사로 헤오되

«내 몸이 장성한 녀자라 색옷을 입고 대로로 가다가 욕을 볼가 두렵다.»

하고 촌가에 들어가 헌 의상을 바꾸아 입고 낯에 더러운 것을 바르고 한 눈 멀고 한 다리 저는 모양으로 동다히[235]로 가니 저마다 보고 왈

«젊은 녀자 불쌍한 병인이라.»

하더라.

이 때 장 승상 부인이 술을 내와 심사를 위로하더니 술이 반감[236]에 고 왈

«내 이제 미과[237]한 탓으로 숙향이 애매한 악명을 싣고 어찌 슬허 아니하리오. 불러 오소서 제 마음을 위로하여 편케 하사이다.»

부인이 대희하여 즉시 시녀로 숙향을 부르니 사향이 알고 대경하여 밖으로 전도[238]히 들어 오며 손벽치고 왈

«우리난 그런 줄 몰랐삽더니 그럴 데가 어대 있으리오.»

하고 차탄하거날 부인이 대경하여 급문 왈

«네 무삼 일을 저렇듯 놀라난다.»

사향이 대 왈

«소비등은 숙향 랑자를 량반 사유의 생출로 알았삽더니 진짓 상인의 녀자라» 하고 손벽치며 왈

«아까 부인께서 승상 계신 곳에 가신 사이에 숙향이 제방에 들어가 무엇인지 싸 가지고 달음질 주어 가거날 소비난 그 가져 가난 것을 보려 하여 따라 간즉 급히 가기로 다른 길 없어 부인께 하직도 아니코 간다 한즉 돌

아 보고 종종 거려[240] 왈 ‹부인이 나를 구박하여 내치니 무삼 정으로 하직하리오› 하고 어떤 행인 남자를 따라 가며 온갖 정설[241]과 온갖 비양스러운 말을 수 없이 하더이다.»

부인이 대경 왈

«내 부디 저다려 물을 말이 있으니 바삐 불러 오라.»

사향이 대답하고 바삐 나간 체 하고 마을 집에 앉았다가 들어 가 고 왈

«발써 멀리 갔삽거날 소비 진력하여 따라 가 부인 말삼을 전하온즉 숙향이 입을 비죽이며 왈 ‹내 얼굴과 내 재조를 가지고 그만 의식을 어데 가 못 얻으리오.» 비소의 말을 무수히 하며 악소년 떼로 어깨를 엊지[242]고 손목 잡고 희롱을 랑자히 하고 가더이다. 소비난 비록 천인이나 그런 행실은 듣고 보고 못 하였나이다.»

분한 형상으로 분한 기운을 이기지 못 하난 체 하더라.

문득 밖으로 누비옷 입은 중이 바로 내당으로 향하여 들어오거날 보니 행지[243] 비상하여 례사 상승이 아니라 승상이 부인을 협실로 치우고 몸을 일어 중을 맞어 당에 올라 읍하고 앉거날 승상이 묻 왈

«선사난 어대로서 왔나뇨.»

그 중이 답 왈

«옥황 상제 명을 받아 승상 댁 옥석[244]을 가리려 하나이다.»

승상 왈

«내 집에 별로 옥석을 가릴 리 없거날 선승[245]이 수고로이 오시도다.»

중이 답 왈

«승상 댁의 숙향과 사향을 알으시나니까.»

승상이 미처 답지 못 하여 사양이 내달아 왈

«숙향은 본대 빌어 먹난 걸인으로 승상과 부인께서 불쌍히 여기사 댁에 두고 금의 옥식으로 길러내였거날 행실이 불측하여 가중의 중보를 도적하여 감초았다가 들켰으니 또 심지어 내쫓길 때를 당하여 남의 은공을 모르고 도로혀 원쑤로 말을 하난 몹쓸 것을 내여 보내였으나 중놈은 어떤 중놈이완대 숙향의 부촉[246]을 듣고 감히 재상가 내각[247]에 들어 와 무엇을 아난 체 하고 숙향을 위하여 신원[248] 코저 하난다. 노복을 불러 잡아 나리워 쳐 죽이소서.»

하니 그 중이 웃고 왈

«네 승상 량위난 속이려니와 하날 조차 속일소냐. 네 승상 댁 가사를 맡아 온갖 것을 도적하여 네 가사를 보태다가 숙향이 장성하여 가사를 맡은 후 네 손 대일데 없으매 매양 숙향을 해코저 하다가 승상 량위 삼월 삼일에 영춘당서 잔채하난 새에 네가 부인 침방에 들어가 봉차와 장도를 도적하여 숙향의 협사[249]에 녛고 숙향이가 도적한 양으로 부인께 모함하고 량위를 속여 허무한 말로 위조 전갈하여 내치고 거짓 부르라 가난 체 하고 마을 집에 앉았다가 들어 와 맹랑한 말을 내여 승상을 속이고 너의 간악은 감초고 악명을 숙향에게 보내니 승상과 부인은 간정[250]을 깨닫지 못 하여 속으려니와 하날이야 능히 속이랴.»

하고 소매로서 적은 붉은 것을 내여 공중으로 던지더니 뢰성 벽력이 진동하며 큰 비 담어 붓듯하며 천암[251] 지흑하니 일가 상하 황황망조[252]하여 아모리 할줄 모르고 뜰에 내려 축수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서 동해[253] 같은 불덩이가 내려와 사향을 벼락 치니 가중이 다 기절하였다가 오랜 후 정신을 차려 부인이 울며 왈

«사향은 제 죄로 천벌을 입었거니와 숙향은 어대 가 뉘게 의지하였는고. 불쌍하다 무죄한 숙향이 필연 걸로 다니며 나를 생각하리라. 내 소루[254]히 생각하고 또 사향

의 말을 아혹[255]히 곧이 듣고 숙향을 내치게 하니 도시 내 탓이라.»

하고 울며 숙향의 방에 들어가 보니 방중이 고요한대 다만 혈서 쓴 글이 놓여 있고 창전에 눈물을 뿌렸거날 그 글을 보니

«숙향이 오 세에 부모를 잃고 동서로 유리하다가 장승상 댁에 십 년을 의탁하니 그 은혜 하해 같도다. 일조에 악명을 얻으니 차마 세상에 있지 못할 터이라 유유[256] 창천아 어여삐 여겨 루명을 벗기소서.» 하였더라.

부인이 람필에 탄식 왈

«숙향이 일정 죽었도다.» 승상께 아뢰되 «숙향이 사향의 모함을 입어 일정 죽었으리니 그런 잔잉할 데 없소이다.»

승상이 뉘우쳐 왈

«부인이 어찌 죽음을 아나뇨.»

부인이 그 혈서를 고하니 승상이 차악[258]히 여기더라.

마참 승상의 당질 장 원이 이르렀다가 이 말을 듣고 왈

«어제 물가에서 소질이 멀리 보니 십 오 세 된 녀자 하날께 재배하난 것을 보고 왔더니 그 아이로소이다.»

승상이 즉시 노복을 보내여 찾으라 한대 노복등이 즉시 물가으로 찾으되 종적이 없고 사람이 이르되 «발써 빠져 죽었다» 하거날 돌아 와 그대로 고하니 부인이 더욱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 하여 실성 통곡하며 숙향의 화월 같은 얼굴과 미옥 같은 음성이 이 목에 어리였으니 잊을 길이 없어 식음[259]을 전폐하고 주야 슬허하난지라, 승상이 근심하여 «그림 잘 그리난 화원[260]을 얻어 오라» 한대 장 원 왈

«숙향이 십 세 전에 소질을 업고 수정[261]에 가 구경하옵더니 장사[262] 땅에 있난 조 적이라 하난 사람이 숙향

의 얼굴을 보고 왈 〈내 경국 지색[263]을 많이 보았으되 이처자 같은 이난 보지 못 하였노라〉 하고 숙향을 그려 갔사오니 조 적에게 구하옵시면 좋을 가 하나이다.»

승상이 그 말을 듣고 장 원을 조 적에게 보내여 구하니 조 적 왈

«그 화상을 발써 팔았나이다.»

하거날 장 원이 돌아 와 그 말 대로 고한대 즉시 황금 백 량을 주어 «물려 오려» 하니 조 적이 금을 받고 그림을 찾아다가 올리거날 승상 량위 받아 보매 진실로 숙향이 돌아 온 듯하여 화상을 안고 통곡함을 마지 아니하며 침방에 걸어 두고 조석으로 식상을 놓고 슬허하더라.

이 때 숙향이 울며 동다히로 가니 한 곳에 이르매 뫼히 높아 하날에 닿았고 갈대 밭이 자옥한지라 길을 찾아 가더니 날이 저물매 갈 숲에 의지하여 조으더니 밤중은 하여 광풍이 대작하며 난대 없난 연화[264] 창천하니 숙향이 아모란 줄 몰라 하날께 재배하여 왈

«전생에 죄 중하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천만 가지 고초를 겪고 부모의 얼굴을 다시 보려 구차히 목숨을 부지하자 하였삽더니 이 땅에 와 죽게되오니 명천[265]이 살피사 부모의 얼굴이나 다시 보고 죽어지이다.»

하니 홀연 한 로옹이 죽장[266]을 짚고 서다히로서 와 이르되

«네 어떤 아해완대 이 밤중에 참화를 만나난다.»

숙향이 대 왈

«나난 란중에 부모를 잃고 의탁할 곳이 없어 동서로 유리하옵다가 길을 그릇 들어 이 땅에 와 화재를 만나 죽게 되였사오니 로옹은 구합소서.»

로옹이 답 왈

«네 이르지 아니하여도 내 다 아노라. 화재 급하니

입은 옷을 다 벗어서 이 곳에 놓고 몸만 내 등에 업히라.»

숙향이 입었던 옷을 다 바리고 로옹의 등에 오르니 불이 발써 섰던대 왔거날 그 로옹이 소매로서 부채를 내여 부치니 불꽃이 가까이 오지 못 하더라.

그 로옹이 숙향을 업어다 놓고 소매를 떼여 주며 왈

«일로 앞이나 가리고 동다히로 가라. 이제는 화재를 면하였으니 후에 은혜를 잊지 말라.»

숙향이 사례 왈

«선옹[267]은 어대 계시며 성호를 누라 하시니이까.»

로옹이 소 왈

«내 집은 남천문 밖이요. 부르기난 화덕진군[268]이라 하거니와 네가 나 곧 아니면 사천 삼백 리를 어찌 지내리오.»

하고 간대 없거날 숙향이 공중을 향하여 사례하고 청춘 녀자로 벌거벗고 가기 망연하여 길가에서 우더니 홀연 한 할미 광주리를 옆에 끼고 지났다가 숙향을 보고 곁에 앉어 문 왈

«너난 어떠한 아해완대 점잖은 것이 벌거벗고 갈 길을 몰라 앉었나뇨. 너 어대서 득죄하고 내치였나냐. 남의 것 도적질하다가 쫓기였나냐. 불한당을 만났나냐.»

숙향이 대 왈

«나난 본대 부모 없난 아해라 어버이께도 내친 일이 없고 자연 곤하여 앉았나이다.»

할미 왈

«네 본대 어버이 없으면 어대로서 난다[269]. 네 부모 너를 반야산에 바리고 갔으니 내치나 다르며 장 승상 집 장도와 봉차 연고로 나왔으니 쫓겨나 나다르냐.»

하고 무수히 조롱하거날 숙향이 놀라 이르되

«할미 어찌 그리 자세 아난다.»

할미 왈

«남이 이르기로 들었노라. 그러나 네 이제 어대로 가려 하난다.»

숙향이 답 왈

«갈 곳이 없어 방황하나이다.»

할미 왈

«나난 자식 없난 과부라, 날과 한가지로 삶이 어떠하뇨.»

숙향이 울며 이르되

«바리시지 아니하실진대 좇이려니와 지금 내가 벗은 몸이 되고 배가 고파 민망하나이다.»

하니 할미 광주리로서 삶은 나물 한 뭉치를 내여 주며 «먹으라» 하거날 받아 먹으니 기이한 향내 나며 배 부르고 정신이 식식하더라. 할미 옷을 벗어 입히고 «어서 가자» 하거날 할미를 따라 두어 고개를 넘어 가니 마을이 정결하고 가장 부요하더라. 그중 조고마한 집으로 들어 가며 이 집이 내 집이라 하거날 들어가 보니 집이 크지 아니하되 심히 정결한지라. 집안에 남자 없고 다만 청삽사리 하나이 있는지라. 그 개 마주 나와 숙향을 보고 꼬리치며 반기난듯 하더라. 숙향이 할미 집에 온 지 반월이로되 종시 병인인 체하더니 할미 왈

«내 그대를 보니 얼굴이 가을 달이 구름에 잠긴 듯 하고 짐짓 병인이 아니라. 나를 속이지 말라.» 숙향이 웃고 대답 아니하거날 «내 집이 본대 술집인고로 마을 사람이 자[270]로 출입하난대 저리 더러이 하고 있으면 오직 더러이 여길 것이니 낯이나 씻고 있으라.»

하거날 숙향이 오래 있어 보되 녀자만 출입하나 사나이난 들어 오지 아니커날 숙향이 아미[271]를 다사리고 의복을 갈아 입고 수를 놓더니 할미 나갔다가 들어와 랑자를 안고 대희 왈

«어여쁠사 내 딸이여 전생에 무삼 죄로 광한전[272]을 리별하고 인간에 내려와 그대도록 고생을 겪난고.»

숙향이 한숨 지고 대 왈

«할미 나를 친녀 같이 여기시니 어찌 기이[273]리까. 란중에 부모를 잃고 의탁할 데 없어 류리하옵더니 사슴이 업어다가 승상 집 뒤'동산에 두고 가오니 그 댁이 무자하여 나를 친녀 같이 기르더니 비자[274] 사향이란 년이 모해하여 승상 량위께 참소되여 내치오니 악명을 싣고 차마 사지 못하여 표진물에 빠져 죽으려 하였더니 채련[275]하난 아해들이 구하여 동다히로 가라 하오니 정처 없이 가다가 화적을 만나 화덕진군의 구하심을 입었사오며 또한 할미를 만나 할미 나를 친녀 같이 사랑하시니 나도 친모 같이 아나이다.»

할미 이 말을 듣고 일어 절하여 왈

«랑자 실로 그러한가» 하며 이 후는 더욱 사랑하더라.

랑자는 본대 총명하여 배우지 아니하여도 매사에 모를 것이 없으니 수만 놓아 팔아도 가계 족한지라, 할미 더욱 사랑하더니 할미 집에 온 지 이듬해 춘삼월 망간에 할미는 술 팔러 나가고 랑자 홀로 수 놓더니 푸른 새 내려 와 매화 가지에 앉아 슬피 우거날 랑자 탄 왈

«저 새도 날과 같이 부모를 잃고 우난가.»

하니 마음이 비창하여 사창[276]을 의지하여 잠을 들었더니 문득 그 새가 랑자다려 이르되

«랑자의 부모 다 저기 계시니 나를 좇아 가사이다.»

랑자 그 새를 따라 한 곳에 다달으니 백사정 연못 가온대 구슬로 대를 모고 산호 기둥의 집을 지었으되 호박주추[277]와 오색 구름 같이 아로새겨 광채 찬란하매 바로 보지 못할러라. 숙향이 우러러 보니 전각 우에 황금대자로 썼으되 «요지 보배료»[278]라 하였거날 엄숙하여 들어 가지 못하고 밖에 섰으니 문득 서다히로서 오색 구름이 일어 나며 향내 진동하며 무수한 선관 선녀 등이 혹 학도 타며 혹 봉도 타고 쌍쌍이 들어 가고 그 뒤에

채운이 어리였난대 륙룡이 황금 수레를 명에하여 가니 이난 상제 타진 련[279]이라. 그 뒤에난 석가여래 오신다 하고 오백 라한[280]이 차례로 시위하여 오니 각색 풍류와 향내 진동하더라. 여러 행차 지나되 숙향을 본 체 하난이 없더니 이윽고 한 구름이 일어나며 백옥 교자에 또한 선녀 련화를 쥐고 단정히 앉았난데 무수한 선녀 시위[281]하였으니 이난 월궁 항아의 행차라. 항아 숙향을 보고 이르되

«반갑다 소아여, 인간 고생이 어떠하더뇨. 나를 좇아 들어가 요지를 구경하고 가라.»

숙향이 청조를 앞세우고 항아를 따라 들어 가니 그 집 형용이 찬란할 뿐 아니라 괄진경장[282]과 륙각[283]하난 곳에 한 보살이 젊은 선관을 뒤에 세우고 들어와 상제께 뵈오니 상제 그 선관다려 물으시되

«태을이 어대 갔더뇨. 반갑다, 인간 자미 어떠하더냐. 소아를 만나 본다.»

항아 상제께 고 왈

«소아 발써 죽을 액을 네 번 지내였으니 그만 죄를 사하시와 석가여래께 수한[284]을 점지하되 칠십을 점지하옵소서.»

상제 가르사대

«칠성을 명하여 자손을 점지하되 이자 일녀를 점지하라.»

남두성[285]을 명하여 복록을 점지하시니 남두성이 여짜오되

«아들은 정승하고 딸인즉 황후 되게 하나이다.»

상제 소아를 명하여 반도[286] 둘을 주고 계화 한 가지를 주시거날 숙향이 명을 받자와 옥반의 반도와 계화 일지를 가지고 내려와 태을을 준대 그 선관이 복지[287]하여 두 손으로 받아 가지고 소아를 눈주어 보거날 소아 부끄러 몸을 두루힐[288] 제 손에 낀 옥지환에 박은 진주가 떨

어지거날 몸을 굽혀 집으며 할 제 태을이 집어 손에 쥐거날 소아 부끄러할 즈음에 돌아 오고저 하다가 문득 할미 술을 괄고 들어 와 «무삼 잠을 그대도록 자시나뇨.» 하거날 그 소래에 깨달으니 요지연 풍류 소래 귀에 쟁쟁한지라.

할미 왈

«랑자 천상을 보시니까 어찌 어찌 하더뇨.»

랑자 대경 왈

«내 꿈꾼 줄을 할미 어찌 아나뇨.»

할미 왈

«청조 랑자를 따라 갈 제 날다려 이르기로 알았나이다.»

랑자 고이히 여겨 꿈 말을 자서히 이르니 할미 왈

«그런 경을 보시고 잊어 바리기 아까온지라 랑자의 재조로 이제 수를 놓아 그 경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소서.»

랑자 옳이 여겨 즉시 놓아내니 할미 보고 대찬[289] 왈

«기특한 일이로다» 하고 «훗날 장에 가 팔아 보사이다.»

랑자 왈

«이 경치난 천금 싸고 공력은 백금이 싸나 사람이 뉘 알아 보리오.»

그후 장에 가 팔려 하되 아모도 알아 볼 이 없더니 조 적이란 사람이 그런 것을 숭상하여 아난지라 수를 보고 반겨 왈

«이 수를 뉘 놓았나뇨.»

할미 왈

«어린 딸이 놓았나이다.»

조 적 왈

«할미난 어대 계시며 뉘라 하시나이까.»

할미 왈

«나난 락양 동촌 리화정 술 파난 마고 할미니 딸이 놓은 배라. 만금이 싸니다.»

조 적이 오백 금을 주고 사거날 받아 가지고 집에 돌아 와 랑자다려 수 판 말을 이르니 랑자 왈

«인간에도 하날 경을 아난 이 있도다.» 하더라.

조 적이 중가[290]를 주고 샀으되 제목이 없난지라 천하 명필을 얻어 제목을 써 천하 보배를 삼고저 하여 두루 광문[291]하더니 락양 동촌 리 위공의 아들이 문장이 천하에 유명하여 리두를 압두한다난 말을 듣고 락양 동촌을 찾어 가니라

어시[292]에 병부[293] 상서 리 위공이란 사람이 젊어서부터 문무[294] 겸전하니 명망이 사해에 진동하매 황제 아름다이 여기사 위공을 봉[295]하시고 국사를 맡기려 하시매 위공이 후래의 화를 당할가 두려 병들었다 일컫고 고향에 돌아 가니 황제 위공의 충성과 재조를 아끼시더라.

위공이 고향에 돌아 와 힘써 가계 유여하나 다만 자식이 없어 매양 슬허하더니 이 때 추칠월 망간이라. 부인으로 더불어 완월루에 올라 달을 구경하더니 공이 부인다려 왈

«내 공명 부귀 조정에 으뜸이로되 자녀 없어 후사를 의탁할 곳이 없으니 조종[296] 제사를 뉘 받들리요. 타문의 숙녀를 취하여 자식을 보려 하니 부인은 불안히 녀기지 말으소서.»

부인이 차언[297]을 듣고 길이 탄식 왈

«내 박복하여 무자하니 여러 부인이 들어 온들 어찌하리이까.»

이렇듯 한담하다가 왕씨 본가에 돌아가 부친 왕 승상께 뵈압고 상서의 말을 전하니 승상 왈

«무자한 죄난 죄 중에 제일 큰 죄라. 내 들으니 대성사 부처가 령험[298]이 장하다 하니 네 가서 빌어나 보라.»

왕씨 기꺼 택일하여 재계[299]하고 친히 가 정성으로 빌고 있더니 이날 밤 꿈에 한 부처 이르되

«상서 전생에 죄 없난 사람을 많이 살해한고로 차생[300]에 무자하게 정하였더니 그대 정성이 지극하매 귀자를 점지하나니 바삐 집으로 돌아 가라.»

한대 왕 부인이 감사하여 사례하다가 깨달으니 기쁨을 이기지 못 하여 즉시 본부로 돌아 오매 상서 문 왈

«무삼 연고로 여러 날 계시더뇨.»

부인 왈

«상공[301]이 나를 무자타 하여 내치려 하시매 산천 기도하려 갔더이다.»

상서 소 왈

«빌어 자식을 낳으면 세상에 무자할 이 뉘 있으리오.»

하고 한탄하다가 취침하였더니 상서 일몽을 얻으니

«태을진군이 옥황께 득죄하여 그대게로 보내시니 귀중히 보중하소서.»

하고 간대 없거날 꿈을 깨여 부인다려 문 왈

«그대 자식 빌기를 지성으로 하여 몽사 여차하니 모를 일이로소이다.»

상서 부인 현공[302]을 위로하거날 그 제야 대성사 부처에게 빈 말을 하고 또 몽사를 일러 부부 서로 기꺼하더니 과연 그 달부터 잉태[303]하여 익년[304] 사월 초 팔일에 이르러 상서 마참 나가고 부인 혼자 있더니 그 날 오색 구름이 집을 두르고 기이한 향내 가득하거날 부인이 시녀로 집안을 소쇄하더니 오시[305]부터 부인이 기운이 불평하여 의지하였더니 학의 소래 나며 선녀 한 쌍이 들어와 이르되 «때 늦어 가오니 부인은 침석에 누우소서» 하며 발써 아해 소래 나난지라. 선녀 옥병에 물을 따라 아해를 씻겨 뉘이고 가려 하거날 부인 왈

«그대난 뉘시관대 루사[306]에 이르러 수고를 하시니 불안하오이다.»
선녀 왈
«우리난 천상에서 해산 가음아난[307] 선녀러니 옥제 명을 받자와 아기 낳으시난 것을 보러 왔삽고 배필은 남군 땅에 있기로 그를 바삐 보러 가나이다.» 하더라.
부인이 선녀에게 사례 왈
«이 아해 배필은 뉘 집에서 나며 성명이 뉘니이까.»
선녀 대 왈
«김 상서의 녀아요 이름은 숙향이라 하나이다.»
하고 간대 없더라. 부인이 필묵을 내여 선녀의 말을 기록하니라.
이 날 상서 꿈을 꾸니 하날로서 선관이 나려 와 부인을 벼락을 쳐 뵈거날 상서 놀라 깨였더니 천자의 부르시난 명이 있거날 곧 조회에 들어 갔다가 천자께 여짜오되
«간밤의 꿈에 신의 처가 벼락을 맞어 뵈오니 돌아가 보아지이다.»
상이 문 왈
«경의[308] 부인이 잉태함이 있나냐.»
위공이 주 왈
«늦도록 자식이 없삽더니 홀연 잉태하여 금월이 사월이로소이다.»
상이 대희하사 왈
«짐이[309] 천문을 보니 락양 성에 태을성이 떨어졌으매 기이한 사람이 나리라 하였더니 과연 경의 집이로다. 귀이 걸러 집을 도우라.»
공이 사은 하고 집에 돌아 오니 과연 부인이 아들을 낳았더라. 공이 대희하여 바삐 들어 가 보니 그 아해 얼굴이 꿈에 보던 선관 같거날 이름을 선이라 하고 자를 태을이라 하다.

선이 낳은 지 오륙 삭에 말을 하고 사오 세에 글을 모를 것이 없어 십 세에 이르러 문장이 천하에 이름이나 공경[310] 대부들이 다토아 구혼하여도 선이 매양 희롱의 말로

«나의 배필은 월궁 소아 아니면 배필 될 이 없다.»

하니 위공이 태부[311]하기 심상치 아니터라. 선이 부친께 여짜오되

«과거가 가깝다 하오니 구경코저 하나이다.»

위공 왈

«네 재조난 족하나 나라에 몸이 매였은즉 우리 너를 그리워 어찌하리오. 아직 더 기다리라.»

선이 마음이 울울하여 근처 산수를 유람하기를 일삼더니 한 곳에 다닫으니 대성사란 절이 있거날 들어 가란간을 의지하여 잠을 들었더니 부처 이르되

«오날 서왕모 잔채에 선관 선녀 많이 모인다 하니 그대 나를 따라 구경하라.»

선이 기꺼 사례하고 부처를 따라 가더니 한 곳에 다닫으매 련화 만발하고 루각이 층층하여 그 위[312]의 름름하니 엄숙함을 측량치 못 할러라. 부처 선다며 왈

«저 오색 구름 모은 탑 우에 앉으신 이난 옥황이시고 뒤에난 삼태성[313]이 모든 별을 거나리고 앉었고 동편 황금 탑 우에난 월궁 항아시니 모든 선녀 근시[314]하고 서편 백옥 탑 우에 앉으신 이난 석가여래시니 모든 부처를 거나려 계시니 내 몬저 들어 갈 것이니 그대 좇아 들어오라.»

선 왈

«하도 엄엄하니 동서를 분변치 못 할가 저허하나이다.»

부처 웃고 소매로서 대초 같은 것을 주니 선이 받아 먹으매 정신이 소연[315]하여 자기난 태을진군으로서 상제 앞에서 매사를 봉승[316]하던 일과 월궁 소아로 글지어 창

화하던 일과 약 도적하여 주던 일이 력력하고 모든 선관이 다 벗이라. 반가움을 이기지 못 하여 옥제께 사례 왈 «이제야 전생 일을 생각하나이다» 하고 모든 선관께 뵈이니 모두 반겨하더라.

상제 문 왈

«태을아, 인간 자미 어떠하더뇨. 소아를 만나본다.»

선이 복지 사죄한대 상제 한 선녀를 명하여 «반도 둘과 계화 한 가지를 주라.» 하신대 선녀 옥반에 반도를 담고 계화 일지를 들고 나오거날 리 선이 복지하여 받아 가지고 문득 선녀를 결눈으로 보니 그 선녀 부끄러 몸을 두루칠제 손에 낀 옥지환에 박은 진주 계화 가지에 걸려 떨어지매 리 선이 집어 손에 쥐고 섰더니 절 종치난 소래에 놀라 깨니 한 꿈이라. 요지연이 눈에 암암[317]하고 천상 풍류 소래 귀에 쟁쟁한대 손에 진주 쥐였거날 극히 고이히 여겨 글을 지어 꿈을 기록하고 부처께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 오니라.

이 후로부터 소아만 생각하더니 일일은 소동이고 왈

«밖에 남성[318] 땅에 사난 사람이 공자께 뵘을 청하나이다.»

리 선이 보려 하여 부르니 기인이 례하고 왈

«소생은 남성 땅 조 적이압더니 한 족자를 얻으매 그 경치를 그려 찬[319]을 짓고저 하되 문장이 없어 여의치 못 하더니 들으니 공자 문필이 천하 제일이라 하압기 불원 천리하고 왔사오니 청컨대 한번 수고를 아끼지 마옵소서.»

하고 족자를 드리거날 선이 받아 보니 꿈에 보던 선경이라. 력력히 그렸거날 심중에 경아[320]하여 문 왈

«이 족자를 어대서 얻었나뇨.»

한대 조 적 왈

«공자 어찌 놀라시나이까.»

하고 심중에 생각하되 «그 할미 이 집 족자를 도적하여 팔았난가.» 의심하더니 선이 소 왈

«내 전일 본 것이니 그대난 난 곳을 기이지 말라.»

조 적이 답 왈

«락양 동촌 리화정 술 파난 할미에게 샀나이다.»

공자 왈

«이난 천상 요지도오니 우리게난 가하거니와 그대에게난 불가하니 수족자[321]가 있으매 바꾸아 주거나 중가를 줄 것이니 팔거나 하라.»

조 적 왈

«나난 본대 취리하난 사람이라. 오백금을 주고 샀으니 더 주시면 팔고 가리이다.»

선이 즉시 륙백금을 주고 사서 대성사 절에 꿈꾸고 지은 글을 금자로 그림 우에 쓰고 족자를 꾸미여서 족자난 방에 걸고 주야로 보니 몸은 비록 인간에 있으나 마음은 다 요지에 있난 듯 하여 다만 소아를 찾고저 원이러니 일일은 스사로 깨달아 왈

«나난 요지에 다녀 왔거니와 이 수 놓은 사람은 어찌하여 인간에서 천상 일을 력력히 그렸으니 필연 비상한 사람이로다. 리화정 할미를 찾어 수놓은 사람을 찾으리라.»

하고 부모께 유산함[322]을 고하고 노새를 채쳐 리화정을 찾어 가니라.

이 때난 하 사월이라. 숙향이 루상에서 수 놓더니 홀연 청조가 석류꽃을 물고 랑자의 앞에 와 앉았다가 북녘으로 가거날 랑자 고이히 여겨 새 가난 곳을 보려 하고 주렴을 들고 보려 하더니 한 소년이 청삼[323]을 입고 노새를 타고 할미 집을 향하여 들어 오거날 랑자 자세히 보니 꿈에 요지에 가 반도를 받아 갈 제 진주를 집어 가던 신선의 얼굴 같거날 마음에 반갑고 일변 놀라와 주렴을 거두고 앉았더니 그 소년이 바로 할미 집으로 와 주

인을 찾거날 할미 나와 보니 북촌 리 위공댁 귀공자러라. 맞아 들어 가 좌정[324]한 후 할미 왈
«공이 이 루지에 오시니 지극 감격하여이다.»
생이 소 왈
«한 잔 술이나 아끼지 말라.»
하고 이에 말삼할새 선이 문 왈
«요지 그림을 할미가 팔더라 하니 어떤 사람이 수놓았난고.»
할미 왈
«소아라 하난 아해가 놓았거니와 어찌 아시나뇨.»
선이 왈
«조 적에게 들었노라.»
할미 왈
«찾어 무엇하려 하난고.»
«천상 연분이 있기로 찾으려 하노라.»
할미 왈
«소아 본대 전생에 죄 중하여 병인이 되여 귀먹고 한 다리 한 팔 못 쓰난 고로 쓸대 없난 터에 구하려 하심은 망계[325]로다.»
«소아 곧 아니면 혼인치 아니리니 바삐 이르라.»
할미 왈
«공자난 귀공자여날 제왕의 부마[326] 아니면 공경대부의 서랑[327]이 되리니 어찌 그런 천인을 구하난고. 다시 허황한 말을 말으소서.»
선이 왈
«만승[328]의 공주라도 싫으니 할미난 있난 곳만 가르치라.»
할미 왈
«소아를 본 지 오래니 있난 곳을 모르거니와 남양 땅[329] 김 전을 찾아 보아 만일 게 없거든 남군 땅 장 승상 집으로 찾으소서. 차생 이름은 숙향이라 하더이다.»

리 선이 즉시 하직코 돌아 와 부모께 고하되

«형초 땅에 기이한 문장이 있다 하니 소자 찾어 가 보고저 하나이다.»

공이 허락하며 «수이 다녀 오라» 하니 생이 절하여 하직하고 황금을 싣고 형주로 이르러 남양을 향하여 여러 날 만에 김 전의 집에 이르러 문에 가 물으되 «상공이 계시냐.»

한측 하인이 대 왈

«계시나이다.»

생 왈

«락양 동촌 리 위공의 아들 선이 뵈러 왔음을 고하라.»

하니 들어 가 고한대 김 전이 청하거날 생이 들어가니 김 전이 내려 맞아 례필[330] 좌정 후에 왈

«귀객이 루지에 오시니 고하도다.»

생 왈

«소생이 이에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령녀[331]의 향명[332]을 듣고 구혼코저 하나이다.»

김 전이 청파[333]에 함루 대 왈

«학생[334]이 팔자 기박하여 남녀간 자식이 없더니 늙게야 녀아를 낳으매 위인이 남의 아래 아니러니 오 세에 란중에 실산[335]하고 지금껏 사생 존망을 모르더니 그대 말을 들으니 더욱 비상하도다.»

생이 할일 없어 김 전을 하직하고 남군 장 승상 집을 찾아 가 명함을 드리니 승상이 청하여 례필에 생 왈

«소자난 락양 동촌 리 위공의 아들이러니 남양 땅 김 전이란 사람의 딸 숙향이란 녀자 댁에 있다 하오매 불원 천리하고 구혼코저 왔나이다.»

승상이 눈물을 흘려 왈

«숙향이 오 세에 즘생이 물어다가 내 집 동산에 바렸거날 우리 무자하기로 십년을 양육하여 자식을 삼았더니

사향이란 종년이 모함하여 내치니 표진강 물에 빠졌다 하기로 사람을 보내여 찾으되 종적이 없으니 사생을 몰라 슬허하노라.»

리 선 왈

«소생이 분명 여기 있난 줄 알고 왔으니 추탁[336]치 말으소서.»

승상 왈

«숙향이 내 친녀라도 그대와 결혼하기 과분하거날 어이 기이리오. 다 우리 박복한 탓이로다.»

생이 다시 고 왈

«숙향이 병인이라 하난대 사향이 구박한들 어대로 가리이까.»

승상 왈

«로부[337]의 부인이 숙향을 여읜 후 화상을 그려 방중에 걸었으니 나의 말을 믿지 아니커든 보라.»

하니 과연 방중에 한 폭 족자 걸렸거날 다시 보니 요지에서 보던 선녀 같거날 반김을 이기지 못 하여 왈

«숙향이 병인이라 하압더니 화상은 병체[338] 없사오니 고이 하외다.»

승상 왈

«숙향은 본대 병이 없고 화상은 십 세 전에 낸 것이요 숙향이 십 세 후는 더욱 아름답다.» 하매

생 왈

«숙향을 위하여 왔다가 그저 가오니 저 화상을 팔으시면 중가를 드리리다.»

승상 왈

«그대 말을 들으니 정성이 지극하나 로부인이 족자를 마자 없이하면 실성하리니 이러므로 못 하노라.»

생이 할일 없어 하직하고 표진 물가에 와서 두루 찾으되 알 길이 없더니 한 로옹[339]이 이르되

《수년전 모양이 기이한 녀자 장 승상 댁으로 나와 이물에 사배하고 빠져 죽으니라.》

생이 슬픔을 이기지 못 하여 향촉[340]을 갖초아 제하더니 물 우에서 저[341] 부난 소래 세 번 나더니 한 청의동자 일엽선[342]을 타고 저를 불며 와 리 선다며 왈

《숙향을 보고저 하거든 이 배에 오르라》 하니 생이 배에 오르매 빠르기 살 같더라. 한 곳에 다달아 동자 왈

《내 이 물 지킨 신령을 알더니 날다려 이르되 〈숙향을 구하여 동다히로 보냈다〉 하니 그리로 가 찾으라.》

생이 사례하고 동다히로 가더니 한 중이 지나거날 길을 물으니 중 왈

《앞에 노감투[343] 쓴 로옹이 있을 것이니 그 로옹다려 물으면 알리라.》

생이 갈 속으로 오다가 보니 소나무 아래 바위 우에 한 로옹이 노감투를 쓰고 앉어 조난지라. 생이 나아가 절하야도 본 체 아니하거날 민망하여 가로되

《지나가는 행인이압더니 길을 몰라 묻나이다.》

로옹이 눈을 떠 보고 왈

《무삼 말을 묻나뇨. 귀먹은 사람이니 크게 말하라.

생 왈

《소자난 리 위공의 아들이 압더니 숙향으로 연분이 있다하와 불원 천리하고 왔사오니 가르쳐 주심을 바라나이다.》

로옹이 찡그리고 가로되

《숙향이란 말은 듣도 보도 못 하였난대 네 아해로서 깊은 갈 밭에 들어와 늙은이 잠을 깨와 수다히 구나뇨.》

생이 다시 절하고 왈

《표진 물 지킨 신령이 이리 가라 지시하매 왔으니 로옹은 이르소서.》

로옹 왈

《저적에 어떤 녀자 표진 물에 빠져 죽었다 함을 들었더니 표진 로왕이 그대의 제물을 받아 먹고 대일데 없어 내게로 지시함이요. 전일에 예 와 불타 죽은 그 아해로다》 하고 왈

《저 재 무더기에 가 뼈나 얻어 가라.》

생이 가 보니 의복 탄 재난 있으되 해골 탄 재난 없으니 로옹다려 이르되

《로인은 속이지 말으소서.》

로옹이 조으다가 이르되

《그대 너무 애쓰니 내 잠을 들어 숙향을 어대 있난가 보고 올 것이니 네 두 손으로 내 발바닥을 문지르라.》

리 선이 저물도록 발바닥을 문지르니 이슥고 깨여 왈

《내 그대를 위하여 마고 할미 집에 가 보니 숙향이 루 우에서 수 놓거날 불똥을 떨으쳐 봉의 날개를 타이고 왔으니 마고 할미를 찾아 숙향을 찾고 봉의 날개를 보면 내 갔던 줄 알리라.》

리 선 왈

《게서 처음에 물으니 여차여차 가르치기로 이리 오니이다.》

로옹이 웃고 왈

《할미께 지성으로 빌면 이르리라.》

선이 하직하고 돌아서니 로옹이 발써 간대 없더라. 인하야 집으로 돌아오니 부뫼 왈

《네 어대를 가 그리 오래 있던다.》

선이 대 왈

《산수를 구경하오니 더대였나이다.》 하더라.

이적에 리화정 할미 리랑을 보내고 들어가 랑자다려 왈

《아까 소년을 보시니이까.》

숙향 왈

«못 보았나이다.»

할미 왈

«그 소년이 전생의 태을선관이니 랑자의 배필이니이다. 그러나 전생에 죄 중하야 한 눈 멀고 한 다리 절고 한 팔 못 쓰난 더러운 병인이러니라.»

랑자 왈

«진실로 태을일진대 병인인들 관계하오리이까. 옥지환의 진주 가진 사람이 태을이니 할미난 자세히 살피소서.» 하더라.

일일은 루 우에서 수 놓더니 홀연 난데 없난 불똥이 나려 봉의 날개를 태왔거날 할미 보고 «화덕 진군이 왔던가. 후일 알리라» 하더라.

이 때 리 선이 집에 온 지 삼 일 만에 목욕 자계하고 요지에 가 얻은 진주와 족자를 가지고 금은 몇 천 량을 실어 가지고 할미 집으로 오니 할미 리랑을 보고 반겨 읍하며 초당[344]에 들어가 좌정 후 가로되

«저적에 공자를 만나 약간 술을 먹은 후 섭섭히 지내였더니 오날은 싫도록 먹사이다.»

생 왈

«그날도 할미 술을 먹고 값을 진즉 주지 못 하였으니 금일 갚노라. 전일 할미 말을 곧이 듣고 남양과 남군과 표진물까지 두루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나이다.»

할미 대소 왈

«주시난 일천 량이 감사하와 사양치 아니하거니와 내 집이 비록 가난하나 술독 아래 주천이 있고 우에 주성이 있으니 유주영준[345]한지라. 무삼 값을 받으리이까. 공자 또 무삼 일로 그리 멀리 가 계시니이꼬.»

생이 한숨짓고 답 왈

«숙향을 위하여 갔더니이다.»

할미 왈

《공자난 짐짓 신사[346]로다. 그런 병신을 위하여 천리를 지척 같이 다니시니 숙향이 오작 감격해 하오리이까.》

생 왈

《숙향을 보았으면 감격하려니와 못 만났으니 갔던 줄 어찌 알리이까.》

할미 거짓 놀라난 체하고 왈

《발써 다른대 혼인하였더이까.》

생이 소 왈

《할미 속이기를 그만하라. 화덕진군의 말을 들었으니 할미 집에 있어 수를 놓더라 하니 할미께 비나이다. 바로 이르소서.》

할미 정색[347] 왈

《공자의 말삼이 실로 허사로다. 화덕진군은 천상 남천문 밖에 불 가음아난 선관이니 어찌 만나 보며 마고할미난 천태산에 약 가음아난 선녀니 인간에 내려 올리 없고 숙향을 다려 가단 말은 더욱 허사로다.》

생이 진군의 불똥 떨어치고 와 정험[348]하라던 말을 다 이르니 할미 왈

《그러면 리황정이란 곳이 또 있난가.》

생이 이 말을 듣고 술도 먹지 아니하고 탄 왈

《내 진심하여 삼산[349] 사해를 다 다니되 만나지 못하니 내 또한 죽으리로다.》

하고 일어 나거날 할미 왈

《공자난 공후[350]가 귀공자로 아름다온 배필을 얻어 원앙이 록수에 놀고 추월 춘풍을 지내며 내 몸이 괴로심을 모르시나이까.》

생 왈

《모를 제난 무심하더니 그 배필을 안 후난 숙향을 위하여 침식이 불평하고 날을 위하여 고행을 많이 겪고 병인까지 된다 하니 철석 간장인들 어찌 잊으리오. 숙향을 찾지 못 하면 인간에 있지 아니하리라.》

할미 왈

«공자는 념려치 말으소서. 정성이 지극하면 지성이 감천이니 아모커나 우리 둘이 얻어 보사이다.»

«만나고 못 만나기난 할미께 달렸으니 어여삐 여기소서.»

하고 돌아 와 삼일 후 마참 문 밖에 섰더니 할미 나귀를 타고 지나거날 리 션이 인사하고 문 왈

«어대를 가시며 다녀 오시난고.»

할미 왈

«공자를 지극히 위하여 숙향을 얻으려 갔더나이다.»

생 왈

«얻어 보시니이까.»

할미 왈

«숙향이란 이름 가진 아해 셋을 얻어 보았으니 공자난 그중에 택취[351]하소서.»

«어대 있더이까.»

할미 왈

«하나난 산의[352] 대부 진 갈의 녀요 하나난 빌어 먹난 아해요 하나난 만고 절색이나 병신 아해니 이르되 내 배필은 진주 가져간 이라 하고 진주 본 후에 몸을 허하려 하노라 하더이다.»

리생이 듣고 대희 왈

«이난 나의 숙향이로다. 내 요지에 갔을 제 반도 주던 선녀에게 진주를 얻어 왔으니 이를 보라.»

하고 들어 가더니 제비 알만한 진주를 내여 주며 왈

«할미 수고로오나 이 진주를 갖다가 병신 아해를 주어 제 진주라 하거든 다려다가 할미 집에 두고 택일하여 보내면 혼사 제구난 내 담당하리라.»

할미 응답하고 돌아와 리 생의 말을 이르고 진주를 내여 주니 랑자 진주를 보고 눈물을 머금고 이르되

«이는 내 것이니 할미 마음 대로 하소서.»

할미 이대로 리 생에게 전하니 생이 황금 오백 량을 주며 «혼수[353]에 쓰라.»

한대 할미 왈

«혼사 지내기난 내 비록 구간[354]하나 자연 지내리니 이것은 두었다가 랑자나 주소서.» 하더라.

리생의 고모난 좌복야[355] 려 홍의 부인이라. 청년에 과거하야 자식이 없으매 선을 친 자식 같이 사랑하더라. 리생이 숙모 집에 나아가더니 부인이 반기며 왈

«내 밤에 꿈을 꾸니 백룡을 타고 광한전이라 하난대 들어가니 한 선녀 이르되 ‹내 사랑하던 소아를 그대를 주나니 며느리를 삼으라› 하거날 내 너를 주려 하고 다려와 뵈니 일정 아름다온 아해를 얻을려라.»

생이 전후사를 다 고하니 부인이 대희 왈

«네 부픠 성정[356]이 류다르니 비천한 아해를 며느리 삼을리 없으매 어찌 하나뇨.»

생 왈

«소질이 죽어도 다른대 취처치 아니하리이다.»

부인 왈

«네 벼살 곧 하면 두 부인을 둘 것이요 또 네 부친이 경성에 가고 없으니 이번 혼사난 내 주장하고 둘째 부인은 네 부친이 주장하면 아니 좋으랴.»

생이 사례 왈

«숙모의 유덕으로 소질의 원을 이루게 하소서.»

하고 생이 집에 돌아와 날만 기다리더니 이미 날을 당하매 부인이 숙향의 집에서 기구[357] 없으리라 하여 채단과 기구를 돕더라. 채단 가져 가던 시녀등다려 그 집 모양을 물으니 «이백 같이 기이한대난 처음 보았나이다.» 하매 부인이 기꺼하더라. 리 선이 이에 위의를 숙모 집에서 차려 할미 집으로 가니 모든 기구와 좌우 빈객[358]이 요지 선관처럼 모였더라. 전안지례[359]를 맟고 동방 화촉에 나아가 교배[360]할 새 천정한 배필인 줄 일러

라. 리 생이 요조 숙녀를 만나매 견권지정[361]이 원앙이 록수에 놀고 비취 련리지에 깃들임 같으니 무궁히 즐거워 하더라.

이튿날 부인께 뵈오니 부인이

«랑자 병인이라 하더니 어떠하뇨. 다려다가 보고 싶으되 네 부친이 내려 오거든 권기차[362]로 기별하고 다려오려 하노라.»

생 왈

«랑자를 보라 하시거든 이 족자를 보옵소서.»

하고 족자를 드리니 부인이 보고 대희 왈

«이것이 꿈에 뵈던 선녀라» 하더라.

이적에 리 상서 경성에 있어 변방일[363]을 의논하고 내려 오지 못 하였더니 부인이 선의 하난 일이 전과 다름을 보고 시녀 등에게 물어서 알고 상서에게 기별하니 상서 대로하여 락양 원에게 기별하여 «그 계집을 잡아다가 쳐 죽이라.»

이 때 랑자 옛 일을 생각하고 슬허하더니 홀연 저녁 까치 와 울거날 랑자 놀라 왈

«장 승상 댁의 영춘당에서 저녁 까치 울어 불측한 봉변을 당하였더니 오날 또 우니 무삼 연괴 있으리로다.»

하고 가장 념려하더니 밤중은 하여 관채[364]이르러 불문곡직[365]하고 성화같이 잡아가니 숙향이 아모란 줄 모르고 잡혀 가 아문[366]에 이르니 좌우에 등촉[367]을 밝히고 원이 좌기[368]하여 묻으되

«네 어떤 계집이완대 리 상서 댁 공자를 고혹케[369]하여 죽을 죄를 지었는다. 상서 기별하시기를 너를 죽이라 하시니 너난 나를 원치[370] 말고 형벌을 받으라.»

하고 올려 매고 치려 하거날 숙향이 울며 왈

«오 세에 부모를 잃고 할미를 만나 의탁하았사옵더니 리생이 구혼하옵거날 상민의 자식이 사부가 배필이 되옴이 첩의 죄 아니니이다.»

태수[371] 왈

«낸들 어찌 거역하리오. 어서 치라» 하니 집장[372] 사령이 매를 메고 치려 한즉 팔이 무거워 치지 못하거날 원이 이르되 무죄한 사람을 치려 하니 그런가 싶으되 상서의 명을 어기지 못할지라. 동혀하다가 물에 넣으라 하더니 이 때 원의 부인이 꿈을 꾸니 숙향이 절하고 울며 왈

«부친이 소녀를 죽이려 하시난대 모친은 어찌 구치 아니하시나이까.»

장씨 놀라 깨여 시녀를 불러 문 왈

«로야 어대 계시뇨.»

시비 대 왈

«리 상서 댁 청촉[373]으로 그댁 며느리를 쳐 죽이려 좌기하시나이다.»

장씨 놀라 태수를 청하여 울며 왈

«숙향을 잃은 지 십 년이로되 일체 꿈에 뵈지 아니터니 아까 꿈을 꾸니 숙향이 와서 여차여차하오니 그 녀자난 어떠한 사람이니이까.»

원 왈

«리 위공의 아들이 취처전[374]에 작첩[375]하여 그 계집을 리공이 죽이라 하나이다.»

부인 왈

«무자식한 사람이 또 어찌 적악[376]을 하리오. 그 계집을 놓으소서.» 하더라.

이 때 랑자 울며 왈

«이 땅은 어대뇨.»

«락양 옥중이라 하나이다.»

랑자 망극하여 리 공자에게 죽난 줄이나 기별코자 하나 전할 사람이 없어 울더니 홀연 청조 날아와 앞에 앉어 울거날 랑자 기꺼 손가락을 깨물어 집 적삼 소매를 떼여 글을 써 발에 매고 경계하여 왈

«숙향이 락양 옥중에서 죽게 되였으니 죽기난 설지 아니하나 부모와 리랑을 다시 보지 못 하니 명목지 못 하겠고 또 비명에 죽으니 원통치 아니하리오. 청조난 유신커든 소식을 전하라.»

청조 두번 울고 가더라.

리 생이 고모 집에서 자더니 자연 마음이 산란하여 잠을 이루지 못 하고 울울 불락하더니 청조 날아와 리 생의 팔에 앉거날 보니 발목에 서찰이 매았으되 랑자의 혈적[378]이라. 그 사연을 보니 락양 옥중에 갇힌 사의[379]라. 크게 놀라 그 글을 부인께 드리고 옥으로 가 랑자를 구코저 하거날 부인 왈 «아직 경선히[380] 구지 말라.»

하며 할미 집에 시녀를 보내여 «알아 오라» 하고 일변 상서 부중 노복을 불러 수말[381]을 물으니 노복이 자세 고하난지라.

부인이 대로 왈

«선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내가 양육하였으매 내 주혼한 일이어날 상서 장매[382]를 대접한 것 같으면 날다려 묻지 아니코 락양 원에게 기별하여 애매히 사람을 죽이려 하니 내 친히 경성에 가 상서를 보아 듣지 아니커든 황후께 아뢰여 처치하리라.»

하고 행장을 차려 경성으로 가니라.

이적에 김 전이 과거하여 락양 원이 되았더니 리 위공의 말을 거역지 못 하여 마음이 자연 비창하나 마지못 하여 내아[383]로 들어가 좌기하고 랑자를 잡아 올리니 랑자 옥면에 눈물을 흘리고 약한 몸에 큰 칼 쓰고 붙들려 들어오매 김 공이 물으되

«네 나는 몇이며 성명은 무엇이며 어대 사람의 자식인고. 자시 아뢰라.»

랑자 정신을 겨우 차려 고 왈

«아비난 김 상서라 하고 이름은 숙향이오 나이는 십오 세로소이다.»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이 여유하야 왈

«그 아해 얼굴을 보니 우리 숙향이와 같고 나이 더욱 같으며 김 상서의 딸이라 하니 근본을 사실하와 아직 다사리지 말으소서.»

공이 옳이 여겨 도로 하옥[384]하고 그 사연을 리 위공에게 기별하니라. 부인이 숙향을 생각하고 울거날 공이 분부하되 «그 형상이 참옥하니 칼이나 벗겨 주라» 하다.

이적에 리공이 락양 원의 편지를 보고 대로하여 김전을 계양 태수[385]로 옮기고 다른 이로 락양 원을 시켜 그 계집을 기어코 죽이려 하더니 문득 하인이 고 왈

«려 로야댁[386] 부인이 오시나이다.»

상서 반겨 하당[387]하여 맞아 문후[388]하니 부인이 문득 대로 왈

«요사이난 벼슬이 높고 위엄이 중하면 동기[389]도 업수이여겨 절제[390]하려 하나뇨.»

상서 황공하여 대 왈

«어찌 이르시난 말삼이니이까.»

부인이 대로 왈

«내 선을 길러 친자 같이 알거날 마참 마땅한 혼처를 만나 네게 미처 기별치 못 하고 성혼하였으며 또 몽사가 여차여차하기로 내 슬하 적막하여 다리고 있으랴 하였으니 네 내게 이르도 아니코 무죄한 녀자를 죽이려 하니 대장뷔 저러하고 천하 병마를 어찌 부리리오»

크게 책하니 위공이 황공 대 왈

«저저[391]의 주혼하신 줄은 모르고 잘 못 하였나이다. 요사이 양왕이 구혼하옵거날 사제[392] 허락하였삽더니 선이 미천한 계집에게 장가 들었다 하고 시비 많사오니 그리하였나이다. 혼인은 인륜 대사이오니 어찌 인력으로 하리이까. 락양 원에게 대단히[393] 기별하여 죽이지 말고 근처에 두지 말라 하리이다.» 하더라. 려 황후난 려 부

20*

인의 시고모라. 황후 청하여 궁중에서 머무니 부인이 선에게 편지를 부쳐 랑자 놓임을 기별하니라.

이 때 위공이 아자[394] 호탕하매 학업을 폐할가 저허하여 선을 경성으로 다려 가니 생이 랑자를 다시 보지 못 하고 경사[395]로 가게 되매 모부인께 들어가 하직하고 눈물을 흘리니 부인 왈

«네 인물 풍채 하등이 아니어날 배필을 구할진대 어대 없으리오. 부모를 속이고 천한 계집을 얻어 성정이 그릇되니 네 부친이 부르시난 것을 슬허하나뇨.»

선이 그제야 숙향과 혼인하던 수말을 세세히 고하고 왈

«모친은 소자의 천정을 생각하사 숙향을 부르소서.»

부인 왈

«진실로 그러하면 천정 연분이니 어찌 구박하리오. 너의 부친도 아지 못 하심이라. 념려 말고 과거나 하여 좋이[396] 돌아 오라. 벼슬하면 네 하고저 하난 일을 부모라도 말리지 아니하리이다.»

생이 할미나 보고 가고저 하되 부명을 지완치[397] 못하여 할미께 편지하여 숙랑자 보호함을 당부하고 경성에 올라 가 부친께 뵈니 공이 불고이 취합[398]을 대책하고 «태학[399]으로 가라» 하심을 이른 후 이에 황제께 하직하고 집에 돌아오니 이 때 김전은 계양 태수를 하여 가고 신관이 도임하매 랑자를 놓아 «근처에 있지 말라» 하니 할미 문 밖에 있다가 랑자를 붙들고 집에 돌아 오니 생의 보낸 글이 있거날 랑자 떼여 보니 만단[400] 정화라. 이에 탄식 왈

«리랑이 이제 경사로 가지고 고을서난 이 근처에 있지 말라 하니 이제 어대 가 의탁하리오.»

할미 왈

«이제 내게 오래 있으면 또 환을 볼 것이니. 또 옮아 살 것이라.»

하고 즉시 세간을 옮긴 후 랑자를 다리고 집을 떠나사더니 일일은 할미 왈

«나난 본대 천태산 마고 선녀러니 랑자를 위하여 내려와 급화를 다 구하였고 이제난 또한 연분이 진하여 떠나게 되니 여러 해 동처하던 정리에 결연함을 이기지 못하리로소이다.»

랑자 이 말을 듣고 대경하여 배사[401] 왈

«인간 무지한 눈이 신선을 아지 못 하고 이제난 연분이 박하여 내치여 쫓기심을 당하고 할미의 은혜를 입어 일신이 안활[402]하더니 할미 이에 돌아가시면 누구를 의지하리오.»

하며 슬허하니 할미 왈

«청삽살을 주고 가나니 랑자의 어려운 일을 돌보이다.»

랑자 왈

«가시난 길이 얼마나 하오며 어느날 가시려 하시나이까.»

할미 왈

«나의 길은 오만 팔천리요 가기난 이제 가려 하나이다.»

랑자 더욱 촉급하여 울며 왈

«하로나 더 묵어 서로 놀다 가소서.»

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 하니 할미 길이 한숨지고 이르되

«내 간 후 입었던 옷을 빙염[403]하고 관곽[404]을 갖춘 후에 저 청방[405]이 가서 굽으로 파난대 묻어 주시고 행여 어려온 일이 있거든 내 분묘에 오면 자연 구하리이다.»

하며 입었던 적삼을 벗어 주고 이에 리별하니 두어 걸음에 간 바를 아지 못 할러라. 랑자 망극하여 적삼을 붙들고 통곡하더라.

* * *

차설[406] 랑자 망극하여 통곡하다가 할미 유언 대로 장사코저 례복을 갖초아 한없이 가려 하니 청방이 이윽히 보다가 치마를 물어 못 가게 하난 형상이어날 랑자 가지 아니하고 가난 사람다려 이르되

«이 청방을 따라 가다가 청방이 가지 않고 머무난 곳에 장사하라.»

하고 슬허하며 조석으로 제전[407]을 극진히 하여 제하더라.

랑자 청방을 의지하여 세월을 보내더니 일일은 달이 밝고 청천에 한점 구름도 없으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창을 의지하여 탄식하난 글을 지어 서안[408]에 놓고 조으다가 깨여 보니 글도 없고 개도 없는지라. 더욱 망극하여 울며 왈.

«가련타 팔자여, 사람은커녕 개마져 잃었으니 적적하여 잠을 이루지 못 하리로다.»

이 때 리랑이 대학에 가서 공부한 후난 랑자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어 주야 체읍[409]이러니 멀리 바라보니 청삽사리 생을 향하여 오거날 생이 살펴 보니 랑자 집의 개라, 생의 앞에 와 입을 토하거날 보니 이 곧 동촌 리화정 숙랑자의 필적이라, 급히 떼여 보니 하였으되 «슬프다 숙향의 팔자여, 무삼 죄로 오 세에 부모를 잃고 동서로 표박[410]하다가 천우신조[411]하사 리랑을 만났으나 다시 리별하고 혈혈[412] 무의 한 나의 신세 할미를 의지하였더니 여액[413]이 미진하여 일조에 상천[414]하니 혈혈 단신이 어데 가서 의탁하리오. 생전에 리랑을 보지 못 하면 부모를 어이 찾으리요. 슬프다 나의 신세여, 죽고저 하나 땅이 없도다.» 하였더라.

생이 보매 슬픔을 금치 못 하고 할미 죽은 줄로 알고 더욱 슬허하며 음식을 내여 개를 먹이고 편지를 써 개 목에 걸며 경계 왈

«할미마저 죽고 랑자 너만 의지하난지라. 빨리 돌아가 편지를 전하고 랑자를 잘 보호하라.»

그 개 머리를 끄다겨 응하는 듯하고 나난듯이 가더라.

이 때 량자 개를 잃고 종일 체읍하더니 날이 저물어 인적은커녕 소래도 듣지 못 하니 고적함을 이기지 못 하여 원천을 관망[415]하며 비회[416]를 금치 못 하더니 홀연 청방이 나난듯이 앞에 와 엎데거날 어디 가 죽은가 하다가 반색하여 나아가 쓰다듬어 왈

《네 아모리 짐승인들 나를 버리고 어대를 갔던다. 오작 주렸으랴》 하고 두루 쓰다듬으니 청방이 또한 흔연히 반겨 두 발을 허위며 목을 숙이고 있거날 량자 보매 일봉서찰[417]이 매였거날 글러 보니 그 글에 왈

《숙량자 전에 부치나니 량자의 옥안[418]을 사렴[419]하여 생각을 밤낮 없이 하더니 천만 몽상[420] 지외에 청방이 글을 전하거날 가히 감동하여 우리 량인의 평부[421]를 전하난도다. 그대의 전후 고초난 다 선의 죄라, 한 번 리별하매 약수[422]가 가리였고 청조 끈쳤으니 서산에 지난 날과 동령에 돋난 달을 대하여 속절 없이 간장만 사를 뿐이러니 청방이 한 소식을 전하니 옥안을 대한듯 든든하며 반가온 마음을 정치 못 하나 할미 죽었다 하니 누를 의지하며 그 고고한[423] 신세를 생각하니 나의 마음이 어떠하리오. 지필을 대하매 마음을 진정치 못 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도다. 쌓인 회포[424]를 다 기록지 못 하나니 옛 사람이 이르되 ‹홍진[425] 비래요 고진감래라› 하니 혈마[426] 매양 그러할 것 아니오매 과거 기별이 들리니 혹 방목[427]에 참예하여 뜻을 이루면 나의 평생 원을 풀고, 량자의 은혜를 갚으리니 옥보반신[428]을 안보[429]하사 생이 돌아 가기를 기다려 사생을 한가지로 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량자 견필에 오렬[430] 왈

《황성[431]이 예서 오천 여 리라. 도로 료원[432]하고 운산이 망망하니 혈혈 녀자 발섭[433]이 극난하고 또한 강포지옥[434]이 두려온지라. 좌사[435] 우량하나 백계[436] 무책이

라.» 일일 간장을 사를 뿐이러니 들으니 도내에 도적이 성하는 중 동리에 불량지인이 있어 할미조차 없음을 알고 재물을 취하고 랑자를 겁탈코자 한다 하거날 랑자 대경하여 동리의 소동을 불러 자서히 물으니 소동이 답 왈

«길에서 들으매 이 집에 보화 많으니 오날 밤에 겁탈하여 보화를 난호고 랑자는 저이가 다리고 산다고 하더이다.»

랑자 듣고 모골[437]이 송연하고 망극함을 이기지 못하여 아모리 할 줄 모르더니 황혼이 되매 더욱 초조하여 망지 소위[438]러니 한 계교를 생각하고 청방을 불러 경계 왈

«아까 지나가는 아해 말을 들으니 오날 밤에 도적이 들어 재물을 수탐[439]하고 나를 기어코 겁측한다 하니 만일 이럴진대 내 죽어 절개를 완전히 하리니 이제 할미 분묘에 가 명을 끊어 할미 해골과 한가지로 묻힘이 나의 원이라 너는 할미 분묘를 가르쳐 날로 하여금 이 욕을 면케 할소냐.»

하고 눈물을 흘리니 청방이 다만 고개를 들어 듣난듯하고 응함이 없거날 랑자 의복 두어 가지를 보에 싸고 개가 가기를 바라되 그 개 누워 이지 아니커날 랑자 더욱 황황[440]하여 또 경계 왈

«네 비록 짐승이나 사세 급한 줄 알거든 이리 지완[441]하다가 도적의 욕을 어찌하려 하난다.»

청방이 그제야 일어나 보자에 싸인 것을 물어 당기난지라. 보를 벗어 놓으니 물어 제 등에 얹고 나가거날 랑자 따라 갈새 한 뫼에 앉고 가지 안난지라. 랑자 살펴보니 한 무덤이 있으니 ‹반다시 할미 무덤이리라› 하고 분묘를 어루만져 통곡하더니 이 때 리 상서 부인으로 더불어 완월루에 올라 월색을 구경할새 멀리서 녀자의 곡성이 은은히 들리거날 고이히 여겨 부인 다려 왈

«야심[442]한대 어떠한 녀자 저리 슬허하난고.»

창두[443]로 하여금 《보라》 하니 마참 공자 유부[444] 사환[445] 하나가 수명[446]하여 울음 소래를 찾아 가니 한 소년 녀자 홀로 앉아 울거날 나아가 절하고 문 왈

《랑자난 뉘시완대 삼야에 홀로 여기와 우시나요.》

랑자 눈을 들어 보니 늙은 사람이라, 울음을 그치고 답 왈

《나난 동촌 리 공자의 랑자러니 도적의 욕이 급하매 할미 분묘에 함께 묻히려 왔나이다.》

기인[447]이 청파에 대경하여 부복 왈

《소복은 리 공자의 유부압더니 부인이 소저의 곡성을 들으시고 ‹연고를 알아 오라.› 하시매 왔은즉 소저이곳에 계신줄 어찌 뜻하였사오리이까. 소복의 집으로 가시면 자연 편안하시리이다.》

랑자 왈

《그대 랑군의 유부라 하니 극히 반가온지라. 이제 죽어도 여한[448]이 없도다. 로야께서 나를 죽이랴 하시거날 이제 명 없이 갔다가 알으시면 내 반드시 죽을지나 죽기난 섧지 아니하나 그대에게 련좌[449]가 비경[450]할가 하나니 그대난 돌아가 랑군이 오시거든 내 이곳에서 죽은줄 아르시게 하면 은혜가 태산 같을가 하노라.》

유부 왈

랑자의 말삼을 듣자오니 마땅하오나 소복이 부인께 품하고 오리니 기다리시고 천금 귀체를 가배야이 말으소서.》

하고 나난 다시 가난지라 청방이 옷보를 내려 놓고 랑자로 하여금 입고저 하거날 랑자 왈

《네 나를 죽게 하라 하거든 땅을 파면 내 거기 누워 죽을 것이니 나를 덮어 두었다가 랑군이 오시거든 가르치라.》

하고 옷을 입으니 청방이 상서댁으로 향하여 앉거날 랑자 생각하되 ‹상서 알으시면 반다시 죽일 것이니 나중

에 상서 신상에 시비 될지라, 내 스사로 죽어 시비를 그치고자 하나니만 같지 못 하다〉 하고 집 수건으로 목을 매려 하니 청방이 수건을 물어 목을 못 매게 하난지라. 랑자 울며 이르되

«네 나를 죽지 못 하게 하니 구차히 살았다가 랑군을 보리라 하거든 할미 분묘를 향하여 절하며 죽지 않고 네 뜻을 받으리라.»

청방이 말 대로 할미 분묘를 향하여 절하고 앉거날 랑자 어루만져 왈

«네 나를 죽지 못하게 하니 살았다가 욕을 불가 하노라.»

이 때 유부 바삐 돌아가 제 계집 다려 그 말을 이르고 «자결할가 싶으니 바삐 가 보라.»

하고 급히 들어가 부인께 사유를 고하니 부인이 잔잉하여 상서께 고 왈

«차언의 정상이 가련하오니 바라건대 인정이 박절하오니 다려다가 제 근본이나 알고 아자 총명하니 저의 하난 양을 보사이다.»

상서 허하니 부인이 하리[451]로 하야곰 일승교자[452]를 가져 유모를 보내여 «다려 오라» 하다.

이 때 유모 랑자 앞에 이르러 가로대

«소첩은 공자의 유모러니 저적에 듣자온즉 공자 성취하시다 하오나 고모 부인께압서 주장하시기로 아지 못하였삽더니 그 후 옥중에 공경을 다 하오매 자탄[453]하압더니 아까 지아비 말을 듣사오니 공자를 뵈온듯 반가옴을 이기지 못 하와 바삐 왔나이다.»

랑자 탄 왈

«공자의 유모라 하니 나의 정회를 펴리라.»

하고 전후 수말을 다 이를새 유부 시비를 거나려 교자를 가져 부인의 말삽을 고하니 랑자 가로대

«부르시난 명이 계시니 어찌 거역하리오만 천신[454]에게 교자 불긴[455]하니 걸어 가리라.»

한대 유부 왈

«부인의 명이 계시니 교자를 사양치 말으소서.»

랑자 마지 못 하여 교자에 올라 리부에 오르매 시비나와 분분히 부인 명으로 «완월로 뫼시라» 하니 교자 루하에 이르거날 랑자 교자에 나리니 향촉[457] 든 시비 좌우에 라렬하여 밝기 낮 갈더라. 한 시비 인도하거날 따라 멀리 서서 사배하니 상서 부부 병좌[458]하고 «나아오라» 하여 좌를 가까이 하여 주고 용모 동지[459]를 살핀 후 차탄 왈

«색태[460]가 저렇듯 탁월하니 아해 어찌 무심하리오.»

부인이 탄 왈

«홍안[461] 박명이라 하니 만첩[462] 수운이나 기질이 여차하니 수심을 척탕할진대[463] 장강[464]의 색태라도 밎지 못 하리로다.»

문 왈

«네 고향이 어데며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나 하뇨.»

랑자 염용[465] 대 왈

«첩이 오 세에 부모를 잃삽고 도로에 개걸하압더니 백록이 업어다가 락양 장 승상댁 동산에 바리오니 그 댁에 자녀 없난고로 첩을 십 오 년을 무휼[466]하옵더니 그간 사고 있사와 그 댁을 떠나오매 본향과 부모의 성명을 모르나이다.»

상서 왈

«장 승상 댁에서 무삼 일로 나와 리화정 할미에게 왔더뇨.»

랑자 대 왈

«시비 사향이 모해하여 승상의 장도와 부인의 봉차를 도적하여 첩의 상자에 두고 부인께 참소하오니 발

명[467]이 무익하와 표진 물에 빠지오니 채련하난 선동이 구하여 동다히로 가라 하오니 아녀자의 행색이 난처하와 병인인 체하고 가다가 기운이 진하와 갈 수풀에 의지하였삽다가 로전에서 화재를 만나 의복을 다 태이고 거의 죽게 되였삽더니 화덕진군이 구하였사오니 의복이 없사와 진퇴를 정치 못 하옵다가 의외에 리화정 할미를 만나 의지하였삽더니 생각지 않은 공자의 구혼하옴을 인하와 성례하였삽더니 락양 옥중 사액[468]을 지내옵고 다시 하명[469]하여 《멀리 쫓아 내치라》 하오매 옮아 복촌에 가 사옵더니 할미가 먼저 죽사오매 더욱 망극하여 겨우 염장하고 다만 청방을 의지하였더니 금야에 도적에게 쫓겨 할미 분묘에 와 죽으려 하였삽더니 부르심을 입사와 이리 대령하였나이다.»

상서 왈

«남군서 몇 달 만에 왔더뇨.»

랑자 왈

«로전에서 하로를 묵고 할미를 만났나이다.»

상서 대경 왈

«남군에서 삼천 오백리라 일삭이라도 오지 못 하려든 이틀만에 옴이 극히 고이하도다.»

부인이 또 이름과 나를 무르니 랑자 대 왈

«이름은 숙향이요, 나이는 십륙 세로소이다.»

또 문 왈

«생일은 언제냐.»

«4월 초파일이로소이다.»

부인이 량구후[470] 가로대

«내 과연 잊었도다. 선을 낳을 제 선녀 여차여차하거날 기록하였더니 이제 깨달았다.»

하고 시녀로 하여곰 기록한 것을 내여다 보니 «락양에 거하난 김 전의 녀아요. 이름은 숙향이라» 하였거날

부인이 또 문 왈

«네 부모의 성명을 모르며 사주를 어이 아나냐.»

랑자 복지 대 왈

«어버이 잃을 때에 금랑에 넣어 채왔사오매 아나이다.»

하고 즉시 금랑을 쌍수로 받들어 드리니 부인이 받아 보니 금자로 썼으되 이름은 숙향이요. 자난 월궁선이니 기축 사월 초파일 해시 생이라 하였더라.

부인이 람필에 기특히 여겨 왈

«년 월 일 시 우리 아해와 같은 대 성을 모르니 답답하도다.»

랑자 가로대

«저녁 꿈에 신인이 이르대 락양 김 전이 첩의 부라 하더이다마난 어이 알리이꼬.»

상서 왈

«그렇진대 어찌 다행치 않으리요.»

부인 왈

«어떠한 사람이니이꼬.»

상서 왈

«운수 선생의 아들이니 더 물을 것이 없나이다.»

부인이 기뻐 근본을 알아 아자의 정실[471]을 삼으려 하더라.

이 후로부터 랑자를 부인 좌우에 두어 그 행동을 보니 백사[472] 진선[473] 진미하여 한 일도 그름이 없난고로 부인의 사랑이 갈사록 더 하더라.

일일은 소저 있던 집에 가장집물을 가져 오기를 청하니 부인 왈

«도적이 어찌 남겨 두었으리요.»

소저 왈

«땅을 파고 묻었으니 도적이 어찌 알리이꼬.»

부인 왈

«네 아니 가면 찾아 오기 어렵지 않으랴.»

소저 대 왈

《첩이 아니 가도 청방을 다리고 가면 알리이다.》

부인이 즉시 불러 이르되

《저 개를 다리고 소저 있던 집에 가서 기명[474]과 집물을 가져 오라.》

하고 심중에 혀[475]오되

《저 개 어찌 인사를 알리오, 가장 고이하도다.》

하고 의심함을 마지 아니하더라.

유부 창두를 거나려 나아가서 개 발로 허비난 곳을 파고 기명을 다 수운[476]하여 가지고 와 고하니 부인이 문 왈

《개를 다리고 가 어찌 찾아 온다.》

유부 사유를 고하니 부인이 차탄 왈

《신부난 범인이 아니로다.》

더욱 사랑함이 비할 데 없더라.

일일은 부인이 소저다려 문 왈

《네 침선[477] 방적을 능히 하난다.》

소저 대 왈

《일찍 어머니를 실산하고 도로에 두류[478]하와 배은 배 없사오나 본이 있사오면 아무 것이라도 그대로 하리이다.》

부인이 그 재조를 시험코저 하여 비단 한 필을 주며 왈

《상공이 불구에 상경하실 때 관복이 무색[479]하니 네 이것을 보고 지어 내라.》

소저 수명하고 비단을 받아 가지고 침소에 돌아 와 그 비단을 보니 곱지 못 하거날 있던 비단을 바꾸아 반일 만에 지어 내니 시녀 부인께 고한대 부인이 믿지 아니하여 왈

《관복은 예사 옷과 다르니 내 소년적에 침재[480] 남에게 뒤지지 아니하였으되 닷새에 지었던 것이라, 소저 아

묘리 재조 능하나 어찌 그렇듯 속히 하였으리오, 일정 허언이로다.»

인하여 소저를 불러 물으니 랑자 대 왈

«과연 지었사오나 어찌하올지 모르와 즉시 고치 못하였나이다.»

하고 관복을 드리니 부인이 받아 보니 수품[481] 제도 전 관복에서 나을 뿐 아니라 비단이 자기 준 것이 아니라 더욱 고이히 여겨 물으니 소저 대 왈

«비단이 이것이 나을 듯하압고 할미 집에서 짜은 비단일러니 마참 동색이옵기에 지었삽나이다.»

부인이 대경 대찬 왈

«이런 재조 어디 있으리요.»

하고 즉시 관복을 가져 상서께 드리여 왈

«관복을 새로 지었사오니 입어 보소서.»

상서 관복을 입고 대희 왈

«근래 부인이 늙으매 몸에 맞난 옷을 입지 못하더니 이 관복은 가장 잘 맞사오니 로래에 극한 호사를 하나이다.»

부인이 소 왈

«첩이 소시에도 수품 제도 이렇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로래에 어찌 이러하리이까. 자부 제 손으로 비단을 짜고 제 손으로 지은 배로소이다»

상서 경아[482] 탄복 왈

«만일 그럴진대 자부난 진실로 무쌍한 재조로다.»

하고 칭선함을 마지 아니하더라.

오래지 않아 상이 상서를 패초[483]하시니 상서 바야흐로 치행[484]할새 흉배를 보고 좋은 관대에 흉배[485]가 무색하니 ‹다른 흉배를 사 오라› 한대 부인이 대 왈

«상공 직품에 맞난 흉배를 창졸[486]에 사기 어렵고 길이 지완하실가 하나이다.»

이 때 소저 시좌[487]러니 공경 문 왈

«대인[488] 직품은 어떠한 흉배를 다르시나이까.»

부인 왈

«상서난 일품[489]이매 쌍학을 붙이나니라.»

소저 왈

«첩이 약간 수 놓기를 하압더니 놓으려 하나이다.»

부인 왈

«흉배난 다른 수와 달라 사람마다 놓을 줄 모를 뿐 아니라 명일 사경하시리니 자부 비록 재조 능하나 어찌 미치리오.» 소저 즉시 침소로 물러나와 종야[490]토록 수를 놓아 명조에 정당[491]에 나아가 드리니 상서 부부 대경 대찬 왈

«자부난 진실로 신통한 재조를 가졌도다.»

하고 애중함을 마지 아니하더라.

차일 상서 상경하니 천자 인견하사 조사[492]를 의논하시더니 상서의 관복을 보시며 또 흉배를 보시고 문 왈

«경의 관대와 흉배 어대서 나뇨.»

상서 주 왈

«신의 며느리 수품이로소이다.»

상이 우 문 왈

«경의 아달이 죽었나냐.»

상서 주 왈

«살았나이다.»

상 왈

«경의 관복을 보니 하날 은하수 문채요 흉배난 바다 가온대 짝 잃은 학의 외로운 형상이니 경의 아달이 살았으면 어찌 이러하리요.»

상서 부복하며 선의 숙향 만나던 일을 주달[493]하니 상이 칭선[494] 왈

«이러한 녀자 행실과 재조 희한하도다. 경의 충성이 지극하매 하날이 현부를 주사 복을 도움이시로다.»

하시고 비단 일백필을 상사[495]하시니 공이 사은[496]하고 부중에 돌아와 성상[497] 하교를 전하고 상사지물을 다 소저를 주니라.

소저 리부에 온 후 일신이 안한하니 용모 더욱 쇄락한지라. 상서 부처 애중함이 날로 더하더라.

이 때 공자 태학에서 랑자의 소식을 듣지 못하니 심신이 울울하여 회포를 정지 못 하나 임의로 돌아 가지 못 하매 주야 탄식만 하더니 일일은 태학 ·관원이 상소[498] 왈

«근간 태을성이 장안에 비치였사오니 가히 설과[499]하와 인재를 잃지 말으소서.»

상이 의윤[500]하사 즉시 택일하여 설과하시니 이 때 리 선이 과장[501]에 나아가 평생 재조를 다하였난지라.

의외에 장원[502]에 빠여나니 풍재 동탕[503]하고 기질이 헌앙[504]하여 만인중에 뛰여 나니 상이 일견에 대경 기애[505]하사 즉시 한림학사[506]를 제수[507]하시니 학사 사은하고 고향에 돌아 와 영친[508] 소분하려 할새 지나난 길에 리화정에 이르러 랑자의 침소에 이르니 사람은 고사하고 청방도 없으며 일용기물이 하나도 없으니 분명 도적이 들어 랑자를 죽이고 간 줄로 알아 심회 통박[509]하여 하날을 우러러 탄식 왈

«랑자여, 날로하여 천만 고초를 겪고 몸이 사망지경에 이르니 유명간[510] 어찌 원혼이 되지 아니리요. 내 비록 몸이 현달[511]하나 무엇이 귀하리요. 내 또한 죽어 사생간 저바리지 아니리니 나의 명이 또한 오래지 아니리로다.» 슬허하다가 날이 서에 떨어지니 정신을 정하고 생각하매 «이제 울어도 부절 없으니 부모께 뵈은 후 랑자 분묘 찾아 한날 죽음을 본받아 저의 절[512]을 표하리라» 하고 눈물을 거두고 본부[513]로 돌아 오니 공의 부처 아자를 보고 일변 반기며 영화를 기꺼하고 상하환성이 랑자하니 공의 부처 학사의 손을 잡고 애중함을 이기지 못

21-1588

하되 학사난 랑자를 위하난 마음이 간절하여 수색이 만면하니 공이 고이히 여겨 문 왈

«네 소년 등과[514]하여 부모에게 영효[515]와 일신의 영광이 극하고 문호[516]에 경사 극하거날 무삼 일로 수색을 띠였나뇨.»

학사 대 왈

«소자야 열친지도[517]에 어찌 기쁘지 아니리이꼬마난 행역[518]에 일신이 곤비하와 자연 그러하야이다.»

상서 부처 그 뜻을 짐작하고

«현부 죽은가 하여 그리하난다.»

학사 부복 왈

«어이 그러하오리까.»

부인이 소 왈

«네 뜻을 알고 다려다가 부중에 두었으니 근심치 말라.»

학사 의혹하야 공수[519] 대 왈

«어찌 천부[520]를 위하여 이우[521]를 끼치리이까 풍한에 촉상[522]하와 신기[523] 불평하니이다.»

부인이 시녀를 불러 소저다려 «학사를 구호하라» 하니 소저 안에서 나오니 학사 이 말을 듣고 심사 사란하더니 눈을 들어 보매 이난 곧 숙랑자라.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거지[524] 당황하니 소저 나작이 가르되

«군자 일찍 청운[525]에 족답[526]하사 영광이 무비[527]하오니 치하하나이다.»

학사 대 왈

«요행 득의하니 문호의 경사요 그대를 위하여 조운모월[528]에 간장을 사로다가 오난 길에 리화정에 다달아 보니 인적은커니와 개도 없으매 비월[529]한 심사를 정치 못하더니 이제 서로 만나니 무삼 한이 있으리요.»

소저 영용 대 왈

«군자 행역에 곤비하였으니 구고[530]께서 ‹침소에 편히 쉬라› 하신즉 조리하실가 하나이다.»

학사 기꺼 옥수를 잡고 봉루당에 들어가 피차 사모하던 정이 탐탐[531]하고 할미 상사를 치위[532]하니 소저 왈

«첩의 비회난 첩첩하오나 오날은 즐기난 이후에 말삼하리이다.»

학사 옷을 고치고 한 가지로 정당에 나아오니 상서 부처 희불자승[533]하여 탄상[534]하시고 상하 칭찬함을 마지 아니하더라.

명일에 린리 친척을 모아 잔채를 배설하여 즐기고 우 명일에 너복야[535] 부중에 이르러 잔채할새 부인이 또한 기꺼 제 부인을 청하여 즐기며 숙랑자의 일을 좌중에 설파하니 다 기특히 여기고 잔잉히 여겨 칭찬함을 마지 아니하더라.

일일은 학사 부친께 문안하니 상서 왈

«소부를 슬하에 두고 보니 백사 령리하여 자못 사랑하나 그 래력을 몰라 타인이 미천한대 취하다 하여 시비 날듯하고 저적에 양왕이 구혼하매 허하였더니 네 현부를 취하였으매 중지하였더니 네 이미 입신하였난지라, 다시 성친[536]함을 재촉하면 어찌하리오.»

학사 부복 대 왈

«이난 소저 좋도록 하올 것이니 대인은 념려 마옵소서.»

인하여 행장을 차려 경사로 향할새 부모께 하직 왈

«소자 몸을 나라에 허하오매 슬하를 떠나오니 어찌 마음이 편하리이꼬.»

침소에 이르러 소저를 리별하야 가로되

«그대로 말미암아 적년[537] 심사를 허비하고 이제 서로 만나 좌석이 덥지 못 하여 떠나니 심사 울울하나 사세 마지 못 하여 가니 그대난 시봉감지[538]를 극진히 하여 나의 바라난 바를 저바리지 말으소서.»

소저 염용 대 왈

«남아[539] 립신하매 사군지일[540]은 다하고 사친지일은 소하다 하오니 구고 시봉은 첩이 스사로 하올 것이니 군자난 갈충보국[541] 하사 유방박세[542]하실 따름이오니 어찌 아 녀자를 결연[543]하여 일신[544] 영위와 문호 경사를 돌아보지 아니하리이꼬.»

학사 그 숙덕[545] 현행을 탄복하고 경사로 향하더라.

차시 양왕이 위공께 혼인을 재촉하니 상서 이미 허락한 일이라 막지 못 하여 학사로 처단[546]하라 하니 학사 수명하고 장차 거절하기로 사량[547]하더니 형초 지경에 이르러 본즉 한재 심하여 백성이 기근[548]을 이기지 못 하여 량민[549]이 모여 도적이 되니 상[550]이 근심하사 «현재[551]를 구하라» 하시니 학사 주 왈

«인심이 사란함은 세황[552]한 시절을 당하와 수령이 어지지 못 하와 백성을 무휼치 아니하오매 기근을 이기지 못 하여 란을 짓사오니 신이 비록 무재[553] 박덕하오나 형초를 진무[554] 하여 백성을 안보하고 성상 근심을 덜리이다.»

상이 대희하사 즉시 학사로 형주 자사[555]를 하여 «급히 발송[556]하라» 하시니 학사 사은하고 본부에 돌아와 하직할새 부모 반겨 왈

«남애 립신하면 충즉[557] 진명하나니 마땅히 백성을 사랑하고 정사를 부즈러니 하여 임금의 바라시난 뜻을 저바리지 말라.»

학사 대 왈

«이번 행도[558]난 천은을 갑삽고 아래로 양왕의 혼인을 거절코저 하나이다.»

하고 봉루당에 가 부인을 작별 왈

«내 몸이 나라에 허하여 험지에 부임하게 되니 리친지정[559]이 간절하고 부인이 마자 내려 오면 봉친지절[560]이 난감하도다.»

부인 왈

«이러므로 예부터 〈충효쌍전[561] 함이 어렵다〉 하오니 상공은 물념[562]하소서. 첩이 내려가면 가난 길에 은혜 갚을 곳이 많으니 어찌 하리이꼬.»

자사 왈

«이난 다 부인 임의로 하려니와 나의 심회를 위로하소서.»

언필에 행합이 총총[563]하매 작별하고 위의를 휘동[564]하여 형주에 이르러 부임하고 좌기를 열어 관속을 점고[565]할새 사람의 얼굴을 보고 소래를 들어 선악을 밝히고 출척[566]을 실로 명백히 하고 상벌을 고르게 하며 창곡[567]을 열어 기민을 진휼[568]하고 어진 말삼으로 교유하여 정사 일신하니 도적들이 신관이 도임하매 저희를 다 죽일 줄로 알고 혹 도망코저 하며 혹 장난코저 하더니 문득 자사의 교유[569]하난 말을 들은 즉 무비[570] 인덕이라, 도적이 교유에 열복[571]하여 스사로 죄하고 물러가 농업을 힘쓰니 자사 친히 순행[572]하여 손소 장기를 잡아 권농[573]하고 백성을 보난 대로 효제[574] 충신 제도를 교유하니 일삭지내에 형주지경이 격양가[575]를 불러 즐김이 이로 측량치 못할러라. 이 때 본부에서 학사를 험지에 보내고 사념 함을 마지아니 하더니 이 소식을 듣고 대희하여 소저를 불러 이르되

«당초 형주 소식을 들으매 내행[576] 보냄을 념려하였더니 이제 들으매 아자 부임한 후로 렬읍[577]이 요천순일[578]이 되다 하니 이제 다른 념려없으니 현부난 수이 행하여 아자의 울적한 심사를 위로하라.»

소저 수명하고 즉시 행리[579]를 차릴새 제전을 차려 할미 분묘에 하직하려 하니 청방이 따라가 제물을 다 먹고 앉거날 소저 그 등을 어루만져 왈

«네 비록 짐승이나 내 너 곧 아니면 발써 죽었으리니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요.»

하고 석사[580]를 생각하여 슬픔을 정치 못하더니 청방이 흙을 발로 긁거날 자세 보니 글자를 썼으되 《슬프다 인연이 진하니 나난 여기서 영 리별하였나이다.》 하였거늘 부인이 대경하여 경계 왈

《내 너로 더불어 한가지로 고초를 겪다가 내 이제 귀히 되니 네 은혜를 갚고저 하거날 이제 리별을 하니 비회를 정키 어렵도다.》

그 개 할미 분묘를 가리키며 부인을 돌아 보고 한 소래를 크게 우니 그 소래 우뢰 같더라. 문득 흑운이 그 개를 두르더니 이윽고 구름이 거두며 개가 간데 없으니 부인이 유유한[581] 루수를 뿌려 차탄 왈

《과연 비상한 짐승이로다.》

개 앉았던 곳에 의복과 관곽을 갖초아 묻고 제문 지어 제하고 통곡하니 산천 초목이 다 슬허하난 듯하고 보난 사람들이 다 기특히 여기더라. 제를 파하고 부중에 돌아 와 구고께 하직하고 발행할새 구고 결연함을 마지 않아 옥수를 잡고 원로에 보중함을 당부하더라. 자사 부인이 행중에 분부 왈

《지나난 곳에 설제[582]할 데 많으니 제전을 갖초아 대후[583]하고 지나난 곳마다 지명을 아뢰여라.》

하니 하리 청령[584]하고 행하여 로전에 이르러 지명을 아뢴대 부인이 화덕 진군을 생각하고 제문 지어 제하더니 제파에 보니 잔에 술이 없고 계란 만한 구슬이 담겼거날 거두어 간수하고 행하여 한 곳에 이르니 지명을 아뢰거날

부인 왈

《표진이 어대뇨.》

하리 고하되

《이 물은 양진[585]이니 표진을 련하였나이다》 하고 《멀기난 천 여 리나 하나이다.》

부인 왈

«연즉 수로로 감이 어떠하뇨.»

하리 아뢰되

«예서 표진을 가려 하오면 여러 강을 건너 길이 가장 험하오니 륙로로 행함이 마땅하니이다.»

부인이 가장 서운히 여기나 하리의 폐를 아니 보지 못하여 바로 행코저 하더니 문득 광풍이 대작하며 배가기를 일주야를 정처 없이 행하니 제인[586]이 망극하여 죽기만 대후하더니 바람이 자고 물결이 잔잔하거날 지명을 물으니 «표진이라» 하매 제인이 크게 놀라고 의심하여 이르되

«양진서 표진이 천 여 리어날 어찌 일일지내에 왔난고.»

하며 고이히 여기더라.

부인이 들으니 청아[587]한 옥저 소리 나거날 눈을 들어 보니 두 선녀 련엽주를 타고 오며 노래 불러 왈

«석년 오날 이 물에 와 숙랑자를 만나더니 금년 오날 숙 부인을 만나도다. 모로미[588] 묻지 말라» 하고 지나가니 간곳이 없난지라. 부인이 크게 고이히 여기더라. 제인이 기갈[589]을 이기지 못 하여 쌀을 씻어 솥에 담고 로전에서 얻은 구슬을 담아 두니 쌀이 절로 익어 밥이 되니 못 다 먹고 사례하여 부인을 «신인이라.» 하더라.

이난 부인이 의사로 기갈을 구함이러라. 또 행할새 부인이

«장 승상댁으로 하처[590]를 정하라.»

하니 승명하고 장 승상댁으로 나아가니 부성[591]한 위의 측량 없더라.

부인이 후당에서 밤을 지낼새 일몽을 얻으니 자기 몸이 나라 내당에 들어 가니 한 화상이 벽에 걸리였고 진수성찬[592]을 벼렸거날 약간 하저[593]하고 돌아 왔더니 명조에 승상 부인이 자사 부인을 청하여 서로 보고 찬

성[594]을 들어 권하거날 부인이 먹으니 승상 부인이 가로되
«존가[595] 루지에 림하시니 광채 배승하오나 마참 일이 있사와 즉시 청치 못 하였사오니 미안하여이다.» 부인은 루인[596]의 무례함을 용서하소서.»
부인이 답 왈
«하로 밤 숙소하려 왔더니 정 부인은 무삼 참경[597]을 보시니이까. 거야[598]에 참절한 곡성을 듣사오니 첩의 심사를 정치 못 하온지라 존부인의 대접을 당치 못 할가 하나이다.»
장 부인 왈
«간 밤이 죽은 딸의 대기[599]라. 너무 지원[600]하야 곡성이 처량턴가 하나이다.»
부인 왈
«령녀의 나이 얼마나 되였나이까.»
장 부인 왈
«십 오 세에 나갔으니 슬허하나이다.»
자사 부인 왈
«첩의 동갑이로소이다.»
또 문 왈
«숙향이 나갈 제 사향의 참소를 면치 못 하고 나갔다 하오니 그 시녀 그저 있나니이까.»
장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대경 왈
«부인이 어찌 숙향을 아시나니이까.»
숙 부인 왈
«자연 아나이다.»
장 부인이 눈물을 드리워 가로대
«부인의 아난 곡절을 이로소서.»
숙 부인이 대 왈
«수족자를 파난 것이 있어 아나이다.»
장 부인이 경아하여 왈

《그러면 족자를 보사이다.》

부인이 좌우로 《족자를 가져 오라》 하여 벽상에 거니 승상이 부인으로 더불어 동산에서 숙향을 안고 들어가난 일과 승상 량위 영춘당에서 저녁 까치를 만나 근심하던 일과 악명을 듣고 부인 앞에서 자결하려던 일을 력력히 그렸난지라.

장 부인이 일견에 방성[601] 대곡하니 자사 부인이 위로 왈

《그림을 보시고 이리하시니 불안하여이다.》

장 부인 왈

《왕사[602]를 력력히 다 알았으니 은휘[603]할 배 있으리요.》

하고 전후 사연을 다 이르고 서러워하니

자사 부인이 이르되

《친생지녀[604]라도 죽은 후난 할일없거날 남의 자식을 이렇듯 잊지 못 하시니이까. 숙향이 비록 죽었으나 감사하리로소이다.》

부인이 이르되

《그 족자를 파소서. 내 비록 자식이 없으나 숙향이 살았거든 주려 하고 황금과 채단을 두었더니 이제 뉘를 주리요. 이것을 드릴 것이니 그 족자를 주옵소서.》

하니 자사 부인 대 왈

《존댁에 숙향의 화상이 있다 하오니 구경코저 하나이다.》

장 부인 왈

《로신의 침소에 걸어 두었으니 들어 가 보소서.》

인하여 한가지로 들어 가니 과연 자기 아잇적 모양이 호발도[605] 다름이 없난지라. 화상을 벽상에 걸고 청사[606]로 기울이고 상탁[607]에 온갖 음식을 생시 같이 벌렸거날 자사 부인이 감은 각골[608]하여 슬픔이 극한지라.

슬픔을 강잉하여 가로대

《부인이 숙향을 저렇듯 못 잊어하시니 첩이 비록 곱지 못하오나 숙랑자와 어떠하니이꼬.》

하며 화관을 벗고 화상 곁에 서니 모다 보고 놀라 왈

《화상이 변하여 부인이 되였나냐. 부인이 변하여 화상이 되였나냐. 진실로 고이하고 이상하도다.》

장 부인은 눈물만 흘리고 슬허하난지라.

자사 부인이 그제야 부인께 재배하고 가로대

《첩이 과연 당년 숙향이로소이다. 가군[609]이 형주 자사로 도임하매 소녀 임소에 가난지라. 부인께 뵈옵고 당년 은혜를 사례코저 이르렀삽더니 부인이 소첩을 이때까지 잊지 아니샤 이렇듯 권렴[610]하시니 그 은혜난 차세에 다 갚지 못하리로소이다.》

부인이 자사 부인의 말을 듣고

《꿈이냐 생시냐, 나를 희롱하여 속이나냐.》

아모리 할줄 모르거날 자사 부인이 붙들어 위로 왈

《어찌 꿈이리까. 정신을 수습하사 적년 그리던 회포를 펴사이다.》

하고 자기 침당을 가리켜 왈

《소녀 그 때 나갈 제 혈서를 창전에 쓴 줄 보아 계시니이까.》

부인이 그제야 깨닫고 통곡한대 위로 왈

《첩이 사향의 구축[611]을 만나 귀댁을 떠날 때에 어찌 오날날 슬하에 뵈올 줄 알리요.》

하고 인하여 선녀 구함을 입었더니 화재를 만나 화덕진군이 구하여 살아나고 천태산 마고 선녀 만난 사연을 설화[612]할 지음에 마참 승상이 이 말을 듣고 미처 신을 신지 못하고 들어 와 통곡하니 숙 부인이 재배하여 눈물을 머금고 위로 하난지라. 숙 부인이 승상 량위를 모셔 잔채할새 승상 량위께 고 왈

《빈한고락[613]이 상반하온지라. 소녀 금일은 뫼시고 같이 즐기리이다.》

하고 즉시 시녀를 명하여 《나의 행장에 큰 롱봉한 것을 드리라》 하여 《승상 량위의 의복을 가져 오라》 하여 드리니 자기 근로[614]하여 지은 것이러라. 근처 제 부인을 청하고 삼일 잔채하여 크게 즐기니 모다 칭찬 왈

《승상이 비록 자녀 없으나 이 영화난 셥자를 불워 아니하리로다.》

하고 원근에 환성이 진동하더라.

숙 부인이 일삭을 머물어 승상 량위를 뫼셔 하도 즐겨하다가 하직하고 갈새

《형주가 머지 아니하매 자사에게 고하고 거마를 차려 오리이다.》

승상 부처 새로이 리별하매 슬허하더라. 자사 부인이 장부를 떠나 장사 땅에 이르니 뫼이 기이하고 사슴과 잔나비와 황새 오작[615]이 무리 지어 진치고 사람을 피치 아니하거날

부인께 고 왈

《저 짐승이 사람을 피치 아니하오니 궁뇌[616]를 발하여 쏘아 잡아지이다.》

부인이 명하여 말리고 장사 본관을 분부하여 쌀 닷섬을 가져다가 밥을 지어 놓고 골 어귀에 수레를 머무르고 부인이 친히 경계하니 그 짐승이 일시에 밥을 먹고 다 흩어지니 일행 제인이 비상함을 일컫더라.

이때 부인이 생각하되 《이제 내 전일 은혜를 다 갚았으나 다만 부모를 만나지 못 함이 한이로다.》

하고 가장 비창하여 하더라.

한 곳에 다달아 하리 고하되

《이곳은 계양 땅이로소이다.》

부인이 대열하여 《전일 할미 리별할 제 계양 태수 김 전이 나의 부친이라 하더니 이제 여기 이르렀으니 가히 부친을 만나리로다.》 행거[617]를 재촉하여 계양 태수

있난 곳에 다달아난 계양 태수나와 부인을 영접하거날 부인이 그 성명을 물으니 유 릐라 하거날

부인이 대경 왈

«내 전에 들으니 계양 태수난 김 전이라 하더니 이제 성명이 다르니 또 계양이 있나냐.»

하리 고 왈

«이 땅 백성에게 들으니 갈려 간 태수 김 전이러니 백성을 어질게 진무하기로 송성[618]이 훤자[619]하매 벼슬을 돋오아 양양[620] 태수를 하고 유 태수로 교체했다 하나이다.»

부인이 가장 서운하여 문 왈

«예서 양양이 얼마나 하뇨.»

하리 대 왈

«삼백 리이니다.»

부인이 우문 왈

«형주 가난 길이냐.»

하리 대 왈

«그리 가면 많이 도나이다.»

부인이 그리 가고저 하나 하리의 폐를 보아 그저 가나 결연함을 마지 아니하더라.

선시[621]에 김 전이 락양 령으로 숙향을 죽이지 아니한 연고로 위공이 계양으로 옮겼더니 리 선이 자사로 도임하고 각 읍에 순행하여 수령의 선 불선[622]을 살펴 혹 파직[623]도 하고 혹 승차[624]도 하더니 김 전이 정사 명백하여 백성을 무휼하니 송성이 훤자하매 승직[625]하여 양양을 하이니[626] 양양은 형주 버금이라. 위의 장려하여 자사와 다르지 아닐리라.

일일은 김 전이 자사를 보고 돌아 오더니 반야 물가에 이르러 한 로옹이 바회 우에 누웠으매 하리등이 잡아 내려 치죄[627]하려 하거날 태수 보니 범인이 아니라. 하리를 분부하여 물리치고 나아가 읍하고 공경한대 그 로옹

이 본 체 아니커날 태수 가장 의혹[628]하여 생각하되 «내 벼슬이 높고 삼천 병마를 거나렸으니 위의 있거날 심상한 사람이면 감히 만모치[629]못 할 것이로되 이렇듯 거만하니 비상한 사람이로다» 하고 «아모려나 종말을 보리라» 하고 공수 배례[630]하니 로옹이 알은 체 아니하고 한 발을 들어 자기 다리 우에 얹고 팔을 베고 쓰러지거날 태수 더욱 공경하여 공수 시립[631]하니 로옹 왈

«네 길이나 갈 것이지 너다려 절 하라더냐.»

공이 공경 대 왈

«지나난 행객[632]이나 로인 행색[633]을 공경하여 절 함이니다.»

«네 나를 공경할진대 멀리서 절할 배라. 네 사위덕에 그만 벼슬을 얻어 하였다고 어른을 릉모[634]하여 잡말을 하난다.»

공이 노하여 가로대

«로인을 공경하거날 도로혀 사위덕에 벼슬하였다 하니 내 본대 자녀 없거날 사위가 어이 있으리요.»

로인이 대소 왈

«숙향은 하날로서 떨어지고 땅으로서 솟았나냐 숙향이 어대서 낳나뇨.»

김 전이 숙향 두 자를 듣고 다시 재배 왈

«소자 실례하였사오니 죄를 사하소서.»

로옹이 그제야 노색을 풀거날 공이 다시 고 왈

«소자 전생에 죄악이 지중하와 무자하더니 늦게야 숙향을 얻어 장중 보옥 같이 사랑하다가 란중에 잃어 지금 존망을 모르더니 로옹은 숙향의 간 곳을 알으시거든 가르치소서.»

로옹 왈

«숙향의 잠간 있난 곳을 알거니와 배 고프니 말하기 싫도다.»

공이 행중의 다과를 내여 드린대 종시 부족하여 하

거날 공이 하인을 명하여 «주점에 가 주찬을 갖초아 오라» 하니 로옹 왈

«하리 가져 오면 하리 정성이니. 하리의 자식 간 곳을 물으려 하나냐.»

공이 차언[635]을 듣고 친히 주점에 나와 주찬을 많이 갖다 드리니 로옹이 사양치 아니하고 다 먹거날 그제야 숙향의 거처를 물으니

«술이 취하였으매 이르지 못 하나 진정 알고저 하거든 하리 추종을 다 보내고 너만 떨어져 있어 알고 가라.»

공이 이에 하리를 보내고 홀로 섰더니 문득 급한 비 오니 공의 허리에 물이 지내난지라 움직이지 아니코 섰더니 이윽고 비 그친 후 대풍이 일어나며 눈이 담아 붓난듯하니 거의 어깨 묻히되 또 움직이지 아니하고 섰더니 옷이 다 얼음이 되여 장차 죽게 되였더니 로옹이 그제야 잠을 깨여 보고 이르되

«그대의 하난 양을 보니 과연 정성이 지극하도다.»

하고 소매로서 붉은 부채를 내여 공을 향하여 부치니 눈이 다 녹고 여름이 되여 더운지라.

공이 다시 절하고 문 왈

«숙향의 간 곳을 가리켜 흉금을 시원케 하소서.»

로옹 왈

«이르려니와 숙향이 여러 곳에 갔으니 네 능히 찾을가.»

공이 왈

«아모려나 이르시면 쇠신이 다 닳도록 찾아 보리이다.»

로옹 왈

«그대 반야산 바위 틈에 바려 도적이 업어다가 다리고 가니라.»

공이 문 왈

«그러면 도적의 집이 어대니이교.»

로옹 왈

«도적이 다려다가 마을에 두고 가 청조와 금작[636]이 다려 가고 또 후토 부인이 다려 갔으니 게 가 물어 보라.»

공이 차악 왈

«연즉[637] 죽었도소이다.»

로옹 왈

«후토 부인이 백록을 태와 장 승상 집 동산에 두어 그 집에 무자하여 양녀로 기르다 하니 그 곳에 가 물어 보라.»

공이 왈

«그리로 가 찾으리이까.»

로옹 왈

«내 또 들으니 그 집 시녀 사향이 숙향을 모해하여 내치니 갈 곳이 없어 표진 룡궁으로 가려 하여 물에 빠지니라.»

공이 놀라 왈

«연즉 죽도소이다. 찾으려 하오나 룡궁은 수부라 어찌 찾으리이교.»

로옹 왈

«또 들었노라. 채련하난 아해들이 구하여 륙지에 내놓으니 길을 고릇들어 로전에 가 불타 죽다 하니 그 말이 옳으면 그 곳은 륙지라. 백골이나 찾아 가라.»

공 왈

«배골이 지금 있을리 없고 또 화중 귀신이 되였으면 스러져 재 되였으리니 혼백인들 어대 가 보리이까.»

로옹 왈

«화덕진군이 구하여 냈으나 의복을 다 태이고 앞을 가리지 못하여 나무 밑에 숨었더니 마고 할미 다려 갔다 하니 게 가 자서히 찾아 보라.»

하니 공이 왈

«그럴진대 진심[638]하여 찾아보리니 마고 할미 있난 곳을 자서히 가르치소서.»

로옹 왈

«내 들으니 인간에 두었다 하더라.»

공이 대 왈

«하날 아래난 다 인간이라. 어데를 지향[639]하리이꼬, 지명을 자서히 가라치시면 찾으리이다.»

로옹 왈

«그대 자식을 찾으려 하난 뜻은 무삼일고.»

공 왈

«저를 늦게야 얻어 사랑하난 마음을 펴지 못 하여서 란중에 리별하니 서로 비회를 정치 못 하옵더니 천행으로 선생을 만나오니 종적을 자서히 가르치심을 천만 바라나이다.»

로옹이 변색[640] 왈

«네 숙향을 저리 못 잊을진대 반야 산중에 버림은 무삼 일이며 또 찾기난 무삼 뜻고.»

공이 왈

«도적에게 급하여 다 죽게 되였으매 마지못하여 버렸나이다.»

로옹이 익노[641] 왈

«그난 네 살기를 위하였거니와 락양 옥중에서난 어찌 죽이려 하넌다.»

공이 더욱 망극하여 왈

«그 때 이름과 나이난 같으나 인간 무지한 눈이 아득하여 깨닫지 못 하였나이다.»

로옹이 소 왈

«이난 그대 불명함이 아니라 하날이 정하심이라. 어찌 인력으로 할 배리요. 또 나난 과연 이 물지킨 룡왕이러니 저적은 내 자식이 물 밖에 나아가 놀다가 어부에게

붙잡힌 배 되여 거의 죽게 되였더니 그대의 힘을 입어 살아 났으매 나도 자식을 위하여 그대의 은혜를 갚고저 하여 상제께 고하고 그대로 하여 숙향을 만날 길을 가르치라 하였더니 그대 정성이 지극지 아니하였던들 찾지 못 할러니라.» 하더라.

«아래[642] 숙향의 구기[643]던 일을 어찌 다 칭량하리요. 비록 만나 보아도 그대 자식인 줄 아지 못할 것인고로 그 소경사[644]를 자서히 이르나 나의 말을 명심불망[645]하여 숙향을 만나난 날 그 구기던 일을 물어 내 말과 같거든 그대 자식인줄 알지어다.»

김 공이 대희하여 일어 배사 왈

«로선의 가르치심을 받자오니 지극 감사하거니와 일로 보건대 자사 부인이 숙향이란 말삼이니이까.»

로옹 왈

«자연 알 때 있으리니 어찌 천기[646]를 미리 루설[647]하리오.»

문득 간대 없거날 공이 가장 고이히 여겨 춘몽[648]을 깬듯한지라.

이에 아중[649]으로 돌아 와 부인다려 룡왕의 말을 갖초 전하니 부인이 청파에 비한[650]이 상반하여 앙천장탄[651] 왈

«우리 생전에 숙향을 만나 보면 사무여한[652]이라 이제 자사 부인이 돌아 온다 하나 어찌 우리 자식이라 하리요마난 시험하여 물어 보사이다.»

비회를 금치 못 하더라.

차시 숙 부인이 양양을 가고저 하나 사세[653] 난처하여 정치 못 하더니 차야에 일몽을 얻으니 할미 모든 앞에 와 이르되

«대 부인이 이번에 부모를 찾지 못 하면 십 년 후에야 만나리니 부대 차시를 허송치 말으소서.»

한대 부인이 크게 반겨 다시 묻고저 하더니 할미 문

득 간대 없거날 놀라 깨달으니 침상일몽[654]이라. 마음에 기특히 여겨 즉시 하리에게 분부하여 양양으로 갈새 고을마다 유련[655]하여 실내[656]로 더불어 말삼하여 각별 살피더니 양양 땅에 다달을새 김 공이 실내 다려[657] 왈

자사 부인이 이 길로 돌아 가니 반하 룡왕의 말이 숙향이 자사 부인이 되여 오리라 하더니 그 아니 숙향이 우리를 보려 하난가.»

장 부인 왈

«오날 우리 꿈이 반다시 기쁜 일이 있으리라.»

하고 시비를 보내여 자사의 근본을 탐지하더니 장 승상의 딸이라 하거날 김 태수 가장 서운하여 하더니 자사 부인이 가까이 온다 하거날 장 부인이 놀랍고 반가온 마음이 류동하여 중로에 사처[658]하여 구경할새 일만 갑사[659] 전차[660] 후옹하며 칠보 장념[661]한 시비 좌우에 옹위하였난대 정렬[662] 부인이 금뎡[663]을 타고 들어 오니 장 부인이 보고 울며 왈

«어떤 사람의 자식은 저리 귀히 되였난고.»

«숙향도 있던들 행여 저리 될가.»

하고 슬허하더라. 부인이 객사[664]에 들며 태수 실내께 말삼을 부리[665]되

«전에 뵈온 적이 없사오나 같은 부인이니 서로 보옴이 무방한지오라. 달밤이 심심[666] 하오니 말삼이나 하사이다.»

장씨 가장 기꺼 답 왈

«내 몬저 문안할 것이로되 불감[667]하왔삽더니 지극 감사하여이다.»

하고 즉시 나오니 숙 부인이 화관을 쓰고 칠보 단장에 교위에 앉았으니 백 여 명 시녀 차례로 버렸으며 향내 진동하더라.

숙 부인이 교의에 내려 장씨를 맞아 주홍 교의에 좌를 정하니 장씨 사양 왈

«각관 수령의 안해 감히 자사 부인과 대좌하리까.»
정렬 왈
«주 객이 되여 어찌 벼슬 차례를 가리며 년기[668] 존장[669]이시니 어찌 겸손하시리이까.»
장씨 그제야 교의에 앉고 문 왈
«부인 년세 얼마나 하시나이까.»
답 왈
«이십이로소이다.»
장씨 눈물을 무수히 흘리거날 부인이 문 왈
«어찌 년치[670]를 묻고 이대지 슬허하시나이까.»
장씨 답 왈
«첩도 한 딸이 있더니 란리에 잃고 주야 슬허하나이다.»
정렬이 이 말을 듣고 반갑고 슬픔이 겸발하여 눈물을 내려 이에 휘루[671] 왈
«첩도 란중에 부모를 잃고 이제까지 만나지 못 하였더니 부인이 또한 이러하시니 우리 부모도 첩을 생각하심이 또한 이러하시리니 인자[672] 정리에 어찌 차마 견딜배리요.»
하고 눈물을 뿌리거날 장씨 우문 왈
«부인이 부모를 실산하고 뉘집에서 생장하였나뇨. 원컨대 듣고저 하나이다.»
정렬이 염슬 대 왈
«첩이 오 세에 부모를 잃고 소경사를 기록지 못 하오나 그때 사슴이 업어다가 남문 땅 장 승상 집 동산에 두었더니 승상 부부 거두어 십 년 양육하였사오니 전사를 어찌 알리이까.»
부인이 청파에 그 말삼이 유리함을 보고 마음에 가장 반가와 이에 좌를 가까이 하여 왈
«첩이 또한 부인의 회포와 일반이니 피차에 비척[673]한 심사를 위로하사이다.»

하고 잔을 잡아 정렬께 전하니 정렬이 잔을 잡을 제 손에 옥지환 한 짝을 끼였거날 장씨 보니 숙향을 리별제 채워 보낸 지환 같거날 놀라 문 왈

«부인이 어데 가 저 옥지환을 얻어 계시니이까.»

대 왈

«부모 첩을 리별할 제 옷고름에 채운 것이매 부모를 본닷이 항상 손에 끼나이다.»

장씨 그제야 정령한 숙향인 줄 알고 반가운 마음이야 오히려 진적[674]지 못 함이 있을듯 하여 시녀를 명하여 «부중에 가 지환 든 상자를 가져 오라» 하여 옥지환 한 짝을 내여 놓고 다만 눈물을 흘려 왈

«태수 소시에 반하 룡왕의 자를 구하고 그 거북이 진주 둘을 주던 말이며 그 진주 속에 은은한 글자 있어 하나는 ‹목숨수› 자 하나는 ‹복복›자니 태수 첩에 봉채[675] 하얐난지라. 어버이 보시고 보배라 하여 옥지환을 만들어 가졌더니 늦게야 한 딸을 낳으니 기시에 채운이 왼집을 둘러쌉난대 이향이 만실하니 기이히 여겨 이름을 숙향이라 하고 행여 단수할가 생 월 일 시를 써 금낭에 넣어 사랑함이 무비 하더니 오 세에 란을 만나매 우리 부부 피할새 반야산에 이르러 도적이 급한지라 어찌할길 없어 녀아를 바위 틈에 두고 갈새 옥지한 한 짝을 속옷고름에 매고 잠간 피하였다가 도적이 멀리 간 후 다시와 찾으니 딸의 종적이 없난지라. 주야 슬허하더니 저즈음께 가군이 길에서 한 로옹을 만나 여차 여차 수작하얐으니 가장 신기하기로 기록한 배러니 금일 부인을 만나 우연히 지환을 보니 녀아에 채인바와 일호[676] 차착히 없사온지라. 시고[677]로 자연 슬픔을 억제치 못 하리로소이다.»

하고 옥지환 한짝과 기록한 것을 내여 놓으니 정렬이 한번 보매 정신이 황홀하여 자기 생 월 일 시 써 넣은 금낭을 내여 드리며 대성 통곡에 혼절하니 장씨 대경

하여 급히 붙들어 구호하며 그 적은 것을 자시 보니 태수의 글씨어날 그제야 분명한 숙향인줄 알고 궁글[678]며 통곡하니 백 여 명 시녀 이상히 여기고 모든 사람이 다 이 말 듣고 희한이 여기더라. 태수 이 말을 듣고 대경대희하여 희불 자승[679] 하고 여취 여광[680]하여 어찌할 줄 모르더라. 부인이 자사에게 사람을 부려 부모 만난 말을 기별하니 자사 대희하여 즉시 위의를 차려 양양으로 와 김 공을 보고 형초 땅의 렬읍 태수의 실내를 다 청하여 락봉연[681]을 배설하고 즐기니 원근 사람이 칭찬 아닐 이 없더라. 이적에 강릉[682] 사람 양회 간의[683] 대부 벼슬을 하았더니 수유[684]를 받아 집에 왔다가 이 기별을 듣고 기특히 여겨 황성에 들어가 천자께 여짜오니 천자 공을 불러 묻으신대 위공이 전후 사연을 다 주달하니 천자 가장 신기히 여기이사 칭찬하여 왈

《리 선이 한 번 형주 자사되여 그런 도적이 다 화하여 량민이 되니 선은 일도 자사만 될 재목이 아니라 마땅히 천하를 다사릴 재조니 형주 자사로 오래 두지 못할 것이라》 하시고 김 전으로 형주 자사를 하이시고 부르시니 자사 김공 다려 왈

《천자 내직을 제수하시니 내 황성에 들어가 황상께 품하와 빙장도[685] 내직[686]을 제수하여 속히 올라 오시게 할 것이나 약장[687]은 아직 치민[688]하옵소서.》

하니 태수 부부 숙향을 만난 지가 여러 날이 되지 못하여 또 리별하게 되니 섭섭한 정을 이기지 못하더라. 정렬은 머리를 싸고 누워 이지 아니하거날 김 상서 부부 위로하여 왈

《우리 이리 귀히 되기난 다 너의 덕이니 너난 황성에 올라가 도모[689]하여 우리를 수이 황성으로 올라 가게 하라.》

정렬이 울며 왈

《비록 벼슬이 귀하오나 부모를 모셔 한데서 늙음만 갈지 못하여이다.》

하고 가장 슬허하니 부모 위로하더라. 이에 하직하고 황성으로 가니라.

리 자사 황성에 이르러 입궐[690] 숙배 후 수일 지나매 상소[691]하여 왈

《신이 아비로 동품[692]이 되기 미안하오니 신의 벼슬을 갈아치이다.》

한대 상이 비답[693] 왈

《나라에 위공 만한 이 없으니 위공의 벼슬을 더하여 위왕을 봉하고 김 전으로 병부 상서를 하이시고 리 션으로 초국공 대승상을 제수하라》 하시니 위왕 부자 여러번 돈수 사양[694]하되 듣지 아니하시니 부득이 사은 숙배한대 황제 인견[695]하시고 수향 만난 사연을 물으신대 초공이 전후 사연을 일일이 고하니 상이 칭찬하사 왈

《이난 다 경의 넓은 덕이로다. 짐이 또 경의 덕을 입고저 하나니 나라를 힘써 도우라.》

하시니 초공이 사은하고 남군 땅 승상 장 송이 애매히 오래 금고하였음을 주달하오니 상이 장 송을 서용[696]하사 우승상을 하이시니 장 승상 부인과 즉시 상경하여 정렬을 잡고 반겨 루수 여우하니 초공이 위로 왈

《대인은 모로미 과상치[697] 말으소서.》

하고 이에 주찬을 나와 종일 즐길 새 정렬이 승상 량위와 부모를 만나매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더라.

초공이 이에 락봉연을 다시 개설할 새 조정 백료[698]를 다 청하니 구름 같은 차일[699]은 반공에 표표[700]하고 생소[701] 고악은 천지를 흔드난지라. 금수[702] 병장과 기용집물[703]이 아니 갖은 것이 없으니 장함이 천고에 가히 처음 될러라.

문무[704] 천관이 모다 서로 잔을 날라 치하할새 제객이 몸을 일어 잔을 들고 상서께 하례[705]하고 초공을 향하여 왈

《명공의 문장은 이미 아난바어니와 음률[706]을 익히

아신다 하니 우리 취후 높은 흥을 도아 아름다운 거문고를 한 번 희롱함을 아끼지 말으소서.»

초공이 미처 답지 못하여 위왕이 흔연히 웃음을 띄여 초공을 돌아 보아 왈

«네 비록 음률이 소호[707]하나 제공이 너를 사랑함으로써 오날날 이런 좋은 잔채에 한번 듣고저 함이니 너난 사양치 말고 한 번 시험하여 좌상제객에 일시 웃음을 도우라.»

초공이 부교를 듣자오매 사양치 못할 줄 알고 이에 칠현금[708]을 내와 슬상에 비껴 놓고 한 곡조를 타니 기성이 청아하여 단봉[709]이 구소[710]에 내림 같고 률성[711]이 신기하여 귀신이 느끼더라.

그 곡조에 가라사대 «인생은 초로[712] 같고 공명은 부운[713]이로다. 전생에 언약이 중함이여 이생에 만나기를 다하도다. 인연이 늦음이여 만고 풍상[714]이 일장춘몽이로다. 요지의 꿈을 이룸이여 평생 한을 이뤘도다. 성은[715]이 륭숭함이여 작위[716] 일신에 무겁도다. 충성을 다함이여 만분지일이나 갑사올가.» 하였더라.

제인이 취홍[717]이 새로와 그 률성의 청양[718]함과 뜻이 신기함을 대찬하고 다만 위왕의 복록을 하례하더라.

이윽고 일모[719] 도혼하매 제객이 각기 귀가할새 벽제[720] 추종[721]이 십 리에 벌렸더라.

초공이 이에 장 승상 김 상서 집을 겨린[722]에 짓고 각각 사이에 문을 두어 정렬이 삼랑위 부모를 일체로 섬기더라.

화설 양왕은 천자의 세째 아우라. 다만 딸이 있으니 용모와 재질이 빠여나고 겸하여 시서[723]를 능통하니 시인[724]의 일컫난 배라. 왕이 소저를 낳을 때 일몽을 얻으니 한 선관이 매화 일지를 주며 왈

«이난 봉래산 설중매니 그대 이 매화를 외얏 낡에 접하여야 지엽[725]이 변성하리라.»

하더니 과연 그 달부터 부인이 잉태하여 십삭만에 공주를 생하니 이를 인하여 이름을 매향이라 하고 자를 봉래선이라하다. 점점 자라매 비상하니 왕이 애중하여 택서하기를 심상치 아니터니 우연히 리 선을 한 번 보매 대현[726] 군자인 줄 알고 구혼하매 위왕이 허락하매 장차 길일을 택코저 하더니 선이 다른 데 취처함을 듣고 대로하여 퇴혼하려 하니 공주 왈

《충신은 불사이군[727]이요 렬녀난 불경이부라 하니 대인이 이미 리장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다른 데 구혼하려 하시니 소녀 차라리 불효를 끼쳐 몸이 마칠지언정 결단코 타문[728]에 가지 아니리이다.》

양왕이 차언을 듣고 침음[729] 양구에 왈

《내 아들이 없고 다만 너 뿐이라 어진 사위를 얻어 후사를 의탁하고저 하거날 네 여차하니 이 도시[730] 로부의 박복한 탓이라》 하고 희호장탄[731]하니 공주 재배 왈

《소녀 부모의 교령[732]을 수화[733]라도 불피하오나 지어[734] 차사 하와난 순종할 배 아니오니 그 죄 만사무석[735]이로소이다.》

그 뜻을 도로 혀지[736]못할 줄 알고 가장 우민[737]하더니 선이 벼슬이 초공에 이름을 보고 왕비 최씨다려 왈

《이제 리량의 벼슬이 초국공에 이르고 위인이 특출하니 녀아로 그 둘째 부인을 삼고저 하니 부인 뜻이 어떠하뇨.》

비 왈

《저다려 물어 보사이다.》

하고 즉시 공주를 불러 이 말을 이르니 공주 대 왈

《타문에난 가지 아니하려 하매 초공의 차비됨을 어찌 욕되다 하오리이까.》

왕 왈

《연즉 위왕을 보고 다시 의논하리라.》

명일 조회에 들어가 어전[738]에서 위왕을 보고 왈

«혼인을 이미 허하시고 타처에 하심은 어찌이니이꼬.»

왕이 참괴[739]하여 사 왈

«나의 실약함은 낯 둘 곳이 없사오나 당초에 학생[740]이 경사에 올라 온 사이에 만누이 선을 수양하였더니 소제의 결혼한 줄 모르고 타문에 혼인하였으니 실로 학생의 한 배 아니로되 이제 발명무[741]로 하여이다.»

상이 이 말을 들으시고 양왕다려 왈

«리 선의 일은 짐이 아난배니 저의 불민[742]함도 아니라 이난 천정함이니 다토지 말고 다른 데 구혼할지어다.»

양왕이 고두[743] 주 왈

«성교[744] 지당하시나 신녀 규중에서 늙을지언정 타문을 밟지 아니 하려 하오니 가장 민망하여이다.»

상이 칭찬하사 왈

«경녀의 절행[745]이 족히 고인[746]에 내리지 아니리로다. 이제 선의 벼슬이 족히 두 부인을 두리니 경의 뜻에 어떠하뇨.»

양왕이 성교를 사은하고 위왕은 부복 주 왈

«양왕지 녀난 금지옥엽[747]이라. 선의 차위에 굴함이 불가하올지나 어찌 성교를 위월[748]다리까.»

상이 가로대

«짐이 이제 리 선을 불러 결단하리라.»

하시고 선을 패초하시니 초공이 일정 양왕의 혼산 줄 알고 칭병하고 조현치[749] 아니하니 정렬이 문 왈

«황상이 명초[750]하시거날 어찌 칭병하시나까.»

초공 왈

«상이 부르시매 양왕의 혼사 일절이라. 시고로 칭병함이니다.»

부인이 정색[751] 왈

«공이 비록 첩을 위함이나 신자의 도리에 불가하여이다.»

공 왈

«기망[752]함이 불가한 줄 아나 어전에서 사혼하면 죄를 면치 못 할지라. 만일 그 녀자를 취하여 불미지사[753] 있을진대 부인의 괴로움이 적지 않을 것이요. 하물며 이제 구척[754]이라 위세를 빙자하여 가중[755]을 탁란하면 오문[756] 청덕이 일로 조차 손상하리니 황송하나 거절함만 같지 못 하니다.»

부인이 대 왈

«그러나 불가함이 두 가지나 하나는 군명을 거역함이 신자의 도리 아니요 둘은 그 녀자 타문에 출가치 아니하고 백 년을 독수 공방하오면 그런 원한을 대장부 할 배 아니이다.»

공이 마참내 듣지 아니하니 사관이 돌아 와 이대로 고한대 상이 양왕다려 선의 유병함을 전하시니 양왕이 초공의 칭탁함을 짐작하고 불승[757] 분한하여 장차 해할 뜻이 있더라.

이 때에 황태후 병을 얻으사 증세 고이하야 귀먹고 말 못 하며 눈으로 또한 보지 못 하시니 만조[758] 황황하고 상이 또한 우려하사 식음을 전폐하시더니 일일은 한 도사 바로 전상에 이르러 천자다려 왈

«빈도[759]난 운유[760]하난 도사[761]러니 들은즉 황태후 병환이 중하시다 하매 약으로 치료코저 왔나이다.»

하고 인사하여 가로대

«이 병이 침약[762]으로난 능히 고치지 못 하리니 봉래산 개언초[763]를 얻어야 가히 말을 할 것이요 동해 룡왕의 계안주[764]를 얻어야 다시 만물을 볼 것이니 가히 어진 신하를 보내여 구하옵소서.»

하고 문득 간데 없거날 상이 또한 신기히 여겨 이에 조신[765]을 모아 차사를 의논하실새 양왕이 주 왈

«조정 신하 중 리 선이 재조 과인하오니 가히 보내엄즉하야이다.»

상이 연기연하사[766] 즉시 초공다려 왈

«짐이 본래 경의 충성을 아난지라 한 번 수고를 아끼지 말고 약을 얻어 볼진대 짐이 마땅히 강산을 반분하여 은혜를 갚으리니 경은 모로미 사양치 말지어다.»

초공이 면관[767] 돈수 주 왈

«신이 몸을 국가에 허하오매 수화를 불피하옵고 사생을 돌아 보지 아님이 신자의 직분이오니 충성을 다하여 구하오려니와 봉래산은 종남[768]에 있삽고 동해난 수궁이오니 가히 회환[769]함이 지속[770]을 정치 못 하리로소이다.»

하고 이에 하직하고 집에 돌아 오니 위왕과 승상이 다 죽은 사람 같이 슬허함을 마지아니하더라.

초공이 길이 바쁜고로 이에 하직할새 수이 돌아옴을 고하고 물러 부인 침소에 돌아와 리별할새 초공 왈

«나의 길이 회환을 기필치[771] 못 할지라 부인은 나를 위하여 부모를 뫼셔 지성으로 받들어 나의 바람을 저바리지 말으소서.»

부인이 탄 왈

«행도[772] 비록 지향 없다 하시나 충성을 다하와 구하시면 천의[773] 또한 무심치 아닐 것이요 구고 감지난 첩의 직분이니 조금도 심두[774]에 거리끼지 말으시고 돌아 오실 날을 정치 못 하오니 행로에 천만 보중하여 수이 회환하심을 축수하나이다.»

하고 옥지환 한 짝을 주며 왈

«이 진주 누르거든 첩이 병든 줄 알고 검거든 죽은 줄로 아소서.»

공이 받아 간수하며 왈

«내 또한 표하나이다.»

하고 이에 북창 밖에 선 동백나무를 가리켜 왈

«저 남기 울거든 내 병든 줄 알고 가지가 무성하거든 내 무사히 돌아 오난 줄 알으소서.»

즉시 작별할새 부인이 한 봉 글을 주어 왈

《날과 한가지로 있던 할미난 천태산에서 약 가음 아난 선녀라 그를 찾아 이 글을 주소서.》

하니 공이 즉시 작별하고 길을 떠나 남다히로 향하더니 배로 행할새 십 여 일 만에 대풍을 만나 배가 물속으로 출몰하매 신중이 다 두려워하더니 문득 물 가온대로서 한 짐승이 나오거날 모다 보니 크기 산악 같고 눈이 뒤웅박만하여 광채 불빛 같더라. 그 짐승이 소래질러 왈

《너희 어떠한 사람이완대 이 땅을 지나며 지세[775]도 아니 내고 당돌히 그저 지내고저 하난다.》

공이 대 왈

《나난 중국 병부 상서 리 선이러니 황태후 환후[776] 중하시매 황명[777]을 받자와 봉래산의 선약을 얻으러 가더니 마침 귀한 지방을 지내매 잠간 길을 빌리라.》

그 짐승이 이르되

《잡말 말고 가져 가는 보배를 내여 길세를 주고 가라.》

하고 배를 잡아 엎치려 하거날 공이 망극하여 빌어 왈

《가져 가난 배 량식 밖에 없노라.》

하니 그 짐승이 성내여 배를 흔들며 흉악을 부리거날 상서 애걸 왈

《무엇을 달라하고 이렇듯 타나뇨.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노라.》

그 짐승 왈

《네 몸에 가진 보배를 주어야 망정 그렇지 아니하면 이 곳에서 목숨을 바치고 살아 돌아 가지 못 하리라.》

상서 민망하여 부인이 리별할 제 주던 옥지환을 내여 주니 그것이 보고 대로 왈

«이것이 동해 룡왕의 계안주니 어대 가 얻어 왔나뇨.»

하고 배를 끌고 달아나니 선중 사람과 상서 망극하여 하더니 큰 궁전에 다달으니 그것이 배를 매고 그 배 사람을 잡아 들여 왈

«모처에 순행하러 갔삽다가 동해 룡왕 계안주 도적하여 가난 놈을 잡아 왔나이다.»

하고 옥지환을 들여 보내매 상서 고이히 여겨 어떠한 사람이 또 나올가 기다리더니 이윽고 안으로 조차 홍포관대[778]한 관원이 나와 상서를 대하여 문 왈

«네 어떠한 사람이완대 수궁 보배를 도적하여 갔난다.»

상서 민망하여 대 왈

«이난 나의 세전지보[779] 아니라 내 황명을 받자와 선약을 구하랴 가매 회환이 지속 없난지라 부인이 일로써 신물[780]을 삼은 배니 그 근본을 자서히 아지 못 하노라.»

야채[781] 들어가 이대로 고한대 왕이 불승 의아하여 이에 선관을 명하여 나아가 그 부인의 성명을 자세 알아 오라 하니라.»

차시 초공이 야채를 보낸 후 마음에 가장 우려하더니 이윽고 홍포 선관이 물 속으로 나오더니 상서를 보고 읍하여 왈

«그대 옥지환이 부인의 준 배라 하니 그 부인이 뉘 딸이며 성명이 무엇이뇨.»

공이 왈

«나의 부인은 락양 김 전의 딸이요. 명은 숙향이요 나난 락양 북촌 리 모의 아들 선이로라.»

그 선관이 들어가 이대로 고하니 왕이 크게 깨달아 왈

«내 잊었도다.»

하고 즉시 위의를 갖초아 나올새 훤화지성[782]이 진동

하더니 이윽고 한 왕자 몸에 곤룡도[783]를 입고 머리에 통천자금관[784]을 쓰고 손에 백옥홀[785]을 쥐였으니 위의 거룩하더라. 초공을 보고 례하거날 공이 가적송구[786]하여 나아가 절하니 왕이 붙들어 전[787]에 올려 좌를 정한 후 사죄 왈

«나난 이 물지킨 룡이러니 귀인이 이곳 지내심을 어찌 뜻하였으리요, 저적 나의 누이 부왕께 득죄하고 반하에 귀양 갔다가 어부에게 잡혀 거의 죽게 되였더니 김상서 구하심을 입어 살아났사오니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진주로 보은함이니 이난 수궁에 극한 보배라 ‹복복› 자를 사람이 가지면 오래 살 뿐외라 죽은 몸에 얹어 두면 천 년이라도 살이 썩지 아니하난 보배니 상서의 기운이 두우[788]에 쏘이난고로 소졸[789]이 순행하다가 그 기운을 보고 그릇 존위[790]을 놀라시게 하니 죄 크도소이다. 연이나 황태후 병환에 봉래산으로 약을 구하라 가신다 하니 상게 일만 이천 리라 열두 나라를 지나나니 길이 가장 험할 뿐 아니라 약수 가로졌으니 인간 배로난 건너기 어려울가 하나이다.»

공이 놀라 왈

«연즉 봉래산을 득달치[791] 못 하고 리 선은 헛되이 죽을 따름이로소이다.»

왕 왈

«비록 그러하오나 천생 죄오니 인력으로 못 하려니와 너무 과려치[792] 말으소서.»

하고 인하여 잔채를 벌여 관대하더라.

밖으로서 한 소년이 들어 와 앉거날 왕이 문 왈

«네 어이 온다.»

소년이 대 왈

«선생께오서 이르시되 ‹네 공부난 이미 이뤘으나 래두[793]에 태을의 힘을 얻어야 선로[794]에 막히지 아니리라. 이제 태을이 옥제께 득죄하고 인간에 적강하였더니 황명

을 받아 봉래산으로 약을 구하라 가다가 필경 수부를 지날 것이니 네 편히 뫼셔 두고 오면 반다시 그 은혜를 타일 갚음이 있으리라› 하기로 왔나이다.»

왕이 대열 왈

«연즉 의복을 고쳐 선관의 맵도리[795]를 하고 나의 공문을 가지면 의심이 없으리라.» 하더라.

소년이 공을 향하여 왈

«소생은 수부 왕자러니 일광로[796]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아 사공을 뫼시라 왔나이다.»

초공이 대희하여 왕을 향하여 왈

«다려 온 사람은 어찌하리이꼬.»

왕 왈

«그 사람과 배난 도로 보내사이다.»

하고 수신을 불러

«령거[797]하여 내여 보내라» 하니라.

공이 하직고 강변에 나오니 룡자 발써 나아가 표주[798]를 가져 대후하였거날 공이 배에 오르니 그 배 가난 새 없이 순식간에 아모대로 간줄 모를러라. 행하여 갈새 룡자 공다려 왈

«공은 진세 소객이라. 이미로 선경을 왕래치 못하리시니 이 길에 못 신령이 지켰으니 부왕의 공문을 빙자하려니와 소등의 하난대로 하소서.»

하고 한 곳에 이르니 이난 회회국[799]이라.

사람들이 다 바로 다니지 아니하고 돌아 다니더라. 또한 지킨 왕이 있으니 성명은 정성[800]이니 성미 온순하더라. 룡자 들어가 왕을 보고 부왕의 공문을 드리니 왕이 즉시 이름 두고 인 쳐 주거날 룡자 이 사연을 고한대 왕이 이에 나와 상서를 보고 반기되 상서난 공경할 뿐이러라.

룡자 하직고 향하더니 또 한 나라에 이르니 이난 호밀국[801]이니 인민이 밥을 먹지 아니하고 꿀만 먹어라.

이 나라 왕의 성명은 필성[802]이니 상제모 일선군[803]의 후예러라.

룡자 들어가 공문을 드리니 왕이 즉시 답인[804]하야 주고 왈

«그대 태을을 다리고 가거니와 이 앞길이 가장 험하니 부대 조심하라. 우리난 천상 이십 팔 수[805]로서 상제께 득죄하고 이 땅에 적거한지라. 이후에 수성을 만나면 가장 어려오리라.» 룡자 사례코 행하여 유구국[806]에 이르니 이 땅 사람들은 의관 문물이 주옥과 같으나 누리고 비린 것을 아니 먹더라.

지킨 왕의 성은 기성[807]이니 룡자 들어 가 공문을 드린대 왕 왈

«이곳은 선경이라. 범인이 임의로 출입지 못 하거날 어찌 잡인을 다리고 온다.»

하고 본 체도 아니하거날 룡자 태을을 다리고 가난 사연을 고하니 왕이 소 왈

«내 그대의 낯을 보아 죄를 사하노라.»

하고 이름 두고 인쳐 주거날 룡자 즉시 하직고 행하여 교지국[808]에 이르니 그 땅 사람들은 오곡을 먹지 아니하고 차만 먹으니 몸이 날래게날 이련고로 사람들이 다 짐승 같더라.

그러나 왕의 성명은 규성[809]이니 본성이 사오나와 타국 사람이 지경을 범하면 비록 아모 사람이라도 시비를 묻지 아니하고 치죄하난지라.

룡자 초공다려 왈

«이 곳이 가장 어려운 곳이니 수이 가지 못 할가 하노라.»

하고 이에 들어가 공문을 드리니 왕 왈

«봉래산은 명산[810]이라. 네 태을을 다리고 가거니와 제가 이미 인간의 적객이 되였거날 어찌 이곳을 지나고저 하나뇨.»

하고 룡자와 리 선을 잡아다가 구리성에 넣으니 룡자 초공을 보아 왈

«이 선관이 본대 사오나와 아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내 선생께 청할 것이니 잠간 이 곳에 계시소서.»

하고 가만히 도망하여 일광 로인 계신대 가니 문 왈

«네 태을을 다리고 봉래산으로 아니가고 어이 이곳에 온다.»

룡자 규성의 일을 고하니 광노 왈

«그 왕이 본대 거북하니 내 아니가면 구치 못 하리라.»

하고 즉시 구름을 타고 오거날 룡자 몬저 와 상서와 같이 있더니 일광로 규성을 와 보고 이르되

«태을이 천상에 득죄하고 인간에 나려와 고초를 지내여 천상 죄를 속하고 봉래산의 약을 가질러 가더니 태을이 가난 길이 만일 지체할진대 황태후의 병을 구치 못할 것이니 즉시 놓으라.»

규성 왈

«그리 하리라.»

리 선과 룡자를 잡아 내여 일광로의 청함을 이르고 답인하여 주거날 초공과 룡자 사례하고 물러 나와 강변에 이르러 배를 타고 행할새 문득 물 가운데서 오색 구름으로 탑을 모았난대 그 우에 선관이 앉아 풍류하며 놀거날 룡자 왈

«동으로 앉은이난 우리 사부시고 서으로 앉은이난 규성이라» 하거날 초공이 차탄함을 마지아니한대

룡자 왈

«우리도 오래지 아니하여 저러하리이다.»

하고 가더니 한 곳에 이르니 이 나라 이름은 부의국[811]이니 사람의 키가 열 자이나 하고 짐승과 사람을 잘

잡아 먹나니 왕의 성은 진성[812]이니 수성중 말재 별이라 하더라.

룡자 초공다려 왈

«내 답인하라 성중에 가면 필연 이 땅 사람들이 공을 침로할 것이니 이 부작[813]을 붙이소서.»

하고 공문을 드리니 왕이 즉시 명합[814] 두고 인 쳐 주더라. 차시 초공이 룡자를 보내고 관역[815]에 머무더니 여러 사람들이 초공을 해코저 하거날 초공이 민망하여 부작을 더지니 문득 바람이 크게 일어나 물결이 뛰노니 그 놈들이 물 속에 들고 배난 바람에 빨리 달으니 건잡지 못 하여 가난 정처를 모르고 룡자도 보지 못 하매 가장 민망터니 문득 물 속에서 한 신선이 고래를 타고 술이 취하여 초공을 보고 왈

«네 모양을 보니 신선도 아니요 속객도 아니요 룡왕도 아니어날 어대가 완연히 룡왕의 표주를 얻어 타고 어대를 가난다.»

초공 왈

«나난 중국 병부 상서 초국공 리 선이압더니 황태후 병이 중하와 천자 나를 명하서 봉래산에 가 약을 구하라 가압더니 바라전대 길을 가르치소서.»

선관 왈

«가소롭다. 그대 병부 상서라 하니 옛 글을 보았난다. 삼신산 십주[816]란 말이 다 허무한지라. 진 시황[817] 한 무제도[818] 마침내 밋지 못 하얐거든 그대 어찌 봉래산으로 득달하리오.»

상서 답 왈

«비록 그러나 군명을 받자왔으니 몰신토록[819] 얻으려 하나이다.»

선관 왈

«나의 탄 고래 구만 리 장천을 순식간 왕래하되 봉래산은 보지 못 하였으니 날과 한가지로 다님이 좋도다.»

하고 배를 끌을고 가며 온가지로써 조롱하며 행하더니 뒤에 한 션관이 파초션[820]을 타고 오며 불러 왈

«적션아, 어대로 향하나냐.»

답 왈

«이 손이 날다려 술집을 가르치라 보채니 내 끄을려 가노라.»

션관이 소 왈

«가장 좋도다.»

하고 공을 향하야 왈

«그대 돈이나 많이 가졌난다.»

초공이 대 왈

«나난 천자의 명으로 봉래산에 약을 구하며 민망하여이다.»

그 션관이 소 왈

«그대 저 션관을 모르난다. 당 현종[821] 시절의 한림학자 리 태백이라. 이제 취토록 먹고저 하니 술 값이나 가져왔난다.»

상서 왈

«몸에 푼전이 없으니 어찌하리오.»

적션 왈

«네 가진 옥지환이 술 값은 족하리라.»

하고 배를 끄을고 가더니 멀리 들으니 옥지 소래 나거날 적션 왈

«이 아니 려 동빈의 저 소랜가. 우리 따라가 보자.»

하고 급히 좇아 가니 한 션관이 칠현금을 물 우에 띄우고 그 우에서 저를 부다가 왈

«반갑다. 태을아, 인간 자미 어떠하뇨.»

초공이 대 왈

«진세[822] 속객이 어찌 션관을 알리오, 길이 바쁜데 놓지 아니니 민망하여이다.»

적션이 소 왈

«이 촌아 저의 안해 주던 옥지환을 팔아 나를 술 사 먹이마 하고 종일 끄을고 다니되 술은 사 먹이지 아니하니 가장 분하도다.»

동빈이 소 왈

«너희 서로 끄을려 다닌다 하니 가마귀[823]의 암과 수를 아지 못 하리로다.»

하고 웃더니 문득 한 선녀 편엽주에 술을 싣고 오거날 동빈이 문 왈

«그대 어대로서 나오뇨.»

대 왈

«두 목지 선생의 벗을 보려 하고 옥화주로 가실새 그리로 가나이다.»

왕자 윤 왈

«일정 태을을 보려함이로다.»

적선이 손을 들어 가리켜 왈

«오난 배 그 배 아닌가.»

하고 모다 보니 한 선관이 소요관을 쓰고 자색 학창의[824]를 입고 일엽주를 바삐 저어 오며 초공을 향하여 왈

«반갑도다 태을아, 인간 자미 어떠하뇨. 우리 술이나 먹자.»

하고 서로 권하더니 공중에서 청의 동자 내려와 고 왈

«안기[825] 선생께서 사부님[826]들을 직녀궁[827]으로 청하더이다.»

동빈 왈

«태을을 어찌하리오.»

두 목지 왈

«장 건이[828] 나의 학을 바꾀아 타고 봉래산으로 갔으니 내 궁장을 다려다 두고 학을 타고 좇아 가리다.»

모다 기꺼 초공을 향하여 왈

«우리 이제 리별하니 섭섭하거니와 미구에 다시 만나 보리라.»

하거날 두 목지 초공을 다리고 가니 한곳에 이르러 큰 산이 하날에 닿았고 상서의 구름이 어리였거날 두 목지 공다려 왈

«이 산이 봉래산이니 구류선을 찾어 약을 구하라.»

하고 하직하고 가거날 상서 들어 갈새 산천을 완상하며 차탄 왈

«리 태백의 시에 ‹삼산은 반락 청천외오 이수중 분백로주[829]›라 하였더니 짐짓 허언이 아니로다.»

하고 수리를 가더니 룡자 문득 이에 와 기다리거날 공이 놀라 그 연고를 물으니 대 왈

«나난 상서의 간 곳을 몰라 방황하더니 마침 리 적선을 만나매 두 목지를 다리고 봉래산으로 갔다 하기로 이에 와 기다린 지 오래도다.»

상서 왈

«그 선관들에게 보채인 배 이로 측량 없노라.»

룡자 소 왈

«그 선관이 다 전생의 벗인고로 반가와 희롱함이라. 만일 그 선관들을 만나지 못 하였던들 어찌 이곳을 득달하리오.»

하고 점점 나아가더니 한 곳에 다달아난 큰 바회 하날에 닿았거날 룡자 초공을 업고 그런 험지를 순식간에 올라와 내려 놓고 왈

«나난 도로 배에 가 기다릴 것이니 약을 얻어 가지고 배로 오르소서.»

초공 왈

«약을 비록 얻으나 어찌 내려 가리오.»

룡자 왈

«도로 올제는 자연 쉬울 것이니 근심 말으소서.»

하고 가거날 상서 홀로 한 높은 뫼를 올라 가니 한 백발 로인이 검은 소를 타고 오다가 문 왈

«그대 어떤 사람인다.»

초공이 재배 왈

«나난 중국 병부 상서 초국공 리 션이압더니 구류션을 찾나이다.»

로공 왈

«저 침향 나무[830] 밑에 들어 가면 높은 바위 우에서 바독을 두니 게가 뭃어 보라.»

하거날 초공이 대희하야 그 밑으로 가더니 과연 션관들이 앉어 바독을 두거날 초공이 나아가 복알[831]하니

션관 왈

«그대 어면 사람이완대 감히 이곳에 들어 오나뇨.»

공이 재배 왈

«인간 병부 상서압더니 구류션을 뵈오려 왔나이다.»

청의 션관 왈

«그대 구류션을 보아 무엇하난다.»

대 왈

«황후 병환이 중하사 황명을 받자와 약을 얻어 가려 하나이다.»

홍의 션관 왈

«구류션을 보려 하거든 저 산봉으로 올라 가라. 불연즉 못 보리라.»

상서 왈

«황태후 환후 중하시압고 신자 군명을 지체치 못 하리니 수이 얻어 가게 하소서.»

션관 왈

«우리난 약을 모르노라.»

상서 민망하여 하더니 문득 학 탄 션관이 오며 왈

«그대를 만나 구경[832]을 꿨나냐.»

하고 인하여 공이 손을 잡고 왈

«그대 인간 재미 어떠하여 셜중매를 만나 본다.»

공 왈

«인간 고행할 뿐외라. 전생 일을 다시 보지 못 하든 설중매를 어찌 알리이꼬.»

선관이 소 왈

«천상 일은 다 잊었도다.»

하고 즉시 동자로 차를 부어 권하니 공이 받아 먹으매 그제야 자기 천상 태을진군으로서 득죄한 일과 봉래산에서 노다가 룡허선[833]의 딸 설중매로 부처되였던 일이며 문득 선관이 자기 수하로서 지내던 배 어제 갈거날 공이 탄 왈

«내 홀연 득죄하니 여차 고행이 자심하거날 그대 등은 다 무고하니 다행하거니와 설중매난 어대 있나뇨.»

선관 왈

«룡허선 부부난 인간 리부 상서 김 전이요 설중매난 양왕의 딸이 되였으니 장차 그대 둘째 부인이 되리이다.»

공이 한숨 지고 문 왈

«룡허선 설중매난 무삼 죄로 인간 내려가며 소아난 김 전의 딸이 되고 설중매난 양왕의 딸이 되게 함은 어찜이니이꼬.»

선관이 답 왈

룡허선 부부난 방자산[834]에 구경 갔다가 상제께 글 진상[835]을 더더한 일로 인간에 귀양가되 그대 전생 소아를 위하여 설중매를 흠모[836]하던 줄 보고 항상 소아를 원망하더니 전생 원쑤로 후생의 부처되여 서로 간장을 썩이게 하고 설중매난 상제께 득죄한 일은 없으되 부모와 그대 인간에 내려갔으매 보려하고 약수에 빠져 죽었으니 후생에 귀히 되여 양왕의 딸이 되였난지라.»

상서 왈

«내 양왕의 혼사를 거절코자 하다가 이 고행을 만나니 죽어도 혼인을 말라 하였더니 하날이 정하신 일이니 도망치 못 하리로다.»

하고 인간 일을 잊었더라.

선관 왈

«그대 돌아 갈 때 늦었으니 이 약을 가지고 가서 말을 말라.»

하고 세 가지 약을 주거날 상서 문 왈

«이 약 이름이 무엇이뇨.»

답 왈

«저 소용[837]에 든 물은 환혼수[838]요 저 누른 것은 개언초요 저 약은 우화환이라. 이제 돌아 가면 황태후 발써 승하[839]하였을 것이니 그대 가져 온 옥지환을 태후 주검에 얹어 두면 다 썩은 살이 내살 것이니 그 소용의 물을 입에 칠하라. 혼백이 돌아 와 살아 나거든 개언초를 먹이면 말을 하리라.»

공이 또 문 왈

«이 약을 어대 쓰리이까.»

선관이 답 왈

«그대 감초았다가 나이 칠십이면 칠월망일에 소아와 하나씩 먹으라.»

하고 또 차를 권하거날 먹으니 그제야 룡자 기다리난 줄 깨달아 하직하고 룡자 있난 곳에 오니 룡자 공을 업고 순식간에 남해 룡궁에 오니 왕이 맞아 잔채하여 즐길새 공 왈

«룡왕의 덕분에 봉래산을 무사히 다녀 왔거니와 또 천태산을 가르치소서.»

룡왕 왈

«천태산은 속히 가시라.»

하고 즉시 룡자를 불러 «상서를 모시고 수이 행하라.»

하니 룡자 수명하고 한가지로 배를 타고 한곳에 이르러 난 배에 내려 왈

«이 산이 천태산이니 약을 구할터이면 마고 선녀를 만나야 쉬우리이다.»

공이 응낙고 홀로 산중으로 가더니 한 시내를 만나매 가장 깊은지라, 정히 방황하더니 문득 동쪽으로서 한 동자 사슴을 타고 오거날 공이 반겨 길을 묻고저 하더니 그 동자 사슴을 채쳐 나난닷이 지내거날 공이 미처 묻지 못 하고 그 가난 곳을 바라고 가더니 소나무 아래 한 로옹이 해여진 누비옷을 입고 석상[840]에 걸어 앉았거날 공이 진전[841] 재배 왈

«소자난 중국 병부 상서 초국공 리 선이옵더니 황명을 받자와 약을 구하라 왔삽더니 심히 배고프고 갈 길을 모르오니 인가를 가르치시면 기가를 면하고 또 마고 선녀의 집을 가르쳐 주시면 약을 얻어 갈가 하나이다.»

로옹 왈

«심산[842] 궁황에 인가 어이 있으며 내 이에 있은지 오만 년이로되 마고 선녀란 말은 금시 초문이로다.»

하고 일어나거날 공이 다시 묻고저 할 지음에 홀연 간대 없거날 공이 할일 없어 방황하더니 또한 로옹이 석장[843]을 짚고 오거날 공이 나아가 절하고 마고 선녀의 집을 물으니 답 왈

«무삼일로 찾나뇨.»

공이 이에 약 얻으러 온 사연을 자세 고한대 로옹 왈

«이리로서 한 물만 지나면 옥포동이 있나니 게가 찾아 보라.»

공 왈

«물이 깊으니 건너 가지 못 할가 하나이다.»

로옹이 짚었던 석장을 더지니 변하여 다리 되거날 이에 사례하고 건너 가니 로옹이 문득 간대 없고 공중에서 외여 왈

«나난 대성사 부처러니 그대에 길을 가르쳤노라.»

하거날 공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 사례하고 가더니 문득 한 로옹이 암상에 앉았거날 공이 절하고 옥포동 길

을 물으니 로옹이 답지 아니코 길이 노래를 부르며 눕거날 공이 가장 민망하여 하더니 한 선녀 청학을 타고 손에 천도[844]를 들고 오거날 공이 공손히 례하고 옥포동을 물으니 선녀 황망히 답례 왈

«랑군은 뉘시며 옥포동을 물으시니 무엇하려 하나뇨.»

«마고 선녀를 찾아 약을 구코저 하나이다.»

선녀 왈

«연즉 공자 길을 잘못 들어 계시도다. 내 이 산중에 있은 지 오래되 천태산 마고 선녀를 보지 못 하였나이다.»

상서 대경 왈

«연즉 이 산 이름은 무엇이라 하나뇨.»

선녀 답 왈

«이 산 이름은 옥포산이요, 골 이름은 천태동이어니와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내 집에 가 머물어 명일 찾으소서.»

공이 따라 가니 좌우에 기화이초[845] 란만하여 이향이[846] 촉비[847]하고 선가의 청방이 도원[848]에서 짖더라. 선녀 상서를 인도하여 집에 들어 가니 집이 크지 아니 하나 가장 정결터라.

공이 할미를 따라 들어 가니 할미 공을 청하여 왈

«내 집이 과부의 집이러니 손님 대접할 사람이 없어 내 손수 대접하니 허물치 말으소서.»

공이 좌정하니 황금 교의를 동서로 놓고 좌를 동편 교의로 청한대 상서 굳이 사양하니 할미 노 왈

«공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니 나도 공자의 가실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거날 공이 민망하여 교의에 오르니 할미 시녀로 팔진미를 권하니 리화정 할미 집 음식 같더라. 내심에 의혹하여 문 왈

《이제 천태산이 어데이니까.》

할미 왈

《나도 금시 초문이니 수고로이 헛걸을 가지 말라. 내 말을 좇이면 유익할가 하나이다.》

상서 왈

《좇일만 하면 좇이리다.》

할미 기꺼 왈

《나도 명산에 있을 뿐 아니라 명사[849] 안해되여 가장 영화로이 지내더니 남편이 득죄하여 이 땅에 귀양 올새 인하여 장부 기세[850]하며 어린 딸로 더불어 돌아 갈 길이 없어 인하여 이곳에서 사압더니 녀애 바야흐로 장성하며 그 배우를 정치 못 하여 저에 란심[851] 회절로 일월을 공송[852]함을 탄식하난배러니 천행으로 그대를 만나니 짐짓 대군자라. 그대난 위태한 길을 가지 말고 나의 백년 아름다운 손이 되여 진세 인사를 잊음이 어떠하뇨.》

공이 공경 대 왈

《그 말삼이 마땅하오나 이미 군명이 있으니 몰신토록 다니다가 구치 못 하면 차라리 죽어도 불충지귀[853] 되지 아니리이다.》

선녀 왈

《그대 말이 정대하나 그난 불통한 말이라. 속담에 왈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 하다〉 하니 무삼 일로 남을 위하여 고초만 하다가 비명[854] 원사하리오. 내 비록 빈곤하나 노비가 삼천여구요 전답이 수천결[855]이니 족히 궁핍지 아니리라.》

상서 굳이 사양하고 가장 민망하더니 이윽고 산공[856] 야정하고 만뢰 구적한지라.

선녀 즉시 시녀를 명하여 협실을 소쇄하고 공을 뫼셔 《편히 쉬라》 하니 공이 협실에서 차야를 지내고 명조에 보니 집이 문득 간데 없고 몸이 시내가에 누웠난지라. 불승황홀[857]하여 반향 후 일어나 고국을 생각하고 글

을 지어 읊고 길을 찾아 수십보를 행하더니 한 로구[858] 광주리를 옆에 끼고 길가에서 나물을 캐거날 공이 나아가 절하고 천태산을 물으매 답 왈
«넘어 오던 산이라.»
하거날 옥포동을 물으니 이 골이라 하난지라. 공이 대희하여 «마고 선녀난 어대 있나니이까.»
로구 답 왈
«내 눈이 어두워 몰라 보니 그대 뉘시니이까, 내 마고 선녀로소이다.»
공이 크게 반겨 두 번 절하고 왈
«나난 락양 북촌 리 선이러니 로선을 찾아 약을 구코저 왔거니와 어찌 나를 몰라 보시나이까.»
로구 반겨 왈
«실로 그러하시니까. 서로 떠난 지 오래고 또 나이 많아 선망후실[859]하야 생각지 못 함이로다.»
하고 왈
«연즉 숙랑자 무양[860]하시니이까.»
공이 이에 부인의 글을 전하니 할미 소 왈
«내 이제 그대를 취맥함이라.»
하고 글 보기를 맟고 반겨함을 마지않고 왈
«내 공자를 위하여 이 약을 얻어 기다린 지 오래도다.»
하고 이에 약을 주며 왈
«구정을 펴고자 하나 어제 숙랑자를 만나 들으니 황태후 승하하시다 하니 빨리 돌아 가소서.»
공이 받아 가지고 사례코저 하더니 문득 간대 없난지라.
공중을 향하여 무수 사례하고 길을 찾아 강가에 나오니 룡자 표주를 가져 맞거날 서로 반길새 룡자 왈
«내 공을 보내고 서해 룡궁에 가니 숙모 이르시되 내게 개안주 있더니 김 상서의 은혜를 갚노라 드리고 저

적에 정렬 부인이 표진물에 와 제하거날 정표할 것이 없어 술잔에 담아 받자왔난지라 하니 발써 상공댁에 갔더이다. 상공은 급히 돌아 가소서 지금 황태후 붕하시다 하더이다.»

하고 공을 청하여 배에 올리고

«눈을 감으라.»

하거날 공이 황황[861] 망극하여 배에 올라 눈을 감으니 이윽하여 한 곳에 이르러 눈을 떠 보매 발써 장안[862]성 밖 십리에 경하란[863] 물 가이러라.»

공이 대희하여 룡자를 리별하고 황성에 들어 오니 황제 즉시 인견하시니 공이 들어가 복지하여 즉시 돌아오지 못 함을 청죄하니 천자 위로하시고 약을 드려 시험하실새 몬저 옥지환을 신체 우에 얹기니 상한 살이 산 사람의 살 같고 입에 환혼수를 드리오니 가삼에 숨기 있으되 말을 못 하거날 입에 개언초를 넣으니 이윽고 말하거날 또 개안주를 가져 태후께 드려 눈을 세 번 문지리매 만물을 보시난지라.

천자와 백관이 모다 기꺼하며 상이 이에 공의 손을 잡고 반기사 왈

«경이 이 약을 어찌 구하뇨. 그 고생함을 가히 알리로다.»

공이 전후[864] 수말을 고하니 상이 칭찬 왈

«석에 진 시황, 한 무제의 위엄으로도 능히 얻지 못하였거날 경이 이제 선약을 구하여 황태후를 재생하시게 하니 이난 불세지공[865]이라 어찌 그 공을 갚으며 어찌 한 시나 잊으리오 마땅히 천하를 반분하리라.»

공이 부복 주 왈

«주욕신사[866]라 하오니 어찌 여차과도[867] 하사 미신[868]으로 하야곰 후세에 역명[869]을 면치 못 하게 하시나이꼬, 복원 성상은 살피소서.»

하고 머리를 두다려 피 흐르난지라. 상이 그 뜻이

굳음을 보시고 장히 여기사 이에 초왕을 봉하시고 김 전으로 좌승상을 하이시고 공을 다 갚지 못 함을 한탄하시니 부득이 사은[870] 퇴조하여 부중에 돌아 오매 부모와 승상 부부며 김 승상 부처와 정렬 부인이며 가중 상하 죽었던 사람을 다시 본듯하여 큰 잔채를 배설하니 천자 들으시고 어악[871]을 보내사 기구[872]를 도우시더라. 정렬 부인이 초왕다려 왈

«동백 가지 날로 쇠신하거날 즉시 돌아 오지 못 하실가 매일 념려하압기로 대신 박명한 목숨이 진하기로 천지께 축수하와 구차한 목숨을 보전하여 기약[873]을 바라옵더니 일일은 꿈에 마고 할미와 이르되 ‹부인이 상서를 보려 하거든 나를 좇아가자› 하거날 한 산골로 들어 가니 한 궁전이 있거날 상서를 만나서 이리이리 이르고 왔더이다. 상서 아모리 양왕의 딸을 사양하셔도 이미 하날이 정하신 배필이니 아니치 못 하리이다.»

하니 왕이 천태산 선녀의 집에 갔던 일을 이르고 양왕의 딸이 김 전의 딸로서 전에 제 부인이 되였던 줄 이르니 정렬 부인이 더욱 혼인을 권하더라. 양왕이 위왕을 보고 혼인을 또 청하니 왕이 탄식 왈

«결단코 그 뜻을 저바리지 아니리라.»

하고 돌아와 초왕을 대하여 수말을 권하니 초왕이 또한 천정임을 헤아리고 즉시 선관들의 말을 고하니 왕과 가중이 모다 희한히[874] 여기더라. 위왕이 이에 양왕에게 통혼하여 택일 성례하니 천자 들으시고 대희하사 숙향으로 정렬 왕비를 봉하시고 매향으로 정숙 왕비를 봉하시니 혼자 천은[875]을 사례하고 공주난 김 승상 부부를 부모 같이 섬기고 정렬은 양왕 부부를 친부모 같이 대접하더라.

삼위 부부 화락하여 정렬은 이자 일녀를 두고 정숙은 삼자 이녀를 두어 한갖 같이 다 등과하여 벼슬이 높고 자손이 번성하며 정렬의 장자난 태자 태부[876] 겸 병부

상서로 있고 녀아난 태자비[877] 되고 차자난 정서[878] 대도독으로 오원주천이란 땅에 가 오랑캐를 쳐 적병을 무수히 죽일새 그 중 한 도적을 죽으려 하니 창검[879]이 드지 아니하고 맨 것이 절로 글러지되며 일시에 활을 쏘니 혹 화살이 넘으며 혹 떨어져 맞지 아니 하고 맞아도 상치 아니하니 도독이 고이히 여겨 심중에 헤오

«내 일정 애매한 사람을 죽이려 하여 하날이 도움이 있어 이러하도다.»

하고 인의[880]로 항복 받아 일절 상하지 아니하고 종을 삼아 다리고 부중에 돌아 와 부모께 그 사연을 자서히 고하니 초왕 부부 또한 신기히 여겨 가중에 두고 가장 친근히 부리더니 그해 상원일[881]에 초왕이 모든 가정 노복을 불러 전정[882]에서 씨름을 붙이더니 그 오랑캐가 가장 용력이 있어 여러 사람을 지우니 초왕이 칭찬하거날 정렬이 자서히 보니 그 놈이 반야산에서 보던 도적 같거날 즉시 자기 가진바 족자를 내여 보니 자기 오 세 적에 반야산에서 울 때에 업어다가 마을에 두던 사람과 방불한지라.

즉시 왕을 청하여 족자를 보고 밖의 사람을 가리키니 호발도 틀림이 없난지라.

초왕이 가장 신기히 여겨 이에 기인다려 문 왈

«전일 반야산에서 사람을 구함이 있나냐.»

기인이 대 왈

«과연 그 때 한 계집 아해 부모를 잃고 돌틈에서 울거날 다른 도적이 죽이고자 하압기 소졸[883]이 그 아해 상을 보오니 가장 비범하온지라. 이에 유곡촌[884]에 두고 왔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대희하여 부인께 소유[885]를 전하니 왕비 크게 반겨 기인을 불러 그 때 은혜를 이르고 성명을 물으니 답 왈

«소졸은 신비해로소이다.»

왕비 즉시 금은을 후상[886]하고 왕과 제자등도 또한 많이 상사하니라.

초왕이 차사를 상께 주달하온대 천자 기특히 여기사 평서장군[887] 진서 태수를 하이사

«모든 도적을 진정하라» 하시니 이후로난 북방이 평하여 도적이 없더라.

이적에 장 승상 부처 졸하니[888] 례로써 안장[889]하고 정렬의 대통함은 칭량치 못 할리라.»

위왕 량위 또한 기세하니 선산에 왕례로 안장하고 이후 초왕이 칠십에 이르러 칠월 망일에 제자 제손과 가족을 거나려 궁중에서 잔채하더니 한 선비 바로 궁전으로 들어 오거날 초왕이 보니 이난 려 동빈이라.

왕이 문 왈

«그대 어대로서 오며 어찌 이르렀나뇨.»

답 왈

«내 옥제의 명을 받자와 그대를 다리러 왔나니 바삐 가사이다.»

초왕 왈

«속객이 되여 어찌 천상을 득달하리오.»

선관 왈

«전일 봉래산에서 구류선이 주던 약을 이제 가져계시나이까.»

초왕이 깨달아 즉시 약을 내여 왕이 삼부처 하나씩 먹으니 몸이 공중으로 올라 가매 왕의 삼녀 오자 망극하여 공중을 향하여 애통하고 왕례로 헛장하더라.

주 해

1 화설——각설과 같은 의미.

2 명공——벼슬의 웃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칭.

3 공명——공을 세워 이름을 날리는 것 또는 높은 벼슬을 하는 것.

4 은거——벼슬을 떠나서 사는 것을 말함.

5 천자——임금.

6 사관——기록을 맡아 보는 관원.

7 리부상서——관원들의 임명, 상벌, 등용 등의 행정 조직 사업을 맡아 보던 기관의 우두머리.

8 리 적선 두 목지——당 나라(618—906)의 두 시인 리 백과 두 목.

9 왕 희지——중국 진 나라 때 글씨 잘 쓰던 사람에 왕 희지가 있었으므로 글씨 쓰는 법은 왕 희지의 필체라는 뜻.

10 조 맹부——중국 원 나라 때 사람. 학자이며 문장가이며 명필가인 동시에 화가하였음.

11 묘시——대단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

12 동학——산천에 싸인 경치 좋은 곳. 여기서는 동향의 잘못으로 인정됨.

13 붕우——벗. 동무.

14 주효——술과 안주.

15 복상——배 우에.

16 매판——댓돌 아래에 까는 짚으로 워어 만든 둥근 방석. 맷방석.

17 필 위——반드시.

18 헤오대——짐작하다. 또는 미루어 생각하다.

19 일정——반드시.

20 연고——까닭.

21 취실——장가 간다는 뜻. «실»은 안해를 말한다.

22 형초——중국 형주에 있던 초나라 땅이란 뜻.

23 공후——봉건 지배 계급들의 고관을 말함.

24 유여——넉넉한 것.

25 재용——재주와 용모.

26 현철——지혜가 있고 사리에 밝은 것.
27 장중——대단히 귀하다는 것.
28 택서——사위를 고르는 것.
29 범연——범연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
30 빙폐——혼인 때 쓰는 례물.
31 공경——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
32 허혼——혼인하기를 허락하는 것.
33 빙물——혼례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례물.
34 일녀——외딸.
35 인륜——사람의 도리에 가장 큰 일.
36 혼취——혼인.
37 이적——몽매한 무리.
38 지환——가락지.
39 택일——좋은 날을 택하는 것.
40 풍광——용모와 풍채.
41 참치——똑 같지 아니한 것. 여기서는 서로 특색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됨.
42 과만——지나치다의 뜻.
43 원앙——자웅이 서로 사이가 좋은 새 이름.
44 비취——새 이름.
45 련리——한 나무 가지가 다른 나무 가지와 서로 련결한 것을 말한다. 부부 또는 남녀의 사이 좋은 것을 말함.
46 쌍망——둘이 다 죽는다.
47 망극——한없이 슬퍼하다.
48 례로——례의와 정성으로.
49 망간——보름.
50 루——다락 또는 2층 3층으로 지은 집.
51 홀연——별안간.
52 고이히——괴상하고 기이한 것.
53 연연——아름답고 곱다.
54 남가 일몽——덧없는 꿈.
55 몽사——꿈에 나타난 일.
56 여차——이와 같으니.
57 귀자——귀한 자식.
58 점지——소위 신이나 부처가 사람에게 자식을 낳게 한다는 것.
59 곤비——괴롭고 가쁘다.
60 이지——일어나지 못 하는 것.
61 상운——경사스러운 구름.
62 쇄소——물을 뿌리고 먼지를 쓰는 것.
63 하강——인간 세상에 내려 온다는 뜻.
64 노복——하인. 종.
65 혼절——까무라친 것.

66 반향——반나절.
67 옥골——용모가 잘 생겼다는 말.
68 비범——남보다 뛰여 났다는 말.
69 년광——나이. 년령.
70 월궁——달 나라에 있다는 선녀.
71 망월——보름 달.
72 운무——구름과 안개.
73 청아——맑고 아담한 것.
74 산호채——바다에 사는 동물. 장식품에 사용.
75 백사——모든 일에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다한다는 것.
76 단수——일찍 죽는 것.
77 저어——두려워 하여.
78 상보난——소위 관상을 본다는 것.
79 정맥——정기와 혈맥의 뜻. 여기서는 자손이라는 뜻으로 해석됨.
80 옥제——옥황 상제. 즉 고대 설화에 등장하던 하늘의 여러 신을 주주 관한다는 미신설.
81 득죄——죄를 짓는 것.
82 초분——소위 초년의 운수.
83 금낭——비단으로 만든 주머니.
84 국운——나라의 운명이란 뜻.
85 금국——녀신족이 세운 나라.
86 황성——서울.
87 진력——힘을 다하여.
88 시신——시체.
89 조선 향화——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것.
90 좋이——잘.
91 옥지환——옥으로 만든 가락지.
92 황망——어리둥절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것.
93 애곡——슬피 우는 것.
94 무상——떳떳하지 못한 것.
95 함루——눈물이 그렁그렁한 것.
96 잔잉——잔인에서 온 말인데 여기서는 애처롭다의 뜻.
97 배회——정처없이 돌아 다니는 것.
98 병란——란리.
99 개유——알아 듣도록 타이르는 것.
100 애상——슬퍼하는 것.
101 만뢰——만물이 모두다 고요한 것.
102 조요——밝게 비치는 것.
103 청조——고대 설화에 나오는 소식을 전한다는 것.
104 전각——궁전의 집들.
105 의의——아름답고 웅장하다.

106 풍경——처마 끝에 달아 바람에 흔들리여 소리가 나게 하는 물건.

107 청의——푸른 옷 입은 녀아.

108 칠보——칠보는 금, 은, 유리, 파리, 진주, 자거, 마노의 일곱 가지 보배.

109 황금——황금으로 만든 의자.

110 경액——소위 신선 세계에서 마신다는 음료.

111 승명——명을 받드는 것.

112 마노종——마노라는 보석으로 만든 술 담는 그릇.

113 전생——이 세상에 나기 전 세상,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과거라는 뜻.

114 월궁—— 소위 달 가운데 있다는 녀아.

115 고초——고생.

116 력력하니——똑똑하다는 뜻.

117 명사계——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죽어서 간다는 곳.

118 후토——소위 땅을 다스린다는 신.

119 백골——죽어도 잊을 수 없다는 뜻.

120 속하압고——재물을 내서 죄의 용서를 받아 놓이는 것.

121 좌하——자리 앞에

122 적거——귀양살이.

123 풍류——원래는 류풍여 운을 말하지만 일반으로는 음악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124 쇄락——가슴 속이 깨끗하고 상쾌하다는 뜻.

125 십왕——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을 맡았다는 십왕.

126 봉래산——설화에 나오는 소위 삼신산의 하나.

127 적강——귀양살이로 내려 오는 것.

128 구끼시게——«죽게»란 말의 존대.

129 규성——별의 이름.

130 고행——여기서는 고생이라는 뜻.

131 액——불행한 기회. 불운한 것.

132 부상——해 뜨는 곳. 동쪽.

133 금계——금빛 닭.

134 장량의——류 방을 도와 한 나라를 세우도록 한 사람.

135 후예——자손.

136 명망——이름과 인망.

137 휘종조——송 나라 휘종 황제 시대(1101—1125).

138 간신——간사한 신하가 옳은 사람을 해치려고 나쁜 말로 고자질 하는 것.

139 원중——동산 가운데.

140 괴히——괴상히 여겨.

141 이타——이상스럽다.

142 청려장——소위 신선이나 은사가 집는다는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

143 추연——슬퍼하고 근심하는 모양.

144 기출——자기 자식.

145 이러구러——이럭저럭.

146 동동촉촉——《동동》은 얌전하고 정성스럽다는 뜻이며 《촉촉》은 공손하다는 뜻.

147 숙흥야매——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잔다는 뜻.

148 겸찰——살피고 참견하여.

149 가계——살림이 넉넉하다는 뜻.

150 뒤웅——천덕군이라는 형용. 뒤웅이는 속을 긁어 빈 바가지.

151 길조——길한 징조.

152 괘——소위 점괘를 말한 것.

153 불락——즐겁지 아니하다는 뜻.

154 설연——잔치를 베푼다는 뜻.

155 침소——거처하는 방. 자는 방.

156 협실——곁에 붙은 좁은 방.

157 금봉차——금으로 봉새를 새겨 물린 비녀.

158 경연——잔치.

159 사핵——조사해 찾아 내는 것.

160 소요——떠들고 야단하는 것.

161 사송——임금이 주는 것을 말함.

162 빙옥——마음이 깨끗하고 절개가 있는 것.

163 기미——낌새. 눈치.

164 세사——세간살이.

165 애중——아끼고 중히 여기는 것.

166 상고——자세히 조사한다는 뜻.

167 성적——화장품 넣는 함.

168 대경——크게 놀라 정신이 없는 것.

169 불관——관계 없다는 뜻.

170 청파——다 듣고 나서.

171 외인——밖에 있는 남자. 외간 남자.

172 통간——간통.

173 불측——헤아리지 못할 고약한.

174 책——꾸짖는 것.

175 기박——불운한 것.

176 사부——량반 차취 계급을 말함.

177 상적——서로 마땅함.

178 상한——상 사람.

179 진노——크게 노하는 것.

180 루수——눈물이 비오듯 하는 것.

181 피석——자리를 물러나 두 번 절하는 것.

182 개결——구결의 뜻.

183 혈혈——외롭다는 뜻.

184 금의 좋은 옷과 맛난 음식.
185 간뇌——참혹하게 죽는다는 뜻.
186 갈력——힘을 다하여 받드는 것.
187 만만——전혀 뜻밖에.
188 도시——도무지.
189 반간——리간을 붙인다는 뜻.
190 발명——변명하는 것.
191 언파——말을 마치고 나서.
192 자문——자살하는 것.
193 언어 강개——슬퍼하며 탄식하는 것.
194 간인——간사한 사람.
195 측연——불쌍이 여기는 것.
196 배사——절하고 사례하는 것.
197 경히——경솔하다는 뜻.
198 사족——량반 계급.
199 대화——큰 화.
200 망조——어쩔 줄 몰라서.
201 종횡——눈물이 하도 떨어지는 모양을 말함.
202 천의——하늘의 뜻.
203 도채——도끼.
204 중보——값진 보배.
205 주찬——술과 안주.
206 하면목——무슨 면목으로. 무슨 낯으로.
207 망망——아득하다는 뜻.
208 박명——불행한.
209 바장——배회하는 것.
210 안한——평안하고 한가한 것.
211 축화——쫓아 내는 화.
212 차석——한탄하고 아까와하는 것.
213 련엽——소위 신선들이 탄다는 련꽃 잎사귀 모양으로 된 배.
214 천금지신——천금 같이 귀한 몸.
215 려 동빈——당 나라 사람인데 전설에 팔선의 하나라고 함.
216 석년——옛날에.
217 옥종——옥으로 만든 술잔.
218 조회——임금을 보러 모이는 것.
219 락양——중국 하남성에 있는 지명. 옥중은 감옥 가운데.
220 사액——죽을 횡액.
221 태을——별의 이름. 북진의 신의 이름이라고 한다.
222 고공——더부살이.
223 류리표박——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것.
224 화식——불 때서 익힌 음식.
225 호로병——표주박 모양으로 된 병, «호리병»이라고도 한다.
226 태을진군——소위 신선 이름.

227 창화——서로 부르는 것.
228 월령단——소위 선약 이름.
229 로전——갈대 밭.
230 심원——대단히 멀다는 뜻.
231 두달——도달하는 것.
232 천태산——중국에 있는 산 이름.
233 마고——소위 옛날 녀자 선인을 가리킨 말.
234 동정 귤——귤 이름.
235 동다히로——동쪽으로.
236 반감——거나하게 취하는 것.
237 미과——미과는 끝을 맺지 못 한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미련하다는 뜻으로 사용한 듯함.
238 전도——꺼꾸러지는 모양.
239 급문——급히 묻는 것.
240 종종거려——종알거려.
241 정설——남녀 간의 다정한 이야기.
242 읫지——읫결고.
243 행지——거동. 행동.
244 옥석——착한 것과 악한 것을 가린다는 뜻.
245 선승——중을 높여 부르는 말.
246 부촉——부탁을.
247 내각——안채. 안방.
248 신원——원통한 것을 푸는 것.
249 협사——반짓고리(바느질 그릇).
250 간정——간사한 사정이라는 뜻.
251 천암——하늘과 땅이 어두워지는 것.
252 황황망조——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
253 동패——큰 횃불.
254 소루——주의가 부족한 것.
255 아혹——의혹과 같음.
256 유유——멀고 먼 푸른 하늘.
257 탐필——다 보고 나서.
258 차악——놀래여 근심하여 탄식하는 것.
259 식음——먹지도 마시지도 전혀 하지 아니하는 것.
260 화원——그림 그리는 사람.
261 수정——물 가에 있는 정자.
262 장사——중국 호남성에 있는 지명.
263 경국지색——절세의 미인.
264 연화——연기와 불이 하늘에 가득 찾다는 뜻.
265 명천——맑은 하늘이라는 뜻.
266 죽장——대 지팽이.
267 선옹——소위 신선 가온데 늙은이.
268 화덕진군——소위 우뢰를 맡았다는 화신.

269 난다——낳았느냐.
270 자——자주.
271 아미——어여쁜 눈섭.
272 광한전——달 속에 있다는 궁전.
273 기이리까——속이리까.
274 비자——벼자종.
275 채련——련을 캐는 것.
276 사창——엷은 생견으로 바른 창.
277 호박 주추——소나무와 잣나무 등의 수지가 화석으로 된 것인데 귀중품.
278 《료지 보배로》——요지는 서왕모라는 신선의 궁전 원녕에 있다는 련못. 보배료는 정자의 이름인듯.
279 련——임금이 타는 승교.
280 오백 라한——아라한이라고 말하는 부처의 이름.
281 시위——왕을 호위하는 일.
282 팔진경장——팔진은 성대한 식상에 갖추어 놓는다고 하는 여덟 가지 맛 있는 음식.
283 륙각——북, 장고, 해금, 대평소 피리 등인데 즉 육자비라고 한다.
284 수한——수명의 한정이라는 뜻.
285 남두성——남두 륙성은 수명을 맡은 별이라고 한다.
286 반도——고대 설화에 나오는 서왕모와 관련 있는 복숭아인데 삼천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다고 함.
287 복지——땅에 엎드리는 것.
288 두루힐——돌이킬 때.
289 대찬——크게 칭찬하는 것.
290 중가——비싼 값.
291 광문——탐문하는 것.
292 어시——이에 있어서.
293 병부——군사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의 우두머리.
294 문무——글 재주와 무예를 다 가지고 있다는 말.
295 봉하시고 국사를 맡기려——봉건 시대에 제후에게 령지를 주는 것. 또는 직위를 주는 것.
296 조종——조상이라는 말.
297 차언——이 말을.
298 령험——소위 신부의 신령스러운 효험.
299 재계——부정을 꺼리고 몸을 깨끗이 하는 것.
300 차생——이 세상.
301 상공——봉건 시대 벼슬 높은 사람에게 대한 경칭.
302 헌공——공을 들이는 것.
303 잉태——아이 배는 것.
304 익년——다음 해.
305 오시——낮 열두시부터.

306 부사——더러운 집.
307 가음아난——말아 보는.
308 경의——봉건 시대에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쓰던 말.
309 짐이——황제의 자칭 대명사.
310 공경——봉건 시대의 벼슬이 높은 관료배들을 말함.
311 택부——며느리를 고르는 것.
312 위의——위풍.
313 삼태성——별의 이름인데 옛날에 삼공에 비했다.
314 근시——가까이 모시는 것.
315 소연——분명하고 똑똑하다는 뜻.
316 봉승——받든다는 말.
317 암암——눈에 아른거린다는 뜻.
318 남성——중국 강서성에 있는 땅 이름.
319 찬——서화에 글제로 쓰는 것.
320 경아——놀래여 의심하는 것.
321 수족자——수 놓은 족자.
322 유산합—— 산 놀이.
323 청삼——푸른 웃 옷.
324 좌정——자리를 정하고.
325 망계——망령된 계교.
326 부마——임금의 사위.
327 서랑——사위.
328 만승——임금의 딸이라는 뜻.
329 남양땅——중국 하남성에 있는 땅 이름.
330 폐필——인사를 마치고.
331 령녀——남의 딸을 존대하여 말한 것.
332 향명——이름의 미칭.
333 청파——다 듣고 나서.
334 학생——후배가 선배에게 대하여 자기를 가리켜 하는 말. 여기서는 자기를 낮추어 쓴 말.
335 실산——흩어져서.
336 추탁——다른 일로 핑계하는 것.
337 로부——늙은이들이 겸손하게 자리를 가리키는 말.
338 병체——병 들은 몸.
339 로옹——늙은이.
340 향촉——제사에 쓰는 향과 초.
341 저——피리.
342 입엽선——나무잎 만한 아주 작은 배라는 뜻.
343 노감투——노나 끈으로 만든 탕건.
344 초당——안채와 따로 떨어져 있는 집.
345 유주영준——술이 동이에 가득 찼다는 말.
346 신사——봉건 시대에 《시골 사는 사대부》 또는 고향에 와 있는 벼슬한 자들을 가리킨 말.

347 정색——안색을 바르게 하는 것.
348 징험——징조를 경험하는 것.
349 삼산——온 천하라는 뜻.
350 공후——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의 집안.
351 택취——골라 취하는 것.
352 산의——벼슬의 이름.
353 혼수——혼인에 드는 비용.
354 구간——집안이 가난하다는 말.
355 좌복——벼슬의 이름. 좌복야 우복야가 있음.
356 성정——성품.
357 기구——의식이 례법 대로 갖추어 있는 것.
358 빈객——손님.
359 전안지례——혼인 날 신랑이 신부집에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식을 지내는 것.
360 교배——혼인 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하는 것.
361 견권지정——서로 잊을 수 없는 깊은 정.
362 권기차——거두어 가지고 돌아 오는김에.
363 변방일——변경(국경지방)과 같음.
364 관채——고을에서 보내던 관노, 하리, 사령, 장교 등을 말함.
365 불문곡직——잘 잘못을 묻지 않고.
366 아문——관가와 같음.
367 등촉——촛불.
368 좌기——나앉아 일을 보는 것.
369 고혹케——남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
370 원치——원망하지 말고.
371 태수——부를 다스리는 원을 태수라고 부름.
372 집장——곤장으로 죄인을 치는 일을 맡아 보던 사령.
373 청촉——청탁 또는 부탁.
374 취처전——장가 들기전.
375 작첩——첩을 얻는 것.
376 적악——악한 일을 거듭하는 것.
377 명목지——눈을 감지 못 하는 것.
378 혈적——피로 쓴 글씨.
379 사의——말 뜻.
380 경선히——급하게.
381 수말——시종. 처음과 끝.
382 장매——큰 누이.
383 내아——관가의 안채.
384 하옥——옥에 가두고.
385 계양 태수——중국 호남성에 있는 지명.
386 로야댁——벼슬이 높은 늙은이에 대한 존칭.
387 하당——집안에서 뜨락으로 내려 서는 것.

388 문후——문안.
389 동기——형제간.
390 절제——함부로 억누르는 것을 말함.
391 저저——녀형 누님.
392 사제——동생.
393 대단히——썩 빨리.
394 아자——아들이 원기가 왕성하여.
395 경사——서울.
396 좋이——잘.
397 지완치——늦추지.
398 불고이취함——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장가 드는 것.
399 태학——봉건 시대의 국립 최고 학부를 말함.
400 만단——만 가지나 되는 애정 이야기라.
401 배사——절하며 사례하는 것.
402 안활——편안히 산다는 뜻.
403 빙염——렴해서 묻는 것. 렴은 시체를 씻고 새 옷을 입힌 뒤 베로 싸서 묻는 것.
404 관곽——관.
405 청방——개의 일종. 청삽살.
406 차설——각설과 같은 의미.
407 제전——의식을 구비한 제사와 의식을 생략한 제사.
408 서안——책상.
409 체읍——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난 것.
410 표박——사방으로 떠돌아 다니는 것.
411 천우신조——하늘과 귀신의 도움이라는 뜻.
412 혈혈——외로워서 의지할 곳이 없는 것.
413 여액——남은 재액.
414 상천——하늘로 올라 가니 죽으니.
415 관망——먼 하늘을 바라 본다는 뜻.
416 비회——슬픈 마음.
417 일봉——서찰 한 장의 편지.
418 옥안——아름다운 얼굴.
419 사렴——생각하는 것 또는 우려하는 것.
420 몽상——꿈에도 생각지 않던 바에 또는 뜻 밖에.
421 평부——평안한지 안 한지.
422 약수——수세가 약해서 기러기 털도 오히려 가라 앉는다는 물인데 중국 전설에 나옴.
423 고고한——외롭다는 뜻.
424 회포——생각하는 마음.
425 흥진——흥이 다하면 슬픔이 오고, 쓴 것(고생)이 다하면 단것(즐거움)이 온다는 뜻.
426 혈마——설마.
427 방목——과거 급제자의 성명을 기록한 책.

428 옥보반신——녀자의 걸음과 몸을 형용한 말.
429 안보——건강에 주의하라는 뜻.
430 오렬——목메여 우는 것.
431 황성——서울.
432 료원——멀다는 뜻.
433 발섭——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것.
434 강포지욕——겁탈당하는 치욕.
435 좌사——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는 것.
436 백계——아무 도리가 없다는 뜻.
437 모골——무서워서 몸을 소스라뜨리는 모양. 송연은 소름이 끼치는 모양을 말함.
438 망지소위——어찌할 줄 모른다는 뜻.
439 수탐——찾은 것.
440 황황——급해서 쩔쩔 매는 것.
441 지완——더디게 하다가.
442 야심——밤이 깊다는 뜻.
443 창두——하인.
444 유부——유모의 남편.
445 사환——심부름'군.
446 수명——명령을 받아서.
447 기인——그 사람.
448 여한——남은 한.
449 련좌——같이 죄에 빠지는 것.
450 비경——가볍지 않다는 뜻.
451 하리——아전.
452 일승교자——한 사람을 태워 앞뒤에서 메고 가는 승교.
453 자탄——스스로 탄식한다는 것.
454 천신——천한 몸.
455 불긴——필요치 않다는 뜻.
456 리부——리씨 집.
457 향촉——향과 초.
458 병좌——나란이 앉았다는 말.
459 동지——행동.
460 색태——얼굴과 태도.
461 호안——미인이 복이 없다는 말.
462 만첩——만 겹으로 싸인 근심이라는 뜻.
463 척탕할진대——깨끗이 씻어 버리는 것.
464 장강——중국 춘추 시대 위 나라 미인의 이름.
465 염용——옷깃을 단정히 하고 몸을 도사리고 앉는 것.
466 무휼——불쌍히 여겨 원호하는 것.
467 발명——변명.
468 사액——죽을 액.
469 하명——명령을 내리여.

470 량구후——한참 있다가.
471 정실——본 부인.
472 백사——모든 일.
473 진선——더할 여지 없이 좋고 아름다운 것.
474 기명——그릇과 가구.
475 혀——헤아리되, 생각하되.
476 수운——싫어 옮기는 것.
477 침선——바늘질과 길쌈질.
478 두류——머문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돌아 다녔다는 뜻으로 씌였음.
479 무색——물건에 빛이 없거나 면목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좋지 못 하다는 뜻.
480 침재——바늘질하는 재주.
481 수품——솜씨.
482 경아——놀라서.
483 패초——승지(벼슬 이름)가 왕명으로 신하를 부르던 것.
484 치행——행장을 꾸리는 것.
485 흉배——관복의 가슴과 등에 붙이는 수 놓은 물건.
486 창졸——썩 급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갑자기라는 뜻.
487 시좌——모시고 앉는 것.
488 대인——아버지를 가리킨 말.
489 일품——리조 시대 벼슬아치들의 첫째 등급인데 정, 종의 구별이 있었다.
490 종야——밤새도록.
491 정당——대청.
492 조사——나라의 정치.
493 주달——왕에게 말하는 것.
494 칭선——칭찬한다는 뜻.
495 상사——상으로 준다는 뜻.
496 사은——은혜를 사례하는 것.
497 성상——임금의 명령을.
498 상소——임금에게 글을 써서 올리는 것.
499 설과——과거를 베푸는 것.
500 의윤——진의한 것을 임금이 허가하는 것.
501 과장——과거를 보는 시험장.
502 장원——과거에서 첫째로 급제한 사람.
503 동탕——얼굴이 잘 생긴 것.
504 헌앙——헌거로운 것, 의기가 당당한 것.
505 기애——기특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506 한림학사——학문하는 선비들이 임금께서 내리던 사명을 짓는 일을 맡아 보던 벼슬 이름.
507 제수——임금이 직접 관리를 임명하는 것.
508 영친——어버이를 영화롭게 하고 조상 산소를 쓸며 제사 지내는 것.

509 통박——침통박절이란 뜻 즉 매우 간절하다는 뜻.
510 유명간——죽든지 살든지.
511 현달——벼슬과 명망이 높은 것.
512 절——절개, 절조.
513 본부——본 집. 자기 집.
514 소년 등과——소년으로 과거에 급제한 것.
515 영효——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효도.
516 문호——집안.
517 열친진도——부모의 마음을 기쁘게하는 도리.
518 행역——나그네의 고생.
519 공수——공경하는 뜻을 표하기 위하여 두 손을 합하는 것.
520 천부——천한 사람. 자기를 낮추어하는 말.
521 이우——남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
522 촉상——추운 기운이 몸에 닿아 병이 나는 것.
523 신기——정신과 혈기.
524 거지——행동.
525 청운——높은 벼슬.
526 족답——발로 밟는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지낸다는 뜻.
527 무비——견줄만한 것이 없다는 뜻.
528 조운모월——아침 구름과 저녁 달.
529 비월——가슴이 답답하다는 뜻.
530 구고——시부모.
531 탐탐——썩 좋다는 뜻. 또는 마음이 빠지는 것.
532 치위——상중에 있는 사람을 위문하는 것.
533 희불자승——기쁨을 스스로 이기지 못 한다는 뜻.
534 탄상——감탄하면서 구경하는 것.
535 녀복야——녀관의 품제.
536 성친——결혼하여 친척이 되는 것.
537 적년——여러 해 쌓인 마음.
538 시봉감지——시봉은 부모를 모시는 것. «감지»는 아들이 부모 봉양하는 물건을 말함.
539 남아——사나이가 출세한다는 의미.
540 사군지일——임금을 섬기는 일은 많고 어버이 섬기는 일은 적다.
541 갈충복구——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한다는 뜻.
542 유방백세——꽃다운 이름을 백세에 끼친다.
543 결연——실망한다는 뜻.
544 일신——한 몸의 영예로운 지위.
545 숙덕——숙녀의 덕행.
546 처단——처리하고 결단하는 것.
547 사량——생각하여 헤아리는 뜻.
548 기근——주림을.
549 량민——인민을 말함.

550 상——임금.
551 현재——어진 사람.
552 세황——흉년.
553 무재——재주가 없고 덕이 없다는 뜻.
554 진무——민심을 진정시키며 잘 살펴 위로하는 것.
555 자사——중국에 있었던 지방관의 하나.
556 발송——보낸다는 뜻.
557 충즉——충성스럽다면 생명을 바쳐가며 복무한다는 뜻.
558 행도——가는 길.
559 리친지정——부모를 떠나는 정.
560 봉친지절——어버이를 받드는 절조를 감당하기 어렵다.
561 충효쌍전——충성과 효도를 둘다 보존하는 것.
562 물념——생각 말라는 뜻.
563 총총——바쁘다는 뜻.
564 휘동——지위 선동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휘두르며 위엄을 부린다는 뜻.
565 점고——점을 찍어 가며 사람의 수를 조사하는 것.
566 출척——벼슬의 등급을 내리고 올리는 것. 즉 어떤 사람은 내쫓고 어떤 사람은 등용하는 것.
567 창곡——창고의 곡식.
568 진휼——흉년에 곤궁한 인민을 원효하는 것.
569 교유——가르쳐 깨우친다는 뜻.
570 무비——인덕이 아닌게 없다.
571 열복——기뻐 복종한다는 뜻.
572 순행——지방을 순시하는 것.
573 권농——농사를 장려하는 것.
574 효제——효도하고 우애하고 충성하고 벗에게 신의가 있는 도리.
575 격양가——태평한 시기를 즐기는 노래.
576 내행——먼길 가는 녀자.
577 렬읍——여러 고을.
578 요천순일——태평한 세월.
579 행리——려행 도구.
580 석사——옛 일.
581 유유한——그윽한 또는 하염 없는.
582 설제——제사 지낸다는 뜻.
583 대후——웃사람의 명령을 기다린다는 뜻.
584 청령——명령을 듣고.
585 양진——물 이름.
586 제인——모든 사람.
587 청아——맑고 아담한.
588 모로미——반드시 모름지기.
589 기갈——배 고픈 것과 목 마른 것.

590 하처——숙소에 대한 존칭.
591 부성——부하고 성한 즉 호화스럽다는 의미.
592 진수성찬——맛 있는 좋은 음식.
593 하저——젓가락질을 하고.
594 찬성——식찬 그릇이라는 의미로 썼음.
595 존가——상대자의 집안에 대한 존칭.
596 루인——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말. 즉 루추한 사람이라는 뜻.
597 참경——비참한 정경.
598 거야——지난 밤.
599 대기——삼년째의 제사.
600 지원——지극히 원통하다는 뜻.
601 방성——소리를 내여 크게 통곡한다는 뜻.
602 왕사——지나간 일.
603 은휘——숨기는 것. 꺼리여 피하는 것.
604 친생지녀——친히 낳은 딸.
605 호발도——터리만큼도.
606 청사——푸른 사(비단 이름)를 비스듬하게 늘어뜨리고.
607 상탁——책상과 탁자.
608 감은각골——은혜에 감동하여 뼈에 새기는 것.
609 가군——자기 남편.
610 권렴——간절히 생각하는 것.
611 구축——쫓아 내는 것.
612 설화——이야기하는 것.
613 빈한 고락——가난하고 고생스러우며 즐거운 것.
614 근로——부즈런히 일하는 것.
615 오작——까막 까치.
616 궁뇌——활과 쇠니(여러 가지 화살을 단번에 쏘는 활)
617 행거——가는 수레.
618 송성——공덕을 칭송하는 여론이.
619 훤자——여러 사람의 입에 자자하게 전해지는 것.
620 양양——중국 호북성에 있는 지명.
621 선시——먼저 때에.
622 선 불선——착하고 착하지 않은 것.
623 파직——관직을 파면하는 것.
624 승차——관직이 올라가는 것.
625 승직——직책을 올리는 것.
626 하이니——«시키다»의 옛 말.
627 치죄——죄를 다스린다는 뜻.
628 의혹——의심하여.
629 만모치——만만히 여기며 업수이 여기는 것.
630 공수 배례——합장 배례와 같음. 즉 두손을 합하여 절하는 것.

631 공수 시립——모시고 섰다는 뜻.
632 행객——나그네.
633 행색——나그네의 모양.
634 통모——외람히 굴며 업수이 여기는 것.
635 차언——이 말.
636 금작——금색의 까치.
637 연즉——그런즉. 그러면.
638 진심——마음껏 다 하여.
639 지향——마음 가는 곳 즉 마음을 쏠리게 한다는 뜻.
640 변색——노하는 것.
641 익노——더욱 노하는 것.
642 아래——먼저.
643 구기——괴롭게 지내던 또는 살림살이가 어렵던.
644 소경사——지나온 일.
645 명심불망——마음에 새겨 잊지 않는 것.
646 천기——천지 조화의 심오한 비밀 또는 의사.
647 루설——샌다는 뜻.
648 춘몽——덧 없는 봄 꿈.
649 아중——관아. 즉 관청.
650 비한——슬프고 한스러운 것.
651 앙천장탄——하늘을 쳐다보고 길이 탄식하는 것.
652 사무여한——죽어도 나머지 한이 없다.
653 사세——일의 형편이 처리하기 어려운 것.
654 침상일몽——자리 우에서 꾼 꿈.
655 유련——객지에서 묵고 있는 뜻.
656 실내——남의 안해.
657 실내다려——안해라는 뜻으로 사용했음.
658 사처——자리를 잡고.
659 갑사——갑옷 입은 군사.
660 전차——여러 사람이 앞뒤에서 모시고 가는 것.
661 장년——장념은 경대의 뜻이나 여기서는 칠보로 곱게 꾸몄다는 뜻으로 씌여 있다.
662 정렬——정경 부인의 오기인듯. 리조 시대에 량반 관료배(문무관)들의 안해의 품계에 정경 부인이란 품계가 있었다.
663 금덩——승교의 한 가지. (리조 시대에는 공주 옹주가 탔다.)
664 객사——궐패를 모시여 두고 다른 곳에서 오는 관원을 대접하고 묵게 하던 집.
665 부리——사람을 시켜 전한다는 뜻.
666 심심——매우 깊다는 뜻.
667 불감——감히 할 수 없는 것.
668 년기——년령.
669 존장——어른.

670 년치——나이.
671 휘루——눈물을 흘리는 것.
672 인자——사람의 자식.
673 비척——슬프고 애닯다는 뜻.
674 진적——확실치 않다는 뜻.
675 봉채——봉치. 혼일 전날 밤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함을 보내는 례. 함 속에는 치마 감 두 채를 넣었다.
676 일호——조고마한 잘못.
677 신고——이런 고로.
678 궁굴——딩굴며.
679 회불자승——기꺼워 어쩔줄 모르는 것.
680 여취여광——술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미친 것 같기도 하다는 뜻.
681 락봉연——상봉을 즐기는 잔치.
682 간릉——중국 호북성에 있는 지명.
683 간의——론의를 맡아 보던 벼슬.
684 수유——말미 쉬는 것.
685 빙장도——장인의 존칭.
686 내직——서울 안 각 기관의 벼슬.
687 약장——장인.
688 치민——백성을 다스리는 것.
689 도모——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수단 방법을 꾀하는 것.
690 입궐——임금한테 들어 가 은혜를 사례하기 위하여 공정히 절하는 것.
691 상소——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것.
692 동품——벼슬의 품계가 같다는 뜻.
693 비답——상소에 대한 임금의 대답.
694 돈수사양——머리를 조아리는 것.
695 인견——만나 보시고.
696 서용——사정을 돌아 보아 용서하는 것.
697 과상치——지나치게 상심한다는 뜻.
698 백료 여러 관원들.
699 차일 천마.
700 표표——바람에 가겹게 날리는 것.
701 생소——《생》《소》는 악기의 이름. 《고악》은 악기를 두드려 소리내는 것을 말한다.
702 금수——비단에 수 놓은 병풍.
703 기용집물——그릇들과 도구들.
704 문무——여러 문관 무관.
705 하례——치하.
706 음률——음악.
707 소호——조금.
708 칠현금——일곱 줄로 된 거문고.

709 단봉——붉은 봉황.
710 구소——하늘을 말함. 즉 공중이라는 뜻.
711 률성——음악 소리.
712 초로——풀에 맺힌 이슬.
713 부운——뜬 구름.
714 풍상——긴 세월에 걸친 세상의 고생.
715 성은——임금의 은혜가 크고 두려움이여.
716 작위——벼슬.
717 취홍——취한 홍취.
718 청양——청향의 잘못인듯. 맑은 소리의 뜻.
719 일모——날이 저물고 길이 어둡다는 뜻.
720 벽제——귀인이 외출할 때에 여러 사람의 통행을 금하는 것
721 추종——상전을 따라 가는 마부 또는 하인.
722 격린——이웃하여 근처.
723 시서——시, 글씨 또는 시와 글.
724 시인——그 시대 사람.
725 지엽——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하리라.
726 대현——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
727 불사이군——사기 전선전에 있는 말로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정렬이 있는 녀자는 두 번 남편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
728 타문——다른 집.
729 침음——무엇을 깊이 생각하느라고 얼마 동안 있다가.
730 도시——모두가다.
731 회호장탄——슬퍼하며 길이 탄식하는 것.
732 교령——명령.
733 수화——물불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뜻.
734 지어——이 일에 이르러서는.
735 만사무석——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뜻.
736 도로혀지——돌이키지.
737 우민——근심하고 번민하는 것.
738 어전——임금 앞.
739 참괴——부끄러운 것.
740 학생——원래는 벼슬 아니한 사람에 대한 존대인데 여기서는 자칭 대명사로 사용되였음.
741 발명무——무죄함을 변명할 길이 없는 것.
742 불민——민첩지 아니한 것.
743 고두——이마를 조아리고 여쭈기를.
744 성교——임금의 가르침. 임금의 말.
745 절행——절개와 행실.
746 고인——옛 사람.
747 금지옥엽——임금의 한 집안.
748 위월——위반하겠습니까.
749 조현치——신하가 임금께 뵈는 것.

750 명초——왕명으로 신하를 부르는 것.
751 정색——얼굴 빛을 바로 하고.
752 기망——남을 속이는 것.
753 불미지사——아름답지 못 한 일.
754 국척——임금의 일가.
755 가중——집안을 어지럽히면.
756 오문——우리 집 청렴한 덕이.
757 불승——분하고 한됨을 이기지 못 하여.
758 만조——온 조정.
759 빈도——중이 자기를 낮추어 하는 말.
760 운유——뜬구름 같이 떠다니는 것.
761 도사——원래는 소위 도교를 맡은 사람을 말하나 여기서는 중을 가리켰음.
762 침약——침과 약.
763 개언초——말을 하게 한다는 가상적인 선약.
764 게안주——눈을 뜨게 한다는 가상적인 선약.
765 조신——조정의 신하.
766 연기언하사——그 말이 그렇다 하고.
767 면관——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
768 종남——원래는 산명이나 여기서는 남녘 끝을 말함.
769 회환——돌아옴이.
770 지속——늦고 빠름을.
771 기필치——확정하여 틀림이 없는 것.
772 행도——가는 길.
773 천의——하늘의 뜻.
774 심두——마음에.
775 지세——땅세도.
776 환후——병.
777 황명——임금의 명령.
778 홍포관대——홍포는 강사포인데 의식 때 임금이 입던 예복이나 여기서는 붉은 도포로 사용되였음. 관대는 관과 띠.
779 세전지보——대대로 전해 오는 보배.
780 신물——먼길 가는 사람에게 주는 물건.
781 야채——소위 두억신이라는 악귀의 일종.
782 훤화지성——귀 아프게 떠드는 소리.
783 곤룡포——룡문을 수 놓은 임금의 정복. 곤복, 룡포라고도 함.
784 통천자금관——통천관은 임금이 정무를 보고 조칙을 내릴 때 쓰던 관. 자금관은 금관의 일종.
785 백옥홀——《홀》은 관복을 입을 때 바른 손에 들던 패쪽.
786 가적송구——가적송구인 듯한데 미상. 여기서는 두렵다는 뜻으로 사용되였다.
787 전——여기서는 대청우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788 두우——별의 이름.
789 소졸——전사.
790 존위——원래는 면 리의 어른이나 여기서는 상대자의 칭칭.
791 득달치——목적에 이른다는 뜻. 또는 도착한다는 뜻.
792 과려치——너무 걱정한다는 뜻.
793 래두——이제부터 앞. 미래 또는 장래.
794 선로——소위 신선이 다니는 길.
795 맨도리——몸을 치장하는 것.
796 일광로——미상.
797 령거——거느리고 가는 것.
798 표주——표주박처럼 만든 작은 배.
799 회회국——옛날 중앙 아세아에 있었던 나라 이름.
800 정성——별 이름 이십 팔수의 하나.
801 호밀국——가상적인 나라 이름.
802 필성——별 이름. 이십 팔수의 하나.
803 일선군——소위 신선의 이름인 듯 한데 미상.
804 답인——관인을 찍는 것.
805 이십팔수——옛날 천문학에서 스물 여덟에 나눈 별.
806 유구국——일본의 남쪽과 대만 동북 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
807 기성——별의 이름 이십 팔수의 하나.
808 교지국——지명. 월남 북부에 있는 동경주를 말함.
809 규성——별의 이름. 이십 팔수의 하나.
810 령산——신령스러운 산.
811 부의국——가상적인 나라 이름.
812 진성——별의 이름. 이십팔수의 하나.
813 부작——소위 불교 도교들에서 기도할 때에 이상한 글자를 쓴 종이.
814 명합——이름. 성명을 적은 종이.
815 관역——사관과 역. «역»은 공문을 전단하고 공용의 말을 이바지하던 곳.
816 십주——한 무제가 서왕모에게 들었다는 환상적인 지명.
817 진 시황——주를 대신하여 중국을 통일시킨 임금(221년).
818 한 무제도——한 나라의 7대 임금.
819 몰신로록——축도록.
820 파초선——파초로 만든 배. 파초는 다년생 열대 식물.
821 당 현종——당 나라의 6대 임금 당명황이라고도 함.
822 진세——이 세상의 속된 나그네.
823 가마귀——흑백을 가리지 못 한다는 뜻.
824 학창의——빛이 희고 소매가 넓고 가를 흑색으로 꾸민 웃옷.
825 안기——설화적 인물로 진 나라 사람. 해변 가에서 약을 팔았다고 하며 별호는 표박자.
826 사부님——선생님.

827 직녀궁——직녀는 별 이름인데 천세의 딸로 운금을 짠다는 전설이 있음.

828 장 건이——한 나라 사람으로 중랑장 벼슬을 지냈으며 서역과 교통을 열어 놓았다.

829 《삼산은 반락 청천외오 이 수중 분백로주》라는——리 백의 시의 일절 즉 삼산(산명)이 반쯤 푸른 하늘 밖에 떨어지고 두 물이 백로주를 사이에 두고 갈라졌노라는 뜻.

830 침향 나무——동인도 지방에서 나는 향목.

831 복알——에게 웃사람보이는 것.

832 구정——옛 정.

833 등허선——신선의 이름.

834 방장산——삼신산의 하나. 동해 방장은 혹 지리산을 말하던 시대도 있었음.

835 진상——임금에게 드리는 것.

836 흠모——기뻐 사모하는 것.

837 소용——작은 병.

838 환혼수——개언초 우화환은 소위 선약의 이름.

839 승하——임금 또는 왕비의 죽음을 말함.

840 석상——돌 우에 걸터앉으므로.

841 진전——앞으로 나아가 두 번 절하여 말하기를.

842 심산——깊은 산과 궁벽한 동네.

843 석장——주석 고리를 달은 중의 지팽이.

844 천도——반도를 말함.

845 기화이초——기이한 꽃과 이상한 풀.

846 이향이——이상스러운 향기가.

847 촉비——코를 찌르고.

848 도원—— 복숭아꽃 핀 동산. 무릉도원에서 온 말.

849 명사——이름난 선비.

850 기세——죽는다는 뜻.

851 란심——마음이 어지럽고 절조를 깨뜨린다는 뜻.

852 공송——헛되이 보낸다는 뜻.

853 불충지귀——충성스럽지 않은 귀신.

854 비명——제명이 아닌데 원통하게 죽는 것.

855 수천결——《결》은 논 밭의 면적의 단위.

856 산공——산이 비고 밤이 고요하다는 뜻.

857 불승황홀——황홀함을 이기지 못 한다는 뜻.

858 로구——할미.

859 선망후실——모든 일을 잊어 버리기 잘 한다는 뜻.

860 무양——무사 무병.

861 황황——썩 급해서 쩔쩔맨다는 뜻.

862 장안——중국 섬서성에 있는 지명. 한 나라 서울.

863 경하란——중국 감숙에서 나와서 위수에 합하는 강.

864 전후——전후 사연.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과.

865 불세지공——세상에 다시는 없는 공로. 비상한 공로.

866 주욕신사——임금이 욕을 보면 신하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봉건 시대의 말.

867 여차과도——이와 같이 지나치게.

868 미신——미천한 신하. 신하의 자칭 겸사.

869 역명——역적의 이름.

870 사은——임금의 은혜를 사례하고 조정에서 물러 나온다는 뜻.

871 어악——임금이 사용하는 음악.

872 기구——의식이 법 대로 되도록 됩는다. «기구»는 그릇 세간 연장 등의 뜻도 있다.

873 기약——약조. 약속.

874 희한히——드물게.

875 천은——임금의 은혜.

876 태부——«태부»는 태사(왕세자의 스승)의 다음 가는 벼슬 삼공(3공)의 하나.

877 태자비——황제의 후계자의 안해.

878 정서——«대도독»은 군대를 거느리고 변진의 임무를 맡았던 사람.

879 창검——창과 칼.

880 인의——어질고 옳은 것.

881 상원일—— 정월 15일.

882 전정——앞 뜨락.

883 소졸——전사가 웃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말.

884 유곡촌——마을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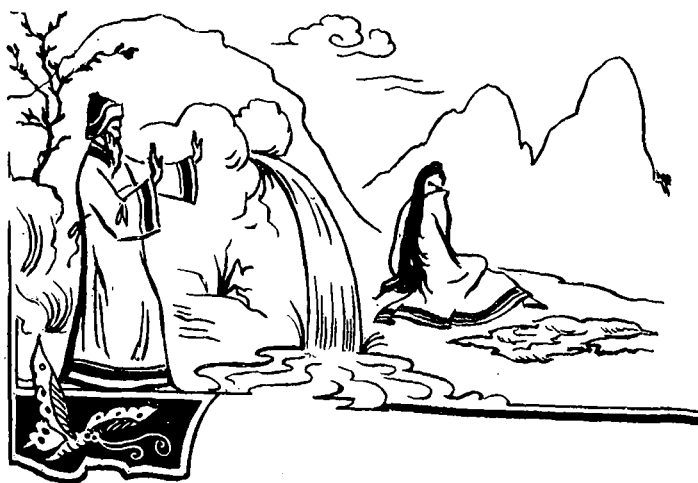
885 소유——까닭.

886 후상——상을 후하게 주고.

887 평서장군——벼슬의 이름.

888 졸하니——죽으니.

889 안장——편안하게 장사하는 것.

배비장전

호남 좌도 제주군은 련화부수[2] 형국으로 남해 중에 돌출하니 그 중에 한나산은 도내 제일 명산이요 탐라[3] 고국 주봉이라, 백천[4]이 조종하고 만악이 경수하여[5] 산정선 수정기로 애랑이가 생겨났다.

애랑이 천상으로 창가[6]에 났을망정 색태는 월 서시[7], 용광은 양 태진[8], 재질은 최 앵앵[9], 가무는 조 비연[10], 천 번이나 요나하고[11] 만 번이나 기이하여 풍류 남자가 한 번 보면 청총[12]을 머물지 않은 자 없더라.

리 태조 등극시[13]에 제현이 배출[14]하여, 문반[15]에 경학지신, 무반[16]에 웅량지장, 제제다사[17], 많건마는 그 중에도 김경이라 하는 량반, 문무가 겸전하여 십 오세에 생원 진사[18] 이십 전에 장원 급제[19], 초입사[20]에 한림 주서[21] 순차로 리조 옥당[22], 승지[23] 당상 방백[24]으로 제주 목사 도

임 길을 떠나려고 륙방 소임[25] 선택할 제, 서강 사는 배 선달[26]을 장막[27]으로 급히 불러 례방 소임 《맡기시니, 배 비장이 집으로 돌아 와서 대부인[28]께 여쭈오되

《소자가 팔도 강산 명구 승지를 낱낱이 보았으되 제주는 도중[29]이라, 시하에 리측키 어려워서[30] 지우금 못 갔더니, 다행히 친한 량반 제주 목사 제수[31]되여 도임[32]길 떠나면서 비장으로 가자 하니 한 번 다녀 오올이다.》

대부인 그 말 듣고 저사위한[33] 말리면서

《제주라 하는 곳이 륙로 천리 수로 천리 이천리 원정에 날 버리고 네 갔다가 불행이 내 죽으면 종신[34]도 못하리니 부대 단념 가지 말아.》

배 비장 여쭈오되

《단망[35]으로 언약함을 어찌 아니 가오리까.》

이 때에 배 비장 실인[36]이 곁에 있다 하는 말이

《제주는 도중이나 물색[37]이 번화하여 자래로 색향[38]이라 만일 그 곳 가셨다가 주색에 몸이 잠겨 회정[39]치 못하오면 부모에게 불효되고 처자에게 못할 일 두루 당합지 않사오니 심량[40] 조처하옵소서.》

《그 일은 념려 마오. 이팔 가인 체사수하니 요간 장검 참우부라, 수연 불견 인두락이나 암리 초군 골수구[41]라 하였으니 대장부 뜻을 한 번 세운 후에 어찌 요만한 녀자에게 신세를 마추리까, 중맹[42]을 하오리니 아모조록 방심하고 어머님께 효양하오.》

즉시 대부인께 하직하고 금마[43]로 나려 간다.

전령패[44] 비껴 차고 영주[45]로 향해 오니 때는 마침 방춘이라, 리화, 도화, 행화, 방초 양류 청청, 록수 잔잔, 만산 화개[46] 경 좋은데, 사면을 둘러 보며 산호금편[47] 권마성에 가는 길을 재촉하여, 연로 각 읍 중화 숙소[48], 강진, 해남, 언뜻 지나 해남 관두 다달으니, 신목사 신연[49] 하인 현신[50] 받은 후 사공 불러 분부하되

《여기서 배를 타면 제주를 몇 시간에 가겠느냐?》

사공이 분부 뫼아[51] 여쭈오되

«일기가 청명하고 서풍이 솔솔 부오면 순류로 돛을 달아 일일 내에도 가겠삽고, 중류에서 불행하여 초풍[52]을 만나오면 안남[53] 면전 표박하기도 쉽사오며, 만일 다시 불행하면 쪽박 없는 물도 먹고, 고기 배에 이사도 하나이다.»

목사또 분부하되

«제주를 당일 내에 득달하면 중상을 줄 것이니 착실히 거행하라.»

사공이 분부 뫼와 순풍을 기다릴 제, 마침 일기 청명하고 서풍이 소슬하니 사공이 질겨라고

«천사[54] 기편하여 순풍이 부사오니 사또 즉시 등선하옵소서.»

목사 대희하여 선뜻 배에 올라 타니 배 차림이 불만하다. 새로 무은 란간 우에 랑청[55]을 번듯 치고, 산수병 모랑병[56]겹겹이 둘러친 후, 포진[57] 장막 배설하고 넌출 비단[58] 모란석에, 채색 놓은 쌍학과[59] 청동 홍로 병타구[60]며, 장침[61], 안석[62], 사방침[63], 전후에 벌렸는데 통인[64] 이하 여러 비장, 이편 저편 갈라 서서 혼금[65]이 엄숙하고, 하인들은 장막 밖에 지위[66]한 후 상선[67]에 고사하고, 상선포[68] 놓은 후에 신왕도에 대풍하여[69], 대해 망망 천리파에 배 띄여라 배 띄여라 조조자락 만조래[70]라 지국총 지국총[71] 어사와 하니 의선 어부 일견고[72]로다.

도사공은 키를 틀고 역군은 아더[73] 틀어 망망 대해 돛을 달아 호호창랑 로화월[74]에 의벼선[75]이 떠나 가듯 둥덩실 떠나 갈 제, 목사 일희 일비하여 술들여라 먹고 놀자, 비장들도 술을 주며 곡강[76] 춘주 인인취라 상하 동락 관계하랴, 너도 먹고 나도 먹자, 목사 취흥이 도도하여 풍월 한 수 지었으되 ‹청천이 도수중 어유 백운간이라›[77]

«이 글 뜻이 어떠한고.»

비장이 대답하되

«예, 매우 좋소, 참으로 경인구[78]요.»

목사 취중에 또 위담[79]한다.

«누구서 제주 배 타기가 어렵다 하던고, 지금 내가 실지 시험을 하여 보니 유쾌하기 한량없다. 그러나 내가 서울서 듣자 하니 끄리 큰 고기가 있어 바다에서 작회[80]가 무쌍하다 하니 그 말이 정말이냐?»

사공이 이 말 듣고 황겁하여 여쭈오되

«소령[81] 개울 방축 못도 지킨 령신이 입삽거든 이러한 대해를 건너시며 취중 과담 마옵소서.»

그 말이 마치지 못 하여 미역섬을 겨우 지나 추자도를 다달으니, 동정서망 초강분에 수진남천 불견운[82]을 창파 만경에 해천[83]이 일색이요 노도 경각에 풍우가 대작하여 동서남북이 묘망무제한[84]데, 집채 같은 큰 물결이 돌바위를 꽝꽝 부수어 내며, 바람을 따라 여기서도 우려령 콸콸, 저기서도 왈랑왈랑, 키 다리 꺾어져 용충줄[85] 마룻대[86] 동강, 고물[87]이 번뜻 이물[88]로 숙어지고, 이물이 번뜻 고물로 기울러져, 뎀벙 뒤뚱 조리질하니 무인 절도에 난파선이 가례 없다.

목사 정신 잃고 비장 하인 혼이 빠져 분주히 뎀벙일제 목사 겁결에 사공을

«고공아[89]아.»

부르니, 사공도 겁을 내여 떨며, 그대로

«예이, 예이, 예헤이.»

대답하니, 목사 그 중에도 노여라고 한 마디 꾸짖것다.

«이 놈아, 량반은 수로에 익지 못 하여 떨거니와, 너는 수로에 익은 놈이 저다지 무서워 떠느냐?»

사공이 더욱 황공하여 되채지 못 하는 말로 여쭙것다.

«소인이 십오세부터 선중에 화장[90]이 되여 흑산도,

대마도, 대부도, 어청도, 칠산, 연평, 팔미도를 수상으로 무른 메주 밟듯, 한 달 삼십일에 스물 아홉 번씩은 다녔사오되 이러한 광경은 처음 당하는 일이오며, 지식은 없사오나 문견은 있사오니 풍랑이 이러하고야 지부왕[91]이 친삼촌, 사해 룡왕이 생붕모이라도 구하기는 딱 무가내하이오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하오!»

이렇듯 황겁할 제, 비장들은 서로 운다. 한 비장이 탄식하되

«북당[92]에 학발 량친[93], 규중[94]에 홍안 처자, 천리 도중 나 보내고 이제 올가 부귀 환향[95]할 줄 알고 날구일[96] 부다릴 제, 한숨인들 적었으며 눈물인들 없을손가. 슬프다 이내 팔자, 부모 처자 영별하고 수중 고혼 죽게 되니, 애다를손 이내 사정 누굴 보고 하소하리.»

비장 하나 또 나온다.

«나는 나이 사십이라 자식 하나 없는 터에 양자까지 못 했으니 선영[97] 향화 전할 곳이 속절 없이 끊쳤도다. 애고 답답 이내 신세 수중 원귀 된단 말가.»

또 한 비장 통곡하며

«나는 형세 가난하여 밥거리나 얻자 하고, 처자 권면 듣지 않고 천리 원정 떠났더니, 밥거리는 고사하고 어복[98] 장신 되겠으니 이 아니 원통한가.»

비장 하나 어이 없어 탄식하여 하는 말이

«나는 집이 다동이라 형세는 유여컨만, 년근 오십 반백자로 환로[99]에 천을 못허 초사[100] 하나 얻으려고 위험함을 무릅쓰고 천리 타향 떠났더니, 노릇이 그릇되여 굴 삼려[101]를 달케 되니 자작얼[102]을 어찌하리. 애고 답답 기막힌다.»

제각기 이렇듯 탄식할 제, 목사또 더욱 경황없어, 이리저리 생각다가 사공 불러 분부하되

«이애, 사공아! 룡왕이 아마 제향[103]을 청하나보다. 급히 고사 좀 드려 보아라.»

사공이 분부 뫼와 영좌, 이좌, 화장, 격군[104], 머리 목욕 정히 하고 허리간에 배석 펴고, 고물에는 기를 달고, 큰 고리에 백미 담아, 목사 상의 벗어 놓고, 왼 소머리, 생돋 잡아 큰 칼 꽂아 들여 놓고, 젯매 공양 올린 후에 섬쌀 풀어 물에 녕며, 도사공의 정성으로 고사 북 크게 울려 두리둥둥 두리둥둥 일심으로 축원한다.

«복이 천지[105] 사이에 바다가 가장 크고 인물 사이에 귀신이 가장 신령한지라, 오직 우리 영주는 조선에 병장[106]이요 바다의 룡신은 성조[107]의 아끼시는 바이라, 모년 모일에 제주목 진명[108] 김 모, 봉명[109] 부임할새 추자도를 겨우 지나매 하백[110]이 홀연 진노하고 동군[111]이 또한 사학하여 일광을 변하여 암계[112]를 이루고 암초를 격하여 풍랑을 일으키니, 바다도 조선의 바다요 귀신도 조선의 귀신이라, 조선 바다와 조선 귀신으로 감히 조선의 명관을 항거함은 리치에도 당치 않고 의리에도 마땅치 않도다. 귀신이 어찌 신령치 않으며 바다가 어찌 헤아림이 없으리오. 오늘날 일은 바다와 룡신의 지은 바가 아니요 생각컨대 모든 잡귀의 작얼인[113] 듯하오니 동해 광연, 서해 광덕, 남해 광리, 북해 광택, 사해 룡왕[114]은 이 일을 밝게 통찰하사 물 우의 잡귀를 구축하고, 앞 길의 순풍을 인도하사 일선중 사람이 무사히 제주성하에 득달키를 천만 복축하나이다.»

두리둥둥 두리둥둥 고사를 파한 후에 목사 자탄하는 말이

«생은 기요 사는 귀[115]라 하우씨 앙천탄[116]을 내게다 붙였도다.»

일식경은 선풍이 황황하더니 이윽고 월색이 교결[117]하고 풍랑이 돈식[118]하는지라, 목사 대희하여 수궁을 바라보고 남향 사배하며 무수 칭사한 후, 옛글 한 귀를 읊어내니 ‹일발청산 부취색에 대붕비진 수여람이라, 자연

거수 승거산을 옛말로만 들었더니 삼공불환 차강산[119]을 근일이야 알리로다.›

어언간 순풍 따라 제주성하 다달으니 지세도 좋거니와 풍경도 아름답다. 초강에 어부들은 고기 낚아 회를 치고 전간에 농부들은 술 부어 권하면서 격양가[120] 한 소리로 성은[121]을 축하하여 련호만세 한 연후에 신관 사또 구경코저 전후로 모여 섰다.

목사 배에 내려 사면을 살펴 보니 란산 잔록[122]은 화병[123]을 둘렀는 듯, 주란 취각[124]은 반공에 솟았는 듯, 제일 명승 망월루에 재자 가인[125] 상대하여 련련 리별 락루한다.

이 때 구관은 교체되고 신관은 도임이라, 구관 사또 신임하던 정 무장이라 하는 비장, 수청[126] 기생 애랑이와 월로승 인연[127] 맺어 다년 즐기다가 신구 교대 당코 보니 아니 가던 못 할 터요, 가자 하고 일고 보니 애랑이가 눈에 암암, 오도 가도 못 할 사정, 망월루에 높이 올라 별주[128] 대작하는 길이였다.

정 비장의 거동 보소. 애랑의 손을 잡고 한숨 지며 하는 말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인제 가면 언제 보리, 너를 두고 가자 하니 걸음 걸음 피가 되고, 너를 데려 가자 하니 시하 엄훈 어려워라. 제주 온지 삼사 성상, 방춘 너와 연분 맺어 상전이 벽해[129] 되고 벽해가 상전되기, 록수에 원앙 같이 서로 리별 마쟀더니 호사가 다마[130]하고 연분이 부장하여[131] 일조 너를 작별하니 이 아니 비창하냐. 으흐 으흐...»

실성[132]하니 청천에 외기러기 짝을 잃은 경도 같고, 교목[133]에 꾀꼴새 벗 구하는 격이로다. 놓았던 손 다시 쥐고 한편으로 펄썩 주저 앉아 병에 있는 술을 무작정 마시더니 술 기운은 마음을 요동하고 마음은 술 기운을 보조하여 허희[134] 소리 한 마디에 울음보가 터져 나온다.

«애고애고 설은지고, 이를 장차 어찌 하리, 어제까지 내 사랑이 오늘 와서 리별일세, 리별이야, 리별이야 살아 생전 생리별은 생초목에 불어 붙네. 해성 추월 옥소성[135]에 우미인[136]을 리별할 제 항왕의 강개탄[137]이 이에서 더했으며, 마외역[138] 저문 날에 양 귀비를 리별할 제, 명황[139]의 우던 간장 이에서 더했으리, 일신 상사[140] 너 뿐이니 부디부디 잘 있거라 흐흐흐…»

애랑의 거동 보소. 없는 설음 별로 지어 도화 옥빈[141] 고운 얼굴 웃는 듯 반기는 듯 아양 부려 통곡하며 장우 단탄[142] 하는 말이

«여보 나으리 들으시오. 소녀는 하방 천기[143], 나으리는 경화 귀빈[144], 소녀 처음 만난 때에 무엇이라 언약했소. 상전이 벽해되고 벽해가 상전토록 서로 리별 마쟀더니 오늘날 이 마당에 나를 두고 어데 가오. 이러할 줄 알았더면 당초 중매 안 하지요. 나으리는 호남자라 잠시 리별 애끼시다 경성에 오르시면 향화 방초 곳곳마다 미녀 가인 있지마는 소녀 같은 박명첩[145]은 나으리 한 번 작별하면 록엽성음[146] 자만지에 의탁할 곳 없사오니 살리려면 데려 가고 죽이려면 두고 가오. 애고 답답이 내 팔자 일조 리별 웬 일인가.»

목을 놓고 통곡하니 정 비장 원래 뜻이 소활한 터에 애랑의 이 같은 사정을 생각하니 창자가 녹는 듯, 앞이 막혀 만단으로 위로하고 천 가지로 개유[147]한 후

«네 사정 내 모르며 내 사정 네 모르랴. 내 올라 간 후이라도 네 보호는 내 하리니 의지할 곳 없다 하고 설어하지 부대 말라.»

일변 고직[148]에게 분부하여 뱃짐 풀어 애랑 준다. 중량[149] 한 통, 세량 한 통, 탕건 한 죽, 우황 열 근, 인삼 열 근, 월자 백 개, 마미 백근, 장피 십 장, 록비 오 장, 홍합, 전복, 해삼, 문어 결드려서 일백 개씩, 삽치 서 뭇, 석어 한 동, 장곽, 소곽, 다시마 묶은 채로 각

두 통씩, 대하 한 궤, 유자 열 궤, 백자 두 말, 진피 백 근, 삼층 란간 룡봉장, 이층 문갑, 각계수리, 백목, 세포, 문명주 재인 대로 내여 놓고, 결음 좋은 제마 일필, 은안 금편 갖춘 대로 고삐 풀어 내여 주고 간지 백 축, 부채 백 병, 심지어 생강, 마늘, 계자, 호추, 쑥갓, 부초, 간장, 된장, 김치, 깍두기 먹다 남은 과자쪽까지 있는 것이라고는 모다 내여 애랑의 집에 보내게 하고, 애랑더러 이르는 말이

《이 물건이 소약하나 나 본 듯이 두고 쓰라.》

애랑이 느끼는 소리로 여쭈오되

《주신 물건은 감사하오나 백년을 맺은 언약 일장춘몽 허사되니 이 아니 원통하오. 리한공수 강수장[150]하니 떠날 리짜 목 매치고 갱파라삼 문후기[151]하니 기약기 짜어느 때요. 송군남포 루여사[152]하니 눈물 흘려 배를 띄고, 록양방초 갱상사[153]하니 생각 깊어 바다되네. 적적공방 추야장[154]에 전전반측[155]이 내 신세 첩첩수다 몽불성[156]에 장우단탄 슬은지고, 천산 만수[157] 면면 길에 만날 기약 아득하고, 추월춘풍 호시절에 사르느니 간장이라, 군불견 상사고[158]에 병이 들어 못 이루면 로생침 한단몽[159]에 혼백이나 따라 갈가, 림별 중언 단단상약[160] 잊을망짜 념려오나 서 덕언[161]의 뜻을 따라 신표[162]하나 주옵소서.》

정 비장 혹한 마음에

《네 말을 들어 보니 애정이 간절하다. 내 몸에 있는 것은 청 대로 줄 것이니 조금도 서허[163] 말고 소원 대로 말하여라》

애랑이 원래 간특한 계집이라 청하라는 말이 없더라도 정 비장을 물 오른 송기대[164] 벗기듯이 몰수 략취할 마음인데, 소원 대로 말하라 하니 그 욕심 많은 마음에 물욕이 팽창하여

«여보, 나으리 들으시오. 금일 나으리가 가신 후로 날이 가고 달이 가서 어류 광음[165] 잠시간에 락화 수심 봄이 가고, 방초 록음 여름 되여, 황국 단풍 가을 지나, 백설 강산 겨울 되면 북풍은 률렬하고, 한기는 름름이라. 독수공방 빈 방 안에 전전반측 잠 못 이루어 나으리 생각 간절할 때, 옷이라도 걸어 두면 나으리 본 듯 싶으리니 입으신 갖옷[166] 두루마기 소녀 벗어 주옵소서.»

정 비장 그 말 듣고 양피 갖옷 끌러 활활 벗어 애랑 주며

«맹산군[167]의 호백구도[168] 행희[169]를 주어 있고 수가[170]의 일저포[171] 범숙[172]을 주었으니 련련 고저[173] 그 아니냐. 나도 이 옷 너를 주니 입고 벗고 네 마음 대로 부대 나를 잊지 말아.»

애랑이 또 앉아 여쭈오되

«나으리 들으시오. 나으리 가신 후에 월명산 강서리 치고, 새북[174] 홍안 날아 들제, 강촌 모설 눈[175]이 날려 천수 만수[176] 리화 분분, 초수 오산 도로난[177]에 임 기약이 망연하고, 사군보월[178] 청소립에 두 귀 밑에 바람 찰 때 빰 시려 어찌 살리. 나으리 쓰신 돈피[179] 휘양 소녀 벗어 주옵시면 두귀 덤뻑 눌러 쓰고, 한나산 높이 올라, 랑군 계신 한양성 내 일일 평균 십이 시로 멀리 바라보오리니 그 아니 다정하오.»

정 비장 혹한 마음 휘양 벗어 애랑 주며

«엿다! 네 받아라, 이게 비록 약속하나 일편심을 표함이니 손으로 결 만지고 입으로 털을 불어 추운 날 쓰게 되면 네 귀 아니 시리리라. 이 휘양 쓸 때마다 부대 나를 잊지 말라.»

애랑이 또 앉아 여쭈오되

«여보, 나으리 들으시오. 소녀 비록 너자오나 옛 글을 아옵내다. 유인이 오릉거하니 보검이 치천금이라[180], 그 칼 값이 많사오나 분수 상증[181]했다 하니 평생 일편심

이 그 아니 중하리까. 나으리 차신 금병도[182] 소녀 끌러 주옵소서.»

정 비장 칼 만지며

«이는 나의 방신 보검[183]이라 너를 주지 못 하겠다.»

애랑이 여쭈오되

«옛 글을 모르시오, 서군[184]의 어진 마음 연릉 계자[185]의 뜻을 알아, 살아서 못 준 보검 죽은 후에 찾아가서 무덤 우에 걸었으니, 임도 나를 생각커든 칼을 주고 가옵시면 생전 리별 정표로세.»

정 비장 대답하되

«내 말을 네 들으라, 장부의 방신 보검 값도 중타하려니와, 만일 너를 주고 갔다가 나의 정을 베여 칠가 그 념려도 불무하니, 네 집에 있는 식칼 등심[186] 있게 벼려 두고 쓸 때마다 내여 써라. 속수[187] 값 두 푼을 랑 내가 먼저 내주리라.»

애랑이 반루 반소[188]하며 여쭈오되

«소녀 집에 있는 칼이 식칼 뿐 아니오라 은장도, 밀화장도, 오동철병[189], 대모장도 여러 보검 있사오나 나으리 차신 금병도는 한 때 쓸 날 있사옵기 지재 지삼[190] 아뢰내다.»

«내 칼을 네가 쓸 날이 있다 하니 쓸 곳을 말하여라.»

애랑이 부복하고 공손히 여쭈오되

«충신은 출어고문이요 렬녀[191]는 향다천첩이라, 외로운 데 충신 나고 천하온 데 렬녀 나니 렬녀의 본을 받아 위군 수절 하올 적에, 홍안 박명 젊은 몸이 빈 방에 홀로 앉아, 옥등에 불켜 놓고 그림자와 벗을 삼아 랑군 그려 수심할 제, 시문에 문견폐하니 개소리[192]는 컹컹 나고, 풍설야[193] 귀인하니 방랑자 배회타가 월침침 야삼경[194]에 가만가만 섭붙들어, 잠근 문 비여들고 내 침방 들어 오면, 소녀 혼자 할 수 없어 나으리 주신 금병도를

옥수로 선뜻 들어 키 큰 놈은 배를 찌고, 적은 놈은 목을 질러 멀리 훨씩 물리치면 나으리께도 설치[195]되고, 소녀 절개 빛'나리니 근들 아니 다정하오.»

정 비장이 껄껄 웃으면서

«네 말을 들어 보니 서증병[196]에 청심환을 먹은 듯, 독감에 패독산을 마신 듯, 내 비위에 썩 당긴다.»

장도 끌러 애랑 주며 칼의 래력 이르것다.

«네 어찌 규중에서 칼 쓰는 법 알았으랴. 옛 사람 용검법[197]을 대강 일러 줄 것이니 그 가운데 절충하여 묘리 있게 써 보아라. 오 나라 촉루검[198]은 충신 자서 베였으니 쓸 데 없는 용검이요, 진 나라 태아검[199]은 륙국 운합하였으니 지혜 용검 이 아니냐. 전필승[200], 공필취는 회음후의 용검이요, 충이 위질[201] 인이위는 공부자의 평검이라, 항장[202]의 허명검 홍문연 잔체 시에 패공을 그저 놓고 범증[203]의 때린 옥결 백설이 찾아 있고, 형가[204]의 도중검 허청검 한 곡조에 진왕을 못 찌르고 척검 진정제 죽으니 공불성검[205] 이 아니냐. 관공의 청룡도[206]는 화용소도 잡은 조조 인의로 놓아 있고 류계의 적제검[207]은 택반야경 당한 백사 용단으로 베였으니, 너도 이 칼 쓰는 날에 남포지석[208] 들게 갈아 수절 공방 범하는 놈 솜씨 있게 잘 찌르면, 만인적은 못될망정 일인적은 능하리니 부대 조심 네 잘 써라.»

애랑이 장도 받아 옆에 놓고 또 앉아 우는 말이

«여보, 나으리 들으시오. 나으리 입으신 숙수[209] 창의 분주 바지 주시는 길에 마저 주오.»

정 비장 웃으면서

«녀복은 달라 하기 고이치 않거니와 남복이야 네게 주어 무엇하랴.»

«에그, 나으리도 남의 사정 모르시오. 나으리 상하의복 한 벌 벗어 주옵시면 활활 털어 입어 보고, 착착 접어 홰에 걸고, 앉아 보고 누워 보고, 나가다 보고 들

어 와 보고, 무궁 첩첩 설은 정회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안진하니 서난기요 수다하니 몽불성[210]이라, 리별 랑군 가셨건만 옷이 홰에 걸렸으면 일천 설음 일만 근심, 옷을 보고 풀리리니 인들 아니 다정하오.»

정 비장 대혹하여 활활 벗어 모두 주니 애랑이 옷 받아 앞에 놓고, 또 앉아 보채것다.

«나으리 리별한 후 때때로 생각나니 답답 설음 어이하리, 설음 풀것 바이 없소. 무엇으로 위로하리. 나으리 입으신 고의 적삼, 소녀 벗어 주옵시면 내 손으로 착착 접어 나으리 생각 날 때마다 옷 가슴에 품고 보면, 향기로운 임의 땀내 자연히 코에 맞혀 천수 만한 하던 설음 잠시라도 잊을테니 그 사정을 생각하오.»

정 비장 혹한 마음에 고의 적삼은 고사하고 통가죽이라도 벗어 달라 하면 줄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 강두춘풍[211] 찬 바람에 덜덜 떨며 마저 벗어 «옜다» 하며 애랑 주니, 어리석은 정 비장이 알 비장이 되였구나, 처네[212] 둘러 엄신하고 방자를 부르것다.

«이애 방자야.»

«예!»

«행낭 속에 빨래'보 풀어 놓고, 무슨 옷이든지 한 벌만 내놓아라... 해풍이라 일기가 매우 춥다.»

방자 한참 뒤지더니

«나으리 행낭 속에 무엇이 있소. 빨래'보를 열 번이나 풀어 보아도 베 고의 적삼 한 벌 밖에 버선 한 짝 다시 없소.»

«아무 것이라도 가져 오너라. 추워서 못 살겠다.»

애랑이 곁에 앉아 이 광경을 보니 제아무리 도적년의 마음인들 어찌 면난치 않으리오. 한편으로 돌아 앉아 훌쩍훌쩍 울며 방자 불러 하는 말이

«이애 너 무엇을 찾느냐?»

«옷 찾소.»

«무슨 옷이냐?»
«베 고의 적삼이요.»
«이 놈아, 이 삼월에 베옷을 내여 무엇 하느냐.»
«베옷 말고 도랑 치마라도 살을 가려야 아니 하오.»
«이애, 무안하다. 그런 말 말고 빨리 내 집 건너 가서 새로 지은 나으리 의복 아래 장에 들었으니 변변치는 않다마는 나으리께 갖다 드려, 한양까지 가시도록 내 생각 하시게 하여라.»
방자 중충 걸어 애랑의 집 건너 가서 옥양목 상하 의복 한 벌, 정 비장께 바치오니 정 비장 감지[213] 덕지 무수 사례한 연후에 겨우 장신하고 보니 제주 삼년에 소존자[214]가 이것이라. 허허 탄식하고 분수 작별하려 할 제, 애랑이 또 못 잊은 체 다정한 체 정 비장의 품에 안겨
«여보 나으리! 인제 가시면 만날 때가 어느 때요. 배 시각 멀었으니 서서 등선하옵소서.»
정 비장 다시 앉아
«그리하여라. 그 소원이야 못 풀어 주랴»
애랑이 다시 여쭈오되
«여보 나으리, 여쭙기 어려우나 상투를 좀 베여 주시면 소녀의 머리 속에 한데 넣고 길게 땋아 일신운발 되겠으니 이 아니 다정하오.»
정 비장 기가 막혀
«네 정상이 가긍하나 그는 차마 못 하겠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효도[215]는 못 할망정 일시에 정 못 이기여 훼상이야 할 수 있나?»
애랑이 이 말 듣고 통곡하여 하는 말이
«나으리가 아무리 다정타 하시오나 소녀 뜻만 못 하오니 애닯고도 원통하오. 그는 그러하려니와 나으리 가신 후에 소녀 단명 죽사오면 혈혈단신 무친척에 짝 없는 원귀[216] 되오리니 나으리 앞 이 하나 빼 주시면 관 속에 같이 넣어 합장 의식 이루겠소.»

정 비장 대혹하여 공방 고자[217] 불러 장도리 집게 대령케 한 후
«너 남의 이를 더러 빼여 보았느냐?»
«네, 많이는 못 뺐으나 전후 합계하오면 서너 말 가량이나 되오.»
«허 그 놈 제주 이는 몰방친[218] 놈이로구나. 다른 이는 상치 않게 앞이 하나만 쑥 빼여라.»
«소인이 이 빼기는 숙수단이 났사오니 아무 념려 마십시오.»
공방 고자 대답하고 술 잔이나 먹은 김에 수단을 자랑코저 소집게는 물리치고 대집게 번쩍 들어 비장 앞에 바싹 대여 서서, 포전에서 뱀장어 잡 듯, 굴 속에 지룽이[219] 잡듯, 이 뎜불채 휩쓸어 잡고 좌충[220] 우돌하여, 상산 조 자룡[221]이 헌창 쓰듯, 차포 접은 장기에 면상 타리듯[222], 무수히 어르다가 뜻 밖에 코를 한 번 탁 치니 정 비장이 코를 잔뜩 부둥키고
«어허 봉패[223]로구나. 이 놈아, 너더러 이 빼라 하였지 코빼라 하더냐?»
공방 고자 여쭈오되
«울리여 쑥 빠지게 하느라고 코를 좀 쳤소.»
정 비장 탄식하며
«이 빼라 한 내가 그르다.»
한참 이리 수작할 제 방자 바삐 뛰여 들며
«초취 이취 삼취[224] 끝에 사또 등선하옵시니 나으리도 어서 등선하옵소서.»
정 비장 할 일 없어 일어서며 탄식하니 로가[225] 하양주라 일성, 배 떠나자 재촉하니 슬픈 사정 무궁하다. 애랑이 정 비장 손을 잡고 느끼면서 우는 말이
«우연히 만났은들 나를 두고 어데 가오. 진 나라 방사 서시[226], 동해 삼신 채약할 제 동남 동녀 실어 있고, 월 나라 범 상국[227]도 오호 청풍 만리선에 서시를 실었으

니, 나으리 타신 한양선에 천첩 애랑 실어 가오. 애고 애고 설은지고, 이 내 신세 어찌 하리. 살아서 못 볼 일을 죽어 환생 다시 볼가.»

정 비장 눈물 뿌리며 하는 말이

«서러 말아. 서러 말아. 나 간다고 서러 말아. 이 배에 너를 싣고 나와 너와 같이 가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두 사람이 다 좋으련만 사세 부득 못 하는 일 넌들 어이 모를소냐. 명년 삼월 춘풍시에 너 찾으러 올 것이니 잠시 리별하는 것을 과히 상심하지 말아.»

이렇듯 작별할 제 신관 사또, 례방 비장 이 거동 잠간 보고 방자 불러 묻는 말이

«저 건너 선창 우에 청춘 남녀 서로 잡고 못 떠나니 저 일이 웬 일인고?»

방자 여쭈오되

«구관 전배[228] 비장과 수청 기생 애랑이가 떠나려고 작별인 줄로 아뢰오.»

배 비장 그 말 듣고 비양하여 하는 말이

«참 허랑한 장부로다. 리친척 원부모[229] 천리 밖에 내려 와서, 천기에게 대혹하여 저다지 체면을 손상하니, 하인 소시[230] 안 되였다.»

방자 놈 코웃음하며 하는 말이

«나으리는 남의 말씀 수이 마오. 색계상에는 영웅 렬사 없습니다.»

배 비장 려기[231] 내여 하는 말이

«이 놈, 그러면 네가 나도 정 비장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내가 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경향[232] 편답 삼십 년에 절대가인 경국 미색[233] 두름으로 보았건만 외편 눈이라도 한 번 끔적하였다면 인사가 아니다.»

«그러하시면 황송하오나 소인과 내기 하옵시다.»

«무슨 내기를 하려느냐?»

«나으리께옵서 상경하시기 전에 저 계집에게 눈을

아니 뜨옵시면 소인의 수다 식구 댁에 가서 드난 밥을[234] 먹겠삽고, 만일 나으리께서 저 계집에게 반하오시면 타신 말을 소인 주옵소서.»

배 비장 장담하되

«그 일은 어렵지 않다. 말 값이 천금이나 내가 만일 지게 되면 안구[235] 껴서 너를 주마.»

이와 같이 언힐[236]할새 구관은 교대하고 신관은 도임이라 좌우 청장[237] 번듯 들고 호기 있게 들어 갈 제, 전배 후배[238] 사령, 군노, 삼승 섭수[239], 노랑 홍의 남전대 눌러 띄고, 인모 전립, 우령 상모 날랠용 짜 딱 붙이고, 곤장, 주장, 번듯 들고, 쌍쌍이 늘어 서서 에이찌루 에이찌루 혼금[240]이 엄숙한데, 청일산하[241] 취타성[242]이 원근 산천 움직인다——늬나노나노, 뚜띠 처르르…

앵무 같은 고운 기생, 나이 맞춰 골라 뽑아 물색으로 단장하여 동문 안 대로상에 쌍쌍이 늘어 세고, 청도[243] 한 쌍, 순시[244] 한 쌍, 오색 기치 찬란하고, 전배 비장 대단 천익[245], 순은 장식 해금하여 갖은 궁전[246] 비껴 차고, 저모 전립[247], 밀화[248] 패영, 은입사[249], 맹호수[250], 보기 좋게 꽂아 쓰고, 공주 면주 사마치[251]를 가든하게 떨쳐 입고, 은안 백마[252] 호피 돋움 덩그렇게 높이 앉아 운종룡[253] 풍종호로 서슬 있게 나아가니, 승피백운[254] 선인들이 이에서 더할소냐. 영무정 바라보고 산지내 얼풋 건너 복수각 지내 놓고, 칠성골 넓은 길로 관덕정 돌아 들어 전알전에 사배[255]하고 만경루에 도임할 제, 일읍의 남녀로소 구름 같이 구경한다.

신관 사또 신연 절차 마친 후에 각방 소임 현신 받고, 다담상 철상[256]하니 해는 벌써 서산에 떨어지고, 달은 다시 동령에서 돋아 올라, 청풍 명월 선화당[257]에 태평 기상 완연하다.

모든 비장, 숙소 각각 정한 후에 명기, 명창, 서로 골라, 청가 묘무 즐기는데, 배 비장은 방자와 언약 있어

울울 심사 답답컨만, 강제로 억제하고, 남 노는 것 비양한다. 여러 비장 동임들이 배 비장께 전갈[258]하되

«방자야, 네 례방 나으리께 가서 아까 새 문안 어떠심 묻잡고, ‹다일 수륙 곤로에 심사 울울하실 터이니 고향 생각 너무 마옵시고, 이 곳으로 회동[259]하여 기생의 가무나 한 가지 듣사이다.›라고 여쭈어라.»

방자놈 분부 듣고 배 비장께 전갈하니 배 비장 마음에는 당기건만, 할일 없이 억제하고 방자 편에 회답하되

«먼저 물어 계옵시니 대단 황공하오이다. 모처럼 청하심에 거절함이 당돌하나, 성질이 원래 소졸[260]하여 기악은 즐기지 않사오니 본인은 용서하시고, 여러 동관께서나 재미 있게 노옵소서.»

다시 수노[261] 불러 분부하되

«네 만일 지금 이후로 기생년들을 내 눈 앞에 얼씬이라도 하게 되면 엄곤[262]태거하리라.»

대청에 목사도 배회[263]타가 이 말을 언뜻 듣고, 허허 대소한 후, 이튿날 평명[264] 후에 읍 중 기생 다 부른다. 호방이 안책[265]을 들여 놓고, 글귀로 기생을 부르는데 대단 재미 있는 모양이였다.

만리화풍[266] 류엽이
소갑편규 설향이
오릉춘색 도화
하처경몽 화접이
환산요유 롱월이
자릉종신 로춘이
반탑도서 송죽이

일리연우 행화
부지 야경 운심이
옥수기화 금향이

수광산색 취운이
일편빙심 션옥이
창현일감 추월이
춘배북유 영션이
만당추수 홍련이
적하인간 강션이
시능부능[267] 가무능에
제일미색 애랑이

기생 점고[268] 마친 후에 목사또 분부한다.

《너의 여러 기생 중에 배 비장을 혹하게 하여 웃게 하는 자 있게 되면 중 상을 줄 것이니 누가 능히 거행하겠느냐?》

그 중에 애랑이 아미[269]를 수그리고 호치[270]를 잠간 열어 공손히 여쭈오되

《소녀가 비록 민첩치 못하오나 사또 분부 대로 거행하려 하나이다.》

《오, 네 능히 배 비장을 훼절[271]시키면 참 제주 기생 중 인재라 하리로다.》

애랑이 여쭈오되

《사또 분부는 소녀의 수단 대로 하오리니 방시 춘풍 좋은 때라, 사또께옵서 명일 한나산 화류[272]를 하옵시면 소녀 그 사이에 묘계를 얻어 배 비장으로 훼절케 하오리다.》

목사 허락하고 이튿날 평명에 산유 거행 차리시니, 위의가 찬란하다.

룡두 새긴 주홍 람여[273] 호피 돋움 높이 타고, 절월[274], 부월, 삼영, 집사, 순시, 령기 별여 세고 대로상 나아갈 제, 록의홍상 미색들은 백수 단삼[275] 높이 들어 풍악 소리 화답하여 지야자 지야자 만수화림[276] 깊은 곳에 꽃도 같고 새도 같다. 한나산 중턱에 올라 서니 벽해

는 양양하고 대야는 망망이라, 왕 발[277]이 있었더면 각우주지 무궁귀를 등왕각에 아니 쓰고, 공부자 아셨더면 등태산[278]이 소천하를 이곳에 읊었으리. 다시 점점 올라 가니 이조명춘[279]으로 온갖 새 울음 운다. 꾀꼬리 고기고기, 뻐꾹새 뻐꾹뻐꾹 할미새 가불갑죽, 접동새 으흥으흥, 여기서도 꾀악, 저기서도 푸드득, 백화산 제백조[280]가 이 산에 모다 모였다. 양류 청청 늘어진 가지, 벽계 잔잔 호춘풍에 얼클어지고 뒤틀어져서, 손을 보고 읍을 하고, 명주 분분 폭포수는 범중의 옥 부수듯 와르르 쾅쾅, 로룡이 잠을 깨고, 산곡이 상응하니 해외 삼산[281] 어디련고, 만장[282] 봉래 여기로다. 목사 중하에 람여 놓고 경개를 살펴보니 영주 사면 푸른 물결 장천 일색[283] 둘렀는데, 쌍쌍 백구는 물결 따라 흘러 뜨고, 점점 어선은 돛을 달고 왕래하니 산수춘풍[284] 무한경이 보던 바에 처음이라.

목사 다시 기생 불러 춘주를 권작하며, 여러 비장들과 춘흥을 자장할 제 배 비장은 가장 청고한 체하고 암상에 독좌하여 남 노는 것 비양하고 글귀 지어 읊으것다. ——천장하니 한양은 로천리요 해활하니 영주는 파만경이라 여화미인 간초월이요 취롱강산 무한경[285]을.

중하에 독좌하여 태백[286]을 기울이니 장부의 굳은 절개 이로써 알리로다. 이 때 배 비장이 글을 읊으고 무료히 앉았다가 우연히 수포동 록림간을 바라보니, 랑안 도화 어린 곳에 주순[287] 세요 일미인이 어리락 비치락 만반교태 다 부리며 춘광을 희롱할 제, 단계화 명월궁[288]에 월하선녀 거니는 듯, 양대 운우[289] 깊은 밤에 무산 선녀 노니는 듯, 상하 의복 활활 벗어 반석상에 접쳐 놓고, 평사[290] 락안 본을 받아 물에 풍덩 뛰여 드니, 아미산[291] 반륜월이 청강에 잠겼는 듯, 별유천지 무릉촌[292]에 도화류수 모연거 격으로, 물결 따라 나려가며 백구 동동[293] 반부침 격으로 이리 텀벙 저리 텀벙 울렁줄렁 굽니는 거

동, 록파 담담[294] 저 련못에 세우 뿌려 젖은 꽃이, 구십 춘광[295] 때를 만나, 부용화가 넘노는 듯, 어연간 물 밖에 선뜻 나서 맑은 물 한 줌 옥수로 담숙 쥐여, 연적[296] 같은 젖통이를 칠 팔월 가지 씻듯 보드득보드득 씻어도 보고, 청계화엽[297] 만발한데 푸른 련잎 뚝 제쳐서 호치 단순[298] 물었다가 양치질도 하여 보며, 버들잎도 주루룩 훑어 만수 잔잔 흐르는 물에 류엽선[299]도 띄여 보며, 꽃가지도 지끈 꺾어 머리 우에 꽂아도 보고, 꽃송이를 똑똑 떼여 입에 담뿍 물어도 보고, 양양 발발 노는 고기 미끼 주어 희롱도 하며 록음 방초 청계변에 조각돌을 얼른 집어 양류간에 왕래하는 꾀꼬리를 아주 툭 쳐 휘여 날려도 보고, 흑운 같이 채 긴 머리 구룡소[300]로 살살 빗어 두 손으로 후리쳐 틀어 땋은 머리를 만드는 모양은 금봉채가 좋을시고, 꼬리 넓은 금잉어가 어변성룡[301]하려 하고, 벽해 담담 물결 따라 굽이굽이 노니는 듯, 한창 이리 노닐적에, 배 비장 그 거동 보고 어깨가 실룩 정신이 아득, 구대 정남[302] 간데 없고, 도리여 음남이 되여 눈을 모로 뜨고 숨을 헐떡이며 쫓긴 듯이 호흡을 통치 못 하고 혼자 하는 말이

«뉘 집 녀인인지는 모르겠다마는 성한 사람 여러 명 굳치[303]겠다.»

그 녀자의 근본을 알고져 하나 들을 데 없고 물을 곳 없어, 헛 침만 모도와 생키며 안간힘[304]을 쓰고 무수히 자탄 하되

«내 본래, 한양에 생장하여 팔도 명구 승지 아니 본 곳 없건마는 제주 같이 좋은 강산 보던 바 처음이요, 주사 청루[305] 곳곳마다 미색도 많이 보았건만 저기 보이는 저 녀자 같은 색태는 삼생[306]에 초견이라, 저를 기위 본 연후에 어찌 차마 공행[307]하리.»

이러할 즈음에 비조 투림[308]하여 잘 곳을 찾아 가고, 일모 창오[309]하여 석양이 재산이라. 목사또 여러 소속 거

나리고 회정하여 돌아 갈 제, 배 비장은 뒤에 처질 마음 두고, 꾀병으로 배 앓는다.

«애고 배야 애고 배야, 나 죽겠다, 애고 배야.»

여러 비장 동임들이 기수채고 하는 말이

«벌써 혹하였구나.»

수군거리고 겉인사로 위로하되

«례방께서는 급곽란[310]인듯 싶으니 침이나 한 대 맞으시오.»

«아니요, 나는 침 맞을 병이 아니요 좀 진정하면 낫겠소.»

여러 비장이 웃음을 참고 방자 불러 하는 말이

«례방 나으리 병환이 본병환이라 하시니 진정하여 잘 모시고 오너라.»

또 배 비장더러 하는 말이

«이 연유를 사또께도 여쭐 것이니 마음 놓고 진정하다가 오시오.»

배 비장 심중에 대단 환희하여

«여러분 동관께서 이처럼 념려하옵시니 감사 만만하거니와, 아무쪼록 사또께 미안치 않도록 잘 여쭈어 주시기 바라오, 애고 배야.»

그 중에 동관 하나이 지꾲기가 짝이 없는지라, 잠시라도 배 비장 성화를 좀 시키려고

«글랑은 조금도 념려 마시오. 사또께서도 동관에게 이러한 때에 병 나는 줄은 대강 짐작하시나 봅디다. 그러나 들으니 이러한 복통에는 묘한 계집의 손으로 배를 살살 문지르면 그 신효하기가 귀신 같다 하니, 기생 묘한 년 하나 골라 두고 갈 것이니 잘 문질러 보시오.»

«아니요, 내 배는 다른 배와 달라서 기생은 보기만 하여도 더 아프니 그런 말씀은 두 번도 마시오. 애고 배야.»

«그 배는 참 이상한 배요그려. 계집 말만 하여도 앓

는다니 그러면 우리가 동시 락양지인[311]으로 천리 밖에 멀리 와서 정의가 형제 같은 터에 저처럼 고통함을 보고야 차마 잠시인들 혼자 두고 가겠소, 나와 같이 있다가 진정되거든 갈 수 밖에 없소.»

«아니요, 아니요. 동관이 내 성미를 모르시오. 나는 병이 나면 혼자 진정을 하여야 속히 낫지 만일 형제간이라도 같이 있으면 낫기는 고사하고 한층 더 아프게 되니, 사람을 살리려거든 제발 덕분 어서 가시오. 애고 배야.»

«그러하면 갈 수 밖에 없으니 이 다음에 혼자 갔다고 무정타고 마시오» 하고 목사또 따라 환관[312]할 제, 배비장은 그 녀인 보기 급한 마음에 배 앓으며 방자를 부르것다.

«이 애, 방자야, 방자야! 애고 배야.»

«예——»

«이 애, 나는 여기를 오더니 별안간 취안이 몽롱[313]하여 지척을 못 보겠다. 애고 배야.»

«소인도 나으리께서 애 쓰시는 것을 보오니 정신이 아주 없습니다.»

«우리 사또 가시는 데 자세히 좀 보아라.»

방자 여쭈오되

«중대[314]에 나려 계시오.»

«애고 배야, 또 보아라.»

«저 모롱이 지나셨소.»

«애고 배야, 또 보아라.»

«수풀 사이에 가리웠소.»

«산회로전 불견군[315]하니 내 배 그만 아프도다.»

목욕하는 저 녀자를 보려 하고 계변 화초 좁은 길로 몸을 숨겨 가만가만 서쁜 서며, 가는 소리로 방자를 부르니 방자도 가만히 대답은 하나, 말 공대는 점점 없어지것다.

«예——왜 부르오?»

«너 저 거동 좀 보아라.»

«그 무엇 있소.»

«이애, 요란히 구지 말아, 조용히 구경하자. 물에 놀고 산에 놀고 백만 교태 다 부리니 저것이 금이냐 옥이냐?»

«이 곳이 려수[316]가 아니여든 금이 어찌 노오리까.»

«그러면 옥이로구나.»

«이 곳이 곤륜[317]이 아니여든 옥이 어이 있으리까.»

«금도 옥도 아니면 이십사번 화신풍[318]에 먼저 피인 매화냐?»

«동각설중[319] 아니여든 매화 어찌 피오리까.»

«매화 도화 다 아니면 해당화냐?»

«명사십리 아니여든 해당화가 당하리까.»

«그러면 황국, 단풍, 국화냐?»

«구월 룡산[320] 아니여든 국화가 당하리까.»

«이 애, 꽃 아니면 월 서시, 양귀비냐?»

«오호 청풍[321] 아니여든 월 서시 어이 오며, 온천수[322] 아니여든 귀비 목욕 어이 하오리까.»

«서시, 귀비 제 아니면 입안 혼미[323] 불여호냐. 여호 아니라 도깨비라도 사상결단 혹하였다. 애고애고 날 죽인다.»

방자 여쭈오되

«나으리 무엇을 보고 이다지 미치십니까. 소인의 눈에는 아무 것도 아니 뵈입니다.»

«이 놈아, 저기저기 저 건너 백포장 속에 목욕하는 저것을 못 본단 말이냐?»

«네——나는 나으리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리하시나 하였지요. 옳소이다. 저 건너 목욕하는 녀인 말씀이오니까.»

«옳다, 인제 보았단 말이냐, 상놈의 눈이라 량반의 눈보다 대단 무디구나.»

«네——눈은 반상[324]이 다르니까 소인의 눈이 나으리 눈보다 무디어 저러한 비례의 것이 아니 뵈옵니다마는, 마음도 반상이 달라 나으리 마음은 소인보다 컴컴하고 음탕하여, 남녀 유별 체면도 모르고 남의 집 귀중 처녀 은근히 목욕하는 것을 욕심 내여 무례히 눈을 쏘아 구경한단 말씀이오니까. 근래에 서울 량반들 량반 자세하고 계집이라 하면 체면 없이 욕심 낼 데 아니 날 데 분관 없이 함부로 덤벙이다 봉변도 많이 당하옵더다. 나으리도 시골이라고 업수이 여기지 말고 정신 좀 차리시오. 유부가인 유부 녀자 약수에 목욕하면 허물 없는 일가 친척 은근히 묻었다가 무례한 타인 남자 버릇 없는 눈치 알면, 당장에 뛰여 나와 이 뺨 저 뺨 란타하여 끔찍 없이 보리[325]만 탈 것이니 비례의 생각은 일체 단념하시오.»

배 비장 방자한테 무안 보고 부끄러워하는 말이

«오냐, 다시는 아니 보겠다.»

말로는 비록 아니 보겠다 하나, 음양의 서로 화합하는 힘이 마치 지남석에 바늘이 당기는 듯하여 눈이 자주 그리로만 가겠다. 방자 보다가

«저 눈——»

«오——나 아니 본다.»

하면서도 곁눈 절로 힐끔힐끔 그 녀자를 쏘아 보것다. 이와 같이 새광이 되다가 잠시 한 꾀를 얻어, 방자 불러 지동 지서[326]를 하는데, 방자가 그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면 이 동안에 배 비장은 그 녀인을 보던 것이였다.

«방자야, 저 경치 좋다. 동편을 살펴 보아라. 근수루대에 선득월[327]이라, 소간 부상 삼백척하니 금계서지 월륜홍이로구나.»

«서편을 또 보아라, 약수[328] 삼천리에 춘색이 모연한데, 요지 왕모[329] 하강한 듯, 일쌍 청조 나는구나. 남편을 또 보아라, 대해 망망 천리파에 곤화위붕 수여남[330]이

구나. 북편을 또 보아라, 청천에 삭출 금부용하니 진북명산[331]이 제 아니냐. 중앙을 또 보아라, 백로[332] 탄 려동빈, 고래 탄 리 적선 차례로 비상천한다.»

방자 거짓 속는 체 하고 가리키는 대로 살펴 보니, 배 비장은 그 동안에 녀인을 보는지라, 방자 이 거동을 보고

«저 눈 참 일 낼 눈이로군.»

배 비장이 깜짝 놀라 두 손으로 눈을 얼른 가리며

«나 아니 본다. 념려 말아.»

한참 이리 할 제, 방자 뜻밖에 기침 한 번을 칵 하니 저 녀인이 놀라는 체하고 몸을 옴쭉 소스라쳐 물 밖으로 뛰여 나와, 속곳 치마 검쳐 안고 백포장 록림간으로 얼른 뛰여 들어 가니, 가위 신선이 귀동천[333]하고 공여 양류연일러라.

배 비장 그 곳만 보다가 눈이 컴컴 어안이 벙벙, 정신잃고 앉았다가

«이 놈 방자야, 네 기침 한 번이 참으로 랑패로다.»

이처럼 탄식하다가

«이 애 방자야!»

«예!»

«네 저 건너 백포장 밖에 가서 문안 한 번 드리고, 그 녀인에게 내 말로 전갈하되, 차산 과객[334]이 화류 차로 이 곳에 이르렀다가 행려[335]이와 곤로하고 기갈이 자심하니, 혹 남은 음식이 있거든 기한을 면하게 구급하시기를 천만 바라나이다 여쭈어라.»

«소인은 죽으면 그저 죽었지 그 전갈은 못 하겠소. 부지초면에 전갈하고, 남의 녀자에게 음식 달라 하다가는 란장박살 탕국에 어열 밥 말아 먹게요. 그런 말씀은 두 번도 마시오. 아이고 무서워.»

배 비장 무료하여 하는 말이

«이애, 방자야, 만일 맞을 지경이면 매는 내가 대신 맞을 것이니 너는 곧 내빼려무나.»

방자 한참 생각하다 하는 말이

«나으리 정경을 보오니 몽치[336] 바람에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리 할 수 밖에 없소.»

하고 실렁실렁 가만가만 걸어 가서 백포장 밖에서 헛 절 한 번을 굽신하고

«쉬! 애랑아, 배 비장이 벌써 네게 혹하였으니, 무슨 음식 좀 차려다고.»

애랑이 웃고 다담상 한 상을 정결하게 차리것다. 대모 쟁반, 금채 화기[337] 벌여 놓고, 빛 좋은 청유 백분[338], 두견 화전[339] 한 접시 소담하게 담아 놓고, 제주 소산 감, 유자, 설당 뿌려 재여 놓고, 동정 추파[340] 맑은 술 자라병에 가득 넣어, 옥수로 내여 주며 순절히 답전갈을 하것다.

«너의 나으리 무례하나 기갈이 자심타기 이 음식 보내오니 그도 자시고 너도 먹고 랑인 대작 산화개[341]라 일배 일배 부일배로 삼 사배 마신 후에 그 곳 잠시 있지 말고, 군자는 견기이작[342]이라 하니 속거 속거[343]하라. 미구에 대탈 날라.»

방자 돌아 와 이와 같이 전갈하니 배 비장 즐겨라고, 음식 받아 앞에 놓고 칭찬하여 가로되

«절 볼 안이라 하니 내 이러할 줄은 알았거니와, 저감에 잇자욱[344]이 났으니 웬 일인가?»

방자놈 여쭈오되

«그 녀인이 감자 꼭지를 이로 물어 빼옵디다.»

배 비장 껄껄 웃으면서

«이 음식 너 다 먹어라. 나는 감자 하나만 먹겠다.»

방자놈이 지긋이 감자를 집으며 하는 말이

«이'발 자욱 난 것이라, 그 녀인의 침이 묻어 더러우니 소인이나 먹겠소.»

«이 놈아, 별소리 말고 이리 다고.»

감자를 빼앗아 껍질을 감식 후에 그 녀인께 전갈하되

«이 같은 좋은 음식을 보내셔서 잘 먹었습니다» 하고 «또 무례하온 말씀이나 천생양하고 지생을 하니 음양배합[345]은 리지소재라, 방탕한 화류객이 흘등차산[346]하여 탐화[347] 봉접의 마음을 지지우지지[348]하옵소서» 하고 여쭈었다.

방자가 다녀 와 하는 말이

«그 녀인 답례 불청[349]하고 대책 무례하옵더다.»

배 비장 무료하여 탄식하는 말이

«할일 없다. 내려 가자.»

침소로 돌아 와서, 주소[350] 생각이 그 녀인을 못 잊어 신음 상사하며 한탄하되

«한나산 맑은 정기 제가 모다 타고 나서, 천리 원정 한양객의 맑은 정신 다 뺏는다. 동방 추야 적막한데 상사 깊이 병이 되고, 세우 춘풍[351] 면면한데 눈물 흘러 바다 되네. 무장 엽화[352] 삼천장이 이 내 일신 소화하여 타향 천리 먼먼 길에 천추 원혼 되겠으니, 북당에 학발 모친, 춘규[353]에 홍안 처자 다시 보기 어려워라. 애고애고 기막힌다. 이를 장차 어찌 하리.»

배 비장이 이처럼 애절타가, 에라 죽더라도 말이나 한 번 하여 보겠다 하고 방자를 부르것다.

«이 애, 방자야!»

«예! 왜 부르십니까?»

«이 애, 이리 좀 오너라. 나는 꼭 죽을 병이 들었구나.»

«무슨 병환이 드셨기에 그처럼 신음하십니까, 모춘 감기인 듯하오니 패독산[354]이나 두어 첩 쓰시지요.»

«내 병은 패독산 먹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 망녕[355] 병환이 드셨나보이다. 망녕 병에는 당약[356]이 있지요.»

«무슨 약이란 말이냐?»

«소년 량반 망녕에는 홍두깨를 삶아서 먹습니다.»

«아니다, 내 병에는 약이 있다마는 얻기가 대단 어렵구나.»

«그 무슨 약이기에 그처럼 어렵단 말씀이요. 대관절 약명이나 말씀하시오. 세상에 약 치고 구치 못할 리치가 있으리까.»

«이 애, 그 말만 들어도 속이 좀 시원하다. 그러면 나 죽고 살기는 네 손에 달렸으니 좀 살려 다고.»

«소인의 힘대로는 약을 구하여 볼 것이니 약명을 말씀하시오.»

«약명은 녀인이다. 너도 아다싶이 작일 한나산 수포동 록림간에서 목욕하던 그 녀인, 한 번 보고 온 연후에 자연히 병이 되여 죽을 지경이로구나. 그 녀자 좀 보게 하여 주려무나.»

«나으리께서는 왜 어제부터 망녕되이 비례의 물건을 탐하시오. 그 녀자로 말할진대 당대 문한가[357]의 딸로 규중에 깊이 들어 내외가 각별하니, 설혹 볼 마음이 있기로 무슨 수로 꾀여 내오.»

배 비장 무료하여 하는 말이

«할일 없다 그러면 잠 아니 오니 고담이나 좀 얻어 오너라.»

«그 일이야 용이 하지요.»

하고 각항 소설을 한 짐 가량이나 갖다 놓으니, 배 비장 한 권씩 뽑아 들고, 옛날 춘향의 랑군 리 도령이 춘향 생각하여 글 읽듯 하것다. 삼국지, 수호지, 구운몽, 서유기 책 제목만 잠깐씩 보고, 숙향전 반중둥 딱 젖히고

«숙향아 불상하다. 그 모친이 리별할 때, 악아 악아

잘 있거라,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수포동 록림간에 목욕하던 그 녀자, 가는 허리 얼싸 안고 마음 대로 놀아 볼가.»

방자놈 옆에 있다 하는 말이

«그 책이 숙향전으로 알았더니 상푸동 수포동전이로구려.»

배 비장 대답하되

«이 놈, 조롱 말아, 말이 가끔 그리로만 가는구나. 내 네게 다시 어려운 청 하나 하니 내대지 말아라. 너도 눈치 빠른 아해로서 어찌 짐작이 없겠느냐, 어제로 말하면 그 녀자가 팔면부지 초면객[358]에게 음식을 차려 보냈으니 결녀[359]도 내게 마음 없는 것은 아니라, 혹시 일이 되여도 말이나 한 번 전네다고.»

«어따가 말을 전네요. 그 녀인에게 그런 어림 없는 말씀은 두 번도 마세요. 그 녀인으로 말하면 성정이 칼날 같고 절개가 송죽 같으니 서뿔리 말 한 마디 하고 그 후환은 무엇으로 방비하게요.»

배 비장이 방자의 손을 꽉 잡고 애걸 간청한다.

«이애, 그러면 너다려 말하라는 것은 아니니 되나 아니 되나 이 편지나 한 장 전하여 다고, 일만 되면 구전 삼백량 상급으로 너를 주마.»

방자놈 다년 관문[360] 속에서 단련되여 그러한 심부름은 썩 재게 하는 터에, 돈 준단 말을 들으니 위선 선급부터 얻어 쓸 생각이 나서 지그시 미대는 수작으로 나온다.

«소인은 그 편지 못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애, 그것이 무슨 말이야, 내가 천리 밖에 와서 통정하고 지내는 하인이 너 밖에 또 누가 있느냐?»

«예, 소인이 나으리께 정리로 말하오면 수화라도 피치 않겠사오나 소인이 그렇지 못 한 사정이 있습니다.»

«응, 무슨 사정이냐?»

«다른 사정이 아니오라 소인이 세 살에 아비를 여의고, 어미에게 길러나 적빈 무의[361]하여, 늙은 어미를 벌어 먹일 길이 없사오므로 열 살부터 방자 구실을 다니오나 그 구실에서 무엇이 넉넉히 나옵니까. 한 달에 관가에서 주시는 것이라고는 돈 두 량 뿐이오니 잦은 심부름에 신발 값이나 되옵니까. 먹기는 각방 나으리님네를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 진지 대궁[362]이나 얻어서 늙은 어미와 같이 연명을 하고 살아 가는 터이오니, 지금 나으리 분부가 어려워서 그러한 위험한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사불여의[363]하여 탄장박살에 모진 매나 맞아 병신이 되오면, 첫째는 나으리 모시고 있을 수 없삽고, 둘째는 늙은 어미의 밥줄이 아주 끊어지겠으니 그 아니 억울하오리까. 사정이 이러하오니 거행치 못 하겠습니다.»

«글랑은 념려 말아, 만일 매를 맞을 지경이면 낫도록 내가 치료하여 줄 것이요, 늙은 어미는 내가 먹여 살릴 것이니 념려 말아.»

궷문을 덜컥 열더니 돈 백량을 내여 주며

«이것이 약소하나, 위선 네 어미 갖다 주어 량식이나 팔아 먹으라 하여라.»

방자 못 이기는 체하고 돈을 받아 옆에 놓고

«나으리께옵서 이처럼 소인을 애휼[364] 하시니 소인이 비록 분골쇄신[365]이 되더라도 나으리 분부 거행을 하오리다.»

배 비장이 대희하여 편지 써서 방자 주며 백 번이나 당부하되

«이 일이 되고 아니 되기는 네 수단에 달렸으니 부대부대 눈치 있게 잘 드려라.»

방자 유유 응낙하고 편지 갖다 애랑 주니, 그 편지 사연에 하였으되

«제막[366] 절덕쇠는 돈수 재배[367]하옵고 일봉 정원서를 랑자[368] 경대하에 부치노니 비례를 책망치 마시고 넓히

통찰하옵소서. 이 몸이 팔자 기박하와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영주도 수천리에 남의 편비[369]되여 와서 객지 심사 울울키로, 작일 우연히 한나산에 올랐다가 독립산 회로시에 옥안을 잠간 보고 입안 혼미 돌아 와서, 욕망[370]이 난망이요 불사로되 자사되여 식를감[371] 와불면에 골수에 병이 드니, 장탄식[372] 단장성은 탁 문군[373]의 회심사라, 인사 백년[374] 서사수하니 랑자의 옥빈 홍안 어언간 백수되면 시호시호 부재래[375]라, 부득 장춘[376] 한하리니 수절고행 부질 없고 활인 적덕[377] 으뜸이요, 오늘날 당하여는 생사에도 관계되니 세세 참상[378] 하옵신 후 금옥 호음[379] 주옵시면 랑자의 산은 해덕[380] 결초 보은하오리다.»

애랑이 이 편지 받아 보고 깔깔 웃으니 방자놈은 능청스럽게 한 마디를 뚝 제치겠다.

«이 애 애랑아! 답장을 하되 너무 허수히 말고 진득히 좀 당겨라.»

애랑이 소답[381] 하고 답서 써서 방자 주니, 방자 답장 받아 들고 진등한등 뛰여 와서 배 비장께 전달할 제, 배 비장은 함신[382] 빠진 판이라 황공무지하여 두 손으로 편지 받아 대학지도[383] 읽는 듯이 잔뜩 굶어 앉아 무수 진퇴한 연후에.자자 구구 살펴보니 그 사연에 하였으되

«애중 첩신은 일봉 답함을 제막 탑하여 부치노니 상면부지 중에 서사 상통이 괴이하고, 욕망 난망에 불사 자사라하니 그러한 비례의 말은 한양에나 가서 쓸 것이요 죽네 사네 말을 하나 이 사람에게는 부당하오. 군자는 인신되여 옛글을 모르시오. 사군충[384] 종부절은 천지지상정[385]이요 고금지통의어늘 남의 정절을 앗으려 하니 충절 유무를 알리로다. 또한 우리 동국[386]은 례의 지방이어늘 이같은 무례의 서신을 아모데나 함부루 하니 점잖은 인사가 아니라. 녀자 되여 당돌히 남자를 책하는 것 같지마는 차후는 이러한 일은 두 번도 행치 말고 퇴거하여 례기[387]를 독송하시오…»

배 비장이 보아 가다가 퇴것자에 깜작 놀라

«허허, 대사 거의[388]로구나, 다 보아 무엇 하리, 애고 이 일을 어찌 하나, 속절 없이 인제는 도중 원혼이 되였구나.»

방자 곁에 있다가

«여보 나으리, 실심 마시고 그 아래를 또 대보시오구려, 연[389]짜가 씌였으니.»

배 비장 깜짝 놀라며 다시 반겨

«응, 어디, 옳다 옳다 연 짜의 뜻 알겠다.»

«…연이나 장부의 천금 귀체 요만한 녀자로 인하여 골수 병이 드셨다 하니 뜻은 심히 가긍하나, 첩은 규중 심처에 출입을 임의로 못 하오니 그 아니 난처하오 이뭑 번다하여 두어자 답합하옵…»

편지 끝에 또 옛글 한 수를 첨서[390] 하였는데

‹대월 서상하 영풍 호반개라, 불장 화영동하니 의시 옥인래[391]를.›

배 비장 이 글귀를 읽어 보더니 입이 별안간 나발만하게 벌어지며 껄껄 웃음을 웃더니

‹옳다 옳다. 허락이 분명코나, 오늘 밤 삼경시에 담 넘어 오라 한 기약이 첨서 속에 다 들었다.›

밤 들기를 기다려 방자는 제 집으로 내보내고 빈 방안에 혼자 앉아 그 녀자에게 잘 뵈려고 몸 맵시를 한참 내는 판이였다.

외올 망건[392], 전주 탕건[393], 쾌자 전립[394], 광대[395] 띠에 패동개한채[396]로 빈 방안에 혼자 우뚝 서서 도까비 들린 듯이 혼잣말로 두련거리기를

«이 모양으로 가만가만 담 넘어 들어 가면 그 녀인 기수채고 흔연 상영하렸다. 걸음을 한 번 대학지도로 이리 걸어 들어 가, 그 녀자의 섬섬 옥수 덥뻑 쥐고 천만 수심 풀어 볼가.»

한창 이리 습의할 제 방자놈 뜻밖에 문을 털석 열며

«나으리 무엇 하시오?»
배 비장 깜짝 놀라
«너 벌써 왔느냐.»
«네, 군례 전에 대령하였소.»
«이 놈, 내가 깜짝 놀라 바로 땀이 난다.»
하며 패동개한채로 썩 나서니 오제산에 월락하고 어화수에 불 비친다. 아구하니 현잠식이요 춘심하니 학몽난이라, 다정 기약 맺은 랑자 차야 중에 어서 가서 만단정회 풀리로다. 거들거려 썩 나서니 방자놈 배 비장의 소매를 쥐며 권면하는 말이
«여보 나으리, 소견도 바이 없소. 아닌 밤중에 유부녀를 보러 가면서, 저 복색이 다 무엇이요. 그 모양으로 가시다가는 될 일도 다 틀리오리다.»
«그러면 무엇을 입고 가라느냐?»
«우 아랫마기에 수건으로 허리나 잘끈 동이고 가든하게 나서야지요.»
«그러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으냐?»
«초라하거든 가지 마시오그려.»
«이 놈, 요란히 구지 말아. 알몸으로라도 가마꾸나, 이제 보아라 어떠하냐?»
«그것이 아주 좋소마는 누가 보면 한나산 매 사냥'군으로 알겠으니 제주 복색을 한 번 차려 보시오.»
«제주 복색은 어떠하냐?»
«개가죽 두루마기에 노 벙거지를 쓰지요.»
«그것은 과히 초라쿠나.»
«초라커든 그만 두시오.»
«그렇단 말이다. 개가죽은 그만 두고 돼지 가죽이라도 내 입으마.»
배 비장 할일 없이 방자의 지휘대로 다시 차리고 앞뒤를 한 번 살펴 보더니

«이 애, 방자야 참 흉하구나. 범이 보면 개로 알겠다. 군기 총 하나만 내여 들고 가자.»

«흉하거든 가시지 마시오그려.»

«이 애야, 말인즉 그렇단 말이지, 흉하면 어떠하랴. 네 성정이 그렇게 괄괄한 줄은 몰랐다. 정 가기 어려우면 내 업고라도 가마.»

«황송하오이다. 그러면 다른 말씀 마시고 소인만 따라 오시오.»

배 비장 방자 뒤를 따라 가며

«기약 둔 사랑 녀자 어서 가서 반겨 보자.»

서상 월랑 돌아 들어, 동편 중계[397] 다닫으니, 북창에 밝게 켠 불, 고등[398]은 일점이요 야색은 삼경이라, 높은 담 구녕으로 기여 들 제, 방자 먼저 들어 가서

«쉬! 나으리 잘 못 하다가는 큰 일이 날 것이니 두 발을 한데 모아 묘리 있게 들여 미시오.»

배 비장이 방자 말을 옳게 듣고, 두 발을 모아서 들여 미니, 방자놈이 안에서 두 회목을 모아 쥐고 힘대로 잡아 다린다. 몸매나 호리호리하고 허리 통이나 가는 사람 같고 보면, 발목 아니라 엉뎅이를 잡아 뽑더라도 나오겠지마는 원래 배 비장은 살이 과히 진 외에다가 또한 남보다 유명히 불러 아무리 잡아 뽑아도 넙적다리 이상에 와서는 꽉 걸려 다시는 들도 나도 않는지라, 배 비장 궁게 걸려 두 눈이 확 우로 솟고 이를 응응 갈며 참다 못 하여 높은 소리를 내여

«아이구 이 애, 사람 죽겠다. 좀 놓아라» 하면서

«북포 불입[399]하니 출분 기호사로다.»

죽어도 문자는 쓰던 것이였다.

방자놈 웃으면서 한 번 탁 놓으니 배 비장이 곤두박질하여 일어 앉으며 하는 말이

«매사가 순리로 아니 되니 랑패로다. 산모의 해산법

으로 말하여도 아해를 머리부터 낳아야 순산이라 하니 내 상투를 들이 밀 것이니 잘 잡아 다려라.»

방자놈이 배 비장 상투를 노벙거지 쓴 채 왈칵 잡아 다리니 아무리 하여도 나은 줄 모르겠다. 사지 부생[400]이라 원명이 재천이로다. 뺑 하고 들어 가니 배 비장이 아프단 말도 못 하고

«어허, 내 등에는 아마 고누 판을 그렸나보다.»

그러할 제 방자 여쭈오되

«저 건너 불 켠 저 방이 그 녀인의 침소오니 가만가만 들어 가서 욕심대로 얼른 잠간 놀다가 날 새기 전에 나오시오.»

하고 은신하고 엿보것다.

배 비장이 일변 좋기도 하고 일변 조심도 되여 가만가만 자취 없이 들어 가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문 앞에 가서 사뿐 엎대여 손가락에 침칠을 하여 문구녕을 배비작 배비작 뚫고 한 눈으로 들여다 보니, 삽경 등하에 앉은 저 녀인, 년기 이팔 고운 태도, 달도 같고 꽃도 같아 백태 천광[401]이 일신에 뚝뚝 저리여, 색광 상사된 배 비장이 이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다 하리오. 좋고도 반갑고 기쁘고도 희한하여 무심결에 웃음이 한 번 나던 것이였다.

«허허허허.»

저 녀인 놀라는 체하고 문을 덜썩 열어 붙이며

«누가 왔소?»

배 비장 겁결에

«네, 문안 드리오.»

저 녀인 더욱 놀라며

«허, 참 화호 불성[402]이로다. 아모도 뉘 집 미친 개가 길 잘 못 들어 왔나보다.»

전반을 들어 한 번 지끈 치니

«아니요, 나는 개가 아니오.»

«그러면 무엇이니?»

«배 걸덕쇠요.»

저 계집 깜짝 놀라는 체하고 맨발로 웃고 나려 와

«이 밤중에 님이 오셨네.»

손목 잡고 들어 가며

«여보 나으리, 그 복색이 무슨 복색이요, 나는 개로 알았구료.»

«남의 집에 월장[403]하는 사람이 이렇게 차리지 아니하고야 어디 되나, 인기 혹 나면 개 노릇도 하지.»

«아이구, 나으리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이와 같이 만단으로 수작하다가 일시경쯤 지난 후에 방자놈 밖으로조차 언성을 변하여 고함하며

«문 열어라!»

하니, 저 녀인 놀라는 체하고 일신을 벌벌 떨며 황황할제 방자놈 음성 높이

«이 요기롭고 괴이한 년, 내 몸 하나 움직하면 문앞에 신 네 짝은 떠날 날이 없으니 어느 놈과 둘이 미쳐서 두런두런 하느냐. 오늘 밤은 내가 꼭 지켰다. 이 년 놈을 한 주먹에 해골박살 하리라.»

배 비장 혼겁[404]하여 황황하나 외문집이 되여 도망할 수도 없고 알몸으로 이불 쓰고 녀자더러 묻는 말이

«이 밤중에 누가 와서 이다지 야료[405]를 하오?»

«아무 말도 마시오, 야단 났소. 출타한 줄 믿었더니 아니 갔소구료. 그것이 남편이란 작자요.»

«그게 본부 랑군이면 성품은 어떠한고?»

«성정으로 말하면 제일 악남이라 하여도 가하고, 미련으로 말하면 도척[406]의 이상이라 할 수 있고, 기운은 항우요, 우악은 장비[407]라 술 즐기고 셈 발라 제 마음에 화만 나면 백주에 발검키를 홍문연 잔치 시에 번쾌[408]의 방패 쓰듯, 장판교[409] 대전 시에 조 자룡의 장창 쓰듯, 공중으로 칼 던지면 맹호라도 즉사하고 석벽이라도 뚫어

지니 그대 말고 옛날 장비 복판 떼던 범강[410] 장달이라도 살아 보기는 틀렸으니, 불쌍하신 그대 목숨 날로 인해 죽게 되니 그 아니 원통하오, 내가 죽고 그대 살면 대신이라도 하련마는…»

배 비장 애걸하며 이르는 말이

«옛날 진 궁녀는 형가의 큰 주먹에 소매 잡혀 죽을 진왕 탄금[411]하여 살렸으니 랑자도 의사 내여 잃는 목숨 살려 주오.»

저 계집이 홍계 내여, 큰 자루 하나를 하여 두었던 것이였다. 자루 아구리를 급히 벌리더니

«사이급의[412]라, 도망할 곳 없사오니 이 자루 속으로나 들어 가시오.»

«거기는 왜 들어 가라 하오?»

«그리 들어 가옵시면 자연 살 도리가 있으리니 어서 바삐 들어 가시요.»

배 비장이 절에 간 새아씨 모양이 되여 방색[413]도 못하고 들어 가니, 그 계집이 배 비장을 자루에 담은 후 자루 끝을 모도와 상투에다가 매여 등잔 뒷 구석에 세워 놓고, 불켜 놓니 방자놈이 왈칵 문을 열고 서뿐 들어 서 사면을 둘러 보더니 음성을 변하여

«저 방 구석에 세워 둔 것이 무엇이니?»

«그것은 알아 무엇 하시려오.»

«이 년아 내가 물으면 대답할 것이지 방색이 무엇이니, 주리방망[414]이 맛을 한 번 보고 싶으냐?»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하면서 골을 펄쩍 내여 우뚝 일어서며

«거문고에 새 줄 달아 세웠습네.»

롱 치는 체하고,

«거문고여, 그러면 좀 쳐 보세.»

하며 대꼭지로 배 부른 통을 탁 치니, 배 비장이 질색하여 아프기 측량 없으나, 참거문고인 체하고 목자루 속에서 소리를 내여 둥덩둥덩 하니

«그 거문고 소리 장히 웅장하고 좋다. 대현[415]을 쳤으니 소현을 또 쳐 보리라.»

이마 아래 코 근처를 한 번 탁 치니

«둥덩 지덩…»

«그 거문고 소리 이상하다. 아래를 쳐도 우에서 소리가 나고, 우를 쳐도 우에서 소리가 나니 참 그 거문고 이상 괴상하다.»

저 계집 대답하되

«여보 그런 무식한 말은 하지도 마오 옛날 녀와씨[416]가 오음륙률[417] 내실 적에 궁, 상, 각, 치, 우를 청탁으로 누나었으니 상청음도 화담이라네.»

방자놈 옳게 듣는 듯이

«네 말이 당연하다. 그러나 저러나 세사는 검삼척[418]이요 생애는 주일배라 하니, 서정강상[419] 달 밝은데 동각한매[420] 벗을 삼아 술 한 잔 먹어 보고 거문고 한 번 타고 노자. 내가 잠간 술 사 가지고 오마.»

하고 문 밖에 썩 나서니 이 때 배 비장이 자루 속에서 가만한 소리로

«여보 궐자[421]가 거문고를 즐기는 수가 분명 내여 볼 듯하니 다른 데로나 이사 좀 시켜 주오.»

저 녀인 대답하되

«궐자가 술 사러 간다 하는 말 분명 엿들으려 하는 듯 싶사오니 밖에는 꼼짝도 마시고, 저 웃목에 놓인 피나무 궤를 열고 잠시 은신하여 보시오.»

배 비장 궤를 보고 문자는 놓지 않고 쓰던 것이였다.

«체대 궤소[422]하니 하이은신할고?»

저 계집 하는 말이

«그 궤가 밖으로 보기는 적사오나 속이 대단 넓이 은신은 할 만 하니 잔 말씀 말으시고 어서 바삐 들어가오.»

배 비장 탄식하고 궤문 열고 들어 가니, 가위 함정에 든 범이요 독 안에 든 쥐로구나. 녀인이 궤 문 채고 정말 거문고 하나를 자루에 담아 배 비장 섰던 곳에 세우고 한참 기다릴 때, 방자놈 밖으로부터 들어 오며 하는 말이

«아무 것도 경황[423] 없다. 내가 아까 문에 나가다 눈이 절로 스르르 감기더니, 비몽 사몽[424]간에 백발 로인 한 분이 나를 부르시되 네 집에 자루에 거문고와 피나무 궤가 있느냐 하시기에 내 말이 있노라 하였더니, 그 로인 탄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요마한 잡물이 궤중에 들어 작회가 무쌍하니 그 궤는 소화하고 거문고는 내다가 팔라 하시기에 깜짝 놀라 눈을 뜬즉 력력한 현몽[425]이라. 저 궤를 현몽 대로 사를 것이니 집 한 동 갖다가 불피워라.»

이 때 궤 속에 든 배 비장 소화한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탄식하되

«이제는 바로 화장이로구나. 이 일을 어찌할고!»

저 계집 악을 쓰며 하는 말이

«천만 번 부당하오. 조상 때부터 전래하는 소중 기물 없어질가 두렵거던 사람의 자손되여 까닭 없이 소화란 말이 웬 말이요. 그 뿐 아니라 저 궤 속에는 자래로 업귀신[426]이 계셔 우리 집 여러 식구 먹고 입고 쓰고 남게 점지[427]하는 업궤[428]이니 어데를 감히 요동한단 말이요.»

방자놈 화를 내며 하는 말이

«네 행실 저러하니 너 데리고 못 살겠다. 가장집물 귀치 않고 절색 소첩 너도 싫다. 업궤 하나 가졌으면 내 어데 가서 못 살겠니.»

하더니 그 궤를 짊어지고 문 밖으로 썩 나서며

«이 년, 본부 구정 날 버리고 간부 신정 네 좋으니 가대[429] 차지 잘 살아라.»

저 녀인 궤를 붙들며 하는 말이

«업궤는 임자가 가져 가고 나더러는 패가를 하라는가 이 궤는 못 놓겠네. 가대 차지는 임자가 하고 업궤랑은 나를 주오.»

저 놈 하는 말이

«그러하면 량편이 상의[430]하게, 이 업궤 한복판을 먹줄 쳐서 갈라 내여, 한 토막씩 가졌으면 그 아니 평균하랴. 톱 들여라 갈라 보자.»

대톱 들여 마주 잡고

«다리여라 톱질이야, 실근실근 다리여라. 행실 부정 몹쓸 년을 내 모르고 두었더니 오늘이야 알리로다. 월로승[431] 처음 연분 이 톱으로 잘라 보자, 이 궤를 갈라 내여 웃토막은 너를 주고 아래'토막 내 가지면, 나는 소부[432] 되고 너는 대부 되여 분복[433]대로 각기 살자. 이 톱 바삐 다리여라.»

좌르르 솰솰 점점 내려 가니 배 비장이 궤 속에서 어뿔싸, 인제는 속절 없이 요참[434]을 당하는구나. 겁결에 소리를 질러

«이 놈아, 이 미련하고 투미한 놈아, 상말에 하루'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는데 내가 네 집에 수 백년을 동거하여, 오늘까지 의지 석지 간구[435]치 않게 해 준 값에 내 허리를 자르느냐. 자르고 나면 반실이니 사던 계집 그대로 주어라.»

이 놈이 톱질을 하다가 궤 속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가장 깜짝 놀라는 체하고 톱을 땅에 내던지며

어뿔싸, 업귀신이 도섕[436]하여 말소리를 내고 보니 이제는 큰 일 났다. 화침[437]으로 한 대를 찌르리라.»

하고 끝 좋은 가락끄치를 불에 달구어 부지지부지지 쑥 찌르니 송진 끓는 냄새 코를 촉비하며 가락 끝이 바로 배 비장의 왼편 눈으로 내려 온다. 배 비장이 기가

막혀 어뿔싸, 인제는 동제사[438]가 되나 보다. 죽기는 일반이니 악이나 한 번 써 보리라 하고
«이 놈아, 무슨 형벌을 못 하여서 은인의 눈망울을 빼려느냐?»
방자놈 화침질을 내던지고 하는 말이
«에그, 귀신이 제 몸 상할 줄 미리 알고 애걸하니 정리 가긍하다. 그대로 메고 가서 강물에다 넣으리라.»
질빵 걸어 들쳐 메고 대문 밖 썩 나서서 상두'군의 소리로 거드러거려 나가것다.
«워너머차너호, 원산에 안개 돌고 근촌에 닭이 운다. 워너머차너호, 양곡[439]에 젖은 안개 월봉으로 돌아든다. 워너머차너호, 어장촌[440]에 개는 짖고 회안봉[441]에 구름 떴다. 동방을 바라보니 명성[442] 일점 새벽 되고 벽해 십리 그늘 진다. 고고천변 일륜홍[443]은 부상에 둥실 높이 떴다. 워너머차너호, 어와 이 궤 짊어저라 만경창파 띄우리라.»
이처럼 노래하며 나갈 적에, 어데서 한 사람이 나서며 하는 말이
«그 진 것이 무엇이냐?»
«나 진 것은 업궤로세.»
«그 궤를 내게 파소.»
«사다가는 무엇 하려나?»
«업 귀신의 볼기 살이 장질병[444]에 약이라 하니 사다가 약에 좀 쓰려 하네.»
배 비장 궤 속에서 이 말 듣고, 그 중에도 좋아라고 혼자 새겨 생각하되 목숨만 살았으면 볼기 살은 없더라도 상관이 없겠다 하고, 고함하여 하는 말이
«여보 그 뉘신지는 모르겠으나 그 흥정 놓치지 마시오, 성애[445]는 내 하오리.»
이 놈이 궤를 져다 목사또 계신 동헌[446] 마당에다 벗어 놓으며 정말 물에나 넣는 듯이 경계하며 수죄[447]하되

«궤 중 업귀 네 들어라. 네가 실로 업신이면 내 집이 부요하고 오복[448]이 구비하여 그럴 것이 없을터인데 근 십년 간구 생활, 락이라구는 조금도 없고, 더구나 애중 소첩 부정 행위 날로 더해 설상가상으로 내외 리혼까지 되고 보니 네 죄는 만사[449] 무석이라, 창파 만경 띄우리니 속거 천리 멀리 가라.»

하고 동헌 앞 련못 물을 대장대로 뒤흔들어 물소리를 크게 내고, 다시 그릇에 물을 떠서 궤 틈으로 부으면서 흔들흔들 정신 잃게 요동하니 배 비장 궤 속에서 탄식하되

«못 보겠다. 못 보겠다. 천리 고향 백발 로친, 규중 박명 홍안 처자 다시 만나 못 보겠다. 내가 전생 무슨 죄로 이 세상에 생겨 나서 알몸으로 궤에 담겨 수중 고혼 되단 말가. 이 물 속에 내 죽은들 세상 누가 조상하리. 멱라수 아니어니 굴 삼려를 어이 보며 오강수 아니어니 오 자서를 만날손가. 호색 탐재 몸 마치니 내 아니 잡놈인가. 이러할 때 상고선[450]이라도 지나다가 죽는 목숨 건져 주면 그 아니 은덕일가.»

목사 은근히 하인 불러 분부하되

«너희들이 일시에 배 지나가는 소리를 하여 보아라.»

여러 하인 령을 듣고 일시에 삼문을 삐득삐득 곤장을 두드리며 어기어차 소리를 하니, 배 비장 궤 속에서 반겨 듣고 궁리하여 생각하되, 삐득삐득 하는 소리는 닻 감는 모양이요 출렁출렁하는 소리는 노 젓는 모양이니 애내 일성[451]이 반갑도다.

«이 배가 무슨 밴고, 강동을 찾아 가는 장 한[452]의 풍범인가, 적병강 추야월에 소 자첨[453]의 노던 밴가, 불사약 구하려고 삼신산 찾아 들던 서 방사의 목선인가, 채석강 저문 날에 일호주[454] 벗을 삼아 청천 일장지[455]에 복중시 쓰려하던 리 태백[456]의 풍월선인가, 청산 만리[457]

일고주 원포 귀범 지내는 배, 인명이 지중하니 이 궤 실어 날 살리오.»

이와 같이 궤 중에서 고함하니 곁에 있던 사명놈들 사공인 체하고 썩 나서며

«무슨 말이요?»

«거기 가는 배가 어데 배입나?»

«제주 배입네.»

«무엇 실었습나?»

«미역, 전복, 해삼 실었습네.»

«가지 말고 내 말 좀 듣게.»

«어, 무슨 말인가?»

«어렵지마는 이 궤 좀 실어다가 죽을 사람 살려 주오.»

한참 이리 수작할 제, 한 사람이 나서면서

«무변대해 저 수중에 궤 중 언성 괴이하다. 우리 배에 부정 탈라[458], 상앗대로 떠 밀쳐라.»

배 비장 애걸하며

«나는 딴 물건이 아니라, 진정 사람이니 죽을 목숨 살려 주오.»

«사람이거든 거주 성명을 말하여라.»

«네, 나는 제주에 잠시 우거[459]하던 경성 서강 사는 배 걸덕쇠요.»

«옳다, 내 알겠다, 제주라 하는 곳이 물색지지라, 경성 사람들이 종종 랑패를 당한다더니 너도 분명 유부녀 간통타가 저 지경이 되였지.»

«네, 옳소. 뉘신지는 모르거니와 참 바로 알으셨소.»

배 비장 그 중에서 좋아라고

«하늘이 도우시고 귀신이 감동하사 대은인을 만났세라 헌원씨[460] 배를 모아 이제 불통 하신 뜻이 내게 와서

활불[461] 되네. 수중 고혼 이 내 목숨 살려 주면 적덕이니 적덕으로 살려 주오.»

배'사공 하는 말이

«우리 배에는 부정 탈가 못 올리겠고, 궤문이나 열어 줄 것이니 헤염하여 건너 가소.»

«글랑은 념려 마오. 내가 룡산 삼개 왕래할 제 헤염나치나 배웠소.»

«이 물은 짠 물이라 눈에 들면 멀 것이니 감고 헤소.»

«눈은 생전 멀지라도 목숨이나 살려 주오.»

«그럴 지경이면 눈이 멀지라도 날 원망은 마시오.»

하고 함정 같이 감긴 거북 쇠를 툭 쳐 열어 놓니 배비장이 알몸으로 쑥 나서며 그래도 소경 될가 념려하여 두 눈을 잔뜩 감으며 이를 악물고 왈칵 넙다 짚으면서 두 손을 허우적허우적 하여 갈 제, 한 놈이 나서며

«이리로 헤여 오게.»

한참 이 모양으로 헤여 갈 제, 동헌 대청 기둥에 머리를 딱 부딪치니, 배 비장이 눈에 불이 번쩍 나서 두 눈을 뜨며 살펴 보니, 동헌에 목사 앉고, 대청에 삼형수[462]며 전후 좌우에 기생들과 륙방 관속 군노배가, 일시에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참는 것이 웃음이라 목사또 웃으면서

«자네 저것이 웬 일인가?»

배 비장 어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여쭈오되

«소인의 친산[463]이 동소문 밖이옵더니 근래 곤신풍[464]이 들어 이 지경이 되였나이다.»

목사 웃고 의복 내여 입힌 후에

«이 일로 혐의 두지 말고 애랑이 방비[465] 들여 있는 동안 잘 지내소.»

여러 동무들도 위로가 분부하더라.

대저 정남으로 자칭하고, 남 노는 것 비양하며 공방

에 독처하여 청고한체 자랑하던 배 비장이 그 지경을 당코 보니, 상하 로소 보고 듣는 바에 면목을 어찌 들며 잠시인들 어찌 머물를 수 있으리오.»

즉시 목사께 하직하고 여러 동임 작별 후에, 한 양으로 회정하는 거동 무료하기 짝이 없고 초조하기 그지없다. 엊그제 기구[466] 있던 전배 비장 대단 전복, 오늘날 뚝 떨어져 폐포 파립[467] 가련하고, 은안 백마 일변하여 망혜 죽장[468] 처량하다.

이 모양으로 차차 전진하여 조부진 다닫으니 사공은 어데 가고 빈 배만 매였는데, 사면을 둘러 보니 적적 강두 무인처[469]에 물 찬 제비만 오락가락, 짝을 잃은 갈매기는 정처 없이 가는구나. 강수 함정 백운기[470]에 영주도를 하직하니 한나산 좋은 풍경 다시 보기 기약 없다. 이처럼 탄식하며 어서 가기 바쁜 마음 이 노릇을 어찌 하나. 내 행색 초초하니 어느 누가 건너 주며 인적이 끊졌으니 어데 가서 물어 보리.

배 비장이 그 모양을 아니 당하고 정직하게 있다가 과만[471]을 채우고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급한 일이 있어 고향에 가는 것 같으면 치행도[472] 륭숭하고 령갑도[473] 름름하여 사공도 단속하고, 배행 하인도 정할뿐더러 여러 동관 륙방 관속 오리정[474] 강두까지 작별이 대단하련마는, 한 번 실수에 자괴지심[475] 못 이기여 단독 일신 떠나고 보니, 작별은 고사하고 어리친 개 새끼인들 어찌 얻어 볼 수 있으리오. 강변으로 오락가락 선척을 찾을 적에 별안간 물 속에서 거무스럼한 물건 하나이 털벙털벙 나오는지라, 배 비장 깜짝 놀라

«에그머니 저것이 무엇이야. 짐승도 아니요 고기도 아니요, 아마 물귀신이 날 잡으려 나오나보다.»

하고 도망을 하려다가 다시 생각하니 내가 이 모양이 되여 도망하여 살면 무엇 할고. 차라리 저 귀신에게 잡혀 죽는 것이 옳다 하고 이를 바싹 갈며 정신을 차려

자세히 보니, 귀신은 아니요 물 속에 들어 가 전복 따가지고 나오는 계집이라. 머리는 다박나룻 비슷, 몸은 물때가 올라 숱검정 한 가지 모양인데, 발가벗은 몸에 개짐한 폭만 말자갈 먹이듯 잔뜩 차고 나오는 체격은 처음 보는 사람은 뉘라 할 것 없이 기급[476] 질색을 하겠더라.

이 때 배 비장은 떠나는 배가 어데 있나 물어 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여보게 이 사람, 말 좀 물어 보세.»

그 계집이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대답도 아니 하고, 고개를 외두르니 배 비장 그 중에도 분해라고 목소리를 돋우어 다시 책망겸 묻것다.

«이 사람 량반이 말을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소?»

«무슨 말이랍나, 량반량반 무슨 량반이야 행검[477]이 좋아야 량반이지, 진정 량반이면 남녀 유별 례의 렴치도 모르고 남의 녀인네 발가벗고 일하는데 와서 무슨 말이며, 싸라기 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습나.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야. 참 듣기 싫군, 어서 가소. 오래지 아니 하여 우리 집 남정네가 물 속에서 전복 따 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이 날 것이니 어서 바삐 가시라구. 요새 세력이 빨래'줄 같은 배 비장도 궤중 원귀 될번한 일 못 들었습나.»

배 비장이 하방[478]이라고 한손 놓고 하대를 하다가 그 말을 들어 보니 모양이 또 수통할뿐더러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져서 혼자'말로 자탄을 하것다.

«허허, 내가 금년 신수 불길하다. 우리 부모 만류할 제, 오지나 말았더면 좋을 것을, 고집을 세우고 예 왔다가 경향에 유명한 웃음거리가 되고, 또 도처마다 망신을 당하니 해도중이라는 데는 참 사람 못 살 곳이로구.»

하며 분한 마음에 그 계집과 다시 잇살[479]을 어루고 싶지 않건마는 해는 점점 서산에 걸리고 앞길은 물을 사

람이 없어 붙은데 붙으라 하는 말과 같이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 밖에 없다 하여,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다시 수작을 하겠다.

«여보시오,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하였소 이 곳 풍속을 모르고.»

«실수라 할 것이 뭐 있사오리까. 그렇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데로 가시는 량반이십니까?»

«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서울로 갈터인데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 그것을 묻고저 그리 하오.»

«서울 량반이시면 무슨 사로 여기를. 오셨으며, 또 성함은 뉘시오니까?»

«성명은 차차 아시지오마는 내가.이 곳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친환[480] 기별을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가는 배가 없어 이처럼 애절이요.»

«그러하면 가이 없습니다.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 저녁에 다 떠나고, 인제는 다시 사오 일을 기다려야 있겠습니다.»

«그러하면 이 노릇을 어찌 하여야 좋소?»

«참 딱한 일이올시다.» 하더니

«...옳지, 가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잘 태울는지 모르겠소. 저기 저 편 언덕 밑에 포장 치고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가서 물어 보시오. 그 배가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중가[481]를 주고 독선하여 저녁 물에 떠난다더니 참 떠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배 비장이 그 말을 듣고 좋아라고 헐겁지겁 그 배로 뛰여 가서 사공을 찾는다.

«어! 이 배'사공이 누구여?»

사공이 반말에 비위가 틀려

«어! 사공 왜 찾어.»

«말 좀 물어 보면...»

«무슨 말.»

«이 배가 어데로 가는 배여?»

«물로 가는 배여.»

원래 배 비장이 사공더러 위대[482]하기는 초라하고, 해라 하자니 제 모양 보고 받을는지 몰라, 어중[483] 병병이 말을 내놓다가 사공의 대답이 한 층 더 올라 가는 것을 보고 한숨을 휘—쉬며

«허! 내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구나.»

어법을 고쳐 입맛이 썩 들어 붙게

«여보시오. 로형이 이 배 임자시오?»

사공은 목낭청[484]의 혼이 씌웠던지 그대로 좇아 가며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배 임자올시다.»

«들으니까, 로형 배가 오늘 떠나 해남으로 간다지요?»

«예! 오늘 저녁에 떠납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함께 타고 가옵시다.»

«좋은 말씀이올시다마는 이 배가 행객 싣는 배가 아니옵고 해남으로 가시는 내행 한 분이 전선[485]하여 가시는 터인즉 사공의 임의로 다른 행객은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러하겠소마는 친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달리 가는 배는 지금 없고, 이 배가 간다 하니 아무리 내행이 타신 터이라도 이러한 정세를 말씀하시고 한편 이물[486] 구석에 조용히 끼여 가게 하여 주시면 그 아니 적선이요.»

«당신 정경이 가긍하오. 그러면 해진 후에 다시 오시면 내행 모르시게라도 슬며시 타고 가시게 하오리다.»

망망 대해에 물결은 거울 같고, 부상에 뜨는 달은 광명을 널리 흘려 만경창파에 금사를 뿌리는 듯한데 부모 처자 리별하고 천리 도중 나려 와서, 남의 막비나마

명예를 얻지 못 하고, 망신살이 뻗쳐 전정까지 마치는 일 생각수록 절통하고 말할수록 분이 나서 살아서 무엇하며 무슨 면목으로 부모 처자 상대할고. 이처럼 자탄하고 배 속 한편에 엎드리여 숨도 크게 못 쉬고 있는 사람은 기생 오입 잘못 하다가 례방 소임 자퇴하고 한양으로 회정하는 배 비장이오, 잔잔한 등불은 바람결에 흔들리고 교교한 월색은 선창에 비치는데, 원앙 병풍 둘러치고 쌍학침에 의지하여 올연히 앉아 있는 려화 미인은 배 비장을 속여 내던 본부 기생 애랑이라. 이 때 애랑이 무료히 회정하는 배 비장을 만류 차로 이 모양으로 주중에 먼저 나와 기다리던 판이였다.

배 비장은 이왕 계집이라면 활에 놀랜 새 모양으로, 사세부득하여 남의 내행 든 배는 탔으나 까딱하다가는 또 무슨 액화를 당할가 십분 조심으로 매에 쫓긴 까투리 솔 폭 밑에 숨듯, 배 이물 속에 숨도 크게 못 쉬고 누가 알가 겁이 나서 앉았을 즈음에 배 벌써 떠나 살 같이 나아 간다.

한참 배가 중류에 떠나 갈 제, 별안간 배 허리 포장 속으로서 사공 부르는 소리 나더니 한 부인 노기 등등하여 사공을 꾸짖는다.

«배 이물 속에서 듣지 못 하던 남자의 기침 소리가 나니 웬 사람을 내 말 없이 올렸느냐. 내가 이 배를 중가를 주고 전선한 뜻은 타인 남자를 들이지 말고 조용히 가자 한 것인데 어찌하여 모르는 남자를 올렸느냐? 지금으로 곧 나리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가를 못 받으리라.»

«황송하오이다마는 그 사람이 한양 사람으로 이 곳에 왔다가 친환 병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이온데, 마침 가는 배가 없다고 애걸하기로 정경이 불쌍하여 한편 구석에 조용히 올렸나이다. 벌써 반정[487]이나 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하면 반선가는 그 사람에게 받아라.»

배 비장이 가뜩 마음이 조마조마 하던 판에 그 소리를 듣고 보니 이제는 속절 없이 죽을 지경이라, 돈이 있어야 선가를 주고 살지, 이런 팔자가 어데 있나. 이처럼 자탄하고 엎드려 있던 차에 어언간 배가 륙지에 대였다 하더니 일변 내행차 나려가자 사공들이 배 비장을 붙잡고 선가 달라 구박한다.

«이 량반, 선가 어서 내고 가시오. 댁으로 인연하여 천리 바다를 건너고도 선가를 못 받으니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소.»

«할 말씀 없소마는 내가 객지에서 돈이 있어야 드리지요.»

«이 량반아, 그러하면 기침이나 말고 엎드려 있지요. 무슨 호강으로 기침은 그리 야단스리 하였단 말이요.»

«여보시오, 기침도 누가 호강으로 하옵더까, 나오는 기침을 어찌하오.»

사공이 증을 내며

«이 량반 다 듣기 싫소. 이리 오시오.»

하더니 한 놈이 손을 끌고 어느 집으로 들어 가 으슥한 방에다가 몰아 놓고 하는 말이

«댁 집에 기별을 하든지 달리 구처를 하든지, 선가를 내고야 가리이다.»

하고 문을 밖으로 덜컥 잠그고 가니 이 때 날은 벌써 저물어 방 안이 캄캄하나 어느 누가 불이나 켜 주며, 밥이나 갔다 주리오. 배 비장이 종일 굶은 속에 더구나 기가 막혀

«에그! 인제는 굶어 죽었구나.»

이와 같이 탄식할 제, 때는 거의 삼경이라. 홀연 문밖에서 인기척이 나며 잠근 문을 덜컥 열더니 어떠한 일

미인이 한 손에 등불 들고. 련보를 자주 걸어 아장아장 들어 오며

«아이구! 나으리 이게 웬 일이시오. 어서어서 일어나 안으로 가옵시다.»

배 비장이 황겁하여

«에그! 나는 아무 죄도 없소. 살려 주시오.»

«여보, 나으리가 나를 몰라 보신단 말씀이요?»

«누구신지 몰라요.»

그 미인이 배 비장의 손목을 턱 잡으며

«에그! 나으리 눈이 이처렴 어두시단 말씀이요. 애첩 애랑이를 몰라 보십니까?»

배 비장이 애랑이란 말을 듣고 다시 깜짝 놀라 자세 보니 의심 없는 애랑이라 반갑고도 괘씸하여 률기[488]를 한 번 내서 꾸짖것다.

«네가 애랑이면 어찌하여 이 곳에 왔으며 또 무슨 욕을 보일려고 나를 와서 보느냐? 괘씸하고 요악한 년.»

애랑이 깔깔 웃으며

«나으리께 사과는 차차 하려니와 이 집이 첩의 집이오니 어서 안으로 들어 가옵시다. 시장인들 오작 하시오리까.»

배 비장의 허리를 두 손으로 담속 안아 일으키며

«나으리, 나으리 어서 일어 나오. 이 년의 지은 죄 분풀이는 차차 하시고 어서어서 일어 나오.»

배 비장이 분한 마음은 기가 막히건마는 다시 그 아양부리는데 능쳐져서[489] 외양으로는 짜지걸이 한 애랑의 손을 잡아 뿌리며

«놓아라, 놓아라.»

하며 못 이기는 체 안방으로 끌려 들어 간다.

배 비장이 자리를 정한 후에 애랑이 다담상 차려 놓고 옥호[490]에 미주를 따라 일변 권하며 일변 사죄한다.

«나으리 오작 시장하겠소. 어서 약주나 잡수시고, 고생하시던 이야기나 하옵시오. 소녀도 잘못 하온 말씀 자세히 여쭈오리다.»

속담에 임 보고 술 보니 아니 취치 못 하리란 말과 같이 배 비장이 이 삼배 먹고 나니, 취흥이 도도하여 그 전 분하고 괘씸하던 생각이 춘설 같이 녹는지라. 다시 애랑의 옥수를 잡고 한 번 책망하는 말이

«이 못된 사람아, 사람을 속이면 어찌 그다지 속인단 말가?»

애랑이 웃으며 대답하되

«소첩이 기시에는 목사또 장하[491]에 매인 몸이 되였사오니 시키는 일을 어찌 거행치 않사오리까.»

«그는 그렇다 하나, 네 집이 본대 해남이냐?»

«이 곳이 해남이 아니오라, 제주 성 밖이올시다.»

«그러면 내가 해남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 같이 온 내행은 누구며, 또 이 곳이 해남이 아니라 하니 어이된 일이냐?»

애랑이 깔깔 웃으며

«나으리, 내 말 들으시오. 이번 일은 과연 소첩이 나으리 속인 죄를 면치 못 하겠습니다. 그 때 나으리께서 분기를 띄우시고 떠나시니 소첩의 마음에 얼마나 섭섭하오리까. 그 지경 되여 그저 손목 잡고 만류하면 나으리께옵서 듣지 않으실 듯하와, 이와 같이 배를 타고 중류에서 회환하여, 나으리 만류를 하옵는 올길이시라.»

이 날부터 다시 애랑에게 침혹하여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거연[492]히 일삭이 넘는지라. 하루는 배 비장이 애랑더러 하는 말이

«이 애, 애랑아! 내가 그 때 사또께 올라 간다 하직하고, 지금껏 이 곳에 있어 이 모양으로 지내고, 너도 관부에 매인 몸이 일삭이 넘도록 현신을 아니 하였으니, 사또께서 만일 이러한 줄 아옵시면 더구나 나를 사람으로

아시지 않겠구나. 이쯤 생각하고 보면 아무래도 떠날 수 밖에는 없는데, 너를 두고 가자 하니 발길이 아니 돌아서고 데리고 가자 하니 기안[493]에 있는 몸을 사또 모르게 처편[494]키 어렵구나. 이런 답답한 일이 어데 있느냐.»

하며 다시금 수심으로 지낼 즈음에, 별안간 문전이 떠들썩하며

«여쭈, 여쭈 하님[495] 여쭈, 배 비장 나으리께서 만량태수[496]를 하셨다구 여쭈.»

하는 소리 애랑의 집 대문을 깨치는 듯, 이 때 배 비장은 웬 영문도 모르고 뎜뎜하고 있을 뿐이러니 거미구[497]에 영문 하인이 척지[498]와 목사의 서간을 올리거늘 배 비장 황공하여 북향[499] 사배하고, 척교[500]를 배수하니 과연일시 정의[501] 현감이라. 배 비장 만심[502] 환희하여 급히 내실로 들어 가서 애랑더러 이르는 말이

«이 애 애랑아! 내가 아직 꿈을 꾸느냐, 술에 취하였느냐? 진위[503]를 모르겠다. 누가 나를 정의 현감을 시켜 전교 척지와 목사또 서간이 받쳐 왔으니 이 일을 혹 너는 아느냐?»

애랑이 반기여 대답하되

«이제는 전후 수치 다 씻었소이다. 나으리 떠나 가실 때에 목사또께서 애랑 시켜 나으리를 중도에 가서 일삭만 만류하라 하시더니, 과연 오늘 이 경사 있게 하셨구려. 속담에 물에 잡아 넣면 건져 낼 힘도 있다 하더니, 사또께서 나으리를 여지 없이 속이시고 다시 이와 같이 권념[504]하오시니, 첫째 나으리 환복[505]이요 둘째는 목사또의 은덕이요.»

배 비장 애랑 이하, 애랑 대소 친척이며 제주성 내외 지구 동료간[506]에 치하 비'발 치듯하며, 일변 대연을 배설하고 성은을 감축한 후, 수일 지내여 배 비장이 목사또께 연명[507]하고 무수 칭사하니

«그 때 잠시 속은 일을 부대 치의치 말고 애랑 다리

고 신군에 도임하여 치민 선정하여 부대 성은을 보답하소.»

배 비장 사례하고 도임 길 떠나것다. 신연 기구도 찬란하려니와 전후 좌우에 구경'군이 구름 모이듯하여 칭찬이 랑자[508]하며, 혹 배 현감을 가리켜

«저 사람이 엊그저께 피나무 궤 속에서 고생하던 배 비장이더니, 어찌 저렇게 되였나. 참 희한한 일이로구.»

혹 대답하되

«이번에 배 비장이 정의 현감 도임키는 전혀 목사의 주선이지, 한 번 몹시 속은 후에 저와 같이 영귀하면 속지 않을 사람이 뉘 있으리.»

또 애랑의 칭찬이 분분하것다.

만일 배 비장이 아무 일 없이 벼슬을 하였으면 보는 사람들이라도 그다지 칭송이 없으련마는 망신을 극도에 달토록 하고, 또 일조에 귀히 된 까닭으로 이와 같이 야단인 모양일러라.

배 현감이 정의에 도임한 후 치민 선정하여, 거리 거리 송덕비를 세우고, 시화 년풍[509]하며 산무도적하고 야불폐문[510]하니, 표칭[511]에 상등이요 정치에 거갑[512]이라. 차차 승등하여 내직[513]으로 동부 승지, 리조 참판까지 부귀를 누리고, 애랑이 아들 형제를 낳아, 본부인 소생 삼자 일녀와 년치 따라 등과하여 이름을 죽백[514]에 드리고, 공을 청사[515]에 표하며, 목사 김 경의 집과 대대 통가지의[516]를 맺어 일세에 명예가 자자하더라.

주 해

1 배비장전——감사, 류수, 병사, 목사들의 수종원.
2 련화부수——련꽃이 물 우에 뜬 모양으로.
3 탐라——제주도의 옛이름.
4 백천——모든 시내의 근원.
5 경수하여——뛰여나게 아름답기를 다투며.
6 창가——창기의 집.
7 월 서시——중국 월 나라 미인.
8 양 태진——중국 당 나라 미인.
9 최 앵앵——중국 당 나라 때 재능 있던 녀류 문장가.
10 조 비연——중국 한 나라 때 가무를 잘 하던 궁녀.
11 요나하고——간들어지고.
12 청총——흰 빛에 푸른 빛이 나는 말.
13 등극시——왕 위에 오를 때에.
14 제현이 배출——여러 어진 선비들.
15 문반——문관의 반렬에는 유교 경학에 능통한 신하들.
16 무반——무관의 반렬에는 웅휘한 도량을 가진 장수들.
17 제제다사——재주 있는 여러 사람.
18 생원 진사——생원은 소과의 종장에 급제한 사람. 진사는 초장에 급제한 사람.
19 장원 급제——갑과에서 첫째로 급제하고.
20 초입사——처음 벼슬에 오르는 것.
21 한림 주서——문관 정칠품 벼슬.
22 옥당——홍문관의 별칭. 경서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곳.
23 승지——승정원의 정삼품 이상의 벼슬.
24 방백——지방 장관. 관찰사의 별칭.
25 륙방 소임——리방, 호방, 례방, 병방, 형방, 공방의 책임자.
26 배 선달——문. 무과 급제자의 벼슬에 오르기 전의 칭호
27 장막——군막. 여기서는 부임 차비하는 장소.
28 대부인——어머니의 존칭.
29 도중——섬 가운데.
30 시하에 리측키 어려워서——부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곁을 떠나기가 어려워서.

31 제수——왕이 직접 관원을 임명하는 것.

32 도임——지방관이 자기가 근무할 곳에 도착하는 것.

33 저사위한——죽기 내기로.

34 종신——부모의 림종시 곁에서 모시는 것.

35 단망——관원을 천거할 때 단 한 사람 뿐이던 것.

36 실인——안해.

37 물색——인물, 복색 등 풍속.

38 색향——미인, 기생이 많은 지방.

39 회정——갔던 길을 돌아 오는 것.

40 심량——깊이 헤아려서 처리하는 것.

41 이팔 가인 체사수——요간 장검 참우부, 수연 불견 인두락, 암리 초군 골수구——묘령의 미인이란게 몹은 짐승과 같으리니 허리에 찬 장검으로 어리석은 계집을 베리라. 비록 사람의 머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 하였다 하더라도 어둠 속에서 나뭇군이 뼈나 찾으리라.

42 중맹——굳은 맹세.

43 금마——잘 장식한 말.

44 전령패——명령을 전달하는 패쪽.

45 영주——제주도의 별명.

46 만산 화개——모든 산에 꽃피여.

47 산호금편——산호와 금으로 장식한 좋은 채찍으로 말을 몰아.

48 중화 숙소——길 가다가 먹는 정심.

49 신연——도, 군의 장교, 리속이 신임하는 감사, 수령 같은 장관을 나아가 맞음.

50 현신——웃사람에게 뵈는 것.

51 뫼와——받들어.

52 초풍——사나운 바람.

53 안남——안남과 비르마.

54 천사——하늘이 편리를 도모해 주어서.

55 랑청——관아의 속료. 또는 그들이 들어 있는 청사.

56 산수병 모란병——산수, 화초를 그린 병풍.

57 포진——자리를 까는 것.

58 넌출 비단——자리 가장자리에 비단으로 늘어지게 한 것.

59 쌍학침——한 쌍의 학을 수놓은 베개.

60 청동 홍로 병다구——청동으로 만든 화로.

61 장침——장방형으로 생긴 큰 베개의 한 가지, 앉을 때 팔을 받치는 데 씀.

62 안석——앉을 때 몸을 기대는 기구.

63 사방침——네 모로 생긴 큰 베개. 비스듬히 앉아서 팔을 받치는 데 씀.

64 통인——지방 관아에서 잡역에 종사하는 사람.

65 혼금——잡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66 지위——명령을 내리여 알리는 것.
67 상선에 고사하고——배에 오를 때 제사 지내고.
68 상선포——배에 오를 때 포를 발사하고.
69 대풍하여——바람을 기다리여.
70 조조자락 만조래——이른 조수가 스스로 물러가면 늦은 민물이 다시 오르다.
71 지국총지국총——배질하는데 부르는 메김 소리.
72 의선 어부 일견고——배에 의지한 어부의 한 어깨가 높아지누나.
73 아디——돛배에 돛을 다는 줄.
74 호호창랑 로화월——넓고 푸른 물 우에 갈꽃이 피였는데 가을달이 비치고.
75 의려선——중국 월 나라 범려가 타던 배.
76 곡강(중국의 지명)——곡강의 봄 술에 사람마다 취했더라.
77 청천 도수중 어유 백운간——푸른 하늘이 물 속에 거꾸로 비쳤으니 고기가 흰 구름 사이에서 놀도다.
78 경인구——사람을 놀래울 만한 시구.
79 위담——큰 소리하다.
80 작회——지꿎은 장난.
81 소령——작은 산 고개.
82 동정서망 초강분, 수진남천 불견운——동정호 서쪽 초강 갈린데를 바라보니 물길이 다한 남녘 하늘에 구름 조차 보이지 아니 하더라.
83 해천——바다와 하늘이 한 빛이며.
84 묘망무제한데——아득하여서 끝이 없고.
85 용충줄——돛대에 맨 줄.
86 마룻대——배'간의 도리로 된 긴 부분.
87 고물——배의 뒤쪽.
88 이물——배의 앞쪽.
89 고공아——품팔이 하는 사람.
90 화장——취사부.
91 지부왕——염라 대왕.
92 북당——어머니. 또는 어머니가 있는 방.
93 학발 량친——백발이 된 부모님.
94 규중——부녀가 거처하는 곳.
95 부귀 환향——귀한 몸이 되여 고향으로 돌아 오는 것.
96 날구일——날마다.
97 선영——조상의 무덤에 제사 지내는 것.
98 어복——물고기 배를 채우게 되는 것.
99 환로——벼슬 길에 주천을 못 받아.
100 초사——처음 벼슬에 오르는 것.

101 굴 삼려——중국 전국 시대 초 나라 삼려 대부 굴원은 간신의 참소를 입어 끝내는 멱라수에 빠져 죽었다.

102 자작얼——자기가 지은 재앙.

103 제향——제사 지내는 것.

104 영좌, 이좌, 화장'격군——배의 두목 이하 일'군들.

105 복의 천지——제문의 첫머리에 쓰는 말. 엎드려 생각하건대.

106 병장——병풍, 장막 따위의 총칭.

107 성조——거룩한 조정.

108 진명——제사 지낼 때 축문에 쓰는 남자의 대명사.

109 복명——명령을 받들어.

110 하백——물을 맡은 신.

111 동군——봄을 맡은 신.

112 암계——어두운 세상.

113 작얼인——화를 만드는 것.

114 동해 광연, 서해 광덕, 남해 광리, 북해 광택,사해 룡왕——사해 룡왕의 이름들.

115 생은 기요 사는 귀라——삶은 붙임이요 죽음은 돌아 가는 것이라는 불가의 말.

116 하우씨 앙천탄——고대 중국 하 나라 우 왕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 것.

117 교결——맑고 밝은 것.

118 돈식——한 번에 먹는 것.

119 일발청산 부취색, 대붕비진 수여람, 자언거수 승거산, 3공불환 차강산——한 가닥의 머리털과 같이 까마득하게 보이던 푸른 산에 파란 빛이 어리였고, . 대붕(새 이름)이 날아 가듯 비 바람 지나간 바닷물은 쪽빛과도 같거니 스스로 말하기를 물에 사는 것이 산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옛말에도 있거니와, 이러한 강산은 정승 판서로도 바꾸지 않으리라.

120 격양가——태평스러운 세월을 즐기는 노래.

121 성은——임금의 은혜.

122 란산 잔록——산발에 남은 푸른 빛.

123 화병——그림 그린 병풍.

124 주란 취각——단청을 곱게 한 루각.

125 재자 가인——재간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녀자.

126 수청——고관 앞에서 수종하는 것.

127 월로승 인연——좋은 연분.

128 별주——리별 술을 서로 마시는 것.

129 상전 벽해——뽕나무 밭이 바다로 됨. 변화가 무쌍함을 말함.

130 호사가 다마——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고.

131 부장하여——길지 못 하여.

132 실성——정신이 혼미해 지니.

133 교목——큰 나무.

134 허희——흐느끼는 모양.

135 해성 추월 옥소성——한 고조가 항우를 포위하였던 해하성 달 밝은 가을 밤. 옥퉁소 소리에.

136 우미인——항우의 애인.

137 항왕의 강개탄——초패왕 항우의 분개와 탄식.

138 마외역——중국 섬서성에 있는 지명. 이 곳에서 절세 미인 양귀비가 죽었다.

139 명황——양 귀비를 사랑하던 당 나라 현종.

140 일신 상사——한 몸이 생각하는 것은.

141 도화 옥빈——복숭아 꽃 빛'갈 돋는 옥 같은 뺨.

142 장우 단탄——길고 짧은 한숨 소리.

143 하방 천기——시골 천한 기생.

144 경화 귀빈——서울 귀한 손님.

145 박명첩——기박한 운명으로 태여난 녀인.

146 록엽성음——꽃 떨어지고 푸른 잎 무성하여 열매만 가지에 가득하여.

147 개유——다 이르는 것.

148 고직——창고를 지키는 사람.

149 중량——중량 이하 귀중한 선물 품명과 수량을 렬거하였는데, 그 중 월자는 달래, 마미는 말꼬리 털, 장피는 노루 가죽, 록비는 사슴의 가죽, 대하는 큰 새우, 백자는 잣, 진피는 귤 껍질, 각게수리는 서랍이 많이 달린 옛날 옷장, 제마는 제주말, 은안금편은 은으로 장식한 안장과 금으로 수식한 채찍, 간지는 편지 종이.

150 리한공수 강수장——리별의 원한은 헛되이 수심이 되여 강물과도 같이 길어.

151 갱파라삼 문후기——다시금 옷 소매를 잡고 다음 만날 기약을 묻노라.

152 송군남포 루여사——임을 남쪽 포구에서 보냄에 눈물이 샘솟듯 한다.

153 류양방초 갱상사——푸른 버들, 꽃다운 풀이 우거지는 때 그대 생각 더욱 간절하리.

154 적적공방 추야장——쓸쓸히 빈 방에 가을 밤은 기나긴데.

155 전전반측——누워서 자반뒤집기를 하며 잠 못 이루는 것.

156 첩첩수다몽불성——쌓이고 쌓인 수심이 많아 꿈을 이루지 못 함.

157 천산 만수——많은 산과 물이 가로 놓인.

158 군불견 상사고——임을 보지 못 하는 쓰라진 생각에.

159 로생침 한단몽——로생이 한단에서 이룬 꿈. 인생의 오복이 한날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중국의 옛 이야기.

160 림별 중언 단단상약——작별하는 마당에서 거듭 다진 약속.

161 서 덕언——사람의 이름.

162 신표——기념하기 위하여 주는 선물.

163 서허——서먹 서먹 해 하지 말고.
164 송기대——소나무의 속껍질.
165 어류 광음——물과 같이 빠르게 흐르는 세월.
166 갓옷——모피로 안을 넣어 지은 옷.
167 맹사군——중국 전국 시대 제 나라 재상.
168 호백구도——여우 털 갓옷.
169 행희——녀자의 이름.
170 수가——중국 전국 시대 사람.
171 일저포——베옷.
172 범숙——중국 전국 시대 위 나라 사람.
173 련련 고저——오래 사귀여 잊을 수 없는 알뜰한 정의.
174 새북——변방 북 쪽에서 기러기 떼 날아 들 때.
175 강촌 모설눈——강변 마을에 내리는 눈을 무릅쓰고.
176 천수 만수——천, 만으로 헤일 나무에 배 꽃 같은 눈이 흩날리고.
177 초수 오산 도로난——초수를 건너고 오산을 넘는 길이 험악한데.
178 사군 보월——그대를 생각하노라 달 빛을 밟으며 재벽 하늘 밑에 섰노니.
179 돈피——잘로 만든 머리에 쓰는 방한구.
180 유인이 오롱거하니 보검이 치천금이라——어떤 사람이 오롱(지명)에 갔더니 좋은 칼이 천금에 해당하더라.
181 분수 상증——위신을 돋우었다 하니.
182 금병도——자루를 금으로 장식한 칼.
183 방신 보검——신명을 보호하는 보배 칼.
184 서군——중국 옛날 서 나라 임금.
185 연릉 계자——연릉은 지명, 계자는 중국 춘추 시대 사람.
186 등심——날이서
187 속수——쟁기 벼리는 삯.
188 반루 반소——절반 눈물, 절반 웃음으로.
189 오동철병——오동 잎을 새겨 넣은 칼 자루.
190 지재 지삼——두 번, 세 번.
191 충신 출어고문 렬녀——충신은 외로운 집안에서 나고, 렬녀는 미천한 녀자게서 많이 생긴다.
192 시문 문견폐 개소리——사립문에 개 짖는 소리 들리고.
193 풍설야——눈보라 치는 밤 인적도 그쳤는데.
194 야삼경——밤 열 두 시 경에.
195 설치——치욕스런 것을 씻는 것.
196 서중병——여름철 더위 병.
197 용검법——칼 쓰는 법.
198 촉루검——중국 춘추 시대 오 나라 충신 오 자서가 참소를 당하자 촉루검(칼 이름)으로 자살함.

199 태아검——태아검은 칼 이름. 륙국은 전국 시대 초, 제, 연, 한, 위, 조의 여섯 나라였는데 진 나라가 이를 통합함.

200 전필승——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치면 반드시 빼앗는 것은 회음 후 한 신의 칼 쓰던 법이라는 것.

201 충이위질——충성으로 바탕을 삼고 인도로 둘러 삼은 공자의 용검법을 평함이라.

202 항장——진 나라 말년에 홍문에서 항우와 패공이 회견할 때 항장은 허명검(검 이름)으로 패공을 치려 하였다.

203 범증——항우의 모사 범 증이가 분해서 깨뜨린 옥 패물.

204 형가——전국 시대 자객 형 가가 도중검(검 이름)으로 진 왕을 찌르려 하다가 거문고 한 곡조에 성공하지 못 하고 도리여 잡혀 죽다.

205 공불성검——성공하지 못 한 용검.

206 관공의 청룡도——중국 삼국 시대 촉한 명장 관 우가 쓰던 청룡도(칼 이름).

207 류계의 적제검——한 고조 류계의 적제검(칼 이름)은 못 가로 지나가는 밤길에서 흰 뱀을 만나 처단하였다.

208 남포지석——남포에서 나는 숫돌.

209 숙수——관원이 사복으로 입는 비단 옷저고리와 분주(평안도, 황해도에서 나는 명주) 바지.

210 안진 서난기, 수다 몽불성——기러기가 편지를 전하였다는 옛말에 의탁하였으니, 즉 기러기가 없음에 편지를 부치기가 어렵고, 수심이 많음에 잠을 이루지 못 한다는 것.

211 강두 춘풍——강가에 부는 봄 바람.

212 처네——어린애를 업을 때에 두르는 끈 달린 작은 이불.

213 감지——매우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

214 소존자——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215 신체발부 수지부모 효도——사람 몸의 피부와 머리카락들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몸에 상처를 아니 냄이 효도의 처음 순서라는 효경에서 나온 말.

216 원기——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

217 공방 고자——공전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지방 관아에서 물품을 간수하는 하인.

218 몰방친——한꺼번에 도맡아 함.

219 지룡이——지렁이.

220 좌충——사방으로 지찔어.

221 상산 조 자룡——중국 삼국 시대, 촉한 장수 조 자룡은 창 잘 부리는 명장이였다.

222 타리듯——후리듯.

223 봉패——실패를 당하는 것.

224 초취 이취 삼취——행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을 불던 것.

225 로가 일성 하양주라——배'노래를 부르며 양주(중국 지명)땅으로 내려 간다는 옛 시 구절.

226 방사 서시——진 시황의 명령으로 불사약을 구하러 동해로 떠난 방사(방사——소위 신선의 술법을 닦는다는 사람)인 서시라는 사람.

227 범 상국——월 나라 재상 범려가 절세 미인인 서시를 배에 싣고 오호에서 놀았으니.

228 전배——관원을 인도하던 비장.

229 리친척 원부모——친척과 부모를 멀리 떨어져서.

230 하인 소시——아래'사람 보는 바에.

231 려기——성을 내여.

232 경향——서울과 시골로 두루 돌아 다니기를.

233 경국 미색——나라에서 첫째 가는 미인.

234 드난 밥을——남의 집 부엌 일을 해 주던 구차한 살림.

235 안구——말 안장까지 걸질러서.

236 언힐——말로 힐난하는 것.

237 좌우 청장——좌우의 길잡이 표식.

238 전배 후배——앞 뒤에서 관원의 거동에 수종하는 관예들.

239 삼승 섭수——수종 하인들의 복장, 또는 기구들.

240 혼금——잡인의 출입을 금하는 것.

241 청일산하——의식에 쓰는 기구의 한 가지. 일산은 흰 바탕에 푸른 선을 둘렀다.

242 취타성——취악기, 타악기로 연주하는 음률.

243 청도——행차하는 길의 청소때 맨 앞에 세우는 «청도»라고 쓴 군기의 하나.

244 순시——군중을 순찰할 때 세우던 두 자를 쓴 기.

245 대단 천익——비단으로 만든 관복.

246 궁전——활과 화살.

247 저모 전립——돼지 털로 안 받친 전립.

248 밀화——호박, 대모, 수정들로 만든 갓끈.

249 은입사——은실을 박아 장식한 것.

250 맹호수——범의 수염 털.

251 사마치——옛적 군복을 입고 말을 탈 때 두 다리를 덮던 옷. 여기서는 공주산인 명주로 만든 것임.

252 은안 백마——흰 말에 은 장식한 안장.

253 운종룡——구름은 룡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쫓듯이 위풍 당당하게.

254 승피백운——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선인들.

255 전알전에 사배——임금이 태묘나 문묘 같은데 참배하던 집에 네 번 절하고.

256 다담상 철상——음식상을 치우니.

257 성화당——관찰사, 목사들의 사무를 보던 대청.

258 전갈——사람을 시켜서 말을 전달하는 것.

259 회동——함께 모여.

260 소졸——거칠고 옹졸하여.

261 수노——관아에서 일보는 하인의 두목.

262 엄곤——엄중하게 매질하고 쫓아 내리라.

263 배회——이리 저리 거닐다가.

264 평명——다 밝은 후에.

265 안책——관청에서 전임 관원의 리력을 기록하였던 책.

266 만리화풍——각이한 기생들의 이름 우에 그 이름이 가지는 한자의 의미를 그와 련관되는 한문 글귀로 따로 형용하여 부르는 것인바, 류엽이라는 기생의 이름 자는 《버들 잎》이란 뜻을 갖기 때문에 《만리 화풍》 즉 세상에 화창한 봄 바람이 불어 오는데 버들잎이 나붓긴다는 의미이니, 다음 다른 기생의 점고도 이런 투로 버러지는 것이다.

267 시능부능——시 부도 잘 하며, 노래와 춤에도 능란한 제일 아름다운 애랑이.

268 점고——낱낱이 사람의 수효를 조사하는 것.

269 아미——미인의 눈섭.

270 호치——흰 이'발.

271 훼절——절개를 깨뜨리는 것.

272 화류——꽃과 버들, 여기서는 경치 좋은 데서 노는 것임.

273 람여——위를 덮지 아니한 의자와 같이 된 승교.

274 절월——고관이 행차할 때 호위로 배행하는 관원들과 기'발 및 병장기.

275 백수 단삼——흰 옷 소매와 적삼.

276 만수화림——수 많은 나무가 무성하고 꽃이 만발한.

277 왕 발——중국 당 나라 저명한 문인으로서 등왕각서를 초하였는바, 그 글 가운데 《각우주지 무궁》이라는 명구를 삽입하였는바 우주는 끝 없이 넓고 크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시구.

278 등태산——공자가 태산에 올라 가서 천하가 작다고 했다.

279 이조명춘——기이한 새들이 봄을 노래한다.

280 백화산 제백조——백 가지 꽃이 흩어지고, 지저귀는 백 가지 새들.

281 해외 삼산——신선이 살고 있었다는 봉래, 방장, 영주 세 산.

282 만장——만 길이나 되는.

283 장천 일색——하늘과 한 가지 빛'갈.

284 산수춘풍——산과 물에 봄 바람이 스치는 한 없는 경치.

285 천장한양로천리, 해활영주 파만경, 여화미인 간초월, 취롱강산 무한경——하늘 저쪽으로 한양 길은 천리로 티여 있고, 바다는 넓어 영주는 만경창파로 둘려 있다. 꽃 같은 미인은 초순 달을 바라며 취하여 강산의 다함 없는 풍경을 사랑하노나.

286 태백——술의 별명.

287 주순——붉은 입술, 가는 허리.

288 단계화 명월궁——붉은 계수나무 꽃 핀 밝은 월궁(달 속에 있다는 궁전)에 선녀가 거니는 듯.

289 양대 운우——초 나라 양왕이 꿈에 무산의 선녀를 만났다는 고사에서 생긴 말이니, 남녀가 양대에 만나 즐거운 꿈 속에 잠기는 것을 말함.

290 평사——평평한 모래 터에 기러기 내리는 모양으로.

291 아미산 반륜월——아미산(중국에 있는 산 이름) 반쪽 달이 맑은 강물 속에 잠긴 듯.

292 별유천지 무릉춘——딴 세상 같은 무릉(중국 지명) 땅 봄에 복숭아 꽃은 흐르는 물에 따라 아득하니 내려 간다는 격으로.

293 백구 동동——갈매기 동동 물 우에 떠다니는 모양으로.

294 록파 담담——푸른 물결이 맑고 맑은.

295 구십춘광——봄 철 석 달 동안.

296 연적——벼룻물을 넣어 두는 그릇.

297 청계화엽——맑은 시내'가 꽃 잎이 활짝 피였는데.

298 호치 단순——흰 이에 붉은 입술.

299 류엽선——버들 잎으로 만든 배.

300 구룡소——머리 빗는 얼래빗의 일종.

301 어변성룡——물고기가 변하여 룡이 되려.

302 구대 정남——오래도록 깨끗하게 지내 온 남자.

303 굳치——못 쓰게 만들겠다.

304 안간힘——고통을 참고 이겨 내는 힘.

305 주사 청루——술 팔고 계집 노는 집.

306 삼생——소위 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

307 공행——헛되히 가랴.

308 비조 투림——나는 새는 숲 속으로 내려.

309 일모 창오——해는 창오(산 이름)에 저물어.

310 급곽란——여름에 음식에 체하여 별안간 토하고 설사가 심한 병.

311 락악지인——중국 후한이래 가끔 수도로 된 도시인바, 여기서는 서울에 한 가지로 산다는 뜻으로 쓰임.

312 환관——관사로 돌아 갈 때.

313 취안이 몽롱——술에 취한 눈이 흐리멍덩하여.

314 중대——중턱.

315 산회로전 불견구——산 돌고 길 바뀌여 이미 그대(목사) 보이지 아니 하니.

316 려수——중국 지명인바 금의 산지로 알려졌음.

317 곤륜——중국의 산인바 옥의 산지로 알려졌음.

318 이십사번 화신풍——일년 이십사 절기 치고 꽃 시절 바람에.

319 동각설중——동각은 중국에서 인재를 초대하던 집으로서, 매화를 많이 심었는바, 눈 속에 꽃이 피므로 설중 매화라고 한다.

320 구월 룡산——룡산(중국 지명)은 국화 꽃으로 이름이 높은바 9월이 한창이다.

321 오호 청풍——오호는 춘추 시대 월 나라 서시라는 미인이 범려와 놀던 곳.
322 온천수——당 나라 미인 양 태진이 온천수에서 목욕하였다는 옛 이야기.
323 입안 혼미——눈에 들어 정신을 어지럽게 한다는 불여우.
324 반상——량반과 상인.
325 보리——《매 맞다》의 속어.
326 지동 지서——동쪽을 가리켰다 서쪽을 가리켰다 하는 것.
327 근수루대에 선득월——물 가까운 루각은 달을 먼저 보도다. 동쪽 바다 멀리 바라보니 금닭이 홰에 오를 때, 달무리가 붉도다.
328 약수——약수(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던 강의 이름) 류역 삼천리에 봄 빛이 아득한데.
329 요지 왕모——신선 서 왕모가 요지에 내려 온 것.
330 곤화위붕 수여남——곤이라는 큰 고기가 붕이라는 큰 새로 변화한다는 그 물결은 쪽빛과 같고나.
331 청천에 삭출 금부용하니 진북 명산——푸른 하늘에 금빛 련꽃 같이 솟아 있으니, 저것이 북쪽을 진정하는 명산이 아니냐.
332 백로——신선 려 동빈은 백로를 타고, 당 나라 리 태백은 고래를 타고 차례로 하늘로 날아 올라 간다.
333 신선이 귀동천——신선이 동켠 하늘로 돌아 가니 헛되이 비들만 남음 같도다.
334 차산 과객——이 산을 지나 치던 길손이.
335 행력——걷는 힘이 길에 지치여.
336 동치——동동이보다 좀 짜른 것.
337 금채 화기——금빛으로 채색하고 그림 그린 사기.
338 청유 백분——맑은 기름과 흰 가루.
339 두견 화전——두견 꽃 잎을 붙인 꽃전.
340 동정 추파——중국 동정호 가을 물결처럼 맑은 술을 목이 긴 병에 넣어.
341 량인 대작 산화개——리백의 시에서 딴 말이니 두 사람이 마주 술을 마시는데 산 꽃도 피였도다.
342 군자는 견기이작——어진 사람은 기회를 보아 일을 짓는다.
343 속거 속거——빨리빨리 물러 가라.
344 감에 잇자옥——감과 감자는 서로 다른 과실인데 여기서는 감자와 혼동하고 있다.
345 천생양하고 지생음 하니 음양 배합——하늘에서 양기가 나고, 땅에서는 음기가 나니 음양이 배합함은 리치가 있는 것이다.
346 홀등차산——문득 이 산에 올라.
347 탐화——꽃을 탐내는 벌 나비.
348 지지우지지——알고 또 알아 달라.
349 답례 불청——대답하는 인사는 듣지도 않고, 무례함을 크게 꾸짖음.
350 주소——밤낮.

351 세우 춘풍——봄 바람에 가는 비가 끊치지 않는데.
352 무장 업화——삼천 길이나 되리만큼 맹렬한 욕심의 불길이 한 몸을 살라서.
353 춘규——녀인들이 거처하는 방.
354 패독산——감기에 쓰는 한방 약명.
355 망녕——로망하여 언행이 부실한 것.
356 당약——들어 맞는 약.
357 문한가——때대로 문필의 재주가 있는 사람이 나온 집안.
358 팔면부지 초면객——안면이 없는 사람.
359 결녀——그 녀자.
360 다년 관문——여러 해 동안 관아의 문 안에서.
361 적빈 무의——붙어 씻은 듯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
362 대궁——먹다 남은 밥.
363 사불여의——일이 뜻과 같지 않아.
364 애휼——불쌍히 여기여 은혜를 베푸시니.
365 분골쇄신——뼈가 가루로 되고 몸이 부서진들.
366 제막——제주 목사의 부하.
367 돈수 재배——머리 굽히여 두 번 절하고.
368 랑자——남의 집 처자를 존대하여 하는 호칭.
369 편비——남의 구종 드는 사람.
370 욕망——잊으려 하여도 잊기 어렵고, 생각지 않으려 하되 저절로 생각이 되는 것.
371 식불감——먹어도 맛을 모르고 누워도 잠을 청하지 못 하여.
372 장탄식——크게 탄식하고 창자를 끊는듯한 신음 소리.
373 탁 문군——중국 한 나라 탁 광의 손녀 문군이 문인 사마 상여의 거문고 소리에 마음이 끌리여 따라 간 고사.
374 인사 백년——인생 백년 가기가 흐르는 물과 같아.
375 시호시호 부재래——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
376 부득 장춘——청춘을 길이 간직하지 못 한다는 것을 한탄하리니.
377 활인 적덕——타인의 목숨을 건져 덕을 쌓는 것.
378 세세 참상——자세히 보살펴 주신 후.
379 금옥 호음——금이나 옥에 비길 좋은 대답.
380 산은 해덕——산 같은 은혜와 바다 같은 은덕에 대해 정성껏 은혜를 갚으리라.
381 소답——웃음으로 대답하고.
382 합신——온통.
383 대학지도——사서의 하나인 《대학》의 서두에 나오는 《대학지도는 재명명덕…》을 읽듯이.
384 사군충——임금을 섬김에 충성으로, 남편을 좇음에 정절로 한다는 봉건 도덕.
385 천지지상정——세상 사람에게 공통되는 성정의며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는 의리이어늘.

386 동국——동쪽 나라 조선은 례의 있는 나라이어늘.
387 례기——례의 법절을 기술한 책 《례기》를 읽고 외이시오.
388 대사——큰 일이 글러지는구나.
389 연——연짜는 그러나의 뜻.
390 첨서——덧붙여 썼는데.
391 대월 서상하, 영풍호반개, 불장화영동, 의시옥인래——달을 서쪽 처마 밑에서 기다리는데 바람을 맞아 지게 문은 반쯤 열렸으라. 담장을 떨침에 꽃 그림 움직이니 행여 임이 오신가 하노라.
392 외올 망건——말총 외올로 만든 망건.
393 전주 탕건——전주에서 만든 탕건.
394 쾌자 전립——등 솔이 있고 소매가 없는 전복과 전모.
395 광대——넓은 띠.
396 패동개한채——동개는 활, 화살을 넣어서 등에 지는 가죽 그릇으로 만든 것. 패동개는 동개를 차는 것.
397 송계——소나무 선 층층다리.
398 고등——외로운 등잔불.
399 복표 불입——배가 불러 들어 가지 아니 하니 똥이 나오고 거의 죽을 지경이다.
400 사지 부생——죽을 고에 빠져서야 다시 살아 나는 것이라 원래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는 것이로다.
401 백태 천광——백 가지 태에 천 가닥의 빛이 한몸에 담뿍 어리여서.
402 화호 불성——화호 불성 반류구에서 온 말이니, 범을 그리다가 잘못 되면 도리여 개와 같이 된다는 뜻.
403 월장——담을 넘는 것.
404 혼겁——겁에 질려 진정을 못 하는 것.
405 야료——행패하는 것.
406 도척——중국 고대 큰 도적의 이름.
407 장비——중국 삼국 시대의 장수.
408 번쾌——번쾌는 중국 한 나라 초기 개 백정 출신으로 고조를 따라 후일에는 무양후에 봉한 장수.
409 장판교——장판교는 중국 삼국 시대 촉과 위가 싸운 곳.
410 범강——중국 삼국 시대 장수들 이름.
411 탄금——거문고를 뜯어.
412 사이급의——일이 이미 급한지라.
413 방색——내색도 못 하고.
414 주리방망——옛날 죄인을 문초할 때 두다리를 묶고 그 새에다 방망이를 끼여 비틀던 체형의 한 가지.
415 대현——큰 줄.
416 녀화씨——중국 태고 시대의 녀왕의 이름. 삼황의 하나인 복희씨의 동모 누이라고 전한다. 녀와씨의 오기.
417 오음 륙률——오음은 궁, 상, 각, 치, 우의 다섯가지 음률. 륙률은 양성에 붙은 여섯가지의 소리.

418 세사검삼척, 생애죽일배——세상 일은 석자 칼에 달려 있고, 사람의 생애는 술 한 잔이면 그만이다.

419 서정강상——서쪽 정자 서 있는 강 우에 달이 밝은데.

420 동각한매——동각 눈 속에 피는 매화.

421 궐자——그 사람이.

422 체대 궤소——몸뚱이는 크고 궤짝은 작으니 어떻게 몸을 숨기겠는가.

423 경황——어찌 할줄 모르는 모양.

424 비몽사몽——꿈인지 생시인지 분간 못 할 혼몽한 때.

425 력력한 현몽——똑똑한 꿈이라.

426 업귀신——인연 있는 귀신.

427 점지——지시하는.

428 업궤——인연 깊은 궤.

429 가대——집 터전과 그에 달린 원림.

430 상의——서로 마땅하게.

431 월로승——남녀의 연분을 맡아 본다는 월로가, 푸른 실 붉은 실로 두 사람을 매여 놓는다는 전설.

432 소부——조그만 부자.

433 분복——타고 난 복의 분수 대로.

434 요참——허리를 자르던 옛날의 형벌.

435 의지 식지 간구——입고 먹는데 곤난함이 없게.

436 도생——살기를 도모하여.

437 화침——불에 달군 쇠교챙이.

438 통제사——삼남 수군을 통제하던 벼슬 한 쪽 눈을 상한 애꾸눈의 별명.

439 양곡——동쪽 해 돋는 곳.

440 어장촌——고기 잡는 마을.

441 회안봉——산 이름.

442 명성——새'별. 즉 금성.

443 고고천변 일륜홍——밝은 하늘가에 솟아 오르는 해'빛이 붉은데.

444 장질병——만성병. 긴 병.

445 성애——물건을 매매할 때에 계약이 성립된 증거로 거간의 팁회 하에 음식 같은 것을 나누는 것.

446 동헌——지방 관아에서 원님의 공자를 처리하던 청사.

447 수죄——범죄 행위를 낱낱이 지적하는 것.

448 오복——수, 부, 강녕, 호덕, 고종명의 다섯 가지 복이라 칭하던 것.

449 만사——만 번 죽어 아까울 것 없다.

450 상고선——장사 배.

451 애내 일성——배'노래 한마디.

452 장 한——장 한은 진 나라 때 문학가로서 락양에 들어 와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고향풍들이 그리워 풍범을 타고 그의 고향 오중으로 돌아 갔다.

453 소 자첨——송대 문장가 소식의 자는 자첨이다. 그는 적벽강에서 배'놀이하고 유명한 문장 《적벽부》를 남기였다.

454 일호주——한 병의 술.

455 청천 일장지——하늘을 한 장의 종이로 삼아 배'속의 시를 쓰려던.

456 리 태백——당 나라 문호 리 태백이가 풍월짓는 배.

457 청산 만리——만리 간이나 련속되는 청산을 지나치며 흐르는 한척의 외로운 배거나, 돛을 단 채 먼 포구로 돌아 드는 배.

458 부정 탈라——꺼리는 물건을 보는데서 신명에 해로움이 미친다는 것.

459 우거——림시로 깃들어 살던.

460 헌원씨——삼황의 한 사람인 황제를 말함.

461 활불——산 부처. 자비심이 많음을 가리킴.

462 삼형수——각 고을의 호장, 리방, 수형리.

463 친산——부모의 산소.

464 곤신풍——서남풍 딴 이름.

465 방비——수청 들임.

466 거구——차림이 례법 대로 갖추어 있던.

467 폐포 파립——해진 도포, 망그러진 갓.

468 망혜 죽장——메투리에 대지팡이 짚은 차림.

469 적적 강두 무인처——쓸쓸한 나루'가.

470 강수 함정 백운기——강'가의 나무도 정을 품고 하늘에는 흰 구름이 있는데(리별에 제해 자연 현상까지도 서러워 한다는 뜻),

471 과만——벼슬의 임기를 채우고.

472 치행도——길 차비도 두드러지고.

473 령갑도——법도도 위풍이 당당하여.

474 오리정——강 가까이.

475 자괴지심——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476 기급——놀라서 숨이 막히는 것.

477 행검——행실.

478 하방——서울에서 떨어진 지방.

479 잇살——말을 주고 받고 싶지 않건마는.

480 친환——부모의 병환.

481 중가——비싼 값.

482 위대——공손한 대우.

483 어중——중간 치기로 어정쩡하게.

484 목낭청——분명하지 않게 어름어름 대답하는 사람의 혼이 씌웠던지.

485 전선——배를 독차지하는 것.

486 이물——배'머리.

487 반정——절반 길.

488 률기——화를 내는 모양.

489 능쳐져서——누그러져서.

490 옥호——옥으로 만든 병.
491 장하——지배하에 있는 몸.
492 거연——어느 사이에.
493 기안——기생 이름을 적은 책.
494 처편——편리하게 처리하기.
495 하님——계집 종들이 서로 부르던 존대.
496 만량 태수——국록이 많은 원님.
497 거미구——문득 오래지 않아.
498 칙지——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
499 북향——북녘인 서울 쪽.
500 칙교——임금의 교시.
501 정의——제주도 정의골의 현감이라.
502 만심——가슴이 벅차게 기뻐서.
503 진위——참인지 거짓인지.
504 권념——사랑하여 념려하시니.
505 환복——벼슬 길이 순조로 되는 것.
506 지구 동료간——오래 사귀여 아는 사람들과 동관들 사이에.
507 연명——공식으로 아뢰는 것.
508 랑자——자자한 것.
509 시화 년풍——나라가 태평하고 곡식이 잘 되는 것.
510 산무도적 야불폐문——산에 도적이 없고, 밤에 대문을 닫지 않으니.
511 표첨——포폄의 오기인 듯. 시비, 선악을 평정하는 것, 칭찬하는 것과 나무람하는 것이 뒤여 나고.
512 거갑——첫재를 차지하는 것.
513 내직——서울안의 각 관서의 벼슬들.
514 죽백——력사를 기록한 책.
515 청사——력사.
516 룡가지의——친구 사이에 내외 없이 지내는 정의.

ИМЧЖИННОК
(«СКАЗАНИЕ О ВОЙНЕ
В ГОД ДРАКОН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Утверждено к печати
Секцией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РИС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

Редакторы *Н. Г. Михайлова* и *А. И. Хан*
Художник *М. Ф. Ольщевски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едактор *И. Р. Бескин*
Технический редактор *С. В. Цветкова*
Корректор *С. С. Ли*

*

Сдано в набор 27/V 1966 г.
Подписано к печати 27/IX 1966 г.
Формат 84×108$^{1}/_{32}$. Печ. л. 14,5.
Усл. п. л. 24,36. Уч.-изд. л. 36,35.
Тираж 7000 экз. Изд. № 1606.
Зак. № 1588. Цена 1 р. 44 к.

*

Главная редакция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издательства «Наука»
Москва, Центр, Армянский пер., 2

Московская типография № 7 Главполиграфпрома
Комитета по печати при Совете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Пер. Аксакова, 13.